

개치동기출 既出

고3 국어

수능 모의고사 기출 문제집

정답과 해설

01회	2016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해설	3
02회	2015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해설	10
03회	2014학년도 3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해설	19
04회	2017학년도 6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해설	28
05회	2016학년도 6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해설	37
06회	2015학년도 6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해설	47
07회	2017학년도 9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해설	57
08회	2016학년도 9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해설	66
09회	2015학년도 9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해설	76
10회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해설	84
11회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해설	93
12회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해설	102

7%
7%

참고

- ☑ 전 문항 정답률과 선지별 선택비율 표기
- ☑ 전 회 등급컷과 오답률 Best 5 수록

정답과 해설 구성 안내

5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 이해하기

정답 ③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1%	2%	72%	1%	3%
--------------	-----	----	-----	----	----

|해설| <보기>에서 제시한 조언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상대방과 자신의 생각이 다를 때 상대방의 생각에 동의하는 점은 최대한 드러내서 말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이나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딸은 나물 반찬이 몸에 좋다고 생각한다는 동意的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이 오늘 불고기가 먹고 싶었던 이유를 밝히고 있다. 따라서 수정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③이다.

|오답풀이| ① 동意的하는 말을 하고 있으나 자신의 생각에 대한 이유는 밝히지 않고 있다. ② 동意的를 표현하지 않았고, 책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자신의 생각이 어머니의 생각과 다르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④ 동意的를 표현하지 않았고, 나물이 꼭 몸에 좋다고만 할 수 없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⑤ 동意的를 표현하지 않았고, 딸이 고기를 좋아하는 이유를

정답률과 선지별 선택비율 표기
명쾌한 해설과 오답노트

Plus Tip

♣ 선생님 말씀 ♣

☞ <학습 전략>

고등학교에서 화법 공부를 할 때에는 화법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일상 대화 상황이나 공식적인 대화 상황에서 화법 요소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말하기와 듣기의 전략을 담화 상황에서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토의나 토론, 협상, 발표, 대담, 일상 대화 등과 관련하여 학습한 지식을 실제로 잘 적용해 보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을 일상생활에서 활용해 보면서 원활하게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바람직하다.

Plus Tip 학습 전략 제시

I 등급컷

등급	1	2	3	4	5	6	7	8
원점수	88	77	65	53	43	33	23	15
나의 점수	[] 점				[] 등급			

전 회 등급컷과 오답률 Best 5 수록

여기에 나의 점수와 나의 등급을
확인해 보세요.

I 오답률 Best 5

순위	1	2	3	4	5
번호	27	30	19	15	13
오답률[%]	85	83	59	58	53

정답과 해설					본문 5~23페이지
1 ⑤	2 ⑤	3 ④	4 ③	5 ②	
6 ④	7 ④	8 ②	9 ③	10 ⑤	
11 ③	12 ① 또는 ③	13 ⑤	14 ④	15 ①	
16 ③	17 ②	18 ③	19 ③	20 ①	
21 ③	22 ⑤	23 ②	24 ④	25 ②	
26 ②	27 ①	28 ②	29 ③	30 ⑤	
31 ②	32 ③	33 ④	34 ③	35 ①	
36 ④	37 ①	38 ③	39 ⑤	40 ④	
41 ①	42 ③	43 ④	44 ⑤	45 ④	

1 사회자의 역할을 파악한다. 정답 ⑤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3%	1%	0%	3%	91%
--------------	----	----	----	----	-----

[해설] ㉞은 '김 교수'가 든 사례에 대해 사회자가 긍정적으로 반응한 내용이므로, 토의 참여자가 제시한 방안을 실천하는 데 우려되는 점을 언급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사회자는 앞에서 논의한 문제점을 요약하고, '○○동 마을 도서관'의 이용자가 학생들로 한정된 문제점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을 토의 참여자에게 안내하였다. ② 사회자는 '김 교수'가 제시한 방안 중 도서관 기능의 다양화와 관련된 사례를 '김 교수'에게 다시 요청하였다. ③ 사회자는 '김 교수'가 제시한 사례를 듣고 이와 관련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사례를 덧붙였다. ④ 사회자는 '도서관장'이 앞에서 말한 내용을 질문의 형식으로 확인하고 있다.

2 토의 참여자의 발화 내용을 파악한다. 정답 ⑤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2%	7%	2%	85%
--------------	----	----	----	----	-----

[해설] [E]에서 '김 교수'는 '청중'의 요청에 따라 '특정 연령층을 고려한 프로그램의 운영 사례'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청중'이 제기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김 교수'는 앞에서 사회자가 요청한 내용에 따라, 도서관 이용자가 한정되는 문제점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② '김 교수'는 앞에서 사회자가 요청한 내용에 따라, 도서관 기능의 다양화와 관련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③ '도서관장'은 '김 교수'가 제시한 두 가지 방안 중에서 '도서관 기능의 다양화'는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도서관 운영 시간 연장' 방안을 먼저 검토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④ '청중'은 앞에서 '김 교수'가 제시한 '도서관 기능의 다양화' 방안과 관련하여, 특정 연령층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마을 도서관의 사례 제시를 '김 교수'에게 추가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3 토의를 바탕으로 협상 내용을 추론한다.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3%	1%	9%	83%	1%
--------------	----	----	----	-----	----

[해설] '직원 대표'가 한 발언을 통해 볼 때 '도서 대출 기간의 축소'는 협상의 쟁점이 아니므로, ㉞는 '직원 대표'가 협상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발언의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토의에서 '도서관장'은 연장 근무 시간의 조정이 가능하다고 했으므로, ㉞는 협상에서 '도서관장'이 자신의 요구 관철을 위해 제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절하다. ② 토의에서 '도서관장'은 연장 근무 방식의 조정이 가능하다고 했으므로, ㉞는 협상에서 '도서관장'이 자신의 요구 관철을 위해 제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절하다. ③ 토의에서 '직원 대표'는 연장 근무로 인해 퇴근 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어렵다고 했으므로, ㉞는 협상에서 '도서관장'이 자신의 요구 관철을 위해

제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적절하다. ⑤ 토의에서 '직원 대표'는 과도한 연장 근무로 인한 직원들의 피로감을 문제로 제기했으므로, ㉞는 협상에서 '직원 대표'가 요구를 수용하는 데 필요한 조건으로 제시할 수 있다.

4 발표 전 준비과정을 파악한다. 정답 ③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1%	1%	91%	4%	1%
--------------	----	----	-----	----	----

[해설] 학생 발표의 중심 화제라고 볼 수 있는 드론 촬영의 장점이 두 번째 문단과 세 번째 문단에 항공 촬영과의 비교를 통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드론 촬영의 문제점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한편, 일반 항공 촬영의 문제점이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발표 주제를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제시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발표 첫 부분에 '실물 드론을 보여 주며' 부분에서 청중의 관심을 유도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두 번째 문단 '두 개의 영상을 보여 준 후'에서 매체를 통해 정보를 생생하게 전달함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세 번째 문단에서 청중들이 함께 공유했던 '신입생 입학식'의 경험을 환기하여 내용 이해를 돕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두 번째 문단 첫 부분에서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들은 후 그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 드리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말한 부분에서 발표 내용을 조절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5 청중의 평가 양상을 파악한다. 정답 ②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91%	3%	0%	1%
--------------	----	-----	----	----	----

[해설] 두 번째 문단의 '드론 촬영은 ~ 일반 항공 촬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둘을 좀 더 자세히 비교해 보자면'으로 보아, 드론 촬영의 특징을 항공 촬영의 특징과 비교하여 중심내용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드론 촬영 기술과 관련된 과학적 원리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 드론 촬영에 관련된 정보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설명하고 있다. ④ 드론이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음은 설명하였지만, '드론과 관련된 다양한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았다. ⑤ 드론 촬영의 절차에 대한 설명은 제시되지 않았다.

6 글의 조직 계획이 초고에 반영되었는지를 파악한다.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4%	1%	90%	1%
--------------	----	----	----	-----	----

[해설] '초고'에서는 공유경제의 개념(㉠), 공유경제의 출현과 확산 배경(㉡), 공유경제의 목적(㉢), 공유경제 출현 이전과 이후의 차이점, 공유경제에서 공유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차례로 설명하고 있다. 공유경제의 대표적 유형과 관련된 내용은 초고에 나와 있지 않다.

7 자료 활용의 적절성을 판단한다.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7%	10%	75%	4%
--------------	----	----	-----	-----	----

[해설] 초고에서는 공유경제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B]의 자동차 공유 사례는 단독 품목에 대한 공유의 방식을 간략하게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초고의 내용에서 제시된 단계를 품목별로 세분화하는 데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표 1>은 세계 공유경제 규모의 성장 추이를 나타낸 것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게 해 준다. 따라서 첫 번째 문단에서 공유경제가 널리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을 구체화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 ② '신문 기사'의 도입부는 비싼 운동 기구를 사 놓고도 그 비용만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의 사례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공유경제 출현 이전의 상황을 보여 주기에 적합하다. ③ <표 2>는 사람들이 공유를 원하는 품목과 그 비율을 제시한 그래프로, 초고에서 제시된 공유의 대상과 관련하여 그 품목을 추가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⑤ 초고에서 공유경제의 장점은 '공동의 이익 추구를 가능하게 한다'라고만 언급되어 있으므로, 공유경제의 장점을 열거한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 관련 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다.

8 글의 수정 방안을 평가한다.

정답 ②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6%	85%	4%	1%	1%
--------------	----	-----	----	----	----

해설 | ⑥의 '으로써'는 어떤 일의 수단이나 도구를 나타내는 격 조사이다. 맥락상 '접근권'은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는 수단, 방법'으로 볼 수 있으므로, '확보함으로써'는 고칠 필요가 없다.

9 작문 계획의 반영 여부를 확인한다.

정답 ③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1%	3%	92%	1%	0%
--------------	----	----	-----	----	----

해설 | 학생이 쓴 글의 초고에서 '아버지께서 식탁에서 신문을 보고 계셨'다는 언급은 하고 있지만, 신문과 관련하여 가정과 사회에서 아버지가 맡고 있는 역할에 대해 다루고 있지는 않다.

오답풀이 | ① 첫 번째 문단에서 '장갑을 벗어 준 아버지의 마음을 떠올리니 나의 마음도 따뜻해졌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② 첫 번째 문단에서 그림자를 보고 '아버지가 짙어지는 생활의 무게가 참 크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④ 두 번째 문단에서 '아버지의 돋보기안경이 아버지의 희생의 흔적인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⑤ 세 번째 문단에서 지하철을 타고 출근을 하시는 아버지를 떠올리며 '아버지께서 오랜 세월 우리를 위해 힘든 출근길을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생각'을 했다고 서술하고 있다.

10 초고를 점검하고 적절한 내용을 추가한다.

정답 ⑤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3%	2%	1%	1%	91%
--------------	----	----	----	----	-----

해설 | ⑤에서는 '아버지'를 '바람'을 막아 주고 그늘을 만들어 주는 나무'에 비유하여 헌신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였고, 아버지께 감사한 마음을 드러냈다.

오답풀이 | ① '마음의 재산'이라는 표현에서 비유적 표현을 찾을 수 있으나,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라 배려하는 삶의 태도에 대한 다짐을 표현하고 있다. ② '어두운 바다의 등대'라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아버지의 가르침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③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아버지와 추억의 소중함과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 보답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④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성실한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표현하고 있다.

11 음운 변동과 표기법을 파악한다.

정답 ③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8%	9%	29%	23%	28%
--------------	----	----	-----	-----	-----

해설 | '낫다'는 활용할 때 '낫다[낫따], 나[나아]와 같이 음운의 교체와 탈락 현상이 일어난다. 이에 비해 '날다'는 '날다[나타], 날아[나아]와 같이 음운의 축약과 탈락 현상이 일어난다. 따라서 '낫다'와 '날다'가 활용할 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음운 변동은 '탈락'이 된다. 그리고 활용의 유형을 보자면, 같은 'ㅅ' 받침을 가진 '웃다'는 '웃고, 웃지, 웃어서, 웃으니'와 같이 어간과 어미가 규칙적인 데 반해, '낫다'는 '낫고, 낫지, 나아서, 나오니'와 같이 어간의 'ㅅ'이 탈락하므로 불규칙 활용을 한다. 따라서 '낫다'는 활용할 때 일어나는 음운 탈락이 표기에 반영되는 단어이다. 한편, '날다'는 '날고, 날지, 날아서, 날으니'와 같이 규칙 활용을 하는 단어로, 어간의 형태가 변화하지 않는다. 따라서 '날다'는 활용할 때 일어나는 음운 탈락이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 단어이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가)에는 '탈락'이, (나)에는 불규칙 활용이면서 표기에 반영됨을 나타내는 기호 ㉠가, (다)에는 규칙 활용이면서 표기에 반영되지 않음을 나타내는 기호 ㉡가 들어가게 되어 정답은 ③이 된다.

12 합성어의 품사를 파악한다.

정답 ① 또는 ③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53%	5%	4%	31%	5%
--------------	-----	----	----	-----	----

해설 | <보기>의 설명에 따르면, [A]는 합성어를 일차적으로 직접 구성 성분 분석을 했을 때 나오는 구성 성분 중 맨 끝의 구성 성분, 즉 가장 나중 어근의 품사에 따라 합성어의 품사가 결정되는 경우이다. 예컨대, <보기>에서 예로 든 '큰집'을 직접 구성 성분 분석하면, '큰'과 '집'으로 분석되는데, 이 가운데 뒤쪽 어근인 '집'의 품사가 명사이므로, '큰집'의 품사 역시 명사가 된다. 그런데 ④의 '어느새'는 '어느(관형사)'와 '새(명사)'가 결합되어 새로운 품사인 부사가 된 말이므로, [A]의 사례로 볼 수 없다.

오답풀이 | ② '남달랐다'는 형용사로, '남(명사)'과 '다르다(형용사)' 중 나중 어근인 '다르다'의 품사를 따른 것이다. ③ '늦잠'은 명사로, '늦-(형용사 어간)'과 '잠(명사)' 중 나중 어근인 '잠'의 품사를 따른 것이다. ④ '낯선'은 '낯설다'의 관형사형으로 품사는 형용사이다. 이는 '낯(명사)'과 '설다(형용사)' 중 나중 어근인 '설다'의 품사를 따른 것이다. ⑤ '하루빨리'는 부사로, '하루(명사)'와 '빨리(부사)' 중 나중 어근의 품사를 따른 것이다.

13 문장의 짜임을 파악한다.

정답 ⑤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1%	2%	4%	88%
--------------	----	----	----	----	-----

해설 | ⑤의 '그 사람과 나는 오래 전부터 서로 사귀어 왔다.'에는 ①~④와 같이 '와/과'가 사용되었지만, 이 문장은 두 개의 출문장, 즉 '그 사람은 오래 전부터 서로 사귀어 왔다.'와 '나는 오래 전부터 서로 사귀어 왔다.'로 분리되지 않는다. 이 문장에 쓰인 '과'는 행위의 상대임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로, <보기>의 설명대로 서술어가 '사귀어 왔다' 하나이므로 ⑤는 이어진 문장이 아닌 출문장이다.

오답풀이 | '이어진문장'이란 '이것은 장미꽃이고, 저것은 국화꽃이야.'처럼 둘 이상의 출문장이 이어진 것으로, 이때 서술어의 개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이어진 출문장의 개수와 같다. 그런데 <보기>에 제시된 문장의 경우, 서술어의 개수가 하나뿐이어서 출문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 출문장이 결합된 이어진문장이다. 이처럼 주어나 목적어, 부사어 등의 특정 문장성분들이 접속 조사 '와/과'에 의해 이어져 출문장처럼 보이는 이어진문장이 있는데, ①~④가 여기에 해당한다. 하나씩 살펴보면, ①은 '나는 시를 좋아한다.'와 '나는 소설을 좋아한다.'가, ②는 '그녀는 집에서 공부했다.'와 '그녀는 도서관에서 공부했다.'가, ③은 '고향의 산은 예전 그대로였다.'와 '고향의 하늘은 예전 그대로였다.'가, ④는 '성난 군중이 앞으로 들이닥쳤다.'와 '성난 군중이 뒷문으로 들이닥쳤다.'가 각각 결합된 이어진문장이며, 이때 쓰인 '와/과'는 접속 조사이다.

14 유의어의 의미와 쓰임을 파악한다.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2%	5%	86%	3%
--------------	----	----	----	-----	----

해설 | '극'의 첫 번째 예문을 보면 '속'이 신체에 대해 쓰였으므로, ④에서 '속'이 추상적인 대상을 가리킬 때 쓰인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 ① '기'를 보면 '속'과 '안'은 '건물 {속/안}'으로 들어가다.'와 같이 공통적으로 쓰인다는 점에서 '사물이나 영역의 내부'라는 공통 의미를 지닌 유의어라 할 수 있다. ② '느'를 보면 시간적 범위를 나타낼 때는 '속'이 아니라, '안'이 쓰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③ 'ㄷ'처럼 사람의 마음이나 태도 등을 나타내는 관용구에는 '안'이 아니라 '속'이 쓰이는 것을 볼 수 있다. ⑤ 'ㄹ'의 첫 번째 예문에서는 '속'과 '걸'의 대립 관계를, 두 번째 예문에서는 '안'과 '바깥'의 대립 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속'은 '걸'과 반의 관계를, '안'은 '바깥'과 반의 관계를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

15 문장의 문법적인 정확성을 파악한다.

정답 ①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60%	10%	7%	15%	5%
--------------	-----	-----	----	-----	----

해설 | '모름지기'는 '~ 해야 한다'와 호응하므로, ①은 '고등학교생이라면 모름지기 그 정도는 다 할 줄 알아야 한다.' 정도로 수정되어야 바른 문장이 된다. 그러나 성문간의 호응 문제는 <보기>에서 제시한 '문법적으로 바르지 않은 문장 유형'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풀이 | ②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다.'와 같이 수정할 수 있는 문장으로, '연결어미가 의미에 맞게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③은 '그 시설은 지금 민간에 위탁 운영되고 있다.'와 같이 수정할 수 있는 문장으로 <보기>의 '피동 표현이 중복되어 과도한 피동이 된 경우'에 해당한다. ④는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텔레비전을 보거나 라디오를 듣는다.'와 같이 수정할 수 있는 문장으로, '목적어에 대응하는 서술어가 잘못 생략된 경우'에 해당한다. ⑤는 '어머니에게 외할머니가 높임의 대상이므로, 서술어 '드린'에 맞추어 높임의 격 조사 '께'를 써야 한다는 점에서 '높임 표현이 적절하게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16-19] (인문)

지문 분석

아담 스미스, 『도덕 감정론』

지문 해제 인간의 동감 능력을 바탕으로 도덕의 원리를 설명한, 아담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을 소개하고 있는 글이다. 한 개인은 공평한 관찰자로서 타인의 감정과 행위에 대해 동감하게 되면, 그것을 도덕적인 것으로 승인하게 된다. 이타적인 행위만이 아니라 이기적인 행위도 공평한 관찰자의 동감을 받을 수 있다면 도덕적인 것이 될 수 있으며, 사회의 존립을 위해서는 공평한 관찰자가 동감할 수 있는 범위까지 이기적 행위를 억제하는 정의가 준수되어야 한다.

16 글의 논지 전개 방식을 파악한다. 정답 ③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3%	1%	89%	4%	1%
--------------	----	----	-----	----	----

해설 | 이 글은 '동감'이라는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아담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17 글의 세부 정보를 파악한다. 정답 ②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4%	75%	8%	4%	7%
--------------	----	-----	----	----	----

해설 | 이 글에서는 개인이 이기적인 감정을 느끼거나 이기적인 행위를 하게 되는 이유에 대한 아담 스미스의 견해를 확인할 수 없다.

오답풀이 | 각 질문에 대한 아담 스미스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① 이기적인 행위도 공평한 관찰자의 동감을 얻을 수 있다면 도덕적인 것으로 승인받을 수 있다. ③ 이성이나 도덕 감정, 특히 동감 능력에서 사회 질서의 원리를 찾고 있다. ④ 관찰자는 행위자가 직면한 상황과 처지 속에서 자신이라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를 상상해 본다. ⑤ '가상의 공평한 관찰자' 혹은 '마음속의 이상적 인간'이라고 표현된 추상적 존재이다.

18 다른 글과 비교하여 핵심 내용을 파악한다. 정답 ③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7%	3%	70%	5%	13%
--------------	----	----	-----	----	-----

해설 | <보기>에서의 동감 능력은 '유용성'을 기준으로 행위에 대한 감정을 촉발하는 것이라면, 아담 스미스의 동감 능력은 '적정성'을 기준으로 감정을 촉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유용성을 기준으로 하여 행위에 대한 감정을 촉발한다.'는 것은 이 글의 ㉠과 <보기>에 나오는 [A]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없다.

오답풀이 | ① 이 글의 첫째 문단에는 '개인에 내재하는 선천적인 도덕 감정'이 언급되어 있으며, <보기>에서는 '마음속으로 함께 느끼는 능력을 타고났기 때문'이라고 언급되어 있으므로, ㉠과 [A] 모두 노력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선천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② 이 글의 둘째 문단에는 '동감은 관찰자가 상상에 의한 역사사지를 통해 행위자와 감정 일치체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나와 있으며, <보기>에서는 '우리가 타인의 행과 불행을 마음속으로 함께 느끼는 능력'이라고 나와 있으므로, ㉠과 [A] 모두 타인의 감정을 다른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④ 이 글의 여섯째 문단에는 '정의는 사회 존립의 기초가 되는 것이며, 이러한 정의를 존재케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도덕 감정, 즉 동감'이라고 했으며, <보기>에서는 '이러한 능력이 인간의 도덕적 행위를 이끌어내어 개인의 행복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공존과 번영을 가져오게 된다.'라고 했으므로, ㉠과 [A] 모두 개인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공존을 위해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⑤ 이 글의 넷째 문단에서는 '행위자의 행위는 이타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기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공평한 관찰자의 동감을 얻을 수 있다면 도덕적인 것으로 승인받을 수 있다.'라고 했으며, <보기>에서는 '행위에 대한 도덕 판단은 쾌, 불쾌의 감정과 관련'되고 '자신에게 유익한 것뿐만 아니라 남에게 유익한 행위에 대해서도 쾌의 감정이 일어난다고 했으므로, ㉠과 [A] 모두 이타적 행위는 물론 이기적 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할 때에도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19 핵심 정보의 전제를 파악한다. 정답 ③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6%	2%	56%	20%	13%
--------------	----	----	-----	-----	-----

해설 | ㉠의 핵심은 사회의 존속을 위해 자해보다 정의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아담 스미스는 공평한 관찰자의 동감을 얻을 수 있는 범위까지 이기적 행위가 억제되

는 것을 정의라 하였으며, 정의가 지켜지지 않으면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 명예 등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정의에 대한 처벌이 엄격히 규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진술은 동감을 얻을 수 없는 이기적 행위가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이다.

[20-23] (사회)

지문 분석

이종화, 신관호 『거시경제학』 정운찬, 김영식 『거시경제론』

지문 해제 경기 변동 이론의 주원인에 대한 여러 견해를 설명하는 글이다. 1970년대 이전에는 민간 기업의 투자 지출 변화에 의한 총수요 측면의 충격을 경기 변동의 주원인으로 보았으나, 1970년대 이후 정부의 자의적인 통화량 조절이 경기 변동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후 루카스는 '합리적 기대'를 하는 경제 주체들이 불완전한 정보로 인해 잘못된 판단을 함으로써 경기 변동이 일어난다는 '화폐적 경기 변동 이론'을 주장한다. 그리고 루카스에 대한 비판으로 '실물적 경기 변동 이론'이 나타나고, 최근 일부 학자들은 해외 부문을 경기 변동의 원인으로 거론하고 있다.

20 글의 전개 방식을 파악한다. 정답 ①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82%	5%	2%	5%	4%
--------------	-----	----	----	----	----

해설 | 이 글은 경기 변동의 주원인에 대한 여러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먼저 1970년대 이전의 견해와 1970년대 이후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그 다음에 루카스의 '화폐적 경기 변동 이론'을 소개하고, 이어서 루카스의 견해에 대한 비판을 제시한 뒤, '실물적 경기 변동 이론'과 해외 부문을 경기 변동의 중요한 요소로 거론하는 최근의 견해에 대해 순차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오답풀이 | ② 3문단과 4문단에서 경기 변동이 일어나는 과정을 가상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으나, 경제 주체들이 대응하는 방식을 대조하고 있지 않다. ③ 이 글은 경기 변동을 촉발하는 주원인에 대해 여러 견해를 소개하고 있을 뿐, 경기 변동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고 있지는 않다. ⑤ 5문단을 보면 생산량이 증가하면 경기가 상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경기 변동으로 인한 생산량의 변화가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예측하고 있지 않다.

21 세부 내용을 파악한다. 정답 ③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3%	3%	83%	5%	4%
--------------	----	----	-----	----	----

해설 | 5문단을 보면 실물적 경기 변동 이론에서 경기 변동의 주원인을 기술 혁신, 유가 상승과 같은 실물적 요인으로 설명한다고 한다. 유가가 상승하면 기업은 생산 과정에서 에너지를 덜 쓰게 되므로 고용량과 생산량이 줄어든다고 하였으므로, 유가 상승이 생산 과정에서 쓰이는 에너지를 감소시켜서 생산량을 늘리는 실물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본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 ① 1문단을 보면 경제가 장기적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국가라 하더라도 경기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고 하였으므로,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국가에서도 실질 GDP가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기간이 있을 수 있다. ② 2문단을 보면 1970년대까지는 경기 변동이 일어나는 주원인을 민간 기업의 투자 지출 변화에 의한 총수요 측면의 충격에 있다는 견해가 우세하였는데, 이 입장에서는 정부가 적절한 총수요 관리 정책을 실시하면 경기 변동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민간 기업의 투자 지출 변화에서 오는 충격을 경기 변동의 주원인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정부의 적절한 총수요 관리 정책을 통해 경기 변동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본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④ 5문단을 보면 루카스의 견해로는 대규모의 경기 변동은 모두 설명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일부 학자들이 경기 변동의 주원인을 실물적 요인에서 찾는 '실물적 경기 변동 이론'을 주장하였다고 했으므로, 실물적 경기 변동 이론에서는 대규모로 일어나는 경기 변동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화폐적 경기 변동 이론을 비판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⑤ 6문단을 보면 세계 각국의 경제적 협력이 밀접해지면서 각국의 경기 변동이 서로 높은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한다. 상관관계란 두 가지 가운데 한쪽이 변화하면 다른 한쪽도 따라서 변화하는 관계이므로, 경제적 협력이 밀접한 두 국가 사이에서 한 국가의 경기 변동이 다른 국가의 경기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22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상황을 추론한다.

정답 ⑤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10%	13%	3%	6%	66%
--------------	-----	-----	----	----	-----

해설 | '선생님'은 '화폐적 경기 변동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 루카스가 설명한 '가상의 사례'를 들어 금융 당국의 통화량 조절 정책의 효과를 신뢰하지 않았던 그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 루카스의 가상의 사례에서 나오는 기업은 합리적 기대를 하는 경제 주체로 통화량 증가로 인해 상품 가격이 상승하였을 때 이를 자신들의 상품에 대한 선호도 변화로 판단하여 상품 생산량을 늘린다. 그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잘못된 판단임을 깨닫고 생산량을 줄인다. 선생님의 설명에서와 같이 경기 상승을 위해 금융 당국에서 통화량 증가 정책을 시행하면 기업들은 이 글의 '가상의 사례'에 나오는 기업처럼 초기에는 상품 생산량을 늘렸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선생님'의 설명에 따르면 합리적 기대를 하는 경제 주체들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여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줄여 나간다고 한다. 결국 기업은 통화량 증가 정책이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경우, 상품 생산을 늘렸다가 줄였던 경험을 통해 상품 가격이 상승한 원인을 통화량 증가 정책으로 인한 것이라 판단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A]에는 기업들이 자기 상품의 가격이 상승할 때 이를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상승한 것으로 판단하여 생산량을 늘리지 않으려 한다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 ① 3문단을 보면 루카스는 경제 주체들을 항상 '합리적 기대'를 하는 존재로 보고 있으므로, 자신들의 합리적 기대와 무관하게 생산량을 늘리려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통화량이 계속 증가하면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계속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 기대를 하는 기업에서는 생산량을 늘리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④ 4문단을 보면 기업에서는 상품 가격의 상승 원인을 소비자의 선호도 변화로 판단하면 생산량을 늘리게 된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통화량 증가 정책이 시행된 초기에는 자신들의 상품 가격이 상승한 원인을 소비자의 선호도 변화로 판단하여 생산량을 늘릴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반복적으로 시행되면 상품 가격의 상승을 소비자의 선호도 변화가 아니라 정부의 통화량 증가 정책에 따른 전반적인 물가 수준의 상승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선호가 수시로 바뀔 수 있다고 보고 생산량을 늘리지 않는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3 단어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한다.

정답 ②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3%	77%	3%	2%	11%
--------------	----	-----	----	----	-----

해설 | '경기 변동이 일어나는'에서 '일어나다'는 '어떤 일이 생깁다'라는 의미이다. 이와 문맥적 의미가 유사한 것은 '싸움이 일어난'의 '일어나다'이다.

오답풀이 | ①, ⑤ '약하거나 희미하던 것이 성하여지다.'라는 의미이다. ③ '어떤 마음이 생깁다.'라는 의미이다. ④ '몸과 마음을 모아 나사다.'라는 의미이다.

[24-26] (예술)

지문 분석

장민한, 「아서 단토의 미술종말론과 그 근거로서 팝아트의 두 가지 함의」

지문 해제 현대 예술 철학의 대표적 이론가인 아서 단토의 예술 종말론에 대해 다루고 있는 글이다. 단토는 〈브릴로 상자〉를 계기로 예술의 본질을 찾는 것에 몰두했으며, 그 결과 예술 작품은 '무엇에 관한'과 '구현'이라는 요소를 필수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또한 그는 예술의 역사에 대한 통찰을 통해, 당대 예술 상황을 주도하는 지식과 이론, 태도 등을 포괄하는 체계인 '예술계'를 바탕으로 예술 작품은 그 지위를 가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단토는 예술의 역사를 '내러티브'의 역사로 파악하고 예술이 철학적 단계에 이룸에 따라 그 이전의 내러티브가 종말에 이르렀다고 본다. 단토의 예술 종말론은 예술에 대한 비극적 선언이 아니라 예술 해방기의 도래를 천명한 예술에 대한 낙관적 전망으로 해석할 수 있다.

24 글의 내용을 파악한다.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2%	5%	86%	3%
--------------	----	----	----	-----	----

해설 | 이 글에는 단토가 예술계의 지위 회복 방법을 제안했다는 내용이 없다.

오답풀이 | ① 넷째 문단에서 단토가 파악한 내러티브로서의 예술사에 대해 다루고 있다. ② 첫째 문단에서 단토가 예술 종말론을 주장하게 된 계기를 밝히고 있다. ③ 다섯째 문단에서 단토의 예술 종말론이 지닌 긍정적 함의에 대해 다루고 있다. ⑤ 둘째 문단에서 단토가 제시한 예술 작품이 갖추어야 할 필수 조건에 대해 밝히고 있다.

25 글의 내용을 이해한다.

정답 ②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9%	60%	11%	14%	4%
--------------	----	-----	-----	-----	----

해설 | 단토는 〈브릴로 상자〉를 계기로 예술의 본질을 찾는 데 몰두하였고, 그 결과 예술 작품은 '무엇에 관한'과 '구현'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필수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예술계'를 바탕으로 예술 작품이 그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단토가 예술 작품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정의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 ① 오늘날의 예술은 철학적 단계에 이르렀으므로 감각으로 경험하는 것을 넘어 철학적으로 사고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③ 예술 작품은 당대 예술 상황을 주도하는 지식과 이론, 태도 등을 포괄하는 체계에 의해 예술 작품으로 인정받는다. ④ 재현의 내러티브는 르네상스 시대부터 인상주의까지 이어진 것으로, 예술의 종말 이전의 내러티브이다. ⑤ 예술 작품은 예술계에 의해 예술 작품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예술계가 달라지면 예술 작품이었던 것이 예술 작품이 아닌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26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른 상황에 적용한다.

정답 ②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6%	58%	11%	8%	14%
--------------	----	-----	-----	----	-----

해설 | (B)는 미술 작품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으로, 예술에 대한 철학적 의문을 드러내지 못한다. (A) 역시 '바자리의 내러티브', 즉 예술이 철학적 단계에 이르기 이전의 내러티브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예술에 대한 철학적 의문을 드러내지 못한다.

오답풀이 | ① (A)는 인상주의 화가인 세잔의 작품으로, 재현을 예술의 목적으로 보았던 '바자리의 내러티브'에 의해 미술 작품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③ (C)는 〈브릴로 상자〉와 같이 예술의 종말을 보여주는 예술 작품으로, 예술이 추구해야 할 방향이 없는 시기라는 것을 말해 준다. 다시 말해, 예술이 철학적 단계에 이르러 그 이전의 내러티브가 종결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④ 어떤 대상을 예술 작품으로 식별하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예술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⑤ (B)는 〈세잔 부인의 초상〉의 양감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일상의 것으로서, 해석되어야 할 주제를 가지지 않는다.

[27-30] (과학)

지문 분석

권민정 외, 『파동과 음파』

지문 해제 매질을 통해 진동이 에너지로서 전파되는 파동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매질을 따라 진행하는 파동이 매질의 변화를 만나게 되면 어떤 영향을 받는지 설명하고, 반사와 투과라는 대표적인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27 글의 세부 정보를 파악한다.

정답 ①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89%	2%	2%	2%	2%
--------------	-----	----	----	----	----

해설 | 셋째 문단에서 파동의 속도가 일정하면 주파수가 높을수록 파장이 짧다는 특성이 있다고 설명되어 있다. 따라서 파동의 진행 속도가 동일하다면 낮은 주파수의 파동일수록 파장은 길게 된다.

오답풀이 | ② 둘째 문단에서 진폭은 평형점 0에서 마루나 골까지의 높이, 즉 진동하는 입자가 평형점에서 최대로 벗어난 거리라고 제시되어 있다. ③ 첫째 문단에서 파동의 개념이 '공간이나 물질의 한 부분에서 생긴 주기적 파동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위로 멀리 퍼져 나가는 현상'이라고 제시되어 있다. ④ 첫째 문단에서 파동의 에너지는 매질을 따라 전달된다고 제시되어 있다. ⑤ 마지막 문단에서 파동의 에너지는 진폭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28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적 사례에 적용한다.

정답 ②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7%	49%	22%	12%	6%
--------------	----	-----	-----	-----	----

해설 | 셋째 문단에서 음파의 경우 주파수가 높을수록 매질에 더 잘 흡수되어 멀리 진행하지 못한다고 설명되어 있다. 음파에 해당하는 초음파 역시 이러한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시험체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더 멀리 진행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낮은 주파수의 초음파를 쓰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마지막 문단에서 입사한 파동의 에너지 중에서 일부분만 포함하는 반사파의 진폭은 줄어들게 된다고 되어 있다. ③ (나)에서 ㉠가 ㉡보다 입사파의 세기에 대한 상대적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으므로, 바닥에서 더 많이 반사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시험체와 바닥의 음파 저항의 차이가 더 컸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④ <보기>에서 (나)의 가로축은 반사파가 감지된 시간을 거리로 환산하여 보여 준다고 되어 있다. ⑤ 셋째 문단에서 파동은 진행하면서 에너지가 매질에 흡수되기도 한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파동이 반사파와 투과파로 나누어질 때 다른 에너지 손실이 없다면 에너지를 나누어 가지게 된다고 설명되어 있다.

29 글의 핵심 내용을 이해한다. 정답 ③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8%	3%	75%	5%	6%
--------------	----	----	-----	----	----

|해설| ㉠은 줄이라는 매질과 벽의 고정단에서 파동이 달라지는 현상을 보여 주고 있으며, ㉡은 밀도가 다른 매질의 경계에서 파동이 달라지는 현상을 보여 주고 있다.

|오답풀이| ① 두 상황은 모두 매질의 변화에 따른 역학적 파동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으므로, 역학적 파동으로 인한 매질의 특성 변화를 보여 준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셋째 문단에서 역학적 파동은 진행하면서 매질에 흡수되어 에너지를 잃기도 한다고 제시되어 있는데, 이로 미루어 볼 때 두 상황에서 역학적 파동의 에너지가 증가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마지막 문단에서 역학적 파동의 에너지와 진폭은 관련된다고 설명되어 있는데, 두 상황에서 에너지의 증가를 고려하기는 어렵다. ⑤ 두 상황은 모두 매질에서 파동이 진행하면서 겪는 변화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30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파악한다. 정답 ⑤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1%	4%	1%	89%
--------------	----	----	----	----	-----

|해설| '손실'은 '잃어버리거나 축이 나서 손해를 봄. 또는 그 손해.'라는 뜻의 단어이다. '일을 잘못하여 뜻한 대로 되지 아니하거나 그르침.'을 뜻하는 단어는 '실패'이다.

[31-33] (희곡)

지문 분석

○이강백, 「봄날」

지문 해제 「봄날」은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 간의 갈등을 설화적 시공간의 사건으로 환원시킨 작품이다. 극의 초반부에서는 재산을 움켜쥐고 가족 구성원 위에 군림하는 탐욕스러운 아버지와, 이런 아버지에게 순종하면서 동생들을 어머니처럼 보살피는 장남, 병약한 막내, 그리고 아버지의 강요로 끊임없는 농사일에 내몰리는 차남부터 육남까지의 다섯 아들들로 구성된 가족 관계가 제시된다. 다섯 아들들은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끊임없이 표출하지만 장남은 동생들을 달래면서 아버지를 설득하여 아들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겠다는 다짐을 받아낸다. 그러나 다섯 아들들은 아버지를 속여 재산을 빼앗아 달아나기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다. 재산을 모두 잃고 쇠약해진 아버지는 탐욕스러웠던 자신의 지난날을 후회하면서 아들들을 그리워하고, 아들들 역시 아버지에게 맞섰던 자신들의 행위를 반성한다. 작품의 제목인 「봄날」은 그 계절이 지나는 상징적 의미와 관련되어, 세대 간의 갈등과 세대 교체의 과정이 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드러낸다.

31 작품의 내용을 파악한다. 정답 ②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3%	91%	1%	2%	1%
--------------	----	-----	----	----	----

|해설| '형님에겐 미안해.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조금씩만 나눠줬어도 이런 일은 안 당할 텐데……'라는 '차남'의 대사에서, '차남'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장남'에게 미안함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남'에 대한 원망의 감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장남'은 땅을 아들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는 '아버지'의 약속을 '아버지'에게 상기시키면서,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아까 약속하셨던 걸 모두에게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 땅을 나눠 주신다고 다짐하세요'와 같은 '장남'의 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삼남'은 '이걸 봐! 백운사 스님들이 가르쳐 준 대로 잘 됐지?'라는 대사와 함께 젊어지는 약을 가지고 나온다. 이 약을 먹으면 젊어진다는 것은 아버지를 속이기 위한 거짓말이다. '삼남'은 '백운사 스님들'을 언급하면서 자신들이 준비한 두 개의 대접을 아버지에게 권하고 있다. ④ '자식들'은 '아, 그건 내가 젊어진 뒤 다짐해도 늦진 않아'라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저걸 봐, 저러니깐 믿을 수 없지!'라며, 아버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⑤ '자식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아 달아난 '봄'이 지나간 뒤의 여름, 쇠약해진 아버지는 '막내', 그와 짝을 이루어 아이를 가진 '동녀', 그리고 동녀의 '큰아주머니'인 '장남'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

32 외적 준거에 따른 이해의 적절성을 판단한다. 정답 ③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5%	10%	76%	3%	4%
--------------	----	-----	-----	----	----

|해설|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조금씩만 나눠줬어도 이런 일을 안 당할 텐데'라는 차남의 대사는, 아버지의 탐욕 때문에 갈등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상황 인식을 드러낸다. 따라서 이 대사에서 아버지와 갈등에 대한 후회가 드러난다는 선지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재산을 차지하고 '자식들'에게 농사일을 강요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보기>에서 자신의 권력을 최대한 유지하고자 하는 '아버지 세대'에 대응하는 것으로, 이는 곧 '아들 세대', 즉 '자식들'에게 도전의 대상으로 규정된다. ② 젊어지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욕심은 <보기>에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아버지 세대'의 모습에 상응하는 것으로, 결국 '아버지'의 이러한 욕심은 '자식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아 달아나는 극단적인 행위를 유발하게 된다. ④ 여름날의 대청마루에 걸터앉은 '아버지'의 쇠약한 모습은, '아들 세대'와의 갈등이 끝나고 기존에 지녔던 권력을 상실하게 된 '아버지 세대'의 모습을 표상한다. ⑤ '이렇게 살고 가면 되는 것을……'이라고 말하는 아버지의 대사는, 세대교체 과정이 계절의 흐름처럼 자연스럽게 순환되는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자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3 무대 공간 사용의 효과를 이해한다.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5%	11%	5%	64%	13%
--------------	----	-----	----	-----	-----

|해설| ㉠에서 '차남'이 읽는 '편지'는 '아버지'에게 보내고자 하지만 부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그 내용은 ㉡에서 진행된 [9장]의 사건과 밀접한 연관을 지닌다. 한편 차남의 대사는 ㉢의 관객들을 대상으로 발화되어, 관객들이 '차남'의 속마음을 짐작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의 내용이 관객의 공감을 유도하면서 ㉡에서 진행되는 사건 전개에 영향을 끼친다는 선지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에서 진행되는 [9장]과 [10장]의 사건은 가족들의 고향집을 배경으로 각각 어느 봄과 뒤이은 여름에 일어난 일로 제시된다. ㉠의 등장인물들은 이 시공간을 떠나 과거의 일을 회상하는데, 이는 '세월이 유수와 같이 흘렀'거나 '고향집을 떠난 사람'과 같은 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에서 '편지를 써서 보내고 싶어 했지만 한 번도 보내지는 못했다'는 '차남'의 대사는 자신의 행동을 극중 인물 이 아닌 ㉢의 관객을 향해 설명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③ ㉡에서 제시된 편지 중 '그 봄날'에 '저희 자식들'은 조금했었고 '아버지'는 인색했었다는 구절과, '그 봄날이 아스란히 멀게만 느껴진다'는 구절에서, '차남'이 지닌 당시 사건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에서 '차남'은 '아버지'를 자신을 억압하는 대상으로 인식하지만, ㉠의 '차남'은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면서 '아버지'를 찾아가고 싶다는 소망을 표출하고 있다.

[34-36] (현대소설)

지문 분석

이청준 「소리의 빛」

지문 해제 이 작품은 「서편제」, 「선학동 나그네」와 함께 연작으로 구성된 「남도 사람」 중 한 편이다. 한의 자리를 찾아 헤매던 이복 오라비와 소리꾼 누이가 만나 하룻밤 소리판을 벌이지만, 서로 오누이임을 알면서도 그냥 헤어지는 사건을 중심으로, 한(恨)의 생명력을 풀어 본 소설이다. 제시문의 종락 이전 부분은 오누이가 주막에서 과거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고, 종락 이후 부분은 '사내'가 길을 떠나버린 뒤 '여자'가 주막에서 '천 씨'와 이야기를 나누는 부분으로, '오라비'에 대한 기억과 지난밤 '오라비'와 장단을 맞추었을 때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34 작품의 서술상 특징을 파악한다. 정답 ③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3%	4%	80%	7%	4%
--------------	----	----	-----	----	----

|해설| 종락 이전 부분은 사내(오라비)와 여자의 대화로 사내가 자신의 과거 사연을 오누이에게 전달하고 있고, 종락 이후 부분은 주막집 주인 천 씨와 여자의 대화로 여자가 자신의 과거 사연을 천 씨에게 전달하고 있다.

오답풀이 | ①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상황이 드러나고 있으므로, 내적 독백을 통해 인물 사이의 갈등이 전달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종락 이전 부분과 종락 이후 부분은 모두 주막집에서의 대화로, 동시에 일어난 사건들의 병렬적 구성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서술자가 동일한 사건에 대한 인물들의 다른 기억을 대조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⑤ 서술자가 인물 간의 갈등을 다각적으로 조명한 부분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서술자는 종락 이전 부분에서는 오라비의 기억을 서술하고 있고, 종락 이후 부분에서는 천 씨와 여자의 대화 장면을 간단히 설명해 줄 뿐이다.

35 작품의 사건을 파악한다. 정답 ①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70% 5% 7% 11% 5%

해설 | 종락 뒷부분의 '어젯밤 손님이 그때의 오라비라고 장담을 할 수는 없지 않은가'라는 서술을 통해 천 씨가 '사내(오라비)'를 '여자'의 오빠라고 알았다는 진술이 잘못된 이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풀이 | ② 천 씨의 '자네를 알아보기도 오라비는 어째서 끝내 오라비라는 소리 한마디 못해 보고 그렇게 허망히 떠나가고 말았던 말인가'에서 '여자'와 '사내(오라비)'가 자신들의 관계에 대해 말하지 않고 헤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손님이 소리를 찾아다니게 된 내력을 말했을 때는 다시 의심할 여지도 없었고요. 하지만 정말 오라버니 소리가 목에까지 솟아오를 뻔한 것은 복채를 손님께 내어 드리고 나서 제 소리가 오라비의 장단을 만났을 때였답니다'에서 여자가 '사내(오라비)'가 자신의 오빠임을 알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소년의 어머니는 땅덩이가 꺼져 내려앉는 듯한 길고도 무서운 북동 끝에 흙사 핏속에서 쏟아내듯 작은 살덩이 계집아이 형상 하나를 낳아놓고는 그날 새벽으로 그만 영영 눈을 감아 버린 것이었다'. '사내가 핏덩이 같은 갓난애와 소년을 데리고 이 고을 저 고을로 소리를 하며 바꾸걸을 다니고 있었을 때'에서 여자가 어머니 없이 아버지 손에서 길러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천 씨의 말에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여자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다.

36 외적 준거를 통해 작품을 감상한다.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9% 11% 4% 70% 4%

해설 | <보기>에서 '햇덩이'는 '과정만 존재하는' '예술(가)의 길'을 상징하는 이미지라고 진술되어 있다. 이렇게 볼 때, '예술(가)의 길'은 그것을 구성하는 과정만 있을 뿐 끝이 없다. 이는 '노인'이든 '사내'든 그들이 추구하는 예술에는 절대적 경지가 존재할 수 없음을 이야기한다. 따라서 '오라비의 솜씨'와 '노인의 솜씨'는 모두 절대적 경지에 '도달'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

오답풀이 | ① '사내'는 과거에 보았던 '햇덩이'의 이미지를 찾아 '소리를 찾아다니'고 있다. 이는 <보기>에서 말하는 '예술(가)의 길'의 알레고리적 표현이며, 따라서 '소리', 혹은 '햇덩이'로 상징되는 '끊임없이 추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② '사내'는 끊임없이 '소리를 찾아다니는' 인물이다. 따라서 노인에 대한 적대감에도 불구하고, '소리'로 상징되는 노인을 해치는 것은 '소리를 훼손하는 것일 수 있으므로 노인을 해칠 수 없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③ <보기>에서 '예술(가)의 길'은 시련과 고통의 연속일 수 밖에 없는 끊임없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리의 고통스런 얼굴'은 '소리에 달고자 하는 '사내'의 '시련과 고통'으로 해석할 수 있다. ⑤ '사내'가 '소리'로 상징되는 '노인'을 떠났지만, '운명적으로 소리를 찾아다니는' 것은 그가 예술가의 길을 떠날 수 없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37-39] (현대시 복합)

지문 분석

(가) 고은, 「머슴 대길이」

지문 해제 어린 시절 고향 마을에서 함께 살았던 '머슴 대길이'에 대한 추억을 노래한 시이다. 화자는 어린 시절에 자신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던 '대길이 아저씨'를 추억하며, 그가 자신에게 '불빛'이 되어 준 소중한 존재였음을 노래한다.

(나) 신경림, 「즐거운 나의 집」

지문 해제 자신이 타고 자란 근원적 공간인 '나의 집'에 대한 인간의 본원적인 애착을 노래한 시이다. '나의 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화자는 어른이 되면서 '나의 집'을 떠나 더 넓은 세상을 찾아 떠돌게 되지만, 결국 화자는 가족들과 함께한 유년의 따뜻한 기억의 '그림'에 이끌려 '나의 집'으로 심리적인 회귀를 하게 되었음을 노래한다.

37 두 작품의 공통점을 파악한다. 정답 ①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82% 3% 6% 2% 4%

해설 | (가)와 (나)에는 모두 과거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화자의 목소리가 드러나 있다.

오답풀이 | ② 화자가 소망하는 가상의 상황은 두 작품에 모두 나타나 있지 않다. ③ 대화체의 어조는 (가)에서 일부 나타나지만, (나)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④ 자신의 일상적 삶을 반성하는 화자의 모습은 두 작품에 모두 나타나 있지 않다. ⑤ 두 작품은 모두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이동하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지 않다.

38 시의 내용을 감상한다. 정답 ③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4% 13% 70% 8% 3%

해설 | '대길이가 아저씨'는 현실 생활에 충실한 삶을 살았으며, 이웃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따뜻한 시선을 갖고 있었던 인물로, 현실 세계를 벗어난 순수한 자연의 세계를 동경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 ① '대길이가 아저씨'에게 배운 한글을 통해 '세상에 눈떴다'는 것은 화자가 세상을 알아갈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② 머슴이었던 '대길이가 아저씨'에게 마을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는 것은 마을 사람들에게 '대길이가 아저씨'를 존중하는 태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④ '남하고 사는 세상'을 강조한 '대길이가 아저씨'의 말에서 이기적인 삶을 멀리하고자 했던 대길이가 아저씨의 가치관이 화자에게 전달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⑤ '대길이가 아저씨'가 화자에서 '불빛'이 되어 주었다는 것은, 그가 화자에게 삶의 방향을 이끌어 준 인물이었음을 의미한다.

39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시를 감상한다. 정답 ⑤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3% 2% 5% 5% 82%

해설 | '할아버지보다도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아지면서 나는 나의 이 집이 좋아졌다.'고 했으므로, '나의 집'으로 이끄는 힘이 더 강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틀 속에서 벗어나 살아갈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고 하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 ① '사랑방 건넌방 헛간 안방'은 가족들이 머물던 공간이었으므로, 이곳을 오가며 놀이를 즐겼다는 것은 가족들이 감싸주는 공간에서 즐거운 유년 시절을 보낸 화자의 모습을 떠오르게 한다. ② 화자가 '이 그림 속에서' '더없이 행복하다'고 한 것은 가족들의 여러 방을 오가면서 즐거운 놀이를 하며 보낸 유년의 따뜻한 기억의 '그림'이 화자에게 그대로 남아 본원적인 애착을 유발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③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외지로 떠돈 것은 '이 틀 속에서 벗어나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고자 했던 화자의 욕망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④ '딴 세상을 헤매다가도 돌아오면 다시 그 자리니'는 화자가 '나의 집'을 벗어나기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근원적 공간인 그 '집'으로 심리적인 회귀를 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40-42] (고전소설)

지문 분석

김만중, 「사씨남정기」

지문 해제 이 작품은 17세기 후반 김만중에 의해 창작된 한글소설이다. 주인공 '사 씨(사정옥)'는 현숙한 인물로 '유한림'과 혼인하여 안정된 결혼생활을 하거나 후사를 위해 들인 첩 '교 씨'의 음모로 가문에서 쫓겨난다. 사 씨는 고난을 겪다 목숨이 위태로워지기도 하나 조력자의 도움으로 삶을 이어간다. 사 씨의 고난은 유한림이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고 이에 따라 악인이 처벌됨으로써 종결된다. 사 씨는 가문에 복귀하여 행복한 여생을 누리며 부녀자로서 덕을 실천한다.

40 작품의 세부 정보를 이해한다.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4% 6% 11% 70% 7%

해설 | 여승 일행이 '묘당의 문'으로 들어와 사 씨 일행을 만난 것이므로, 사 씨가 여승 일행을 만난 곳은 '묘당(황릉묘)'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황릉묘'를 떠나 정처 없이 방랑하던 중에 만났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 ① '차의 향은 여전히 입안에 남아 있었고 낭랑의 말도 귀에 생생했다'에서 사 씨가 깨어난 뒤에도 꿈에서 경험한 일을 생생히 느꼈음이 드러난다. ② '단청은 떨어지고 전각은 황량했다'는 것에서 사 씨 일행이 찾아간 '황릉묘'는 초라하고

황량한 곳으로 그려진다. ⑤ 군산은 지리적 형세가 험하며 '여로부터 사람의 발자취가 닿지 않는 곳'으로, 세속인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공간이다.

41 등장인물의 말하기 방식을 이해한다. 정답 ①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75%	6%	12%	2%	2%
--------------	-----	----	-----	----	----

해설 | ①에서는 가정을 통해 자신의 심경을 강조하여 상대방의 동정심을 자아내고 있는 것으로 '과거와 현재의 대조'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 ① '첩이 듣기에 남해는 세상의 한구석으로 길이 멀고 험하다 했습니다.'에서 남해로 가는 길이 쉽지 않음을 듣고, '첩에게는 수레도 없고 양식도 없으니 어찌 갈 수 있겠습니까?'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들려 제안이 실현 불가능함을 드러내고 있다. ② '첩이 평생 모시고 심부름이라도 하길 바랐던 분들이옵니다.'에서 자신을 낮춤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③ 여승은 '출가한 사람은 자비를 근본으로 삼습니다. 게다가 보살의 명까지 받았습니니다.'에서 자신의 행위에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암자에 폐를 끼칠까 염려하는 사 씨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42 작품의 공간에서 나타나는 서사적 기능을 이해한다. 정답 ③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4%	5%	80%	6%	2%
--------------	----	----	-----	----	----

해설 | [C]의 '꿈속'에서 낭랑은 사 씨에게 '남해 도인'을 찾아가 잠시 의탁하라고 하였는데, 실제로 남해에 사는 여승이 나타나 의지할 곳 없는 사 씨를 군산으로 데리고 간다. 따라서 [C]의 '꿈속'에서 일어난 사건은 사 씨가 의지할 곳을 알려주었으므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심화하고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 ① [C]의 '남해도인이 그대와 깊은 인연이 있으니 잠시 의탁하도록 하세요. 이 또한 하늘의 뜻이지요'에서 하늘의 뜻(천상계)에 따라 사 씨가 겪게 될 일(지상계에서의 사건이 전개되는 방향)을 예고하고 있다. ② [C]의 '힘쓰고 힘써, 선을 행하세요.'에서 사 씨가 지상계에서 지켜나가야 할 삶의 지표가 제시되며 '오십 년 뒤에 마땅히 이곳에서 만날 수 있을 거예요.'에서 사 씨의 예정된 미래의 모습이 제시된다. ④ '장강', '반첩여' 등의 인물은 부녀자의 덕을 실천한 여성들이다. 따라서 사 씨가 [C]의 '꿈속'에서 이들과 만나고 '다른 날 마땅히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는 것은 사 씨의 현숙한 인물됨과 관련지을 수 있다.

[43-45] (고전시가)

지문 분석

정철, 「성산별곡」

지문 해제 이 가사 작품은 정철이 전남 담양에 있는, 서하당 김성원이 지은 '식영정'에 머물면서, 김성원의 삶을 노래한 것으로 알려진 작품이다. 자연 속에 머물며 신선과 같은 풍모를 지닌 '주인'(산옹)의 삶을, 사계절의 절경과 옛 고사를 제시하며 노래한 것으로, 정철 자신의 삶의 자세를 드러내는 작품으로도 볼 수 있다. 제시문에서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나, 서사와 결사를 통해 말을 주고 받는 구조로 작품을 이해할 수도 있는데, 이는 '손'인 '정철'과, '주인'인 '김성원'의 대화로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정철'이 '김성원'의 삶을 예찬하는 작품으로 볼 수도 있다.

43 작품에 나타난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6%	19%	5%	52%	16%
--------------	----	-----	----	-----	-----

해설 | 제시문은 전체 작품 중 서사의 일부와 본사 중 봄과 여름을 노래한 부분으로, '매창(梅窓)'의 '매화(梅花)'와 '도화(桃花)'는 봄을, '남풍(南風)'과 '녹음(綠陰)'은 여름임을 알게 하는 자연물이다. 삼베옷을 뜻하는 '마의'는 신선적 풍모를 드러내는 소재이면서도, 시원한 계절인 여름임을 알게 해주고, 인간 세상의 유희를 뜻하는 '인간 유희'에서도 계절적 배경이 여름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계절의 변화 양상과 관련하여 시상이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 ① '철철이'의 '철철'은 '철(계절)마다'라는 뜻으로 음성 상징이 아니다. 이는 때에 맞게 바뀌는 산중의 경치와 관련된다. ② 이 작품에서는 자연 속에서 신선처럼 살아가는 사람에게 느껴지는 한가로운 정취가 드러난다. ③ 과거의 모습을 추

론할 수 없고, '할 일'은 미래의 모습이 아니라 현재 산중 생활에서의 삶을 의미한다. ⑤ 부분적으로 '~L 듯'의 구조가 반복되거나 유사한 시구가 사용되고 있으나, 동일한 시구가 주기적으로 반복되어 있지는 않다.

44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작품 감상의 적절성을 파악한다. 정답 ⑤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4%	4%	6%	12%	72%
--------------	----	----	----	-----	-----

해설 | <보기>는 '성산별곡'에 인용된 '고사'에서 등장하는 '소재'를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하기를 유도하는 내용으로, <자료>는 제시문에 등장하는 소재와 관련된 고사의 내용이다. 자연을 노래한 가사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백구(갈매기)'라는 소재는 인간의 무심(無心)을 알아보는 갈매기로서, 욕심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무심코 한가함이 주인과 어떠한가'는 '백구'와 '주인'의 모습이 다르지 않음을 드러내는 것인데, <자료>의 '백구' 고사로 볼 때, '갈매기를 잡으려는 마음'은 '무심함'이 아니라 '욕심'이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주인'의 모습을 '어부'의 모습과 같은 것으로 연상하는 것은 적절한 감상이 아니다.

오답풀이 | ① '산옹'이 '외씨'를 뿌리며 산에서 살아가는 '소박한 삶'은, 진나라가 망하자 벼슬을 버리고 '외씨'를 뿌리며 살던 '소평'의 모습을 연상케 하므로 적절한 감상이다. ② '시내 길'에 피어 있는 '도화'는 진나라 때 고사에서 유래된, 복숭아꽃이 만발한 '무릉 도원'을 연상케 하므로 적절한 감상이다. ③ '풋잠'을 자며 느낀 평안함은 중국 전설에 나오는 '희황'과 연관된 '희황 베개'로 상징되는 태평함을 연상케 하므로 적절한 감상이다. ④ 산에 퍼진 '연꽃 향기'는 '연꽃'을 소재로 '군자'의 덕을 예찬한 송나라 도학자 '염계'가 지은 '애련설'을 연상케 하므로 적절한 감상이다.

45 다른 작품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의 적절성을 파악한다.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8%	4%	8%	68%	9%
--------------	----	----	----	-----	----

해설 | <보기>는 '강강월'이라는 기녀의 시조 작품으로, 홀로 잠 못 이루는 밤에 등불을 다시 켜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정서를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다. ①에서 '할 일'은 '산옹'이 산중에서 살아가는 한가로운 삶을 뜻하는 것으로, '세상을 위해 해야 할 과업'이 아니며, <보기>의 '잔등 돌위는' '나'가 잠도 오지 않은 방에서 사그라지는 등불의 심지를 돌리 다시 밝게 하는 행위로, '나'의 외로운 정서를 달래고자 하는 행위이다.

오답풀이 | ① ①의 '매창'은 방에서 잠을 자다가 일어난 '산옹'이 '아침별'이 나는 밖의 상황을 알게 되는 통로이며, <보기>의 '창'은 방 안에 홀로 잠들지 못하는 '나'가 '굵은 빗소리'가 들리는 밤의 방 밖 상황을 알게 되는 통로이다. ② ①의 '아침별'은 '산옹'이 맞이하는 아침의 분위기를, <보기>의 '기러기 우는 밤'은 '나'가 잠 못 들고 있는 '밤'의 분위기를 자아낸다. ③ ①의 '향기'는 아침에 '산옹'이 일어나도록 자극을 하고 있고, ①의 '굵은 빗소리'는 등불을 다시 밝히며 잠 못 들고 있는 '나'가 더욱 잠이 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⑤ ①이 '곧 없지도 아니하다'에서는 소박하게 살아가는 '산옹'의 생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드러나고, '더욱 망연하여라'에서는 잠 못 드는 밤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나'의 슬픔이 드러나 있다.

I 등급컷

등급	1	2	3	4	5	6	7	8
원점수	90	84	76	66	55	44	33	23
나의 점수	[] 점			[] 등급				

I 오답률 Best 5

순위	1	2	3	4	5
번호	11	28	19	43	26
오답률(%)	77.8	59.1	57.5	55.0	52.5

정답과 해설					본문 24~41페이지
1 ④	2 ②	3 ⑤	4 ③	5 ⑤	
6 ②	7 ③	8 ②	9 ②	10 ①	
11 ②	12 ④	13 ①	14 ③	15 ③	
16 ②	17 ④	18 ②	19 ④	20 ④	
21 ②	22 ①	23 ①	24 ⑤	25 ⑤	
26 ④	27 ⑤	28 ①	29 ①	30 ⑤	
31 ④	32 ④	33 ④	34 ①	35 ⑤	
36 ④	37 ④	38 ①	39 ⑤	40 ⑤	
41 ①	42 ②	43 ①	44 ③	45 ②	

[1-5] 화법

1 발표 준비 과정 이해하기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3%	1%	1%	91%	1%
--------------	----	----	----	-----	----

해설 | (가)는 수학 동아리 모임에서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들의 대화이다. 발표 준비를 해야 하는 '학생 1'은 '학생 2'의 조언을 들으며 자신이 재미를 느끼고 잘 아는 분야인 통계를 제재로 정하게 된다. 또한 통계 자료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을 바탕으로 신뢰도를 확인하지는 내용을 주제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대화에서 '학생 1'이 '학생 2'의 조언을 바탕으로 선정된 제재인 '수학'을 다른 제재로 변경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④는 적절한 설명이 아니다.

오답풀이 | ① '학생 1'은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들이니 흥미도 느낄 테고."라고 말하며 예상 청자인 학생들의 흥미를 고려하고 있다. ② '학생 1'이 "내가 통계 좋아하는 거 알잖아."라고 말하는 데서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를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학생 1'이 얼마 전에 본 '통계 자료에 숨겨진 오해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언급하고 있는 데서 알 수 있다. ⑤ '학생 1'이 "이 주제는 앞으로 친구들이 통계 자료를 접할 때 도움이 될 거야."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자신의 발표 자료가 예상 청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발표의 내용 조직 방식 이해하기

정답 ②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3%	93%	1%	0%	1%
--------------	----	-----	----	----	----

해설 | '학생 1'의 발표인 (나)에서 "신뢰도란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을 오차 없이 정확하게 측정하는 정도입니다."를 통해 핵심 개념을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령 유권자가 10,000명이라면, 그중 100명만을 표본으로 뽑아 조사한 뒤 전체 유권자의 선택을 예측하는 것이죠."를 통해 가정된 상황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ㄱ).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저도 얼마 전까지는 통계 자료의 신뢰도를 의미 없이 보아 넘기곤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개념인지 알고 나니 신뢰도를 꼭 확인하고 나서 통계 자료를 읽어하겠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에서 화자 자신이 겪었던 변화를 제시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저처럼 신뢰도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습니다."를 통해 청자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ㄷ).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오답풀이 | L : 마지막 부분은 화자 자신이 겪었던 변화를 제시하며 청자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지, 비유적 표현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R : (나)의 핵심 개념은 '통계의 신뢰도'이다. 첫 부분의 "그렇지 않나요?"는 통계 자료를 그대로 믿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일상적인 물음으므로 핵심 개념에 대한 질문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마지막 부분에서는 발표 내용에 대한 청자의 이해를 점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청자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3 청중의 반응 양상 파악하기

정답 ⑤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2%	2%	1%	91%
--------------	----	----	----	----	-----

해설 | 청자 2는 발표 내용 중 '신뢰도'에 대해 "내가 바르게 이해한 것인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봐야겠어."라고 하여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이 이해한 바를 확인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청자 3은 발표에서 알게 된 개념과 관련하여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생각의 변화를 보이고 있을 뿐이지 이러한 반응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오답풀이 | ① 청자 1은 "통계 자료는 확정적 사실이 아닌 개연성 있는 정보만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뢰도를 확인한 뒤 통계 자료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 발표의 요지였어."를 통해 자신이 이해한 바를 요약하고 있다. ② 발표 내용에 따르면 '신뢰도'란 100명 중 55명이 A후보를 선택하고 이에 대한 신뢰도가 95%라고 했을 경우, 동일한 표본 조사를 100번 반복했을 때, A후보에 대한 지지율일 55%로 나타날 경우의 수가 95%인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청자 2는 발표의 핵심 개념인 '신뢰도'를 잘못 이해하여 적용하고 있다. ③ 청자 3은 발표에서 알게 된 '신뢰도'의 개념을 이해한 후, '신뢰도'를 제시하지 않았던 어느 여론 조사의 신문 기사를 본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고 있다. ④ 청자 1의 "앞으로 통계 자료를 볼 때 반드시 신뢰도를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와 청자 3의 "앞으로는 발표자의 말대로 통계 자료를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겠어."를 통해 생각의 변화를 엿볼 수 있다.

4 발화의 특징 파악하기

정답 ③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0%	94%	1%	0%
--------------	----	----	-----	----	----

해설 | ㉠에서 교수는 "지역학 연구자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인 것이 좋을까요?"라는 학생의 물음에 대한 답으로 해당 지역에 관심과 애정이 있는 사람, 그 지역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연구자로 적합하다는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상대방의 경험을 환기하여 화제에 대해 상대방의 이해를 돕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③은 적절한 설명으로 볼 수 없다.

오답풀이 | ① 학생은 지역학에 관한 정보를 얻어 학교 교지에 특집 기사를 쓰고자 하는 인터뷰의 목적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② 학생은 지역학에 대한 교수의 설명을 듣고 지역학이 '한 지역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진행하는 학문'이라고 이해한 후, 이 내용이 맞는지 질문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 ④ '지역 문화 진흥의 관점'이라는 말이 어렵다는 학생의 반응에 대해 교수는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하여 이해를 돕고 있다. ⑤ 학생은 교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지역학에 관한 학생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사를 써 보겠다고 말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하고 있다.

5 인터뷰 계획에 따른 점검표 평가하기

정답 ⑤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3%	0%	4%	3%	88%
--------------	----	----	----	----	-----

해설 | 지역학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인터뷰를 진행 중인 학생은 교수에게 "지역학 연구자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인 것이 좋을까요?"라며 지역학 연구자의 조건에 대해 질문한다. 이에 대해 교수는 해당 지역에 살지 않더라도 '해당 지역에 관심과 애정이 있는 사람, 그 지역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적합하다고 지역학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이 지역학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과정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았으므로 ⑥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 ① 학생은 교수에게 "지역학의 전망은 어떤가요?"라고 물어보고 있다. ② 학생은 교수에게 "먼저, 지역학이란 어떠한 연구를 하는 학문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럼 지역학은 한 지역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진행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지역학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등 지역학이 무엇을 연구하는 학문인지 다양하게 질문하고 있다. ③ 인터뷰 중 교수는 지역학의 영역을 체계화한 표를 보여 주고 있지만, 학생이 지역학과 관련한 시각 자료를 요청하지는 않았다. ④ 교수가 지역학의 영역을 체계화한 표를 제시하자 학생이 한국학이라는 지역학 안에 서울학, 영남학, 호남학, 제주학 등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지만, 지역학과 한국학의 관계 속에서 한국학의 국제적 위상과 관련하여 질문하거나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다.

【6-10】작문

6 작문의 특성 파악하기

정답 ②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5%	87%	2%	1%	3%
--------------	----	-----	----	----	----

【해설】 (가)의 작문 상황에서 학생은 글을 쓸 때 근거 자료를 활용하기로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나)의 학생의 초고에서 '종이컵은 천연 펄프로 만들기 때문에 재활용 가치가 높다고 보고한 자료도 있다.'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근거 자료의 인용 출처를 밝히고 있지는 않다. 이는 자료의 인용 출처를 밝히는 작문의 윤리적 관습에 어긋나므로 ②는 적절한 진술로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 학생은 '환경 보전반' 활동으로 분리수거를 하면서 문제의식을 가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종이컵 재활용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이는 작문이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③ 학생은 글의 1문단에서 '종이컵을 일반 쓰레기와 분리 배출하는 것은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환경 보전에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가치가 있다.'라고 하여 '종이컵 재활용 운동'의 가치를 말하고 있다. 이는 환경 문제라는 공동체의 고민을 반영한 것으로서 작문이 사회적 행위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④ 학생은 학생들이 조금만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면 환경 보전반 친구들의 어려움을 덜 수 있을 뿐 아니라,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학생들에게 '종이컵 재활용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권고하고 있다. 이는 '종이컵 재활용 운동'이라는 활동을 통해 작문이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목표 지향적 활동임을 보여 준다. ⑤ 학생은 '종이컵 재활용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제의 재인식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동참을 권고하고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글을 쓰자 한 것인데, 이를 통해 작문이 의미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독자와 소통하려는 활동임을 알 수 있다.

7 자료의 활용 방안 평가하기

정답 ③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4%	2%	90%	1%	1%
--------------	----	----	-----	----	----

【해설】 <보기>의 ㉠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종이컵 재활용 운동'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별로 관심도 없고 귀찮아서 동참하지 않는다는 어느 학생의 인터뷰이다. 이는 (나)의 2문단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이 종이컵을 쓰레기통에 그냥 버리거나 오물이 묻은 채로 분리수거함에 마구 버리는 행동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종이컵 재활용' 운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결국 학생들의 실천 의식 부족 때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글의 흐름상 ㉠은 (나)의 둘째 문단에 추가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자료 활용 방안임을 알 수 있다. 정답은 ③이다.

【오답풀이】 ① (나)의 1문단은 '종이컵 재활용 운동'이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환경 보전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가치와 의의에 대한 내용이다. 그런데 ㉠은 '종이컵 수거 보상제'를 실시하여 호응을 얻고 있다는 내용이며, 특히 '종이컵 재활용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실천 의식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서 적절한 자료 활용 방안으로 볼 수 없다. ② ㉡는 종이컵 사용량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현상과 종이컵 재활용 비율이 사용량의 14%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를 활용하여 소각장 부족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나)의 1문단에 추가하는 것은 글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않으며 글의 통일성에도 어긋난다. ④ ㉢의 '종이컵 수거 보상제'는 사용한 종이컵을 재활용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종이컵 사용을 아예 금하지는 것이 아니므로 ㉡와 ㉢를 활용하여 종이컵을 사용하지 말고 개인용 컵을 가지고 다닐 것을 권유하는 내용을 서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는 '종이컵 재활용 운동'에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로 '종이컵 수거 보상제'를 실시하여 호응을 얻고 있다는 내용이며, ㉣는 '종이컵 재활용 운동'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런데 이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경제적 측면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나)의 3문단에 추가하는 것은 자료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다. (나)의 3문단은 '종이컵 재활용 운동'에 대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권고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8 고쳐 쓰기 방안의 적절성 평가하기

정답 ②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94%	2%	0%	0%
--------------	----	-----	----	----	----

【해설】 (나)의 1문단은 학교에서 벌이고 있는 '종이컵 재활용 운동'의 가치와 의의에 대한 내용인데, 2문단에서는 이러한 '종이컵 재활용 운동'이 가치가 있는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무관심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의 '또한'은 앞의 말에 맞서게 하여 반박하거나 상반되는 말로 뒤의 말을 이끌 때 쓰며, 역접을 나타내는 '그러나'로 고치는 게 좋다. '그래서'는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 조건 따위가 될 때 쓰는 접속 부사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오답풀이】 ① '지출'이란 '어떤 목적을 위하여 돈을 지급하는 일'을 의미하므로 ㉠의 '지출'은 '시간이나 재물 따위를 헛되이 헤프게 씀'이라는 '낭비를'로 고치는 것이 좋다. ③ (나)는 '종이컵 재활용 운동'의 의의와 가치에 대한 글로 학생들의 실천 의식을 바로잡고 적극적인 동참을 권고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는 종이컵 개발의

최근 추세와 관련한 내용이므로 글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의 '환경과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서술어를 각각 적용하여 '환경을 지키고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다.'로 고치는 것이 좋다. ⑤ ㉣의 '같이'는 '어떤 모임이나 일에 같이 참가함'이라는 '동참'과 의미가 중복되므로 삭제하는 것이 좋다.

9 내용 전개 방식 이해하기

정답 ②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93%	1%	1%	0%
--------------	----	-----	----	----	----

【해설】 [학생의 글]의 1문단에서는 '리더십 캠프'에 참여한 글쓴이가 '경청의 리더십'에 관한 강연의 내용이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강연의 인상 깊은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다. 또한 2문단에서는 글쓴이가 지난 학기에 동아리 회장을 하면서 축제 준비를 할 때 겪었던 일과 관련하여 깨달은 바를 자신의 경험과 관련지어 제시하고 있으므로 ㄷ은 적절하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오답풀이】 ㄴ : [학생의 글]에는 강연의 인상 깊은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면서, 강연에서 깨달은 바를 글쓴이 자신이 겪었던 경험과 관련지어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의 입장에서 분석하여 소개하고 있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ㄷ : 강연 내용을 토대로 그릇된 통념이 널리 확산된 이유를 규명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0 조건을 고려하여 글쓰기

정답 ①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90%	1%	3%	3%	0%
--------------	-----	----	----	----	----

【해설】 ①의 경우, '남의 말을 잘 들어줌으로써 상대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구절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직접 인용의 방식을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 갖추어 가야겠다.'에서 '경청의 리더십'에 관한 강연의 핵심 내용을 활용하여 리더로서의 자질을 갖추어 가겠다는 앞으로의 다짐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오답풀이】 ② 첫 번째 조건인 '강연의 핵심 내용 활용'은 충족시키고 있지만, 나머지 두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③ 두 번째 조건인 '앞으로의 다짐을 밝힐 것'은 충족시키고 있지만, 나머지 두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④ 첫 번째 조건과 세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지만, '앞으로의 다짐을 밝힐 것'이라는 두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⑤ 두 번째 조건과 세 번째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지만, '강연의 핵심 내용을 활용할 것'이라는 첫 번째 조건은 충족시키지 못했다.

11 음운 변동 현상 이해하기

정답 ②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88%	4%	2%	2%
--------------	----	-----	----	----	----

【해설】 음운 변동의 유형 중 '교체'는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으로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유음화, 구개음화 등이 이에 해당한다. '탈락'은 한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으로서 'ㄹ' 탈락, 'ㅎ' 탈락, 'ㄷ' 탈락 등이 이에 해당한다. '첨가'는 없던 음운이 새로 생기는 현상으로서 ㄴ첨가, 반모음 첨가 등이 이에 해당한다. '축약'은 두 음운이 합쳐져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으로서 거센소리되기 등이 있다. <보기>에 제시된 사례 중 '웃하고[오타고]'는 [올하고(교체)] → [오타고(축약)]의 음운 변동을 겪는다. 한편 '홀이불[훈이불]'은 [훈이불(교체, 첨가)] → [훈이불(교체)]의 음운 변동을 겪는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것은 ②이다.

Plus Tip

♣ 선생님 말씀 ♣

☞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절의 끝에 받침으로 특정한 자음만이 오는 규칙.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받침이 되는 자음이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일곱 가지만 올 수 있다는 규칙이다. 이외의 자음들은 음절 끝에 오게 되면 이것들 중 하나로 바뀐다. 예를 들어, 읽은 [입]으로 'ㅍ'이 끝소리 규칙에 의해 'ㅂ'으로 바뀌며, 웃 → [올], 있고 → [일고], 꽃 → [꼇], 부엌 → [부엌], 밖 → [밖], 뭇 → [뭇], 외곽 → [외꺄], 닭 → [닥] 등은 모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보여 주고 있다.

<비음화>

자음 동화의 하나로, 파열음이 뒤에 오는 비음에 동화되어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 밥물 → [밤물], 섭리 → [섭니], 앞문 → [암문], 닫는 → [단는], 깎는 → [깁는]

<유음화>

일정한 음운론적 환경에서 'ㄴ'이 유음 'ㄹ'의 영향 때문에 유음 'ㄹ'로 동화되는 음운 현상. 난로 → [날로], 물놀이 → [물로리]

12 어간과 어근 구별하기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9%	2%	82%	2%
--------------	----	----	----	-----	----

해설 <보기>의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용언은 단일어, 파생어, 복합어인지에 따라 어간의 구성이 다르다. 단일어인 용언의 경우 '숫-'처럼 어간과 어근은 '숫-'으로 동일하다. 그리고 '치숫다'처럼 파생어인 경우, '치숫-(어간)이 '치-(접사)+숫-(어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셈숫다'처럼 합성어인 경우, '셈숫-(어간)이 '셈(어근)+숫-(어근)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선생님이 제시한 세 단어에 적용하면, 파생어인 '줄이다'의 경우 어간 '줄이-'가 '줄-(어근)+이-(접사)로 이루어져 있고, 합성어인 '힘들다'의 경우 어간 '힘들-'이 '힘(어근)+들-(어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오가다'의 경우 어간 '오가-'가 '오-(어근)+가-(어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13 대명사 사용 방식 이해하기

정답 ①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72%	3%	11%	11%	2%
--------------	-----	----	-----	-----	----

해설 ㉠의 '그것'은 앞에서 이미 이야기한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로서 담화 상황 A의 '영희가 말도 없이 책을 가져갔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다. 따라서 '민수가 화가 많이 난 것'을 표현한 대명사라고 진술한 ①은 적절한 설명이 아니다.

오답풀이 ㉡ ㉢의 '자기'는 '그 사람 자신'을 가리키는데, 앞에서 이미 말하였거나 나온 바 있는 사람을 도로 가리키는 삼인칭 대명사로 B가 앞서 언급한 '영희'를 도로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다. ㉢ ㉣의 '아무나'에서 '아무'는 어떤 사람을 특별히 정하지 않고 이르는 인칭 대명사인데, 흔히 부정의 뜻을 가진 서술어와 호응하나, '-나', '-라도'와 같은 조사와 함께 쓰일 때는 긍정의 뜻을 가진 서술어와 호응하기도 한다. 따라서 '아무나'는 화자가 불특정 대상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한 대명사임을 알 수 있다. ㉣ ㉤의 '누구'는 특정한 사람이 아닌 막연한 사람을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인데, <보기>의 담화 상황에서 역시 지시 대상을 정확히 모르고 있어서 사용하였다. ㉤ ㉥의 '거기'는 앞에서 이미 이야기한 곳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인데, 담화 상황을 고려할 때 A가 앞서 언급한 '교실'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하였다.

14 단어의 특성 이해하기

정답 ③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4%	3%	54%	4%	32%
--------------	----	----	-----	----	-----

해설 '소금의 무게를 저울에 달아 보았다.'에서 '달다'는 '(...을 ...에) 저울로 무게를 헤아리다.'는 뜻이므로, '물건을 일정한 곳에 걸거나 매어 놓다.'라는 뜻인 '달다' ㉠의 용례로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오답풀이 ㉠ '달다'와 '달다²'는 소리는 같으나 뜻이 다른 단어를 뜻하는 동음이의어이다. 동음이의어는 사전에 별개의 표제어로 등재되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 <보기>에 제시된 서술어의 활용 정보에 따르면, '달다'와 '달다²'는 모두 연결 어미 '-니'가 결합되면 어간의 '리'가 탈락하면서 '다니'로 활용됨을 알 수 있다. ㉢ '달다²' ㉣의 속담인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에서 '달다'는 '꿀이나 설탕의 맛과 같다.'의 의미이며 '쓰다'는 '혀로 느끼는 맛이 한약이나 소태, 썸바귀의 맛과 같다.'의 의미이므로 반의 관계를 이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보기>에 제시된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 정보에 따르면, '달다'는 주어 외에도 부사어('...에')와 목적어('...을')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서술어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달다²'는 주어 외에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이 없는 서술어이다. 따라서 '달다' ㉠이 '달다²' ㉢보다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15 피동문 이해하기

정답 ③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3%	88%	2%	1%
--------------	----	----	-----	----	----

해설 ㉠의 피동문 '참새 네 마리가 두 학생에게 잡혔다.'는 두 학생에게 참새 네 마리가 각각 어떠한 비율로 잡힌 건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의 피동문 '낙엽이 바람에 날린다.'는 단일 의미로 해석되므로 ③은 탐구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 ㉢의 능동문 '눈이 온 세상을 덮었다.'에서는 '눈이 세상을 덮는 동작'이 연상되는 것에 비해, 피동문 '온 세상이 눈에 덮였다.'에서는 주어의 동작성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 ㉣과 ㉤의 능동문 주어인 '눈이'와 '학생이'는 피동문에서 각각 부사격 조사 '-에'와 '-에게'가 붙어 부사어인 '눈에'와 '학생에게'로 나타난다. ㉣ ㉤의 피동문에서 '날리다'는 목적어를 가지지 않는 자동사인 '날다'에서 파생된 경우이다. ㉥ ㉦의 경우 '날씨'가 바뀌는 행위는 자연적인 것으로서 문장의 의미 자체가 상황 의존성을 강하게 가져 동작성을 표현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동문에 대응하는 능동문을 상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16-19] 독서~사회

지문 분석

김환준 「노동 공급의 결정 이론」

지문 해제 '노동 공급의 결정 이론'에서는 여가와 노동이라는 두 가지 선택을 놓고 최적의 조합을 택하는 모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노동 공급의 결정 모형을 '노동-여가 선택 모형' 또는 '소득-여가 선택 모형'이라고 한다. 이 글은 '노동 공급의 결정 이론'에서 제시한 '소득-여가 선택 모형'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이 이론에서는 제약되어 있는 조건 하에서 개인의 노동 공급 결정이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이 이론은 노동 시장의 수요·공급을 이해하는 데에 바탕이 되는 시각을 제공해 주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주제 노동 공급의 결정 이론의 이해와 의의

어휘 풀이

- 효용 : 보람 있게 쓰거나 쓰임. 또는 그런 보람이나 쓸모
- 여가 : 일이 없어 남는 시간
- 재화 : 사람이 바라는 바를 충족시켜 주는 모든 물건
- 선호도 : 좋아하는 정도
- 양상 : 사물이나 현상의 모양이나 상태

16 문단의 핵심 내용 파악하기

정답 ②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4%	85%	1%	6%	2%
--------------	----	-----	----	----	----

해설 (나)에서는 구체적인 그래프를 제시하는 동시에 '제한된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선택할 수 있는 두 재화의 조합을 연결한 선'이라는 예산제약선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제약선이 어떻게 달라지고 바뀌는지에 대한 변화 양상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②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는 제약되어 있는 조건 하에서 개인의 노동 공급 결정이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노동 공급의 결정 이론과 모형에 대해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③ (다)에서는 노동 공급자에게 동일한 효용을 주는 소득과 여가 시간의 조합을 서로 연결한 무차별곡선의 개념과 함께 한계 대체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④ (라)에서는 노동 공급의 결정 이론에 있어 효용을 극대화하는 노동 공급 결정이 이루어지는 상황과 시간당 임금이 상승할 때 노동 공급의 변화 양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⑤ (마)에서는 노동 시장의 수요·공급을 이해하는 데에 바탕이 되는 시각을 제공해 주며, 사회 보장 제도를 연구하는 데에도 중요한 기초를 제공해 주는 노동 공급의 결정 이론이 지닌 의의와 가치를 밝히고 있다.

17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8%	7%	5%	72%	5%
--------------	----	----	----	-----	----

해설 <보기>의 그래프는 소득이 Y_1 에서 Y_2 로 늘어남에 따라 나타난 예산제약선과 무차별곡선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에서 시간당 임금이 상승하면 동일한 노동 시간에 더 많은 소득을 얻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여가 시간을 늘리고 노동 시간을 줄이는 '소득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시간당 임금의 상승은 여가 시간을 줄여 노동 시간을 늘리는 '대체효과'가 나타나게 만들 수도 있다고 하고 있다. <보기>의 그래프는 소득이 Y_1 에서 Y_2 로 높아짐에 따라 예산제약선의 기울기가 높아지고 그에 따라 무차별곡선도 이동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무차별곡선의 이동에 따라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득과 여가 시간의 최적 조합이 a에서 b로 바뀌고 있는데, 무차별곡선 ㉠과 예산제약선 X_1Y_1 의 접점에서와 같은 기울기 값을 가지는 점(X_2 의 여가 시간을 선택함을 나타내는 점)이 무차별곡선 ㉡ 상에서 X_4 의 여가 시간을 선택함을 나타내는 점으로 바뀌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X_4 에서 X_2 를 뺀 만큼 노동 시간을 줄여도 동일한 소득이 유지됨을 나타낸다. 이것은 단위 시간당 거둘 수 있는 소득이 늘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득효과가 나타났음을 보여 준다. 즉 X_4 에서 X_2 를 뺀 값은 소득효과를 보여 주는 것이다. 한편 이 그래프는 효용을 극대화하는 최적 조합이 a에서 b로 바뀌고 있으므로, X_4 에서 X_3 를 뺀 값만큼 여가 시간을 줄이고 노동 시간을 늘리는 양상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대체효과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X_4 에서 X_3 를 뺀 값은 대체효과가 나타났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따라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④이다.

오답풀이 ① 점 a에서 무차별곡선 ㉠의 접선은 예산제약선 X_1Y_1 과 같다. 무차별곡선의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한계대체율을 나타내고, 예산제약선의 기울기의 절댓값은 시간당 임금을 나타낸다. 따라서 점 a에서는 무차별곡선 ㉠의 접선의 기울기가 곧 예산제약선 X_1Y_1 의 기울기이므로 한계대체율과 시간당 임금이 동일하게 된다. ② 무차별곡선은 원점에서 멀리 위치하고 있을수록 효용이 높은 조합을 나

타낸다. ㉡보다 ㉣가 원점에서 멀리 있으므로 점 a보다 b에서의 소득 효용과 여가 효용의 총합이 크다. ㉢ 예산제약선의 기울기의 절댓값은 시간당 임금을 나타낸다. 따라서 두 예산제약선의 기울기의 차이는 시간당 임금의 차이를 나타낸다. ㉤ 소득의 최댓값이 Y_1 에서 Y_2 로 높아진 것은 소득과 관련 있는 제약 조건이 변화했음을 나타낸다.

18 추론의 적절성 평가하기 정답 ②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12%	57%	8%	16%	4%
--------------	-----	-----	----	-----	----

해설 <보기>에 의하면, A 씨는 여가를 소득보다 선호하지만 B 씨는 소득을 여가보다 선호하는데, 이 두 사람의 '소득-여가 선택 모형' 그래프를 그리면 무차별곡선의 모양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고 있다. 이는 A 씨의 경우 여가의 한계효용이 소득보다 큰 반면, B 씨는 소득의 한계효용이 여가보다 커서 무차별곡선의 모양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즉 A 씨가 B 씨에 비해 소득의 한계효용보다 여가의 한계효용이 커서 무차별곡선의 모양이 다른 것이다. 소득의 한계효용보다 여가의 한계효용이 크면, 여가 1단위와 소득 2단위의 효용이 같을 수 있다. 한계대체율은 여가 시간 한 단위의 한계효용에 대한 소득의 한계효용의 비이므로, 앞서 제시한 예의 한계대체율은 2이다. 반대로 여가의 한계효용보다 소득의 한계효용이 크면, 여가 2단위와 소득 1단위의 효용이 같을 수 있다. 이 경우에 한계대체율은 1/2이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A 씨의 무차별곡선과 B 씨의 무차별곡선 상에서 동일하게 소득 3단위와 여가 1단위를 선택한 조합을 나타내는 두 점에서의 점선의 기울기가 A 씨의 무차별곡선이 급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A 씨는 B 씨에 비해 소득의 한계효용보다 여가의 한계효용이 커서 한계대체율이 크고, 그에 따라 A 씨의 무차별곡선이 B 씨보다 급한 기울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보기>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이다.

19 어휘의 문맥적 의미 이해하기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3%	4%	3%	86%	3%
--------------	----	----	----	-----	----

해설 ㉠의 '쓰다'는 '어떤 일을 하는 데 시간이나 돈을 들이다.'라는 의미이다. 이와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의 '자식에게 쓴 돈은 아깝지 않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의 '쓰다'이다.

오답풀이 ①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해서 쓰겠니?'의 '쓰다'는 '도리에 맞는 바른 상태가 되다.'의 의미이다. ② '강한 공을 던지려면 허리를 잘 써야 한다.'의 '쓰다'는 '몸의 일부분을 제대로 놀리거나 움직이다.'의 의미이다. ③ '회사에서는 경력자를 써서 그 일을 하기로 했다.'의 '쓰다'는 '사람을 어떤 일정한 직위나 자리에 임명하여 일하게 하다.'의 의미이다. ⑤ '아랫방을 쓰는 형이 불편하다며 서로 방을 바꾸자고 했다.'의 '쓰다'는 '어떤 건물이나 장소를 일정 기간 사용하다.'의 의미이다.

[20-23] 독서~인문

지문 분석

최인철 「사후 과잉 확산 편향과 인과 추론」

지문 해제 어떤 일의 결과를 알고 난 후에 마치 처음부터 그 일의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믿게 되는 현상인 '사후 과잉 확산 편향'의 개념과 그 발생 원인에 대해 설명한 글이다. '사후 과잉 확산 편향'의 발생 원인에 대한 설명은 동기적 설명과 인지적 설명으로 나뉘어지는데, '사후 과잉 확산 편향'은 판단 및 의사 결정의 정확성과 질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현재 그것을 어떻게 하면 감소시킬 수 있는지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주제 사후 과잉 확산 편향의 특징과 양상

어휘 풀이

- 과잉 : 예정하거나 필요한 수량보다 많이 남음
- 편향 : 한쪽으로 치우침
- 필연적 : 사물의 관련이나 일의 결과가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또는 그런 것
- 잠입 : 남몰래 숨어들
- 표상 : 대표로 삼을 만큼 상징적인 것
- 용이성 : 어렵지 아니하고 매우 쉬운 성질
- 왜곡 :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릇되게 함

20 서술상 특징 파악하기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3%	0%	11%	81%	3%
--------------	----	----	-----	-----	----

해설 글의 서술 방식 중 '정의'는 어떤 말이나 사물의 뜻을 명백히 밝혀 규정하는 것이며, '구분'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체를 몇 개로 갈라 나누는 것을 말한다. 이 글에서 글쓰이는 어떤 일의 결과를 알고 난 후에 마치 처음부터 그 일의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믿게 되는 현상을 의미하는 '사후 과잉 확산 편향'에 대한 개념을 정의한 후, 그 발생 원인을 '통제감'과 자기 과시 동기와 관련짓는 동기적 설명과 어떤 일의 결과가 사람들의 정신적 표상에 잠입한다고 보는 인지적 설명으로 구분지어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는 ④가 가장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유추'는 서로 비슷한 점을 비교하여 하나의 사물에서 다른 사물로 추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글에서 이러한 '유추'는 찾기 어렵다. ② '사후 과잉 확산 편향'의 변천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념과 그 발생 원인에 대해 서술한 글이다. ③ '사후 과잉 확산 편향' 현상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이 나타나지도 않았으며, 관점을 절충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거리가 멀다. ⑤ '사후 과잉 확산 편향'과 관련한 이론들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지 않으므로 거리가 멀다.

21 질문의 적절성 평가하기 정답 ②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91%	2%	1%	2%
--------------	----	-----	----	----	----

해설 이 글에서는 '사후 과잉 확산 편향'의 개념과 그 발생 원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 '사후 과잉 확산 편향' 외에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편향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②와 같은 질문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1문단에서, '사후 과잉 확산 편향' 때문에 사람들은 '나는 처음부터 그렇게 될 줄 알고 있었다.'라고 착각하게 된다고 언급하였다. ③ 3문단을 통해 '잠입적 결정론'에서 '사후 과잉 확산 편향'이 나타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④ 2문단에서 '통제감'이란 '자신이 주변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으며 미래의 일을 예측할 수 있다고 믿는 생각'을 의미한다고 언급하였다. ⑤ 3문단을 통해 알 수 있다. '사후 과잉 확산 편향'의 발생 원인에 대한 설명은 '동기적 설명'과 '인지적 설명'으로 나뉘는데, '잠입적 결정론'으로도 알려져 있는 '인지적 설명'이 '동기적 설명'에 비해 더 강한 지지를 받아 왔음을 밝히고 있다.

22 핵심 개념에 대한 이해와 적용 평가하기 정답 ①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92%	1%	2%	1%	1%
--------------	-----	----	----	----	----

해설 '사후 과잉 확산 편향'의 핵심은 주변에서 발생한 일에 대하여 실제로는 그 일을 예측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측할 수 있었다고 믿는 것이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나는 처음부터 그렇게 될 줄 알고 있었다.'라고 착각하게 된다. '사후 과잉 확산 편향'의 원인에 대한 설명 중 인지적 설명에 따르면 사람들은 어떤 일의 결과가 알려지면 왜 그러한 일이 발생했는지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때 그러한 설명을 쉽게 만들어 낼 수 있을수록 사후 과잉 확산 편향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본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후 설명이 용이할수록 사후 과잉 확산 편향이 약하게 나타난다고 진술한 ①은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② 5문단에서 '사후 과잉 확산 편향'을 감소시키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③ 3문단에서 동기적 설명에 비해 더 강한 지지를 받고 있는 인지적 설명은 '잠입적 결정론'으로도 알려져 있음을 언급하였다. ④ 5문단에서 '사후 과잉 확산 편향'은 판단 및 의사 결정의 정확성과 질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판단과 의사 결정에서 중요한 편향으로 다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⑤ 1문단에서 '사후 과잉 확산 편향'으로 인해 우연에 의해 설명될 수 있는 역사적 사건들이 결과로 알려지고 난 후에는 대개 필연적인 사건들로 해석된다고 언급하였다.

23 실제 사례와 연관 지어 평가하기 정답 ①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83%	3%	3%	6%	2%
--------------	-----	----	----	----	----

해설 동기적 설명에서 '통제감'이란 '자신이 주변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으며 미래의 일을 예측할 수 있다고 믿는 생각'을 의미하며, 이러한 통제감을 확인하려는 동기가 작용하기 때문에 '사후 과잉 확산 편향'이 발생한다고 본다. 그런데 ①과 같이 ㉡에서 회담 결과를 부정적으로 예측했던 사람들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믿는 생각이 약해서 실제 일어난 ㉢의 결과에 더 많이 의존해 답했다고 하는 것은 동기적 설명을 잘못 이해하고 보인 반응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오답풀이 ② ㉢의 실험 결과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회담 결과를 낙관적으로 예측했었다고 기억했다는 것은 통제감을 확인하거나 자신을 과시하려는 동기를 지닌 실험 대상자들이 있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③, ④ 3문단의 인지적 설명에

대한 언급을 통해 알 수 있다. 인지적 설명에서는 어떤 일의 결과가 사람들의 정신적 표상에 잠입한다고 보는데, 결과를 알고 나면 결과에 대한 정보가 즉각적이고 자동적으로 사람들의 새로운 표상에 통합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표상이 선행 사건과 가능한 결과들에 대한 인과 관계 모형을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⑤ ‘사후 과잉 확신 편향’이 어떤 일의 결과를 알고 난 후에 마치 처음부터 그 일의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믿게 되는 현상이라는 점에서 적절한 반응이다.

[24-25] 독서~과학

지문 분석

박수인 외 「생동하는 지구」

지문 해제 온도와 압력의 변화에 의해 지각 내 암석의 광물 조합 및 조직이 변하게 되는 ‘변성 작용’과 변성암의 형성 과정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한 글이다. 변성 작용은 온도의 높기와 압력의 크기에 따라 크게 저변성 작용과 고변성 작용으로 나누어지는데, 어떤 변성 작용이 일어나느냐에 따라 만들어지는 변성암에도 차이가 생기게 된다. 또한 변성암은 고체 상태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변성암에는 지각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보존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기록들을 지질학자들은 사명감을 갖고 연구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주제 변성 작용과 변성암의 형성 과정

어휘 풀이

- 변성암 : 수성암 또는 화성암이 땅 밑 깊은 곳에서 온도, 압력 따위의 영향이나 화학적 작용을 받아 변질하여 이루어진 암석
- 점토 : 작은 알갱이로 이루어진 부드럽고 차진 흙
- 셰일 : 점토가 굳어져 이루어진 수성암
- 매몰 : 보이지 아니하게 파묻히거나 파묻음
- 육안 : 안경이나 망원경, 현미경 따위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직접 보는 눈
- 경향 : 현상이나 사상, 행동 따위가 어떤 방향으로 기울어짐

24 세부 내용 이해하기

정답 ⑤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1%	3%	2%	1%	89%
--------------	----	----	----	----	-----

해설 3문단을 통해 ⑤는 일치하지 않는 내용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어느 특정한 방향으로 더 큰 힘이 가해지는 압력을 차등 응력이라 하는데, 차등 응력 조건하에서 광물들은 층의 방향이 최대 응력 방향과 수직을 이루는 방향으로 배열된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광물들이 차등 응력이 가해지는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배열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2문단에서 암석이 가열되면 광물들 중 일부는 재결정화되고 또 다른 광물들은 서로 반응하여 새로운 광물들을 생성하게 된다고 언급하였다. ② 마지막 문단을 통해 변성암이 고체 상태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③ 2문단에서 섭입이나 대륙 충돌 등의 지각 운동 등에 의해 암석이 지구 내부로 이동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④ 3문단의 “모든 방향에서 일정한 힘이 가해지는 압력을 ‘균일 응력’이라 하고~”를 통해 알 수 있다.

25 핵심 내용의 이해를 통한 자료 적용하기

정답 ⑤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4%	3%	5%	83%
--------------	----	----	----	----	-----

해설 3문단에서 저변성 작용을 받은 암석은 매우 미세한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어 새로 형성된 광물 입자들은 현미경을 사용해야 관찰할 수 있는 반면 고변성 작용을 받은 암석은 입자들이 커져서 각 광물 입자들을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보기>의 내용을 이해할 때, 저변성 작용을 받아 형성된 점판암의 조직은 고변성 작용을 받아 형성된 편마암의 조직보다 육안으로 관찰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⑤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암석이 가열되거나 압력을 받아 변성 작용이 생기게 되면 암석을 구성하는 주요 광물에 변화가 생겨 재결정화되거나 새로운 광물들을 생성하게 되므로 적절하다. ② 석영은 퇴적암인 셰일과 변성암인 편마암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광물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석영의 존재 여부만으로 두 암석을 구별하기 어렵다. ③ 변성암은 고체 상태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변성암에는 지각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보존되어 있다고 했다. 따라서 셰일이 편암이나 편마암이 되는 과정 중 지각에서 일어난 일들도 암석에 흔적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④ 점판암은 저변성 작용에 의해 형성된 암석이며, 편암은 고변성 작용을 받아 형성된 암석이므로 편암이 점판암보다 더 높은 온도와 더 큰 압력을 받아 형성된 암석임을 알 수 있다.

[26-29] 독서~예술

지문 분석

사카이 다케시 「고딕, 불멸의 아름다움」

지문 해제 중세 시대 대표적인 건축 양식인 로마네스크 양식과 고딕 양식의 특징과 차이점에 대해 설명한 글이다. 로마의 영향을 받은 로마네스크 양식과 이러한 로마네스크 양식이 변형을 거쳐 발전한 고딕 양식을 통해 초월적 세계에 대한 중세 사람들의 종교적 열망을 읽어낼 수 있다.

주제 로마네스크 양식과 고딕 양식의 특징

어휘 풀이

- 지탱 : 오래 버티거나 배겨 냄
- 채광 : 창문 따위를 내어 햇빛을 비롯한 광선을 받아들임
- 굴절 : 휘어서 꺾임
- 투과 : 광선이 물질의 내부를 통과함. 또는 그런 현상
- 지향 : 어떤 목표로 뜻이 쏠리어 함함. 또는 그 방향이나 그쪽으로 쏠리는 의지

26 세부 정보 이해하기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5%	3%	3%	83%	3%
--------------	----	----	----	-----	----

해설 중세 시대 로마네스크 양식의 변형을 거쳐 발전한 고딕 양식은 농촌에서 도시로 삶의 터전을 옮긴 이주민들이 혼란과 불안을 경험하던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는 사실과 이들이 비례의 법칙을 거스르며 하늘 높이 수직으로 솟아올라 빛으로 가득해진 도시의 성당에서 신의 존재를 체험하며 고통스러운 현실을 위안 받고자 했다는 사실을 마지막 문단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고딕 성당이 도시에서 농촌으로 옮겨 지어졌다는 내용은 이 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오답풀이 ① 2문단을 통해 알 수 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빛이 신의 현현이라고 생각한 고딕 시대 사람들은 성당에 더 많은 빛을 들어오게 하는 고딕 양식을 통해 신의 존재를 체험하고자 했다. ② 1문단을 통해 알 수 있다. 로마네스크 양식은 중세 시대 농촌 지역에 활발히 세워지던 수도원의 성당에 적용되었는데, 로마의 영향을 받아 둥근 아치 형태였던 천장은 석재로 만들어져 매우 무거웠다. ③ 4문단을 통해 알 수 있다. 로마네스크 양식은 십자군 전쟁이 발발해 여수선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각지의 수도원으로 순례객들이 모여들던 때에 탄생했다. ⑤ 2~3문단을 통해 알 수 있다. 성당 내부에 빛을 더 많이 받아들이고자 한 노력이 고딕 성당에서 창을 크게 만들게 된 데 영향을 주었다.

27 특정 정보 확인하기

정답 ⑤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1%	1%	1%	1%	93%
--------------	----	----	----	----	-----

해설 3문단에 따르면 ‘버트레스’와 ‘플라임 버트레스’는 성당의 벽을 바깥에서 떠받치기 위해 만들어진 구조물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플라임 버트레스’는 빛의 양을 조절해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내고자 생겨난 게 아니라 높아진 건물을 지탱하기 위해 생겨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⑤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3문단을 통해 ‘버트레스’가 성당의 벽을 바깥에서 떠받치기 위해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다. ② 천장이 높아지자 벽 옆면에 길고 큰 창인 ‘클리어스토리’를 뚫어 성당 안으로 많은 빛을 들어오게 하는 것이 가능했다는 언급을 통해 알 수 있다. ③ 큰 창인 ‘클리어스토리’에 다채로운 색채의 ‘스테인드글라스’를 시공해 빛을 굴절 투과시킴으로써 신비감을 부각하였다. ④ 고딕 양식에서는 로마네스크 양식에서 사용되던 둥근 아치형의 천장을 뾰족하게 솟아오른 형태로 고안해 냈는데, 이를 ‘포인티드 아치’라고 한 데서 알 수 있다.

28 반응의 적절성 평가하기

정답 ①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85%	4%	5%	3%	1%
--------------	-----	----	----	----	----

해설 <보기>에서는 끊임없이 수직을 지향하다 비례 법칙을 어기게 된 고딕 양식에 반기를 들고 엄격한 비례미를 추구한 르네상스 양식과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사회가 혼란에 빠지자 건축에서 새로 등장한 매너리즘 건축물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매너리즘 양식은 사회가 혼란에 휩싸였을 때 르네상스 양식의 비례 법칙으로는 혼란한 사회상을 표현할 수 없다고 보고 비례의 법칙을 거부하며 일탈과 변형을 추구했음을 알 수 있다. 이 글을 통해서도 고딕 성당은 초월적 존재에 다가가기 위해 비례의 법칙을 거스르며 하늘 높이 솟아올라 빛을 더 많이 받아들이려 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딕 성당은 초월적 존재에 다가

가고자 하는 소망이, 매너리즘 건축물은 당시의 혼란한 시대상을 반영한 결과 비례의 법칙을 거스르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①이다.

|오답풀이| ② 매너리즘 건축물은 엄격한 비례미를 추구한 르네상스 양식을 거부하며 일탈과 변형을 추구했다. ③ 로마네스크 성당에 비해 고딕 성당이 건물의 높이가 높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매너리즘 건축물이 기둥을 애매한 간격으로 세운 것은 무거운 건물을 지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탈과 변형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⑤ 매너리즘 건축의 경우 건물의 장식은 크기, 형태 등에서 규칙적이지 않은 형상을 나타냈다는 언급을 통해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9 단어의 사전적 의미 파악하기 정답 ①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31%	62%	2%	2%	1%
--------------	-----	-----	----	----	----

|해설| ④ '입증'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증거 따위를 내세워 증명함'이다. '옳고 그름을 이유를 들어 밝힘'은 '논증'의 사전적 의미이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이다.

[30-33] 문학~고전 소설

지문 분석

작자 미상 「장풍운전」

작품 감상 장풍운은 전직 고관의 아들로 태어나 외척의 침입을 받고 가족과 헤어지지만 조력자의 도움으로 성장하여 과거에 급제하고 전공을 세워 가족과 다시 상봉하고 부귀영화를 누린다. 제시된 글에서는 가정에서의 처첩 간 갈등이 전개되고 있는데, 토번의 침입으로 장풍운이 출전하자 유씨가 이 부인을 투기하여 모해한다. 결국 진상이 밝혀져 유씨는 벌을 받아 죽고, 장풍운은 그 뒤 위양이 되어 부귀영화를 누린다. 이 작품에서 주인공 장풍운은 당시 평민 이하 계층의 처지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 다만 신분 상승과 회복을 주된 관심사로 삼고 있으면서도 문제를 비현실적 차원에서 해결하는 것이 한계점으로 나타난다.

주제 장풍운의 고난과 극복담

어휘 풀이

- 모해 : 죄를 써서 남을 해침
- 계교 : 요리조리 헤아려 보고 생각해 낸 꾀
- 간계 : 간사한 꾀
- 입결 : 대결 안으로 들어감
- 윤택 : 입금이 신하의 청을 허락함
- 불하일장 : 죄를 순순히 자백하므로 매를 한 대도 때리지 아니함

30 사건의 전개 양상 파악하기 정답 ⑤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5%	3%	5%	10%	75%
--------------	----	----	----	-----	-----

|해설| '유씨'의 계교를 실행하기 위한 '난향'에게 이끌려 '공철'은 '이 부인' 침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공철'이 '난향'을 자신의 아내인 '운향'으로 착각한 것은 '난향'의 외모가 '운향'과 비슷했기 때문이 아니라 음성이 비슷했기 때문이다. 이는 '공철'이 심하지 않고 난향의 음성이 운향과 서로 비슷하므로 속은 바가 되어 매우 위험한 지경에 처하니, 어찌 비참하고 끔찍하지 아니하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⑤이다.

|오답풀이| ① [앞부분의 줄거리]에서 '장풍운'은 토번이 침략하자 출정을 위해 경성을 떠나게 되고, 글의 후반부에 '좌승상이 싸움에 나가 이겨 공을 세운 경위를 아뢰고는~'을 통해 '장풍운'이 토번과의 전쟁에서 공을 세웠음을 알 수 있다. ② 토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풍운'이 천자에게 옥사가 집안의 사사로운 일임으로 스스로 말아서 처리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자 천자는 이를 윤택하게 된다. ③ '유씨'의 계교를 실행하기 위해 '난향'은 금을 나누어 주며 '운향'과 사귀다. ④ '유씨'는 '이 부인'을 속여 '이 부인'의 시비 '운향'을 자신의 처소로 불러 흔쾌히 정성껏 대접하고 머무르게 하면서 자신의 간계를 실행하게 된다.

31 서술상의 특징 이해하기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6%	2%	6%	80%	3%
--------------	----	----	----	-----	----

|해설| 이 글에는 '이 부인'과 '유씨' 사이의 갈등이 드러나고 있지만, 인물의 생김새, 외모 등을 그려내듯이 표현하는 인물의 외양 묘사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④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직접적 제시란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 심리 상태를 직접적으로 서술하는 것을 말한다. '유씨가 매우 기뻐하며 물었다.', '이 부인이 미처 깨닫지도 ~ 이 지경에 처하니 놀랍고 분함을 이기지 못하나, 일이 되어 가는 형세가 어찌 된 것인지 알지 못하여 심신을 가다듬지 못했다.' 등에 인물의 심리가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② 이 글은 각 인물들 간의 대화와 행동을 통해 사건이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서술자의 개입은 등장인물이나 사건에 대해 서술자가 나서서 그에 대해 평론하는 편집자적 논평과 그 맥을 같이 하는데, "공철이 ~ 속은 바가 되어 매우 위험한 지경에 처하니, 어찌 비참하고 끔찍하지 아니하라."에서 서술자가 개입하여 상황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⑤ 요약적 진술이란 긴 사건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압축해서 전달하는 것을 말하는데, [종락 부분의 줄거리] 이후에 '장풍운'이 경성에 급히 돌아와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대목이 압축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Plus Tip

♣ 선생님 말씀 ♣

☞ <직접적 제시와 간접적 제시>

'직접적 제시'는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 심리 상태를 직접적으로 서술하는 것을 말하는데, 비슷한 말로 서술적 제시, 해설적 제시, 말해 주기, telling이 있다. 인물의 성격이나 심리를 직접적으로 제시하면 작가가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독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독자 스스로 느끼고 판단할 여지가 줄어들 수 있기도 하다. '간접적 제시'는 서술자가 인물의 성격, 심리 상태를 그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말하는데, 묘사적 제시, 극적 제시, 보여 주기, showing이라 하기도 한다. 간접적 제시는 독자가 추측하고 판단하는 재미가 있지만, 작가가 원하는 바가 독자에게 잘못 전달될 위험성도 있다.

32 작품의 공간적 배경 이해하기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13%	1%	4%	78%	2%
--------------	-----	----	----	-----	----

|해설| ①의 '정당'은 '이 부인'이 거쳐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사건의 흐름을 살펴볼 때, '공철'은 '난향'에게 속아 이곳으로 들어가고 '이 부인'을 모해하려는 '유씨'의 계교에 빠져 '중문'에서 억울하게 희생된다. 따라서 '정당'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공철'이 불의한 무리에게 이용당하는 공간으로 파악한 ④이다.

|오답풀이| ① '이 부인'을 모해하기 위한 계교를 꾸미고 실행하는 인물은 '운향'이 아니라 '유씨'와 '난향'이다. ②, ⑤ '천자'가 신분적 위계를 강조하는 공간 또는 '장풍운'이 자신의 비범한 능력을 입증하는 공간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이 부인'은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에서 '유씨'의 계교에 빠져 누명을 쓰게 된다.

33 작품의 구조 파악하기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3%	2%	4%	86%	2%
--------------	----	----	----	-----	----

|해설| '이 부인'은 자신을 모해하기 위해 간계를 부린 '유씨'로 인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처형당하기 직전 토번과의 전쟁에서 공을 세우고 경성으로 돌아온 '장풍운'의 진상 규명으로 누명을 벗게 된다. 따라서 '이 부인'이 누명을 벗기 위해 기지를 발휘하여 고난을 극복하게 된다는 ④ ⑥의 답변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장풍운'의 두 아내인 '이 부인'과 '이 부인'을 모해하기 위해 누명을 씌운 '유씨' 사이의 갈등이 잘 드러나고 있다. ② 이미 '이 부인'과 혼인한 '장풍운'은 천자의 권유로 천자의 아우인 명현왕의 딸과 어쩔 수 없이 혼인하게 되는데, 이러한 '마지못한 혼인'이 후에 갈등의 계기가 되므로 적절한 답변이다. ③ 사건의 정황을 알리는 '왕 부인'의 편지를 받은 '장풍운'이 경성으로 급히 돌아와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게 되는데, 이는 '주체의 노력'이 갈등 해소의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적절한 답변이다. ⑤ '장풍운'은 천자의 권유로 '마지못한 혼인'하게 된다. 그 후 '이 부인'과 '유씨'의 갈등이 시작되면서, '유씨'의 모해를 받은 '이 부인'이 '장풍운'의 적극적인 진상 규명으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갈등이 해소되게 된다.

[34-37] 문학~고전 시가 복합

지문 분석

(가) 정극인 「상춘곡」

작품 감상 이 작품은 서사(序詞)·춘흥(春興)·취락(醉樂)·결사(結詞)의 4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 단락에서는 속세를 떠나 벽계수 앞에 수간모옥을 짓고 자연과 벗하는 풍월주인의 삶을 제시한다. 둘째·셋째 단락에서는 봄 경치를 즐기며 자연에 몰입하는 삶이 무릉도원에서의 삶과 비견되어 그려지고, 마지막 단락에서는 이렇게 세속의 명리를 멀리하고 청풍명월을 벗하며 사는 삶에 만족한다는 것으로 끝맺고 있다. 작품에 그려진 전체적인 내용은 벼슬에서 물러난 뒤 고향에 돌아와 은거했던 화자 자신의 처지를 반영하고 있는데, 봄의 경치를 묘사하면서 그 속에서 느끼는 흥취를 드러내고 있으며, 안빈낙도의 여유 있는 정신세계가 잘 나타나고 있다.

주제 봄의 완상과 안빈낙도, 자연 친화

시구 풀이

- 넷 사람 풍류(風流)를 미칠가 못 미칠가 : 옛 사람의 풍류에 미칠 수 있을까? 못 미칠까?
- 수간모옥(樹間茅屋)을 벽계수(碧溪水) 앞피 두고 : 초가 삼간을 맑은 시냇가 앞에 지어 놓고
- 풍월주인(風月主人) : 자연을 즐기는 사람
- 칼로 몰아 낸가 붓으로 그려 낸가 : 조물주가 칼로 재단해 내었는가? 붓으로 그려 내었는가?
- 조화신공(造化神功)이 물물(物物)마다 현스럽다 : 조물주의 신비로운 능력이 사물마다 아담스럽다
- 무릉(武陵) : 무릉도원, 이상향을 의미

(나) 체제공 「와룡폭포기」

작품 감상 웅장하게 떨어지는 폭포 주위에 은거하며 살아가는 자연 친화적인 화자의 생활을 보여 주는 수필이다. 자연의 이치를 깨닫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 때 세속에서 벗어나 천상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화자의 깨달음과 삶의 방식을 엿볼 수 있다.

주제 자연과의 동화

어휘 풀이

- 장관 : 훌륭하고 장대한 광경
- 주춧돌 : 기둥 밑에 기초로 받쳐 놓은 돌
- 학창의 : 소매가 넓고 뒤 솔기가 갈라진 흰옷의 가를 검은 천으로 넓게 단 웃옷
- 패옥 : 조선 시대에, 왕과 왕비의 법복이나 문무백관의 조복과 제복의 좌우에 늘어 차던 옥
- 화락 : 화평하고 즐거움

34 작품의 공통점 파악하기

정답 ①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88%	5%	2%	1%	1%
--------------	-----	----	----	----	----

해설 | (가)에서는 ‘도화행화, 녹양방초, 도화’ 등 봄이라는 계절감을 부각하는 소재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며 아름다운 봄을 맞이하는 화자의 흥취를 엿볼 수 있다. 또한 (나)에서는 와룡폭포의 모습, 물줄기, 연못 등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 대상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두 작품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는 ①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풀이 | ② (가)에는 자연과 인간사를 대비하며 자연 속에서 봄 경치를 즐기는 화자의 모습을 엿볼 수 있지만 자기반성의 모습은 찾을 수 없다. (나) 역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화자의 깨달음이 드러나고 있을 뿐 자기반성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가)와 (나) 모두 풍자의 기법을 활용하여 세태를 비판하고 있는 구절은 찾아볼 수 없다. ④ (가)와 (나) 모두 대상을 관찰하여 양면적 속성을 포착한 것과는 거리가 멀다. ⑤ (가)는 봄 자연의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있으며, (나)는 와룡폭포의 웅장한 모습을 통해 자연과의 조화를 드러내고 있다.

35 구절의 의미 이해하기

정답 ⑤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1%	1%	2%	91%
--------------	----	----	----	----	-----

해설 | ㉔는 폭포의 거센 물줄기로 인해 너댓 개의 주춧돌만 남은 채 사라진 정자의 옛터를 언급하는 내용으로, 과거를 회상하며 지나온 삶에 대한 화자의 후회는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⑤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 ① ㉔에서는 ‘속세에 묻혀 사는 사람들아, 내 생활하는 모습이 어떠한가?’의 묻는 방식을 통해 화자 자신의 생활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② ㉔는 ‘숲 속에 우는 새는 봄기운을 끝내 이기지 못하여 소리마다 아양을 떠는 구나.’의 의미인데, 화자는 ‘새’라는 대상을 통해 봄을 맞이하는 흥취를 환기하고 있다. ③ ㉔는 ‘고운 모래가 깨끗한 물에 잔을 씻어 술을 부어 들고, 맑은 시냇물을 굽어보니, 떠오르는 것은 복숭아꽃이로구나.’라는 의미로, 시냇물을 바라보며 풍류를 즐기는 화자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④ ㉔는 여름철에 큰비가 내리면 더욱 웅장해진 폭포의 물줄기와 굉음을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생동감을 부각하고 있다.

36 작품 감상의 적절성 파악하기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1%	3%	89%	1%
--------------	----	----	----	-----	----

해설 | (보기)에서는 자연미를 체험하는 두 방식인 ‘유거(幽居)’와 ‘탐승(探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유거’란 작가가 은거하는 일상적인 생활 공간 주위를 노닐며 즐기는 방식이고, ‘탐승’이란 작가가 거주지에서 멀리 떠나 여러 명승지를 두루 돌아다니는 기행 방식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가)와 (나)를 살펴볼 때, (가)의 ‘저 밭’은 화자가 ‘무릉’처럼 여긴 곳으로 탐승을 위한 거점 공간으로 볼 수 없으며, (나)의 ‘연못’ 역시 작가가 노닐며 즐기는 일상적인 생활 공간이라는 점에서 탐승 공간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저 밭’과 ‘연못’을 작가가 낯선 곳을 기행하기 위해 거점으로 삼은 명승지로 이해한 ④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 ① ‘수간모옥’은 ‘몇 칸 안 되는 작은 초가집’이라는 뜻으로, 벽계수 앞에 있고 자연의 주인이 되는 공간이자 세속과 탈속의 경계를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작가가 유거를 체험하는 거주지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다. ② ‘무릉이 갖 갑도다’는 ‘무릉도원이 가깝구나’의 뜻으로 ‘무릉’은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향을 의미한다. 따라서 거주지 주위의 공간을 이상향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늘어지게 한숨 자노라’를 통해 자연 친화적인 화자의 삶의 태도를 엿볼 수 있는데, 이는 유거를 통해 익숙함을 느끼는 공간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상황과 일치한다. ⑤ (가)는 봄날의 경치 완상과 안빈낙도를, (나)는 와룡폭포를 바라보며 자연과의 조화를 깨닫고 있다는 데서 유거를 통한 작가의 심리적 만족감을 엿볼 수 있다.

37 자료를 통한 작가의 태도 파악하기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3%	1%	2%	88%	4%
--------------	----	----	----	-----	----

해설 | (보기)의 자료를 참고할 때, (나)의 작가인 체제공은 갑작스럽게 벼슬에서 물러난 후 명덕동에 은거하며 신선의 삶을 추구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와룡폭포 근처의 ‘난가대’를 좋아했는데 ‘난가’라는 말이 신선의 땅이라는 뜻을 지녔다는 것과 신선처럼 살고자 하는 사람의 복장인 ‘학창의’를 입었으며, 자주 읽으면 신선이 된다는 속설이 있는 ‘도덕경’을 탐독했다는 데서 작가의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엿볼 수 있다. 따라서 ㉔는 작가가 은거지의 자연 속에서 신선의 삶을 동경하다가 느끼게 된 정신적 경지를 보여 주는 것으로, 작가가 무아지경의 만족감을 느끼는 상황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것은 ④이다.

오답풀이 | ① 자신의 삶이 신선의 삶보다 낫다는 확고한 믿음으로 볼 수 없다. ② 신선의 삶을 동경하는 자연 친화적인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것이지만, 신선의 삶을 추구하다가 봉착하게 된 자신의 한계를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③ 갑작스럽게 벼슬에서 물러났지만 명덕동으로 이사한 후 산수를 즐기며 여유와 안정을 찾았다는 데서 속세에 대한 미련을 보여 주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신선의 삶을 추구하며 자연 속에서 생활하는 심리적 만족감이 나타날 뿐이지 세속의 생활을 그리워해서 생기게 되는 괴리감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38-40] 문학~현대시

지문 분석

(가) 서정주 「추천사」

작품 감상 추천이 그네를 타는 행위를 통해 삶의 고뇌로부터 벗어나 이상 세계에 도달하고자 하는 열망을 보여 주고 있는 작품으로 현실을 초극하려는 의지와 현실에 대한 애착 사이에 놓인 심리적 갈등을 그리고 있다. '그네'는 바로 이들 사이를 왕복하게 하는데, 천상 세계를 꿈꾸면서도 끝내 인간이 사는 지상을 떠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적 한계를 느끼게 한다.

주제 초월적 세계로의 갈망

시구 풀이

- 추천 : '그네'의 다른 말이다.
- 향단야 : 표면적으로 시적 화자가 말을 걸고 있는 대상으로서, 말을 하는 사람이 '추천'임을 알 수 있다. '향단야'를 반복함으로써 시적 화자의 갈망이 강해지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 이 다소곳이 ~ 아주 내어밀듯이 : 수양버들나무, 풀꽃더미, 나비, 피꼬리 등 지상 세계의 사물들이 아름답게 그려짐으로써 추천의 현실에 대한 애착과 그것들로부터 '내어밀듯이' 벗어나고픈 갈망 사이의 갈등을 표현하였다.
- 산호도 섬도 없는 저 하늘 : '하늘'은 추천이 현실에서 벗어나 도달하고자 하는 이상 세계이다. 그 곳은 '산호'나 '섬'과 같은 장애물(갈등)이 없는 자유롭고 허허로운 곳이다.
- 서로로 가는 ~ 갈 수가 없다 : 현실을 벗어날 수 없다는 운명의 한계를 자각하는 부분이다. '서'는 '서방정도'라 불리는 불교적 이상 세계, '달'은 그 초월적 공간으로 거침없이 가는 존재를 뜻한다.

(나) 복효근 「느티나무로부터」

작품 감상 긴 세월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으면서 부러진 가지에서조차 꽃을 피우는 느티나무의 모습과 위험을 무릅쓰고 내 피를 빨아먹는 모기의 모습을 통해 삶에 대한 의지와 새로운 다짐을 하는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화자는 느티나무를 통한 성찰의 과정을 통해 삶의 고통이나 상처가 타자를 포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자신과 타자를 긍정하는 삶을 지향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주제 느티나무의 모습을 통해 배운 삶에 대한 여유로움

시구 풀이

- 울퉁불퉁 ~ 박혔다 : 힘겨운 삶의 모습
- 화급히 : 매우 급할 정도로
- 그렇게 ~ 왔구나 : 느티나무에 동질감을 느낌
- 꽃을 피워 : 생명에 대한 경외감
- 삶은 커다란 ~ 알겠는가 : 상처가 새 생명을 낳는 근원이 되기도 함
- 피꽃 : 삶의 의지라는 긍정적 의미
- 잡지 않는다 : 작은 모기도 살려는 의지를 지녔기 때문
- 다시 신발끈을 맨다 : 화자의 결연한 의지나 다짐

38 작품의 공통점 파악하기

정답 ①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84%	2%	7%	3%	2%
--------------	-----	----	----	----	----

해설 | (가)는 화자인 추천이 청자인 향단에게 그넷줄을 밀어 달라는 말을 건네고 있는데, 이러한 대화체의 독백 형식은 화자의 내적 갈등이 혼자서 해결할 수 없을 만큼 깊고 고통스러우며 그만큼 현실에서 벗어나고픈 갈망과 의지가 강함을 강조하는 효과를 갖는다. 그리고 (나)의 화자는 느티나무를 '너'라고 지칭하며 '어디서 왔느냐', '언제부터 여기에 있었느냐', '어디로 가는 길이나'라고 묻는 말을 건네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을 활용하여 자연물과 자신의 모습을 겹쳐 봄으로써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는 ①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풀이 | ② (가)와 (나) 모두 뜻하고자 하는 것과는 반대의 표현을 하여 애초에 뜻하고자 하는 내용을 성공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반어적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공감각적 표현이란 시각적인 현상을 청각적으로 표현하거나 청각적인 현상을 미각적으로 바꾸어 표현하는 것처럼 감각을 전이시켜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데, (가)에서는 이러한 공감각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 (나)의 경우 '매미 울음꽃 피우는 한낮', '꿈에 젖은 듯' 등에 공감각적 표현을 엿볼 수 있다. ④ (가)와 (나) 모두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을 옮김에 따라 대상의 다양한 측면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⑤ (가)와 (나) 모두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미래에 대한 비판적 전망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39 발표 내용의 적절성 평가하기

정답 ⑤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3%	3%	2%	87%
--------------	----	----	----	----	-----

해설 | <보기>에서는 시를 낭송하는 것은 시를 특정한 호흡과 어조로 읽는 것이라고 하며, 시행의 수나 길이 등이 시를 낭송할 때 호흡에 영향을 주게 됨을 설명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여 시를 낭송하고자 할 때, 각 연이나 시행마다 일정한 시간을 배분한다면, 행의 길이가 길수록, 한 연에 속한 행의 수가 많을수록 빠른 속도로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가)의 경우 5연은 화자 자신의 운명적 한계를 자각한 뒤에도 초월적 세계에 대한 열망을 포기할 수 없는 인간의 속명을 나타내고 있는데, 다시 1연의 반복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행의 길이가 짧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보기>를 고려하여 적용하면 점차 느려지는 속도로 낭송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5연에서 화자는 4연의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는 인식 이후에도 계속 그네를 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이때 나타나는 정서와 관련짓는다면 체념적 어조로 5연을 낭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오답풀이 | ① 1연은 그네가 상승하기 이전의 상황이다. 따라서 초월적 세계로의 욕망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시점으로, 각 행의 길이가 짧고 템포가 느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대체로 느리게 낭송하는 것이 적절하다. ② 2연은 그네가 상승하고 있는 상황으로, 행의 길이가 점차 길어지면서 템포가 빨라지고 있다. 따라서 대체로 빠르게 낭송하는 것이 적절하다. ③ 3연에서는 '나를 밀어 올려다오'라고 시구가 세 번이나 반복되면서 호흡이 빨라지고 화자의 욕망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격정적인 어조로 낭송하는 게 적절하다. ④ 4연에서는 정점에 이르면 그네가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운명을 지닌 것처럼, 화자 또한 초월적 세계에 대한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자각하게 된다. 따라서 다시 행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호흡이 느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대체로 느리게 낭송하는 것이 적절하다.

40 작품 감상의 적절성 평가하기

정답 ⑤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2%	7%	6%	81%
--------------	----	----	----	----	-----

해설 | [E]에서 화자가 모기를 잡지 않는 것은 다른 생명에 대한 배려로 볼 수 있는데, '남은 길이 조금은 덜 외로우리라'에서 보듯 타자에 대한 이러한 배려가 자기 삶에 대한 긍정으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다시 신발 끈을 매는 행위에서는 자신의 삶을 살아가려는 의지가 엿보이는데, 이는 곧 자신을 긍정하고 타자를 포용하는 삶에 대한 의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⑤의 설명 중 자연에 대한 경외감이란 자연을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시는 '느티나무의 모습을 통해 배운 삶에 대한 여유로움'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 자연에 대한 경외감을 표출하는 것은 아니므로 ⑤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 ① [A]에서 '뿌리'의 식물적 이미지는 '발등', '발가락' 등의 인간적 이미지로 치환되고 있다. ② [B]에서 화자는 나무와 자신이 먼 길을 걸어왔다는 사실에 동질감을 느끼며 나무에게 말을 건네고 있다. ③ [C]에서 화자는 가지의 속살이 썩어 있는 곳에서 풀이 꽃을 피우고 있음을 발견하고 있다. ④ [D]에서 화자는 [C]를 바탕으로, '커다란 상처' 혹은 '구멍'으로 이해될 수 있는 고통이 '자궁'이 될 수 있음을 알고 고통과 치유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있다.

[41-45] 문학~현대 소설

지문 분석

임철우 「아버지의 땅」

작품 감상 이 작품은 한국 전쟁 때 좌익 활동을 하다가 행방불명이 된 아버지 때문에 정선적 고통을 겪는 내가 우연히 한국 전쟁 당시 죽음을 맞은 한 유골을 발견하고 그 유골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미워했던 아버지와 화해에 이르게 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는 현재와 과거의 중첩과 배경에 대한 묘사를 통하여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는데, 유골을 수습하는 과정 중간중간에 어머니에 대한 나의 회상이 중첩되는 구조는 나와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전쟁에 대한 상처를 보여 주면서 이념 대립으로 인한 남북 분단의 상처가 전쟁을 체험한 세대와 체험하지 못한 세대에게까지 미치고 있음을 드러낸다. 그리고 유골의 수습이 끝나면서 아버지를 이해한 나에 의해 묘사된 작품의 배경은 눈이 모든 것을 하얗게 지워가는 모습이다. 이러한 배경 묘사는 아버지에 대한 나의 이해와 연결되면서 남북 분단의 상처를 극복하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주제 분단 현실의 실상과 그 극복

어휘 풀이

- 사위 : 사방의 둘레
- 환영 : 눈앞에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 영락없다 : 조금도 틀리지 아니하고 꼭 들어맞다.
- 황황히 : 갈팡질팡 어쩔 줄 모를 정도로 급하게
- 음복 : 제사를 마치고 제사에 쓴 술이나 음식을 나누어 먹는 일
- 퇴락 : 낡아서 무너지고 떨어짐
- 상흔 : 상처를 입은 자리에 남은 흔적

41 작품의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정답 ①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87%	4%	2%	4%	1%
--------------	-----	----	----	----	----

|해설| 이 작품은 1인칭 주인공 시점에 의해 서사가 전개되고 있는데, 유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서술자가 본 어머니의 환영과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통해 서술자의 내면 심리와 주제가 잘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서술자의 내적 독백을 통해 서사를 전개하고 있다고 진술한 ①의 설명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풀이| ② 유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빈번한 장면의 전환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긴박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분열된 자의 식이관 행동과 마음이 불일치하는 의식 구조를 의미하는데, 이 작품에서는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한 이러한 양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이 작품은 1인칭 주인공 시점에 의해 사건이 전개되고 있으므로 여러 인물의 내면을 서술하여 인물들의 다양한 특성을 보여 주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현재와 과거의 공간이 달라지고 있지만 서술자는 '나'로 일관되므로 적절하지 않다.

42 작품 감상의 적절성 평가하기

정답 ②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83%	5%	1%	6%
--------------	----	-----	----	----	----

|해설| 현재 군인의 신분인 '나'는 공산주의자로 활동하다가 행방불명된 아버지로 인해 어릴 적부터 정신적 고통을 지니며 살게 되는데, 야영지에서 허울의 발굴을 통해 지난 날 아버지와 같은 사람들에게 가해졌던 폭력의 흔적을 확인하면서 그 유골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아버지를 잊지 못하는 어머니를 이해하고 아버지의 상처를 이해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는 불현듯 현기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곱고 자상한 눈매'와 '나직한 음성'은 주인공인 '나'가 아버지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대해 기억하는 부분이므로 ②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살을 녹이고 뼈까지도 녹슬게 만든', '철사 줄'의 '끈질긴 냉혹성'은 전쟁으로 인한 우리 민족의 상처이면서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어머니의 상처이며, 아버지를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는 나의 상처이기도 하다. 따라서 전쟁을 겪었거나 겪지 않은 세대에게서도 전쟁의 폭력성과 비극성이 쉽게 사라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③ '은빛으로 반짝'이는 어머니의 표상은 아버지가 돌아올 것을 믿고 기다렸던 어머니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마루 밑 그 깜깜한 어둠 속'은 나의 과거 기억 속에 존재하고 있는 아버지에게 대한 표상으로 음습하고 불길한 느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대비되고 있다. ④ 유해 수습 과정을 통해 망각의 대상이었던 아버지를 기억해 낸 주인공은 무덤도 묘비도 없이 어딘가에서 잠들었을 아버지를 떠올리며 연민의 정서를 느끼고, 전쟁의 희생자였음을 인식하게 된다. ⑤ 내가 '스스로 묶어 놓은 그 완고한 기만'으로 어머니가 울고 있다고 생각한 것은 돌아오지 못할 것을 짐작하면서도 25년 동안이나 아버지의 귀환을 믿고 기다려 온 어머니 역시 전쟁의 희생자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43 특정 인물의 역할 이해하기

정답 ①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85%	6%	3%	3%	1%
--------------	-----	----	----	----	----

|해설| 유골을 수습하고 있는 노인인 나에게 아버지를 떠올리게 하고, 응서와 화해의 계기를 제공하는 인물로, 전쟁의 상처를 보듬는 인간애를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유골의 뺏조각에 묻은 흙을 정성스레 닦아내거나, 신중히 손질하고 있는 행동을 통해 알 수 있으며, 유골의 몸통뼈에 묶인 줄을 풀어내는 행동에서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것은 ①이다.

|오답풀이| ② 유골을 신중을 기해 정성스럽게 수습하는 노인에게서 전쟁의 상처를 보듬는 인간애를 엿볼 수 있는 것이지 노인이 유해를 수습하는 의식 자체를 강조하는 인물은 아니므로 거리가 멀다. ③ 전통 윤리의 가치를 새로운 관점에서 보여 주는 인물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전쟁의 원인에 대해 무관심한 세태를 비판하는 인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⑤ 자신을 희생하는 인물로 보기 어려우며 가족 간의 대립을 중재하는 것도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44 문맥의 의미 이해하기

정답 ③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2%	88%	2%	3%
--------------	----	----	-----	----	----

|해설| ㉞는 주인공인 '나'가 어머니의 환영을 떠올리는 장면으로, 어머니가 살아 온 삶과 관련한 것이지 남편에 대한 마음이 흔들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리고 있다는 데서 아버지에게 대한 사랑과 정성이 지극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③이다.

|오답풀이| ① '아침마다 소반 위에 떠서 올리던 물사발'을 통해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기를 기원하는 어머니의 간절함을 엿볼 수 있다. ② '광주리를 머리에 인 어머니'는 '나'의 마음에 남아 있는 어머니의 이미지이다. ④ 행방불명이 되어 생사를 알 수 없는 아버지의 액자를 수십 년 동안 깊이 간직해 온 어머니를 통해 남편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한 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⑤ 아버지와 함께 걸어오던 어머니의 환영에서 어느 순간 아버지는 사라지고 어머니의 발자국만 그녀를 따라오고 있다는 것은, 어머니가 오랜 세월 아버지의 부재로 외롭게 살아왔음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5 사건의 전개 과정 이해하기

정답 ②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3%	61%	7%	5%	2%
--------------	-----	-----	----	----	----

|해설| 아버지가 자신의 신념을 위해 가족을 버리고 도망치듯 떠나는 장면 및 어머니와의 장면은 과거 회상이고 노인이 유해를 수습하는 장면과 유해 수습 후 군인들이 봉분을 만들고 음복을 하는 장면은 현재이다. 따라서 일어난 순서대로 장면을 재배열하면 ⑤(아버지가 밤에 산길을 따라 도망치듯 떠나는 장면) → ④(어머니가 내게 등을 돌리고 앉아서 우는 장면) → ①(밥상에서 미역국이 식어 가는 장면) → ③(노인이 철사 줄 묶음을 허공에 던지는 장면) → ②(군인들이 봉분을 만들고 음복을 하는 장면)이다. 정답은 ②이다.

대치동기출

고득점을 기원합니다.

I 등급컷

등급	1	2	3	4	5	6	7	8
원점수	96	92	84	75	62	48	35	24
나의 점수	[] 점				[] 등급			

I 오답률 Best 5

순위	1	2	3	4	5
번호	29	14	18	45	13
오답률(%)	69	46	43	39	28

정답과 해설					본문 42~60페이지
1 ②	2 ②	3 ④	4 ③	5 ③	
6 ④	7 ⑤	8 ②	9 ①	10 ⑤	
11 ⑤	12 ④	13 ①	14 ①	15 ④	
16 ②	17 ②	18 ⑤	19 ②	20 ⑤	
21 ⑤	22 ①	23 ⑤	24 ⑤	25 ④	
26 ④	27 ②	28 ⑤	29 ①	30 ④	
31 ①	32 ③	33 ②	34 ③	35 ④	
36 ④	37 ③	38 ⑤	39 ①	40 ①	
41 ④	42 ④	43 ③	44 ③	45 ②	

[1-5] 화법

1 화법의 특성 이해하기 정답 ②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94%	1%	1%	0%
--------------	----	-----	----	----	----

해설 | 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참여자는 대화의 주제와 상관없는 다른 이야기를 할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화의 원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참여자들에게 대화의 주제에 대해 명확히 인식시켜 주거나 주제를 구분하여 대화의 순서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시된 장면은 발표 수업 주제인 '화가 이중섭의 삶'에 대한 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장인 민호는 '자료 조사', '보고서 작성', '프리젠테이션 파일 만들기'의 역할 분담에 대해 조원들과 논의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의 경우, 민호는 바로 앞에서 조 이름이 이상하다는 도윤이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논의하고 있는 역할 분담을 끝내고 한다는 데서 화제 선택에 제약을 주고 있다고는 볼 수 있다. 그러나 대화 참여자들의 문화적 배경 차이를 고려한 것은 아니므로 ②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 ① ㉠에서 채원이는 자신이 며칠 전 본 신문에서 얻은 ○○미술관에서 이중섭 특별전을 한다는 정보를 활용하여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에서 채원이는 대화 참여자인 친구들이 자신의 집에 와 봤다는 공유 정보를 활용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④ ㉢에서 도윤이는 비언어적 표현인 고개를 끄덕이는 행동과 언어적 표현인 '맞아'라는 말을 함께 사용하여 채원이의 말에 동조하며 맞장구를 치고 있다. ⑤ ㉣에서 민호는 서영이가 말을 머뭇거리는 것을 보고 마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격려함으로써 협력적 분위기를 이끌고 있다.

2 주도자와 참여자의 역할 이해하기 정답 ②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9%	62%	5%	1%	0%
--------------	-----	-----	----	----	----

해설 | 공동 의사 결정을 해야 하는 대화에서 주도자는 참여자 모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참여자들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상대의 의견도 수용하여야 한다. 특히 주도자는 모두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도록 말하기와 듣기 전략을 잘 사용하여야 한다. <보기>에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 주기, 열린 질문하기, 상대방의 의견 수용하기가 전략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세 가지 요소가 가장 잘 반영되어 있는 것은 ②이다.

오답풀이 | ① '보고서 작성'을 하고 싶다는 서영이의 의견을 수용하지는 못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서영이의 입장을 인정하고 있지만,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는 열린 질문을 활용하고 있지 않으며 부정적 태도 또한 보이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주도자가 모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께 여쭙어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자 유보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서영이의 입장을 인정하지도 않았으며,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는 열린 질문을 활용하여 서영이의 의견을 수용하려는 자세도 보이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3 대담 참여자의 말하기 방식 평가하기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6%	1%	1%	88%	2%
--------------	----	----	----	-----	----

해설 | 라디오 대담에서 진행자와 전문가는 '정당행위'의 개념과 배상 책임 면제에 관한 법률적 지식을 청취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고 있다. 그리고 전문가는 마지막 말에서 추가적인 정보, 즉 건물 주인이 손해의 원인을 제공한 약당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의 마지막 말의 내용이 진행자의 오해를 바로잡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④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 ① 진행자는 전문가에게 화제와 관련하여 적절한 질문을 던지며 대담을 진행하고 있다. ② 진행자의 세 번째 말을 통해 알 수 있다. 진행자는 전문가가 '정당행위'의 개념에 대해 설명한 말을 재확인함으로써 청취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③ 전문가의 두 번째 말에서 전문가가 민법 761조 1항을 근거로 제시하여 '정당행위'를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전문가는 스파이더맨이 약당과 싸우다 남의 건물을 부숴했다는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가상적 상황을 설정함으로써 화제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4 발표 계획의 반영 여부 파악하기 정답 ③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0%	95%	1%	0%
--------------	----	----	-----	----	----

해설 | ㉢의 '캡사이신의 다양한 활용 사례 제시'는 캡사이신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사례를 제시하여 밝힌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학생의 발표에서 이러한 사례는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정답은 ③이다.

오답풀이 | ① "오늘 저의 발표가 여러분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② 발표를 통해 무극성 물질인 캡사이신의 화학적 속성을 알기 쉽게 제시하고 있다. ④ "오늘 저의 발표 내용을 잘 이해하셨나요? (청중의 반응을 살피고) 네, 모두 잘 이해하신 것 같네요"를 통해 알 수 있다. ⑤ "다시 정리하면, 캡사이신은 매운 맛을 내는 무극성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운 맛을 없애려면 물 대신 우유를 마셔야 합니다."에서 발표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

5 반응의 적절성 평가하기 정답 ③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1%	93%	1%	0%
--------------	----	----	-----	----	----

해설 | 발표에서 학생은 물과 캡사이신의 관계, 우유와 캡사이신의 관계를 시각 자료인 슬라이드 화면을 활용하여 비유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유적인 그림을 통해 발표자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③이다.

오답풀이 | ① "저는 얼마 전에 청양고추를 먹다가 매워서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에서 발표자의 실제 경험이 잘 드러나고 있다. ② "여러분, '캡사이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런데 물을 마셔도 왜 매운 맛이 가시지 않을까요?",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입니까 잘 알고 있지요?", "그렇다면 캡사이신은 극성 물질인 물에 더 잘 녹을까요? 아니면 무극성 물질인 우유에 더 잘 녹을까요?", "오늘 저의 발표 내용을 잘 이해하셨나요?" 등의 질문을 통해 청중과 상호작용하고 있다. ④ 시선, 표정, 눈빛, 제스처 등의 비언어적인 표현을 상황에 맞게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물과 캡사이신, 캡사이신과 우유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그린 그림을 활용하여 시각적 효과를 높이고 있다.

[6-10] 작문

6 글쓰기 전략 파악하기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1%	2%	4%	90%	0%
--------------	----	----	----	-----	----

해설 | 이 글의 예상 독자는 [E]의 내용을 고려할 때, 학생과 선생님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글의 내용을 살펴볼 때, 필자가 예상 독자의 이해 수준과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하여 내용을 구성했다는 사실은 글을 통해 알 수 없다. 따라서 글쓰기 전략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④이다.

|오답풀이| ① 필자가 속한 학교의 구성원들과 관련된 학급회의 시간 문제를 주제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다. ② 필자가 최근 본 다큐멘터리를 통해 습득한 배경지식을 동원하여 설득력을 높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학급회의 시간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명확히 밝히고 있으며, 학급회의를 좀 더 자주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⑤ 필자는 다수의 독자가 보는 학교 신문에 실리는 글임을 고려하여 격식을 갖춘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참고로 격식체란 상대 높임법의 하나인데, 의례적으로 쓰며 표현은 직접적, 단정적, 객관적이다. 해라체, 하게체, 하오체, 합쇼체 따위가 있다.

7 글의 수정 및 보완의 적절성 이해하기 정답 ⑤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1%	3%	2%	5%	87%
--------------	----	----	----	----	-----

|해설| (가)의 ‘학급회의 시간이 충분인가에 대한 응답’과 ‘학급회의가 필요한 이유’, (다)의 ‘관련 자료’를 통해 학급회의 시간 편성을 늘리기 위해 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이끌어 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⑤이다.

|오답풀이| ① (가)의 설문 조사 중 ‘1. 학급회의 시간이 충분인가에 대한 응답’에서 학급회의 시간이 부족하다는 학생들의 비율이 86%에 이를 정도로 높으므로 [A]의 문제 제기의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 ② [B]는 (가)의 ‘2. 학급회의가 필요한 이유’를 활용하여 학급회의를 통해 갈등 해소의 측면을 추가할 수 있다. ③ [C]에서는 학급회의 시간이 부족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이 더 있다고 했다. 따라서 (나)의 ‘전문가 의견’을 활용하여 학교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④ (나)에서는 학급회의를 통해 학생들이 의견 개진 절차를 배울 수 있다고 하였고, (다)에서는 자율적인 회의를 통해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을 배운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교육적 측면을 [D]에서 활용할 수 있다.

8 조건에 맞는 글쓰기 확인하기 정답 ②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94%	1%	1%	0%
--------------	----	-----	----	----	----

|해설| [자료]를 읽고 제시된 [조건]을 고려할 때, [자료]에 제시된 견해의 일부를 인정한 후에, ‘자율 좌석제’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②의 경우, 첫 문장인 ‘자율 좌석제가 학습 효율을 높이는 측면도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에서 자료의 견해를 일부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인 ‘하지만, 친한 친구들끼리만 앉게 되면 교우 관계를 넓히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세 번째 문장인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짝을 바꾸도록 하는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에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조건]에 부합함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첫 문장에서 자율 좌석제의 단점을 언급하고 있으며, 두 번째 문장에서는 첫 문장의 근거를, 세 번째 문장에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으므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③ 첫 문장에서 자율 좌석제의 문제점을 제기한 후, 두 번째 문장에서는 첫 문장을 근거로 시행 자체가 시기상조임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④ 첫 문장에서 자율 좌석제의 긍정적 효과를 제시한 후, 두 번째 문장에서는 이를 근거로 적극적인 시행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⑤ 첫 문장에서 자율 좌석제의 부정적 측면을 제시한 후, 두 번째 문장에서 이에 대한 보완책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9 글쓰기 과정의 적절성 파악하기 정답 ①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95%	1%	1%	1%	1%
--------------	-----	----	----	----	----

|해설| ‘학생의 글’은 ‘작문 일지’의 내용처럼 사전에서 확인한 내용과 일상적인 학교 생활의 경험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된 <보기>의 항목은 순서대로 ㉠, ㉡이다. 즉 “‘배려’는 도와주거나 보살펴 주려고 마음을 쓰는 것”이라는 정의의 방식을 활용한 ‘배려’의 개념을 밝히면서 글을 시작하고 있으며(㉠), 은정미와 일상에서의 구체적 경험을 떠올려 글감을 구체화하였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오답풀이| ㉢, ㉣와 같이 ‘배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여러 측면의 효과나 ‘배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은 ‘학생의 글’에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거리가 멀다.

10 고쳐 쓰기 방안의 적절성 파악하기 정답 ⑤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0%	5%	1%	90%
--------------	----	----	----	----	-----

|해설| ㉠은 2문단 ‘그런데’ 이후의 내용과 비교해 보면, 자신이 과거에 했던 생각

에 대해 반성을 시작하는 3문단의 계기를 밝힌 것이다. 문장의 서술어 ‘때문이다’는 이러한 관계를 알 수 있는 단서가 된다. 따라서 ㉠이 삭제된다면 ‘작문 일지’에서 밝힌 성찰의 과정이 잘 드러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오답풀이| ① ‘성급한’은 ‘성질이 급한’이므로 ‘일이 바빠 닥쳐서 매우 급한’의 ‘다급한’으로 고쳐 써야 문맥상 적절하다. ② ‘-내’는 ‘오늘 따라 왜 저러신대?’와 같이, 놀라거나 못마땅하게 여기는 뜻을 섞어, 주어진 사실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 쓰인다. ‘-내’는 뒤 절에서 어떤 일을 설명하거나 묻거나 시키거나 제안하기 위하여 그 대상과 상관되는 상황을 미리 말할 때에 쓰는 연결 어미이다. 따라서 어미의 사용이 잘못되었으므로 ‘하는데’로 고치는 것이 좋다. ③ ㉢은 앞의 문장과 순서를 바꿔야 글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④ 조사 ‘-를’은 동작이 미친 직접적 대상을 나타내거나, 행동의 간접적인 목적물이나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조사이다. 따라서 ‘청소를’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11-16] 문법

11 ‘ㅎ 탈락’ 현상 이해하기 정답 ⑤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0%	2%	0%	94%
--------------	----	----	----	----	-----

|해설| 음운의 탈락이란 두 소리가 이어질 때 한 소리가 탈락하는 것을 말한다. 음운의 탈락은 자음과 모음에서 모두 일어나며, 그 종류에는 자음 탈락, 모음 탈락이 있다. <보기>에서는 자음 탈락 중 ‘ㅎ 탈락’ 현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⑤의 경우, ‘좋아요’를 [조아요]라고 발음하는 것은 음절의 끝소리 ‘ㅎ’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여 탈락한 것으로 이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① ‘하얏다’를 [하야타]로 읽는 것은 ‘ㅎ’과 ‘ㄷ’의 축약에 의한 것이다. ② ‘좁히다’를 [조피다]로 발음하는 것은 ‘ㅎ’과 ‘ㅂ’의 축약에 의한 것이다. ③ ‘놓는다’를 [논는다]로 발음하는 것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에 의한 것이다. ④ ‘그렇죠’를 [그려쵸]로 발음하는 것은 ‘ㅎ’과 ‘ㅈ’의 축약에 의한 것이다.

12 단어의 의미에 따른 품사 구분하기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3%	2%	10%	76%	7%
--------------	----	----	-----	-----	----

|해설| <보기>는 하나의 단어가 동사와 형용사 두 가지로 쓰이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다. ④의 ‘기대가 크다’에서 ‘크다’는 ‘기대나 생각이 보통 정도를 넘는다’는 뜻으로 상태를 나타내므로 형용사이다. 또한 ‘쑥쑥 크다’에서 ‘크다’는 ‘자라다’의 뜻으로 작용을 나타내는데 이때는 동사로 쓰인 것이다. 따라서 ㉠의 사례로 가장 적절하다.

13 피동 표현 이해하기 정답 ①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66%	18%	4%	8%	1%
--------------	-----	-----	----	----	----

|해설| 주어가 다른 주체에 의해서 동작을 당하게 되는 것을 피동이라 하고, 주어가 남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것을 사동이라 한다. ①의 ‘아이에게 밥을 먹였다.’는 누군가가 아이가 밥을 먹도록 시킨 것이므로 이는 ‘아이가 밥을 먹었다.’라는 문장에 사동 접미사 ‘-이-’가 결합된 사동문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② ‘당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람에게 부당하거나 원하지 않는 일을 겪거나 입다.’로 피동의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꼬마가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했다.’는 피동의 의미를 갖는 단어에 의해 만들어진 피동 표현에 해당한다. ③, ④, ⑤ 피동 접미사 ‘-히-’를 사용한 문장인 ‘토끼가 사냥꾼에게 잡혔다.’와 ‘-되다’를 사용하여 ‘생태계가 사람들에게 의해 파괴됐다.’와 능동문의 서술어에 ‘-어지다’를 붙여 피동문을 만든 ‘이 영화는 박 감독에 의해 만들어졌다.’ 등은 모두 남의 행동을 입어서 행해지는 동작이므로 피동 표현에 해당한다.

14 다의어의 의미 파악하기 정답 ①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88%	4%	1%	4%	0%
--------------	-----	----	----	----	----

|해설| ‘가다’는 ㄱ과 ㄹ에서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장소를 이동하다’, ㄴ과 ㄹ에서 ‘말이나 소식 따위가 알려지거나 전하여지다’, ㄷ과 ㅂ에서 ‘어떤 대상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르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15 응집성을 드러내는 표현 장치 이해하기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4%	1%	3%	90%	0%
--------------	----	----	----	-----	----

해설 | ④에서 연결어인 '이렇게 한 다음'이라는 표현을 고려할 때, 지시 표현 '이렇게'를 확인할 수 있으며, 순서, 과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어휘인 '다음'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㉗와 ㉘가 모두 나타난 것은 ④임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 ① '먼저'는 직접적으로 순서나 과정을 드러내는 어휘(㉙)이다. ② '우리'라는 2인칭 지시대명사(㉚)가 사용되었다. ③ '그러나'는 접속 부사(㉛)로, 응집성을 표현하는 형식에 해당된다. ⑤ 앞뒤 문장에서 '사포질'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담화의 후반부가 연결점이 만들기 중 '사포질' 단계와 관련되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16-18] 독서~인문

지문 분석

신상규 외 「인간과 포스트휴머니즘」

지문 해제 이 글은 현대 과학 기술의 발달로 등장한 '포스트휴먼'이 '인간'의 존재 의미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다루고 있다. 근대 사회부터 이어져 온 '합리적 이성'이라는 인간의 배타적 속성이 포스트휴먼의 등장으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설명하고, 인간과 비인간의 구분 자체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으로 인간을 되돌아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제 포스트휴먼의 등장과 인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재고

어휘 풀이

- 사이보그 : 뇌 이외의 부분, 즉 수족·내장 등을 교체한 개조 인간
- 대두 : 머리를 쳐든다는 뜻으로, 어떤 세력이나 현상이 새롭게 나타남을 이르는 말
- 귀결 : 어떤 결말이나 결과에 이름. 또는 그 결말이나 결과

16 내용 전개 방식 파악하기

정답 ②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88%	4%	2%	3%	1%
--------------	-----	----	----	----	----

해설 | 17세기 데카르트는 동물과 달리 인간에게는 영혼이 존재하며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데서 동물과 인간을 구분 지을 수 있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은 자유롭고 주체적인 의식을 지닌 유일한 존재로서 그 우월적 지위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이러한 관점은 19세기 유물론과 진화론이 대두되면서 흔들리기도 했지만, 실제 삶 속에서 인간이 아닌 존재가 인간의 우월성을 크게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나지는 않았으므로 지속될 수 있었다. 그런데 20세기 이후 과학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고유의 인간성을 인정했던 관점은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기계 장치의 이식이나 유전자 변이에 의해 강화된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새로운 존재인 '포스트휴먼'이 등장하면서 고유의 인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다. '포스트휴먼'의 등장은 그동안 고유의 인간성을 인정해 왔던 관점에 대해 진지한 성찰을 요구하고 있으며, 포스트휴먼에 관한 논의는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을 구분해 왔던 관점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를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는 'ㄱ'과 'ㄴ'이 가장 적절하다. 정답은 ②이다.

ㄱ : 글 전체에 걸쳐 인간과 인간 아닌 것을 구분하는 관점에 대해 비판적 입장에서 검토하고, 관점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ㄴ : 3문단 이후로 포스트휴먼이 등장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멀지 않은 미래에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에 대해 예측하고 있다.

오답풀이 | ㄷ : 대상과 관련된 상반된 이론을 절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종전의 특정 관점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취하고 있으므로 거리가 멀다. ㄹ :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논증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7 글쓴이의 견해 이해하기

정답 ②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3%	76%	1%	10%	8%
--------------	----	-----	----	-----	----

해설 | 1문단에서 글쓴이는 인간과 비인간을 구분 지을 수 있는 속성, 즉 고유의 인간성이라는 것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 후, 5문단에서 포스트

휴먼의 등장으로 인간과 비인간을 구분하려는 시도 자체에 대한 성찰이 요구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글쓴이의 주장은 인간과 비인간을 구분하려는 시도 자체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오답풀이 | ① 과학 기술의 발달로 기계는 더 이상 인간의 도구로서만 존재하지 않고, 인간의 의식에 관여하고, 더 나아가 인간의 삶의 방식 자체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예측하고 있는 것이지 비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암울한 사회의 도래를 예측하는 것은 아니다. ③ 인간의 배타적 우월성을 유지하기 위해 인간을 인간이 아닌 것과 구분하는 또 다른 기준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글쓴이의 견해이다. ④ 포스트휴먼의 등장은 그동안 고유의 인간성을 인정해 왔던 관점에 대해 진지한 성찰을 요구하며, 이에 대한 논의는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을 구분해 왔던 관점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를 요구한다. ⑤ 합리적 사고 능력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 준다는 견해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거리가 멀다.

18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정답 ⑤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3%	83%	10%	0%	1%
--------------	----	-----	-----	----	----

해설 | <보기>를 보면, 사이보그 T₁은 늙지 않고 병도 들지 않으며 인간보다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그것은 물론 사이보그 T₁이 인체의 한계를 극복한 점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을 시대를 초월한 고유한 인간성의 획득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오답풀이 | ①, ② 3문단에서 포스트휴먼의 개념과 양상을 제시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4문단에서는 인간이 기계 환경에 맞추어 살아가는 의존적인 모습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④ 4문단에서 기계가 더 이상 인간의 도구에 머물러 있지 않는 상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기계가 인간의 의식에 관여하거나 더 나아가 삶의 방식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보기>에서 사이보그 T₁이 아이들에게 교육을 통해 인류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 주었다는 것은 인간의 의식에 사이보그 T₁이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22] 독서~사회

지문 분석

김병용 「관광소비자행동론」

지문 해제 소비자는 구매할 제품을 선택하기 위해 자신의 평가 기준에 따라 그 제품의 여러 브랜드 대안들을 비교·평가하는 대안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 글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눈 보완적 방식과 비보완적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결국 소비자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안 평가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구매할 제품을 합리적으로 선택하게 되고, 마케터는 이러한 소비자들의 대안 평가 방식을 파악함으로써 자사 제품의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세울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주제 대안 평가 방식의 종류와 합리적 선택

어휘 풀이

- 대안 : 어떤 일에 대처할 방안
- 브랜드 : 사업자가 자기 상품에 대하여, 경쟁업체의 것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 따위의 일정한 표지
- 합산 : 합하여 계산함
- 상쇄 : 상반되는 것이 서로 영향을 주어 효과가 없어지는 일

19 서술상 특징 파악하기

정답 ②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1%	1%	2%	3%	91%
--------------	----	----	----	----	-----

해설 | 글쓴이는 소비자가 구매할 제품을 선택하기 위해 자신의 평가 기준에 따라 제품의 여러 브랜드 대안들을 비교·평가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안 평가 방식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대안 평가 방식을 보완적 방식과 비보완적 방식으로 구분하고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는 가상의 상황을 제시하여 각 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며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이다.

오답풀이 | ① 소비자의 브랜드 대안 평가 방식을 크게 보완적 방식과 비보완적

방식으로 구분하여 서술하고 있는 것인지, 다양한 관점들을 소개하고 있지 않으므로 거리가 멀다. ③ 다양한 이론을 비교하여 그 중 최선의 것을 선택하고자 한 글은 아니다. ④ 소비자가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안 평가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합리적 선택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한 글이지, 현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글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개념의 변화 과정과는 거리가 멀다.

20 핵심 개념의 공통점과 차이점 파악하기 정답 ⑤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15%	77%	3%	1%	2%
--------------	-----	-----	----	----	----

해설 | 비보완적 방식 중, '결합 방식'은 각 기준별로 허용 수준을 결정한 다음 기준별 브랜드 평가 점수가 어느 한 기준에서라도 허용 수준에 미달하면 이를 제외하는 방식이다. 또한 '분리 방식'은 평가 기준별 허용 수준을 잡은 뒤 어느 한 기준에서라도 이를 만족시키는 브랜드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이 두 방식은 서로 다른 평가 기준에서도 브랜드 평가 점수를 비교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보완적 방식'에 대해 '하나의 평가 기준으로 브랜드 간의 평가 점수를 비교하는 방식'이라 이해한 ⑤는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 ①, ② 2문단을 통해 ①의 '보완적 방식'이 브랜드 대안이 적을 때나 고가의 제품을 구매할 때 많이 쓰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2문단을 통해 알 수 있다. ④의 '비보완적 방식' 중 '사전 편집 방식'은 1순위 기준에서 가장 우수한 대안을 선택하는 것인데, 이는 평가 기준 항목 모두 사용하지 않고도 브랜드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이다. ④ 2문단에서 "비보완적 방식"은 어떤 브랜드의 약점이 다른 장점에 의해 상쇄될 수 없다는 전제하에 대안을 결정하는 방식"임을 밝히고 있다.

21 핵심 개념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정답 ⑤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1%	1%	10%	2%	83%
--------------	----	----	-----	----	-----

해설 | '비보완적 방식' 중 '분리 방식'은 평가 기준별 허용 수준을 잡은 뒤 어느 한 기준에서라도 이를 만족시키는 브랜드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보기>에서 민영이 모든 기준의 허용 수준을 5로 두고 분리 방식을 사용한다면 가격 면에서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A를 선택할 것이다. 따라서 C를 선택할 것이라는 ⑤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 ① '사전 편집 방식'은 1순위 기준에서 가장 우수한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다. <보기>에서 민영이 '사전 편집 방식'을 사용한다면 1순위 기준인 가격에서 평가 점수가 제일 높은 A를 선택할 것이다. ② 민영이 가격과 디자인의 순위를 바꾸어 디자인을 1순위 기준으로 '사전 편집 방식'을 사용한다면 디자인에서 평가 점수가 제일 높은 B를 선택할 것이다. ③ '순차적 제거 방식'은 1순위 기준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어느 수준 이상이면 구매하겠다는 허용 수준을 설정하고 이와 비교하여 마지막까지 남은 브랜드 대안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민영이 가격의 허용 수준을 3으로 두고 순차적 제거 방식을 사용한다면 가격에서 3에 미달하는 B가 제일 먼저 제외될 것이다. ④ '결합 방식'은 각 기준별로 허용 수준을 결정한 다음 기준별 브랜드 평가 점수가 어느 한 기준에서라도 허용 수준에 미달하면 이를 제외하는 방식이다. 민영이 모든 기준의 허용 수준을 3으로 두고 결합 방식을 사용한다면 디자인 평가 점수가 2인 A와 가격 평가 점수가 2인 B를 제외하고, 모든 기준에서 평가 점수가 3 이상인 C를 선택할 것이다.

22 한자어로 바꿔 쓰기 적절성 파악하기 정답 ①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1%	2%	2%	2%	90%
--------------	----	----	----	----	-----

해설 | '마케팅 전략을 세우다'에서 '세우다'는 '국가나 정부, 제도, 계획 따위를 이룩하여 세우다'는 뜻의 '수립(樹立)하다'로 바꿀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것은 ①이다.

오답풀이 | ② 정립(定立)하다 : ~을 정하여 세우다. ③ 설립(設立)하다 : 기관이나 조직체 따위를 만들어 일으키다. ④ 제정(制定)하다 : 제도나 법률 따위를 만들어서 정하다. ⑤ 지정(指定)하다 : ~을 가리키어 확실하게 정하다.

[23-25] 독서~예술

지문 분석

조은정 「아나모르포시스」

지문 해제 | 이 글은 아나모르포시스(왜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왜상은 사물의 형상을 극도로 왜곡하여 표현한 것이어서 정면에서 보게 되면 무엇을 그린 것인지 알기 어렵다. 그림을 정면에서 보는 방식에 익숙한 감상자는 처음 왜상을 접하게 되면 사물이 아닌 일종의 '얼룩'으로 지각하고 당황하게 되는데 자신의 위치를 이리저리 바꾸어 보거나 거울을 놓아보게 되면 이 얼룩은 의미를 가진 형상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러한 왜상을 보기 위해서 감상자는 자신의 위치를 옮기는 등의 행위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감상자는 그림의 감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존재가 되며 왜상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주제 왜상을 감상하는 과정과 의미

어휘 풀이

- 상징 : 토의할 안건을 회의 석상에 내어놓음
- 혼돈 : 마구 뒤섞여 있어 갈피를 잡을 수 없음
- 의의 : 어떤 사실이나 행위 따위가 갖는 중요성이나 가치

23 서술 방식 파악하기 정답 ⑤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73%	11%	8%	4%	2%
--------------	-----	-----	----	----	----

해설 | 이 글은 아나모르포시스(왜상)의 개념과 올바른 감상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아나모르포시스(왜상)는 사물의 형상을 극도로 왜곡하여 표현한 것이어서 정면에서 보게 되면 무엇을 그린 것인지 알기 어렵지만, 정면이라는 고정된 위치에서 그림을 수동적으로 보기만 했던 감상자가 왜상을 감상하는 과정에서 상을 바르게 보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화가의 의도와 주제를 찾아내는 존재가 된다는 점에서 아나모르포시스(왜상)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 아나모르포시스(왜상)의 개념에 대한 서양 미술사에서의 논쟁은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정답은 ⑤이다.

오답풀이 | ① 2문단에서 아나모르포시스(왜상)의 의미와 종류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② 감상자가 그림을 매우 비스듬한 각도에서 보면 사물이 왜곡되어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란체스카는 감상자들의 시야가 그림의 정면에서 90도 각도 이내여야 한다고 하였으며, 니세론이라는 학자는 왜상을 올바르게 감상하는 감상자는 숨겨진 진실을 알아 볼 수 있다는 데서 알 수 있다. ③ 4문단에서 아나모르포시스(왜상)를 능동적으로 감상하는 과정에서 대상이 갖는 의미를 밝히고 있다. ④ 1문단을 통해 알 수 있다. 바로크 시기에 이르러 예술가들은 왜곡 현상을 바로잡아야 할 장애로 받아들이지 않고 아나모르포시스(왜상)라는 독립된 회화 기법으로 발달시켰음을 언급하였다.

24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정답 ⑤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7%	13%	3%	72%
--------------	----	----	-----	----	-----

해설 | 그림 중앙의 물건들은 왜상이 아니므로 정면에서 보면 바른 형상으로 보이며, '지식과 부'를 상징한다는 언급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정면에서 있던 감상자가 해골이 동그렇게 보이는 위치로 이동한다고 해서 그림 중앙의 물건들이 '지식과 부'라는 새로운 상징적 의미를 획득하게 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⑤이다.

오답풀이 | ① 층계에서 보면 왜상이 바르게 보인다고 하였으므로 그림의 해골은 '사각왜상'에 해당한다. ② 3문단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림을 정면에서 보는 방식에 익숙한 감상자는 왜상을 처음 보면 사물이 아닌 일종의 '얼룩'으로 지각하게 된다. ③ 4문단을 통해 알 수 있다. 왜상을 감상하는 과정에서 감상자는 그림 감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언급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보기>의 마지막에 나타난 해골의 상징적 의미, 즉 '죽음'이라는 의미를 드러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감상자가 화가의 숨겨진 생각을 파악해 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5 핵심 정보 파악하기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3%	1%	4%	6%	83%
--------------	----	----	----	----	-----

해설 | 르네상스 시기에는 감상자의 시선을 정면에 상정하여 사물을 표현한다고 하였고, 왜상도 특정한 지점에서 보았을 때 바르게 보이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감

상법의 측면에서 볼 때, 시각왜상과 르네상스 시기의 회화는 일정한 위치에서 보아야 화가가 의도한 형상을 잘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일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26~27] 독서~과학

지문 분석

캠벨 「생물학」

지문 해제 생존을 위해 체액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동물들의 삼투 조절에 대해, 동물이 서식하는 환경에 따라 어떠한 차이점이 있으며 수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알기 쉽게 설명한 글이다. 글쓰이는 삼투 조절의 필요성과 개념, 삼투 현상의 개념,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에 따른 구분 기준과 순응형 동물, (삼투 조절형) 해수 동물, 담수 동물, 육상 동물 등의 순서로 글의 내용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주제 삼투 현상의 개념과 동물들이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

어휘 풀이

- 삼투 : 농도가 다른 두 액체를 반투막으로 막아 놓았을 때,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농도가 높은 쪽으로 용매가 옮겨 가는 현상
- 상피 : 다세포 생물의 몸이나 위장기관 내벽의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 얇은 겹겹질
- 담수 : 강이나 호수 따위와 같이 염분이 없는 물. 민물

26 내용 추론하기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4%	2%	86%	4%
--------------	----	----	----	-----	----

해설 | 담수 동물의 체액은 담수에 비해 염도가 높기 때문에 아가미를 통해 수분이 계속 유입될 수 있다. 그래서 담수 동물들은 물을 거의 마시지 않고 많은 양의 오줌을 배출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한편 육상 동물들 또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분이 밖으로 빠져 나가는데, 오줌, 대변, 피부, 가스 교환 기관의 습한 표면 등을 통해 수분을 잃게 된다. 그래서 육상 동물들은 물을 마시거나 음식을 통해, 그리고 세포 호흡으로 물을 생성하여 부족한 수분을 보충한다. 이를 통해 담수 동물은 육상 동물과 같이 몸 밖으로 수분을 내보내고 있지만, 육상 동물의 경우에는 수분 유지를 위한 것이 아니므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은 공통점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④이다.

오답풀이 | ① 1문단의 '모든 동물들은 생리적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체액의 농도를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와 '체액의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생존 과제이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② 3문단의 '동물들은 이러한 삼투 현상에 대응하여 수분 균형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 삼투 순응형과 삼투 조절형으로 분류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3문단의 '삼투 순응형 동물은 모두 해수 동물로 체액과 해수의 염분 농도, 즉 염도가 같기 때문에 수분의 순이동은 없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⑤ 6문단의 '육상 동물들은 물을 마시거나 음식을 통해, 그리고 세포 호흡으로 물을 생성하여 부족한 수분을 보충한다.'를 통해 알 수 있다.

27 구체적 사례의 적절성 파악하기

정답 ②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7%	2%	5%	82%	1%
--------------	----	----	----	-----	----

해설 | 넙치와 관련된 <보기>의 사례를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하면, 넙치는 해수 동물이며 삼투 조절형 동물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넙치의 체액은 해수에 비해 염도가 낮기 때문에 체액의 수분이 빠져나갈 수 있다. 그래서 표피는 비투과성이지만, 아가미의 상피세포를 통해 물을 쉽게 빼앗기는데, 이러한 삼투 현상에 의해 빼앗긴 수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계속 바닷물을 마시게 된다. 이로 인해 창자에서 바닷물의 70~80%가 혈관 속으로 흡수되는데, 이때 염분도 혈관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아가미의 상피세포에 있는 염분 분비 세포를 작동시켜 과도해진 염분을 밖으로 내보낸다. 따라서 '넙치의 아가미에서는 삼투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군.'이라는 반응을 보인 ②는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 ① 넙치의 창자에서 바닷물의 70~80%가 혈관 속으로 흡수된다. ③, ⑤ 삼투 조절형 동물인 넙치의 체액은 해수에 비해 염도가 낮기 때문에 체액의 수분이 빠져나갈 수 있다. 그러나 표피는 비투과성이므로 이러한 수분 손실을 막을 수 있

다. ④ 아가미의 상피세포에 있는 염분 분비 세포를 작동시켜 과도해진 염분을 밖으로 내보낸다는 언급을 통해 알 수 있다.

[28~30] 독서~기술

지문 분석

김상철 「3축 가속도 센서」

지문 해제 동작 인식에 사용되는 센서 중 하나인 가속도 센서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3차원 공간에서의 움직임을 인식하기 위한 3축 가속도 센서의 작동 원리를 소개하는 글이다. 스마트폰에 사용된 3축 가속도 센서를 예로 들어, 정지 상태에서 기울기가 변함에 따라 가속도 센서 값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주제 3축 가속도 센서의 특징

어휘 풀이

- 가속도 : 일의 진행에 따라 점점 더해지는 속도, 또는 그렇게 변하는 속도
- 착안 : 어떤 일을 주의하여 봄. 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를 잡음
- 용이 : 어렵지 아니하고 매우 쉬운

28 세부 내용 이해하기

정답 ⑤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2%	2%	1%	90%
--------------	----	----	----	----	-----

해설 | 3축 가속도 센서의 축과 중력가속도 방향이 이루는 각도에 따라 가속도 센서의 값이 달라진다. 즉 가속도 센서의 축과 중력가속도 방향이 이루는 각도는 가속도 센서 값과 관련이 있으므로 ⑤는 일치하지 않은 내용이다.

오답풀이 | ① 2문단을 통해 가속도 센서의 값은 방향성을 가진 요소로 구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4문단을 통해 물체가 정지된 상태에서도 3축 가속도 센서에 의해 중력가속도가 감지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③ 1문단에서 가속도 센서는 단위시간당 속도 변화를 검출하여 물체의 움직임을 인식하는 장치임을 언급하였다. ④ 2문단에서 3차원 공간에서의 움직임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세 축 방향에서 가속도를 감지할 수 있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29 추론의 적절성 평가하기

정답 ①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80%	3%	2%	9%	4%
--------------	-----	----	----	----	----

해설 | 책상이 지면과 수평이 아니면 책상 위에 스마트폰을 평평하게 놓더라도 스마트폰이 지면과 수평이 아니게 된다. 따라서 z축이 중력가속도와 나란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적절한 것은 ①이다.

오답풀이 | ② 책상의 높이를 낮춘다고 해서 스마트폰에 작용하는 중력가속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없다. ③ 스마트폰을 기울어진 상태로 놓는다고 하여 세 축이 모두 중력가속도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④ z축이 중력가속도 방향과 수직이 된다. ⑤ x축은 여전히 중력가속도 방향에 수직이다.

30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6%	6%	8%	75%	2%
--------------	----	----	----	-----	----

해설 | (나)의 y축은 (가)에 비해 중력가속도 방향과 수직에 가까운 상태가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나)의 y축 가속도 센서 값은 (가)보다 작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오답풀이 | ① (가)의 y축이 <그림 2>에 비해 중력가속도와 나란한 방향에 가까운 상태이기 때문이다. ② (가)의 z축이 (나)에 비해 중력가속도와 수직에 가까운 상태이기 때문이다. ③ (나)의 z축이 <그림 2>에 비해 중력가속도와 나란한 방향에 가까운 상태이기 때문이다. ⑤ (가), (나) 모두 x축은 중력가속도에 수직이기 때문이다.

[31-33] 문학~현대시

지문 분석

(가) 김소월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 보습 대일 땅이 있었더라면」

작품 감상 이 시는 일제의 수탈로 인해 토지를 잃고 유랑하는 농민의 비애와 경작할 토지를 갖고 싶어 하는 소박하고 간절한 소망을 진솔하게 그려내고 있는 작품이다. 소월의 시에서는 보기 드물게 강한 현실 인식이 직접 드러나 있는 작품으로, 의지에 찬 남성적 어조가 주를 이루며 미래 지향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주제 땅을 잃은 절망과 그 극복 의지

시구 풀이

- 보습 대일 땅이 있었더라면! : 주권 상실에 따른 안타까움
- 아침에 저물손에 : 아침부터 저녁 무렵까지
- 새라 새로운 : 새롭고 새로운

(나) 고재중 「면면(綿綿)함에 대하여」

작품 감상 해체되어 가는 농촌 사회의 단면을 담고 있는 작품으로, '마을'의 아픔을 '느티나무'의 형상 속에 겹쳐놓고 있다. 그러나 '겨울'을 이겨낸 '나무'가 상처를 회복하며 생명을 이어가듯 농촌 역시 생명력과 공동체를 회복하리라는 희망을 제시한다. 이는 다시 생의 의미로 확장되어 면면히 '겨울'을 이겨낸 '나무'와 같이 끊임없이 난관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임을 일깨운다.

주제 해체되어 가는 농촌 공동체의 생명력 회복 소망

시구 풀이

- 날이면 날마다~지난 겨울 : 부정적 상황
- 삭풍, 겨울 : 고통, 시련
- 다 청산하고 떠나버리는 마을 : 해체되어 가는 농촌 공동체
- 광휘 : 환하고 아름답게 눈이 부심
- 저렇게 생생한~생생히 내뿜는데 : 자연의 생명력

31 작품의 공통점 파악하기

정답 ①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80%	1%	5%	4%	7%
--------------	-----	----	----	----	----

해설 | (가)는 '집'과 '땅'을 잃고 유랑하고 있는 화자가 '동무들'과 함께 가꿀 삶의 터전에 대한 회복을 소망하며 부정적 현실에 대처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나)는 시련을 견디며 생명력을 이어가는 '나무'와 같이 수많은 난관을 극복하며 끊임없이 살아가는 것이 인생임을 '면면함'의 의미로 표현하고 있다. 이 두 작품의 공통점을 파악했을 때, (가)는 '나는 꿈꾸었노라'와 '동무들과 내가 가지런히 별가의 하루 일을 다 마치고 석양에 마을로 돌아오는 꿈을, 즐거이, 꿈 가운데가 어순이 도치되어 평화로운 삶에 대한 소망의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나)는 서술어인 '들어 보았니?'가 주어('너') 바로 뒤로 이동하고 목적어인 '~느티나무의 푸르른 울음소리'가 문장의 뒤로 감으로써 '느티나무의 푸르른 울음소리'가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적절한 것은 ①이다.

오답풀이 | ② (가)와 (나)에서 명령형 어미의 사용은 드러나지 않는다. ③ (가)에서는 '별 가', '동이라, 남북이랴', '산경' 등의 공간 이동에 따른 사상 전개로 분위기를 전환하고 있다. ④ 명사로 끝맺는 시행을 반복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는 것은 (나)에만 해당한다. ⑤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하여 친근감을 형성하는 것은 (나)에만 해당한다. 즉 '너'라는 청자와 '~너'라는 친근한 어감의 의문형 어미를 통해 화자의 말이 보다 친근하게 다가옴을 느낄 수 있다.

32 시구의 의미 파악하기

정답 ③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1%	1%	94%	1%	0%
--------------	----	----	-----	----	----

해설 | '떠돌으랴'는 집을 잃고 보습 대일 땅이 없는 절망적 상황에서 유랑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현실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이 드러나는 시구이다. 따라서 과거 사실에 대한 화자의 반성적 자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이해한 ③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 ① '꿈'에는 동무들과 함께 삶의 터전을 가꾸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이 투영되어 있다. ② '집'의 상실과 '땅'의 부재는 삶의 터전을 잃은 화자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집 잃은'을 통해 화자가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④ '떠돌으랴'와 함께 유랑의 삶을 사는 화자의 현재 상황이 드러난다.

다. ⑤ 부정적 현실에 절망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난다.

33 작품 감상의 적절성 평가하기

정답 ②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5%	82%	6%	2%	2%
--------------	----	-----	----	----	----

해설 | [C]의 '다 청산하고 떠나버리는 마을'은 공동체가 해체되어 가는 농촌의 모습이다. '나무'의 아픔은 곧 '마을(사람들)'의 아픔이다. '나무'의 흐느낌에는 이러한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의 정서가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묵묵히 '마을'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다. '가지 팽팽히 후리던 소리'를 통해 혹독한 시련을 견디며 마을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읽어낼 수 있다. 따라서 [C]와 관련하여, '청산하고 떠나버리는 마을'에서 해체된 농촌 공동체의 단면이 드러나는 것은 적절하지만, 이로 인한 화자의 체념과 절망이 '가지 팽팽히 후리던 소리'에 투영되어 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오답풀이 | ① [B]의 '상처투성이'의 '겨울' 나무와 [D]의 겨울을 이겨낸 '초록의 광휘를 내뿜는' 나무가 대조적 상황을 보여준다. ③ [D], [E]에는 시련을 이겨낸 '나무'의 의연함을 닮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엿보인다. ④ [E]에서는 '나무'의 '생명력'이 농촌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고 있음을 청각적 이미지로 형상화하고 있다.

[34-36] 문학~현대 소설

지문 분석

박태원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작품 감상 이 작품은 작가의 실제 생활을 반영한 자전적인 소설로 발표 직후 새로운 형식의 소설이란 평가를 받기도 했으며, 목적 없이 집을 나간 구보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길에서 부딪히게 되는 단편적인 여러 사실들, 그리고 그에 의해 촉발되는 두서없는 생각들의 편린을 통해 1930년대의 나약한 지식인의 일상사를 엿볼 수 있다. 이 작품은 어머니의 소망인 일상적인 '행복'과 지식인의 무묘한 일상은 이 작품의 중요한 내용 구조를 이루고 있다. 또한 '산책'이라는 배화의 형식은 '관찰'과 '의식의 흐름'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장치이다. '구보'가 지나가는 길에 나타난 풍물은 근대화의 양면성을 드러내 주고 있으며 중요한 것은 내면 의식의 흐름이다. 그것은 여러 풍경에서 발견되고 있는, 그러나 자신에게는 결여된 '일상적인 행복'과 지식인의 '고독'이 두 축을 이루고 있다.

주제 1930년대 무기력한 문학인의 눈에 비친 일상사, 한 지식인의 외로움과 이상과 현실에 대한 갈등, 소설가의 눈에 비친 일반인들 일상적인 모습

여휘 풀이

- 영락 : 세력이나 살림이 줄어들어 보잘것없이 됨
- 행색 : 걸음으로 드러나는 차림이나 태도
- 쇠잔 : 쇠하여 힘이나 세력이 점점 약해짐

34 서술상의 특징 이해하기

정답 ③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2%	91%	2%	1%
--------------	----	----	-----	----	----

해설 | 구보는 옛 동무를 만난 다음 남대문 밖으로 나와 경성역을 향해 간다. 역 안에서도 삼등 대합실, 매점 옆을 지나고 다시 그곳을 떠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보가 느끼는 생각과 감정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공간을 이동하며 느끼는 작중 화자인 구보의 관찰과 심리가 서술되고 있다는 점에서 ③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풀이 | ① 시간적 순서대로 서술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작중 화자인 구보의 입장에서 사건이 기술되고 있다. ④ 인물 간의 갈등이 해소되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제시된 글에서는 과거의 회상을 통한 사건의 원인이 제시되고 있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35 장면의 특징 이해하기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3%	13%	10%	68%	3%
--------------	----	-----	-----	-----	----

해설 | [A]~[C]에는 구보가 '옛 동무'를 만나는 장면이 제시되어 있다. [A]에서 '옛 동무'는 영락한 행색으로 인해 구보가 자기를 알아 볼 것을 두려워하고 있지만,

구보는 그에게 반가운 인사를 건넨다. 따라서 구보와 ‘옛 동무’가 서로 반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④이다.

오답풀이 | ① [A]에서 두 사람이 마주 걸어오고 있으므로 물리적 거리는 가까워진다. 그러다 [C]에서 ‘옛 동무’가 저 갈 길을 가버림으로써 거리가 멀어진다. ② [A]에서 기대와 망설임을 보이나 [C]에서 울 것 같은 감정을 느낀다. 따라서 심리적 거리감은 심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A]에는 기대와 망설임과 용기 등이 복합되어 있으며 [C]에는 서운한 감정과 다시 말을 걸고 싶은 마음이 복합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⑤ [B]에서 구보와 ‘옛 동무’는 말을 주고받고 있지만 진정한 소통에는 이르지 못함으로써 구보에게 슬픈 감정을 유발하게 된다는 점에서 적절하다.

36 작품 감상의 적절성 평가하기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3%	26%	3%	54%	11%
--------------	----	-----	----	-----	-----

해설 | 작품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이 작품은 뚜렷한 사건 전개 없이 소설가 구보가 정오에 집을 나와 경성(서울) 시내를 이리저리 배회하다 새벽 두 시에 집으로 들어가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구보가 이동하는 장소와 만나는 사람, 관찰하는 사람들에 의해 촉발되는 상념과 회상에 따라 이야기가 전개된다. 그 과정에서 구보가 그려 낸 것은 식민지 근대의 축도인 경성의 우울한 풍경이라고 할 수 있다.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④와 같은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캡 쓰고 쓰메에리 양복 입은 사내’의 ‘온갖 사람들에게 의혹을 갖는’ 눈에서 구보는 우울을 느끼며 그곳을 떠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이 인물의 눈에 우울과 회의가 담겨 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 ① ‘바세도씨병’ 노동자는 병든 육체의 일면을, 이 사람을 경계하며 소외시키는 젊은 아낙네의 태도는 정신적 불건강성을 보여주고 있다. ‘대학노트’는 관찰자이자 기록하는 자로서의 소설가 구보의 역할을 보여준다. ② 구보는 삼등 대학실에서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고 있다. 또한 익명적 인간관계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③ 드난살이에 삶의 즐거움을 잃고 경직되어 있는 노파의 얼굴에서 생기 없는 삶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⑤ 구보는 사람들에게서 병증을 발견하고 있으며, 그러한 자신 역시 병자라고 하고 있다. 이는 식민지 근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의 우울한 내면에 대한 은유로 읽을 수 있다.

[37~40] 문학~고전 소설

지문 분석

박지원 「양반전」

작품 감상 이 소설은 연암 박지원이 양반 사회의 모순을 폭로하기 위해 쓴 풍자 소설이다.

주제 양반들의 공허한 관념, 비생산성, 특권 의식에 대한 비판, 양반의 무능력과 위선에 대한 풍자

어휘 풀이

- 관곡 : 국가나 관청에서 가지고 있는 곡식
- 방도 : 어떤 일을 하거나 문제를 풀어 가기 위 한 방법과 도리
- 병거지 : ‘모자’를 속되게 이르는 말
- 사모 : 애뜻하게 생각하고 그리워함
- 증서 : 권리나 의무, 사실 따위를 증명하는 문서
- 홍패 : 문과의 회시(會試)에 급제한 사람에게 주던 증서. 붉은색 종이에 성적, 등급, 성명을 먹으로 적었다

37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정답 ③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4%	3%	88%	1%	2%
--------------	----	----	-----	----	----

해설 | 이 작품에서 무능한 정선 양반은 관곡을 빌려 먹고 값지 않아 투옥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 소식을 들은 부자가 관곡을 갚아주고 양반 신분을 샀으나 군수가 나서서 증서 작성을 제한한다. 두 번의 증서를 작성한 끝에 부자가 스스로 양반 신분을 포기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등장인물들의 대화와 행동으로 전개되고 있으므로 정답은 ③이다.

오답풀이 | ① 호흡이 긴 문장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장면의 전환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간결한 문장으로 장면을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것은 현대 소설의 특징이다. ② 서술자의 직접 개입이 드러나고 있는 장면은 없다. ④ 전기성, 즉 현실적으로 믿기 어려운 과기하고 신기한 내용이 바탕을 이루고 있지 않으며 환상적인 면모도 드러나지 않으므로 거리가 멀다. ⑤ 시대 배경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38 작품의 내용 이해하기 정답 ⑤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3%	47%	7%	40%
--------------	----	----	-----	----	-----

해설 | 이 소설에서 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 증서에 격식을 갖춰 서명을 하게 한 사람은 군수이다. ‘비록 그렇지만 ~도장을 찍으리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③의 경우, ‘양반을 위로할 겸 찾아가겠다’는 데 초점을 맞추면 적절한 이해가 될 수 있지만, ‘관곡을 갠 내력을 들을 겸’에 초점을 맞추면 군수는 양반이 자신의 신분을 팔았다는 걸 모른 채 간 것이기 때문에 정답 시비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이의 신청이 들어오자 심의 끝에 복수 정답을 인정키로 했다.

오답풀이 | ① 정선 양반은 워낙 가난해서 관곡을 꾸어다 먹고 값지 못해 찢절 매고 있던 중에 결국 부자에게 양반을 판다. ② 군수는 관곡을 꾸어다 먹은 양반이 워낙 가난해서 값을 길이 없음을 불쌍히 여겨 차마 가둘 수도 없었고, 다른 방도도 있는 것도 아니어서 매우 곤란한 처지에 처했음을 알 수 있다. ④ “그 부자야말로 군자며 양반이로군.~이는 참으로 양반이외다.” 부분에서 알 수 있다.

39 한자 성어 적용하기 정답 ①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56%	1%	4%	3%	33%
--------------	-----	----	----	----	-----

해설 | ‘함분축원(含憤蓄怨)’이란 ‘분한 마음을 품고 원한을 쌓음.’이란 뜻으로, ①에서 부자는 양반들에게 오랜 세월 동안 천대와 멸시를 받으면서 모욕감을 느꼈으므로 이를 표현하기에 적합하다. 따라서 적절한 것은 ①이다.

오답풀이 | ② 안분지족(安分知足) : 자기 처지를 탓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자기 분수를 지키며 만족할 줄 안다. ③ 교언영색(巧言令色) : 남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아첨하는 교묘한 말과 보기 좋게 꾸미는 얼굴빛을 말한다. ④ 수구초심(首丘初心) : 여우가 죽을 때에 머리를 자기가 살던 굴 쪽으로 바르게 하고 죽는다는 말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비유한다. ⑤ 만시지탄(晩時之歎) : 기회를 놓쳐, 뒤늦었음을 안타까워하는 탄식을 의미한다.

40 작품 감상의 적절성 평가하기 정답 ①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75%	5%	3%	9%	5%
--------------	-----	----	----	----	----

해설 | 이 소설은 풍자의 주제와 대상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다. 정선 양반에 대해 ‘@ 무능하고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은, 그가 관곡을 빌어먹고 값지 못할 뿐 아니라, 관찰사가 투옥을 명하였는데도 값을 아무런 수단을 취하지 못하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횡포를 부리는 양반의 모습’은 정선 양반의 모습이 아니라 두 번째 증서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 타락한 양반의 모습일 뿐이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오답풀이 | ② 양반 신분으로 평생 글 읽기에만 몰두하다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존재라는 점에서 적절하다. ③ 부자는 관곡을 값지 못해 어쩔 줄 몰라 하는 양반의 처지를 이용하여 자신이 대신 빚을 갚고 양반을 사서 신분 상승하고자 하는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속물적 존재임을 알 수 있다. ④ 두 번째 증서에서 풍자된 양반은 개인적 이익만을 취하며 부당한 특권을 남용하는 집단으로 드러나 있다. 부자는 양반이 개인적인 이익만을 취하며 부당한 특권을 남용하는 데 대해서는 양반을 도둑놈으로 몰아붙이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아이고 맹랑합니다고려. 나를 도적놈으로 만들 셈이란 말이요.”를 통해 부자가 본디 본성이 선량하고 건전한 상식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⑤ 두 번째 증서에서 군자는 양반의 부도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는데, 이는 부자 스스로 양반되기를 포기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적절한 감상이다.

[41-43] 문학~고전 시가

지문 분석

(가) 작자 미상 「유산가」

작품 감상 이 노래는 서울을 중심으로 불려졌던 12잡가 중의 하나로 우리나라의 절경을 중국의 명승지에 비교하면서 읊은 노래이다. 작가·연대 미상. 가창(歌唱)으로 구전되어 오던 산놀이 노래가 근대에 이르러 글로 이루어진 것이다. 백화가 만발한 화창한 봄날 산의 경치를 즐기는 화자의 흥겨움이 잘 드러나 있으며, 자연 속에서 한껏 즐거움을 누리는 선인들의 삶에 대한 낙천적 태도와 유희적인 삶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제시된 부분은 작품의 후반부로, 대체로 운 의성어와 의태어를 구사하는 등 우리말의 묘미를 살려 자연의 아름다움을 생동감 있게 드러내고 있다.

주제 아름다운 봄의 완상과 흥겨운 정취

시구 풀이

- 펄펄 백운 간(白雲間)에 높이 떠서 천 리 강산 머나먼 길은 어이 같고 슬피 운다 : 펄펄 흰 구름 사이에 높이 떠서 천 리나 되는 머나먼 강산을 어떻게 갈까 슬프게 운다. → 봄이 되어 제비가 돌아오고 기러기는 돌아가려 하고 있음을 노래한 구절로 봄의 정경을 묘사한 것이다. 새가 슬피 우는 것은 시적 자아의 정조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사실 자체를 기록했다고 볼 수 있다.
- 원산(遠山)은 첩첩(疊疊), 태산(泰山)은 주춤하여, 기암(奇岩)은 층층(層層), 장송(長松)은 낙락(落落) : 먼 산은 겹겹으로 펼쳐지고, 높은 산은 멈칫하듯 우뚝 솟아 있는데, 기이한 바위는 층층이 쌓이고, 큰 소나무는 가지가 처렁치렁 늘어져 → 경치를 나열해 가는 방법은 가사 '면양정가'의 한 구절과 닮았다. 원경에서 근경으로 일정한 방향을 잡아 경치를 나열하고 있다.
- 에이구부러져 : 조금 휘어져 뒤로 구부러져, '에 굽다'라는 말을 어감을 살려 늘어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 천방저 지방저 소쿠라지고 평퍼져, 년출지고 방울져 : 솟구쳤다가 내려앉으며, 낭쿨같은 물줄기를 이루기도 하고, 물방울을 이루기도 하며

(나) 윤선도 「만흥」

작품 감상 이 작품은 작자가 유배에서 풀려나 금쇄동에 은거하고 있을 때 지은 것으로, 세상을 멀리 하고 자연에 묻혀 사는 즐거움을 노래한 총 6수로 구성된 연시조이다. 전통적인 강호가도를 계승한 것으로 자연과 더불어 한가롭게 유유자적하면서 살아가는 흥겨운 삶을 노래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임금의 은혜를 언급하는 등 현실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모습도 보이고 있다.

주제 자연에 묻혀 사는 은사의 한정

시구 풀이

- 산수간(山水間) 바위 아래 : 인간 세상, 속세와 대조되는 자연(= 대유법)의 공간이자 화자가 은거 생활을 하는 곳
- 띠집 : 풀로 이은 집, 은사의 가난하고 소박한 생활을 의미하는 소재로 안분 지족의 삶을 보여준다.
- 바위 끝 물가에 슬카지 노니노라 : 바위 끝이나 시냇가에서 마음껏 노니노라 → 유유자적(悠悠自適), 자연 친화, 물아일체
- 강산이 좋다 한들 내 분(分)으로 누웠느냐 : 강산이 좋다고 한들 내 분수로 이렇게 편안한 누워 있겠는가

41 작품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해하기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4%	1%	3%	87%	2%
--------------	----	----	----	-----	----

해설 | 가)에는 백화가 만발한 화창한 봄날 산의 경치를 즐기는 화자의 흥겨움이 잘 드러나 있고, (나)에는 자연과 더불어 한가롭게 유유자적하면서 살아가는 흥겨운 삶이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두 작품은 모두 '자연에서 비롯된 화자의 감흥을 드러내고 있다.'는 설명에 부합한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오답풀이 | ① (나)는 자연 속에서 자연과 친화하며 사는 삶을 노래하고 있는데, 세속과 떨어져 자연 경치를 완상하며 살아가는 은거자의 삶이 부귀공명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에 비해 월등히 낫다는 가치관과 자부심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②, ③ (나)는 혼란한 정계(政界)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 묻혀서 산수를 즐기며 유

유자적하는 생활을 노래한 작품으로 순차적인 계절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으며 애상적인 분위기도 드러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관조적'이라는 말은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거나 비추어 보는, 또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 (가)는 자연을 완상하는 영탄적인 목소리로 유희적이고 향락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으며, (나)는 귀양살이에서 풀려나 산중 생활을 흐뭇하게 즐기는 심정을 읊으면서도 임금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지극한 충심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으므로 다소 거리가 멀다.

42 표현상 특징 파악하기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4%	4%	87%	1%
--------------	----	----	----	-----	----

해설 | '역설적'이란 '어떤 주장이나 이론이 겉보기에는 모순되는 것 같으나 그 속에 중요한 진리가 함축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가)에는 이러한 역설적인 표현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오답풀이 | ① '거지 중천 → 원산 → 태산(기암 → 장송 → 폭포)'로 이어지는 시선의 이동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암은 층층 / 장송은 낙락', '이 골 물이 주루룩 / 저 골 물이 찰찰' 등에서 대구를 통한 리듬감이 잘 드러나고 있다. ③ 의인법(장송은 ~ 춤을 춘다), 직유법(수정령 드리운 듯, 은옥같이 흘러지니) 등의 비유법을 통해 대상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⑤ '펄펄펄, 우줄우줄, 팔팔, 주루룩, 찰찰, 으르렁' 등의 고유어와 '첩첩, 층층, 낙락' 등 한자어로 된 의성어와 의태어를 다채롭게 구사함으로써 대상의 동적 이미지를 생동감 있게 드러내고 있다.

43 시구의 의미 이해하기 정답 ③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7%	77%	6%	6%
--------------	----	----	-----	----	----

해설 | (나)에서, '물러남'은 현실적으로 정쟁에서 밀려나거나 임금의 부름을 받지 못하는 등 현실적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시적 화자는 그런 외적인 이유를 내세우지 않고 '성이 게으르다'는 것을 표면적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내 성이 게으르더니 하늘이 알으실사'는 '내 천성이 게으른 것을 하늘이 아시고서'의 의미로, 이를 통해 유배 생활의 원인을 자신의 탓으로 표현한 화자의 겸허한 태도를 엿볼 수 있는데, 자연 귀의의 삶을 하늘의 뜻으로 여기는 화자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만흥(漫興)'은 '저절로 일어나는 흥취'라는 뜻으로 작품 전체적으로는 속세에서 벗어나 자연에 묻혀 산수를 즐기며 유유자적하게 사는 삶이 자신의 분수에 맞는 일이라 여기는 시적 화자의 만족감과 자부심이 잘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③과 같이 물러남이 떳떳하지 못하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 ① '보리밥과 찻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에' '바위 끝이나 시냇가에서 마음껏 노니노라'를 통해 자연 귀의, 안빈낙도의 삶을 추구하는 시적 화자의 삶의 태도를 엿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그 남은 여남은 일'이란 '인간 세상에서 누리는 부귀영화, 벼슬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안빈지족과 안빈낙도의 삶을 살고자 하는 시적 화자가 경계하고자 하는 대상들이다. ④ 부귀영화나 벼슬 등의 인간 욕망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시적 화자가 물러남으로 '다툼 이'와 거리를 두고 있겠다는 의미이므로 적절하다. ⑤ 귀양살이에서 풀려나 산중 생활을 흐뭇하게 즐기는 심정을 읊으면서도 시적 화자는 임금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지극한 충심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44-45] 문학~희곡

지문 분석

차법석 「성난 기계」

작품 감상 이 작품은 차갑고 인간미 없는 한 의사가 그보다 더욱 비정한 인간에게 분노를 느끼게 되면서 인간성을 회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인공 회기는 기계처럼 냉정하고 인간미 없는 의사인데, 어느 날 가난한 폐환자의 수술을 냉담하게 거부한다. 왜냐하면 성공이 불확실한 수술을 했다가 책임지지 못할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작품의 전반부는 인육의 인간적인 호소와 회기의 기계적인 대응이 갈등을 이루고 있는데, 후반부에 이르러서는 극적 반전을 통해 전반부와 대립적인 양상을 보인다. 후반부에서 인육의 남편인 상현이 찾아와서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수술을 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하는데, 회기는 자신보다 더 비윤리적이고 비인간적인 상현의 행동을 보면서 '성난 기계'로 변하여 참된 인간성을 찾게 된다는 줄거리이다. 이 작품은 인간성의 상실과 그 회복의 가능성을 다루고 있다. 즉 물질문명으로 인

한 인간성의 상실을 휴머니즘으로 극복하는 차범석 문학의 한 특징을 잘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주제 현대 사회의 빈곤과 인간성 상실

어휘 풀이

- 냉담 : 태도나 마음씨가 동정심 없이 차가움
- 완고 : 융통성이 없이 올곧고 고집이 센 것
- 신성시 : 어떤 대상을 신성한 것으로 여김
- 도의심 : 사람이 마땅히 행하여야 할 도덕적 의리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 생색 : 다른 사람 앞에 당당히 나설 수 있거나 자랑할 수 있는 체면

44 인물의 심리와 태도 파악하기

정답 ③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5%	89%	1%	1%
--------------	----	----	-----	----	----

해설 이 작품은 전쟁 이후의 비정한 현실을 다루고 있는 사실주의 단막극이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현실에 종속된 인간들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다. 제시된 장면의 앞부분은 담배 공장에서 일하다 폐가 반이나 썩은 인옥이 회기를 찾아와 수술만 받게 해달라고 애원하지만, 회기는 수술하면 자칫 죽을 수도 있다며 한사코 거부하는 내용이다. 회기가 ㉔에서 웃음을 터뜨린 것은 금속의 말에 만족하여 침울했던 마음이 풀려서가 아니라 금속이 바로 앞에서 한 말이 자신과는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㉓이다.

오답풀이 ① 바로 앞의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거지, 그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아니니까.”에는 회기의 이기적인 성격이 잘 드러나고 있다. 그런 회기를 향해 인옥은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더욱 간절한 심정으로 부탁할 수 있을 것이다. ② 인옥의 인간적인 호소와 간절한 부탁을 외면하고자 하는 행동이므로 적절하다. ④ 의사로서 냉정하고 인간미 없는 회기가 자신의 확고한 생각임을 밝히는 장면이므로 적절한 지시이다. ⑤ 자신은 왜 결혼하지 않았느냐는 예상치 못한 회기의 질문에 금속이 놀란 표정을 지으며 연기하는 것은 적절하다.

45 종합적 감상의 적절성 파악하기

정답 ②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5%	70%	4%	8%	10%
--------------	----	-----	----	----	-----

해설 ‘인옥’은 ‘회기’에게 자신의 수술을 맡아달라고 애원했지만 ‘회기’는 이를 냉정하게 거절한다. ‘회기’는 가난한 환자인 ‘인옥’의 폐 수술을 냉담하게 거부한다. 성공의 전망이 불투명한, 그것도 가난한 환자의 수술을 했다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옥’은 ‘회기’를 기계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이어지는 장면에서 마음까지 기계가 될 수 없다는 것이나 어린 자식들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으로 보아 ‘인옥’에게서 비정한 의식을 지닌 인간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고 진술한 ②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단순한 돈벌이로 전락한 의사직을 수행하고 있는 ‘회기’가 일하고 있는 병원과 가난하지만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인옥’이 일하고 있는 어두운 담배 공장은 비정한 현실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④ ‘회기’는 기계처럼 냉정하고 인간미 없는 의사이다. 그는 가난한 폐환자인 ‘인옥’의 수술을 냉담하게 거부하게 되는데, 성공이 불확실한 수술을 했다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제시된 장면에서는 ‘인옥’의 인간적인 호소와 ‘회기’의 기계적인 대응이 갈등을 이루고 있는데, ‘인옥’과 ‘금속’을 대하는 ‘회기’의 태도는 그가 비정한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 영향을 받게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⑤ ‘회기’의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인 ‘금속’이 ‘인옥’의 안타까운 상황과 처지를 동정하는 것과, “그렇게 해서 귀중한 생명을 건져 내지 않아요?”, “선생님의 그 메스처럼 날카로운 두뇌와 손을 무한히 존경해요!”, “선생님이 그 나이가 되시도록 결혼을 안 하시는 이유도 의학에 전 생애를 바치시겠다는 의욕에서이시라고.” 등 ‘회기’에 대한 태도에서 물질 만능주의 풍조가 만연하여 전통적 가치와 인간미를 잃어가고 있는 비정한 현실이 극복될 수 있는 단서를 엿볼 수 있다.

등급컷

등급	1	2	3	4	5	6	7	8
원점수	93	88	81	70	59	48	31	23
나의 점수	[] 점				[] 등급			

오답률 Best 5

순위	1	2	3	4	5
번호	36	39	2	13	35
오답률(%)	46	44	38	34	32

정답과 해설					본문 61-78페이지
1 ③	2 ①	3 ⑤	4 ①	5 ②	
6 ④	7 ⑤	8 ⑤	9 ②	10 ③	
11 ②	12 ①	13 ⑤	14 ③	15 ①	
16 ③	17 ⑤	18 ③	19 ③	20 ⑤	
21 ⑤	22 ③	23 ②	24 ①	25 ④	
26 ③	27 ④	28 ④	29 ①	30 ④	
31 ③	32 ②	33 ④	34 ③	35 ④	
36 ④	37 ③	38 ⑤	39 ①	40 ⑤	
41 ③	42 ⑤	43 ②	44 ⑤	45 ②	

[1-5] 화법

1 말하기 방식 이해하기 정답 ③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6%	2%	87%	1%	2%
--------------	----	----	-----	----	----

해설 이 강연에서 강연자는 타이포그래피의 언어적 기능과 조형적 기능을 ‘작품 1’, ‘작품 2’, ‘작품 3’ 등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제시하고, 이 사례들을 분석하면서 강연을 전개해 나가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은 ③이다.

오답풀이 ① 이 강연에서는 타이포그래피가 무엇이고 그 기능에는 언어적 기능, 조형적 기능이 있다는 것을 밝힌 후 이를 나누어 이야기하겠다고 하여 강연의 이후 전개 방향을 밝히고 있지만, 청중과 공유했던 경험을 직접 제시한 부분은 없다. ② 강연에서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청중들이 강연 내용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④ 강연이 진로 축제에 초청받아 타이포그래피에 대해 소개하는 것이지만, 청중들이 희망하는 직업들이 제시된다거나 그 특징들을 서로 대비해 강연 내용의 활용 가치를 강조한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강연에서 질문은 드러나 있지만 이는 청중이 던진 질문이 아니다. 강연자가 ‘이런 글자는 무엇보다도 가독성이 중요하겠지요?’, ‘좀 전에 본 작품들은 타이포그래피의 어떤 기능에 중점을 둔 것일까요?’ 등의 질문을 통해 내용을 강조하거나, 강연한 내용을 잘 들었는지 확인을 하고자 한 경우만 있다.

2 이어질 내용 추론하기 정답 ①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83%	4%	2%	2%	6%
--------------	-----	----	----	----	----

해설 ‘작품 1’은 언어적 기능에 중점을 둔 것으로, 글자들을 전체적으로 크면 서도 세로로 길게 디자인하여 운전 중인 운전자에게 글자가 쉽게 인식되도록 제작하였다. 즉 ‘작품 1’은 운전자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글자를 제작했고 이는 타이포그래피의 언어적 기능에 중점을 둔 것이라는 설명이 적절하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오답풀이 ② ‘작품 2’는 타이포그래피의 조형적 기능에 중점을 둔 것이다. 이 작품은 ‘등’이라는 글씨의 받침 글자인 ‘ㅇ’을 전구 모양으로 만들어서 글자를 재료로 삼아 구체적 형태의 외형적 아름다움을 전달하는 조형적 기능을 잘 드러냈다. 그러나 이 사례의 경우 강연에 ‘회화적 이미지를 첨가하면 외형적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글자가 나타내는 의미까지 시각화하여 전달할 수 있다’고 했으므로, ‘의미와 상관없이’ 글자를 작품의 재료로만 활용하고 있다는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③ ‘작품 3’은 강연에서 글자의 의미와는 무관하게 글자의 형태만을 활용하여 제작자의 발상을 전달하기 위한 작품이라고 하였다. 즉 ‘작품 3’은 타이포그래피의 조형적 기능에 해당하는 작품이므로, 이를 언어적 기능에 중점을 둔 사례로 볼 수는 없다. ④ ‘작품 1’은 타이포그래피의 언어적 기능에 중점을 둔 사례인 반면, ‘작품 2’는 타이포그래피의 조형적 기능에 중점을 둔 사례이다. 따라서 두 작품 모두를 언어적 기능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⑤ ‘작품 2’와 ‘작품 3’은 모두 타이포그래피의 조형적 기능에 중점을 둔 경우지만, ‘작품 2’는 글자의 외형적 아름다움을 통해 글자의 의미 전달을 돕고 있는 반면, ‘작품 3’의

경우는 글자의 의미와 무관하게 글자의 형태만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두 사례 모두 글자의 외형적 아름다움을 통해 글자의 의미 전달을 돕는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3 중요한 내용 파악하기 정답 ⑤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3%	3%	4%	5%	82%
--------------	----	----	----	----	-----

해설 학생들은 내용이 많고 어려운 책을 주어진 시간 안에 읽어야 하는 상황에서 두 가지 방안을 내었다. ‘발표와 질의응답’은 매주 정해진 분량을 각자 읽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책 내용을 발표하고 나머지는 청중이 되어 질의응답을 하는 형식이고, ‘자유 토의’는 구성원들이 매주 정해진 분량의 책을 읽어 와서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형식이다. 두 형식에서 구성원들은 토의 시간 이전에 책의 정해진 분량을 각자 읽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발표와 질의응답’이 참여자들이 토의 이전, 즉 사전에 모여서 책을 함께 읽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⑤이다.

오답풀이 ① ‘발표와 질의응답’은 매주 정해진 분량을 각자 읽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책 내용을 발표하고 나머지는 청중이 되어 질의응답을 하는 형식이므로, 모임마다 주도적 역할을 하는 특정인이 사전에 결정될 것이다. ② ‘자유 토의’에서는 준비과정에서 따로 주도자가 결정되지 않으므로 각 참여자의 역할이 같다고 할 수 있다. ③ ‘발표와 질의응답’, ‘자유 토의’ 모두 참여자들이 의견을 서로 교환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④ ‘발표와 질의응답’, ‘자유 토의’ 모두 책의 일부 분량을 정해서 읽어와야 하므로 책에서 다룬 분량이 정해져 있다.

4 말하기 방식 추론하기 정답 ①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89%	2%	2%	3%	2%
--------------	-----	----	----	----	----

해설 [A]와 [B]는 토의에서 학생들이 한 발화이다. 이것은 이 토의의 주요 화제라 할 수 있는 ‘발표와 질의응답’, ‘자유 토의’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말하고 있다. [A]에서는 ‘발표와 질의응답’ 방식의 단점을 언급한 후, ‘자유 토의 방식’의 장점을 언급하여 ‘자유 토의 방식’의 장점을 부각하는 식의 말하기를 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것은 ①이다.

오답풀이 ② [A]에서는 특정 방안의 단점과 다른 방안의 장점이 언급될 뿐, 특정 방안의 문제 해결 방안 및 다른 방안의 문제점은 언급되지 않고 있다. ③ [A]에서는 특정 방안의 단점과 다른 방안의 장점이 대비되어 언급되고 있다. 특정 방안의 장점을 다른 방안이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④ [B]는 두 방안 모두 개개인의 준비가 미흡하면 모임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특정 방안의 한계와 의의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⑤ [B]는 두 방안 모두의 한계 혹은 약점을 제시하고 있다. 특정 방안의 장단점을 언급한 후 단점을 보완할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5 말하기 과정 및 효과 평가하기 정답 ②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5%	85%	3%	3%	2%
--------------	----	-----	----	----	----

해설 ‘학생 1’은 ‘발표와 질의응답’ 방식을 채택하자고 하며 그 문제점은 차츰 개선해 볼 것을 제안한다. 즉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지만, 이를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특정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나머지 학생들은 이에 동의함으로써 그의 의견에 합의를 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②이다.

오답풀이 ① 해당 부분은 두 방안 중 하나의 방식으로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다. 이미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결정한 것은 아니다. ③ 두 방안 중 하나로 의견을 모으고 있지, 제삼의 방안을 절충안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다. ④ 대부분의 학생들의 의견을 토대로 특정 방안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소수 의견 존중을 전제로 특정 방안을 결정한 것이 아니다. ⑤ 학생들의 의견이 오간 것을 토대로 특정 방안으로 결정한 것이므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기로 합의한 것이 아니다.

[6-10]작문

6 글쓰기 전략 파악하기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5%	4%	2%	84%	3%
--------------	----	----	----	-----	----

|해설| (나)에 제시된 '누나'의 조언과 '동생'의 반응을 토대로 조정 방안을 파악할 때, '누나'의 셋째 발화 중 "해설 대상인 초등학교와의 친화력도 중요할 거야."에 대해 '동생'이 "초등학생을 돌보았던 복지 센터 보조 교사 활동을 쓰면 되겠네."로 반응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친화력을 드러낼 수 있는 소재로 초등학생을 상대로 한 활동이 언급되고 있으므로 학급 내의 교우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는 조정 방안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오답풀이| ① '누나'의 첫째 발화부터 '동생'의 둘째 발화까지의 대화 내용을 참고할 때 적절하다. ② '누나'의 첫째 발화부터 '동생'의 넷째 발화까지 이어진 대화 내용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 ③ '누나'의 셋째 발화부터 '동생'의 다섯째 발화까지 이어진 대화 내용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 ⑤ '동생'의 다섯째 발화부터 '누나'의 마지막 발화까지 이어진 대화 내용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

7 내용 생생의 적절성 평가하기

정답 ⑤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5%	6%	3%	4%	79%
--------------	----	----	----	----	-----

|해설| (나)를 참고하면 '동생'이 '복지 센터 보조 교사 활동'으로 드러내려는 경험의 의의는 '초등학생과의 친화력'과 연결된다. ⑤의 내용 구체화 방안 중 '학업과 병행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은 '동생'이 언급한 경험 내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도유미 활동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 극복'은 복지 센터 보조 교사 활동을 통해 드러내려는 의의와도 연결되지 않으므로 ⑤는 구체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② '역사 문화 연구 동아리 활동'으로 드러내려는 경험의 의의는 '향토 문화에 대한 관심이나 이해 정도'와 연결된다. ①과 ②의 내용 구체화 방안 중 앞부분은 '동생'이 언급한 경험 내용에 부합하며, 뒷부분은 그러한 경험의 의의에 해당하므로 ①과 ②는 모두 적절한 구체화 방안이다. '보고서 발표 대회 참가'로 드러내려는 경험의 의의는 '설명 능력'과 연결된다. ③ 내용 구체화 방안 중 앞부분은 '동생'이 언급한 경험 내용에 부합하며, 뒷부분은 그러한 경험의 의의에 해당하므로 적절한 구체화 방안이다. ④ '복지 센터 보조 교사 활동'으로 드러내려는 경험의 의의는 '초등학생과의 친화력'과 연결된다. 내용 구체화 방안 중 앞부분은 '동생'이 언급한 경험 내용에 부합하며, 뒷부분은 그러한 경험의 의의에 해당하므로 적절한 구체화 방안이다.

8 작문 계획의 적절성 평가하기

정답 ⑤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3%	2%	5%	4%	83%
--------------	----	----	----	----	-----

|해설| <본문>의 5문단은 시민 공원에 옮겨진 소나무가 잘 적응하고 있어 숲술 개방이 예정보다 앞당겨졌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5문단의 개요인 ⑤과 다르다. 따라서 반영되지 않은 것은 ⑤이다.

|오답풀이| ① 1문단에 행사 시간과 장소 및 참석 대상이 언급되어 있으므로 ①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2문단 마지막 문장에 ②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3문단 앞부분에 ③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4문단에 소나무가 기증되기까지의 과정을 통해 소나무 처리 문제의 해결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④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9 글쓰기 계획에 따른 표현하기

정답 ②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4%	78%	4%	3%	9%
--------------	----	-----	----	----	----

|해설| <보기>에 따르면 <부제>는 6문단에 제시된 학생회장의 말과 연결되면서 소나무 기증의 의미를 담고 있어야 한다. 학생회장의 말에 담긴 소나무 기증의 의미는 '나눔'과 '협력'이라는 건학 이념 실천 및 시민들의 쉼터 마련이다. 따라서 ②는 <보기>에 부합하는 부제이다.

|오답풀이| ① 학생회장의 말에 언급된 내용이 아니며 소나무 기증의 의의로도 적절하지 않다. ③ 학생회장의 말에 언급된 내용이 아니므로 <보기>에 부합하지 않는다. ④ '학교의 역사적 상징물'이라는 표현은 학생회장의 말에 언급되어 있기는 하나 소나무 기증의 의의에 대한 내용은 학생회장의 말에 언급된 것과 다르다. ⑤ <본문>의 마지막에 언급된 내용이라는 하지만 학생회장의 말이 아니다.

10 고쳐 쓰기의 적절성 파악하기

정답 ③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4%	3%	83%	4%	3%
--------------	----	----	-----	----	----

|해설| ㉠은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의 서술어인데, 앞절의 주어인 '학생회와 동문회에서는'은 뒷절의 주어이기도 하므로 문장에서 ㉠의 주체가 드러나 있다. 따라서 ㉢의 '점검 결과'는 적절하지 않다. 또한 '수정 방안'에 제시된 '시민 공원은'은 ㉠의 주체가 되기에 적절하지 않은 단어이므로 '수정 방안'도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은 앞으로 개최될 행사에 대한 서술어인데 과거 시제로 표현되어 있으므로 미래의 행위로 수정해야 한다. 따라서 '점검 결과'와 '수정 방안'은 모두 적절하다. ② ㉠의 뒤에 이어지는 '신축'은 '건물 따위를 새로 만들'이라는 의미로, ㉠은 '신축'의 의미 중 일부와 중복된다. 따라서 '점검 결과'와 '수정 방안'은 모두 적절하다. ④ ㉠은 부정하는 말 앞에서 '다만', '오직'의 뜻으로 쓰이는 부사이므로 <본문>의 내용과 호응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점검 결과'가 적절하며, '때마침'으로 수정할 경우 <본문>의 내용과 호응이 되므로 '수정 방안'도 적절하다. ⑤ ㉠은 '-되다'와 '-어지다'를 함께 사용하여 피동 표현이 중복되고 있다. 따라서 '점검 결과'와 '수정 방안'은 모두 적절하다.

[11-15] 문법

11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 비교하기

정답 ②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8%	61%	13%	9%	7%
--------------	----	-----	-----	----	----

|해설| 15세기 국어와 현대 국어의 특징을 <대화 1>, <대화 2>와 <자료>를 바탕으로 탐구해 낼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자료>를 통해 볼 때, 15세기 국어의 '도박'이 현대 국어에서 '도와'로 나타난 것은 'ㅁ'이 'ㅍ' 앞에서 반모음 'ㅛ[w]'로 바뀐 결과이다. 따라서 'ㅁ'이 어간 끝에서 'ㅍ'으로 바뀌어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②이다.

|오답풀이| ① <대화 1>의 내용에서 현대 국어의 '뚝다'는 '뚝고', '도와'로 활용하고, 현대 국어의 '젓다'는 '젓고', '저어'로 활용하여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의 활용형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뚝다', '젓다'는 <대화 2>의 '굽다', '젓다'와 마찬가지로 어간의 형태가 달라지는 불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임을 알 수 있다. ③ <자료>에서 15세기 국어의 '젓다'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이 '젓-'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대화 2>에서 'ㅅ'이 사라지면서 '저서'가 '저어'로 활용형이 바뀌었다고 하였으므로, 15세기 국어의 '저서'가 현대 국어에서 '저어'로 나타난 것은 'ㅅ'의 소실로 어간의 끝 'ㅅ'이 없어진 결과라 할 수 있다. ④ <자료>에서 15세기 국어의 '뚝다'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이 '뚝-'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현대 국어에서도 '뚝다'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뚝-'으로 나타나므로 이 둘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의 모양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⑤ <자료>에서 15세기 국어의 '젓다'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이 '젓-'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현대 국어에서도 '젓다'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젓-'으로 나타나므로 이 둘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의 모양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12 중세와 근대 국어에 대해 이해하기

정답 ①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44%	12%	24%	10%	8%
--------------	-----	-----	-----	-----	----

|해설| 주어진 탐구 활동과 자료를 바탕으로 현대 국어 용언들의 15세기 중엽 이전, 17세기 초엽의 활용형을 바르게 추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굽다'는 '뚝다'와 현대 국어의 활용 양상(ㅁ 불규칙 활용)이 유사하다. 15세기 중엽에 '뚝-'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뚝-'으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뚝-'으로 나타났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굽다'의 15세기 중엽 이전 표기는 '꺄꺄, 꺄꺄, 꺄꺄'으로 나타났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ㅁ'은 15세기 중엽을 넘어서며 'ㅍ' 앞에서 반모음 'ㅛ'로, 'ㅅ' 앞에서 'ㅆ'로 바뀌었으며, 'ㅛ'가 이어진 경우에는 모음과 결합하여 'ㅛ'로 바뀌었으므로, 17세기 초엽에는 '꺄꺄, 꺄꺄, 꺄꺄'으로 나타났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오답풀이| ② '꺄꺄'는 '젓다'와 현대 국어의 활용 양상(ㅅ 불규칙 활용)이 유사하다. 15세기 중엽에 '젓-'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젓-'으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젓-'으로 나타났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꺄꺄'의 15세기 중엽 이전 표기는 '꺄꺄, 꺄꺄, 꺄꺄'으로 나타났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ㅅ'은 16세기 중엽에 사라졌으므로, 17세기 초엽에는 '꺄꺄, 꺄꺄, 꺄꺄'으로 나타났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③ '뚝다'는 '뚝다'와 현대 국어의 활용 양상(ㅁ 불규칙 활용)이

유사하다. 15세기 중엽에 ‘뚝-’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뚝-’으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뚝-’으로 나타났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뚝다’의 15세기 중엽 이전 표기는 ‘뚝게, 누뚝, 누뚝’으로 나타났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뚝’은 15세기 중엽을 넘어서며 ‘니’ 앞에서 반모음 ‘누’로, ‘-’ 앞에서 ‘구’로 바뀌었으며, ‘-’가 이어진 경우에는 모음과 결합하여 ‘구’로 바뀌었으므로, 17세기 초엽에는 ‘뚝게, 누워, 누운’으로 나타났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④ ‘빚다’는 ‘줍다’와 현대 국어의 활용 양상(규칙 활용)이 유사하다. 15세기 중엽에 ‘줍-’은 자음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모두 어간이 ‘줍-’으로 나타났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빚다’의 15세기 중엽 이전 표기는 ‘빚게, 비서, 비슨’으로 나타났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16세기 중엽에 음절 끝에서 이전과 다름없이 ‘시’이 나타났으므로, 17세기 초엽에도 ‘빚게, 비서, 비슨’으로 나타났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⑤ ‘잡다’는 ‘줍다’와 현대 국어의 활용 양상(규칙 활용)이 유사하다. 15세기 중엽에 ‘줍-’은 자음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모두 어간이 ‘줍-’으로 나타났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잡다’의 15세기 중엽 이전 표기는 ‘잡게, 자바, 자븐’으로 나타났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17세기 초엽 역시 ‘잡게, 자바, 자븐’으로 나타났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13 음운 변동 이해하고 적용하기

정답 ⑤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8%	8%	30%	7%	44%
--------------	----	----	-----	----	-----

해설 음운 변동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보기>에 제시된 음운 변동의 예를 분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꺾+고 → [꺾고] → [꺾꼬]’, ‘읽+지 → [일치]’의 음운 현상에서 ‘읽지’의 경우 ‘ㅎ’과 ‘지’가 ‘치’로 축약되는 현상이 일어났지만, ‘꺾고’의 경우 자음이 축약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⑤이다.

오답풀이 ① ‘맑+네 → [막네] → [망네]’, ‘값+도 → [갑도] → [갑또]’의 음운 현상에서는 음절 끝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오지 못하기 때문에 둘 중 하나의 자음은 탈락하는 현상(자음군 단순화)이 일어나고 있다. ‘맑’의 ‘ㄹ’에서 ‘ㄹ’이 탈락한 것, ‘값’의 ‘ㅅ’에서 ‘ㅅ’이 탈락한 것이 그것이다. ② ‘맑+네 → [막네] → [망네]’, ‘꽃+말 → [꼇말] → [꼇말]’, ‘입+니 → [임니]’의 음운 현상에서는 인접하는 자음과 조음 방법이 같아진 음운 변동(비음화)이 일어나고 있다. ‘막’의 ‘ㄱ’(파열음)이 ‘ㄴ’(비음)의 영향을 받아 ‘ㅇ’(비음)으로 교체된 것, ‘꼇’의 ‘ㄷ’(파열음)이 ‘ㄴ’(비음)의 영향을 받아 ‘ㄴ’(비음)으로 교체된 것, ‘입’의 ‘ㅍ’(파열음)이 ‘ㄴ’(비음)의 영향을 받아 ‘ㄴ’(비음)으로 교체된 것이 그것이다. ③ ‘낮+일 → [남닐] → [난닐]’, ‘물+약 → [물낙] → [물락]’의 음운 현상에서는 자음이 교체된 음운 변동을 확인할 수 있다. ‘낮’의 ‘ㅈ’이 ‘ㄷ’으로, 그 ‘ㄷ’이 다시 ‘ㄴ’으로 교체된 것, ‘물약’에 ‘ㄴ’이 첨가된 후 ‘ㄴ’이 ‘ㄹ’로 교체된 것이 그것이다. ④ ‘낮+일 → [남닐] → [난닐]’, ‘꽃+말 → [꼇말] → [꼇말]’, ‘팔+죽 → [판죽] → [판죽]’의 음운 현상에서는 음절 끝에 올 수 있는 자음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음운 변동(음절 끝소리의 규칙)이 일어나고 있다. ‘낮’의 ‘ㅈ’이 ‘ㄷ’으로 교체된 것, ‘꽃’의 ‘ㅈ’이 ‘ㄷ’으로 교체된 것, ‘팔’의 ‘ㅍ’이 ‘ㄷ’으로 교체된 것이 그것이다.

14 문장의 짜임새 파악하기

정답 ③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7%	17%	57%	9%	7%
--------------	----	-----	-----	----	----

해설 ‘나는 어제 부모님이 시키신 일을 오늘에야 다 끝냈다.’에서 안긴문장인 관형절을 완결된 문장으로 바꾸면 ‘어제 부모님이 일을 시키셨다.’가 된다. ‘일’은 뒤에 ‘을’이 붙어 목적어로 기능을 하는 ㉠에 해당하는 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어제 헤어진 공원이 지금 공사 중입니다.’에서 안긴문장인 관형절을 완결된 문장으로 바꾸면 ‘두 사람이 어제 공원에서 헤어졌다.’가 된다. ‘공원은 뒤에 ‘에서’가 붙어 부사어로 기능을 하고 있어 ㉡에 해당하는 예이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오답풀이 ① ‘어제 결혼한 그들에게 나는 미리 선물을 주었다.’에서 안긴문장인 관형절을 완결된 문장으로 바꾸면 ‘그들이 어제 결혼했다.’가 된다. ‘그들’은 뒤에 ‘이’가 붙어 주어로 기능을 하고 있다. ‘누나를 많이 닮은 친구를 우리는 오늘도 만났다.’에서 안긴문장인 관형절을 완결된 문장으로 바꾸면 ‘친구가 누나를 많이 닮았다.’가 된다. ‘친구’는 뒤에 ‘가’가 붙어 주어로 기능을 하고 있다. ② ‘나무로 된 탁자에 동생이 낙서를 하고 있다.’에서 안긴문장인 관형절을 완결된 문장으로 바꾸면 ‘탁자가 나무로 되었다.’가 된다. ‘탁자’는 뒤에 ‘가’가 붙어 주어로 기능을 하고 있다. ‘그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다.’에서 안긴문장인 관형절을 완결된 문장으로 바꾸면 ‘생각이 시대에 뒤떨어졌다.’가 된다. ‘생각’은 뒤에 ‘이’가 붙어 주어로 기능을 하고 있다. ④ ‘친구가 나에게 준 옷이 나는 마음에 든다.’에서 안긴문장인 관형절을 완결된 문장으로 바꾸면 ‘친구가 나에게 옷을 주었다.’가 된다. ‘옷’은 뒤에 ‘을’이 붙어 목적어로 기능을 하고 있다. ‘누나는 털실로 짠 장갑도 내게 주었습니다.’에서 안긴문장인 관형절을 완결된 문장으로 바꾸면 ‘누나는

털실로 장갑을 짰다.’가 된다. ‘장갑’은 뒤에 ‘을’이 붙어 목적어로 기능을 하고 있다. ⑤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공을 찬 주말을 기억해 보세요.’에서 안긴문장인 관형절을 완결된 문장으로 바꾸면 ‘아이들이 주말에 운동장에서 공을 쳤다.’가 된다. ‘주말’은 ‘에’가 붙어 부사어로 기능을 하고 있다. ‘그는 관중이 쓰레기를 남긴 경기장을 열심히 청소했다.’에서 안긴문장인 관형절을 완결된 문장으로 바꾸면 ‘관중이 경기장에 쓰레기를 남겼다.’가 된다. ‘경기장’은 뒤에 ‘에’가 붙어 부사어로 기능을 하고 있다.

15 단어 형성의 원리 이해하기

정답 ①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59%	10%	14%	6%	9%
--------------	-----	-----	-----	----	----

해설 합성어를 어근들의 결합 방식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설명한 뒤, 각각의 유형에 해당하는 사례를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이 문항을 정확하게 풀이하기 위해서는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에 대한 개념 이해와 함께, 밑줄 친 단어의 결합 방식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용언과 용언은 연결 어미로 이어지는 것이 우리말의 일반적 문장 구조에서 나타나는 방식이다. 그러나 ‘뛰노는’은 ‘뛰+놀+는’으로 분석되고, 우리말의 일반적 문장 구조와 다르게 연결 어미로 이어지지 않았으므로 ‘뛰노는’은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것은 ①이다.

오답풀이 ② ‘몰라볼’은 ‘모르+아+보+리’로 분석되는데, 용언 ‘모르-’와 용언 ‘보-’가 연결 어미 ‘-아-’로 이어져 있으므로 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 ③ ‘타고난’은 ‘타+고+나+는’으로 분석되는데, 용언 ‘타-’와 용언 ‘나-’가 연결 어미 ‘-고-’로 이어져 있으므로 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 ④ ‘지난달’은 ‘지나+는+달’로 분석되는데, 용언 ‘지나-’가 체언 ‘달’을 수식하면서 관형사형 어미 ‘-는-’과 결합하여 쓰였으므로 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 ⑤ ‘굳은살’은 ‘굳+은+살’로 분석되는데, 용언 ‘굳-’이 체언 ‘살’을 수식하면서 관형사형 어미 ‘-은-’과 결합하여 쓰였으므로 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

[16-19] 독서~과학

지문 분석

「인공 신경망의 학습과 판정」

지문 해제 이 글은 인공 신경망의 학습과 판정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인공 신경망은 인간의 신경 조직을 모델링하여 만든 것으로, 신경 조직의 기본 단위인 뉴런을 모델링한 퍼셉트론을 기본 단위로 사용한다. 입력 단자와 입력값들을 처리하는 부분, 출력 단자로 구성된 퍼셉트론은 입력값들에 가중치를 곱하여 얻은 값들을 바탕으로 0과 1이라는 출력값을 얻는다. 인공 신경망은 이러한 기능을 지닌 다수의 퍼셉트론들이 여러 계층으로 배열되어 있다. 인공 신경망의 작동은 학습 단계와 판정 단계로 나뉘는데, 인공 신경망을 학습시킬 때에는 먼저 학습을 위한 입력값을 만들고, 이를 정답에 해당하는 값과 같이 인공 신경망에 제공한다. 학습 데이터를 입력층의 입력 단자에 넣어 주면 출력층의 출력값을 구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이미 제공한 정답에 해당하는 값에서 출력값을 뺀 오차 값을 구한다. 오차 값의 일부는 입력층의 퍼셉트론에 있는 가중치에 더하는데, 이런 방식을 통해 가중치가 갱신된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 출력값은 정답 값에 수렴하게 되어 판정 성능이 좋아진다. 그리고 출력값이 각각의 정답 값에 수렴되면 학습 단계를 마치고 판정 단계로 전환된다.

주제 인공 신경망의 학습과 판정의 과학적 원리

16 내용 간의 의미 관계 파악하기

정답 ③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6%	2%	79%	3%	7%
--------------	----	----	-----	----	----

해설 퍼셉트론은 각각의 입력 단자에 할당된 ‘가중치’를 입력값에 곱한 값들을 모두 합하여 가중치의 합, 즉 가중합을 구한다. 그리고 이를 ‘임계치’와 비교하여 0과 1이라는 출력값을 내보낸다. 그런데 ‘가중합’과 비교하는 ‘임계치’는 2문단에 언급되어 있듯이 ‘고정된’ 값이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③이다.

오답풀이 ① 1문단에서 ‘인공 신경망’에서는 뉴런의 기능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퍼셉트론’을 기본 단위로 사용한다고 했다. ② 2문단에서 ‘퍼셉트론’은 여러 개의 ‘입력 단자’와 이 값을 처리하는 부분, 처리된 값을 내보내는 한 개의 출력 단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다. ④ 2문단에서 가중합을 ‘임계치’와 비교하여 가중합이 ‘임계치’

보다 작으면 0, 그렇지 않으면 1이라는 방식으로 '출력값'을 내보낸다고 했다. ⑤ 5 문단에서 인공 신경망의 학습 단계에서는 정답 값에서 출력층의 '출력값'을 뺀 오차 값을 입력 단자에 할당된 '가중치'에 더한다고 했다.

17 세부 정보 파악하기 정답 ⑤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6%	12%	7%	5%	68%
--------------	----	-----	----	----	-----

해설 5문단에서 가중치의 갱신은 '출력층의 출력 단자에서 입력층의 입력 단자 방향으로' 되돌아가면서 각 계층의 퍼셉트론별로 출력 신호를 만드는 데 참여한 모든 가중치들에 더해지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⑤이다.

오답풀이 ① 2문단에서 퍼셉트론의 입력 단자는 여러 개이지만, 출력 단자는 하나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다. ② 5문단에서 오차 값은 정답에 해당하는 값에서 출력 값을 빼서 구한다고 했으므로, 둘이 같으면 오차 값은 0이 된다. ③ 3문단에서 한 계층에서 출력된 신호가 다음 계층에 있는 모든 퍼셉트론의 입력 단자에 입력값으로 입력된다고 했다. ④ 1문단에서 퍼셉트론은 인간 신경 조직의 기본 단위인 뉴런의 기능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것이라고 했다.

18 세부 내용 추론하기 정답 ③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14%	12%	61%	6%	5%
--------------	-----	-----	-----	----	----

해설 4문단에서 어떤 사진 속 물체의 색깔과 형태로부터 그 물체가 사과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도록 인공 신경망을 학습시키는 경우에는, 색깔과 형태라는 두 범주를 수치화하여 서로 다른 학습 데이터가 아니라 하나의 학습 데이터로 묶은 후에 인공 신경망에 제공한다고 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③이다.

오답풀이 ① 5문단에서 학습 단계에서 대상들의 변별적 특징이 잘 반영되어 있는 서로 다른 학습 데이터를 사용해야 판정의 오류를 줄일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①에서 학습 데이터를 만들 때에는 색깔과 형태가 다른 사진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4문단에서 같은 범주에 속하는 입력값은 동일한 입력 단자를 통해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②에서는 색깔과 형태에 속하는 입력값은 각각 다른 입력 단자에 입력해야 한다. ④ 5문단에서 가중치의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즉 가중치가 더 이상 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학습 단계를 마치고 판정 단계로 전환된다고 했다. ⑤ 4문단에서 사과 사진에 대한 학습 데이터를 만들 때 정답에 해당하는 값을 '1'로 정했다면 출력값이 '0'인 경우에는 정답이 아님을 의미한다고 했다. 따라서 정답에 해당하는 값을 '0'으로 정했다면 출력값이 '0'일 경우에는 정답, '1'일 경우에는 정답이 아님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19 반응의 적절성 평가하기 정답 ③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8%	7%	45%	22%	16%
--------------	----	----	-----	-----	-----

해설 2문단에서 퍼셉트론은 각각의 입력 단자에 할당된 가중치를 입력값에 곱한 값들을 모두 합하여 가중합을 구한다고 했다. 이를 <보기>의 상황에 적용하면 가중합은 $0.5 \times 1 + 0.5 \times 0 + 0.1 \times 1$, 즉 '0.6'이 된다. 가중합이 임계치인 '1'보다 작으므로 출력값은 0이다. 이때 오차 값은 정답에 해당하는 값인 1에서 출력값인 0을 뺀 '1'이 된다. 그런데 이 오차값의 일부가 입력 단자의 모든 가중치들에 더해지므로, [B]로 한번 학습시키면 가중치 W_a, W_b, W_c 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적절한 것은 ③이다.

오답풀이 ① <보기>는 퍼셉트론을 이용한 학습 단계이다. 그런데 5문단에서 학습 단계를 마쳐야 판정 단계로 전환된다고 했으므로, [B]로 학습시키기 위해서 판정 단계를 먼저 거쳐야 한다고 할 수 없다. ② <보기>에서 가중합이 임계치 1보다 작지 않을 때 1을 출력한다고 했으므로, 퍼셉트론이 1을 출력했다면, 가중합이 임계치인 1보다 작았다고 볼 수 없다. ④ 5문단에서 가중치를 갱신하는 학습 과정이 반복될수록 출력값이 정답에 수렴한다고 했다. 따라서 <보기>의 경우에는 [B]로 여러 차례 반복해서 학습시키면 퍼셉트론의 출력값은 정답인 '1'에 수렴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⑤ [B]의 학습 데이터를 한 번 입력했을 경우, 가중합은 입력 단자 a, b, c의 현재 가중치에 a, b, c로 입력되는 학습 데이터인 1, 0, 1을 각각 곱한 후, 이를 더하여 얻은 값 0.6이 된다. 그런데 이 가중합이 임계치인 '1'보다 작으므로 출력값은 1이 아니라 0이다.

[20-24] 독서~인문

지문 분석

「유비 논증의 개념과 유용성」

지문 해제 이 글은 동물 실험의 유효성에 대한 찬반 논쟁을 통해 유비 논증의 개념과 유용성을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유비 논증은 두 대상의 몇 가지 유사성이 확인된 상태에서 어떤 대상이 추가적 특성을 갖고 있음이 알려졌을 때 다른 대상도 그 추가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추론하는 논증이다. 도출한 새로운 정보가 참일 가능성을 유비 논증의 개연성이라 하는데, 이 개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의 유사성이 크고 그것이 새로운 정보와 관련 있는 유사성이어야 한다. 유비 논증을 통해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은 포유류가 인간과 공유하는 유사성을 실험 결과와 관련있는 유사성으로 보기 때문에 동물 실험이 유효하다는 입장을 취한다. 반면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쪽은 인간과 실험동물 사이의 유사성이 기능적 차원의 유사성일 뿐 인과적 메카니즘은 동물마다 다르고,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이 기능적 유사성에 주목하면서도 인간과 동물이 고통을 느낀다는 기능적 유사성은 도외시키고 있다는 것을 들어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입장을 비판하고 있다.

주제 동물 실험의 유효성 논란을 통한 유비 논증의 이해

20 핵심 정보 파악하기 정답 ⑤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5%	3%	9%	13%	68%
--------------	----	----	----	-----	-----

해설 (마)는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쪽이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쪽은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이 사용한 유비 논증의 개연성이 낮고, 기능적 유사성 차원에서 유비 논증을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물 실험의 윤리적 문제를 간과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동물 실험 유효성 주장이 갖는 문제를 유비 논증의 차원에서 살펴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⑤이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 유비 논증이 두 대상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보를 도출하는 논증임을 밝히고 있고, 그 유용성을 동물 실험에서 찾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② (나)에서 인간과 실험동물의 유사성을 근거로 한 유비 논증을 활용해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의 논리를 소개하고 있다. ③ (다)에서 유비 논증이 높은 개연성을 갖기 위해서는 두 대상의 유사성이 크고 그것이 새로운 정보와 관련 있는 유사성이어야 함을 실험동물의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④ (라)에서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이 인간과 실험동물의 기능적 유사성에 초점을 두면서도 정작 동물이 인간처럼 고통을 느끼는 기능적 유사성에는 주목하지 않고 있다고 보는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쪽의 주장을 소개하고 있다.

21 세부 내용 추론하기 정답 ⑤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8%	19%	7%	3%	61%
--------------	----	-----	----	----	-----

해설 (마)에 따르면,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쪽은 동물 실험의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인간과 동물 모두 고통을 느끼는데 인간에게 고통을 끼치는 실험은 해서는 안 되고 동물에게 고통을 끼치는 실험은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물 실험에 윤리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는 인간과 동물의 고통을 공평한 기준으로 대해야 한다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이다.

오답풀이 ① (다)에서 유비 논증의 개연성이 높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 간의 유사성이 커야 하고 이때의 유사성은 새로운 정보와 관련 있는 유사성이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② (라)에서 인간은 자신의 고통은 직접 느낄 수 있는 반면 동물들의 고통은 동물들이 무엇인가에 맞았을 때 신음 소리를 내거나 몸을 움츠리는 행동을 보고 유비 논증으로 알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③ (다)에서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은 인간과 꼬리가 있는 실험동물은 꼬리의 유무에서 유사성을 갖지 않지만 그것은 실험과 관련이 없는 특성이므로 무시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꼬리의 유무가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논증의 개연성을 낮추는 것은 아니다. ④ (나)에서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은 유비 논증을 통해 동물 실험이 인간에게 유효하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동물 실험이 인간에게 중요한 이익을 준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22 주장의 타당성 평가하기

정답 ③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6%	6%	75%	6%	4%
--------------	----	----	-----	----	----

해설 | (라)에서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쪽이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의 논거를 비판할 때 인간과 실험동물의 기능적 차원에서 유사성에만 주목하고 그 기능을 구현하는 인과적 메커니즘이 동물마다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것은 ③이다.

오답풀이 | ① (라)를 통해서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쪽은 기능적 유사성이 있어도 인과적 메커니즘은 동물마다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다)와 (라)를 통해서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의 논거는 인간과 동물의 기능적 유사성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라)를 통해서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쪽은 인간과 동물 간에 유사성이 존재하더라도 인과적 메커니즘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마)를 통해서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쪽은 동물 실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쪽이 인간과 동물의 기능적 유사성에 주목하듯이 동물도 인간처럼 고통을 느낀다는 기능적 유사성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3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 ②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5%	38%	6%	5%	44%
--------------	----	-----	----	----	-----

해설 | (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은 인간을 대신하는 '실험 대상', ㉡는 인간과 실험 대상의 '유사성', ㉢는 실험 대상에서 얻은 '반응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보기>에 적용해 보면 ㉠은 실험 대상으로서 '어떤 개(㉡)'에, ㉡는 유사성으로서 '비슷하게 생긴(㉢)'에, ㉢는 실험 대상에서 얻은 반응 결과로서 '몹시 사납고 물려는 버릇(나)'에 대응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오답풀이 | <보기>의 ㉠은 실험 대상에서 얻은 '반응 결과를 적용하는 대상'으로서 (나)의 '인간'에 대응된다.

24 어휘 선택의 적절성 판단하기

정답 ①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86%	3%	4%	3%	1%
--------------	-----	----	----	----	----

해설 | '영향, 해, 은혜 따위를 당하거나 입게 하다.'는 의미의 '끼치다'는 '어떤 일에 대한 책임을 지우거나 담당하게 하다'는 의미의 '맡기다'와 뜻이 다르므로 ㉠은 바꾸어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25-27] 문학~고전시가

지문 분석

(가) 「고려 속요의 기원과 형성 과정」

작품 감상 이 글은 고려 속요의 기원과 형성, 고려 속요가 궁중악으로 수용될 수 있었던 까닭, 고려 속요와 「시경」 「풍」의 공통점과 차이점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고려 속요는 고려 시대 궁중에서 형성되어 조선 시대까지 궁중 연향에서 전승되어 불린 노래를 가리킨다. 민간의 노래 중 민중의 생활상을 진솔하게 반영하면서도 인륜의 차원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 노래들은 통치 질서를 구현하기에 적합한 노래로 여겨져 궁중악으로 편입되었다. 고려 속요와 「시경」의 「풍」은 궁중 잔치에서 불렸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고려 속요는 '풍'과 달리 작품의 특정 부분에 형식적 장치를 마련하여 작품 전체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더하거나 궁중 연향을 고려하여 특정한 부분을 덧붙이기도 하였다.

주제 고려 속요의 형성 과정과 특성

(나) 작자 미상 「동동」

작품 감상 이 작품은 현존하는 우리 문학 작품 중 가장 오래된 월령체(달거리) 노래로, 각 달의 특성과 세시 풍속을 통해 정서를 표현한 고려 속요이다. 분장체 형식과 후렴구 사용 등 형태적인 면에서 고려 속요의 일반적인 특성을 보여 주며 임에 대한 송축과 찬양, 떠나버린 임에 대한 원망과 정한, 그리움 등을 애절하게 표현하고 있다.

주제 임에 대한 송축과 고독의 비애

(다) 작자 미상 「가시리」

작품 감상 이 작품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시적 화자의 슬픈 마음을 간결한 형식과 소박한 시어를 사용하여 노래하고 있다. 이 작품의 화자는 떠나는 임을 적극적으로 붙잡지 못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주제 이별의 정한

25 세부 내용 파악하기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4%	3%	4%	82%	4%
--------------	----	----	----	-----	----

해설 | (가)의 3문단 '이처럼 민간 가요의 궁중 악곡으로의 전환은 하층에서 상층으로의 편입 흡수 과정을 통해 상·하층이 노래를 함께 향유한 화합의 차원으로 볼 수 있다.'에서 하층 노래가 상층 노래에 영향을 준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④이다.

오답풀이 | ① (가)의 1문단 '고려 속요는 고려 시대 궁중에서 형성되어 조선 시대까지 궁중 연향에서 전승되어 불린 노래'에서 알 수 있다. ② (가)의 2문단 '풍'에 실린 노래는 중국은 물론 고려와 조선의 궁중 잔치에서도 불렸다. 또한 조선의 궁중악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연향 악곡을 선정'에서 알 수 있다. ③ (가)의 2문단 '풍'에는 민간의 노래가 실려 있는데 사랑 노래가 대부분'이라는 부분과 3문단 '이때 그 과정에서 민중의 생활상을 진솔하게 반영한 노래 가운데 인륜의 차원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 노래들은 통치 질서를 구현하기에 적합한 노래로 여겨져 궁중악으로 편입'이라는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⑤ (가)의 3문단 '인륜의 차원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 노래들은 통치 질서를 구현하기에 적합한 노래로 여겨져와, '남녀 간의 사랑 노래는 그 화자와 대상이 신화와 임금의 구도로 치환되기 용이했기 때문에 궁중악으로 편입될 수 있었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26 작품에 종합적 이해하기

정답 ③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12%	6%	62%	7%	11%
--------------	-----	----	-----	----	-----

해설 | (나)의 <서사>에서 '아오 동동다리'는 작품 전체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후렴구로 볼 수 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궁중 연향을 고려하여 덧붙인 내용으로 임에 대한 송축(경사를 기리고 축하함)을 노래하고 있으므로 ㉠의 예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것은 ③이다.

오답풀이 | ① (나)의 '아오 동동다리'는 <서사>, <정월령>, <이월령>, <삼월령> 등에 반복되는 형식적 장치로, 작품 전체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후렴구이다. 그러므로 ①의 예로 볼 수 있다. ② (나)의 <서사>에서 '아오 동동다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임에 대한 송축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①의 예로 볼 수 없다. ④ (다)의 '위 증즐가 대평성디'는 후렴구로 노래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의 예로 볼 수 있다. ⑤ (다)의 제1연에서 '위 증즐가 대평성디'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별의 상황과 관련이 있으므로 ㉢의 예로 볼 수 없다.

27 감상의 적절성 평가하기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9%	8%	5%	68%	7%
--------------	----	----	----	-----	----

해설 | [A]의 제1행과 제2행은 물수리 한 쌍이 모래톱에서 우는 정경을 제시한 것으로 시적 대상이 변화한 것이 아니며 대칭 구조로 볼 수도 없다. (다)의 제1연과 제2연도 시적 화자가 떠나는 임에 대해 하소연하는 내용으로 시적 대상의 변화에 따른 대칭 구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④이다.

오답풀이 | ① (가)의 4문단 '자연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조화로움을 노래한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를 통해 [A]에서 자연과 인간 간의 조화로움이 드러난 것을 알 수 있다. (나)의 <정월령>은 정월의 낚물과 비교하여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처지를 노래하고 있으므로, 남녀 간의 사랑으로 인한 외로움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A]의 '물수리 한 쌍'은 조화로움과 관련된, (나)의 '만춘 돌윗꽃'은 타인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움과 관련된 긍정적 가치를 지닌 대상으로 볼 수 있다. ③ [A]에서는 짝을 지은 물수리 암수의 모습과 앞으로 짝을 지을 요조숙녀와 군자의 모습을 통해 화평하고 즐거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다)에서는 임과 시적 화자 간의 이별의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⑤ (가)의 4문단에서 [A]를 두고 '부부 간의 화락과 공경', '풍속 교화의 시초'라는 평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

으므로 [A]가 풍속을 교화할 만한 이상적인 사랑을 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의 <이월령>에서 '높이 켜 등불'에 빗대어 임이 모두가 우러러 볼만한 '덕'을 지녔음을 읊고 있으며, (다)에서는 이별의 상황에서 임에 대한 간절한 연모의 정을 읊고 있다.

[28-33] 독서~예술과 과학

지문 분석

「다양한 특성의 음들로 이루어진 음악의 아름다움」

지문 해제 이 글은 소리로 이루어진 예술인 음악이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음악에서 사용하는 소리는 고른음과 시끄러운음으로 나뉘는데, 고른음의 소리 스펙트럼은 부분음 사이의 간격이 일정한 반면 시끄러운음의 소리 스펙트럼은 부분음 사이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다. 이 글은 진동수 개념을 통해 이러한 음의 특징과 악기의 소리가 갖는 음색의 특징, 음의 어울림인 음정 개념을 설명하는 동시에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 내는 데 필요한 여러 요소로 리듬, 가락, 화성, 셈여림, 음색등과 같은 다양한 음악적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작곡가는 이러한 음악적 요소들을 활용해 다양한 특성을 갖는 음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작품을 만들어 낸다고 하면서 음악의 아름다움이 구현되는 과정을 밝히고 있다.

주제 음악에서 사용되는 소리와 다양한 음악적 요소에 대한 이해

28 내용 전개 방식 파악하기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5%	6%	12%	71%	3%
--------------	----	----	-----	-----	----

해설 이 글은 진동수라는 과학적 개념을 활용하여 음악에서 사용되는 음을 설명하고, 이러한 음과 음의 어울림인 협화도를 진동수를 활용한 음정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한슬리크의 형식 미학의 관점을 언급하면서 음악의 아름다움은 음과 다양한 음악적 요소가 결합하여 비롯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것은 ④이다.

오답풀이 ① 이 글은 소리에 대한 인간의 감각과 음악 감상 사이의 상관관계를 다루고 있는 글이 아니다. ② 이 글은 진동수라는 과학적 개념을 활용하여 어떻게 아름다운 음악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를 탐색하고 있을 뿐, 미적 본성에 대한 과학적 탐색과 음악적 탐색을 비교하고 있지는 않다. ③ 이 글은 소리를 고른음과 시끄러운음으로 구분한 뒤 그중 고른음에 대해 자세히 풀어쓰고 있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음정과 음악적 요소를 설명하면서 다양한 특성을 갖는 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아름다운 음악이 만들어진다고 말하고 있다. 이 글은 음악의 형식을 분류하여 설명하고 있는 글은 아니다. ⑤ 이 글은 듣기 좋은 소리와 그렇지 않은 소리를 각각 고른음, 시끄러운음으로 나누고, 고른음과 시끄러운음의 특성을 설명한 후에 음정과 여러 음악적 요소들을 통해 이러한 음들이 어떤 방식으로 결합하는지를 다루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이 듣기 좋은 소리와 그렇지 않은 소리가 음악에서 하는 역할을 분석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9 세부 정보 및 핵심 정보 파악하기

정답 ①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61%	12%	9%	7%	8%
--------------	-----	-----	----	----	----

해설 5문단에서 리듬은 음고 없이 소리의 장단이나 강약 등이 반복될 때 나타나는 규칙적인 소리의 흐름이라고 하였으므로, 리듬은 음높이를 가지는 규칙적인 소리의 흐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이다.

오답풀이 ② 5문단에서 가락은 서로 다른 음의 높낮이가 지속 시간을 가지는 음들의 흐름이라고 하였으며, 6문단에서 어떤 음악 작품에서 자주 반복되거나 변형되면서 등장하는 소재인 가락을 그 음악 작품의 주제라고 언급하고 있다. ③ 5문단에서 화성은 일정한 법칙에 따라 여러 개의 음이 동시에 울려서 생기는 화음과 또 다른 화음이 시간적으로 연결된 흐름이라고 하였으며, 6문단에서 주제는 긴장과 이완을 유발하는 다양한 화성 진행을 통해 반복되고 변화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④ 5문단에서 셈여림은 음악에 나타나는 크고 작은 소리의 세기라고 언급하고 있다. ⑤ 5문단에서 음색은 바이올린, 플루트 등 선택된 서로 다른 악기가 만들어 내는 식별 가능한 소리의 특색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30 글쓴이의 의도 및 관점 평가하기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6%	8%	7%	72%	5%
--------------	----	----	----	-----	----

해설 한슬리크는 음악의 독자적인 아름다움은 음들이 '울리면서 움직이는 형식'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음악의 가치는 음악이 환기하는 기쁨이나 슬픔과 같은 특정한 감정이나 정서에서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 ④는 완전5도가 되는 음들을 조직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음들을 구성하고 있어 한슬리크의 입장을 잘 반영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②, ③, ⑤ 음악이 환기하는 기쁨이나 슬픔과 같은 특정한 감정이나 정서가 나타나 있어 한슬리크의 입장과는 거리가 있는 사례들에 해당한다.

31 세부 내용 추론하기

정답 ③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8%	15%	58%	9%	7%
--------------	----	-----	-----	----	----

해설 <그림>에 표현된 부분음 중 기본음은 진동수가 가장 작은 110Hz에 해당하는 소리이다. <그림>에서는 이 부분음의 세기는 5가지 부분음 중 가장 센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따라서 적절한 것은 ③이다.

오답풀이 ① 3문단에 따르면 타악기 소리는 부분음들의 진동수가 기본음 진동수의 정수배를 이루지 않는다. <그림>은 부분음들의 진동수가 기본음 진동수의 정수배를 이루고 있으므로 <그림>은 타악기인 심벌즈의 소리 스펙트럼이라고 할 수 없다. ② 2문단에서 귀는 복합음 속의 부분음들 중에서 기본음의 진동수를 복합음의 진동수로 인식한다고 하였으므로 <그림>에 표현된 복합음의 진동수는 550Hz가 아니라 110Hz로 인식된다고 보아야 한다. ④ 3문단에서 <그림>은 복합음을 구성하는 단순음 성분들의 세기를 진동수에 따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라고 하였다. 2문단에서 진동수는 같은 파형이 1초에 몇 번 반복되는가를 나타낸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그림>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부분음의 세기의 변화를 나타낸다고 볼 수 없다. ⑤ 3문단에 따르면 음색은 부분음들로 구성된 복합음의 구조, 즉 부분음들의 진동수와 상대적 세기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그림>에서 220Hz에 해당하는 막대가 사라지면 하나의 부분음이 사라지는 것이므로 음색 또한 변한다고 할 수 있다.

32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 ②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7%	58%	9%	14%	10%
--------------	----	-----	----	-----	-----

해설 P와 Q 사이의 음정은 5/4이며, Q와 R 사이의 음정은 6/5이므로 P와 Q 사이의 음정(5/4)은 Q와 R 사이의 음정(6/5)보다 넓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②이다.

오답풀이 ① P와 Q 사이의 음정은 5/4인데, 이는 장3도 음정에 해당한다. ③ P와 R 사이의 음정은 3/2인데, 협화 음정은 분모가 1, 2, 3, 4, 5, 6으로만 표현되는 음정이므로 P와 R 사이의 음정은 협화 음정이라고 할 수 있다. ④ P의 기본음은 440Hz이고, S의 기본음은 880Hz이다. 3문단에 따르면, 바이올린은 현악기이며, 현악기에서 발생하는 고른음은 기본음 진동수의 정수배의 진동수를 갖는 부분음들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P의 부분음은 440Hz, 880Hz, 1320Hz 등이 있으며, S의 부분음은 880Hz, 1760Hz 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P와 S의 부분음 중에는 진동수가 같은 것이 있다고 할 수 있다. ⑤ P와 S 사이의 음정은 2/1이고, Q와 R 사이의 음정은 6/5이다. 음정을 나타내는 분수를 약분했을 때 분자와 분모에 들어가는 수가 커질수록 협화도는 작아진다고 하였으므로 P와 S 사이의 음정(2/1)은 Q와 R 사이의 음정(6/5)보다 협화도가 크다고 할 수 있다.

33 품사의 세부 유형 분류 및 적용하기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9%	7%	9%	61%	12%
--------------	----	----	----	-----	-----

해설 '오겠다고'는 '구해'의 뒤에 붙어서 의미를 더하여 주는 '보조 용언'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립적으로 쓰여 서술어 기능을 한다. 따라서 유사한 것은 ④이다.

오답풀이 ①의 '버리니', ②의 '주었다', ③의 '뒤라', ⑤의 '보고'는 모두 혼자서는 쓰이지 못하고 반드시 다른 용언의 뒤에 붙어서 의미를 더하여 주는 '보조 용언' 기능을 하는 단어에 해당한다.

[34-38] 문학~현대시

지문 분석

(가) 박두진 「향현(香峴)」

작품 감상 이 시의 화자는 멀리 있는 산을 보기 위해 비상한다. 거기서 본 산은 다양한 존재들을 품고 있다. 화자는 이 존재들이 '침묵'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4연과 5연에 비추어 볼 때, 산에 사는 존재들의 침묵은 갈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화자는 이를 깨트릴 '화염'을 기다리면서 '여우 이리 등속'이 '사슴 토끼와 더불어' 평화롭게 사는 세계가 도래하기를 노래하고 있다.

주제 화합을 이루며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계에 대한 갈망

(나) 강은교 「우리가 물이 되어」

작품 감상 이 시는 '물'과 '불'의 원형적 이미지를 통해 생명력의 합일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죽어 가는 것들의 생명력을 회복시키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되찾는 '물'로 인해 세상은 새롭게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 화자는 파괴와 죽음을 모두 넘어서 다음 물로 다시 만나 모든 것이 융화된 새로운 이상향을 향해 되기를 소망하면서, 삶에 대한 긍정과 희망을 보여 주고 있다.

주제 완전한 합일과 생명력이 충만한 세계에 대한 소망

(다) 박이문 「눈」

작품 감상 눈[雪]과 눈 덮인 세계에 대한 사색이 담긴 수필이다. 글쓰이는 눈을 따뜻하며 조용하다고 인식하면서 자신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는 이유를 담담하게 서술하고 있다. 눈이 쌓이는 밤은 고요하여 글쓰이는 고독에 빠진다. 그런데 이 고독은 오히려 자신을 재발견하는 계기가 된다. 글쓰이는 그래서 눈은 명상적이라고 말한다. 무한히 고요하고 거룩하여 순수한 시간이므로 누구나 사색과 철학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다.

주제 눈의 속성과 그에 대한 사색

34 표현상 특징 파악하기

정답 ③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12%	4%	68%	9%	5%
--------------	-----	----	-----	----	----

해설 시에서의 청자란 시적 화자가 말을 건네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가)는 '산'을 '너희들', '너희'라고 지칭하고 있으므로 청자를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서 '기다려도 좋으랴?'라고 거듭 묻고 있다. 이 물음은 '화염'과 '함께 즐거이 뛰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설의법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나)는 '만 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난 청자를 찾을 수 있다. '흐르는 물로 만나자'와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는 화자가 '그대'에게 바라는 것이므로 청자에게 화자의 바람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것은 ③이다.

오답풀이 ① 대구란 비슷한 어조나 어세를 가진 것으로 짝 지은 둘 이상의 글귀를 말한다. 4연과 5연의 끝 구절은 모두 '기다려도 좋으랴?'인데, 이를 대구로 파악한다고 할지라도 지나간 일을 돌이켜 생각하는 회고적 정서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② (나)에서 '물'과 '불'의 대립적 이미지를 찾을 수는 있으나 이들이 계절의 변화와 관련된 것은 아니다. ④ (가)와 (다)에서 반복적인 표현을 찾을 수는 있다. 하지만 (가)는 화자의 과거 체험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화자의 상상을 형상화한 것이다. ⑤ (나)와 (다)에서 특정 어구를 점층적으로 나열한 부분을 찾기 어렵다.

35 감상의 적절성 평가하기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10%	10%	5%	68%	4%
--------------	-----	-----	----	-----	----

해설 (가)의 '내 마음'이 '둥둥 구름을 타'는 것은 '큰 산', '그 넘었 산'이 안 보이기 때문이다. (나)의 화자는 현실에서 벗어나 자연과 합일하려는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 가문 어느 집에 선들 좋아하지 않으랴'라고 노래하고 있으므로 현실의 변화를 지향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④이다.

오답풀이 ① 4연과 5연에서 드러난 화자의 바람으로 보아 (가)의 '침묵'은 산의 부정적 상태를 드러낸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② (가)의 '내 기다려도 좋으랴'는 화자의 바람을 설의법으로 드러낸 것이므로 '화염'은 화자가 기대하는 산의 변화이다. ③ (나)의 '물이 되어 만난다면 / 가문 어느 집에 선들 좋아하지 않으랴'라고 말하는 화자는 '저 불 지난 뒤에 / 흐르는 물로 만나자'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소망의 실현을 바라고 있다. ⑤ (가)의 '즐거이 뛰는 날'은 '여우 이리 등속이 사슴 토끼와 더불어' 사는 것과 연관되므로 평화로운 세계를 표현한 것이다. (나)의 '넓고 깨끗한 하늘'은 '저 불 지난 뒤에 / 흐르는 물로 만나'는 것과 연관되므로 진정한 합일의 세계를 표현한 것이다.

36 소재의 기능 파악하기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5%	5%	3%	81%	3%
--------------	----	----	----	-----	----

해설 (가)에서 물은 생명력을 상징하고 있으므로 ㉠의 '우르르 우르르'는 물의 생동하는 힘을 표현한 것이다. ㉡은 '푸시시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이므로 불이 소멸하는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④이다.

오답풀이 ① (가)의 물은 생명력이 충만한 상태로 비유되고 있다. ㉢은 불의 충족감과 관련이 없다. ② 비는 '물'의 한 모습이므로 ㉠의 비는 긍정적 의미를 함축한다. ㉣은 소리의 긍정적 의미와는 무관하다. ③ ㉠은 비에 대한 불안감보다는 기대감을 드러낸다. ⑤ 비는 상승하는 물의 움직임보다는 하강하는 물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

37 작품의 내용 파악하기

정답 ③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5%	4%	82%	3%	4%
--------------	----	----	-----	----	----

해설 넷째 단락에서 글쓰이는 '고독은 삭막하거나 허전하기보다는 흐트란 내용을 갖게' 한다면서 '오랫동안 잊혀졌던 스스로를 다시금 발견하고 생각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자아를 재발견하는 것과 연결할 수 있으므로 '고독'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것은 ③이다.

오답풀이 ① '온 세상'이 '깊은 고요' 속에 파묻혀 가는 듯한 모습은 둘째 단락에서 서술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 연관된 부분에서 스스로 연민을 느끼는 장면을 찾을 수 없다. ② 마지막 단락을 보면 '철학자의 모습은 자연스럽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철학자'의 경지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마지막 단락에서 '사무적인 일이나 공부'가 언급되어 있는데, 이 진술은 사색에 잠기는 모습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지 '사무적인 일이나 공부'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⑤ 첫째 단락에서 '이웃 동네와 교통이 단절된 자기 집에 식구들과 모여 앉아 따뜻한 온돌에 발을 뻗고 옛 이야기를 나누는 삶의 따뜻함'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웃과의 유대감을 회복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니다.

38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의 재구성하기

정답 ⑤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5%	4%	4%	5%	80%
--------------	----	----	----	----	-----

해설 '포근하다'는 단어는 보드랍고 따뜻한 촉감을 드러낸다. 그리고 자갈밭에서 어머니가 예쁜 자갈들을 내 손에 쥐어 주시던 모습을 떠올리고 있다. 따라서 ⑤가 <보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 짧은 글이다.

오답풀이 ① ② ③ ㉠, ㉡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는 글이다. ④ ㉢의 조건을 충족시키고는 있으나 ㉣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글이다.

[39~42] 문학~현대소설

지문 분석

염상섭 「삼대」

작품 감상 삼대에 걸친 가족사를 중심으로 1930년대 일제 강점기 조선 사회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되는 요소는 세대나 이념 등을 대표하는 전형적 인물과 그들 사이의 갈등이다. 계급과 가문을 중시하는 구시대의 전형인 조 의관과 위선적인 개화 지식인인 상훈, 그리고 합리적이지만 보수적인 지식인 덕기의 삼대를 통해 세대 간의 갈등을 보여주는 동시에, 덕기의 친구이자 사회주의자인 병화, 조 의관의 첩이자 철저한 물질주의자인 수원집 등의 인물들을 통해 근대적 과도기인 1930년대의 다양한 사회적 갈등 양상을 사실적이고 치밀하게 묘사하고 있다.

주제 삼대에 걸친 한 가족을 중심으로 본 세대와 계층 간의 갈등

39 인물의 심리 파악하기

정답 ①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64%	5%	10%	8%	11%
--------------	-----	----	-----	----	-----

해설 ①의 내용을 보면 상훈의 부친이 족보를 만드는 데 ‘한 천 원’ 들었다고 말하는 것은 실제 그 정도의 돈을 썼기 때문이 아니라 남의 족보에 부정하게 이름을 올리기 위해 돈을 사용한 것이 남에게 흉잡힐까 봐 ‘난봉자식이 난봉 피운 돈 액수를 줄이듯이’ 줄여 말한 것이다. 또한 그 상황에 대해서도 ‘성한 돈 가지고 이런 병신 구실해 보기는 처음’이라고 반응하고 있으므로 ①과 같은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② 해당 내용이 포함된 발언의 맥락을 보면 상훈의 부친은 상훈이 ‘오륙천 원’을 학교에 ‘디밀’었던 것은 결국 ‘제 손으로 가르친 남의 딸자식’을 유인하기 위한 부정적인 행동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유리하게 쓰는 방법이냐?”는 질문은 일종의 설의법으로 이해하여 ‘유리하게’ 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B] 중간 부분에서 덕기가 상훈에게 “할아버지께서 산소에 돈 쓰신다고 반대하시던 걸 생각하시기로…….”라고 말하는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B]의 ‘안방 치장 하나에 천여 원 돈을 묶어서 들인다는 것은 생돈 잡아먹는 것 같고’라는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B]의 “~늘 이렇게만 하시면야 어디 드릴 수 있겠습니까?”의 발언에서 ‘이렇게만 하시면야’는 문맥 상 세간을 들이기 위해 천여 원을 들이는, 즉 낭비하는 상훈의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덕기가 ‘정미소 장부’를 내놓지 않으려는 이유가 재산의 낭비를 막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40 구절의 의미 파악하기

정답 ⑤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10%	3%	7%	5%	72%
--------------	-----	----	----	----	-----

해설 바로 앞에 언급된 내용을 보면 ‘여자 손들이 많은데 구차스럽게 세간 값으로 부자 충돌을 하는 꼴을 보이기 싫기 때문’이라고 했으므로 세간 값을 과하게 쓴 것을 아들이 탓하는 말을 못하게 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것은 ⑤이다.

오답풀이 ① ①은 기본적으로 아들이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실제 덕기에게 하는 상훈의 말이 세간 값을 치룰 수 없으면 놓고 가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앞의 맥락을 보면 아들이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지 상훈도 짐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아들의 말에 놀라움을 표시하려는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아들의 말을 막는 것은 남들 앞에서 부자 간의 ‘충돌’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아들과 자신의 의견을 갈게 하려는 것은 아니다. ④ 상훈이 아들에게 하고자 한 말은 세간 값을 치루라는 것이고, 그 말은 이미 아들에게 했으므로 아들에게 하고자 했던 말을 참으려는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41 갈등 양상 파악하기

정답 ③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12%	20%	55%	5%	6%
--------------	-----	-----	-----	----	----

해설 [B]에서 상훈은 자신이 산 세간 값을 아들이 계산해 주지 않고 간섭을 하는 것과, 정미소 장부를 내어 주지 않는 것에 대해 나무라고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아들 탓으로 돌리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③이다.

오답풀이 ① [A]에서 상훈의 아버지 조 의관은 아들 상훈이 학교에 돈을 디밀

고 자신의 손으로 가르친 남의 딸자식을 유인한 처부를 들추어내며 책망하고 있으나 [B]에서 덕기의 아버지 상훈은 아들 덕기의 처부를 들추고 있지는 않다. ② [A]에서 아들 상훈은 아버지가 족보를 사는 일에 돈을 쓰는 것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을 뿐 아버지를 동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 부분을 보면 [B]에서 덕기는 아버지 상훈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사회적으로 활약할 야심이나 희망까지 길이 막힌’ 상황에 동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A]에서는 족보를 사는 데 돈을 쓰는 것을 간섭하는, [B]에서는 세간을 들이는 데 돈 쓰는 것을 간섭하는 아들의 말에 역정을 내며 못마땅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A]에서 아들 상훈은 좀 더 유리한 데에 돈을 쓰지 않고 아버지가 족보를 사는 일에 돈을 쓰는 행위를 문제 삼고 있고, [B]에서 아들 덕기는 아버지가 불필요하고 과하게 세간살이에 돈을 쓰는 행위를 문제 삼고 있다.

42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하기

정답 ⑤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9%	10%	13%	7%	59%
--------------	----	-----	-----	----	-----

해설 ㉠과 ㉡은 모두 표면적으로는 전지적 작가 시점을 사용하고 있으나 ㉠은 영감의 시선에서 상황에 대한 인식을 보여 주어 체면 때문에 부당한 일을 남 앞에서 이야기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감내하는 영감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은 덕기의 시선에서 아버지를 이해하고 동정하는 덕기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절망하고 타락해가는 상훈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적절한 것은 ⑤이다.

오답풀이 ① ㉠에서 서술자가 선택한 특정 인물은 영감으로 일정하고, ㉡ 역시 덕기로 고정되어 있다. ② ㉠에서는 상훈이 아니라 서술자가 선택한 특정 인물인 영감의 의식과 행동 사이의 인과 관계가 드러나고, ㉡에서는 덕기가 포착한 상훈의 심리적 갈등이 드러난다. ③ ㉠에서 영감은 ‘아들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상훈을 낮게 평가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에서 덕기는 상훈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하지만 그 심리를 이해하고 동정하고 있으므로 역시 낮게 평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에서는 상훈에 대한 영감의 평가는 ‘옳다’는 것으로 일정하게 나타나고, ㉡에서 상훈에 대한 덕기의 평가는 심리는 이해하지만 드러나는 행동에 대해서는 안타까워하는 것으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43~45] 문학~고전소설

지문 분석

조위한 「최척전(崔陟傳)」

작품 감상 이 소설은 전란의 와중에 이산과 상봉, 유랑과 귀향을 겪은 최척과 옥영 가족의 이야기이다. 시간적으로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공간적으로는 조선, 일본, 중국, 베트남, 만주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당시 소설들이 중국이나 조선만을 소설 속 배경으로 삼은 것과 달리, 사건의 무대가 광범위한 지리적 공간이라는 것이 특기할 만하다. 소설의 배경이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과 연관을 맺고 있다는 점, 당시의 전란을 겪은 민중의 고통을 다루었다는 점,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초자연적 도술이나 우연이 아닌 주인공들의 노력 위주로 이루어진 점 등의 측면에서 사실감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제시된 장면은 일본에 끌려간 옥영이 돈우의 상선을 타고 안남(베트남)으로 오고, 명나라로 건너갔던 최척도 동료들과 상선을 타고 안남으로 왔을 때, 최척의 피리 소리와 옥영의 시 소리가 매개가 되어 극적인 상봉을 이루는 장면이다.

주제 전쟁으로 인한 가족의 이산과 재회

43 서사 구조에 대한 이해하기

정답 ②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10%	74%	7%	4%	3%
--------------	-----	-----	----	----	----

해설 두 사람의 상봉을 이끌어내는 데 크게 기여한 매개체는 조선의 곡조로 연주한 최척의 피리 소리와 옥영이 조선말로 읊은 시이다. 피리의 곡조와 조선말의 시는 모두 두 인물이 과거에 함께 나눈 문화적 경험이며, 문화적 경험에 대한 공동의 기억이 두 인물의 상봉을 가능하게 한 매개가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한 것은 ②이다.

오답풀이 ① 제시된 장면에서는 최척과 옥영을 제외한 조선인이 나타나지 않는다. ③ 최척과 옥영이 주변 인물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는 하나, 그들에게 배운 자비로 인해 상봉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④ 돈우가 옥영을 남섬으로 오해하기는 하였으나, 옥영의 고난은 전란으로 인한 것이지만, 돈우의 오해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⑤ 최척과 옥영이 상봉하면서 통곡하자 주변 인물 중 울지 않은 이가 없었다고 하였다. 한편 돈우가 자신이 아끼는 옥영과의 이별을 슬퍼하기는 하나 최척과 옥영의 상봉에 관하여 의심을 품는 것은 아니다.

44 작품 배경의 의미 및 역할 파악하기 정답 ⑤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6%	6%	6%	5%	75%
--------------	----	----	----	----	-----

| 해설 | 밤은 최척이 이제껏 헤어졌던 아내와 다시 만날지도 모른다는 서사적 긴장이 조성되는 때이고, 아침은 극적인 상봉을 통해 그 긴장이 해소되는 때이므로 적절한 것은 ⑤이다.

| 오답풀이 | ① 제시된 글에서 밤에 오고가는 피리 소리와 시 읊는 소리는 최척과 옥영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에 해당하며, 초월적 존재와의 교감인 것은 아니다. ② 부부가 서로의 신원을 확인하고 재회에 이르는 과정을 위기의 조성고 해소 과정으로 보기 어렵다. ③ 밤에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다음날의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이며, 아침에 계획 실행을 논의한 것은 아니다. ④ 아침에 부부의 이별이라는 문제 상황이 해결된 것이지, 인물의 내면적 갈등이 새로운 인물들 간의 갈등으로 확산된 것은 아니다.

45 감상의 적절성 평가하기 정답 ②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7%	63%	12%	6%	9%
--------------	----	-----	-----	----	----

| 해설 | 옥영이 옛날에 지은 시를 읊고 한숨까지 내쉬는 것은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유랑하는 처지에 대한 탄식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아야지, 시가 이산과 유랑 체험을 담고 있기 때문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 오답풀이 | ① 제시된 장면의 시간적 배경은 ‘경자년(1600년)’이다. 돈우가 옥영을 데리고 있게 된 지가 ‘4년’이라고 하였으므로, 옥영이 고향을 떠난 것은 1596년쯤으로 볼 수 있다. 이때는 임진왜란(1592~1598년)의 기간에 속하므로, 이 작품의 사건은 전란과 유랑 체험의 역사적 실제성을 잘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③ 최척이 일본인의 배를 찾아가게 된 것은 일본인의 배 안에서 ‘조선말’로 된 시 읊는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또 옥영이 저절로 시를 읊게 된 것은 ‘조선의 곡조’로 된 피리 소리를 듣고 남편 생각에 감회가 일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조선말’, ‘조선의 곡조’가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된 것은 사건의 배경이 타국(안남의 강가)이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④ 부부의 상봉을 지켜보며 놀라 소리치거나 함께 통곡하는 사람들은 중국인, 일본인 등 외국인들이며, 이들의 눈물은 각국 백성들이 보인 인류애적 연민으로 이해될 수 있다. ⑤ 돈우가 옥영을 넘길 때 돈 받기를 사양하고 오히려 옥영에게 전별금을 주는 것은 ‘하늘’의 뜻에 따르는 양심을 보여주는 행위로, 임진왜란 당시 교전국이었던 조선과 일본의 갈등을 넘어선 인간적 배려에 해당한다.

| 등급컷

등급	1	2	3	4	5	6	7	8
원점수	90	83	75	65	53	40	28	19
나의 점수	[] 점				[] 등급			

| 오답률 Best 5

순위	1	2	3	4	5
번호	23	19	12	13	14
오답률(%)	63.6	61.3	60.3	58.8	49.7

정답과 해설					본문 79~95페이지
1 ③	2 ①	3 ②	4 ④	5 ⑤	
6 ②	7 ③	8 ⑤	9 ②	10 ③	
11 ④	12 ①	13 ③	14 ④	15 ②	
16 ②	17 ②	18 ③	19 ④	20 ③	
21 ②	22 ③	23 ①	24 ②	25 ①	
26 ①	27 ④	28 ⑤	29 ④	30 ①	
31 ③	32 ④	33 ②	34 ⑤	35 ④	
36 ④	37 ②	38 ⑤	39 ④	40 ⑤	
41 ④	42 ⑤	43 ①	44 ③	45 ⑤	

[1-5] 화법

1 말하기 방식 이해하기

정답 ③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3%	1%	93%	0%	0%
--------------	----	----	-----	----	----

해설 | ㉠은 토요일 오전까지 공연 홍보지를 만들기로 했지만 처음 해 보는 일이라 빨리 끝낼 수 있을지 걱정하는 '학생 1'이 마침 '학생 2'가 홍보지 제작에 대한 경험이 많고 잘 한다고 말하는 상황이다. 특히 ㉡ 이후의 "혹시....."로 미루어 볼 때, 이는 '학생 1'이 자신을 낮추어 표현함으로써 겸손의 의도를 드러내기보다는 '학생 2'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여 '학생 2'에게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③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 ① '학생 2'는 "아무래도 그럴겠지?"라는 질문의 방식을 통해 기타 화음을 좀 더 맞춰 봐야 할 것 같다는 '학생 1'의 말에 동조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② 비언어적 표현이란 언어가 아닌 몸짓, 손짓, 표정, 시선, 자세 등으로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에서 고개를 끄는 몸짓은 비언어적 표현이며 "안 될 것 같아."라는 말은 언어적 표현인데, '학생 1'은 이러한 비언어적 표현과 언어적 표현을 통해 토요일에 연습하지는 '학생 2'의 말에 대해 부정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④ '학생 1'이 "혹시 시간이 괜찮다면 홍보지 만드는 걸 좀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말한 것에는 '학생 2'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 2'의 상황과 여건에 따르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따라서 이는 상대방이 부담을 덜 느끼도록 표현하면서 부탁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학생 2'의 "무대에서 연습하는 기회를 많이 갖자는 말인가."는 바로 앞부분에서 무대에서 연습할 기회를 많이 갖자고 말했던 '학생 1'의 말을 반복한 것이다. 따라서 '학생 2'는 '학생 1'이 앞서 한 말을 제대로 잘 알아들었음을 알 수 있다.

2 말하기 과정 분석하기

정답 ①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89%	3%	4%	0%	1%
--------------	-----	----	----	----	----

해설 | [A]에서는 연습 시간을 맞출 방법을 찾고자 하는 '학생 1'에게 '학생 2'는 자신의 주중 회의 시간을 조정해서 수요일과 금요일로 맞춰 보겠다고 하면서 좀 더 연습할 수 있는 시간 확보를 위해 '학생 1'에게도 시간을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생 1'도 토요일 오전까지 홍보지를 마무리하면 오후에는 같이 연습할 수 있을 거라 말하고 있다. 또한 '학생 1'은 이를 위해 '학생 2'에게 홍보지 만드는 일을 도와줄 것을 요구하였고, '학생 2'는 이 요구를 수용해 '학생 1'을 도와주기로 하였다. 따라서 '학생 1'과 '학생 2'는 연습 시간에 대한 서로의 요구를 수용하고 합의함으로써 의견의 일치점을 찾았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 ② [B]에서 '학생 1'은 조용한 연습실에서 화음을 맞춰 보고 연습을 충분히 해보자는 '학생 2'의 의견을 수용하고 있다. 따라서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고 볼 수 없다. ③ [A]에서는 '연습 시간 확보'의 문제를, [B]에서는 '연습 장소 정하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하고 있다. ④ [A]와 [B] 모두 '학생 1'과 '학생 2'의 공동의 문제인 공연 연습과 관련된 화제를 중심으로 대화하고 있다. ⑤ [A]의 경우 '학생 1'이 대화에서 제시된 안을 종합하여 '수요일과 금요일' 및 '토요일 오후'에 연습하지는 내용을 끝부분에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B]에서 '학생 1'은 '학생 2'의 의견을 수용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3 말하기 계획 평가하기

정답 ②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92%	1%	2%	0%
--------------	----	-----	----	----	----

해설 | 이 발표에서 '영우'는 자신의 체험과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처마의 특징과 기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처마'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는 발표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오답풀이 | ㄱ : 1문단의 "먼저, 처마가 무엇인지부터 설명하고 그 뒤로 처마의 기능을 두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ㄴ : 2문단의 "긴 처마는 서양식 주택과 비교되는 전통 한옥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화면으로 사진을 보여 주며 화면을 응시한 채) 보시는 것처럼 서양식 주택은 대체로 처마가 짧거나 아예 없습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ㄷ : 1문단의 "지나어오름에 저는 전통 한옥 체험을 하면서 냉방 장치가 없는 한옥 안이 한낮에도 시원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ㄹ : 5문단의 "지금까지 한옥의 가장 큰 특징인~"에서 발표자는 핵심적인 내용을 청중이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설명한 내용을 요약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

4 듣기 전략 평가하기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1%	4%	89%	1%
--------------	----	----	----	-----	----

해설 | ㉠은 발표자가 제시한 '처마의 기능' 중 두 번째 정보를 요약해 메모한 것이다. 발표자는 '처마의 기능' 중 두 번째 정보에 대해 언급하면서 계절과 태양 고도의 관계 및 처마의 기능에 대한 사실적 정보를 제시하였을 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발표를 듣는 학생이 제시된 정보를 사실과 의견으로 구분하며 들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④이다.

오답풀이 | ① 처마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벽과 기둥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이는 한옥의 벽과 기둥이 각각 흙과 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물에 약하므로 벽과 기둥을 보호하기 위해 처마가 필요한 이유이다. 따라서 이 학생은 정보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며 들었음을 알 수 있다. ② 발표자가 처마의 첫 번째 기능에 대해 설명하면서 처음 부분의 "처마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바로 벽과 기둥을 보호하는 것입니다."와 끝부분의 "~벽과 기둥을 빗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처마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를 반복하고 있다. 따라서 이 학생은 발표자가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하며 들었음을 알 수 있다. ③ 전통 한옥의 처마의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학생이 이 내용을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적용하여 생각해 본 것은 발표 내용을 자기 경험과 관련지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이 학생은 처마의 첫 번째 기능이 장마가 길고 여름에 강수량이 집중되는 한반도의 기후와 관련되며, 두 번째 기능은 한반도의 여름과 겨울의 기온 차가 크다는 것과 관련이 깊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학생은 이와 같은 처마의 두 가지 기능 모두 한반도의 자연 환경을 고려한 것임을 메모하였는데, 이를 통해 이 학생이 정보들 사이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비교하며 들은 것으로 볼 수 있다.

5 반응의 적절성 평가하기

정답 ⑤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2%	0%	1%	92%
--------------	----	----	----	----	-----

해설 | 청자 3은 발표자가 처마의 모양과 계절에 따른 일조량 조절 원리를 시각 자료를 활용하여 설명함으로써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그러나 '서까래'나 '기단'과 같은 용어에 대한 정확한 뜻을 설명해 주지 않아 아쉬운 점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청중의 반응을 분석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이다.

오답풀이 | ① 발표자는 한옥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처마라고 말했지만, 청자 1은 창호를 한옥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꼽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면서 발표자의 생각에 공감하지 않음을 드러내고 있다. ② 청자 1은 한옥 안이 여름에도 시원하다고 느끼는 것은 처마가 실내로 들어오는 직사광선을 막아 주었기 때문이라는 발표자의 내용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창호와 관련지어 이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청자 2는 발표자가 청중의 반응을 살피지 않고 화면과 발표 원고에만 집중한 발표 태도에 대해 아쉬워하는 것이지, 처마의 기능에 대한 발표 주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청자 2는 발표 주제에 대해서는 무척 흥미롭게 들었지만, 발표자가 청자의 반응을 살피지 않고 화면과 발표 원고에만 집중하여 발표한 것은 고쳐야 할 점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발표자와 청중 간 상호 작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6-10] 작문

6 글쓰기 전략 파악하기

정답 ②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93%	2%	1%	0%
--------------	----	-----	----	----	----

해설 | ㉠의 “사람 사는 게 그런 거야.”는 글쓴이가 어렸을 적에 들었던 할아버지의 말씀으로 그 당시엔 그 말씀의 의미를 완전히 알지 못했다고 했다. 그리고 ㉡의 “사람 사는 게 그런 거야.”는 얼마 전 봉사 활동을 다녀온 후 진정한 나눔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았던 글쓴이가 예전에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의미를 되새기며 떠올리는 상황이다. 따라서 글쓴이는 ㉠의 의미를 과거에는 ‘불완전’하게 이해했었지만, ‘체험을 통해’ ㉡의 의미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할아버지의 말씀을 이와 같이 반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나눔의 의미’와 관련된 글의 주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글쓰기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이다.

오답풀이 | ① 불완전하게 이해했던 ㉠을 체험을 통해 비로소 ㉡의 의미로 이해하게 되는 과정을 통해 ‘나눔의 의미’라는 보편성이 드러나고 있지만, 할아버지의 말씀이 어떤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켜 내려와 그 사회 성원들이 널리 인정하는 질서나 풍습을 의미하는 ‘관습적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③ ㉠과 ㉡의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야.”는 까치밥을 왜 남겨 두시느냐는 나의 질문에 대한 할아버지의 답변이다. 따라서 ㉠을 ‘문제를 제기하는 말’, ㉡을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말’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어릴 적 할아버지께서 하셨던 말씀인 ㉠은 다른 생명들에게 겨울을 날 힘이 된다는 의미이며, 얼마 전 글쓴이가 봉사 활동 체험을 통해 깨달은 ㉡은 나눔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과 ㉡ 모두 정신적 가치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을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어린 손자의 질문에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던 ㉠과 ㉡에 대해 ‘이성적인 설명’이나 ‘감성에 호소하는 말’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7 고쳐 쓰기 방안의 적절성 평가하기

정답 ③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1%	94%	0%	0%
--------------	----	----	-----	----	----

해설 | ㉢는 할머니께서 불편하신 몸으로 집 안에서 홀로 하루 종일 계신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다는 내용이고, ㉡의 앞 문장은 할머니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할머니께서 불편한 다리로 거동하시는 걸 알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를 앞의 문장과 순서를 바꾸게 되면 거동이 불편하신 할머니에 대한 글쓴이의 심정이 먼저 나오게 되고, 거동이 불편하신 할머니의 모습을 그 후에 알게 된 게 되므로 내용의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다. 따라서 문장의 순서를 바꾸지 않는 것이 내용 전개상 자연스럽다. 정답은 ③이다.

오답풀이 | ① 문단 나누기는 중심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다. ㉢를 기준으로 할 때, 앞부분은 글쓴이의 유년 시절의 체험담이며 뒷부분은 글쓴이의 현재 상황이다. 따라서 중심 내용의 변화가 있으므로 ㉢ 부분에서 문단을 나누는 것은 적절하다. ② ‘그런데’는 화제를 앞의 내용과 관련시키면서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서 나갈 때 쓰는 접속 부사이며, ‘그래서’는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원인이나 근거, 조건 따위가 될 때 쓰는 접속 부사이다. ⑥의 앞부분은 다른 생명을 배려하셨던 할아버지의 미소를 떠올리는 내용이고 뒷부분은 타인을 돕는 활동을 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내용을 전환하는 기능을 하는 ‘그런데’보다는 내용의 인과성을 드러내는 ‘그래서’로 고치는 것이 글의 흐름상 자연스럽다. ④ ‘거절하다’는 ‘요구나 제의 따위를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치다.’는 뜻이며, ‘사양하다’는 ‘겸손하여 받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하다.’의 뜻이다. 문맥상 학생들이 음식을 싸 와서 말뚱을 해 준 것만 해도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시며 활짝 웃으시는 할머니의 모습을 고려할 때, ‘물리치다’의 뜻이 담긴 ‘거부하다’보다는 남의 호의에 응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사양하다’가 적절함을 알 수 있다. ⑤ 한 편의 글은 하나의 주제를 나타내기 위해 그 문단이나 문장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글의 전체적인 주제도 하나여야 하는데, 이런 글의 성질을 통일성이라고 한다. 이를 고려할 때, ㉡의 앞부분은 ‘나눔의 의미’와 관련된 내용이고 ‘가족의 의무감과 효 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는 글의 통일성을 저해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 자료 수집과 활용의 적절성 평가하기

정답 ⑤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1%	1%	2%	1%	92%
--------------	----	----	----	----	-----

해설 | ‘협동 작문 과제’의 ‘초고’에서는 텔레비전 요리 프로그램의 인기 이유와 그에 따른 부정적 영향으로 상업화와 프로그램의 다양성 위축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요리 프로그램에 심취할수록 사람들이 직접 요리를 하지 않게 된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는 활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오답풀이 | ① ㉠의 경우, ‘여러 나라의 요리에 대한 정보와 전문가의 요리 비법부터 일반인들이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요리법까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의 경우, ‘매일 반복되는 인간의 기본적 활동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요리를 하는 모습에서 시청자들은 친숙함을 느낀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의 경우, ‘요리가 등장하는 장면은 시청자들의 시각과 미각을 자극하여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준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의 경우, ‘불필요한 간접 광고의 노출이 많아지는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9 내용 조직의 적절성 파악하기

정답 ②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1%	92%	2%	1%	1%
--------------	----	-----	----	----	----

해설 | 작문 상황에 따르면 모동원이 정한 중심 소재는 텔레비전 요리 프로그램이며, 글의 주제는 텔레비전 요리 프로그램의 인기 이유와 그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모동원의 초안 1에서 보듯이 첫 문단의 ‘최근 텔레비전 요리 프로그램이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는 현상에 대해 ‘이는 대중들의 대중매체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로 이어지는 글의 맥락은 내용상 어울리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텔레비전 요리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는 것이 작문 상황에 부합한다. 그러므로 정답은 ②이다.

오답풀이 | ① 모동원이 정한 중심 소재가 ‘텔레비전 요리 프로그램’임을 고려할 때, ‘텔레비전 요리 프로그램이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를 ‘요리 관련 서적이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며’로 수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중심 소재가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텔레비전 요리 프로그램’이므로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으로 수정하는 것은 작문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조언이다. ④ 작문 상황에서 글의 주제는 ‘텔레비전 요리 프로그램의 인기 이유와 그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다. 그런데 글의 주제를 ‘요리 프로그램의 구성 방식’으로 수정하게 되면 글의 흐름이 주제를 벗어나게 되므로 적절한 조언으로 볼 수 없다. ⑤ 작문 상황에서 글의 주제를 ‘텔레비전 요리 프로그램의 인기 이유와 그에 따른 부정적 영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첫 문단의 ‘그에 따라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을 ‘그에 따라 발생하는 긍정적 영향’으로 수정하게 되면 전체 글의 내용이 화제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적절하지 않다.

10 내용의 적절성 파악하기

정답 ③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3%	90%	1%	1%
--------------	----	----	-----	----	----

해설 | 모동원의 ‘초안 2’를 살펴보면, 마지막 문단에서는 앞서 언급한 내용 중 ‘텔레비전 요리 프로그램의 인기 이유와 그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요약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A]가 포함된 마지막 문단의 앞부분에서는 ‘텔레비전 요리 프로그램의 인기 이유’가 이미 언급되었으므로 [A]에서는 요리 프로그램의 인기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언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따라서 요리 프로그램이 점차 상업화되고 다른 성격의 방송 프로그램까지도 요리 프로그램화되고 있는 부정적 현상을 요약하여 제시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③의 경우, 요리 프로그램이 점차 상업화되고 다른 성격의 방송 프로그램까지도 요리 프로그램화 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내용으므로 [A]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다.

오답풀이 | ① ‘초고’의 내용 중 시청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했기 때문에 요리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게 되었다는 언급은 나타나지 않는다. 특히 ‘초안 2’를 고려할 때, [A] 앞에 인기를 얻게 된 이유가 언급되었으므로 [A]에는 그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요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② 요리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높기 위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정보만 제시한다는 부정적 영향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초고’에서 언급한 요리 프로그램이 점차 상업화된거나 방송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내용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하여 요리 프로그램을 통해 위안을 얻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내용은 ‘초고’에서 언급하지 않았으며, ‘초안 2’를 고려할 때 [A]에서는 요리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을 진술해야 한다. ⑤ 요리 프로그램이 인간의 소비 욕구를 자극하고 나아가 요리 관련 산업의 확대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은 요리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게 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부수적인 효과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초안 2’가 제시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며 부정적 영향과도 관련이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1-15] 문법

11 음운 변동 이해하기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9%	5%	10%	69%	4%
--------------	----	----	-----	-----	----

해설 | ㉡의 ‘뽕+느라 → [뽕느라]’는 동화 현상에 해당한다. 이는 조음 위치로 양순음이며, 조음 방법으로 파열음인 ‘ㅂ’이 조음 위치로 치조음이며, 조음 방법으로 비음(콧소리)인 ‘ㄴ’의 영향을 받아 조음 위치로 양순음이며, 조음 방법으로 비음인 ‘ㄹ’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즉 ㉡에서 ‘뽕’이 [뽕]으로 발음되는 것은 ‘ㅂ’이 조음 위치는 바뀌지 않은 채 뒤에 오는 ‘ㄴ’의 조음 방법과 같은 조음 방법으로 발음되어 ‘ㄹ’로 변한 현상이라는 점에서 동화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이다.

|오답풀이| ① ‘ㄱ’이 ‘ㄴ’으로 발음되는 것은 ‘ㄷ’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ㄴ’은 ‘ㄷ’과 조음 위치나 조음 방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동화로 볼 수 없다. ‘듣+고 → [듣꼬]’로 발음되는 것은 두 개의 안울림소리가 서로 만나면 뒤의 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는 현상으로 경음화 현상이라고도 한다. 된소리되기의 환경은 항상 첫음절의 끝소리에 안울림소리와 뒤 음절의 첫소리에 안울림소리가 와야 한다. ② ‘놓+고 → [노꼬]’의 경우, ‘ㅎ’과 ‘ㄱ’이 결합하여 ‘ㅋ’으로 발음되는 것은 두 음운이 한 음운으로 합쳐져 줄어든 음운의 축약으로서 음운의 교체인 동화 현상이 아니다. ③ ‘홀+네 → [홀레]’는 우선 ‘ㄷ’이 탈락하고 앞에 있는 ‘ㄹ’의 영향을 받아 뒤의 ‘ㄴ’이 ‘ㄹ’로 발음된 것이다. 따라서 ‘ㄴ’이 ‘ㄹ’로 동화된 것은 ‘ㄷ’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다. ⑤ ‘ㄴ’이 ‘ㄷ’의 영향을 받아 ‘ㄷ’이 되었다는 것은 [널더라]로 발음된다는 뜻인데, 이는 한국어에 존재하지 않는 발음이다. 음절 말에 두 개의 자음이 발음되는 것은 국어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설령 [널더라]를 억지로 발음한다 해도 [널더라]와 다른 발음이므로 틀린 진술이다.

12 조사 ‘과’의 특징 이해하기 정답 ①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86%	2%	8%	2%	0%
--------------	-----	----	----	----	----

|해설| ‘그는 낯선 사람과 잘 사귀다.’는 낯선 사람이 사귀는 행위의 상대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람과’의 ‘과’는 ㉠ ③의 ‘상대’로 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에 해당하므로 ㉡에 들어갈 수 있는 예문이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이다.

|오답풀이| ② ‘그는 형님과 고향에 다녀왔다.’에서의 ‘과’는 다른 사람과 ‘일 따위를 함께’ 하는 의미를 나타내므로 ㉡에 들어갈 수 있는 예문이다. ③ ㉠의 ①~③은 모두 ‘과’가 격 조사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적절하다. ④ ‘과’의 유의어인 ‘하고’와 마찬가지로 ‘이랑’도 ‘닭 {하고, 이랑} 오리는 동물이다.’, ‘책 {하고, 이랑} 연필을 가져와라.’가 성립하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⑤ 앞말이 받침 있는 체언일 경우에는 ‘과’가 쓰이고, 앞말이 받침 없는 체언일 경우에는 ‘와’가 쓰이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이는 ‘형과 누나’와 ‘누나와 형’을 통해 알 수 있다.

13 단어의 사전적 의미 파악하기 정답 ③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1%	91%	1%	2%
--------------	----	----	-----	----	----

|해설| 중심적 의미는 가장 기본적으로 핵심적인 의미이며, 주변적 의미란 중심적 의미에서 확장되어 사용된 의미를 뜻한다. ③의 경우, ‘그는 자신의 뿌리를 찾고자 노력한다.’에서 ‘뿌리’는 자연물 ‘뿌리’가 아니라 사물이나 현상을 이루는 근본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므로 중심적 의미가 아니라 주변적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그리고 ‘잡초가 다시 자라지 않도록 뿌리를 뽑았다.’에서의 ‘뿌리’는 자연물 자체를 드러내는 중심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중심적 의미와 주변적 의미의 순서가 바뀌었으므로 ③은 적절한 예가 아니다.

|오답풀이| ① ‘천체 망원경으로 밤하늘의 별을 관찰했다.’에서의 ‘별’은 자연물 자체를 가리키는 중심적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어제 물리학계의 큰 별이 졌다.’에서의 ‘별’은 어떤 분야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긴 대가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므로 주변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②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렸다.’에서의 ‘번개’는 자연 현상 자체를 가리키는 중심적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그는 도망가는 데만큼은 정말 번개야.’에서의 ‘번개’는 동작이 아주 빠르고 날랜 사람이나 사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므로 주변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④ ‘일출을 기다리는 우리 앞에 붉은 태양이 떠올랐다.’에서의 ‘태양’은 자연물 자체를 가리키는 중심적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그녀는 그가 자기 마음의 태양이라고 말했다.’에서의 ‘태양’은 매우 소중하거나 희망을 주는 존재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므로 주변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⑤ ‘뜰판에는 풀잎이나 이슬이 맺혔다.’에서의 ‘이슬’은 자연물 자체를 가리키는 중심적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그녀의 두 눈에 맺힌 이슬이 뜨겁게 흘러내렸다.’에서의 ‘이슬’은 눈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므로 주변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14 문장 수정의 적절성 파악하기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18%	3%	4%	71%	1%
--------------	-----	----	----	-----	----

|해설| <보기 2>의 수정 전 문장을 수정 후 문장으로 바꿨을 때 바뀐 부분은 세 군데임을 알 수 있다. 즉 ‘참여하려는 → 참여한’, ‘각 지역에 → 각 지역의’, ‘유적지를 이라는 목적어의 첨가가 그것이다. ‘참여한’의 경우, 이 문장이 ‘지나여름’에 있었던 과거의 일이므로 동사인 ‘참여하다’에 선어말어미 ‘-ㄴ’을 붙여 과거에 행위가 일어났음을 뜻하는 ‘참여한’으로 수정한 것인데 이는 ㉡을 반영한 것이다. 그리고 ‘각 지역에’가 ‘각 지역의’로 바뀌었는데, 이는 ‘각 지역’이 바로 뒤의 체언인 ‘청소년들’을 수식하는 관형어로서 가능하기 때문이다. ‘각 지역’은 서술어를 꾸며 주는 부사어의 기능을 하므로 체언인 ‘청소년들’ 앞에 놓이면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다. 따라서 이는 ㉢을 반영한 것이다. 그리고 ‘답사함으로써’ 앞에 ‘유적지를’이 첨가한 경우인데, 이는 ‘답사하다’라는 동사가 누가 어디를 답사하는지 밝혀 주어야 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므로 수정 전 문장에서는 이러한 목적어가 부당하게 생략되었기 때문에 필

수 성분인 목적어 ‘유적지를’을 첨가하는 것이 옳바르다. 이는 ㉠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수정 후 문장에 반영된 것들은 ㉠, ㉢, ㉣이므로 정답은 ④이다.

15 품사의 기능 및 문장의 종류 이해하기 정답 ②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93%	1%	1%	0%
--------------	----	-----	----	----	----

|해설| 담화 상황을 고려할 때, ㉠의 ‘저기’는 말하는 이나 듣는 이로부터 멀리 있는 곳을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로 쓰인 것이 아니라, 감탄사로서 생각이 잘 나지 않거나 말을 꺼내기 거북할 때에 쓰였으므로 ②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끓다’를 ‘-어지다’라는 피동 표현을 활용하여 ‘끓어진 거’라고 한 것은 전화가 끊긴 상황이 본인의 의지로 일어난 것이 아님을 의미한다. ③ ‘아차’는 감탄사인데, 무엇이 잘못된 것을 갑자기 깨달았을 때 하는 말이다. ④ 어떤 이의 능력 부족이나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나타낼 때에는 ‘못’ 부정 표현을 사용한다. ⑤ ‘자세히 말해 볼래?’는 형식상으로는 의문문이지만 내용상으로는 말해 달라는 요청의 의미를 담고 있다.

[16-19] 독서~인문

지문 분석

「장자(莊子)의 물아일체 사상」

지문 해제 장자의 ‘물아일체’ 사상의 특징과 의미에 대해 언급하면서 두 편의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첫 번째 일화는 온전하게 회복해야 할 ‘참된 자아’를 잊은 것이고, 두 번째 일화는 시비를 따지려 드는 ‘편협한 자아’를 잊은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지에 대해 장자는 만물의 상호 의존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자아와 타자는 서로의 존재를 온전히 전제할 때 자신들의 존재가 드러날 수 있으며, 자아가 세계와 자유롭게 소통하는 합일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자는 이를 위해 타자를 위해 마음의 공간을 비워 두는 수행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주제 장자의 호접몽 이야기에 담긴 물아일체의 진정한 의미

어휘 풀이

- 물아일체 : 외물(外物)과 자아, 객관과 주관, 또는 물질계와 정신계가 어울려 하나가 됨
- 몰입 : 깊이 파고들거나 빠짐
- 맹목적 : 주관이나 원칙이 없이 덩어놓고 행동하는, 또는 그런 것
- 왜곡 :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릇되게 함
- 배경 : 어떤 사상, 의견, 물건 따위를 물리침
- 명경지수 : 맑은 거울과 고요한 물의 의미로 잡념과 가식과 헛된 욕심 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을 뜻함
- 탐닉 : 어떤 일을 몹시 즐겨서 거기에 빠짐

16 중심 화제 파악하기 정답 ②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3%	75%	3%	3%	14%
--------------	----	-----	----	----	-----

|해설| 이 글은 장자의 물아일체 사상을 결론으로 제시하는 호접몽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나를 잊는다’는 것의 의미를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두 편의 일화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의 중심 화제는 ②의 ‘장자의 호접몽 이야기에 담긴 물아일체의 진정한 의미’가 가장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첫 번째 일화를 통해 장자는 바깥 사물에 마음을 통째로 빼앗겨 자신조차 잊어버리는 고도의 몰입을 대상에 사로잡혀 끌려 다니는 꼴에 불과하다며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고도의 몰입을 통한 소통과 합일의 의의’는 중심 화제와 거리가 멀다. ③ 장자의 물아일체 사상의 중심은 자아와 만물의 합일이며, 장자는 이를 위해 끊임없이 타자를 위해 마음의 공간을 비워 두는 수행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정신과 육체의 조화가 아니라 자아와 만물의 합일이 장자가 제시한 수행 방법임을 알 수 있다. ④ 두 번째 일화에서는 분별 작용이 사라진 텅 빈 마음, 즉 명경지수로 비유되는 정적 상태를 유지해야 천지만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정적 상태는 극복해야 할 것이 아니라 추구해야 할 경지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첫 번째 일화를 통해 바깥 사물에 마음을 통째로 빼앗긴 상태는 맹목적 욕망일 뿐이므로 지양해야 함을 알 수 있고, 두 번째 일화를 통해 분별 작용이 사라진 텅 빈 마음인 정적 상태에서는 천지만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태를 지향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의 두 가지 상태를 서로 모자란 부분을 보충하는 상보적 관계로는 볼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7 내용의 적절성 추론하기

정답 ②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81%	3%	4%	7%
--------------	----	-----	----	----	----

해설 『장자』의 ‘나를 잊는다’는 구절이 나오는 일화 두 편 중 첫 번째 일화에서 장자는 바깥 사물에 마음을 통째로 빼앗겨 자신조차 잊어버리는 고도의 몰입을 대상에 사로잡혀 끌려 다니는 꼴에 불과한 것으로 보았다. 장자는 이러한 마음은 맹목적 욕망일 뿐이어서 감각적 체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에게 이름다거나 좋다고 생각하는 것만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배격하게 됨을 경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참된 자아가 세계와 관계를 맺으면서 감각적 체험을 배제해야 한다고 추론한 ②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두 번째 일화에서 언급된 ‘볼 꺼진 재’와 같은 마음은 불꽃처럼 마음속에 치솟던 분별 작용이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이는 텅 빈 마음이 되었다는 것인데, 이런 고요한 마음을 유지해야 천지만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볼 꺼진 재와 같은 마음의 소유자는 만물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첫 번째 일화에서 언급된 내용의 핵심은 바깥 사물에 마음을 통째로 빼앗겨 자신조차 잊어버려 감각적 체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에게 이름되거나 좋다고 생각하는 것만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배격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온전하게 회복해야 할 ‘참된 자아’를 잊은 것이라 할 수 있다. ④ 두 번째 일화의 핵심은 세상을 기웃거리면서 시비를 따지려 드는 ‘편협한 자아’를 잊은 것인데, 장자는 이를 통해 편견과 이집의 상태에서 벗어나 세계와 자유롭게 소통하는 합일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장자는 이러한 경지를 만물의 상호 의존성으로 설명하면서 자아와 타자는 서로의 존재를 온전히 전제할 때 자신들의 존재가 드러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편협한 자아를 잊는 것은 타자와의 상호 의존적 관계 형성을 위한 바탕이 된다고 할 수 있다. ⑤ 장자가 꿈속에서 나비가 되어 자신조차 잊은 채 자유롭게 날 수 있었던 것은 나비를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특히 마음속에 치솟던 분별 작용이 사라진 텅 빈 마음의 정적 상태는 천지만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고요한 마음 상태를 의미하므로 장자가 꿈속에서 나비가 되어 자신조차 잊었다는 것은 마음이 명경지수의 상태였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18 관점의 적절성 평가하기

정답 ③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3%	87%	3%	2%
--------------	----	----	-----	----	----

해설 <보기>에 나타난 순자 사상의 핵심은 자연과 인간을 구별하면서 인간 우위의 문명 건설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자아와 세계의 모든 존재와 온전하게 일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장자의 관점에 배치되는 것으로 순자는 장자의 관점으로 인간 사회의 제도적 질서를 세울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러한 순자의 입장에서 장자 사상을 비판할 경우, 만물과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맺는 것은 만물을 이끌고 길러 주는 바탕이 된다고 진술한 ③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③은 편견과 이집의 상태에서 벗어나 세계와 자유롭게 소통하는 합일의 경지를 만물의 상호 의존성으로 설명하고 있는 장자 사상과 일치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오답풀이 ① <보기>에서 순자는 인간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과 인간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장자의 관점이라 할 수 있는 타자를 위해 마음의 공간을 비워 두는 형태의 수행은 현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이끌어 낼 수 있다. ② <보기>의 순자는 자연 세계와 온전하게 합일하는 것으로는 인간 사회의 제도적 질서를 세울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자아를 잊고 만물과 소통하는 것으로는 인간 사회의 제도를 세울 수 없다는 비판을 이끌어 낼 수 있다. ④ <보기>의 순자는 자연과 인간을 구별하면서 인간 우위의 문명 건설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편협한 자아를 잊고 마음속의 분별 작용이 사라져야 천지 만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장자 사상은 인간 우위의 문명 건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이끌어 낼 수 있다. ⑤ <보기>의 순자는 인간이 만물의 변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만물을 이끌고 길러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인간과 인간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세계의 존재와 일체를 이루는 자아에 도달한다고 해서 만물의 변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는 비판을 이끌어 낼 수 있다.

19 어휘 바뀐 쓰기의 적절성 판단하기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12%	1%	5%	77%	3%
--------------	-----	----	----	-----	----

해설 ‘출현(出現)하다’는 ‘나타나거나 또는 나타나서 보인다.’라는 의미로서 대체로 시각적인 대상을 언급할 때 사용할 수 있다. ㉔의 ‘드러나다’는 ‘가려 있거나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다.’라는 의미인데, 문맥을 고려할 때 ‘드러나다’는 ‘속에 있거나 숨은 것이 밖으로 나타나다.’라는 의미인 ‘발현(發顯)하다’와 바뀐 쓰기가 적절하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오답풀이 ① 미혹(迷惑)되다 : ‘무엇에 홀려 정신이 차려지지 못하다.’라는 의미이다. ② 수용(受容)하다 : ‘어떠한 것을 받아들이다.’라는 의미이다. ③ 탈피(脫皮)하다 : ‘일정한 상태나 처지에서 완전히 벗어나다.’라는 의미이다. ⑤ 초월(超越)하다 : ‘어떠한 한계나 표준을 뛰어넘다.’라는 의미이다.

[20-23] 독서~사회

지문 분석

『올리히 벡과 지그문트 바우만의 현대 사회론』

지문 해제 산업화에 따라 사회가 분화되고 개인이 공동체적 유대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개체화 현상에 대한 벡과 바우만의 관점을 소개한 글이다. 자본주의적 산업화 이래로 사회 분화와 개체화가 지속되어 왔는데, 20세기 중반 이후 세계화를 계기로 개체화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두 학자는 인식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현대의 위기와 관련하여 개체화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관점은 차이가 있는데, 벡은 현대인들이 개체화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전 지구적 위험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초계급적, 초국가적으로 연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한편 바우만은 개체화된 개인들이 삶의 불확실성 속에서 생존을 모색하게 된 현대를 ‘액체 시대’로 정의하였는데, 개체화된 개인들이 개인 수준에서 위험에 대처해야 하는 상황으로 인해 소극적 자기 방어에 몰두하게 되면서 현대에 닥친 문제의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주제 현대의 개체화 현상과 벡과 바우만의 관점

어휘 풀이

- 개체 : 전체나 집단에 상대하여 하나하나의 날개를 이르는 말
- 모색 : 일이나 사건 따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실마리를 더듬어 찾음
- 잉여 : 쓰고 난 후 남은 것
- 내면화 : 정신적·심리적으로 깊이 마음속에 자리 잡힘. 또는 그렇게 되게 함

20 논지 전개 방식 이해하기

정답 ③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3%	2%	88%	1%	4%
--------------	----	----	-----	----	----

해설 이 글은 개인이 공동체적 유대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개체화 현상을 바라보는 두 학자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20세기 중반 이후 세계화를 계기로 개체화 현상은 과거와는 질적으로 달라진 양상을 보여 주고 있는데, 교통과 통신 수단의 발달에 따라 자본과 노동의 이동이 가속화되었고, 개인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도 현저하게 약화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노동 시장의 유연화 경향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분절화된 노동자들이 더 이상 계급적 연대 속에서 이해관계를 공유하지 못하게 되었다. 또한 핵가족화 추세에 더하여 일인 가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증 가족의 해체 현상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벡과 바우만은 이러한 개체화 현상이 점점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공통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벡의 경우 현대의 위기가 개체화와는 별개의 현상이라고 보며, 개체화된 개인이 초계급적, 초국가적으로 연대하여 위기에 대응할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한편 바우만은 개체화 현상 자체를 위험 요인으로 보며, 개체화된 개인들이 위험에 대한 공포로 인해 소극적 자기 방어에 몰두하게 되면서 개체화가 현대 사회의 위기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글의 논지 전개 방식은 개체화 현상에 대한 두 견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③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2문단에서 20세기 중반 이후부터 세계화를 계기로 과거와는 질적으로 달라진 개체화 양상을 언급하고 있지만, 하나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개체화 현상에 대한 통념, 즉 일반적으로 널리 통하는 개념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통념을 비판하며 개념을 새롭게 규정하지도 않았으므로 거리가 멀다. ④ 개체화 현상에 대한 두 학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한 글이지, 개체화 현상의 역사적 기원에 대한 다양한 가설들은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개체화 현상이란 ‘산업화에 따라 사회가 분화되고 개인이 공동체적 유대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현상’이라고 정의하고 있지만, 이를 바탕으로 유사한 사회적 개념들을 비교하고 있지 않으므로 거리가 멀다.

21 추론의 적절성 평가하기

정답 ②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89%	3%	2%	2%
--------------	----	-----	----	----	----

해설 현대의 개체화 현상은 20세기 중반 이후부터 세계화를 계기로 과거와는 질적으로 달라진 양상을 보여 주고 있는데, 특히 2문단의 ‘개인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도 현저하게 약화되고 있다.’를 고려할 때, ②와 같이 국가의 통제력 강화를 통해 개인의 자율성 약화를 초래한다고 추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2문단을 통해 알 수 있다. 현대의 개체화 현상은 전 세계적인 노동 시장의 유연화 경향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분절화된 노동자들이 계급적 연대 속에서 이해관계를 공유하지 못하게 한다는 언급을 확인할 수 있다. ③ 2문단의 내용 중, 현대의 개체화 현상은 핵가족화 추세에 더하여 일인 가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가족 해체 현상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언급을 확인할 수 있다. ④ 3문단을 통해 추론할 수 있다. 벡은 현대인들이 개체화되어 있다는 조건이 현대인에게 닥친 위기 상황에 초계급적, 초국가적으로 대응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⑤

4문단을 통해 추론할 수 있다. 바우만은 개체화된 개인들이 현대의 위기에 개인 수준에서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 빠져 버렸고, 이로 인해 소극적 자기 방어에 몰두하게 되면서 서로 연대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언급하였다.

22 세부 정보 파악하기 정답 ③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1%	85%	5%	4%
--------------	----	----	-----	----	----

해설 | 현대의 위기와 관련해서 백과 바우만이 개체화를 바라보는 시각은 차이가 있다. 백은 현대의 위기가 과학 기술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난 핵무기와 원전 누출 사고, 환경 재난 등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있음에도 삶의 편의와 풍요를 위해 방치함으로써 위험이 항시 존재하게 된 현대 사회를 '위험 사회'라 본 것이다. 그런데 백은 이러한 '위험 사회'에서는 전 지구적 위험에 의한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초계급적, 초국가적으로 연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①의 '위험 사회'는 인간관계의 유연한 확장 가능성을 비판적이 아닌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는 개념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바우만은 개체화된 개인들이 삶의 불확실성 속에서 생존을 모색하게 된 현대 사회를 '액체 시대'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②의 '액체 시대'는 개체화된 개인들이 현대의 위험에 대해 소극적 자기 방어에 몰두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기 때문에 인간관계의 유연한 확장 가능성을 비판적인 측면에서 보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③이다.

오답풀이 | ① ①의 '위험 사회'라는 개념은 과학 기술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난 핵무기와 원전 누출 사고, 환경 재난 등 과거와는 달리 현대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에 주목하여 이끌어 냈다. ② ②의 '액체 시대'는 개체화된 개인들이 삶의 불확실성 속에서 살고 있음에 주목하여, 가변적이고 유동적인 액체의 성격으로부터 이끌어 냈다. ④ 현대의 개체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데에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는 백과 바우만은 예측 불가능한 재난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여 현대를 '위험 사회'와 '액체 시대'로 규정하고 있다. ⑤ '위험 사회'와 '액체 시대'는 현대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위험이 특정한 공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음을 내포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23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하기 정답 ①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94%	1%	1%	1%	2%
--------------	-----	----	----	----	----

해설 | ③ '방치(放置)'의 사전적 의미는 '내버려 둠'이다. '쫓아내거나 몰아냄'을 의미하는 어휘는 '축출(逐出)'이므로 ①은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 ② 연대(連帶) : 여럿이 함께 무슨 일을 하거나 함께 책임을 짐 ③ 표출(表出) : 겉으로 나타냄 ④ 전락(轉落) : 나쁜 상태나 타락한 상태에 빠짐 ⑤ 몰두(沒頭) : 어떤 일에 온 정신을 다 기울여 열중함

[24-26] 독서~과학

지문 분석

「원자 모형에 대한 탐구」

지문 해제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전자, 양성자, 중성자의 특징과 원자 모형에 대한 시대적 추이에 대해 설명한 글이다. 과거에는 물질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작은 원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했지만, 오늘날에는 원자가 전자, 양성자, 중성자로 구성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1897년에 톰슨이 기체 방전관 실험을 통해 음전기를 띠고 있는 전자를 가장 처음 발견하였으며, 이후 1898년 퀴리가 라듐을 발견한 이후 1911년 러더퍼드가 알파 입자를 금박에 충돌하는 실험을 통해 양전기를 띤 물질이 원자핵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리고 1919년 러더퍼드는 질소 원자의 충돌 실험을 통해 원자핵 속의 양성자의 존재를 확인하였으며, 전기를 띠지 않는 중성자의 존재를 예측하였다. 1932년 채드윅이 중성자를 발견하였고, 1935년 유카와 히데키는 원자핵 속에는 서로 밀어내려는 양성자와 이를 잡아당기는 중성자가 존재한다는 가설을 제안하였는데, 그의 제안을 활용하여 양성자들이 흩어지지 않고 핵 안에 모여 있음을 설명할 수 있었다.

주제 원자의 구성 요소와 원자 모형에 대한 이해

어휘 풀이

- 방사성 : 물질이 방사능을 가진 성질
- 스펙트럼 : 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 따위가 분광기로 분해되었을 때의 성분
- 핵력 : 양성자와 중성자를 결합하여 원자핵을 이루고 있는 힘. 중간자로 매개되는 특수한 힘이다.
- 속박 : 어떤 행위나 권리의 행사를 자유로이 하지 못하도록 강압적으로 얽매거나 제한함

24 세부 정보 확인하기 정답 ②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8%	69%	6%	7%	8%
--------------	----	-----	----	----	----

해설 | 원자를 구성하는 전자, 양성자, 중성자의 특징에 대해 언급하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여러 과학자들이 내놓은 연구와 가설 등을 통해 설명이 가능해지는 원자 모형에 대해 소개한 글이다. 그런데 이 글을 통해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들의 특징과 그 입자들이 어떻게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지만,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들인 '전자, 양성자, 중성자'의 내부 구조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②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 ① 3문단의 '양성자는 전자보다 대략 2,000배 무겁다'는 언급과 4문단의 '1932년에 채드윅은 전기적으로 중성이며 질량이 양성자와 비슷한 입자인 중성자를 발견하였다.'를 통해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의 질량이 비교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2문단의 '같은 음전기를 띠고 있는 전자', 3문단의 '양전기를 띠고 있는 양성자', 4문단의 '핵 속에 전기를 띠지 않는 입자인 중성자'를 통해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들의 전기적 성질을 알 수 있다. ④ 이 글에서는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들이 발견된 순서를 제시하고 있는데, 전자는 1897년에 톰슨에 의해, 양성자는 1919년에 러더퍼드에 의해, 중성자는 1932년에 채드윅에 의해 발견되었다고 언급하였다. ⑤ 3문단에서 러더퍼드가 실험을 통해 양전기를 띤 원자핵이 전자를 잡아당겨 공전시킨다는 태양계 모형을 제안한 것, 4문단에서 유카와 히데키가 중성자가 중간자라는 입자를 통해 핵력이 작용하게 하여 양성자를 잡아당긴다는 가설을 제안하였다는 내용 및 여러 개의 양성자들을 가진 원자에서는 같은 양전기를 띠고 있는 양성자들이 서로 밀어내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5 핵심 정보 파악하기 정답 ①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91%	2%	3%	1%	1%
--------------	-----	----	----	----	----

해설 | 1898년 마리 퀴리가 천연 광물에서 라듐을 발견하였는데, 라듐은 강한 방사성 물질이어서 양전기를 띤 알파 입자를 큰 에너지로 방출하는 특징을 지녔다. 1911년 러더퍼드는 라듐에서 방출되는 알파 입자를 얇은 금박에 충돌시키는 실험을 통해 양전기가 아주 좁은 구역에 모여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 구역을 '원자핵'이라 하였다. 따라서 라듐이 발견됨으로써 원자핵을 발견하는 실험을 할 수 있었다는 ①은 적절한 진술임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 ② 유카와 히데키의 가설이 제안된 시기는 1935년이며, 러더퍼드가 질소 충돌 실험을 통해 양성자를 확인한 시기는 1919년이므로 질소 충돌 실험에서 양성자가 발견됨으로써 유카와 히데키의 가설이 입증되었다는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 참고로 유카와 히데키의 가설은 핵 속에서 반발력을 가지는 양성자들이 흩어지지 않고 모여 있는 사실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가설이다. ③ 양성자가 핵 안에서 흩어지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을 제안한 학자는 유카와 히데키이다. 채드윅은 전기적으로 중성이며 질량이 양성자와 비슷한 입자인 중성자를 발견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19세기 말 전자가 발견되면서 톰슨이 '건포도빵 모형'을 제시하였고, 이후 20세기 초 원자가 발견되면서 '태양계 모형'으로 수정되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1911년 러더퍼드는 라듐에서 방출되는 알파 입자를 얇은 금박에 충돌시키는 실험을 하였는데, 이 실험을 통해 양전기가 원자 전체에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좁은 구역에만 모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양전기가 원자 전체에 퍼져 있음이 입증되었다는 진술은 내용에 어긋난다.

26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정답 ①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92%	1%	1%	3%	0%
--------------	-----	----	----	----	----

해설 | ①의 '고르다'는 문맥상 형용사로 사용되었는데, '여럿이 다 높낮이, 크기, 양 따위의 차이가 없이 한결같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①의 '그 식물은 전국에 고 큰 분포를 보인다.'의 '고르다'가 이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 ② '국어사전에서 적당한 단어를 골라야 한다.'의 '고르다'는 동사로 사용되었는데, '여럿 중에서 가려내거나 뽑다'의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③ '그는 목소리를 고르며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에서 '고르다'는 동사로 사용되었는데, '목소리 또는 붓이나 악기의 줄 따위가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다듬거나 손질하다'의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④ '울퉁불퉁한 곳을 호로 메워 편안하게 골랐다.'에서 '고르다'는 동사로 사용되었는데, '울퉁불퉁한 것을 평평하게 하거나 들쭉날쭉한 것을 가지런하게 하다'의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⑤ '날씨가 고르지 못한 환절기에 아이가 감기에 들었다.'에서 '고르다'는 형용사로 사용되었는데, '상태가 정상적으로 순조롭다'의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27-30] 독서·사회

지문 분석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

지문 해제 사회 구성원들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할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금전적 제재 수단에 대해 설명한 글이다. 금전적 제재 수단에는 피해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민사적 수단인 손해 배상, 가해자의 징벌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적 수단인 벌금, 법 위반 상태의 시정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적 수단인 과징금이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해 손해 배상과 벌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드물고, 과징금 같은 행정적 수단의 강도를 높임으로써 불법 행위를 억제하고 있는데, 적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불법 행위의 경우에는 과징금을 올리는 방법으로 억제력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과 과징금은 피해자가 아니라 국가에 귀속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가 요구되는데, 이 제도는 피해자가 피해자의 손해 배상에다가 가해자에 대한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을 더하여 배상받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특징과 이 제도에 대한 찬반양론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주제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특징과 이해

어휘 풀이

- 감행 : 과감하게 실행함
- 시정 : 잘못된 것을 바로잡음
- 담합 : 서로 의논하여 합의함
- 적발 : 숨겨져 있는 일이나 드러나지 아니한 것을 들추어냄
- 가미 : 본래의 것에 다른 요소를 보태어 넣음
- 부과 : 세금이나 부담금 따위를 매기어 부담하게 함

27 세부 내용 파악하기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1%	3%	2%	87%	4%
--------------	----	----	----	-----	----

해설 이 글은 적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불법 행위에 대해 억제력을 높이면서도 손해 배상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인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를 중시 화제로 삼고 있다. 이 제도에 대한 반대론자들은 반대의 이유로 징벌적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이 피해자에게 부여되는 횡재라고 보는 점과 배상금이 벌금과 함께 부과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중복 제재가 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 따라서 이를 문제점으로 파악할 수 있지만, 도입 사례는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④는 이 글에서 다른 내용으로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 4문단의 ‘이 제도는 불법 행위의 피해자가 손해액에 해당하는 배상금에다가 가해자에 대한 징벌의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을 더하여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는 내용을 통해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내용을 알 수 있다. ② 5문단에서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에 대한 찬반 논쟁 양상을 언급하고 있다. ③ 2문단에서 불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인 제재 수단으로는 민사적 수단인 손해 배상, 형사적 수단인 벌금, 행정적 수단인 과징금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⑤ 3문단의 ‘그러나 적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불법 행위의 경우에는 과징금을 올리는 방법만으로는 억제력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내용을 통해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도입이 요구되는 배경을 확인할 수 있다.

28 내용 추론의 적절성 파악하기

정답 ⑤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1%	1%	2%	4%	88%
--------------	----	----	----	----	-----

해설 3문단의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해 손해 배상 소송이 제기되거나 벌금이 부과되는 사례는 드물어서, 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 수단이 억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내용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불법 행위를 과징금보다 벌금으로 제재하는 사례가 많다.’는 ⑤는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2문단에서 불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 수단으로서 ‘행정적 수단인 과징금이 있다’는 언급을 확인할 수 있다. ② 2문단의 ‘예를 들어 기업들이 담합하여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가 적발될 경우, 그 기업들은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당하거나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고 행정 기관으로부터 과징금도 부과 받을 수 있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2문단에서 불법 행위에 대

한 금전적 제재 수단의 하나로 민사적 수단인 손해 배상이 있음을 언급하였으며, 손해 배상은 ‘피해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2문단의 ‘하나의 불법 행위에 대해 세 가지 금전적 제재가 내려질 수 있지만 제재의 목적이 서로 다르므로 중복 제재는 아니라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라는 언급을 통해 하나의 불법 행위에 대해 두 가지 이상의 금전적 제재가 내려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9 정보 간의 의미 관계 파악하기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3%	1%	2%	83%	9%
--------------	----	----	----	-----	----

해설 2문단의 ‘불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 수단에는 민사적 수단인 손해 배상, 형사적 수단인 벌금, 행정적 수단인 과징금이 있으며, 이들은 각각 피해자의 구제, 가해자의 징벌, 법 위반 상태의 시정을 목적으로 한다.’를 고려할 때, ㉠은 행정적 제재 수단의 성격이 아닌 형사적 제재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④이다.

오답풀이 ① ㉡이 포함된 문장인 ‘피해자에게 귀속되는 손해 배상금과는 달리 벌금과 과징금은 국가에 귀속되므로 과징금을 올려도 피해자에게는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를 고려할 때, 벌금과 과징금은 피해자가 직접 배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의 ‘직접적인 도움’은 피해자가 금전적으로 구제 받는 것을 의미한다. ② ㉢이 포함된 문장에서는 일반적인 손해 배상 제도에서는 피해자가 손해액을 초과하여 배상받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의 ‘그것’은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를 가리키므로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는 피해자가 손해액을 초과하여 배상받는 것을 가리킨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③ ㉤ 바로 앞의 내용이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에 대한 설명이고, ㉥의 ‘이 제도’의 ‘이’는 지시 관형사로서 바로 앞에 나오는 대상을 가리킬 때 사용한다는 점에서 ㉥이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를 가리킨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⑤ ㉦ 바로 앞의 내용에서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언급하고 있는데, 가해자에 대한 징벌의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은 반대론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피해자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배상금을 받는 것이므로 ‘뜻밖의 재물을 얻게 된다.’는 횡재의 의미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배상금 전체에서 손해액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30 추론의 적절성 평가하기

정답 ①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88%	2%	2%	2%	3%
--------------	-----	----	----	----	----

해설 4문단의 ‘이 제도는 불법 행위의 피해자가 손해액에 해당하는 배상금에다가 가해자에 대한 징벌의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을 더하여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내용과 <보기>의 ‘이 규정에 따르면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자기의 기술 자료를 유용당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그 손해의 3배까지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받게 되는 배상금이 국가에 귀속된다고 이해한 ①은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② 3문단에서 ‘적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불법 행위의 경우에는 과징금을 올리는 방법만으로는 불법 행위의 억제력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밝히면서, 적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불법 행위에 대해 억제력을 높이면서도 손해 배상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를 제시하고 있다. ③ 4문단의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는 ‘불법 행위의 피해자가 손해액에 해당하는 배상금에다가 가해자에 대한 징벌의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을 더하여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언급을 통해 알 수 있다. ④ 현행법상 불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 수단으로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경우 민사적 수단인 손해 배상만 받을 수 있다는 것과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가 도입되면 손해 배상에다가 징벌의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을 더하여 배상받을 수 있다는 언급을 통해 알 수 있다. ⑤ 적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불법 행위의 경우에는 과징금을 올리는 방법만으로는 불법 행위의 억제력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적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불법 행위에 대해 억제력을 높이면서도 손해 배상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는 방안이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임을 고려할 때, <보기>의 규정은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 자료 유용은 적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불법 행위에 해당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31-33] 문학~고전 시가

지문 분석

(가) 작자 미상 「어이 못 오던다~」

작품 감상 입을 기다리는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과 오랫동안 자신을 찾아오지 않는 입에 대한 원망의 심정을 '성, 담, 집, 뒤주, 껌, 외걸새, 자물쇠' 등의 장애물들을 나열하여 입을 향한 그리움을 재치 있게 노래하고 있다.

주제 오지 않는 입을 기다리는 간절함과 안타까움

시구 풀이

- 오던다 : 오던가(의문형)
- 성(城)을 쌓고 : 장애물을 쌓고
- 안에란 : 안에는
- 결박하여 놓고 : 묶어 놓고
- 수기수기 : 깊이깊이
- 날 보라 올 하루 : 날 보러 올 하루

(나) 작자 미상 「청천에 떠서~」

작품 감상 입의 소식을 그리워하는 화자가 기러기를 청자로 삼아 자신의 소식을 입에게 전해 주고, 입의 소식을 자신에게 전해 달라고 부탁하는 대화체로 이루어진 작품이다. 기러기를 의인화하여 화자의 애절한 그리움을 효과적으로 노래하고 있는데, 화자의 이러한 기대는 종장에서의 외기러기의 말로 무산되면서 사설시조 특유의 해학성을 보이고 있다.

주제 입에 대한 그리움과 외로움

시구 풀이

- 청천(靑天) : 드높고 광활한 공간
- 외기러기 : 화자가 말을 건네는 대상. 화자의 처지를 형상화하는 객관적 상관물
- 부디 : 화자의 간절한 심정
- 월항흔 계워 갈 제 : 달 뜬 저녁이 깊어 갈 때
- 적막 공규(空闌) : 오랫동안 남편 없이 아내 혼자 쓸쓸하고 외롭게 사는 방

(다) 작자 미상 「정선 아리랑」

작품 감상 강원도 정선에서 불려지는 '아리랑'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정선 아리랑'은 긴 아리랑으로 세 가지 아리랑 중 가장 폭 넓게 불려진다. 노랫말의 내용은 남녀의 사랑, 연정, 이별, 신세 한탄, 시대상, 세태의 풍자 등이 주를 이룬다. 제시된 부분에서도 남녀의 사랑이 잘 나타나 있는데, 처녀는 날마다 싸리골 동백을 따라 간다는 핑계로 총각에게 가서 정을 나누었다. 그러던 중 여름 장마로 홍수가 저 물을 못 건너가게 되자 총각을 만날 수 없게 된 처녀가 이를 원망하여 부른 노래이다.

주제 입에 대한 그리움

시구 풀이

- 민동산 고비 고사리 다 늙었지마는 : 나무가 없는 민동산의 고비와 고사리와 같은 식물들도 다 늙어가지마는
- 그대는 늙지 마세요 : 자연의 섭리에 영향을 받지 않기를 기원하는 입에 대한 화자의 애정이 드러남

31 표현상의 특징 파악하기

정답 ③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3%	1%	88%	2%	4%
--------------	----	----	-----	----	----

해설 | (나)는 의인화된 자연물인 '외기러기'에 의탁하여 입을 그리며 애타는 심정과 독수공방하는 외로움을 대화체로 노래한 작품인데, '외기러기'는 입과 이별한 후 홀로 지내는 화자의 처지를 형상화한 것이다. 화자는 '외기러기'를 통해 소식조차 없는 입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해 줌으로써 입의 무심함을 깨우쳐 사랑을 되돌리고 싶은 욕구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오답풀이 | ① (가)는 오지 않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원망조로 노래하고 있는 작품인데, 종장의 '날 보라 올 하루 업스라'는 '날 보러 올 하루가 없겠는가?'라는 의미로 설의적 표현이다. 여기서 '하루'라는 짧은 시간이 없느냐는 물음은 단순히 시간의 짧음에 대한 안타까움이 아니라 오지 않는 입에 대한 야속함과 원망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② (가)는 입에 대해 묻는 형식을 통해서 입이 화자가 처한 문제 상황을 해소하여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화자가 처한 상

황에 대해 화자 자신이 자책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④ (나)의 화자는 외기러기에게 자신의 소식을 전하려 하는 것이지, 제삼자와 함께 입과의 추억을 회상하는 것은 아니다. ⑤ (가)에 제시된 공간인 '성, 담, 집, 뒤주, 껌' 등은 입이 거주하는 공간이 아니라 가상적으로 설정한 공간이며, (나)에서 입이 있는 곳으로 제시된 공간인 '한양성'은 그 공간적 특징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32 감상의 적절성 평가하기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1%	1%	1%	89%	4%
--------------	----	----	----	-----	----

해설 | [D]에서는 변함없이 돌아오는 해와 달을, 한 번 가고 돌아오지 않는 입과 대조하여, 화자가 처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입이 떠난 것 자연의 순환적 질서에 따른 것이므로 돌아오지 않는 것도 그 질서에 따른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오답풀이 | ① [A] 고비나 고사리와 같이 만물이 늙는 것은 자연의 섭리인데, 자연의 섭리와 다르게 입이 늙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내는 것은 입에 대한 애정을 나타낸 것이라 볼 수 있다. ② [B] 입이 떠나는 것을 해가 지는 것에 빗대어, 자신을 두고 가는 입의 마음을 이해하고자 하는 태도를 엿볼 수 있다. ③ [C] 동생이 묻고 언니가 답하는 방식으로 시집살이의 어려움을 변화를 통해 드러냄으로써 고단한 여성의 삶을 표현하고 있다. ⑤ [E] 입이 화자처럼 상대를 생각해 주지 않음을 드러내고 있는데, 입이 오지 않는 것은 입에게 자신만큼의 사랑이 없기 때문일 것이라 하여 서운함을 표현하고 있다.

33 시상 전개 방식 이해하기

정답 ②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86%	4%	2%	3%
--------------	----	-----	----	----	----

해설 | '한양성 내에 잠깐 들러'는 화자가 기러기에게 소망하는 내용에 해당하고, '적막 공규에 던져진 듯 홀로 안저'는 시적 화자가 처해진 상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둘의 관계를 시간의 순차적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된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오답풀이 | ① (가)에서는 '무쇠 → 성 → 담 → 집 → 뒤주 → 껌'와 같이 사물을 연쇄적으로 나열하여 오지 않는 입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③ (가)에서는 '집, 뒤주, 껌' 등 집과 가구들이, (나)에서는 '고비, 고사리' 등 식재료로 이용하던 식물들이 시어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는 생활에 밀접한 사물을 이용하여 시적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④ (가)의 '어이 못 오던다' 무슨 일로 못 오던다'와 (다)의 '성님 성님 사촌 성님'은 각각 '못 오던다'와 '성님'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⑤ (나)의 '전혀 주렴'은 외기러기를, (다)의 '건네 주게'는 뱃사공을 청자로 설정하여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을 이어가고 있다.

[34-36] 문학~현대 소설

지문 분석

최일남 「흐르는 북」

작품 감상 이 작품은 '북'으로 표상되는 본원적 삶을 추구하는 할아버지 세대와 실리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아버지 세대의 갈등이 아들 세대에서도 융합된다는 의미를 가진다. 단순한 가족사적 아픔이 아닌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각 세대의 상이한 가치관을 보여 주며, 나아가 각 세대 간의 갈등이 단절을 통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아픔을 함께 나누며 나아가는 화해를 통해 극복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 이것은 작품의 제목인 '흐르는 북'을 통해 상징적으로 처리되고 있는데, 표면적으로는 단절된 듯 보이는 세대라 할지라도 내면적으로는 역사적, 사회적 상황과 고통을 공유하고 이를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주제 예술혼과 인간의 본원적인 삶 / 세대 간의 갈등과 화합 모색

어휘 풀이

- 다잡다 : 다그쳐 단단히 잡다.
- 힐난 : 트집을 잡아 거북할 만큼 따지고 들
- 작파하다 : 어떤 계획이나 일을 중도에서 그만두어 버리다.
- 물리다 : 다시 대하기 싫을 만큼 몹시 싫증이 나다.

34 사건의 전개 양상 파악하기

정답 ⑤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4%	2%	1%	8%	83%
--------------	----	----	----	----	-----

해설 | ㉠의 “또박또박 말대답하는 것 좀 봐.”는 ㉡의 바로 앞에서 아버지와 갈등을 빚은 성규가 아버지에게 뺨을 맞자 연이어 나온 성규 어머니의 말이다. 성규 어머니는 성규가 아버지의 말에 수긍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하자, 이를 ‘또박또박 말대답’하는 것으로 보고 성규에게 핀잔을 준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성규 어머니의 발화를 통해 아버지와 성규 사이의 갈등이 발생한 근본적 원인을 보여 주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사건의 전개 양상을 살펴볼 때, 갈등의 근본적 원인은 성규가 아버지에게 ‘또박또박 말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노인의 삶에 대한 성규와 아버지의 가치관 차이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⑤이다.

오답풀이 | ① ㉠은 특정 인물인 민노인의 시선을 통한 장면 제시인데, 민노인은 ‘아들 옆에서 입을 꼭 다물고 있는 며느리가 아들보다 오히려 더 많은 힐난을 내시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인물의 시선을 통해 다른 인물의 심리를 해석하여 보여 준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② ㉠의 앞부분에서는 민노인의 과거 행적을 ‘허랑방방한 한평생’으로 제시하는 한편 입신양명하 아들의 내력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을 통해 민노인의 행적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과거 민노인이 ‘아내와 자식을 모른 채한’ 것으로 서술된 것으로 보아 민노인과 성규 아버지의 갈등을 짐작할 수 있다. ③ ㉡은 민노인의 아내가 살아 있을 때는 아내가 바람막이 역할을 해 주었지만, 현재는 외톨이로 남아 아들 내외의 힐난을 받아야 하는 민노인의 처지를 말해 주고 있다. 따라서 현재와 과거의 상황을 대비한 인물의 처지가 잘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④ ㉡의 “기특하구나.”는 성규 아버지의 말인데, ㉠ 바로 앞에서 성규는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관계를 이해하지만 그 논리를 그대로 자신과 연결시키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아버지와 할아버지 모두를 이해한다는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아버지는 “기특하구나.”라는 반어적 표현으로 성규의 말을 비꼬고 있는 것이다.

35 구절의 의미 파악하기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3%	4%	1%	79%	11%
--------------	----	----	----	-----	-----

해설 | ‘생활인의 감각’은 ‘성규’가 ‘아버지’의 태도를 평가한 것이다. ‘성규’의 아버지가 현실에 집착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생활인의 감각’ 바로 앞부분에 언급된 ‘노상 이기적인 현실에의 집착’인데, 이 부분에서 ‘성규’는 ‘민노인’에 대한 ‘아버지’의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생활인의 감각’이라며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오답풀이 | ① ‘세련된 입신’은 ‘성규’의 아버지가 과거 ‘민노인’의 보살핌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성공한 삶을 의미한다. 따라서 ‘민노인’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날씬한 생활’은 ‘성규’ 아버지의 생활을 의미하는데, 이는 새로운 세대인 ‘성규’가 지향하는 삶에 대한 ‘아버지’의 비판적 시선이 아니라 ‘아버지’가 지향하는 삶에 대한 서술자 또는 ‘민노인’의 비판적 시선으로 볼 수 있다. ③ ‘역사의 의미’는 앞 세대의 갈등이 다음 세대와는 화해하는 방식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한 ‘성규’의 긍정적인 판단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성규’의 두려움과는 관련이 없다. ⑤ ‘북으로 상징되는 할아버지의 삶을 놓고, 아버지와 제가 감정적으로 갈라서는 걸 비극의 차원에서 파악할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를 살펴볼 때, ‘비극의 차원’은 ‘민노인’과 ‘아버지’가 감정적으로 갈라선 상황에 대한 ‘성규’의 판단이 아니라, ‘성규’와 ‘아버지’ 사이의 갈등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36 인물의 성격 및 태도 파악하기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2%	7%	81%	6%
--------------	----	----	----	-----	----

해설 | ‘성규’가 ‘민노인’에게서 예술적 재능을 인정받으려 한 것을 제시된 글에서 찾을 수 없으며, ‘성규’가 아버지와 ‘민노인’ 간의 화해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장면 또한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④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 ① ‘성규’의 아버지는 ‘민노인’의 예술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는 예술에 대한 가치관을 두 사람이 공유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② ‘성규’가 자신의 아버지와 소통하기 어려운 까닭은 ‘민노인’에 대한 두 사람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다. ③ ‘민노인’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자신의 삶만 추구했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에게서 예술가로서의 삶을 이해받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⑤ ‘그 북을 통해 자기의 면목이나 위치를 빈정대기 위해서 그러한 것임을 왜 모르냐고’에서 알 수 있듯이 ‘성규’의 아버지는 예술가로서의 ‘민노인’의 삶이 자기 체면을 판단이 우그러뜨리는 것으로 느꼈기 때문에 ‘민노인’이 평범한 노인으로 살기를 바라고 있다. 이는 사회적 관계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데 예술가로서의 ‘민노인’의 삶이 방해가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Plus Tip

♣ 선생님 말씀 ♣

☞ <작중 인물 분석>

- 민노인 : 평생을 북을 치며 살아온 예인(藝人)으로서 가족을 버리고 방랑하다가 아들 집에 얹혀사는 노인
- 민대찬(아들) : 홀로 고학해야 했던 불행한 과거에 집착하여 아버지 민노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중년 사내. 세속적 가치관에 충실
- 성규 : 민노인의 손자. 할아버지의 광대적 삶을 이해하려는 대학생.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갈등을 화해시키려 노력하는 인물. 할아버지의 삶에서 긍정적인 가치를 찾을 줄 아는 인물
- 송여사 : 민대찬의 아내로서 시아버지에 대해 냉정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임

[37-40] 문학~고전 소설

지문 분석

작자 미상 「전우치전」

작품 감상 중종 때의 실존 인물인 전우치를 주인공으로 하여 쓴 작품이지만, 그 도술 행각을 그린 내용이 대단히 비현실적이며 초인적이고 황당무계하다. 도술에 능한 전우치라는 인물의 행적을 통해 당시의 부패한 정치와 당쟁을 풍자하고 그것을 독자들에게 효과적으로 부각하는 등 사회 비판적인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다분히 사회 혁명 사상을 고취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그 내용이 ‘홍길동전’과 비슷한 점이 엿보인다.

주제 전우치의 의로운 행동과 부패하고 무능한 지배 계층에 대한 비판

어휘 풀이

- 장계 : 왕명을 받고 지방에 나가 있는 신하가 자기 관하(管下)의 중요한 일을 왕에게 보고하던 일
- 절륜하다 : 아주 두드러지게 뛰어나다.
- 천봉만학 : 수많은 산봉우리와 산골짜기
- 만장폭포 : 매우 높은 데서 떨어지는 폭포

37 세부 내용 파악하기

정답 ②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1%	83%	2%	5%	5%
--------------	----	-----	----	----	----

해설 | 함경도 가달산에 도적이 있지만 관군이 이를 잡지 못하자 전우치가 임금께 아뢰어 자신이 나서겠다고 한다. 임금은 크게 기뻐하며 어주와 인검을 하사한다. 따라서 임금이 어주와 인검을 하사한 것은 도적을 잡으러 가는 전우치를 격려하고자 한 것이지 그동안의 수고를 치하하고자 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②이다.

오답풀이 | ① ‘이때 함경도 가달산에 한 도적이 있어 재물을 노략하며 인민을 살해하며 본읍 원이 관군을 발하여 잡으려 하되 능히 잡지 못하고 나라에 장계(狀啓)하니’를 통해 알 수 있다. ③ ‘전각이 굉장하여 주란화동이 반공에 솟았거늘, 우치 이윽히 보다가 몸을 변하여 솔개 되어 날아 들어가 보니, 으름 도적이 황금 교자에 높이 앉고 좌우에 제장을 차례로 앉히고 크게 잔치하며 그 뒤에 대청이 있으니 미녀 수백인이 열좌하여 상을 받았거늘’에서 알 수 있다. ④ 역모죄로 잡혀온 전우치를 임금의 명을 받은 집장과 나졸이 매를 한 대 친 후 팔이 아파서 치지 못하는 사이에 전우치는 임금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다. ⑤ 잡혀 온 전우치가 임금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주상이 필경 용서치 않으시리라.’라고 생각하고 있다.

38 구절의 의미 파악하기

정답 ⑤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4%	5%	4%	83%
--------------	----	----	----	----	-----

해설 | 역모의 누명을 쓰고 잡혀 온 전우치는 임금에게 용서를 구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용서받지 못할 것임을 짐작하고 피를 내게 되는데, 평생에 배운 재주를 세상에 전하지 못하게 된 것을 한이라고 말하며 그 원을 풀어 줄 것을 호소하게 된다. 이에 임금은 전우치의 재주를 시험하려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전우치의 원혼에 괴롭힘을 당할까 염려하여 전우치를 묶은 것을 풀어 주게 된다. 이를 통해 ㉠과 ㉡은 전우치의 의도대로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것은 ⑤이다.

|오답풀이| ① ㉠의 원인이 되는 사건은 함경도 가달산에서 도적이 일어나 백성들의 재물을 노략하며 살해하게 되었지만 관군을 동원해도 잡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전우치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은 도적을 토벌할 살마리를 찾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은 임금이 전우치가 역도로 거론되자 크게 화를 내는 것으로 사건 해결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전우치의 이름이 역도의 진술에 나오자 임금은 크게 화를 내게 된다는 점에서 임금과 전우치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시된 글에서 임금과 전우치의 갈등에 제삼자가 개입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제시된 글에서 임금과 전우치의 갈등 원인이 해소되어 사건이 해결되는 과정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39 작품 감상의 적절성 평가기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1%	3%	87%	3%
--------------	----	----	----	-----	----

|해설| '엄준 토벌 삽화'와 '역모 누명 삽화'에서 전우치는 초월적 존재와 교감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도술을 사용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따라서 ④는 적절한 감상으로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 '엄준 토벌 삽화'와 '역모 누명 삽화'에서 전우치는 스스로의 힘으로 사건을 해결하고 있다. ② 전우치는 '엄준 토벌 삽화'에서 술개로 변신하고, 진언을 외워 수리가 상을 견어치우게 하고 광풍을 일으켜 차일과 병풍을 날아가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역모 누명 삽화'에서는 도술을 부려 자신이 그린 그림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삽화마다 각기 다른 도술을 사용함으로써 독자에게 지속적인 흥미를 유발시키고 있는 것이다. ③ '엄준 토벌 삽화'와 '역모 누명 삽화'는 전우치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술을 사용한다는 것을 연결 고리로 하여 결합될 수 있다. ⑤ 전우치가 '엄준 토벌 삽화'에서 술개로 변신하거나 '역모 누명 삽화'에서 그림 속으로 들어가는 비현실적인 도술을 사용하는 장면은 주인공의 능력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신비감을 부여한다고 볼 수 있다.

40 한자 성어 이해하기 정답 ⑤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2%	5%	2%	87%
--------------	----	----	----	----	-----

|해설| ㉠은 엄준과 그의 부하들이 전우치의 도술로 인해 몹시 놀라고 당황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낮이 날아가고 낮이 흠어지다'는 뜻의 '흔비백산(魂飛魄散)'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기호지세(騎虎之勢) : 호랑이를 타고 달리는 형세라는 뜻으로, 이미 시작한 일을 중도에서 그만둘 수 없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② 방약무인(傍若無人) : 곁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아무 거리낌 없이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태도가 있음을 뜻한다. ③ 우후죽순(雨後竹筍) : 비가 온 뒤에 여기저기 솟는 죽순이라는 뜻으로, 어떤 일이 한때에 많이 생겨남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④ 풍수지탄(風樹之嘆) : 효도를 다하지 못한 채 아버지를 여윈 자식의 슬픔을 이르는 말이다.

[41-43] 문학~현대시

지문 분석

(가) 고은 「성묘」

작품 감상 평생을 소금 장수로 이 땅을 떠돌다가 돌아가신 아버지를 추모하는 형식으로 된 작품으로, 분단에 대한 참담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남북통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다. 아버지가 팔았다는 '하얀 소금'은 장돌뱅이인 아버지가 이 땅 민중들과 함께 나뉜 온 삶의 애환인 동시에, 민족에 대한 소박한 애정이라 할 수 있다.

주제 통일을 바라는 소망

시구 풀이

- 이 땅을 떠도신 아버지 : 일제 시대 삶의 터전을 잃고 떠돌던 우리 민족의 삶
- 아무리 아버지의 ~ 생길 따름입니다. : 분단의 아픔이 크고 통일에 대한 염원에 대한 화자의 강렬한 바람
- 아버지의 젊은 시절 : 일제 시대
- 붉은 물빛 : 망국(亡國)의 한
- 하얀 소금 : 삶의 수단, 민중들과 나누었음 아버지의 삶의 애환과 애정, 분단 이전의 모습이자 통일된 후의 모습을 의미하는 상징적 소재
- 아버지, 남북통일이 되면 ~ 그 소리를 듣게 하십시오. : 아버지에게 부탁하는 형식을 사용하였지만, 화자의 통일에 대한 염원과 의지를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음

(나) 서정주 「외할머니의 뒤안 툇마루」

작품 감상 외할머니 댁 툇마루에 얽힌 유년 시절의 추억을 노래한 작품으로, 외할머니 댁 뒤안에 있는 '툇마루'라는 소재를 통하여 외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 할머니의 손때와 그네 딸들의 손때로 번질번질 닳아져서 얼굴이 들이비치는 '외할머니네 때겨울 툇마루'는 손때 묻은 시간성과 동시에 겨울의 성격도 갖고 있다. 겨울은 자기를 비추는 사물이며 자기 인식의 매체이므로, '툇마루'는 바로 자신의 본래적인 영혼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만든다.

주제 외할머니네 툇마루에 얽힌 어린 날의 추억과 그리움

시구 풀이

- 이 툇마루는 ~ 칠해져 온 것이라 하니 : 전통성을 의미함
- 인제는 이미 ~ 내 얼굴을 들이비칩니다. : 삶의 성실성과 부지런함이 담겨 있는 추억의 장소를 말한다.
- 겨울 : 자기 인식의 매체 - 시적 화자에게 유년의 얼굴을 비추는 추억의 매개물
- 오디 열매를 ~ 숨을 바로 합니다. : 치유의 의미 함축
- 외할머니의 얼굴과 ~ 없기 때문입니다. : 외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지금 비록 부재하는 외할머니와 정신적으로는 함께하고 있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다.

41 작품의 공통점 파악하기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4%	3%	12%	77%	2%
--------------	----	----	-----	-----	----

|해설| (가)는 분단 이전의 과거와 분단의 현실을 대비시키고, 통일된 조국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고 있는 작품으로, '저문 압록강의 붉은 물빛', '하얀 소금' 등 색깔을 드러내는 시어를 통해 대상을 선명한 이미지로 제시하고 있다. (나)는 '외할머니네 집 뒤안 ~ 먹오뎅 툇마루'라는 공간에 얽힌 유년 시절의 추억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으로, '먹오뎅 툇마루'에서 색깔을 드러내는 시어를 활용하여 대상을 선명한 이미지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이다.

|오답풀이| ① 유사한 시구를 점층적으로 변주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가)의 '아버지, 아직 남북통일이 되지 않았습니다.'와 '아버지, 남북통일이 되면~'에서 엿볼 수 있지만, (나)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찾을 수 없다. ② 부정적 현실 상황은 (가)의 남북통일을 이루지 못한 상황과 연결시킬 수 있지만, 외할머니네 툇마루에 얽힌 어린 날의 추억과 그리움을 노래한 (나)에서는 부정적 현실이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가)와 (나) 모두 차분한 마음으로 대상을 바라보는 관조의 태도가 드러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나)는 어린 화자의 목소리를 활용하고 있지만, (가)의 화자는 아버지의 묘소에 성묘하러 간 인물이므로 성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가)는 동화적 분위기가 아니라 회상적이며 추모적이라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⑤ (가)와 (나) 모두 겉보기에는 모순되는 것 같으나 그 속에 중요한 진리가 함축되어 있는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42 감상의 적절성 평가하기 정답 ⑤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4%	3%	1%	88%
--------------	----	----	----	----	-----

|해설| <보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땅'은 같은 공간일지라도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적 배경이 변함에 따라 그것의 의미는 다양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가)에서, 통일에 대한 화자의 염원과 의지를 우회적으로 나타낸 '멀어져 가는 그 소리를 듣게 하라'는 표현에는 아버지가 '남북을 떠도는 청정한 소금 장수'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투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의 '이 땅'은 화자가 자신의 바람이 현실화되기를 희망하는 장소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⑤이다.

|오답풀이| ① ㉠의 '이 땅'은 일제 강점기 때 아버지가 떠돌던 공간이다. 따라서 '이 땅을 떠도신 아버지'는 일제 강점기 때 삶의 터전을 잃고 떠돌던 우리 민족의 삶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화자는 아버지에게 원망을 품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젊은 아버지의 추억'이 오늘날 이 땅에 남지도 않은 사실을 슬퍼하며 다시금 아버지의 그 소리가 울려 퍼지기를 기대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감상으로 볼 수 없다. ② ㉡의 '이 땅'은 일제에게 빼앗긴 국토를 떠올리게 하는 장소이므로 복원된 민족의 정체성을 깨닫는 장소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의 '이 땅'은 시상 전개 과정을 살펴볼 때, 남북을 다니던 아버지의 모습과 분단의 상황과 관련지어 이해해야 한다. 또한 '젊은 아버지의 추억'은 '하나였던 조국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 '이 땅'은 세대교체를 통하여 미래 지향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장소가 아니라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장소로 파악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 '남북통일이 되면 / 또 다시 이 땅에 태어나서'는 가정적 상황을 설정하여 화자의 간절한 소망을 드러낸 것

이다. 따라서 아버지가 '소금 장수'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는 화자의 모습을 통해 ㉔의 '이 땅'은 남북이 통일되어 평화롭게 다닐 수 있는 장소로 감상하는 것이 적절하다.

43 소재의 의미 파악하기 정답 ①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92%	2%	2%	0%	2%
--------------	-----	----	----	----	----

| 해설 | (나)의 구체적 배경인 '집 뒤안'은 '장독대'와 함께 화자에게 있어서 유년 시절 할머니의 사랑과 그리움을 느끼게 하는 공간이다. '뒤안'은 뒤꼍이란 의미로, 관습적인 의미로는 외로움을 뜻하기도 하지만, 이 시에서는 오히려 어린 자신을 따뜻하게 감싸주시던 할머니가 있던 공간으로 유년 시절의 따뜻한 정감이 넘치는 곳으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이다.

| 오답풀이 | ② '외할머니의 손때와 그네 딸들의 손때로 날이날마다 칠해져' 만들어진 '거울'은 '뒷마루'를 비유한 것으로 화자에게 유년의 얼굴을 비추는 추억의 매개물로 기능한다. 따라서 오랜 세월의 흔적을 환기한다고 볼 수 있다. ③ '어머니한테 꾸지람을 되게 들어' 찾아간 곳이 '뒷마루'이고 거기서 외할머니의 사랑을 받게 되므로, '뒷마루'는 화자에게 있어 위안의 경험을 환기시키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④ 오디 열매를 먹어 숨을 바로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열매가 생명의 결실이면서 동시에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종자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 열매가 숨을 바르게 하는 생명의 약이 되는 것은 외할머니가 품고 있는 깊은 생명력과 관련된다. 따라서 '오디 열매'는 외할머니의 사랑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⑤ 거울처럼 반짝이는 뒷마루에 '외할머니의 얼굴과 내 얼굴이 나란히' 비치는 장면을 통해 외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잘 드러나고 있다. 이는 비록 부재하지만 외할머니와 화자가 정신적으로는 함께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므로 화자와 외할머니 사이의 친밀감을 엿볼 수 있다.

[44-45] 문학~극문학

지문 분석

이강백 「결혼」

작품 감상 실험적 기법을 동원해 창작된 단막극인 이 작품은 별다른 무대 장치도 없고 관객과 무대의 구분도 없다. 또한 필요한 소품도 관객으로부터 빌려오는 방식으로 관객의 참여를 유도하면서 극중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실험적인 기법은 본래부터 절대적 소유관 없고 모두 빌린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제와 긴밀히 연관된다. 작가는 '결혼'이라는 소재를 통해 세상의 모든 것이 처음부터 누군가에 빌린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제의식을 전달하면서 소유하는 사랑 대신 헌신하는 사랑을 내세워 현대인에게 부족한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주제 소유의 본질과 사랑의 의미

여휘 풀이

- 저택 : 규모가 아주 큰 집
- 부동산세 : 움직이지 아니하고 똑바로 서 있는 자세
- 본색 : 본디의 빛깔이나 생김새
- 덤 : 제 값어치 외에 거저로 조금 더 얹어 주는 일. 또는 그런 물건

44 문맥의 의미 파악하기 정답 ③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2%	80%	3%	12%
--------------	----	----	-----	----	-----

| 해설 | [A]에서 '여자 : (악의적인 느낌이 없이) 당신은 사기꾼이에요.'를 통해 여자가 남자에 대해 전적으로 부정하지 않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행복한 결말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세상 것을 잠시 빌렸었죠. 그리고 시간이 되니까 하나둘씩 되돌려 줘야 했습니다."라는 남자의 말에는 소유의 본질에 대한 남자의 철학적 사고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건의 전개 과정을 고려할 때, ㉔에서 여자가 얼굴을 외면한 채 걸어 나가는 것은 남자의 말을 거짓이라 생각하여 외면한 것이 아니라 남자가 아무 것도 소유하지 않았음에 실망하여 보이는 행동이므로 ③과 같이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풀이 | ① ㉔의 '책'은 남자가 빌린 것으로 정해진 시간이 되자 하인이 강제로 회수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빌린 것이므로 정해진 시간이 되면 되돌려 줘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 주고 있다. ② ㉔에서 남자가 항의하려 하자 하인이 무뚝뚝하게 자기의 회중시계를 내밀어 보이는 것은 물건을 빌리기로 한 시간이 다 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는 누구도 물

건을 영원히 소유할 수 없음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㉔에서 남자는 넥타이를 빌렸었던 남성 관객을 증인으로 삼아 결혼 후에 여자를 소중히 아끼고 사랑하겠다는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다. ⑤ ㉔은 하인의 구둣발에 걸려치인 남자에게 연민의 정을 느낀 여자가 하인의 폭력 앞에 무기력하게 당하는 남자를 외면하지 않음과 동시에 남자의 진심을 이해하고 결혼을 결심했음을 짐작하게 하는 장면이다.

45 작품 감상의 적절성 평가하기 정답 ⑤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3%	2%	4%	1%	87%
--------------	----	----	----	----	-----

| 해설 | 극중에서 하인은 주어진 명령만 수행하는 인물로 정해진 시간이 되면 남자가 빌린 물건을 빼앗아 사라지고 있다. 따라서 사건 전개를 고려할 때, 남자와 하인 사이에 갈등이 조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자의 등장이 사건 전개에 영향을 미쳐 남자와 하인 사이에 조성된 갈등을 해소시키는 장면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⑤는 적절한 감상으로 볼 수 없다.

| 오답풀이 | ① "그래서 즉시 여성 잡지를 뒤져 사교란에 주소를 낸 여자에게 전보를 쳤습니다."라는 남자의 대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여자에게 전보를 치는 남자의 행동이 현재의 무대 공간에서 제시되고 있다. ② 극중에서 하인은 무대에 등장해서 남자가 빌린 물건을 빼앗고 퇴장하고 있다. 따라서 빌린 물건들을 되돌려주어야 하는 시간이 다가와 하인이 등장하게 되면 남자의 초조감이 한층 고조되게 된다. ③ <보기>의 '무대 위에서 보여 줄 수 없거나 보여 주지 않아도 되는 사건은 무대 밖의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처리한다.'라는 언급에서 알 수 있듯이, 남자가 빌린 물건을 빼앗아 사라지는 하인의 행동은 굳이 그 후의 상황까지 보여 줄 필요가 없다. 따라서 무대 공간을 벗어난 하인이 보여 주지 않은 공간에 잠시 있다가 되돌아오는 것은 무대에서 보여 주지 않은 공간이 있음을 알려 준다. ④ 극중에서 남자는 관객들에게 물건을 빌리거나 말을 건네는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장면에서 관객들은 자연스럽게 극중 사건 진행에 동참하게 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이는 관객석과 무대 공간의 경계를 허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I 등급컷

등급	1	2	3	4	5	6	7	8
원점수	98	96	91	85	73	54	34	22
나의 점수	[] 점			[] 등급				

I 오답률 Best 5

순위	1	2	3	4	5
번호	16	19	41	6	35
오답률(%)	25	23	23	23	21

정답과 해설					본문 96~112페이지
1 ⑤	2 ⑤	3 ③	4 ①	5 ⑤	
6 ①	7 ③	8 ②	9 ④	10 ①	
11 ①	12 ③	13 ⑤	14 ①	15 ②	
16 ④	17 ①	18 ④	19 ⑤	20 ⑤	
21 ⑤	22 ④	23 ①	24 ⑤	25 ③	
26 ⑤	27 ③	28 ⑤	29 ②	30 ①	
31 ③	32 ②	33 ②	34 ④	35 ②	
36 ④	37 ③	38 ①	39 ④	40 ⑤	
41 ⑤	42 ②	43 ③	44 ④	45 ③	

[1-5] 화법

1 발표 계획 평가하기 정답 ⑤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1%	1%	9%	86%
--------------	----	----	----	----	-----

해설 발표자는 마무리 부분에서 독서에서 토론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는 독서 토론 노트의 장점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독서 토론 노트 사용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며 발표를 끝맺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청중의 이해도를 점검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으므로 ⑤는 실현되지 않았다.'

오답풀이 발표자는 발표 앞부분에서 "결과가 궁금하시죠?"라는 질문을 통해 청중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다. ② 발표 앞부분의 "이 시간에 저는 설문 조사 결과에~ 독서 토론 노트 사용을 제안하고자 합니다."를 통해 발표 주제를 선정한 목적이 분명히 제시되고 있다. ③ '독서 토론이 잘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그에 대한 근거는 독서 토론 노트의 활용 방법을 소개하고, 독서 토론 노트 작성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를 언급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먼저', '첫째', '둘째', '셋째', '다음으로' 등의 답화 표지를 활용하여 청중이 발표 내용을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반응의 적절성 평가하기 정답 ⑤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1%	1%	3%	1%	93%
--------------	----	----	----	----	-----

해설 <보기>의 '학생 5'는 부장의 발표를 들은 후 독서 토론 노트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공감하며 독서 토론 노트를 실제로 사용해 봐야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발표자의 발표 내용을 긍정적이며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공감하고자 하는 듣기 전략에 해당한다. 따라서 '발표자가 결론을 이끌어 내는 과정이 합리적인지 판단하며 들었다.'는 ⑤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학생 1'은 발표자가 제시한 '독서 토론이 잘 안 되는 원인'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에 대해 동의하고 있으므로 발표 동기에 공감한다고 볼 수 있다. ② '학생 2'는 발표자가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발표 주제를 선정하고 준비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듣기 전략이다. ③ '학생 3'은 발표자의 설문 조사 결과에 대해 "~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므로 신뢰성을 점검하는 듣기 전략이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④ '학생 4'는 발표 내용이 독서 토론 노트의 긍정적인 효과에만 한정된 것에 주목한 것이므로 단점도 있을 수 있음을 들어 편향성 여부를 평가하는 듣기 전략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정답 ③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1%	85%	1%	9%
--------------	----	----	-----	----	----

해설 이 방송 대담에서 진행자는 해설가의 설명에 대해 호응하며 공감을 표시하고 있지만, 해설가의 공감을 끌어내기 위해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강조하고 있는 않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③이다.

오답풀이 진행자는 해설가의 물음에 대해 "소나무가 아닌가요?", "소나무인가요?" 등 질문의 형식을 취하며 답변하고 있다. ② 진행자의 두 번째 발언인 "네, 정

말 멋진 산수화네요. 그림을 보니 어떤 말씀을 해 주실지 더 기대가 되는데요."를 통해 알 수 있다. ④ 진행자의 발언 중 "굽은 모습 때문이라니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어떤 의미인가요?", "의외네요. 저도 그렇지만 시청자들께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진행자는 "아, 소나무의 아름다운 외형과 그것에 부여된 상징적 의미 때문이라는 말씀이시죠?"라고 발언하면서 해설가의 설명을 요약하면서 자신이 제대로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4 화법의 성격과 요소 파악하기 정답 ①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86%	5%	1%	4%	1%
--------------	-----	----	----	----	----

해설 <보기>는 언니와 동생이 나눈 대화이며 텔레비전 방송 대담은 불특정 다수의 청자인 시청자를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공적 담화라는 데 그 차이가 있다. 따라서 <보기>와 같은 사적 담화에 비해 공적 담화인 텔레비전 방송 대담에서는 경어적 언어 표현을 주로 사용하므로 정답은 ①이다.

오답풀이 텔레비전 방송 대담은 정해진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보기>에 비해 시간상 제약이 많다. ③ 언니와 동생의 사적 담화인 <보기>는 공적 담화인 텔레비전 방송 대담에 비해 형식이나 절차가 자유롭다고 볼 수 있다. ④ <보기>는 언니와 동생이 방송 대담을 시청한 후 자유롭게 나눈 대화이므로 특정한 목적에 따라 이루어지는 담화로 볼 수 없다. ⑤ '복수의 가상적 청자를 의식하고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활동'은 공적 담화인 방송 대담에 해당되는 설명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5 매체 활용의 적절성 평가하기 정답 ⑤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1%	1%	5%	7%	84%
--------------	----	----	----	----	-----

해설 해설가가 시냇가에 있는 버드나무 영상을 보여준 것은 시청자들에게 고향을 연상케 하기 위한 의도이지 소나무와 대비되는 버드나무의 예술적 가치를 부각하고자 한 것이 아니므로 ⑤와 같은 학습 활동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해설가가 ① '그림(산수화)'을 보여 준 것은 '나무와 문화 예술'이라는 화제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흥미를 갖게 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② 해설가가 제시한 ㉠의 '표'는 설명의 근거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③ 해설가의 "나무의 굽은 모습이 보이시나요? 바로 이것 때문이죠."와 "전통 조형의 아름다움은 ~적합하죠." 등의 발언을 통해 ㉡의 '사진'을 제시한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④ "이런 노래를 한 곡 들려 드릴 텐데요, 가사에 나무가 등장하니 잘 들어 보세요."라는 해설가의 발언을 통해 ㉢의 '음악'을 들려준 의도가 '그림' 속의 나무에서 '음악' 속의 나무로 화제가 전환됨, 즉 나무가 그림 이외의 예술 분야에도 등장함을 알리고자 함을 알 수 있다.

[6-10] 작문

6 작문 계획의 적절성 파악하기 정답 ①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97%	0%	0%	0%	0%
--------------	-----	----	----	----	----

해설 '똑똑 우체통'을 소개하기 위해 쓴 (가)에는 똑똑 우체통을 사용할 때 유의할 점이 무엇인지 언급되지 않았다. 따라서 (가)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①임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학생 자치회에서 직접 관리·운영하기에 매일 우체통을 확인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빠르게 수렴하고 신속하게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에서 똑똑 우체통의 장점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우체통에 넣어 주신 이야기는 학생 자치회에서 선별하여 학교 누리집과 교내 게시판 등을 통해 공지하며 여러분의 의견에 대한 처리 과정과 결과도 학교 누리집을 통해 알려 드립니다."를 통해 똑똑 우체통의 운영 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똑똑 우체통은 문을 똑똑 두드리면 문이 열리는 것처럼 여러분이 의견을 제시하면 '똑똑하게' 반응하는 우체통이란 뜻입니다."에서 똑똑 우체통의 뜻을 설명하고 있다. ⑤ "똑똑 우체통을 잘 활용한다면 편안하고 즐거운 학교, 학생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학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에 똑똑 우체통의 기대 효과가 드러나고 있다.

7 글쓰기 전략 파악하기

정답 ③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1%	1%	94%	1%	1%
--------------	----	----	-----	----	----

해설 권의하는 글을 작성하고자 할 때는 설문 조사 결과 등 자신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신뢰성을 높이고 설득력을 갖게 된다. 실내화 착용 현황과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한 설문 결과는 “실내화 착용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전체 학생의 50% 정도가 실내화를 착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했고, 실내화를 신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갈아 신는 것이 귀찮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러한 설문 조사 결과는 실내에서 실내화를 착용하자는 건의 내용의 신뢰성을 높여 주고 있으므로 (나)에서 고려한 사항으로 가장 적절하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오답풀이 | 실내화 착용의 이로운 점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② 학생 대부분이 실내화 착용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는 언급은 제시되었다. 그러나 실내화 착용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의견이나 사례는 제시되지 않았다. ④ 실내화 착용에 대한 학생들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을 뿐, 실내화 착용의 생활화를 위한 학교 차원의 지원책은 제시되지 않았다. ⑤ “저 역시 흙이 많이 떨어져 있거나 비가 와 진흙이 묻은 날에는 청소 시간 내에 다 끝내지 못해 수업 시간에 늦은 적이 있었습니다.”에 자신의 경험이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계단이나 복도에 흙이 많이 떨어져 있어 그곳을 청소하는 학생들이 고생을 합니다.”에 계단이나 복도를 청소하는 학생들의 어려움이 나타나 있지만, 그들의 의견을 인용한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8 고쳐 쓰기 방안의 적절성 파악하기

정답 ②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1%	96%	0%	0%	0%
--------------	----	-----	----	----	----

해설 | 글쓰는 실내에서 실외화를 신게 되면 교실 청결은 물론 호흡기 건강 문제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어서 계단이나 복도를 청소하는 학생들이 고생하는 것 역시 실외화 착용의 문제점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때 ‘다만’은 앞의 말을 받아 예외적인 사항이나 조건을 덧붙일 때 쓰는 말임으로 적절하지 않으므로 수정해야 하는데, 앞의 문장과 상반되는 내용을 연결하기에 적절한 ‘그러나’ 역시 어울리지 않는다. ㉠은 ‘또한’으로 수정해야 앞뒤 문맥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오답풀이 | ‘악영향’은 ‘나쁜 영향’이라는 의미로, ‘나쁜 악영향’은 의미가 중복된 말이다. 따라서 ‘나쁜 영향’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③ 서술어 ‘끝내지 못해’의 필요한 문장 성분인 목적어 ‘청소를’이 빠져 있으므로 ‘청소를’을 첨가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 (나)는 실내에서의 실외화 착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실내화 착용을 촉구하는 글이므로 ‘청소 도구 확보 문제’는 핵심 논지에서 벗어난 내용이다. 따라서 이를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⑤ ‘이처럼 학생 대부분이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을 고려할 때, ㉡과 앞 문장은 순서를 바꾸는 것이 글의 흐름상 자연스럽다.

9 작문의 특성 파악하기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1%	1%	1%	95%	0%
--------------	----	----	----	-----	----

해설 | 가)의 ‘글의 구성과 표현 전략’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구성하기보다는 아래와 같이 글을 구성해야겠다.’라고 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 방식을 취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오답풀이 | (가)에서 예상 독자를 ‘교지를 읽을 학교 친구들’로 한정하고 이에 따라 (나)를 작성하였다. 이는 작문이 예상 독자를 고려한 행위임을 보여 준다. ② (가)의 ‘자료 수집’에서 잡상의 특징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나)에는 잡상의 다양한 형상이나 지붕 위에 잡상을 올리는 이유 등 잡상과 관련된 내용이 나타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작문은 글감과 관련된 내용을 생성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③ (가)의 ‘글의 구성과 표현 전략’에서 ‘정의’와 ‘예시’의 방법을 활용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나)의 1문단에서 ‘잡상은 전통 문화유산으로서 주로 궁궐 지붕 위에 올리는 장식물을 뜻합니다.’라 하여 ‘정의’의 방법으로 잡상에 대해 밝히고 있으며, ‘봉황, 용, 해태나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등 예시를 들고 있다. 따라서 작문은 글쓰기가 정보 제시 방법을 고려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⑤ (가)에서 계획된 ‘잡상을 잘 모르는 학교 친구들에게 소개하여 잡상의 문화적 가치를 알려야겠다.’라는 ‘글 쓰는 목적’을 밝히고 있으며, (나)에서는 잡상을 소개하고 그 문화적 가치를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작문은 목적을 고려하여 글을 쓰는 행위임을 알 수 있다.

10 내용의 적절성 평가하기

정답 ①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94%	1%	0%	1%	1%
--------------	-----	----	----	----	----

해설 | ㉠에서 (나)의 마지막 단락을 잡상의 가치를 제시하고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며 직유법을 활용할 것을 계획하였다. ①의 경우, ‘길가의 들꽃처럼’에서 직유법의 활용이 드러나고 있고, ‘잡상은 길가의 들꽃처럼~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에서 잡상의 가치가 언급되고 있다. 또한 ‘이런 문화유산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에서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요구하며 끝맺고 있다. 따라서 ㉠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①이다.

오답풀이 | ‘열병식을 하듯이’에 직유법이 사용되었고, ‘선조들의 마음이 깃들어 있습니다.’에 잡상의 가치가 나타나 있다. 그러나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요구하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마치 지붕 위에서~엮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에 직유법의 활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궁궐의 비밀을 전해 주는 것’에서 잡상의 가치가 담겨 있다. 그러나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요구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④ ‘조화의 정신을 보여 주는 문화유산’에 잡상의 가치가 언급되었다. 그러나 ‘직유법이 사용되지 않았고,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요구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⑤ ‘이웃을 사랑하는 선조들의 정신이 깃들어 있습니다.’에 잡상의 가치가 드러나 있으며, ‘온고지신’의 자세에서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요구하고 있음 알 수 있다. 그러나 직유법은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1-15] 문법

11 음절의 개념과 특성 이해하기

정답 ①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86%	3%	5%	3%	1%
--------------	-----	----	----	----	----

해설 | 현대 국어에서 음절의 초성 자리에는 자음이 둘 이상 오지 못한다. 제시된 자료에서 ‘끼’의 ‘ㄱ’, ‘딸’의 ‘ㄷ’은 각각 된소리에 해당하는 하나의 자음임으로 ①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 (자료)에 제시된 네 가지 유형을 통해 중성에 올 수 있는 음운은 모음임을 알 수 있다. ③ ‘ㄷ’과 ‘ㄹ’을 통해 중성에 올 수 있는 음운은 자음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④ ‘ㄱ’은 초성과 중성이 없이 중성으로만 이루어진 음절이며, ‘ㄷ’은 초성이 없는 음절, ‘ㄴ’은 중성이 없는 음절임을 알 수 있다. ⑤ (자료)의 네 가지 유형 모두에 중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12 격 조사와 보조사의 쓰임 이해하기

정답 ③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10%	77%	4%	5%
--------------	----	-----	-----	----	----

해설 | 국어의 조사 중에서 앞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인 관계를 표시하는 격 조사와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보조사의 쓰임을 정확히 이해하는가를 묻고 있다. ③의 경우 ‘친구한테’의 ‘한테’는 ‘에게’보다 구어적인 말로 어떤 행동이 미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로서 부사격 조사에 해당하므로 보조사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오답풀이 | ‘밤에만’에서 ‘만’은 ‘다른 것으로부터 제한하여 어느 것을 한정함’을 나타내므로 보조사에 해당한다. ② ‘오늘은’에서 ‘은’은 ‘선수들은’, ‘간식은’과 같이 다른 문장 성분에도 쓰일 수 있으므로 보조사에 해당한다. ④ ‘악기도’의 ‘도’는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로 사용되었다. ⑤ ‘책으로까지’의 ‘까지’는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13 피동사와 사동사 이해하기

정답 ⑤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5%	13%	3%	10%	66%
--------------	----	-----	----	-----	-----

해설 | 우리말의 용언 중에는 피동사와 사동사의 형태가 동일한 것이 있는데, 문장에서의 쓰임을 통해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다. ⑤의 경우, ㉠ ‘형이 친구에게 꽃다발을 안기다’의 ‘안기다’는 사동사로, ㉡ ‘아기 곰이 어미 품에 안기다’의 ‘안기다’는 피동사로 쓰인 사례이다.

오답풀이 | ㉢의 ‘운동화 끈이 풀리다’의 ‘풀리다’와 ㉣의 ‘피로가 풀리다’의 ‘풀리다’는 모두 피동사이다. ㉡ ㉠의 ‘아기가 엄마 등에 업히다’의 ‘업히다’는 피동사이며, ㉣의 ‘누나가 이모에게 아기를 업히다’의 ‘업히다’는 사동사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의 ‘옷을 말리다’의 ‘말리다’는 사동사이며, ㉣의 ‘말리다’는 ‘다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어떤 행동을 못하게 방해하다’의 뜻을 지니는데 피동사도 아니고 사동사도 아니다. ㉣ ㉠의 ‘새들이 몸을 녹이다’의 ‘녹이다’와 ㉣의 ‘햇살이 고드름을 녹이다’의 ‘녹이다’는 모두 사동사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14 띄어쓰기 탐구와 적용하기

정답 ①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63%	10%	6%	6%	12%
--------------	-----	-----	----	----	-----

해설 | '확인 사항'에서 '단어는 사전에 표제어로 실린다.'라고 하였으므로 ㉠으로 분류되는 '살아가다'는 하나의 단어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하나의 단어는 그 내부에서 띄어쓰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살아가다'로 적어야 한다. 또한, '확인 사항'에서 '-아'를 '-아서'로 바꿔 쓸 수 있으면 '본용언 + 본용언'의 구성이라 하였으며, 본용언은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두 개의 본 용언은 띄어 쓰는 것이 옳바르다. 따라서 ㉡에는 '받아서 가다'가 가능하므로 '받아 가다'가 적절하다. 그리고 ㉢의 '달아가다'는 '달아서 가다'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한 단어이거나 '본용언 + 보조 용언' 구성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만일 '달아가다'가 한 단어일 경우 사전에 표제어로 실렸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달아가다'는 '본용언 + 보조 용언'의 구성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확인 사항'의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씀도 허용한다.'에 따를 때 띄어 쓴 '달아 가다'와 붙여 쓴 '달아가다'가 모두 가능하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고려할 때 ㉠, ㉡, ㉢의 띄어쓰기를 올바르게 적용한 ①이 정답임을 알 수 있다.

15 문맥에 따른 의미 파악하기

정답 ②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4%	85%	5%	1%	3%
--------------	----	-----	----	----	----

해설 | ㉠ '김 서방'은 할머니(화자)가 고모(청자)에게 고모부(지시 대상)를 가리키는 말이며, ㉡ '아가씨(지시 대상)'는 엄마(화자)가 고모(청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 때, 청자는 고모로 동일하고 화자는 할머니와 엄마로 각각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은 고모부를, ㉡은 고모를 가리킨다는 점에서 동일한 인물이 다르게 표현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오답풀이 | ㉢의 '김 서방'은 할머니(화자)가 고모(청자)에게 고모부(지시 대상)를 가리키는 말이며, ㉣의 '그이'는 고모(화자)가 할머니(청자)에게 고모부(지시 대상)를 가리키는 말이다. 따라서 화자와 청자가 맞바뀌어 동일한 인물을 다르게 표현했음을 알 수 있다. ㉤ ㉠의 '김 서방'은 할머니(화자)가 고모(청자)에게 고모부를 가리키는 말이며, ㉥의 '고모부'는 고모(화자)가 은미(청자)에게 고모부를 가리키는 말이다. 따라서 화자도 다르고 청자도 달라 동일한 인물이 다르게 표현됨을 알 수 있다. ㉦ ㉠의 '그이'는 고모(화자)가 할머니(청자)에게 고모부를 가리키는 말이며, ㉧의 '고모부'는 고모(화자)가 은미(청자)에게 고모부를 가리키는 말이다. 따라서 화자는 같지만 청자가 달라 동일한 인물이 다르게 표현됨을 알 수 있다. ㉨ ㉡의 '아가씨'는 엄마(화자)가 고모(청자)를 가리키는 말이며, ㉩의 '고모'는 은미(화자)가 고모(청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따라서 화자가 달라 동일한 청자가 다르게 표현됨을 알 수 있다.

[16-19] 독서~예술

지문 분석

「작가주의」

지문 해제 1950년대 프랑스의 영화 비평계에서 새롭게 등장한 작가주의 비평을 설명하면서 할리우드 영화를 재발견함과 동시에 재평가에 큰 영향을 끼쳤음을 밝힌 글이다. 작가주의란 감독을 단순한 연출자가 아닌 '작가'로 간주하고, 작품과 감독을 동일시하는 관점을 말하는데, 작가주의적 비평가들은 가장 산업화된 할리우드에서 생산된 상업 영화에서도 감독 고유의 표지를 찾아낼 수 있다고 보았다. 할리우드 영화의 재평가에 큰 영향을 끼쳤던 작가주의의 영향력은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으며, 작가주의적 비평가들에 의해 발견된 '좋은' 영화와 '위대한' 감독들이 지금도 영화 교육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주제 작가주의의 개념 및 영화사적 의의
어휘 풀이

- 비평 : 사물의 옳고 그름, 아름다움과 추함 따위를 분석하여 가치를 논함
- 대두 : 머리를 쳐든다는 뜻으로, 어떤 세력이나 현상이 새롭게 나타남을 이르는 말
- 관행 : 오래전부터 해 오는 대로 함. 또는 관례에 따라서 함
- 옹호 : 두둔하고 편들어 지킴

16 서술상 특징 파악하기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1%	4%	88%	3%
--------------	----	----	----	-----	----

해설 | 글쓴이는 1문단에서 작가주의의 등장과 개념을 설명하고, 3~5문단을 통해 작가주의에서 비평의 대상으로 삼아 재평가했던 할리우드 영화와 히치콕 감독을 예로 글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6문단에서는 할리우드 영화의 재평가에 큰 영향을 끼쳤던 작가주의의 영향력이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과 그 의의를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 대한 특징으로는 ④가 가장 적절하다.

오답풀이 | 작가주의의 개념과 의의에 대해 밝힌 글이지 작가주의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을 다루고 있지는 않다. ② 작가주의의 문제점이 제시되지 않았으며 그것이 해결되는 과정 또한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작가주의의 개념과 의의 및 영향력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이지 작가주의와 대립하는 비평 이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할리우드 영화의 재평가에 큰 영향을 끼쳤던 작가주의의 영향력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을 분석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관점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다.

17 내용의 일치 확인하기

정답 ①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76%	5%	1%	9%	7%
--------------	-----	----	----	----	----

해설 | '맥거핀' 기법에 대한 언급은 5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히치콕 감독이 관객을 오인에 빠뜨린 뒤 막바지에 진실을 규명하여 충격적인 반전을 이끌어 내는 등 자신만의 이야기 법칙을 만들어 가는 데 활용한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맥거핀' 기법은 특정 소품을 활용하여 확실한 단서처럼 보이게 한 다음 일순간 허망한 것으로 만들어 관객을 당혹스럽게 하는 극적 장치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맥거핀' 기법은 관객에게 사건의 배경을 극적으로 제시해 주는 촬영 기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①의 진술은 일치하지 않는다.

오답풀이 | 6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작가주의로 인해 '좋은' 영화 혹은 '위대한' 감독들이 선정되었고, 이들은 지금도 영화 교육 현장에서 활용되었다는 언급을 통해 알 수 있다. ③ 1문단을 통해 작가주의가 등장하게 된 이유를 알 수 있다. 작가주의는 1950년대 프랑스 영화에 만연했던 문학적, 연극적 색채에 대한 반발로 주장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④ 3문 단에서 할리우드 영화의 제작자가 감독의 작업 과정에도 관여하게 된 이유는 흥행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면서 일정한 품질의 영화를 생산하기 위해서임을 밝히고 있다. ⑤ 3문단을 통해 알 수 있다. 할리우드에서는 일찍이 포드 시스템과 흡사하게 제작 인력들의 능력을 높일 수 있는 표준화·분업화한 방식으로 영화를 제작했다고 언급하였다.

18 특정 정보의 의미 파악하기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1%	1%	4%	90%	1%
--------------	----	----	----	-----	----

해설 | 4문단의 내용을 통해 볼 때, 일찍이 할리우드에서는 미국의 대량 생산 기술을 상징하는 포드 시스템과 흡사하게 제작 인력들의 능력을 높일 수 있는 표준화·분업화한 방식으로 영화를 제작했으며, 이에 따라 재정과 행정의 총괄자인 제작자가 감독의 작업 과정에도 관여하게 되었고, 감독은 제작자의 생각에 화면에 구현하는 역할에 머물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작가주의적 비평가들은 이렇게 가장 상업화된 조건에서 생산된 상업적인 영화, 할리우드 영화에서도 감독 고유의 표지를 찾아낼 수 있다고 보았다. 이는 제한적인 제작 여건이 오히려 감독의 도전 의식과 창의성을 끌어낸 사례에 주목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작가주의적 비평가들)가 ㉡(할리우드 영화)에서도 감독의 개성을 발견할 수 있다고 본 ④의 설명은 적절하다.

오답풀이 | 3문단을 통해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관객의 변덕스런 기호는 계량화가 불가능한 창작자의 재능과 더불어 영화 흥행의 변수로 제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2문단과 4문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문단에서는 작가주의가 상투적인 영화가 아닌 감독 개인의 영화적 세계와 독창적인 스타일을 일관되게 투영하는 작품들을 옹호한다고 언급하였으며, 4문단에서는 작가주의적 비평가들이 할리우드라는 가장 산업화된 조건에서 생산된 상업적인 영화에서도 감독 고유의 표지를 찾아낼 수 있다고 보았다고 언급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5문단에서 작가주의적 비평가들에 의해 복권된 대표적인 할리우드 감독이 히치콕이라는 감독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히치콕의 작품을 내부에 숨어 있는 흥행의 공식을 영화 제작에 활용하였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4문단을 통해 적절한 설명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작가주의적 비평가들이 할리우드 영화를 재평가한 결과 B급 영화와 그 감독들마저 수혜자가 되기도 했다는 언급을 확인할 수 있다.

19 글쓴이의 의도와 관점 평가하기

정답 ⑤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1%	2%	2%	1%	92%
--------------	----	----	----	----	-----

해설 | ㉠이 감독을 '작가'로 간주하여 작품과 감독을 동일시하는 반면, <보기>의 ㉡은 감독을 영화의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보는 관점이므로 이 둘의 입장 차이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 ⑤의 경우, 오히려 ㉠이 ㉡에 비해 감독의 역할을 영화 제작에 참여하는 인력들의 역량보다 중시한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설명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 ② 2문단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은 감독을 '작가'로 간주하고 작품과 감독을 동일시하여 감독 개인의 영화적 세계와 독창적인 스타일을 일관되게 투영하는 작품들을 옹호한다는 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③ 1, 2문단에 언급된 내용을 통해 ㉠이 ㉡보다 감독의 권한을 더 중시함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은 제작에 참여하는 인력들의 역량이나 예산 같은 제작 여건과 영화의 표현 가능성을 확장시킨 기술의 발달 등도 간과할 수 없다고 본다.

[20-21] 독서~기술

지문 분석

「조명 기구의 발광 효율과 수명」

지문 해제 조명 기구의 구조와 발광 원리에 따른 발광 효율과 수명에 대해 설명한 글이다. 전기 조명 기구는 발광 효율을 높이고 수명을 늘리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는데, 백열전구, 형광등, 발광 다이오드의 예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주제 조명 기구의 구조와 발광 원리에 따른 발광 효율과 수명

어휘 풀이

- 적외선 : 파장이 가시광선보다 길며 극초단파 보다 짧은 750μ m~1mm의 전자기파.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일반적으로 공기 가운데에서 산란되기 어려우며, 가시광선보다 투과력이 강하다.
- 자외선 : 파장이 엑스선보다 길고, 가시광선보다 짧은 전자기파. 눈으로 볼 수는 없으나 광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따위의 화학 작용이나 생리적 작용이 강하고 살균 작용을 하며, 태양광선 속의 자외선은 대기 중의 산소 분자에 의하여 대부분이 흡수되어 오존을 만든다.
- 가시광선 :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빛. 보통 가시광선의 파장 범위는 380~800나노미터(nm)이다. 등적색, 등색, 황색, 녹색, 청색, 남색, 자색의 일곱 가지가 있다.

20 세부 정보 이해하기

정답 ⑤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1%	3%	1%	14%	78%
--------------	----	----	----	-----	-----

해설 | 3문단의 "필라멘트에서 방출된 열전자가 수은 입자와 충돌하면 자외선이 발생한다. 이 자외선이 형광등 안쪽에 발라진 형광 물질에 닿으면 빛으로 바뀐다."를 고려할 때, 원통형 유리관 속에 들어 있던 수은 입자가 필라멘트에서 방출된 후 형광 물질을 자극하여 빛을 만든다는 ⑤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 2문단의 "필라멘트에서 일부 에너지가 전자기파의 형태로 방출된다. 이 전자기파의 파장은 연속 스펙트럼을 갖는데 이 중 빛은 10% 정도이고 나머지는 열의 형태인 적외선이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② 2문단의 백열전구가 "동근 유리구 안에 필라멘트를 넣고 불활성 기체를 넣은 단순한 구조"임에 비해, 3문단의 형광등은 "원통형 유리관 내에 수은과 불활성 기체가 들어 있고 양 끝에 필라멘트가 붙어 있는 구조로 구조가 더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3문단에서 형광등은 필라멘트의 가열 온도를 낮출 수 있어 백열전구보다 '수명이 5~6배 정도 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③ 3문단의 '자외선이 형광등 안쪽에 발라진 형광 물질에 닿으면 빛으로 바뀐다. 이때 형광 물질의 종류에 따라 빛의 색이 달라지기도 하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4문단의 "전자는 그 전압 차만큼의 에너지를 빛으로 방출한다. ~ 에너지의 크기에 따라 방출되는 빛의 파장이 정해지면서 발광 다이오드에서 나오는 빛은 하나의 색을 띠게 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21 중심 화제 파악하기

정답 ⑤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3%	1%	2%	88%
--------------	----	----	----	----	-----

해설 | 소비 전력이 빛으로 변환되는 비율인 발광 효율은 발광 다이오드가 가장 높고 형광등이 그 다음이며, 백열전구가 가장 낮다. 마지막 문단에서 알 수 있듯이 필라멘트와 같은 가열체가 없는 발광 다이오드는 필라멘트가 붙어 있는 형광등에 비해 에너지의 손실이 적어 발광 효율이 높다. 따라서 ⑤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 2문단의 내용을 통해 전구에 투입되는 전력의 대부분이 열의 형태인 적외선으로 방출되어 형광등에 비해 백열전구의 발광 효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 ② 2문단의 "전구에 가해지는 전압을 높여 필라멘트의 온도를 높이면 빛의 비율은 높아 지지만 수명은 짧아진다."를 통해 수명을 늘리기 위해 필라멘트의 가열 온도를 낮추면 발광 효율이 낮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③ 3문단의 '형광 물질의 종류에 따라 빛의 색이 달라지기도 하고 자외선을 빛으로 바꾸는 변환 효율이 다르므로 형광 등의 발광 효율에도 영향을 준다.'에서 형광등에 사용하는 형광 물질의 종류를 바꾸면 발광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1문단의 '발광 효율은 소비 전력이 빛으로 변환되는 비율을 고려할 때, 작은 소비 전력으로 같은 양의 빛 에너지를 나온다면 발광 효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22-25] 독서~인문

지문 분석

「정합설의 이해」

지문 해제 어떤 명제가 참이라고 했을 때, 그 뜻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 중 하나인 정합설의 개념과 의미에 대해 설명한 글이다. '정합적'이라는 것은 명제들 간의 특별한 관계인데, 전통적으로는 '모순 없음', '함축', '설명적 연관'으로 정의해 왔음을 언급하고 있다.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규정하는 경우 이전의 명제와 모순만 되지 않으면 추가되는 명제는 모두 참이 된다. 그렇지만 관련 없는 명제도 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합적이라는 것을 '함축'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함축'은 어떤 명제가 참일 때, 다른 명제도 반드시 참이 되는 관계를 말한다. 그러나 이 경우 참이 될 수 있는 명제의 수가 지나치게 제한되기 때문에 정합적이라는 것을 '설명적 연관'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설명적 연관은 두 명제 사이의 그럴듯한 연관성만 있으면 정합적이라고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설명적 연관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그 연관의 긴밀도가 어떻게 측정될 수 있는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해 최근에는 확률 이론의 도움을 받아 정합설을 발전시키고 있다.

주제 정합설의 의미와 '모순 없음', '함축', '설명적 연관'의 이해

어휘 풀이

- 명제 : 어떤 문제에 대한 하나의 논리적 판단 내용과 주장을 언어 또는 기호로 표시한 것.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 모순 : 어떤 사실의 앞뒤, 또는 두 사실이 이치상 어긋나서 서로 맞지 않음을 이르는 말
- 함축 : 표현의 의미를 한 가지로 나타내지 아니하고 문맥을 통하여 여러 가지 뜻을 암시하거나 내포하는 일

22 내용의 일치 확인하기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1%	5%	19%	70%	2%
--------------	----	----	-----	-----	----

해설 | 2문단에 언급된 바와 같이 '모순'이란 '동시에 참이 될 수 없고, 동시에 거짓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함축'은 'A가 참일 때 B가 반드시 참'이므로 '함축'에서는 이러한 '모순'이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함축 관계에 있는 명제가 '모순 없는 명제들일 수는 없다.'는 ④는 적절한 설명이 아니다.

오답풀이 | ① 2문단을 통해 알 수 있다. 정합설에서는 어떤 명제가 참인 것은 다른 명제와 정합적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였는데, 이를 통해 다른 명제와의 관계가 정합적인지 아닌지에 따라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참인 명제와 정합적인 관계에 있는 새로운 명제도 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정합적이라는 것을 '모순 없음'으로 이해했을 때 참이 아닌 명제는 모순이 있는 명제를 말한다. '함축'은 'A가 참일 때 B가 반드시 참'으로 설명되므로 모순이 있는 명제를 '함축'으로 이해했을 때 거짓이 된다. ⑤ 5문단에서 '설명적 연관'의 한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23 구체적 사례의 적절성 이해하기

정답 ①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73%	1%	19%	1%	2%
--------------	-----	----	-----	----	----

해설 | ㉗의 '동시에 참이 될 수도 없고 또 동시에 거짓이 될 수도 없는 명제들 간의 관계'는 '모순'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모순'은 ①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민수가 은주보다 키가 크다'는 것이 참이라면 '민수가 은주보다 키가 크지 않다'는 것이 참이 될 수 없다. 만약 '민수가 은주보다 키가 크다'는 것이 거짓(민수가 은주보다 키가 작거나 같은 경우)이라면 민수가 은주보다 키가 크지 않다는 것이 거짓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둘은 모순 관계가 된다. 따라서 ㉗의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임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 민수가 농구를 좋아하고, 또 농구보다 축구를 더 좋아하는 경우 두 명제는 동시에 참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그것은 민수에게 이익이다.'와 '그것은 민수에게 손해이다.'라는 두 명제가 동시에 참이 될 수는 없지만, 만약 이익도 손해도 아닌 경우라면 동시에 거짓이 될 수 있으므로 모순 관계로 볼 수는 없다. ④ '오늘은 화요일이 아니다.'와 '오늘은 수요일이 아니다.'라는 두 명제가 동시에 참이 될 수는 없지만, 만약 목요일이라면 두 명제가 동시에 거짓이 될 수 있으므로 모순 관계가 아니다. ⑤ '민수의 말이 옳다.'와 '은주의 말이 틀리다.'라는 두 명제는 동시에 참이 될 수 있고, 동시에 거짓이 될 수도 있으므로 모순 관계의 사례로 볼 수 없다.

24 추론의 적절성 평가하기

정답 ⑤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4%	1%	3%	12%	77%
--------------	----	----	----	-----	-----

해설 | 4문단에서 언급된 바에 따르면 함축 관계를 이루는 명제는 필연적으로 설명적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함축 관계를 이루는 명제들은 설명적 연관으로 이해했을 때 역시 참으로 추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보기>에 제시된 '우리 동네 전체가 정전되었다.'라는 명제와 함축 관계에 있는 '우리 집이 정전되었다.'라는 명제는 설명적 연관으로 이해했을 때 참인 명제로 추가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오답풀이 | '우리 동네에는 숲숨이 있다.'는 명제는 <보기>에 제시된 '우리 동네 전체가 정전되었다.'라는 명제와 전혀 관련 없지만, <보기> 명제와 모순이 없기 때문에 '정합적이다'를 '모순 없음'으로 이해했을 때는 참이 되므로 참인 명제에 추가할 수 있다. ② '우리 집은 '우리 동네'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우리 동네가 정전이 되면 우리 집도 반드시 정전이 된다. 그러므로 'A가 참일 때 B가 반드시 참이다.'라는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이해하면 <보기>의 명제가 참이라고 하였으므로, '우리 집이 정전이 되었다.'는 명제도 참이 되므로 적절하다. ③ 예비 전력이 부족하여 전력 공급이 중단되었다는 것은 우리 동네 전체가 정전이 된 이유를 그럴듯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정합적이다'를 설명적 연관으로 이해했을 때 참이 된다. ④ <보기>의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우리 동네에는 숲숨이 있다.'는 명제가 반드시 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합적이다'를 함축으로 이해했을 때는 이 명제를 참인 명제로 추가할 수 없다.

25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정답 ③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1%	1%	92%	1%	2%
--------------	----	----	-----	----	----

해설 | ㉘의 '해결하다'는 '제기된 문제를 잘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밝혀내다'는 '어떤 일의 원인이나 진상, 옳고 그름 등을 판단하여 드러냄'을 의미한다. 따라서 '밝혀내다'를 ㉘의 '해결하다' 대신에 바꾸어 쓰는 것은 문맥의 흐름이 어색하게 되므로 적절하지 않다.

[26~27] 독서~과학

지문 분석

「별의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

지문 해제 맨눈으로 본 별의 밝기인 '겉보기 등급'과 별의 실제 밝기인 '절대 등급'에 대해 설명한 글이다. 별의 겉보기 밝기는 지구에 도달하는 별빛의 양에 의해 결정되며,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에 입사하는 빛의 에너지 총량인 '복사 플럭스' 값이 클수록 별이 더 밝게 관측된다. 절대 등급은 어떤 별이 지구로부터 10파섹(약32.6광년)의 거리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의 겉보기 등급으로 정의하는데, 별의 실제 밝기는 별의 표면적이 클수록,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밝다. 또한 별의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뺀 값인 거리 지수가 큰 별일수록

지구에서 별까지의 거리가 멀다. 이처럼 별의 밝기는 별의 거리, 크기, 온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주제 별의 등급과 거리, 크기, 온도와와의 관계

어휘 풀이

- 개편 : 책이나 과정 따위를 고쳐 다시 엮다.
- 입사 : 하나의 매질(媒質) 속을 지나가는 소리나 빛의 파동이 다른 매질의 경계면에 이르는 일

26 세부 정보 파악하기

정답 ⑤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1%	2%	4%	4%	86%
--------------	----	----	----	----	-----

해설 | 1문단에 언급된 내용을 통해 ⑤는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별의 겉보기 등급은 가장 밝은 1등급부터 가장 어두운 6등급으로 나타내다가, 그 값이 확장되어 6등급보다 더 어두운 별은 6보다 더 큰 수로, 1등급보다 더 밝은 별은 1보다 작은 수로 나타내었다는 언급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한 등급 간에는 밝기가 약 2.5배 차이가 난다고 하였으므로 겉보기 등급이 마이너스(-)인 별과 겉보기 등급이 1인 별의 밝기는 2등급이 차이가 나므로 약 2.5²배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겉보기 등급이 -1인 별과 겉보기 등급이 1인 별의 밝기가 약 2.5배 차이가 난다'고 진술한 ⑤는 틀린 내용이다.

오답풀이 | 2문단에서 별의 복사 플럭스 값은 빛이 도달되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므로 별과의 거리가 멀수록 그 별이 더 어둡게 보인다는 언급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별빛이 도달되는 거리가 3배가 되면 복사 플럭스 값은 1/9배가 됨을 알 수 있다. ② 1문단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히파르코스는 맨눈으로 보이는 별의 밝기를 1등급부터 6등급으로 6개의 등급으로 구분하였는데, 이후 망원경이나 관측 기술의 발달로 1~6등급을 벗어나 그 값이 확장되었다고 했으므로, 망원경으로 관측한 별 중에 히파르코스의 등급 범위를 벗어난 것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3문단에서 절대 등급은 별이 지구로부터 10파섹 (약 32.6광년)의 거리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의 겉보기 등급으로 정의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같은 별은 지구에서 약 32.6광년 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4문단에서 어떤 별의 거리 지수가 0이면 지구와 그 별 사이의 거리가 10파섹임을 나타내고, 0보다 크면 10파섹보다 멀다고 언급되었다. 따라서 어떤 별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10파섹 미만이라면 그 별의 거리 지수는 0보다 작다고 할 수 있다.

27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 ③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5%	8%	64%	6%	15%
--------------	----	----	-----	----	-----

해설 | 3문단에 언급된 내용을 통해 볼 때, 별의 실제 밝기는 별이 매초 방출하는 에너지의 총량인 광도가 클수록 밝아지게 되며, 광도는 별의 반지름의 제곱과 별의 표면 온도의 네제곱에 비례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보기>에서 별 A의 반지름은 1, 표면 온도는 10이며, 별 B의 반지름은 0.1, 표면 온도는 10임을 고려할 때, 별 B의 광도는 반지름만 비교했을 때는 별 A의 1/100이지만 표면 온도를 비교하면 10000배가 되기 때문에 별 B가 별 A보다 별의 실제 밝기가 약 100배 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오답풀이 | 3문단에서 광도는 별의 반지름의 제곱과 별의 표면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한다는 언급을 확인할 수 있다. <보기>에서 별 A의 반지름은 1, 표면 온도는 1이고, 별 B의 반지름은 0.1, 표면 온도는 10이므로 별 A는 별 B보다 광도 값이 더 작다고 할 수 있다. ② 1문단에서 별의 등급은 밝은 별을 작은 수로 나타낸다고 하였고, 2문단에서는 '리겔'의 절대 등급이 -6.8 정도임을 확인할 수 있다. <보기>에서 별 A의 절대등급은 -1이므로, 별 A는 '리겔'보다 실제 밝기가 더 어두운 별임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4문단에서 거리지수가 큰 별일수록 지구에서 별까지의 거리가 멀다고 하였다. 따라서 거리 지수가 7인 별 B는 4문단에 있는 거리 지수가 5.6인 '북극성'보다 더 먼 거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북극성'이 지구에서 133파섹 떨어져 있다고 하였으므로 별 B는 지구에서 133파섹보다 더 먼 거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⑤ 1문단에서 지구에서 관측되는 별의 밝기를 겉보기 등급이라는 언급을 확인할 수 있다. 4문단에 따르면 '북극성'의 겉보기 등급은 2.0 정도인데, <보기>에서 별 B의 겉보기 등급은 10이므로 별 B는 지구에서 볼 때 '북극성'보다 더 밝게 보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28-30] 독서·사화

지문 분석

「인센티브 계약의 두 가지 방식」

지문 해제 기업이 근로자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으로서의 인센티브 계약을 명시적 계약과 암묵적 계약으로 나누어 설명한 글이다. 명시적 계약은 강제성이 있으며 객관적인 조건에 기초하는데, 이에 따라 기업이 고정급 이외의 추가적인 보상을 제공하더라도 기업의 이윤이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명시적 인센티브 계약은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하나는 근로자 소득의 불확실성 증가에 따라 기업의 부담이 추가될 수 있고, 그 결과 기업 이윤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인센티브 왜곡의 문제로 근로자가 보상 가능한 성과에만 집중하고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결과, 기업의 이윤은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암묵적 방식의 인센티브는 주관적인 평가로 이루어지고 장기적 이익과 신뢰의 상호관계를 기반으로 하는 특징이 있다.

주제 인센티브 계약의 두 가지 방식 - 명시적 계약과 암묵적 계약

어휘 풀이

- 상충 : 맞지 아니하고 서로 어긋남
- 완화 : 긴장된 상태나 급박한 것을 느슨하게 함
- 명시적 : 내용이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는, 또는 그런 것
- 암묵적 : 자기의 의사를 밖으로 나타내지 아니한, 또는 그런 것
- 인센티브 : 어떤 행동을 하도록 사람을 부추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극

28 세부 내용 이해하기

정답 ⑤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3%	3%	3%	87%
--------------	----	----	----	----	-----

해설 | 3문단의 “성과 측정이 어려워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는 업무를 근로자들이 등한시하게 되면 기업 전체의 성과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를 고려할 때,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서는 명시적인 인센티브가 효과적이라고 진술한 ⑤는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 1문단의 “기업과 근로자 간의 이해가 상충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근로자가 받는 보상에 근로자의 노력이 반영되도록 하는 약속이 인센티브 계약이다.”를 통해 기업과 근로자 사이의 이해 상충 문제가 근로자의 노력을 반영하는 보상으로써 완화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2문단의 “명시적 계약은 법원과 같은 제3자에 의해 강제되는 약속”이라는 점에서 명시적 인센티브 계약이 법의 보호 대상임을 알 수 있고, 3문단의 “명시적 인센티브 계약이 갖고 있는 두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α 가 커짐에 따라 기업의 이윤이 감소하기도 한다.”를 통해 명시적 인센티브 계약이 기업에 해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2문단의 “근로자의 노력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노력 대신에 노력의 결과인 성과에 기초하여 성과와 달리 노력 자체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4문단의 “합당한 성과 측정 지표를 찾기 힘들고 인센티브 왜곡의 문제가 중요한 경우에는 암묵적인 인센티브 계약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내용을 통해 주관적 평가에 기초한 암묵적 인센티브 계약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9 특정 정보의 이해와 적용하기

정답 ②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82%	2%	8%	4%
--------------	----	-----	----	----	----

해설 | 4문단의 “합당한 성과 측정 지표를 찾기 힘들고 인센티브 왜곡의 문제가 중요한 경우에는 암묵적인 인센티브 계약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를 통해 ‘암묵적 계약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조건에 기초한 약속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오답풀이 | 암묵적 계약은 법이 보호할 수 있는 계약을 실제로 맺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으므로 법원과 같은 제3자가 강제할 수 없는 약속이다. ③ 암묵적 계약은 상대방과 협력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익일 경우에 자발적으로 상대방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행동하는 것을 계약의 이행으로 본다는 점에서 적절하다. ④ 암묵적 계약은 상대방의 신뢰를 잃게 되면 그때부터 상대방의 자발적인 협력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적절하다. ⑤ 4문단의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의 기대를 저버림으로써 얻게 되는 단기적 이익이 크다고 생각하여 협력 관계를 끊더라도 법적으로 이를 못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암묵적 계약은 상대방의 기대를 저버림으로써 얻게 되는 단기적 이익이 작을수록 더 잘 지켜지는 약속임을 알 수 있다.

30 내용의 인과 관계 추론하기

정답 ①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92%	2%	2%	1%	1%
--------------	-----	----	----	----	----

해설 | <보기>의 ‘가’는 명시적인 인센티브 계약의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고 α 의 크기가 기업의 이윤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정리한 것이다. 이때의 α 의 크기가 갖는 효과는 2문단에 언급되어 있는데, “ α 를 늘리면 근로자의 노력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적인 성과가 더욱 늘어나, 추가적인 성과 가운데 많은 몫을 근로자에게 주더라도 기업의 이윤은 늘어난다.”를 고려할 때, ‘가’의 상황에서 α 가 커지면 기업의 이윤도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나’는 명시적인 인센티브 계약이 근로자의 소득을 불확실하게 만드는 상황에 해당한다. 3문단의 “소득이 불확실해지는 것을 근로자가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기업은 근로자에게 위험 프리미엄 성격의 추가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와, “ α 가 커지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보상이 늘어나 기업의 이윤이 줄기도 한다.”를 고려할 때, ‘나’의 상황에서는 α 가 커질 때 기업의 이윤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다’의 경우 “중요하지만 성과 측정이 어려워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는 업무를 근로자들이 등한시하게 되면 기업 전체의 성과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α 가 커지면 인센티브를 왜곡하는 문제가 악화되어 기업의 이윤이 줄기도 하는 것이다.”를 고려할 때, 인센티브 왜곡이 일어나는 ‘다’의 상황에서 α 가 커질수록 기업의 이윤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에는 ‘증가’, ㉡에는 ‘감소’, ㉢에는 ‘감소’가 들어가는 것이 옳바르다. 따라서 바로 짝이는 것은 ①이다.

[31-33] 문학~현대시

지문 분석

(가) 김광균 「와사등」

작품 감상 이 시에서 ‘와사등’은 아무 것도 믿고 의지할 수 없는 1930년대 일제 강점기의 어두운 현실 속에서 어디론가 떠나가야만 하는 현대인의 고독과 슬픔의 신호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떠남의 심상에는 도시적 상황 속에서의 현대인의 불안 의식이 나타나 있다. 1연에서는 물질문명 속에서 현대인의 갈 곳 모르는 슬픈 심정을 잘 그리고 있다. 2연에서는 현대인의 슬픈 심정의 근거를 제시하였다. 즉 개인적인 문제의 한계를 벗어나 시대적 상황으로 확대된 것이다. 특히, 제2연에서 파악되는 여러 가지 특성은 이 시가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 3연에서는 2연에서의 어둠의 정서를 이어받으면서 다시 개인의 문제로 축소되고 있다.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은 시각을 촉각으로 전이시킨 공감각적 심상이다. 4연에서는 현대 문명으로 인한 종말 의식을 갖고 살면서 느끼는 중압감, 그리고 존재로서의 실체를 상실해 버린 슬픔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5연은 1연의 반복인데, 다만 행의 배열만 바꾸어 놓고 있다. 이것은 등불의 이미지를 선명히 하려는 배려이며, 결국 현대인의 고독감과 비애를 실감나게 하는 효과가 있다.

주제 현대인의 고독과 불안 / 도시 문명에 대한 현대인의 절망과 비애

시구 풀이

- 비인 하늘 : 화자의 방향 상실감을 나타냄
- 내 호울로 어딜 가라는 슬픈 신호야 : 삭막한 도시 문명 속에서 갈 곳을 잃은 현대인들의 정신적 혼돈과 방황을 암시
- 황망 : 바빠서 어리둥절함
- 묘색 : 문명 비판적, 현대인의 종말감을 나타냄

(나) 박용래 「울타리 밖」

작품 감상 이 작품은 고향의 여름 풍경을 추억한 것으로, 여기에는 이상적 공간으로서의 고향이 잘 나타나 있다. 고향에는 소년과 소녀가 서로 낮이 설어도 그 낮설음의 거리를 좁혀줄 ‘사랑스러운 들길’이 있다. 그리고 2연에 나타나는 풍경은 희망과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며, 사물의 생명력이 순화되고 깨어나는 밝은 이미지이다. 하늘을 향해 피어오르는 아지랑이와 제비는 약동하는 생명의 활기찬 움직임을 나타내며, 상승의 작용을 통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고 있다. 또한 그곳은 ‘벌’의 이미지로 형상화된, 밤이나 낮에도 영원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행복의 내밀한 공간이다. 따라서 ‘마을은’ 작가가 돌아가고자 하는 전통적 세계라 할 수 있다.

주제 아름다운 자연과 인간이 조화된 이상적 공간에 대한 소망

시구 풀이

- 낮이 설어도 사랑스러운 들길에 있다 : 시골 들길에 대한 화자의 정서 표출
- 그 길에 ~ 물이 흐르듯 : 시각적 심상을 이용한 마을에 대한 비유
- 천연(天然)히 : 생긴 그대로 조금도 꾸밈이 없이

31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하기

정답 ③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1%	93%	1%	1%
--------------	----	----	-----	----	----

해설 | (가)는 현대 도시 문명이 가져다주는 삭막함과 무질서 속에 방황하며 살아가는 현대인의 정신적 방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늘어선 고층(高層)', '창백한 묘석(墓石)'으로, '찬란한 야경'을 '무성한 잡초'로 직유법을 활용하여 공간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나)는 고향의 여름 풍경을 회고한 것으로, 여기에는 이상적 공간으로서의 고향이 잘 나타나 있다. '아지랑이가 피듯 태양이 타듯/제비가 날 듯 길을 따라 물이 흐르듯'에서 보듯이 직유법을 활용하여 시적 공간인 고향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두 작품의 공통점으로는 ③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풀이 | (가)에서는 1연의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려 있다./ 내 호울로 어딜 가라는 슬픈 신호냐.'를 5연의 '내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 슬픈 신호기 /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리어 있다'에서 반복함으로써 수미상관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나)에는 수미상관의 방법이 드러나지 않는다. ② (가)의 경우 '내 호울로 어딜 가라는 슬픈 신호냐', '까닭도 없이 눈물겹고냐'를 영탄적 표현으로 볼 수 있지만 시적 대상인 '와사등'에 대한 경외감을 표출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나)의 경우 영탄적 표현이 드러나지 않는다. ④ (가)에서 '등불', '야경'과 '어둠' 등 밝음과 어둠을 드러내는 시어의 사용을 확인할 수 있지만 긍정적 미래의 도래를 암시하고 있지 않으며, (나)는 어둠과 밝음을 대조시키지 않았으며, 긍정적 미래의 도래를 암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가)의 경우 '내 호울로'에서 화자가 작품의 표면에 드러나긴 하지만 주제에 대한 공감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없다. (나)에는 화자가 작품의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다.

32 시구의 의미 파악하기

정답 ②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1%	92%	1%	3%	0%
--------------	----	-----	----	----	----

해설 | ㉠의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은 시각적 이미지인 '어둠'을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으로 공감각적 표현(시각의 촉각화)을 활용하였으나, 이는 화자가 느끼는 음습한 분위기를 표현함으로써 내면적 성찰이 없는 절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현실과 이상의 거리감을 좁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오답풀이 | ㉡ : 적막한 배경인 텅빈 하늘에 밝혀져 있는 차가운 가스등을 통해 방향을 상실한 화자의 내면 의식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뒤에 이어지는 '나 호울로'와 연결되어 화자가 쓸쓸한 처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 ㉣ : '갈—게 늘인 그림자'는 문장 부호 '—'를 사용하여 장음으로 읽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시어의 의미를 강조하고 낭송의 호흡을 조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 : 동일한 연결 어미 '-듯'을 반복함으로써 '아지랑이', '태양', '제비', '물' 등 다양한 소재들의 '천연'한 동질적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 ㉧ : 하나의 시어인 '천연히'를 독립된 연으로 구성하여 대상의 꾸밈이나 거짓이 없는 자연스러운 상태를 강조하고 있다.

33 작품 감상의 적절성 평가하기

정답 ②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77%	6%	4%	8%
--------------	----	-----	----	----	----

해설 | (가)는 회화적 이미지를 중심으로 도시적 삶의 고독과 삶의 비애감을 주관적인 감각 체험으로 묘사한 시로서 현대 문명 속에서의 삶이 지닌 균중 속에서의 고독과 비애, 그리고 뿌리 뽑힌 이방인적인 우수를 노래했는데, '늘어선 고층(高層) 창백한 묘석(墓石)같이', '찬란한 야경 무성한 잡초인 양', '공허한 균중의 행렬' 등을 통해 도시의 황폐함을 강조하고 있다. (나)는 고향의 풍경을 비유적 표현과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그리고 있는데, '아지랑이가 피듯 태양이 타듯/제비가 날 듯 길을 따라 물이 흐르듯'이 '천연'한 자연의 지속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가)에서는 시간의 순환적 흐름, 즉 시간이 주기적으로 자주 되풀이되는 현상이 드러나지 않으며, (나)에서는 시간의 순차적 흐름, 즉 시간이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이루어지는 현상은 드러나지 않으므로 ②의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 (가)는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려 있다.', '긴 여름해 황망히 나래를 접고', '늘어선 고층(高層)', '찬란한 야경' 등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도시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나)는 '아지랑이가 피듯 태양이 타듯 / 제비가 날 듯 길을 따라 물이 흐르듯', '울타리 밖에도 화초', '오래오래 잔광(殘光)이 부신', '별이 뜨는' 등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마을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 모두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회화성을 잘 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가)에서 화자는 현대 문명을 상징하는 '찬란한 야경'을 '무성한 잡초'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도시의 밤 경관을 '잡초'로 비유함으로써 도시 문명의 무질서를 나타낸 것이다. (나)에서 '화초'는 인간의 영역인 '울타리 안'과 자연의 영역인 '울타리 밖'을 이어주는 것이므로 인간과 자연의 조화에 대한 바람을 함축한다고 볼 수 있다. ④, ⑤ (가)에는 '슬픈', '낯설은', '무거운 비애' 등 감정을 노출하는 시어를 빈번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나)는 '마늘쫑', '울타리' 등 토속적 정취를 자아내는 시어를 활용하고 있다. 이를 <보기>와 결부시켜 해석하면 (가)는 현대 문명으로 인한 소외감을, (나)는 전통적 세계에 대한 지향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34-38] 문학~현대 소설

지문 분석

김정한 「모래톱 이야기」

작품 감상 이 작품은 해방 후 낙동강 유역의 조마이섬을 배경으로 권력과 유력자의 힘 앞에 무기력하게 희생되고 마는 섬사람들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작가는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의 편에서 그들의 보호받지 못하고 몰락해 가는 삶을 사실적으로 그려 내고 있다. 작중 화자인 '내'가 교원으로 있으면서 건우라는 학생 집을 방문하여 그의 할아버지로부터 들은 조마이섬에 얽힌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는 이 작품에서는 관(官)과 서민들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내'가 읽은 건우의 일기에는 6·25 때 죽은 그의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조국의 사랑을 한 번도 받아 본 적이 없어 전장에서 죽었고, 국군묘지에도 묻히지 못했고, 자기들에게 연금도 없다고 적혀 있다. 건우의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조마이섬에 얽힌 이야기들도 모두 나라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섬사람들의 삶에 관한 것이다. 원래는 섬사람들이 일구어 놓은 조마이섬이지만 일제 시대를 거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그네들의 소유로 해 보지 못한 이 땅에는 슬픔의 그림자만 있을 뿐이다. 섬사람들에게 닥치는 것은 자연 현상에서 오는 피해뿐만 아니었다. 정권에 유착하여 섬을 빼앗고자 하는 소위 유력자들의 악랄한 소행은 문둥이 들까지 동원하고 있다. 이는 민중의 삶을 직시하고자 하는 작가의 사실적 묘사라고 할 것이다. 작가의 치열한 역사 의식과 날카로운 비판 정신을 잘 보여 주는 이 작품은 토속적 어휘 구사 및 생생한 방언의 사용, 소외 계층의 삶에 대한 사실적이면서도 애정이 담긴 묘사, 현실의 모순에 대한 비판과 민중적 입장 등을 그 특징으로 한다.

주제 소외 지대 인간의 비극적 삶과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저항

어휘 풀이

- 악지 : 잘 안될 일을 무리하게 해내려는 고집
- 개탄조 : 분하거나 못마땅해하는 말투나 말씨
- 역둔토 : 역토(驛土)와 둔토(屯土)를 아울러 이르는 말
- 껍적한 : 사람의 목소리나 성질 따위가 역세고 거칠어서 부드러운 느낌이 없다

34 서술상 특징 이해하기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1%	2%	1%	92%	1%
--------------	----	----	----	-----	----

해설 | 서술자인 '나'는 농사짓치고는 유난히도 말끔한 집 안팎 광경들을 통해서 '건우 어머니'가 '꽤 부지런하고 친절한 여성'임을 짐작하고 있다. 또한 불가진 듯한 이마와 짙은 눈썹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건우 어머니'가 '의지나 정열을 지닌 인물'임을 헤아리고 있다. 따라서 [A]는 구체적 묘사와 서술자의 주관적 판단을 통해 인물의 성격이 제시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것은 ④이다.

오답풀이 | '건우'의 집 안팎의 광경은 '건우'와 '건우 어머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하지만, 작품 전체의 주제를 암시하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서술자인 '나'가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여 보고 느낀 것을 일상적 소재의 나열로 보기 어려우며, 서술자의 판단에 대해 복잡한 심리의 표출이라 보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③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이 제시되고 있지만 인물의 성격 변화

양상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⑤ 서술자가 학교에서 '건우'와 관련한 이전 경험을 떠올리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을 향후 전개될 사건의 단서 제공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5 작품의 내용 이해하기 정답 ②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1%	93%	1%	3%	1%
--------------	----	-----	----	----	----

| 해설 | '건우 어머니'는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어려운 상황에서도 '건우'의 입성이 깨끗할 정도로 부지런하고 '건우'가 공부를 잘해 '일류 중학'에 다닐 정도로 교육열이 높은 인물이다. 이를 바탕으로 '일류 중학'은 '건우 어머니'와 '건우'가 어려운 가정 형편 중에서도 이룩한 성취의 의미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을 '모자의 불화'나 '교육관의 차이'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은 ②이다.

| 오답풀이 | '건우 어머니'의 '손'이 '상일에 거칠어 있는 양'이라 묘사된 데서 고된 생활을 감당해 왔음을 엿볼 수 있다. ③ '책상'이 '사과 껍질 같은 것에 중이를 발라' 만든 것임을 볼 때, 넉넉하지 못한 '건우'네의 살림살이를 짐작할 수 있다. ④ '책 읽은 소감'은 '건우'가 읽은 「내가 본 국도」와 관련된 것으로, 선거 때가 되면 섬 주민들이 '지정해 주는 기호' 밑에 도장을 찍어 투표한다는 책의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볼 때, 정치 현실에 대한 '건우'의 관심을 엿볼 수 있다. ⑤ 선조 때부터 강물과 싸우며 '독'을 만들어 온 것이라는 '건우 할아버지'의 말을 통해 '독'은 조마이섬 사람들의 삶의 내력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6 다른 장르로의 재구성 이해하기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3%	3%	4%	84%	4%
--------------	----	----	----	-----	----

| 해설 | [B]를 각색한 <보기>의 시나리오를 살펴볼 때, S#98에서는 '손에 진 종이(토지 문서)'를 움켜쥐고 부르르 떠는 '건우 증조부'를, S#99에서는 '종이 조각(토지 문서)'을 들고 찾아 온 사람들에게 맞서고자 하는 '건우 할아버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모두 자신들의 땅으로 여겼던 조마이섬의 소유권이 부당하게 다른 곳으로 넘어간 데 대해 분노하고 있는 것인데, S#98~99에서 인물 간 갈등을 부각시키기 위해 조마이섬의 소유권 이전에 찬동하는 등장인물을 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S#98~99에서 '건우 선생님'과 '윤춘삼씨'는 '건우 할아버지'의 말에 동조하거나 경청하고 있는 중인데, 이 부분에서 인물 간의 갈등을 찾아볼 수 없으며 소유권 이전에 찬동하는 인물 또한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④이다.

| 오답풀이 | ① S#98 시작 부분에서 '길게 펼쳐진 조마이섬 모습'을 제시하기 위해 섬의 전체적인 지형을 카메라에 담는 E.L.S. 기법을 쓰고 있다. ② 일제 때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를 수탈한 사실이 [B]에서는 서술자의 생각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S#99에서는 등장인물들의 대사로 제시되어 있다. ③ S#99에서 내일까지 섬에서 나가라는 시커먼 농민의 요구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건우 할아버지'의 대사를 통해 관객들은 이후에 생길지 모를 갈등 상황에 대해 긴장감을 느낄 수 있다. ⑤ S#98에서는 '건우 증조부'가 '대명천지에 이럴 수는 없는 기대!'를 외치고, S#99에서는 '건우 할아버지'가 역시 같은 말을 외치며 자신들의 억울함을 표출하고 있다.

37 작품 감상의 적절한 평가하기 정답 ③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23%	63%	4%	6%
--------------	----	-----	-----	----	----

| 해설 | 본문의 (종략) 이후 부분에는 '건우 할아버지'와 '윤춘삼 씨'가 '나'에게 들려 준 이야기가 제시되어 있는데, 그 이야기가 '언젠가 건우가 써냈던 <섬 얘기>'에 몇 가지 일화가 붙은 것임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건우 할아버지'와 '윤춘삼 씨'가 해 준 이야기가 몇 일화를 제외하고 '건우'의 <섬 얘기>와 같다고 해서, '건우'의 글을 원천으로 삼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서술자가 '건우'의 선생님인 된 것을 계기로 해서 '조마이섬' 사람들을 만나고 아울러 '건우 할아버지'와 '윤춘삼 씨'로부터 '조마이섬'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고 해서, '건우'를 '저항적 주체들의 중심인물'로 삼았다고 보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 오답풀이 | ① <보기>에서 작가는 공동체의 고통에 대한 공감을 바탕으로 '나'의 이야기를 창조하였다는 언급을 확인할 수 있다. 본문에서도 '나'는 상대방의 말에서 연관된 역사적 사실을 떠올리거나, 그들의 분노를 이해하는 등 적극적이며 공감적인 태도로 그들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 ② '건우'가 쓴 <섬 얘기>가 땅의 소유권에 관한 어른들의 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으로 볼 때, '건우'는 자신의 글로써 섬의 억울한 현실을 기록하고 증언하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④ '기막히는 일화'는 현실의 부조리한 일화를 의미하며, '나'의 이야기에서 그런 '기막히는 일화'를 다루는 것

은 현실의 부조리한 실상을 드러내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 ⑤ <보기>에서 언급된 권력의 횡포에 의해 '뿌리 뽑힌 사람들', 본문에서 힘 있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땅을 빼앗긴 섬 사람들로 형상화되었으므로, 이를 통해 작가가 권력의 횡포를 비판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38 한자 성어 이해하기 정답 ①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94%	1%	0%	2%	0%
--------------	-----	----	----	----	----

| 해설 | '각골통한(刻骨痛恨)'은 '뼈에 사무칠 만큼 원통하고 한스러움'을 나타내는 말로 ㉠의 상황을 표현하는 말로 가장 적절하다.

| 오답풀이 | ② 노심초사(勞心焦思) : 몹시 마음을 쓰며 애를 태움 ③ 전전반측(顛轉反側) : 누워서 몸을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함 ④ 풍수지탄(風樹之嘆) : 효도를 다하지 못한 채 어버이를 여인 자식의 슬픔을 이름 ⑤ 후회막급(後悔莫及) : 이미 잘못된 뒤에 아무리 후회하여도 다시 어찌할 수가 없음을 이름

[39-42] 문학~고전 소설

지문 분석

작자 미상 '임경업전'

작품 감상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활약했던 조선 인조 때의 명장 임경업의 일생을 그린 역사 군담 소설로 호국에 대한 적개심과 집권층에 대한 분노를 형상화하고 있다. 몇 가지 허구화된 내용만 제외한다면 주인공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기술하고 있다.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고 경제적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제하여야 할 사대부 관료들이 난국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권모술수와 자신의 영달에만 골몰하던 상황을 배경으로, 이들에 대한 분노와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으며, 명나라에 대한 충성과 청나라에 대한 적개심, 남한산성에서 굴욕적인 항복에 대한 정신적 보복을 주제로 삼고 있다.

주제 임경업의 비극적 일생과 호국에 대한 정신적 승리감

어휘 풀이

- 종사 : 종묘와 사직이라는 뜻으로, '나라'를 이르는 말
- 역신 : 임금을 반역한 신하
- 충절 : 충성스러운 절개
- 천하절색 : 세상에 드문 아주 뛰어난 미인

39 작품의 내용 이해하기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2%	8%	81%	4%
--------------	----	----	----	-----	----

| 해설 | 임경업의 충절과 강직함에 감동한 호왕의 배려로 세자와 대군은 이미 귀국한 상태이다. 또한 '경업이 돌아오면 나의 계교를 이루지 못하리라.'는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감자점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임경업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따라서 ④의 이해는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오답풀이 | ① 호왕이 '각각 소원을 말하면 내가 정을 표하리라.'라고 말한 부분과 이에 대해 '대군은 조선에서 잡혀 온 인물을 청하여 어서 돌아가기를 원하니'라는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호왕이 '장군이 내게는 역신이나 조선에는 충신이라'고 말한 부분과 '큰 잔치를 벌여 대접하고 예물을 갖추어 보낼새'라는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호왕의 여러 신하들이 '보내어도 해로움이 없사오니, 의로써 보내면 조선이 또한 의로써 섬길 것이니 보낼이 마땅하니이다.'라고 말한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너희는 무사히 돌아왔거니와, 경업은 언제나 오리오." 하시고 탄식하시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0 사건의 특징 이해하기 정답 ⑤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5%	1%	2%	3%	86%
--------------	----	----	----	----	-----

| 해설 | '임경업 부마 삼기' 사건은 호왕의 호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임경업은 재삼 권유받고 이를 거절하고 있는데, 이는 이전 임경업의 소원대로 세자와 대군을 귀국시켜 주는 장면과 결부되어 사건 전개의 연속성을 강화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것은 ⑤이다.

| 오답풀이 | ① '임경업 부마 삼기'가 성사되었다면 임경업은 계속 청나라에 머물러

야 한다. 오히려 이 사건이 실패함으로써 공간적 배경이 청나라에서 조선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따라서 조선에서 청나라로 공간적 배경이 전환될 계기가 무산되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공주가 관상 보기를 잘하여 경업의 관상 보기를 청하거늘'을 통해 호왕의 제의에 공주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경업이 부마에 뽀뽀까 두려워하여'와 '경업이 죽기로써 쫓지 아니하니'에서 알 수 있듯이 임경업은 부마가 되는 것을 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임경업이 공주의 외모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공주는 임경업과 혼인시키 고자 하는 호왕의 제의에 임경업의 관상 보기를 청하며 임경업의 비범함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 여부와 관계없이 임경업과 공주의 혼사가 왕실 내부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41 구절의 의미 파악하기 정답 ⑤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5%	6%	5%	7%	75%
--------------	----	----	----	----	-----

|해설| ㉠이 호왕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며 죽음을 불사하는 행동임에 비해 ㉡은 '죽기로써 쫓지 아니하니'와 '경업이 돌아감을 청하니'에서 알 수 있듯이 역류를 의도한 것이 아니라 조선으로 돌아가고 싶은 내심이 담긴 말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오답풀이| ① ㉠은 "항복하면 왕을 봉하리라."는 회유에 대응하는 말이고, ㉡은 "부마가 되어 부귀를 누리며 어찌하노?"라는 권유에 대해 반응하는 말이다. ② ㉠은 "내 어찌 목숨을 위하여 네게 항복하리오."를 통해 충신의 도리를, ㉡은 "조강지처가 있사오니"를 통해 남편의 도리를 지키고자 함을 알 수 있다. ③ ㉠은 "병자년에 우리 주상께서 종사를 위하여 네게 항복하여 계시거니와~"에서 알 수 있듯이 과거의 사건을, ㉡은 "하물며 조강지처가 있사오니"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은 이미 결혼한 사람이라는 현재의 처지를 밝혀 제안을 거절하고 있다. ④ ㉠은 호왕에게 "네게 항복하리오."라고 말할 때에서 알 수 있듯이 상대방에 대해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으며, ㉡은 "지극히 황궁하며"와 "존명"에서 알 수 있듯이 상대의 권위를 인정하며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2 반응의 적절성 평가하기 정답 ②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3%	66%	9%	13%	7%
--------------	----	-----	----	-----	----

|해설| <보기>에서는 실감나는 낭독은 청중에게 작중 인물이 직접 말하는 것 같은 극적 환상을 일으키며, 인물의 심리가 즉각 전달되고 사건은 보다 생생해진다는 효과를 언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중은 낭독자의 안내에 따라 작품을 수용하고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키우게 된다는 것이다. <보기>의 내용을 참고할 때, 작품 속의 의주 백성들은 임경업이 칼을 쓰고 잡혀가는 것이 무슨 연고인 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임경업전이 창작되어 항유되던 시대의 사람들이 청중은 청에 대한 적대감과 임경업에 대한 호모 의식을 공유하고 있고 작품 내용 전반의 정보를 알고 있으므로 청중이 무슨 연고로 임경업이 잡혀가는지 모른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②이다.

|오답풀이| ① <보기>에서 실감나는 낭독을 통해 작중 인물의 심리가 즉각 전달된다고 하였으므로, 청중이 적국의 왕을 꾸짖는 임경업의 심리를 느끼면서 통쾌함을 느낄 것이다. ③ <보기>에서 실감나는 낭독은 작중 상황을 생생하게 느끼게 한다고 하였으므로, 청중은 '세자'에 대한 '주상'의 분노를 생생하게 느낄 것이다. ④ <보기>에서 실감나는 낭독은 작중 인물이 청중에게 직접 말하는 것 같은 극적 환상을 일으킨다고 하였으므로, '사자'의 말을 직접 듣는 듯한 환상을 느낄 것이다. ⑤ <보기>에서 실감나는 낭독은 청중으로 하여금 작품을 수용하고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키우게 한다고 하였으므로, 청중이 충신을 제거하려는 간신배가 존재하는 현실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43-45] 문학~고전 시가

지문 분석

이항 「도산십이곡」
작품 감상 이 작품은 작자가 만년에 학문에 정진하면서 자신의 삶의 태도를 노래한 작품이다. 모두 12곡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6곡과 후6곡으로 나누어져 있다. 전6곡은 '언지', 후6곡은 '언학'인데, 전6곡이 자연에 동화된 생활의 감흥을 노래하고 있다면, 후6곡은 학문 수양에 임하는 심경을 노래하였다.

주제 전 6곡(제시문 부분) : 자연 속에 묻혀 살고 싶은 소망 후 6곡 : 학문 수양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

시구 풀이

- 초야우생 : 시골에 묻혀 사는 어리석은 사람
- 천석고황 : 자연을 버리고는 살 수 없는 마음
- 연하 : 안개와 날
- 사시가흥 : 사계절의 아름다운 흥취
- 어약연비 : 물고기가 뛰고 솔개가 날며

43 작품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정답 ③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7%	10%	67%	9%	4%
--------------	----	-----	-----	----	----

|해설| 제3수에서는 순풍과 인성이 살아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시적 대상은 '순풍'과 '인성'으로 표현된 세상의 순박한 풍습과 사람들의 어진 품성이다. 반면에 제4수에서는 비록 자연 속에 묻혀 세상을 잊은 듯 하지만 연군의 정은 버릴 수 없다는 유교적인 충의 사상을 반영하고 있다. 자연에 몰입하면서도 완전한 자연 귀의를 이루지 못하는 유학자적인 충의 사상을 엿볼 수 있는 것으로, 시적 화자에게 즐거움을 느끼게 해 주는 자연인 '유란', '백운', 그리고 그리운 임금이 시적 대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제3수의 시적 대상을 제4수에서도 반복적으로 다룬다는 ③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제1수는 자연에 묻혀 한가로이 사는 생활을 그린 부분으로, 세상의 명리를 떠나 늘 마음으로 그리던 초야에 묻혀 사는 사람이, 무엇을 그리 탐낼 것도 없고 연연해 할 것도 없이 자연과 한가지로 지낸들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고 노래하고 있다. '초야우생(시골에 묻혀 사는 어리석은 사람)'과 '천석고황(자연 속에 살고 싶은 간절할 마음 때문에 생긴 깊은 병)'이 서로 연관을 가지면서 스스로는 자연에 대한 사랑이 너무 깊어 이미 고질병이 되어 버린 사람으로 규정하여 지극한 자연에 사랑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전 6곡의 주제인 '자연 속에 묻혀 살고 싶은 소망'을 환기하고 있다. ② 제2수에서는 자연을 벗 삼아 태평성대 속에서 한가롭게 살아가면서 허물이나 없기를 바라는, 화자가 자신의 삶에서 바라는 개인적인 소망에 화자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이런 화자 자신에 대한 관심이 제3수에서는 세상의 순박한 풍습과 사람들의 어진 품성을 강조하며 사회로 확대되고 있다. ④ 제4수에서는 끝자리에 있는 '유란'과 산에 있는 '백운'을 통해, 제5수에서는 산 앞에 있는 높은 대(臺)와 그 대 아래 흘러가는 물, 그리고 떼 지어 오락가락 날아다니는 갈매기를 통해 화자가 머물며 바라보는 공간을 입체적으로 표현하면서 자연에서 느끼는 감흥을 심화시키고 있다. ⑤ 제6수에서는 한없이 아름답고 끝없이 흥겨운 대자연의 조화를 만끽하고자 하는 감흥이 초장에서는 봄과 가을의 한 계절씩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것이 중장에서는 일 년 사계절로, 종장에서는 영원한 것으로 시간이 점층적으로 확대되어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점층적인 표현을 통해 자연 속에 묻혀서 살고 싶어 하는 자연 친화적인 삶의 추구라는 전 6곡의 주제 의식이 집약되고 있다.

44 구절의 의미 파악하기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5%	10%	75%	5%
--------------	----	----	-----	-----	----

|해설| 제5수에서 화자는 글이나 좀 읽고 수양을 쌓았다는 자들이 입신양명에만 눈이 어두워 아름다운 자연을 등지는 안타까운 현실을 개탄하고 있다. '갈매기'는 자연 풍경을 구성하고 있는 한 대상으로, 자연에 동화되어 살고자 하는 화자의 심정이 투영되어 있다. 하지만 현자를 뜻하는 '교교백구'는 여기서는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지 못하고 세속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교교백구'는 화자가 지향하는 삶과 반대되는 삶을 지향하는 사람으로 이해할 때, 화자의 무심한 심정이 투영된 대상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④이다.

|오답풀이| ① '연하'는 '안개와 노을', '풍월'은 '바람과 달'을 뜻하는 말로 멋진 자연의 풍치를 의미한다. '연하'와 '풍월' 모두 화자가 동화되고자 하는 자연으로서 화자에게 자신의 삶에 대해 자족감을 갖도록 하는 소재이다. ② '순풍'은 '세상의 순박한 풍속', '인성'은 '사람들의 어진 품성'을 나타내는 말로 순박하고 후덕한 풍습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화자가 바라는 세상의 모습을 말해 준다. ③ '유란'은 '그윽한 난', '백운'은 '흰 눈'을 뜻하는데 인간의 영욕성쇠로 점철된 속세와는 무관한 것들로 탈속의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는 작자 자신이 속세를 잊고 완전히 자연에 몰입해 있음을 나타낸 것이므로 적절한 이해이다. ⑤ '화만산'은 '산에 가득한 꽃', '월만대'는 '대에 가득한 달빛'을 뜻한다. 꽃과 달빛은 모두 화자 자신이 벗이 되어 즐거움을 느끼고자 하는 대상인데, 이를 통해 대자연의 웅대함에 도취된 화자의 충만감을 엿볼 수 있다.

45 작품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 파악하기

정답 ③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6% 7% 76% 5% 4%

| 해설 | ‘도산십이곡’은 제4수의 임금을 잊지 못하는 마음을 표현한 부분에서 유교적 가치를 존중하는 화자의 자세를 엿볼 수 있다. 또한 작품 전체를 통해 한 개인으로서 자연과 벗하여 살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보기>는 ‘성군의 가르침을 노래하리라’는 부분에서 유교적 가치를 존중하는 화자의 자세를 엿볼 수 있으며, 3문단의 ‘전원의 즐거움을 얻게 되면 세상일 다 팽개치고 고향으로 돌아가 태평성세의 농사짓는 늙은이가 되리라.’에서 전원의 별장과 고향에서 즐거운 삶을 누리하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감상한 내용으로는 ③이 가장 적절하다.

| 오답풀이 | ① ‘도산십이곡’과 <보기>의 글 모두 자연과 함께하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이 드러나 있는데, 이는 지배층의 핍박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연에서 사는 삶이 즐겁고 만족감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② ‘도산십이곡’의 화자는 현재 머물고 있는 자연 속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있으며 계속해서 이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다. <보기>의 화자는 이미 부친에게서 별장을 물려받았으며 자연 속에 위치한 이 집에서 전원의 즐거움을 얻게 되기를 바라고 있다. 따라서 두 화자 모두 불우한 처지에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④ ‘도산십이곡’의 화자는 초야시골의 자연 속에서 느끼는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 어떤 삶의 물질적 여건이 필요함을 상정한다거나 강조하고 있지 않다. ⑤ ‘도산십이곡’의 화자는 속세가 아니라 자연 속에 있다. <보기>의 화자는 현재 속세에 살고 있는데, 전원에 있는 별장에서의 삶을 통해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지으며 살기를 소망하고 있으므로 속세를 그리워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개치동기출

고득점을 기원합니다.

| 등급컷

등급	1	2	3	4	5	6	7	8
원점수	95	90	82	72	60	46	30	20
나의 점수	[] 점				[] 등급			

| 오답률 Best 5

순위	1	2	3	4	5
번호	37	14	27	13	42
오답률(%)	37	37	36	34	34

정답과 해설					본문 113~129페이지
1 ①	2 ②	3 ⑤	4 ⑤	5 ④	
6 ④	7 ③	8 ③	9 ⑤	10 ③	
11 ②	12 ②	13 ③	14 ①	15 ⑤	
16 ③	17 ④	18 ④	19 ④	20 ③	
21 ④	22 ③	23 ④	24 ⑤	25 ①	
26 ⑤	27 ④	28 ④	29 ④	30 ②	
31 ⑤	32 ②	33 ⑤	34 ④	35 ⑤	
36 ①	37 ⑤	38 ⑤	39 ②	40 ⑤	
41 ⑤	42 ①	43 ①	44 ④	45 ①	

[1-5] 화법

1 말하기 방식 이해하기 정답 ①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95%	1%	1%	1%	0%
--------------	-----	----	----	----	----

해설 강연자는 ‘꽃을 먹는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재스민 차 드셔 본 분은요’, ‘혹시 꽃을 넣은 전통 음식을 먹어 본 학생이 있으면 손을 들어 볼까요’라고 청중들에게 질문하며 그들의 경험을 이끌어 내고 있으며 이를 자신의 강연 내용과 연결 짓고 있으므로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이다.

오답풀이 ② 강연자는 강연 중 자신이 말한 내용을 요약하고 있지 않다. ③ 강연자는 식용 꽃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④ 강연자는 강연을 시작할 때 ‘요리 연구가 ○○○입니다.’라고 소개했을 뿐, 자신의 과거 경력에 대해 말하고 있지 않다. ⑤ 강연자는 자신의 강연 진행 순서에 대해 안내하고 있지 않다.

2 핵심 내용 이해하기 정답 ②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90%	4%	1%	1%
--------------	----	-----	----	----	----

해설 강연자는 ‘철쭉꽃은 화전 재료로 쓰이는 진달래꽃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독성이 있으니까요.’라고 말하며 철쭉이 진달래꽃과 달리 독성을 가지고 있음을 언급했을 뿐, 이 둘 사이의 형태적 차이점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다. 또한 ㉠에서 강연을 들은 학생은 자신이 들은 내용과 사실의 부합 여부를 점검하고 있지 않고 단지 궁금한 점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②이다.

오답풀이 ① ㉠에서 궁금해 하던 두 가지 내용에 대해 강연에서 언급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한 것이 ㉡이다. 즉 ㉡에서 식용이 가능한 꽃의 목록과 이를 재료로 한 음식의 종류를 정리하고 있다. ③ 강연자는 식용 꽃과 관련하여 학교 화단의 꽃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강연을 들은 학생은 꽃에는 농약이나 오염 물질이 묻어 있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는 강연의 내용을 화단의 꽃에 적용하고 있다. ④ 동아리 행사를 무엇으로 할지 결정하지 못해 걱정하고 있던 학생이 강연의 내용을 활용하여 ‘꽃을 재료로 한 음식 만들기’라는 해결책을 떠올렸다. ⑤ ㉡에서 학생은 꽃을 재료로 한 음식과 관련하여 꽃들을 식용 가능 범주와 식용 불가 범주로 분류하고 있다.

3 핵심 내용 이해하기 정답 ⑤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1%	2%	1%	91%
--------------	----	----	----	----	-----

해설 연설 마무리 부분에 대한 내용은 ‘연설 마지막엔 친구들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마무리하자.’라는 의견을 제시한 학생 2의 네 번째 발언에서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마무리 부분에서 활용할 비언어적 표현 방법이 논의되고 있다는 ⑤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학생 1의 첫 번째 발언에서 ‘친구들의 특성을 감안해야’ 함을 언급하고 있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학생 1의 첫 번째 발언에서 ‘연설 장소가 넓은 강당’이라는 점이 고려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적절한 근거와 그 제시 순서에 대해 논의해 보자.’라는 사회자의 두 번째 발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제시된 토의 내용 대부분이 연설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방법 모색과 관련되어 있다. 즉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한 방법, 주장을 뒷받침하는 적절한 근거 찾기와 제시 순서 정하기,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보도 자료, 법 조항, 통계 자료 등)에 대한 언급 등이 모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4 참여자들의 태도 이해하기 정답 ⑤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2%	2%	6%	85%
--------------	----	----	----	----	-----

해설 학생 3은 학생 2의 의견에 대해 ‘친구들에게 경각심을 준다’는 점에서 좋은 근거라고 생각해, ‘라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 3이 학생 2의 발언에 대해 경각심 유발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것은 ⑤이다.

오답풀이 ① 학생 1은 ‘연설 주제에 적합한 시를 낭송’하여 친구들의 주의를 집중시키자는 학생 3의 의견에 대해 도움이 되겠다며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② 학생 2는 학생 1이 제안한 ‘인기 가요를 틀어 친구들의 주의를 끄는’ 방식에 대해 다른 친구들이 여러 번 쓴 방법이라서 친구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며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③ 학생 3은 ‘가볍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시작하자는 학생 2의 제안에 대해 연설 주제를 고려할 때 적합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④ 학생 2는 ‘피해자가 겪는 고통을 핵심 근거로 제시하자.’는 학생 1의 발언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

5 핵심 내용 이해하기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5%	1%	3%	85%	3%
--------------	----	----	----	-----	----

해설 학생들의 발언 중 사이버 언어폭력 가해자가 늘어날수록 가해자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사이버 언어폭력을 저지른다는 내용은 없다. 따라서 이를 합의된 토의 내용으로 볼 수 없다. 정답은 ④이다.

오답풀이 ① 학생 2의 세 번째 발언 내용으로 학생 1, 학생 3 모두 동의하고 있다. ② 학생 3의 첫 번째 발언 내용으로 학생 1, 학생 2 모두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③ 학생 1의 세 번째 발언 내용으로 학생 2, 학생 3 모두 동의하고 있다. ⑤ 학생 3의 두 번째 발언 내용으로 학생 1, 학생 2 모두 동의하고 있다.

[6-10] 작문

6 작문 계획에 맞는 글쓰기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3%	4%	1%	87%	2%
--------------	----	----	----	-----	----

해설 <초고>는 <교지 편집부의 요청 내용>을 반영하여 농업 발전을 위한 정보통신 기술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그러나 그와 관련된 정책이나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④이다.

오답풀이 ① 3문단 마지막 문장의 ‘도시 곳곳의 고층 건물에서 층마다 농산물을 재배하는 모습을 영화가 아닌 현실에서 보게 될 것’이라는 내용은 ㉡에 해당한다. ② 1문단 둘째 문장의 ‘농업은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가장 기본적인 산업’이라는 내용은 ㉢에 해당한다. ③ 2문단과 3문단은 각각 농업에 도입될 ‘빅데이터 활용 기술’과 ‘환경 제어 기술’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에 해당한다. ⑤ 2문단의 둘째 문장과 셋째 문장, 3문단의 둘째 문장에서 현재 농업의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2문단의 넷째 문장, 3문단의 둘째, 셋째 문장에서 그 문제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해결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에 해당한다.

7 자료 활용하기

정답 ③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5%	84%	3%	3%
--------------	----	----	-----	----	----

해설 | <초고>에는 미래 식량 위기 예측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 또한 [B]에서 식물 공장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장소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고 공간이 한정된 도시에서도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다는 내용이 진술되어 있을 뿐, 식물 공장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③이다.

오답풀이 | ① [A]의 마지막 문장은 ㉠의 정보와 관련되어 있으며, 정보 통신 기술 도입의 긍정적 사례에 해당한다. ② ㉡의 현상은 모두 기상 상태와 관련된 피해 들인데, [A]의 둘째 문장에서 '기상 상태' 등으로 인한 피해가 생산량 예측과 조절에 어렵게 하는 원인임이 언급되어 있다. ④ [B]의 셋째 문장에서 언급한 '고층 건물 형태'는 ㉢의 실현 가능한 모습에 해당하는 식물 공장 형태이다. ⑤ [B]의 둘째 문장 중 '온도와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 빛의 양'은 ㉢의 요소에 해당하며, 이를 '자동으로 조절해 주는 시설'에 대해 언급하여 ㉢을 식물 공장의 시설에 대한 정보 제시에 활용하고 있다.

8 고쳐 쓰기

정답 ③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7%	84%	4%	1%
--------------	----	----	-----	----	----

해설 | 초고의 마지막 문단 둘째 문장은 '어업과 같은 전통적인 산업'에 대해 언급하고 있어 글의 통일성에 어긋나 있으나, 고쳐 쓴 글의 둘째 문장은 그 문장을 대신하여 농업 분야 정보 통신 기술 도입에 대한 기대가 실현되기 위해 해결할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여 글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글의 흐름에 어긋나는 문장'이 검토 의견으로 제시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문제점에 대한 내용이 추가된 것을 통해 '미래를 낙관적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 의견이 제시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으므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이다.

오답풀이 | 고쳐 쓴 글과 비교할 때 초고의 마지막 문단에서 달라진 문장은 둘째 문장이다. 이는 수식 관계가 어긋나거나 주술 호응이 어긋나는 문장이 아니므로 ①, ④, ⑤의 첫째 항목은 검토 의견으로 보기에 적절하지 않다. 고쳐 쓴 글에는 농업 분야 정보 통신 기술 도입에 대한 기대가 실현되기 위해 해결할 문제점이 추가되어 있으므로 ①, ②, ⑤의 둘째 항목은 검토 의견으로 보기에 적절하지 않다.

9 과제에 따른 글쓰기 전략 파악하기

정답 ⑤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5%	1%	3%	2%	86%
--------------	----	----	----	----	-----

해설 | [A]의 2문단에 자신과 친동생이 의사소통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언급되어 있으나,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되었는지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B]의 2문단에 친구 간의 의사소통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언급되어 있으나, 문제 해결 사례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⑤이다.

오답풀이 | ① [A]의 1문단에서 '상담 선생님을 찾아보았을 때의 상황'을 떠올린 것과, [B]의 1문단에서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책'을 떠올리고 있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A]의 2문단에서 자신이 '친동생'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언급한 것과, [B]의 2문단에서 '친구 간에 말 몇 마디 주고받지도 않고' 마음을 담아 오해나 갈등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언급한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A]의 1문단 둘째 문장과 셋째 문장에서 '상담 선생님'께서 '복재비'의 역할을 하듯 자신을 도와주신다는 내용을 언급한 것과, [B]의 1문단 둘째 문장과 셋째 문장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꾸준한 대화를 통해 교감하려는 태도가 필요함을 제시한 후에 이를 '소리꾼'과 '복재비'가 '완벽한 호흡'을 위해 '오랜 시간 함께하며 교감하는 것과 같다'고 언급한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A]의 2문단에서 친동생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를 돌아보며 '나는 그런 태도가 부족해 부끄럽다.'라고 언급한 것과, [B]의 2문단 둘째 문장에서 '나 역시 그런 경우가 있어 부끄럽다.'라고 언급한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0 조건에 맞는 글쓰기

정답 ③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2%	91%	1%	2%
--------------	----	----	-----	----	----

해설 | ③의 첫 문장에서 '대화'를 '열쇠'라고 표현하여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다음 문장에서 '대화를 지속적으로 나누며 교감해 나간다면'은 '㉠에 대하여 (나)에 언급된 핵심 내용'을 제시한 것에 해당하며, '데면데면하던 사이도 언젠가는 마음이 통하는 사이가 될 것'은 '이를 실천할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제시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것은 ③이다.

오답풀이 | ① 첫 문장에서 '좋은 친구'를 '등불'에 비유하고 다음 문장에서 비유의 의도가 제시되어 첫째 조건은 충족하고 있으나, 둘째 조건에 해당하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② 둘째 문장에서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면'은 '㉠에 대하여 (나)에 언급된 핵심 내용'에 해당하며,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할 것'은 '이를 실천할 때 얻을 수 있는 효과'에 해당하므로 둘째 조건을 충족하였으나 비유적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④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기더라도 그것을 해결하려 노력한다면'은 '㉡에 대하여 (나)에 언급된 핵심 내용'을 제시한 것에 해당하며,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은 '이를 실천할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제시한 것에 해당하므로 둘째 조건은 충족하고 있으나 비유적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⑤ 첫 문장의 '지름길'은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을 의미하는 비유적 표현에 해당하나, 둘째 문장에서 '먼저 다가서려 하기보다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기다린다면'은 (나)에 언급된 핵심 내용'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둘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표현이다.

[11-15] 문법

11 합성어와 파생어 구분하기

정답 ②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18%	57%	7%	11%	6%
--------------	-----	-----	----	-----	----

해설 | 이 글에 따르면, 직접 구성 요소로 분석되는 말이 실제로 존재해야 하고 직접 구성 요소들과 그 전체 구성의 의미가 서로 통해야 한다. '눈웃음'은 직접 구성 요소로 나누면 '눈+웃음'이 된다. 3문단에서 직접 구성 요소로 분석되는 말이 실제로 존재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눈웃다'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눈웃+--음'으로는 분석할 수 없다. '웃음'은 '웃+--음'으로 구성된 파생어이다. '-음'이 명사 파생 접미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눈웃음'은 그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인 '웃음'이 파생어인 합성어이다. 따라서 이해로 적절한 것은 ②이다.

오답풀이 | ① '나들이웃'은 '나들이+웃'로 분석되는 합성어이다. '나들이'는 '나들+--이(접미사)'로 분석되는 파생어이다. 그러므로 '나들이웃'은 그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파생어인 합성어이다. ③ '드높이(다)'는 '드높+--이'로 분석된다. 그러므로 파생어이다. '드높'은 '드-(접두사)+높'으로 분석되는 파생어이다. 그러므로 '드높이다'는 그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파생어인 파생어이다. ④ '집집이'는 '집집+--이(접미사)'로 분석되는 파생어이다. '집집'은 '집+집'으로 분석되는 합성어이다. 그러므로 '집집이'는 그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합성어인 파생어이다. ⑤ '놀이터'는 '놀이+터'로 분석되는 합성어이다. '놀이'는 '놀+--이(접미사)'로 분석되는 파생어이다. 그러므로 '놀이터'는 그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파생어인 합성어이다.

12 문장의 구조 분석하기

정답 ②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6%	64%	7%	19%	2%
--------------	----	-----	----	-----	----

해설 | 이 글의 4문단에서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혹은 서술어를 포함한 주어 이외의 부분)로 직접 구성 요소를 분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의 서술어는 '들었다'이다. '소포가'는 '들었다'의 주어가 될 수 없으므로, 직접 구성 요소를 '소포가'와 '도착했다고 들었다'로 나눌 수 없고, '들었다'의 주어가 생략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즉 ㉠은 "(언니는/민수는/...) 소포가 도착했다고 들었다."와 같은 문장에서 () 부분을 생략한 것이다. 그러므로 ㉠은 '소포가 도착했다고'와 '들었다'로 분석되어야 한다. '소포가 도착했다고'는 인용절로 안긴 절이다. 따라서 분석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②이다.

오답풀이 | ① ㉡은 문장 전체의 주어 '지희는'과 서술절 서술어 '목소리가 곱다'로 이루어진 서술절을 안은 문장이므로 올바른 분석이다. ③ ㉢은 주어 '동수기'와 서술어를 포함한 나머지 부분 '미애에게 선물을 주었다'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④ ㉣은 서술어가 '밝혀졌다'이고 주어는 '그가 익명의 기부자임'이다. ⑤ ㉤의 서술어는 '명언이다'이고 주어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말'이다. 참고로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은 '말'을 꾸며 주는 관형사절이다.

13 어미의 올바른 사용 이해하기

정답 ③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4%	7%	61%	8%	17%
--------------	----	----	-----	----	-----

해설 | '-겠-'은 주체의 의지를 나타내는 기능과 화자의 추측을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에서의 '-겠-'은 주체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추측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2인칭, 3인칭 인물의 의지는 화자가 알 수 없으므로 주체의 의지

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고, 과거 일에 대해서는 주체의 의지를 말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가령 “나는 집에 가겠다.”는 미래의 일이므로 주체의 의지를 나타낼 수 있으나 “나는 집에 갔겠다.”는 과거의 일이므로 주체의 의지를 나타낼 수 없다. 따라서 ㉠의 ‘-겠-’은 주체의 의지를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은 ㉢이다.

|오답풀이| ① 심었구나의 -었-은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이고 -구나는 어말 어미 중 감탄형 종결어미이다. ② 청소하는의 -는은 어말 어미 중 관형사형 전성 어미로 현재 를 나타낸다. ④ 읽은의 -은은 어말 어미 중 관형사형 전성어미로 과거를 나타낸다. ⑤ 볼겠지만의 -겠-은 미래의 추측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이고 -지만은 대비를 나타내는 대등적 연결어미이다.

14 인용절에 대해 이해하기

정답 ①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91%	2%	2%	3%	1%
--------------	-----	----	----	----	----

|해설| <보기>의 첫 번째 예시에서 인용된 발화는 어제 말한 것이므로, ㉠은 어제 시점에서의 ‘내일’, 곧 ‘오늘’이 되어야 한다. 또 ‘계십시오’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한 말이기 때문에 높임 표현을 쓴 것인데, 아버지가 말할 때 아들의 말이 간접 인용이 되면 아버지인 ‘나’가 자기 자신을 높이는 표현을 쓸 수 없으므로 ‘있-’으로 서술어를 바꾸어야 하고 명령문을 간접 인용할 때에는 ‘-(으)라고’를 써야 하므로 ‘있으라고’로 말해야 한다. <보기>의 두 번째 예시에서 인용된 발화는 언니가 말한 것이므로, ㉡에는 주어 ‘언니’를 다시 가리키는 재귀 대명사 ‘자기’를 사용한 ‘자기의’가 들어가야 한다. 또 직접 인용의 명령형 ‘남겨라’는 간접 인용에서는 어간 ‘남기-’에 ‘-(으)라고’가 붙어야 하므로 ‘남기라고’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①이다.

|오답풀이| 위의 글을 통해 ②, ③, ④, ⑤가 오답임을 알 수 있다.

15 중세 국어 문법 이해하기

정답 ⑤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4%	12%	9%	22%	50%
--------------	----	-----	----	-----	-----

|해설| ‘미퇴’의 현대어 풀이는 ‘밑에’이므로 ‘의’는 높지 않은 유정 명사에 결합되는 관형격 조사가 아니라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⑤이다.

|오답풀이| ① ‘하늬’의 현대어 풀이는 ‘하늘의’이므로 ‘스’은 무정 명사에 결합되는 관형격 조사임을 알 수 있다. ② ‘請_후소복소서’의 현대어 풀이는 ‘청하십시오’이므로 ‘-술’은 ‘부터’를 높이기 위한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임을 알 수 있다. 자음 앞에서는 ‘-술’이 사용되나 모음 앞에서는 ‘-술’이 쓰였다. ③ ‘아라보리로서니잇가’의 현대어 풀이는 ‘알아보겠습니까’이므로 ‘-잇가’는 판정 의문문의 ‘-아’ 계열 의문형 어미임을 알 수 있다. ‘-잇가’는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에 쓰인다. 반면에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에는 ‘-잇고’가 쓰인다. ‘예/아니요’로 판정하여 대답할 만한 판정 의문문은 의문사 없는 의문문이므로 ‘-잇가’가 쓰인 것이다. ④ ‘내’의 현대어 풀이는 ‘내가’이므로 ‘내가’의 주격형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밑줄 친 ‘내’는 ‘나+ | (주격 조사)’로 분석되는데, 이때의 ‘|’는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쓰여 이중 모음을 이룬다.

[16-18] 문학~고전 시가

지문 분석

신흥 「방옹시여」

작품 감상 작가인 신흥이 광해군 때 일어난 계축옥사로 인하여 벼슬에서 물러나 은거하던 시기에 창작한 시조 작품들을 모아 놓은 것으로, 일반적인 연시조처럼 작품 전체가 긴밀한 연결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니다. 「방옹시여」는 은자로서의 자족감이나 자긍심을 표현한 작품들과 자신을 아껴준 선왕(선조)에 대한 그리움과 연모의 정을 표현한 작품들로 이루어졌는데, 자연 속의 청빈한 생활과 유교적 충의 사상을 연결하여 품격 있게 표현하고 있다. 제목인 「방옹시여」에서 ‘방옹(放翁)’은 조정에서 밀려난 노인이라는 뜻으로 작가 자신을 가리키며, ‘시여(詩餘)’는 시가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제 속세를 벗어난 전원생활의 정취와 연군의 정

16 표현상의 특징 파악하기

정답 ③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3%	2%	86%	5%	1%
--------------	----	----	-----	----	----

|해설| (다)는 초장에서 봄비가 내린 후의 정경을, 중장에서 꽃과 버들이 활짝 핀 모습을 제시하고 있고, 종장에서 돌아오지 않는 임에 대한 안타까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선경후정의 전개 방식을 통해 화자의 내면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이다.

|오답풀이| ① (가)는 달빛을 벗 삼아 산촌에서 지내는 심정을 독백조로 노래한 것으로, 대상과의 문답을 통해 사상을 심화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나)는 수간모옥에서 자연을 즐기는 자신의 현재 처지에 대한 자족감과 자긍심을 드러낸 것으로, 과거와 대비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라)는 연꽃이 피어 있는 연못가에서 임을 그리워하며 시름에 젖는 상황을 묘사한 것인데, 자연물에 화자의 감정을 투영하는 감정 이입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마)는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를 임이 찾아오는 소리로 착각하는 상황을 묘사한 것인데,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지 않았으며 대상이 지닌 속성들을 점층적으로 나열하고 있지도 않다.

17 감상의 적절성 파악하기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3%	3%	6%	84%	2%
--------------	----	----	----	-----	----

|해설| (다)의 ‘봄빛’은 꽃과 버들이 활짝 핀 것을 비유한 것이다. 화자는 활짝 핀 꽃과 버들을 보며 ‘화류’도 때를 맞춰 피는데, 임은 가고 오지 않는데 탄식하고 있다. 이로 볼 때 ‘봄빛’은 ‘님’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로 볼 수 있으므로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이다.

|오답풀이| ① (가)의 ‘눈’은 화자의 은거지와 속세를 차단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은자로서의 자족감이나 자긍심과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그리고 <보기>에 ‘선조 사후에 정계에서 밀려난’이라는 정보가 있으므로, 화자의 은거는 자발적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나)의 종장을 바탕으로 감상하면 ‘수간모옥’은 화자의 답답한 심정이 투영된 것이 아니라 은자로서의 자족감이나 자긍심을 내포한 소재이다. ③ (라)의 ‘만산 나뭇잎’은 은자로서의 자족감이나 자긍심과 연관된 시어로, ‘님’이 부재한 상황을 절감하는 소재는 아니다. ⑤ (라)의 ‘부용 당반’이 ‘님’으로 표상되는 선왕에 대한 그리움과 연모의 정과 연관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나, (라)의 종장으로 볼 때 현재 임이 부재하는 상황이므로, 화자가 연모하는 대상과 함께 지내는 공간이라고 볼 수는 없다.

18 다른 작품과 공통점, 차이점 파악하기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3%	2%	3%	85%	5%
--------------	----	----	----	-----	----

|해설| (마)의 종장에서는 화자의 착각을 야기한 대상이 난초가 자라난 지름길 위의 ‘낙엽’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을 뿐,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보기>의 종장에서는 화자의 착각을 야기한 대상을 봉황이 깃을 다듬는 ‘그림자’라고 비현실적으로 과장하여 묘사하고 있을 뿐, 대상에 대해 비판을 제시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④이다.

|오답풀이| ① (마)의 초장에서는 ‘위석벽석’이라는 청각적 자극이, <보기>의 초장에서는 ‘어른어른커놀’이라는 시각적 자극이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② (마)의 초장의 ‘님이신가 이러 보니’와 <보기>의 초장의 ‘님만 너겨 풀씩너러나 쑥씩 나서 보니’에서 모두 창밖의 변화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마)의 종장의 ‘낙엽’과 <보기>의 종장의 ‘그림자’는 모두 화자의 착각을 불러일으킨 대상으로 볼 수 있다. ⑤ (마)의 종장에서는 ‘유한한간장이 다 끈칠까호노라’라며 화자 자신의 내면적 고통을 토로하고 있고, <보기>의 종장에서는 ‘늬우일 번 호려라’라며 화자가 타인의 평가와 조소를 의식하고 있다.

[19-20] 문학~현대시

지문 분석

(가) 윤동주 「병원」

작품 감상 (가)는 병원의 풍경에서 본 젊은 여자 환자를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그 여인의 병과 자신의 병이 닮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다. 화자는 병원에서 ‘가슴을 앓는’ ‘젊은 여자’의 생기 없는 이미지, ‘찾아오는 이’가 없는 쓸쓸하고 적막한 모습을 보게 된다. ‘나’의 오래된 아픔의 원인을 모르는 ‘늙은 의사’의 몰이해에 대해 ‘지나친 피로’를 느끼지만, ‘성내서는 안 된다’고 분노를 자제한다. 화자는 여인에게 공감하며 자신과 여인이 모두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 본다’. 3연의 산문시 형태로 이루어진 이 시는 대상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시키는 한편, 현장감을 주기 위해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묘사에 의한 시각적 이미지가 돋보인다.

주제 고통과 고독에 대한 연민, 상황 극복의 기원

(나) 박목월 「나무」

작품 감상 (나)는 화자가 여행 중에 본 나무들을 통해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발견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화자는 여행 중 나무에게서 수도승, 과객, 파수병의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이는 모두 고독하고 쓸쓸한 모습이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화자는 이 나무들이 외부의 풍경으로서가 아니라 화자의 내면에 자라나고 있음을 깨닫는다. 화자의 내면에 자란다는 말은, 그 나무와 같이 화자 또한 본질적으로 고독한 존재라는 인식을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화자는 사물을 통해 자신의 삶의 본질을 인식하게 된다.

주제 나무를 통해 깨닫게 된 삶의 근원적 고독

19 작품에 대해 이해하기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3%	5%	83%	6%
--------------	----	----	----	-----	----

해설 | (나)에서 화자는 ‘~일까라는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수도승일까’, ‘어설픈 과객일까’, ‘하늘 문을 지키는 파수병일까’와 같이 변주하여 제시함으로써 나무가 연상시키는 고독의 의미를 심화하고 있지만 (가)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 따라서 적절한 것은 ④이다.

오답풀이 | ① (가)에는 ‘흰옷’, ‘하얀 다리’ 등의 색채 이미지가 드러나지만, 이는 병을 앓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므로 역동성을 드러낸다고 볼 수는 없다. (나)에는 색채 이미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② (가)에는 ‘병원’, (나)에는 ‘유성’, ‘조치원’, ‘공주’, ‘온양’과 같이 반복되는 일상을 벗어난 공간이 드러나 있기는 하지만 이 공간들이 일상의 공간과 대비되고 있지는 않으며, 두 작품 모두 일상의 공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 ③ (가)에는 사물의 속성에 대한 분석이 드러나 있지 않다. 또한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제시되었다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 있는 것에 가깝다. ⑤ (가)에서는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여 현장감을 더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런 표현을 통해 계절의 상징성을 보여 주고 있지는 않다. (나)에서는 과거형 시제를 사용하여 나무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내면에 대한 깨달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시간에 따른 사물의 변화상을 보여 주고 있지는 않다.

20 화자와 대상의 관계 파악하기

정답 ③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3%	89%	2%	1%
--------------	----	----	-----	----	----

해설 | (가)에서 화자는 병원에서 병을 앓고 있는 ‘젊은 여자’를 바라보면서 자신을 성찰하고, 여자의 병과 고통, 치유에 대한 소망에 공감하며 동질성을 확인하고 있다. 화자가 ‘젊은이의 병’을 모르는 ‘늙은 의사’를 원망하는 내용은 드러나지 않으며, ‘여자’와 무엇인가를 공유하고 있지도 않다. (나)에서 화자는 ‘멀리 서 있는’ ‘나무’들에게서 외로움을 느끼고, 그들의 고독한 모습과 자신의 내면이 닮아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 ‘나무’들과 자신의 거리를 좁히려 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③이다.

오답풀이 | ① (가)의 화자는 1연에서 ‘병원 뒤뜰’에 누워 있는, 병을 앓는 ‘여자’의 모습을 이야기함으로써 대상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고, (나)의 화자는 유성→조치원→공주→온양→서울까지의 여행 중에 본 ‘나무’를 반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대상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② (가)의 화자는 ‘찾아오는 이가 없는’,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의 처지에서 ‘아픔을 오래 참다 처음으로’ 병원에 온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떠올리고 있으며, (나)의 화자는 ‘나무’에게서 떠

울린 ‘수도승’, ‘과객’, ‘파수병’의 모습에 비추어 자신의 내면에 묵중하고, 침울하고, 고독한 모습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 ④ (가)의 화자는 ‘금잔화 한 포기’를 꽃고 병실로 들어가는 그 여자의 모습에서 그 여자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읽어 내고 ‘내 건강이’ ‘속히 회복되기’를 바란다는 표현을 통해 이에 공감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나)의 화자는 ‘나무’들에 비추어 자신의 고독한 내면을 깨닫게 되고, ‘나무’들의 모습이 ‘외로워보였다’고 표현함으로써 ‘나무’들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정서에 공감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⑤ (가)의 화자는 ‘여자’에게 공감을 느끼고, ‘그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 보는 행위를 통해 ‘여자’와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있으며, (나)의 화자는 ‘나무’들에게서 느꼈던 묵중하고 침울한, 고독한 모습이 자신의 내면에 있으며, 이는 벗어날 수 없는 삶의 본질임을 깨닫는다. 이를 ‘뺏아 낼 수 없는’ ‘나무를 기르게 되었다’고 표현함으로써 ‘나무’들과 자신의 동질성을 드러내고 있다.

[21-24] 문학~시나리오/현대 소설

지문 분석

(가) 황순원 원작, 여수중 각색 「독 짓는 늙은이」

작품 감상 (가)는 황순원의 소설 ‘독 짓는 늙은이’를 각색한 시나리오로 일생을 독 짓기에 바친 송 영감의 집념과 좌절을 통해 도공으로 치열하게 살아온 그의 삶을 그려낸 작품이다. 다만 원작이 단편 소설이므로 시나리오에서 많은 각색이 이루어졌는데, 시나리오에서는 가족이 해체되는 원인을 늙음과 젊음, 돈과 비인간성이 원인이 됨을 대립적인 인물의 유형을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

주제 독 짓는 노인의 장인 정신과 비극적인 삶

(나) 황순원 「독 짓는 늙은이」

작품 감상 (나)는 일생을 독 짓기에 전념한 송 영감의 집념과 좌절을 통해 세계와 치열하게 대결한 한 인간의 비극적인 삶을 소설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특히 독을 굶는 자신의 가마 안에서 최후를 맞는 장인의 모습은 자신에게 패배를 안겨 준 세계에 대해 한 인간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그려 내고 있다.

주제 독 짓기를 향한 장인의 굴하지 않는 집념

21 자료를 활용하여 이해하기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3%	5%	13%	72%	4%
--------------	----	----	-----	-----	----

해설 | 송 영감은 며칠 동안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할 정도로 병색이 완연하였기에 독을 짓는 과정의 진척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십 년래 없이 숯내를 다 먹는 듯했다’는 이로 인해 숯내를 많이 마시게 된 상황을 드러낸 것이다. 이를 송 영감이 지닌 능력의 한계라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④이다.

오답풀이 | ① ‘아냐! 이건 독이 아냐!’라고 외치는 모습을 자신의 미적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독에 대한 절망감으로, ‘일어났다가는 쓰러지고’ 하는 것을 반복하는 모습을 독에 대한 장인의 집념으로 보는 것은 적절한 이해이다. ② 자신이 지은 독을 단순한 ‘흙덩이’로 바라보는 모습을 작품의 가치를 판단하는 장인의 모습으로, 땀샘이 이겨 놓고 간 ‘흙덩이’를 독을 짓기 위한 소재로 본 것은 적절한 이해이다. ③ ‘매설계 ~ 뿔하니 간다’를 장인의 작품에 대한 판단 기준이 주변 사람과 갈등을 일으킨 결과로, ‘조수의 환영’을 장인의 내적 갈등이 작품 제작에 전념하지 못하게 한 원인으로 본 것은 적절한 이해이다. ⑤ 장인이 자신의 작품을 박살 내 버린 후 그것을 보며 오염하는 모습을 추구하는 가치에 어울리는 작품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 주는 것으로, 병색이 짙은 중에도 작품 제작을 멈추지 않는 모습을 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열의로 판단한 것은 적절한 이해에 해당한다.

22 구절의 의미 파악하기

정답 ③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5%	2%	86%	2%	3%
--------------	----	----	-----	----	----

해설 | ㉠ 송 영감은 자신이 제작한 독이 ‘그 형태가 모두 고르지 않은 독’임을 확인한 후 비통해 하며 독을 모두 박살 낸다. 반면 석현은 ‘성한 것도 있어요’라고 외치며 이를 막으려 한다. 즉 송 영감은 독의 완결성에 주목한 반면 석현은 쓸 만한 것에 주목하고 있어 두 사람이 독의 완성도에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이다.

오답풀이 | ① 독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은 송 영감이며, ㉡에서 말끝을 흐리는 옥

수의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옥수는 송 영감의 병색을 걱정하고 있다. ② ㉠에서 웅손이는 송 영감의 행동에 놀라고 있지만 그것이 송 영감의 오만함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은 송 영감이 얼마나 병색이 짙은지를 보여 주는 것이지, 그것을 송 영감이 가마에 붙안을 가졌기 때문에 나온 행동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은 엄마와 조수가 장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모습에 해당한다.

23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8%	3%	3%	81%	3%
--------------	----	----	----	-----	----

해설 송 영감은 확 분노가 치밀어, '무엇이 밥 넘기려는 목을 치밀어 올라오곤 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서술자가 송 영감의 분노를 직접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인물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태도를 드러내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것은 ④이다.

오답풀이 ① [A]에는 '송 영감이 깨어난 일, 앵두나뭇집 할머니가 다녀갔던 일, 아침에 밥을 먹었던 일, 아이와 저녁을 먹는 일' 등이 시간의 흐름과 상관없이 복합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시간의 흐름을 단계적으로 보여 주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② 서술자에 의해 인물 간의 대화가 간접적으로 진술되고 있지만 서술자의 개입과 평가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③ 아이의 말을 통해 앵두나뭇집 할머니가 소개되고 있지만 송 영감과 앵두나뭇집 할머니의 대립 구도가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⑤ [A]는 송 영감이 기절했다 깨어난 상황만 서술하고 있고 공간의 거리감에 대한 서술은 나타나 있지 않다. 따라서 그것을 통해 인물 간의 심리적 거리감을 보여 주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4 외적 준거를 통해 작품 감상하기 정답 ⑤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10%	3%	7%	3%	75%
--------------	-----	----	----	----	-----

해설 '자기 심장이 박살 나는 것처럼'은 깨지는 독에 대한 옥수의 아픔을 형상화한 것으로 이러한 시각적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으나, '제 힘만이 아닌 어떤 힘으로 벌떡 일어나'는 송 영감의 모습은 인물의 물리적 힘을 초월하는 다른 힘이 작용하여 인물을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이러한 시각적 묘사가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은 적절한 감상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오답풀이 ① 송 영감의 관점에서 '백자기의 형체'가 '햇볕을 받아 더욱 고담'하다고 진술해 줌으로써 '백자기'를 바라보는 송 영감의 행위가 가지는 의미에 개연성을 부가하고 있다. ② 송 영감의 행동을 저지하는 웅손이가 송 영감에 의해 '나가떨어지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 줌으로써 갈등 상황이 실감나게 전달되고 있다. ③ '뚜왕'이 여러 차례 제시됨으로써 독이 모두 깨지는 상황이 현장감 있게 전달되고 있으며, '뚜왕' 소리를 통해 아픔을 느끼는 옥수의 내면과 오열하는 송 영감의 절망을 느끼게 하고 있다. ④ 완성되지 않은 독을 '못나게 지어'졌다는 진술로 표현할 때와 달리 '비틀어진 독'과 같이 시각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작품의 미완성을 구체적이고 현실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25~30] 독서~기술

지문 분석

「콘크리트를 통해 본 건축 재료와 건축 미학의 관계」

지문 해제 이 글은 지금까지도 유용하게 쓰이는 건축 재료인 콘크리트의 특성과 발전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콘크리트는 근대 기술의 산물로 알려져 있지만 로마 시대에 건축된 판테온에 쓰일 정도로 오래 전부터 사용되었다. 콘크리트는 시멘트에 골재를 반죽한 혼합물로, 골재의 종류에 따라 강도와 밀도가 다양하므로, 쓰임에 따라 골재의 종류와 비율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콘크리트는 압축력에 비해 인장력에는 쉽게 부서지는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보강재로 철근을 콘크리트에 넣은 철근 콘크리트로 발전한다. 건축가 르 코르뷔지에는 철근 콘크리트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여 사보아 주택을 건축했다. 철근 콘크리트의 인장 강도를 더욱 높이기 위한 연구의 결과로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가 등장했는데, 김벨 미술관은 개방감을 주기 위해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이처럼 콘크리트의 발전 과정은 건축 재료와 건축 미학이 유기적인 관계임을 보여 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주제 콘크리트의 특성과 발전 과정

25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정답 ①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88%	2%	2%	1%	4%
--------------	-----	----	----	----	----

해설 콘크리트는 예로부터 많이 쓰였지만, 압축력에 비해 인장력이 약한 특성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철근 콘크리트와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가 개발되었다. 이처럼 콘크리트의 특성과 발전을 보여 주면서 판테온, 사보아 주택, 김벨 미술관의 공간적 특징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이다.

오답풀이 ② 콘크리트의 특성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콘크리트로 지어진 건축물의 특징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③ 콘크리트가 로마 시대에도 쓰였다는 점을 밝히기는 했지만 그 기원을 제시하지는 않았고, 다양한 건축물들의 한계를 평가하고 있지도 않다. ④ 콘크리트의 물질적 특성인 강도를 중심으로 설명하였지만 시각적 특성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또 각 재료와 건축물의 경제적 가치도 탐색하고 있지도 않다. ⑤ 로마 시대, 근대, 근대 이후의 건축물의 특성을 설명하고는 있지만, 이 건축물들에 대한 평가가 시대에 따라 달라졌음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26 사실적인 정보에 대해 이해하기

정답 ⑤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3%	2%	5%	7%	80%
--------------	----	----	----	----	-----

해설 4문단에 언급되어 있듯이 '사보아 주택'은 지상의 출입구, 2층의 주거 공간, 지붕으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사보아 주택은 층을 구분하였다. 그에 반해 '김벨 미술관'은 내부의 전시 공간을 하나의 층으로 구성하였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⑤이다.

오답풀이 ① 1문단에 언급되어 있듯이 판테온의 돔은 상부로 갈수록 두께를 점점 줄였다. ② 4문단에 언급되어 있듯이 사보아 주택의 지붕은 정원이 조성되어 여유 있게 산책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다. ③ 5문단에 언급되어 있듯이 김벨 미술관은 인장 강도를 높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를 이용하여 기둥 사이를 넓게 벌려 개방감을 주었다. ④ 1문단에 언급되어 있듯이 판테온의 지붕 중앙에는 원형의 천창을 내어 빛을 내부 공간에 들어오도록 하였고, 4문단에 언급되어 있듯이 사보아 주택의 목욕실 지붕에는 작은 천창을 설치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였다.

27 추론하여 이해하기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7%	5%	5%	78%	2%
--------------	----	----	----	-----	----

해설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는 거푸집에 넣은 철근을 잡아당긴 상태에서 콘크리트 반죽을 부어 만든 것으로, 콘크리트가 굳은 뒤 당기는 힘을 제거하면 철근이 줄어든다. 철근이 줄어들면 콘크리트에 압축력이 작용해 외부의 인장력에 대한 저항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이다.

오답풀이 ① 3문단에 언급되어 있듯이 당기는 힘에 대한 저항은 철재가 콘크리트보다 훨씬 크다. 철근 콘크리트는 인장 강도를 높이기 위해 콘크리트에 보강재인 철근을 넣은 것으로 철근보다는 당기는 힘에 대한 저항이 크다고 볼 수 없다. ② 3문단에 언급되어 있듯이 철근은 압축력이 아니라 인장력을 많이 받는 부분을 위주로 보강한다. ③ 2문단과 4문단에 언급되어 있듯이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는 거푸집에 철근을 넣은 상태에서 콘크리트 반죽을 부어 굳혀 만드는 것으로, 콘크리트 반죽이 굳는 동안 수화 반응이 일어난다. ⑤ 2문단에 언급되어 있듯이 콘크리트는 서로 다른 골재를 배합하는 것이 강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28 사실적 내용을 바탕으로 사례 탐구하기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9%	16%	20%	41%	12%
--------------	----	-----	-----	-----	-----

해설 <보기>에서 지름의 변화량의 절댓값을 높이의 변화량의 절댓값으로 나누어 포아송 비를 구했다. 3문단에서 철재의 포아송 비는 0.3, 콘크리트의 포아송 비는 0.15라고 했다. 따라서 A(철재만으로 제작된 원기둥)와 B(콘크리트만으로 제작된 원기둥)에 압축력을 가했을 때 A와 B의 줄어든 높이의 변화량이 같다는 것은 포아송 비를 구하기 위한 수식의 분모의 절댓값이 같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철재가 콘크리트보다 포아송 비가 크므로 포아송 비를 구하기 위한 수식의 분자에 해당하는 절댓값이 A가 B보다 더 클 것이다. 즉 A의 지름이 B의 지름보다 더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④이다.

오답풀이 ① 3문단에서 압축력에 의한 변형 정도는 철근이 콘크리트보다 더 적다고 했다. ② 철재의 포아송 비가 0.3이므로, 분모에 해당하는 높이의 변화의 절댓값이 분자에 해당하는 지름의 변화의 절댓값보다 크다. ③ 콘크리트의 포아

송 비가 0.15이므로, 분자에 해당하는 지름의 변화의 절댓값이 분모에 해당하는 높이의 변화의 절댓값보다 작다. ⑤ A와 B에 압축력을 가했을 때 A와 B의 늘어난 지름의 변화량이 같다는 것은 포아송 비에서 분자의 절댓값이 같다는 것이다. 포아송 비는 철재가 콘크리트보다 크므로, 분모에 해당하는 높이의 변화의 절댓값이 B가 A보다 더 클 것이다. 즉 A의 높이가 B의 높이보다 덜 줄어들었을 것이다.

29 새로운 정보 간에 특징 비교하기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4%	8%	4%	79%	2%
--------------	----	----	----	-----	----

해설 | <보기>에서 철근 콘크리트 대신 철골을 사용하면 더 가는 기둥으로도 간격을 더욱 벌려 세울 수 있어 훨씬 넓은 공간 구현이 가능하다고 했다. 따라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④이다.

오답풀이 | ① 철골은 산화하여 녹이 슬 수 있으므로, 건축에 철근을 사용하면 산화 방지 조치를 한다고 했다. 베를린 신국립미술관에 쓰인 철골 기둥에도 산화 방지 조치를 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② <보기>에서 철골은 매우 높은 강도를 지녀 규격화된 직선 형태로 제작된다고 했다. 따라서 철골은 휘어진 곡선 모양의 기둥을 만드는 재료로 적절하지 않다. ③ 베를린 신국립미술관은 철골로, 김벨 미술관은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로 기둥을 만들었는데, 두 미술관은 각각의 건축 재료를 활용해 기둥 사이를 넓혀 개방감이 들도록 하였다. ⑤ 베를린 신국립미술관은 여덟 개의 철골 기둥만으로 평면 지붕을 떠받치게 하여 내부 공간이 텅 비어 있어 지붕이 공중에 떠있는 느낌을 준다. 사보아 주택도 기둥만으로 건물 본체를 지탱하게 하여 공중에 떠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30 어휘의 의미 파악하기

정답 ②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3%	91%	1%	2%	1%
--------------	----	-----	----	----	----

해설 | ㉠ '원형(圓形)'은 문맥상 지붕의 중앙에 있는 천장의 모양을 이르는 것으로, '둥근 모양'의 의미로 쓰였다. 그런데 ㉡의 밑줄 친 '원형(原型)'은 문맥상 '같거나 비슷한 여러 개가 만들어져 나온 본바탕'의 의미로 쓰였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②이다.

오답풀이 | ① '산물(産物)'은 '어떤 것에 의하여 생겨나는 사물이나 현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의 의미로 쓰였다. ③ '점성(粘性)'은 '차지고 끈끈한 성질'의 의미로 쓰였다. ④ '위주(爲主)'는 '옳음으로 삼음'의 의미로 쓰였다. ⑤ '영감(靈感)'은 '창조적인 일의 계기가 되는 기발한 착상이나 자극'의 의미로 쓰였다.

[31-34] 독서~과학

지문 분석

「열역학에 대한 과학자들의 탐구 과정」

지문 해제 이 글은 열과 일을 둘러싼 과학자들의 탐구를 소개하고 있다. 카르노는 열의 실체인 칼로릭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며 일을 하는데, 열기관의 열효율은 이러한 두 온도에만 의존한다고 보았다. 한편 줄은 열과 일은 서로 전환이 가능한 물리량이며 상호 전환할 때 열과 일의 에너지를 합한 양이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 후 톰슨은 칼로릭 이론에 입각한 카르노의 열기관 설명이 줄의 발견과 위배됨을 지적했다. 하지만 열기관의 열효율에 관한 카르노의 이론은 클라우지우스의 증명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 그리고 클라우지우스는 열의 방향성과 상호 전환 방향에 관한 비대칭성에 주목하여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창안하였다.

주제 열역학에 대한 여러 과학자들의 탐구

31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하기

정답 ⑤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6%	8%	8%	5%	72%
--------------	----	----	----	----	-----

해설 | 2문단에서 카르노의 열기관의 열효율은 두 작동 온도에만 의존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4문단을 볼 때, 칼로릭 이론의 오류는 톰슨에 의해 밝혀졌는데, 톰슨은 열기관의 열효율의 오류를 지적한 것이 아니다. 이는 클라우지우스의 증명으로 유지되었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것은 ⑤이다.

오답풀이 | ① 2문단에서 '열기관은 높은 온도의 열원에서 열을 흡수'하고 '열기관 외부에 열을 방출하며 일을 하는 기관'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열기관은 외부로부터 받은 일을 열로 변환하는 것이 아니다. ② 2문단에서 '물의 양과 한 일의 양의 비가 높이 차이에만 좌우되는 것에 주목'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물의 온도 차이'에 비례한다는 진술은 맞지 않다. ③ 1문단에서 칼로릭 이론은 열을 '질량이 없는 입자들의 모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차가운 쇠구슬이 뜨거워졌다고 해도 쇠구슬 질량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④ 1문단에서 칼로릭은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는 성질'을 갖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온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른다는 진술은 맞지 않다.

32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하기

정답 ②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5%	52%	9%	10%	22%
--------------	----	-----	----	-----	-----

해설 | 카르노에 따르면 열기관은 높은 온도에서 흡수한 열 전부를 낮은 온도로 방출하면서 일을 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줄이 입증한 사실에 따르면 열과 일이 상호 전환될 때 열과 일의 에너지를 합한 양은 일정하게 보존된다. 따라서 칼로릭 이론으로는 열기관이 한 일을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것은 ②이다.

오답풀이 | ① 3문단을 볼 때, 화학 에너지, 전기 에너지 등은 등가성을 가지고 상호 전환될 수 있다. 또한 열과 일의 상호 전환을 볼 때 '화학 에너지와 전기 에너지는 서로 전환될 수 없다'라는 진술은 맞지 않다. ③ ③는 줄의 에너지 보존 법칙과 관계된 것으로 에너지의 방향성과는 관계가 없다. ④ ④는 열효율에 관한 카르노의 이론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카르노가 활용한 칼로릭 이론에 대한 톰슨의 지적이다. ⑤ ⑤는 칼로릭 이론에 대한 톰슨의 지적이다. 다만 4문단에서 클라우지우스에 의해 열기관의 열효율에 대한 카르노의 이론이 지지되고 있다.

33 자료를 활용하여 내용 이해하기

정답 ⑤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14%	13%	15%	17%	38%
--------------	-----	-----	-----	-----	-----

해설 | 3문단에서 일과 열은 상호 전환 가능한 물리량으로서 등가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상호 전환될 때 에너지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입증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6문단에서 '열기관에서 열 전부를 일로 전환할 수 없다는, 즉 열효율이 100%가 될 수 없다는 상호 전환 방향에 관한 비대칭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보기>를 볼 때, 열기관의 '열의 양(A)'과 '일의 양(B)'의 관계를 구하면 그 값은 100%를 절대로 초과할 수 없고 오히려 줄어든 수밖에 없다. 이때 열 전부를 일로 전환할 수 없다는 것은 열손실을 말하므로 '열기관이 흡수한 열의 양과 두 작동 온도'는 그 값과 상관없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것은 ⑤이다.

오답풀이 | ① 6문단을 볼 때, 값은 두 작동 온도의 차이가 일정한 것과 상관없이 줄이 구한 열의 일당량과 같지 않고 작다. ② 6문단을 볼 때, 값은 줄이 구한 열의 일당량과 같지 않고 작다. ③ 6문단을 볼 때, 값은 흡수한 열의 양과 상관없이 줄이 구한 열의 일당량보다 커지는 것이 아니라 작다. ④ 6문단을 볼 때, 값은 두 작동 온도의 차이와 상관없이 줄이 구한 열의 일당량보다 커지는 것이 아니라 작다.

34 사전적 의미 파악하기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3%	2%	2%	88%	2%
--------------	----	----	----	-----	----

해설 | ㉠은 '기대에 맞지 아니하거나 일정한 기준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는 상식에 어긋나는 일을 한 적이 없다.'에서의 '어긋나다'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오답풀이 | ① ㉡은 '무엇이라고 가리켜 말하거나 이름을 붙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웃음은 또 다른 웃음을 부르는 법이다.'에서 '부르다'는 '어떤 행동이나 말이 관련된 다른 일이나 상황을 초래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② ㉢은 '어떤 것을 소재나 대상으로 삼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그는 익숙한 솜씨로 기계를 다루고 있었다.'에서 '다루다'는 '기계가 기구 따위를 사용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③ ㉣은 '액체 따위가 낮은 곳으로 내려가거나 넘쳐서 떨어지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야기가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에서 '흐르다'는 '어떤 한 방향으로 치우쳐 쏠리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⑤ ㉤은 '어떤 일이 일어나다'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하늘을 보니 당장이라도 비가 오게 생겼다.'에서 '생기다'는 '일의 상태가 부정적인 어떤 지경에 이르게 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35-39] 독서~사회

지문 분석

「사단 법인의 법인격과 법인격 부인론」

지문 해제 이 글은 법인격의 의미를 중심으로 사단 법인의 개념과 성격을 소개한 다음 법인격 부인론을 부연 설명하고 있다. 사단은 법인으로 등기된 사단과 법인으로 등기하지 않은 사단으로 나눌 수 있는데, 법인이 되어야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다. 회사도 사단 성격의 법인이며 대표적인 회사 형태로는 주식회사가 있다. 일인 주식회사에서 사단 구성원인 사람의 인격과 법인으로서의 법인격이 잘 분간되지 않는 듯 보이는 경우, 예외적으로 법인격 부인론이 제기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주제 사단 법인의 법인격과 법인격 부인론

35 세부 내용 추론하기

정답 ⑤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5%	15%	16%	11%	50%
--------------	----	-----	-----	-----	-----

해설 1문단에서 사단에 대한 정의를 소개하며 사단은 법인으로 등기되어야 법인격이 생기며, 사단성을 갖추고도 법인으로 등기하지 않은 사단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사람과 법인만이 권리 능력을 가진다고 진술되어 있으므로 사단이라는 제도 자체가 사람들이 결합한 단체에 권리와 의무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단은 법으로써 부여되는 권리 능력인 법인격을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⑤이다.

오답풀이 ① 1문단 중간 부분에서 사단이 갖춘 성질을 사단성이라고 하며, 사단은 운영 기구를 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1문단 중간 부분에서 사단의 구성원을 사원이라고 설명하고, 2문단 둘째 문장에서 주식회사는 주주들로 구성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그 구성 측면에서 주주가 여러 명인 주식회사의 주주는 사단의 사원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③ 1문단에서 권리 능력을 갖는다는 것은 소유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법인격을 가진 사단을 사단 법인이라 하는데, 사람과 법인만이 권리 능력을 가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④ 1문단에서 사단은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하는 단체라고 정의되고, 사단 법인의 법인격은 구성원의 가입, 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한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36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하기

정답 ①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35%	32%	11%	14%	5%
--------------	-----	-----	-----	-----	----

해설 3문단에서 대표 이사는 이사 중 한 명으로, 이사회에서 선출되는 기관이라고 진술되어 있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것은 ①이다.

오답풀이 ② 1문단을 참고할 때, 회사는 사단의 성격을 갖는 법인으로서 법인격을 갖는다. 2문단을 참고할 때, 일인 주식회사도 회사의 일종이므로 법인격을 갖는 것은 일인 주식회사이다. ③ 3문단에서 이사의 보수는 주주 총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고 진술되어 있다. ④ 3문단에서 상법상 회사는 이사들로 이루어진 이사회만을 의결 기관으로 둔다고 진술되어 있다. ⑤ 2문단에서 여러 주주가 있던 회사가 주식의 상속, 매매, 양도 등으로 말미암아 모든 주식이 한 사람의 소유로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37 여취의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정답 ⑤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5%	4%	8%	18%	62%
--------------	----	----	----	-----	-----

해설 ㉠인 '허울'이 포함된 문장은 '심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발생한 이익이 대표 이사인 주주에게 귀속되고 회사 자체는 허울만 남는 일도 일어난다.'이다. 이로 보아 '허울'의 문맥적 의미는 회사에서 발생한 이익이 회사에 돌아가야 하지만 그렇지 않게 되어 회사 자체는 이익을 남기지 못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회사의 자산이 감소할 수는 있으나 회사의 자산이 감소한다 할지라도 권리 능력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⑤이다.

오답풀이 ①, ②, ③, ④와 ⑥는 문맥적으로 사단 법인과 사원 개인이 구별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즉 사원 개인은 법인의 법인격과는 구별되므로 사단이 진 빚을 갚을 의무는 사단에게 있는 것이지만 사원 개인에게 있지 않다는 것이다. ③ 1문단에서 사단은 사람들의 결합체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 설명되어 있는데, 일인주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이러한 성격에 부합하지 않지만 법인으로 인정

것이므로 ㉡의 문맥적 의미는 '여러 사람이 결합한 조직체로서의 성격'이다. ④ ㉢는 '법인인 회사의 운영이 독립된 주체로서의 경영'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38 세부적 내용 파악하기

정답 ⑤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8%	15%	7%	20%	48%
--------------	----	-----	----	-----	-----

해설 ㉣을 포함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때 그 특정한 거래 관계에 관련하여서만 예외적으로 회사의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부인하고 회사와 주주를 동일시해야 한다는 법인격 부인론이 제기된다.'라고 설명되어 있고, 또 '회사가 일인 주주에게 완전히 지배되어 회사의 회계, 주주 총회나 이사회 운영이 적법하게 작동하지 못하는데도 회사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법인 제도가 남용되는 사례'라고 설명되어 있으므로 특정한 경우 ㉣에 입각하여 회사가 아니라 일인 주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것은 ⑤이다.

오답풀이 ① 법인격 부인론은 회사의 운영이 주주 한 사람의 개인 사업과 다를 없이 이루어져 회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는 문제가 발생할 때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② 법인격 부인론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③ 법인격 부인론은 특정 거래 관계와 관련하여서만 예외적으로, 일시적으로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는 것이다. ④ 법인격 부인론은 회사의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부인하는 것이지만 대표 이사 개인의 권리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39 바꿔 쓰기의 적절성 파악하기

정답 ②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52%	39%	2%	2%	2%
--------------	-----	-----	----	----	----

해설 ㉤의 '갖추다'는 '있어야 할 것을 가지거나 차리다'의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구비(具備)하다'는 '있어야 할 것을 빠짐없이 다 갖추다'의 뜻이므로 ㉤과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단어는 '구비하다'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②이다.

오답풀이 ① '겸비(兼備)하다'는 '두 가지 이상을 아울러 갖추다'의 뜻이다. ③ '대비(對備)하다'는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어떠한 일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하다'의 뜻이다. ④ '예비(豫備)하다'는 '필요할 때 쓰기 위하여 미리 마련하거나 갖추어 놓다'의 뜻이다. ⑤ '정비(整備)하다'는 '흐트러진 체계를 정리하여 제대로 갖추다'의 뜻이다.

[40-45] 문학~고전 소설

지문 분석

(가) 우리나라의 전기소설

작품 감상 이 글은 우리나라 전기소설의 정립 과정을 다루면서 그 특징을 서술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기소설은 중국의 전기와 우리의 설화 등 다양한 서사 갈래의 영향을 받아 성립하였다. 중국의 전기의 '기이한 사건'을 받아들여 다루면서도 '비극적 종결'이라는 독자성을 갖춘 전기소설은 외롭고, 소극적·폐쇄적이며, 내면성을 지닌 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며 설화와 차별화되어 왔다. 이러한 전기소설은 설화와는 다른 방식의 갈등을 다루면서 점차 소설적 면모를 갖추었고, 전기소설의 다양한 구도는 이 후 몽유록 소설, 영웅 소설, 애정 소설로 계승되었다.

주제 우리나라 전기소설의 특징과 정립 과정

(나) 작가 미상 「김현감호」

작품 감상 이 작품은 신라 때 처녀로 변신한 호랑이가 김현과 부부의 인연을 맺은 뒤 그를 위해 죽음을 택했다는 설화로써 『삼국유사』에 실려 전해진다. 밤늦은 때까지 절에서 탑돌이를 하던 김현은 한 여인을 만나 사랑을 나눈다. 여인을 따라 그녀의 집에 간 김현은 이 여인이 호랑이가 변신한 사람임을 알게 되는데, 여인의 세 오빠가 악행이 심해 하늘이 재앙을 내리려 하자 여인은 김현의 손을 죽을 것을 결심한다. 그렇게 하여 여인은 자결하고 김현은 호랑이를 잡은 공로로 벼슬에 오르게 된다.

주제 자신을 희생하는 헌신적인 사랑

(다) 김시습 「이생규장전」

작품 감상 이 작품은 이승과 저승의 한계를 뛰어넘어 죽음을 초월한 남녀 간의 지극한 사랑을 다루고 있다. 전반부에서 보여 준 이승과 최낭의 자유 연애에 의한 사랑은 당시 유교 사회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다. 관습을 과감히 깨뜨리고 사랑을 실현한 사건은 작가의 애정관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흥건적의 난으로 깨어지고 마는데, 두 사람의 사랑은 최낭의 환생이라는 비현실적 사건을 통해 다시 이루어진다. 이는 비극적 현실을 환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작가의 현실 극복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주제 죽음을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

40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하기 정답 ⑤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4%	6%	6%	9%	72%
--------------	----	----	----	----	-----

해설 | (가)의 1문단에서 우리의 전기소설에서 기이한 사건은 작가의 불우함을 위로하기 위한 창작 동기에서 비롯하였으며, 작가의 분신으로서 불우한 처지에 놓인 전기소설의 남주인공은 기이한 사건을 겪으면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이다.

오답풀이 | ① (가)의 1문단에서 중국의 전기는 기이한 사건을 다채로운 문체로 엮은 서사 양식인데, 기이한 사건은 흥미를 끌기 위한 소재로만 쓰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② (가)의 1문단에서 전기는 서사 구조가 유기적이지 못했고 결말의 양상도 다양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한편 전기소설은 비극적 종결을 맞이하는 전형성을 보인다고 언급하고 있다. ③ (가)의 1문단에서 중국의 전기는 당나라 문인들이 자신의 글 솜씨가 담긴 작품집을 출세의 수단으로 삼았던 관습에서 유래했다고 언급하고 있다. ④ 1문단에서 우리의 전기소설은 중국 전기의 영향을 받아 기이한 사건을 다루면서도, 비극적 종결을 통해 전기와 구별되는 독자성을 보인다고 언급하고 있다.

41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하기 정답 ⑤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8%	6%	6%	8%	69%
--------------	----	----	----	----	-----

해설 | (다)에서 이생은 최낭에게 황천에 함께 가거나 이승에서 함께 오래 살다가 백 년 후에 세상을 떠나자는 제안을 하고 있지만, 최낭은 자신의 이름이 저승의 명부에 올라 있으며, 자신이 인간 세상에 미련을 가지면 그 죄가 이생에게도 미칠 것이라고 말하면서 사려져 자취를 감추고 있다. (가)의 3문단에서 전기소설의 인물은 구체적인 사회 현실에서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고 갈등함으로써 인간과 세계는 서로 맞서는 관계로 다루어진다고 언급하고 있다. (다)에서 최낭의 생사를 초월한 사랑을 통해 개인과 세계의 갈등 관계를 형상화하고 있다면, 삶과 죽음의 문제를 거부할 수 없다는 비극적 결말은 인간의 힘으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운명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다)에서 현실의 문제가 서로 대등하게 맞서는 개인 사이의 갈등에서 비롯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은 ⑤이다.

오답풀이 | ① (나)의 김현은 배필의 죽음을 결국 막지 못하고, 범을 잡아 벼슬에 등용된다. (가)의 2문단에서 전기소설의 남주인공은 소심하고 나약한 존재로서 자신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나 모순된 현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저항하지는 않는다고 언급하고 있다. (나)의 김현은 이러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소극성'을 지닌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② (나)의 범은 자신의 죽음으로서 얻을 수 있는 이로움이 다섯 가지라고 하면서 자신이 죽은 후 절을 짓고 불경을 강하여 불법을 얻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또한 (가)의 3문단에서, 전설에서 인물은 특정한 공간에서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지만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경이로운 세계의 일부분으로 다루어진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나)의 김현과 범의 갈등 해결은 불교라는 종교적 차원에서 모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다)의 이생은 최낭이 환신해 돌아오자 벼슬을 구하지 않고 최낭과 함께 살면서 세상사를 완전히 잊은 채 지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의 2문단에서 전기소설의 남주인공은 사랑에 몰두하거나 세상을 등지는 등 세상과 소통하지 않으려는 폐쇄성을 통해 모순된 현실에 대한 비극적 인식을 보여 줄 뿐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다)의 이생은 세상과 소통하지 않는 '폐쇄성'을 보이고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④ 횡액을 당해 죽은 (다)의 최낭은 혼백을 의탁할 곳이 없어 원통해 하다가 저승에서 이승으로 돌아와 이생과 남은 인연을 맺으려 하고 있다. (가)의 2문단에서 전기소설의 주인공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존재이거나 짝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실의에 빠져 있는 존재이며, 외로운 주인공은 현실에서의 소외를 부당하다고 느껴 온갖 금기를 넘어서 사랑을 하거나 용궁과 같은 이계(異界)에 가기를 주저하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있다. (다)의 최낭은 이러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으므로 '외로움'을 지닌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42 작품 간의 비교 감상하기 정답 ①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72%	11%	7%	5%	3%
--------------	-----	-----	----	----	----

해설 | (나)의 남주인공인 김현은 여주인공인 처녀(범)가 스스로 희생을 선택한 것에 안타까워하며 울면서 처녀와 헤어지고 있다. 그리고 [A]에서 남주인공인 이생은 여주인공인 최낭에게 황천에 함께 가거나 이승에서 함께 오래 살다가 백 년 후에 세상을 떠나자고 하면서 영원히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이다.

오답풀이 | ② (나)의 여주인공인 처녀(범)는 자신이 죽으면 다섯 이로움이 갖춰진다고 하면서 김현에게 자신의 죽음이 서로에게 이로운 일이라고 하고 있다. 한편 [A]의 여주인공인 최낭은 자신은 이미 저승의 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어 더 이상 머물 수 없다고 하면서 만일 자신이 인간 세상을 그리워해 미련을 가지면 저승의 법에 위반된다고 말하면서 남주인공인 이생을 설득하고 있다. 따라서 [A]의 여주인공이 자신의 죽음이 저승의 법을 어긴 대가라며 남주인공을 설득한다고 할 수 없다. ③ (나)의 여주인공인 처녀(범)는 남주인공인 김현에게 불법을 얻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을 뿐 타인과의 관계에서 맺힌 한을 풀어 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처녀(범)는 자신의 발톱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방법을 김현에게 알려 주고 있다. 한편 [A]의 여주인공인 최낭은 아무 곳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유골을 거두어 달라며 이생에게 부탁을 하고 있으나, 이를 생전에 자신에게 맺힌 한을 풀어 달라는 부탁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 ④ (나)에서 여주인공은 '저를 위하여 절을 짓고 불경을 강하여 불법(佛法)을 얻도록 도와주'기를 부탁하고 있다. 남주인공인 김현은 범을 죽이고, 그 공로로 벼슬에 올라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고 난 후에 서천(西川)에 절을 세워 호원사(虎願寺)라고 하고 항상 『범망경』을 강설하여 범의 저승길을 인도함으로써 범이 제 몸을 죽여 자기를 성공시켜 준 은혜에 보답하고 있다. 따라서 (나)의 남주인공은 여주인공의 부탁을 실현함으로써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A]의 남주인공인 이생은 아내인 최낭이 말한 대로 그녀의 시신을 거두어 부모의 무덤 곁에 묻어 준 후에 벼슬을 얻어 두어 달 만에 세상을 떠난다. 따라서 [A]의 남주인공은 여주인공의 부탁을 실현함으로써 사회로부터의 소외감을 해소한다고 볼 수 없다. ⑤ (나)의 남주인공인 김현은 범을 잡은 공로로 벼슬에 올랐으므로 세속적 삶에 희의를 느끼며 속세를 등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A]의 남주인공인 이생은 최낭을 지극히 생각한 나머지 병이 나서 두어 달 만에 세상을 떠났으므로 세속적 삶의 무의미함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할 수 있다.

43 작품 내용 이해하기 정답 ①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68%	6%	7%	8%	9%
--------------	-----	----	----	----	----

해설 | (가)의 3문단에서 '김현감호'는 벼슬에 대한 김현의 간절함에 부처가 감동하여 범의 희생으로 응답하고, 김현이 이를 기린다는 이야기이며, 이는 개인의 욕망을 포용하는 부처의 전능함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나)에서 처녀(범)가 자신의 죽음을 '낭군의 경사'라고 말하는 장면은 벼슬을 얻고자 하는 김현의 개인적 욕망에 대한 부처의 응답을 범의 희생으로 암시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이다.

오답풀이 | ② (나)에서 '사나운 범'이 성 안으로 들어와 사람들을 해치는 장면은 김현이 벼슬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이 장면은 김현 개인의 욕망을 실현할 수 있게 해 주는 서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③ (나)에서 김현은 처녀(범)와의 대화를 통해 이미 처녀(범)와의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 김현이 임금에게 범을 '잡을 수 있다'고 아뢰는 장면에서 김현은 임금에게서 벼슬을 얻고 있으므로 이 장면은 김현 개인의 욕망을 실현하는 서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④ (나)에서 임금은 범을 잡기 위해 김현에게 '벼슬을 주어' 격려하고 있다. ⑤에 따르면, 이는 김현의 개인적 욕망이 성취되는 서사일 뿐 부처의 전능함을 실현하려는 임금 개인의 의지로 보기 어렵다. ⑤ (나)에서 범이 김현 앞에서 '처녀로 변하여 반갑게 웃'는 장면은 범이 희생을 감행하기 직전의 일이다. 범의 희생에 대한 김현과 처녀(범)의 갈등이 이미 해소되었음을 감안할 때, 이 장면이 부처가 김현과 처녀(범)의 만남에 감동하는 계기를 드러내는 장면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벼슬에 대한 김현의 개인적 욕망이 실현되는 서사의 일부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44 인물의 심리, 성격, 태도 파악하기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5%	5%	6%	79%	3%
--------------	----	----	----	-----	----

해설 | 환신으로 이승에 돌아와 이생과 산 지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최낭은 '세 번 가약을 맺었건만, 세상일은 뜻대로 되지 않나 봅니다'라고 하면 이생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과 함께 황천으로 가서 살거나 이승에서 함께 오래 살다가 백 년 후에 세상을 떠나자는 이생을 만류하고 나서 점점 사라져서 자취를 감추고 있다. 따라서 '세 번 가약을 맺었건만, 세상일은 뜻대로 되지 않나 봅니다'라는 구절이 현세에서 좌절된 사랑을 저승에서 완성하고자 하는 여주인공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

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④이다.

| 오답풀이 | ① 이생과 결혼한 최낭은 행복하게 살다가 '황액'을 만나 구렁에 넘어졌다고 언급하고 있다. '황액'은 '뜻밖에 닥쳐오는 불행'을, '구렁'은 '빠지면 헤어내기 어려운 환경'을 의미하므로 이생과 최낭의 사랑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좌절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② 최낭은 '깊은 산골짜기에서' 이생과 헤어지게 된 자신의 처지를 '짜 잃은 새'에 빗대고 있다. 이를 통해 사랑을 잃은 최낭의 슬픔이 어떠한지를 짐작할 수 있다. ③ 환신으로 이승에 돌아온 최낭이 이생에게 옛날의 '굳은 맹세'를 지키자고 제안하자 이생은 '그것이 원래 나의 소원'이라며 기뻐하고 감사히 여기고 있다. 이를 통해 사랑을 지속하고자 하는 두 남녀의 마음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알 수 있다. ⑤ 최낭은 만일 자신이 인간 세상을 그리워해 미련을 가지면 저승의 법에 위반될 뿐 아니라 죄가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이생에게도 미칠 것이라고 염려하고 있다. 이는 이생의 안위를 걱정하는 최낭의 사랑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45 구절의 의미 파악하기

정답 ①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60%	9%	12%	9%	8%
--------------	-----	----	-----	----	----

| 해설 | (다)에서 이생이 '가산을 물어 둔 곳'을 찾아가 금과 재물을 가져오는 사건은 이계가 아니라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 따라서 이 장면이 사대부 남성 이계를 체험하고 돌아오는 구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이다.

| 오답풀이 | ② (다)에서 황액을 만나 죽은 최낭은 '환신'으로 이승에 돌아와 이생에게 '남은 인연'을 맺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는 적극적으로 사랑을 이어가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으므로 최낭은 능동적인 여인상을 구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다)에서 최낭은 이미 죽었으나 '환신'으로 이생과 만나 사랑을 나누고 '기쁜 정'을 누리고 있다. 이처럼 산 자(이생)와 죽은 자(최낭)가 만나 사랑을 나눈다는 설정은 금기에 도전하는 애정 추구의 구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④ (다)에서 최낭은 저승의 명부에 올라 있으나 '환신'으로 이승에 돌아와 있는 인물이다. 이처럼 최낭은 저승과 이승을 넘나드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다)는 저승과 이승이라는 이원적 공간 구도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⑤ (다)에서 이생은 세상사에 관심을 끊고 집에서 늘 최낭과 함께 '시를 지어 주고받'으며 즐거이 세월을 보내고 있다. 이는 시가 애정 교류의 매개로 활용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재치동기출 既出

고득점을 기원합니다.

| 등급컷

등급	1	2	3	4	5	6	7	8
원점수	90	83	75	65	53	39	25	17
나의 점수	[] 점				[] 등급			

| 오답률 Best 5

순위	1	2	3	4	5
번호	36	33	28	39	15
오답률(%)	75.7	72.8	70.0	67.9	64.8

정답과 해설					본문 130-146페이지
1 ⑤	2 ③	3 ②	4 ④	5 ①	
6 ②	7 ④	8 ⑤	9 ③	10 ②	
11 ②	12 ⑤	13 ①	14 ③	15 ⑤	
16 ④	17 ③	18 ④	19 ④	20 ③	
21 ③	22 ⑤	23 ①	24 ④	25 ④	
26 ①	27 ⑤	28 ①	29 ④	30 ④	
31 ①	32 ④	33 ①	34 ②	35 ⑤	
36 ③	37 ②	38 ①	39 ④	40 ②	
41 ①	42 ①	43 ⑤	44 ②	45 ③	

[1-5] 화법

1 말하기 과정 이해하기 정답 ⑤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1%	1%	0%	0%	95%
--------------	----	----	----	----	-----

해설 제시된 대화에서는 ‘마음을 움직이는 심리학’ 특강을 들은 지호와 승우가 자신들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서, 특강에서 들었던 내용이 자신들의 경험과 관련이 많다는 점을 확인하고 공감하고 있다. 지호는 ㉠에서 자신과 승우의 공통된 경험이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어 상대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깨달음을 특강 내용과 관련 지어 승우에게 전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지호가 특강에서 들은 말을 인용하는 것은 아니며, 승우의 상황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확인하는 것도 아니므로 ⑤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에서 지호는 특강에서 들은 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험이 없는 지 승우에게 묻고 있다. ② ㉡에서 지호는 “한정판으로 나온 상품이라고 하면 왠지 사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는 승우의 말을 단서로 하여 승우의 경험이 특강에서 말한 희소성의 원리와 관련되는 내용임을 확인하고 있다. ③ ㉢에서 지호는 ‘승우가 이번 학기에 동아리 부장이 돼서 학술제 준비로 바빠.’는 반장의 말을 통해 승우의 상황을 추측하고 있다. ④ ㉣에서 지호는 “작년에 학술제 준비를 해 봐서 아는데 일이 많아서 혼자 하긴 벅차지.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라고 말하며,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승우가 처한 상황에 공감하고 있다.

2 말하기 내용 파악하기 정답 ③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1%	1%	96%	0%	0%
--------------	----	----	-----	----	----

해설 <보기>에서 강사는 특강의 내용 중 ‘다수가 보이는 경향, 희소성, 상대방과의 공통된 경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세 가지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다. 제시된 사례에서는 경회루가 ‘한시적으로 개방’되는 것과 ‘특별 관람 가능 인원이 소수로 제한’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은 후 평소 문화재에 관심이 없던 학생이 경회루를 관람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된 심경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심경의 변화는 세 요소 중 ‘희소성’과 관련이 있다.

오답풀이 ① 경회루가 한시적으로 개방되며, 특별 관람 가능 인원이 소수로 제한됨에 따라 경회루를 관람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된 심경의 변화는 희소성의 원리가 적용된 것이다. 그런데 평소 문화재에 관심이 없었던 학생이 경회루 내부 개방으로 문화재에 대해 평소 갖고 있던 관심이 더욱 커졌다고 했으므로 적절한 대답으로 볼 수 없다. ② 제시된 사례는 경회루가 한시적으로 개방되며 특별 관람 가능 인원이 소수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경회루를 관람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었다는 것으로, 이는 희소성의 원리가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경회루를 관람해 보고 싶던 차에 사전 예약제 실시 소식을 듣고 예약을 했다.’는 것과 ‘다수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따라하려는 심리’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경회루가 한시적으로 개방되며 특별 관람 가능 인원이 소수로 제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경회루를 관람하게 된 것이지, 특별 관람 신청을 사전 예약제로 받는다는 소식에 경회루를 관람한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또한 사전 예약한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심리를 보여 주는 것도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경회루가 한시적으로 개방되며, 특별 관람 가능 인원이 소수로 제한됨에 따라 경회루를 관람해 보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된 것은 희소성과 관련된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공통된 경험을 통한 공감대와 연관 지어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정답 ②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1%	97%	0%	0%	0%
--------------	----	-----	----	----	----

해설 어떤 내용으로 발표를 해야 할지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 고민을 털어놓으며 도움을 구하는 ‘학생 1’의 말에 ‘학생 2’는 우리나라 로봇 ‘휴보’에 대해 발표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 1’이 친구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내용에 대해 묻자 ‘학생 2’는 로봇이 우리 삶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로봇의 발전과 관련하여 발표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므로 ‘학생 2’는 ‘학생 1’의 질문에 대해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것은 ②이다.

오답풀이 ① ‘학생 1’은 발표 주제인 로봇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것과 친구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내용 여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학생 2’는 “이건 어때?”라고 말하며 로봇이 우리 삶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 로봇의 발전과 관련하여 발표해 보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이건 어때?”라는 ‘학생 2’의 질문은 ‘학생 1’의 의도 확인이 아니라, 친구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발표 내용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③ (가)에서는 발표 주제와 내용에 대해 ‘학생 1’이 질문하고, 이에 대해 ‘학생 2’가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④ 제시된 대화에서 상대방의 발언 내용을 요약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학생 2’는 발표 주제와 내용에 대해 질문하고 있는 ‘학생 1’에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며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⑤ ‘학생 1’의 발언 가운데 이해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 ‘학생 2’가 설명을 요청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4 발표 전략 파악하기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1%	1%	0%	95%	0%
--------------	----	----	----	-----	----

해설 [D]에서는 로봇으로 인한 삶의 변화를 로봇의 발전사와 관련시켜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 즉 초창기 로봇들이 운반이나 부품 조립과 같은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인간이 해야 할 일들을 대신 해 주었고,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로봇이 개발되어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을 구조하는 등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을 대신해 주기도 했으며, 대화가 가능한 로봇이 등장하여 인간과 소통할 수 있는 친구의 역할을 해 주고 있다는 것을 시간적인 순서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로봇의 형태가 변화해 온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이와 같이 다양한 예를 들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④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A]에서는 청중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 올해 세계 로봇 대회에서 우승한 ‘휴보’를 영상을 통해 보여 주며 발표를 시작하고 있다. ② [B]에서는 “로봇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라는 질문을 하고 “(청중의 대답을 듣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뉴스 보도나 영화에서 봤던 여러 형태의 로봇이 생각날 것입니다.”와 같이 청중의 답변을 듣는 상호 작용을 하며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③ [C]에서는 인간의 신체와 유사한 형태를 갖추어 두 발로 걷는 로봇이나 인간의 감정을 읽는 로봇까지 등장하게 된 최근과는 달리 인간과 닮은 점이 없는 초창기 로봇의 사진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발표 대상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매체를 활용하여 로봇의 형태를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E]에서는 국내 로봇 산업 실태를 조사한 △△연구소의 보고서를 제시하여 국내 로봇 시장 규모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이는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5 듣기 전략 파악하기 정답 ①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93%	0%	4%	0%	0%
--------------	-----	----	----	----	----

해설 ㉠의 경우, 영화에서 로봇이 권투하던 장면을 떠올린 것은 영화를 본 자신의 경험과 관련이 있으며, ㉡는 과학 시간에 배운 ‘인공 지능 기술’의 기술이 적용된 사례로 이해한 것으로 수업 시간의 경험 및 배경 지식과 관련이 있다. ㉢의 경우, ‘1인 가구가 증가하는데~’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이 알고 있는 사회 현상을 바탕으로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인간 소외 현상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그러므로 ㉠~㉢는 발표 내용을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과 관련지으면서 들었다는 데 공통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것은 ①이다.

오답풀이 ② 발표자가 제시한 자료의 신뢰성 여부를 따지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발표자가 언급했던 내용들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며 들은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발표 내용에 대해 학생 자신의 경험과 배경 지식을 덧붙이며

들은 것이지 발표 내용이 사실인지 발표자의 의견인지 구분하며 들은 것은 아니다. ⑤ ㉠~㉢ 모두 발표자의 의견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는지 판단하며 들은 것은 아니다.

6-10] 작문

6 작문 과정 평가하기

정답 ②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1%	77%	11%	8%	0%
--------------	----	-----	-----	----	----

해설 글쓴이는 (나)에서 인터넷을 통한 정보 이용에 적극적인 청소년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청소년들이 정보의 신뢰성에 대해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나)의 첫째 단락에서 인터넷 정보를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고 언급하면서, '인터넷 정보의 신뢰성 평가 여부' 및 '인터넷 정보의 이용 방식' 등 네 가지를 설문 조사 항목으로 구성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가)의 작문 상황에 따라 (나)를 썼다고 할 때, 반영된 사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②이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 교지를 읽는 주요 독자층이 학생들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나)에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터넷 정보 기술과 관련된 어려운 용어를 정의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③ (가)에서 학생들의 인터넷 정보 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한다는 글의 목적을 밝히고 있으며, (나)에서는 학생들의 인터넷 정보 수용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나열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나)의 둘째 단락에서는 인터넷 정보의 신뢰성 평가 여부와 인터넷 정보의 이용 방식 실태를 조사한 설문 조사 결과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하면서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인터넷 내용을 인용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나)의 마지막 단락에서는 우리 학교 학생들의 무비판적 인터넷 정보 이용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실태 조사 결과를 정리하고 있다. 그러나 대조와 가정의 방식을 활용한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7 자료 활용 방안의 적절성 평가하기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1%	1%	2%	93%	1%
--------------	----	----	----	-----	----

해설 <보기>의 자료 ②에 따르면 '학생들이 인터넷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하지 않는 이유'에서 '인터넷 정보를 대체로 사실이라 생각해서'가 54%로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평가 방법을 몰라서'가 23%, '필요성을 못 느껴서'가 19%, '기타'가 4%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은 '필요성을 못 느껴서'보다는 '인터넷 정보를 대체로 사실이라 생각해서'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오답풀이 ① <보기>의 '우리 학교 학생 대상 설문 조사 결과'의 '1 인터넷 정보의 신뢰성 평가 여부'에서 '안 한다'의 수치가 77%로 나타났다. 그런데 ㉠에서는 이에 대해 우리 학교 학생 대부분이 '인터넷 정보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고 하였다. 이는 1의 내용과 어긋나므로 ㉠은 '인터넷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하지 않는다'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② <보기>의 '2 인터넷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하지 않는 이유'의 경우, '인터넷 정보를 대체로 사실이라 생각해서'가 54%, '평가 방법을 몰라서'가 23%, '필요성을 못 느껴서'는 19%, '기타'는 4%로 제시되었다. 그런데 ㉡에서 '인터넷 정보를 대체로 사실로 생각하거나' '평가 방법을 몰라서'라고 응답한 학생이 73%에 달한다고 하여 부정확한 합산 결과를 제시하였으므로 '73%'는 '77%'로 수정해야 한다. ③ <보기>의 '우리 학교 학생 대상 설문 조사 결과'에서는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되었다. 그런데 <보기>의 자료를 활용한 (나)에서 ㉢은 '매우 높은 것', ㉣은 '드물었다'라는 다소 추상적인 진술로써 구체성을 띠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은 '77%로 매우 높은 것'으로, ㉣은 '4%에 불과할 정도로 그 비율이 매우 낮았다'로 수정하여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는 것이 적절하다. ⑤ <보기>의 '4 인터넷 정보의 이용 방식'에서는 '정보 이용 목적에 따라 인터넷 정보를 선별한 뒤 활용한다'가 18%, '검색한 인터넷 정보를 그대로 활용한다'가 77%, '기타'가 5%로 나타났다. 그런데 ㉤의 자료를 활용한다고 했을 때, ㉤의 '나머지는 '그대로 활용한다'고 응답했다.'는 ㉤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은 '5%의 기타 의견을 제외할'을 보완하거나 '77%의 학생은 그대로 활용한다고 응답했다'로 수정하거나, '학생 중의 77%는 검색한 인터넷 정보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 5%는 기타 의견에 응답했다.'로 수정하여 각각의 항목과 그에 맞는 수치를 제시하는 진술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8 고쳐 쓰기 방안의 적절성 파악하기

정답 ⑤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4%	1%	2%	1%	90%
--------------	----	----	----	----	-----

해설 ㉠에서 '태도 형성'은 '위하다'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주어인 '조치가'와의 호응을 고려할 때, '강구될'을 '강구할'로 고칠 경우 문장이 어색해진다. '강구하다'와 '강구되다'를 살펴볼 때, '강구하다'는 '조치를 강구하다'처럼 목적어

를 필수 성분으로 하며, '강구되다'는 '조치가 강구되다'처럼 목적어를 필수 성분으로 하는 동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의 '강구될'은 수정하지 않는 것이 옳바르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⑤이다.

오답풀이 ① ㉠에서 문장의 주어는 '청소년들은'이고 서술어는 '적극적이다.'이다. 따라서 문장의 호응 관계를 고려할 때, '이용이'는 서술어 '적극적이다.'를 수식하는 부사어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조사 '이'를 '에'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② '바다'이다, 국어책이다, 사람이다' 등의 '이다'는 서술격 조사이므로[이니까/이기 때문에] ㉡의 '바다임으로'는 까닭이나 근거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를 사용하여 '바다이므로'로 고치는 게 적절하다. ③ ㉢의 '알아보려면'은 서술어인 '실시했다'와의 호응을 고려할 때, 의도를 드러내는 연결 어미인 '~려고'를 사용하여 '알아보려고'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의 '수용시키느'는 문장의 주어인 '우리 학교 학생 대다수가'와의 호응을 고려할 때, 주동 표현인 '수용하는'으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9 글쓰기 전략 파악하기

정답 ③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0%	1%	96%	0%	0%
--------------	----	----	-----	----	----

해설 글쓴이는 비 오는 날 친구와의 약속을 통해 느꼈던 자신의 양면적인 태도와 관련하여 긍정적 농부와 부정적 농부의 일화를 떠올리며 긍정적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다. 따라서 긍정적 마음과 관련된 개인적 경험을 제시하고 교훈적 성격의 일화를 자신의 깨달음과 연결하고 있다는 ③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글쓴이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긍정적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을 뿐, 사회적 의의로 확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긍정적 마음이 갖는 전통적 의미와 현대적 의미를 대조하고 있지 않다. ② 학생의 글에서 긍정적 마음에 대한 다양한 관점은 나타나지 않으며, 긍정적 마음이 갖는 장점을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긍정적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 깨닫고 있지만, 학생의 글에서 긍정적 마음이 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례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동생의 말은 과거의 경험에 대해 지적한 것으로 바람직한 생활 태도에 대한 조언으로 보기 어렵다. ⑤ 긍정적 마음가짐에 대한 글쓴이의 깨달음을 통해 긍정적 마음가짐의 가치를 엿볼 수 있다. 그러나 학생의 글에서 긍정적 마음이 갖는 실용적 가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또한 글쓴이는 긍정적 마음을 행동으로 실천하기 위해 다짐하지만, 이를 단계적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0 표현의 적절성 평가하기

정답 ②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1%	92%	5%	0%	0%
--------------	----	-----	----	----	----

해설 글쓴이는 같은 상황인데도 대상이나 상황을 대하는 마음에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의 양면성이 있게 되어 행동의 차이가 있게 된다는 깨달음을 통해 긍정적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긍정의 마음으로 자신의 앞에 놓인 상황을 바라보고자 노력한다면 생활에 생기가 돌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언급을 고려할 때, 이러한 핵심 내용을 비유적으로 가장 잘 표현한 것은 ②의 '긍정의 거름을 주어 활력 나무를 키우다'이다.

오답풀이 ① 글쓴이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행동한다면 마음속에 긍정의 농부가 나타난 것처럼 머뭇거렸던 일들도 의욕적으로 시도하게 되고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글 전체의 맥락으로 볼 때, 이를 '용서'와 연결 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글쓴이 자신의 마음에도 긍정의 농부와 부정의 농부가 살고 있음을 말하고 있을 뿐이지 '공존'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긍정적인 마음이 글쓴이의 생활에 활력을 준다고 함으로써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 친구와의 '우정'과 관련짓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이 글의 핵심 내용은 긍정적 마음가짐의 중요성이므로 '이웃과 소통하는 삶'과는 거리가 있다.

[11-15] 문법

11 음운 변동의 이해와 적용하기

정답 ②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1%	94%	0%	2%	0%
--------------	----	-----	----	----	----

해설 '자음군 단순화'란 음절의 끝에 두 개의 자음이 올 때, 이 중에서 자음 한 개가 탈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에서 '흙까지[흙까지]'의 경우, '흙'의 'ㄹ'이 음절의 끝소리에 놓이게 되면서 앞의 'ㄱ'이 남고 뒤의 'ㄹ'은 탈락하여 [흙까지]로 발음되는 '자음군 단순화' 현상이 일어났다. ㉡에서 '값싸대갑싸대'의 경우, '값'의 'ㅂ'이 음절의 끝소리에 놓이게 되어 'ㅂ'이 탈락하고 'ㅂ'이 남았으며, '닭똥[닭똥]'의 경우, '닭'의 'ㄹ'이 음절의 끝소리에 놓이게 되어 'ㄹ'이 탈락하고 'ㄱ'이 남았는데, 이는 모두 '자음군 단순화' 현상에 의한 것이다.

| 오답풀이 | ① ㉠의 ‘밥하고’가 [바파고]로 발음되는 것은 ‘거센소리되기’ 현상에 의한 것으로, ‘ㅎ’과 인접한 예사소리 ‘ㅂ’이 거센소리 ‘ㅍ’으로 축약된 경우이다. ‘먹히다’의 경우 [머키다]로 발음되는데, 이는 ‘ㄱ’이 ‘ㅎ’과 합쳐져서 거센소리인 ‘ㅋ’으로 바뀐 것이다. 그러나 ‘목걸이’는 [목꺼리]로 발음되는데, 이는 ‘된소리되기’ 현상에 의한 것이므로 ㉠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③ ㉡의 ‘잡고’가 [잡꼬]로 발음되는 것은 ‘된소리되기’ 현상에 의한 것으로, 안울림소리의 예사소리인 ‘ㄱ, ㄷ, ㅂ, ㅅ, ㅈ’이 된소리 ‘ㄱ, ㄷ, ㅃ, ㅆ, ㅅ’로 발음되는 경우이다. ‘굳세다’는 [굳세다]로 발음되므로 ‘된소리되기’ 현상이 일어났지만, ‘숨이불’은 [숨:니불]로 발음되는데 이는 ‘ㄴ’ 첨가 현상에 따른 것이므로 ㉡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④ ㉢의 ‘듣는다’가 [든는다]로 발음되는 것은 비음화에 따른 것으로, 이는 ‘ㄱ, ㄷ, ㅂ’과 같은 파열음이 비음 ‘ㄴ, ㄹ’의 영향을 받아 비음으로 바뀌는 경우이다. ‘겁내다’는 [검내다]로 발음되므로 비음화 현상에 따른 결과이다. 그러나 ‘맨입’은 [맨닙]으로 발음되는데, 이는 ‘ㄴ’ 첨가 현상에 따른 것으로 ㉢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⑤ ㉣의 ‘칼날’이 [칼날]로 발음되는 것은 유음화에 따른 것으로, 이는 유음인 ‘ㄹ’의 영향으로 인해서 앞이나 뒤에 있는 비음 ‘ㄴ’이 ‘ㄹ’로 같아지는 경우이다. ‘설날’은 [설:랄]로 발음되므로 이 역시 유음화 현상에 따른 결과이다. 그러나 ‘잡히다’는 [자피다]로 발음되는데 이는 ‘ㅂ’이 ‘ㅎ’과 합쳐져서 ‘ㅍ’으로 바뀌는 거센소리되기 현상이 일어난 경우이므로 ㉣의 예로 적절하지 않다.

Plus Tip

♣ 선생님 말씀 ♣

☞ <음운 변동 현상>

1.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절의 끝에 받침으로 특정한 자음만이 오는 규칙.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받침이 되는 자음이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일곱 가지만 올 수 있다는 규칙이다. 이외의 자음들은 음절 끝에 오게 되면 이것들 중 하나로 바뀐다. 예를 들어, 읽은 [입]으로 ‘ㅍ’이 끝소리 규칙에 의해 ‘ㅂ’으로 바뀌며, 옷 → [옵], 있고 → [인고], 꽃 → [꼇], 부엌 → [부억], 밖 → [박], 뭍 → [목], 외곶 → [외곡], 닭 → [닥] 등은 모두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보여 주고 있다.

2. 비음화

자음 동화의 하나로, 파열음이 뒤에 오는 비음에 동화되어 비음으로 바뀌는 현상. 밥물 → [밤물], 섬리 → [섬니], 앞문 → [암문], 닫는 → [단는], 깎는 → [깁는]

3. 유음화

일정한 음운론적 환경에서 ‘ㄴ’이 유음 ‘ㄹ’의 영향 때문에 유음 ‘ㄹ’로 동화되는 음운 현상. 난로 → [날로], 물놀이 → [물로리]

4. 거센소리되기

평음(예사소리)인 ‘ㄱ, ㄷ, ㅂ, ㅅ’이 ‘ㅎ’과 결합하여 각각 ‘ㅋ, ㄷ, ㅆ, ㅈ’의 격음(거센소리)으로 바뀌는 현상을 말하는데, ‘ㅎ’이 앞에 오는 경우를 순행적 격음화라고 하고, ‘ㅎ’이 뒤에 오는 경우를 역행적 격음화라고 한다.

- (1) 순행적 격음화 : 용언의 어간 받침 ‘ㅎ, ㅅ, ㅆ’에 어미나 접미사의 첫소리 ‘ㄱ, ㄷ, ㅂ’이 이어지는 경우이다. 좋다 → [조타], 많다 → [만타], 앞던 → [안턴]
- (2) 역행적 격음화 : 앞말의 종성(끝소리)으로 쓰인 ‘ㄱ, ㄷ, ㅂ’의 뒤에 뒷말의 초성(첫소리) ‘ㅎ’이 이어지는 경우로서 체언과 조사, 합성어나 파생어의 어근과 조사, 단어와 단어가 연결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국화 → [구과], 딱하고 → [따카고], 만형 → [마형], 닫히다 → [다치다], 입학 → [이팍]

12 연결 어미의 의미 파악하기 정답 ⑤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1%	1%	1%	0%	94%
--------------	----	----	----	----	-----

| 해설 | <보기>의 ㉠에서는 앞 문장과 뒤 문장의 주어가 서로 같고, ‘-(으)며’를 ‘-(으)면서’로 바꾸어 쓸 수 있는 경우에 ‘-(으)며’는 앞뒤 문장의 동적이 동시에 일어남을 나타낸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할 때, ⑤의 ‘출근할 때, 일부는 버스를 이용하면, 일부는 지하철을 이용한다.’에서 ‘-며’는 두 가지 이상의 동작을 나열할 때 쓰는 연결 어미일 뿐 앞뒤 문장 주어 ‘일부’가 서로 같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앞뒤 문장의 동적이 동시에 일어남을 나타내지도 않기 때문에 ‘-(으)며’를 ‘-(으)면서’로 바꾸어 쓸 수 없다.

| 오답풀이 | ① ‘우리는 함께 걸으며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다.’는 앞 문장과 뒤 문장의 주어가 서로 같고, ‘-으며’를 ‘-으면서’로 바꿔 쓸 수 있는데, 이때 걷는 것과 이야기하는 것이 동시에 일어남을 나타낸다. ② ‘모두들 음정에 주의하며 노래를 제대로 부르자.’ 역시 앞 문장과 뒤 문장의 주어가 서로 같다. 또한 ‘-며’를 ‘-면서’로 바꿀 경우, 음정에 주의하는 것과 노래를 부르는 것이 동시에 일어남을 나타낸다. ③ ‘아는 사람 하나가 미소를 지으며 내게 다가왔다.’도 앞 문장과 뒤 문장의 주어가 서로 같다. 또한 ‘-으며’를 ‘-으면서’로 바꿀 경우, 미소를 짓는 것과 다가오는 것이 동시에 일어남을 나타낸다. ④ ‘마라톤 선수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결승선을 통과했다.’는 앞 문장과 뒤 문장의 주어가 서로 같고, ‘-며’를 ‘-면서’로 바꿀 경우 숨을 몰아쉬는 것과 결승선을 통과한다는 앞뒤 문장의 동적이 동시에 일어남을 나타낸다.

13 자립 명사의 기능 파악하기 정답 ①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92%	1%	2%	2%	1%
--------------	-----	----	----	----	----

| 해설 | <보기>에서 ㉠은 자립 명사가 문장에서 의존 명사처럼 단위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①의 경우 ‘군데’는 ‘날날의 곳을 세는 단위’를 의미하는 의존 명사로 자립성이 없으며 항상 수 관형사의 수식을 받으므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

| 오답풀이 | ② ‘그릇’은 ‘음식이나 물건 따위를 담는 기구’의 뜻을 가진 자립 명사이지만, ‘얕은 자리에서 밥 두 그릇을 다 먹었다.’에서는 수 관형사 ‘두’ 뒤에 놓여 밥의 분량을 세는 단위를 나타내고 있다. ③ ‘덩어리’는 ‘크게 뭉쳐서 이루어진 것’의 뜻을 가진 자립 명사이지만, ‘시장에서 수박 세 덩어리를 사 가지고 왔다.’에서는 수 관형사 ‘세’ 뒤에 놓여 수박을 세는 단위를 나타내고 있다. ④ ‘술가락’은 ‘밥이나 국물 따위를 떠먹는 기구’의 뜻을 가진 자립 명사이지만, ‘할아버지께서는 밥을 몇 술가락 겨우 뜨셨다.’에서는 수 관형사 ‘몇’ 뒤에 놓여 밥의 분량을 세는 단위를 나타내고 있다. ⑤ ‘발자국’은 ‘발로 밟은 자리에 남은 모양’을 뜻하는 자립 명사이지만, ‘나는 서너 발자국 뒤로 물러서다가 냇다 도망쳤다.’에서는 수 관형사 ‘서너’ 뒤에 놓여 걸음을 세는 단위를 나타내고 있다.

14 잘못된 문장 수정의 적절성 파악하기 정답 ③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1%	2%	94%	1%	0%
--------------	----	----	-----	----	----

| 해설 | <자료>의 수정 전후의 문장을 살펴보면 두 가지가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초보자일수록이 초보자일지라도’로 수정되었는데, 이는 부사어 ‘비록’과의 호응을 고려하여 연결 어미 ‘-ㄹ지라도’를 활용한 것이다(㉠). 그리고 ‘표와 그래프 등을 그려서 작성할 수 있다.’에서는 ‘작성하다’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인 목적어 ‘문서를’이 누락되었으므로 이를 ‘표와 그래프 등을 그려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로 수정한 것이다(㉡). 따라서 <보기>의 ㉠~㉣ 중 ㉢과 ㉣을 고려했으므로 정답은 ③이다.

15 의문문과 청유문의 공통적 기능 파악하기 정답 ⑤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1%	0%	5%	1%	90%
--------------	----	----	----	----	-----

| 해설 | 의문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을 하여 그 해답을 요구하는 문장으로 의문형 종결어미로 문장을 끝맺으며, 청유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같이 행동할 것을 요청하는 문장으로 청유형 종결어미인 ‘~자, ~시지요, ~합시다, ~세’ 등으로 문장을 끝맺는다는 데 그 차이가 있다. 그러나 ㉠에서처럼 화자가 청자에게 요청을 할 때 쓰이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문문과 청유문의 공통점이 있기도 하다. 그런데 ⑤에서 ‘어디 보자’는 청유형 어미 ‘-자’가 쓰인 청유문의 형태이지만 B의 발화인 ‘거기서 혼자 뭐해요.’를 고려할 때, 이는 청자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혼자말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어디 보자’는 화자가 청자에게 요청하는 문장이 아니므로 ㉠의 예에 해당하지 않는다.

| 오답풀이 | ① ‘괜찮다면, 우리 여기서 잠깐 기다릴래요?’는 의문형 어미를 활용한 의문문으로, 화자가 청자에게 함께 기다릴 것을 요청하고 있다. ② ‘한번 보세’는 ‘~세’의 청유형 어미를 활용한 청유문으로, 화자가 청자에게 다친 곳을 보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③ ‘먼저 좀 내립시다.’는 ‘~합시다’를 활용한 청유문으로, 화자가 청자에게 자신이 내릴 수 있도록 비켜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④ ‘저 혹시, 모자를 벗어 주실 수 있을까요?’는 의문형 어미를 활용한 의문문으로, 화자는 청자에게 모자를 벗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16-18] 독서~과학

지문 분석

「지방질의 산패 과정과 특징」

지문 해제 이 글은 지방질을 구성하는 성분의 구조에 따라 산패가 달라지는 과정과 그 지연 방법에 대해 설명한 글이다. 저장 중인 식품에서 비정상적인 맛과 냄새가 나는 현상인 산패는 지방질을 구성하는 성분의 구조와 관련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방질은 사슬 모양을 이루고 있으며, 지방질 한 분자에는 글리세롤 한 분자와 지방산 세 분자가 결합되어 있다. 지방산에서 탄소끼리의 결합은 대부분 단일결합인데 이중결합인 경우도 있다. 단일결합이면 포화 지방산, 이중결합이면 불포화 지방산인데 산화 작용에 의한 산패는 불포화 지방산이 결합된 지방질에서 일어나며 이중결합의 수가 많을수록 잘 일어난다. 지방질 분자 중 알릴 라디칼은 산소와 결합하여 퍼옥시 라디칼로 변화하고, 퍼옥시 라디칼은 다른 오메가-6 지방산 사슬과 반응하여 새로운 알릴 라디칼을 만들고, 자신은 비라디칼 분자인 하이드로퍼옥시사이드로 변화한다. 하이드로퍼옥시사이드가 생성되고 분해되는 과정에서 알코올, 알데히드 등의 화합물로 변화하는데, 이 화합물들이 산패의 주원인이 된다. 이러한 산패가 발생하는 것을 지연시키는 방법에는 라디칼 분자가 다른 분자와 쉽게 반응하지 못하도록 산화 방지제를 첨가하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주제 산화 작용에 의한 지방질의 산패 과정과 지연 방법

여휘 풀이

- 글리세롤 : 글리세린이 가수 분해를 할 때 지방산과 함께 생성되는 액체
- 전자 : 음전하를 가지고 원자핵의 주위를 도는 소립자의 하나
- 분자 : 물질에서 화학적 형태와 성질을 잃지 않고 분리될 수 있는 최소의 입자

16 세부 내용 파악하기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1%	2%	92%	0%
--------------	----	----	----	-----	----

해설 2문단에서 지방산은 탄소끼리의 결합을 중심으로 탄소와 수소, 탄소와 산소의 결합을 포함한 사슬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중결합이 없으면 포화 지방산, 한 개 이상의 이중결합이 있으면 불포화 지방산임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산화 작용에 의한 산패는 불포화 지방산이 결합된 지방질에서 일어나는데, 이중결합의 수가 많을수록 잘 일어난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불포화 지방산 사슬에 있는 탄소에서 일어난 산화 작용이 산패로 이어진다는 ④의 진술은 글의 내용과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2문단의 '이중결합이 없으면 포화 지방산, 한 개 이상의 이중결합이 있으면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한다. 오메가-3 지방산이나 오메가-6 지방산은 대표적인 불포화 지방산이다.'를 통해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3 지방산에는 이중결합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2문단의 '지방산은 탄소끼리의 결합을 중심으로 탄소와 수소, 탄소와 산소의 결합을 포함한 사슬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글리세롤과 결합된 탄소를 제외한 모든 탄소는 수소와 결합되어 있다.'를 통해 글리세롤과 결합된 탄소가 수소와 결합되어 있다는 진술은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③ 2문단에서 산화 작용에 의한 산패는 불포화 지방산이 결합된 지방질에서 일어나며, 이중결합의 수가 많을수록 잘 일어난다고 하였으므로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⑤ 2문단의 '일반적으로 지방질은 사슬 모양을 이루고 있으며 지방질 한 분자에는 글리세롤 한 분자와 지방산 세 분자가 결합되어 있다.'를 통해 지방산 한 분자에 글리세롤 세 분자가 결합되어 있다는 진술은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17 추론의 적절성 파악하기

정답 ③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5%	17%	11%	62%	3%
--------------	----	-----	-----	-----	----

해설 4문단에서 A지방질의 이중결합 바로 옆에 있는 탄소가 열이나 빛의 영향을 받으면, A지방질 분자가 에너지가 높고 불안정한 알릴 라디칼로 변화하고, 알릴 라디칼은 산소와 결합하여 퍼옥시 라디칼로 변화하는 과정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A지방질에서 변화한 알릴 라디칼이 A지방질 분자보다 에너지가 낮아서 산소와 쉽게 결합한다고 진술한 ③은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3문단에서 A지방질의 오메가-6 지방산 사슬에 있는 탄소에서 산화 작용이 일어나 산패에 이르게 되고, 이때 외부 에너지의 영향으로 A지방질 분자가 흡수의 전자를 갖는 라디칼로 변화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② 4문단에서 하이드로퍼옥시사이드는 분해되어 알코올, 알데히드 등의 화합물로 변화한다는 언급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A지방질의 산패 과정에서 생성된 알코올은 하

이드로퍼옥시사이드가 분해된 화합물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④ 4문단에서 하이드로 퍼옥시사이드가 분해되어 알코올, 알데히드 등의 화합물로 변화하게 되는데, 이 화합물들이 비정상적인 냄새를 내게 하는 주원인임을 밝히고 있다. ⑤ 4문단의 '퍼옥시 라디칼은 주위에 있는 다른 오메가-6 지방산 사슬과 반응하여 새로운 알릴 라디칼을 만들고, 자신은 비(非)라디칼 분자인 하이드로퍼옥시사이드로 변화한다.'를 통해 알 수 있다.

18 단어의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2%	5%	83%	5%
--------------	----	----	----	-----	----

해설 ④의 '받다'는 '빛, 별, 열이나 바람 따위의 기운이 달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④의 '차가 난간을 받으면 안 되니까 조심해라'의 '받다'는 '머리나 볼 따위로 세차게 부딪치다.'의 의미이므로 ④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풀이 ① ④의 '일어나다'는 '자연이나 인간 따위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다.'라는 의미로, '지진이 일어나 피해를 주었다.'의 '일어나다'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② ⑥의 '이루다'는 '몇 가지 부분이나 요소들을 모아 일정한 성질이나 모양을 가진 존재가 되게 하다.'의 의미로, '우리창에 빗방울이 무늬를 이루고 있다.'의 '이루다'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③ ⑤의 '주다'는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게 하다.'의 의미로, '태풍은 우리나라에 피해를 주지 않았다.'의 '주다'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⑤ ⑥의 '들다'는 '안에 담기거나 그 일부를 이루다.'의 의미로, '이 물질에는 염화마그네슘이 많이 들어 있다.'의 '들다'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19-22] 독서~사회

지문 분석

「기술의 발달에 따른 사회 변화」

지문 해제 기술의 발달이 인간의 삶에 미친 영향과 관련하여 '사색적 삶'과 '활동적 삶'을 대비하여 사회 변화를 설명한 글이다. 인간의 삶을 최초로 '사색적 삶'과 '활동적 삶'으로 구분한 아리스토텔레스는 진리, 즐거움, 고귀함을 추구하는 '사색적 삶'의 영역이 생계를 위한 '활동적 삶'의 영역보다 상위에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근대에 이르러 과학 혁명으로 인해 '사색적 삶'의 영역에 속하는 과학과 '활동적 삶'의 영역에 속하는 기술의 거리가 가까워졌고, 생산 활동과 부의 축적을 중시한 청교도 윤리의 등장으로 '사색적 삶'과 '활동적 삶'은 대등한 위상을 갖게 되었다. 18, 19세기 산업 혁명 이후에는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 '활동적 삶'이 '사색적 삶'보다 중요성이 더 커지게 되었다. 심지어 인간을 기계처럼 관리하는 이론까지 만들어졌다. 결국 기술의 발달이 '사색적 삶'이 설 자리를 잃게 만들고 '활동적 삶'이 폭주하게 되었음을 말하면서, '사색적 삶'을 잇는 채 '활동적 삶'만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시대가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주제 기술의 발달에 따른 사회 변화의 양상

여휘 풀이

- 전략 : 나쁜 상태나 타락한 상태에 빠짐
- 소명 :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일
- 징표 : 어떤 것과 다른 것을 드러내 보이는 뚜렷한 점
- 불식 : 면지를 떨고 훔친다는 뜻으로, 의심이나 부조리한 점 따위를 말끔히 떨어 없앴을 이르는 말
- 동선 : 건축물의 내외부에서, 사람이나 물건이 어떤 목적이나 작업을 위하여 움직이는 자취나 방향을 나타내는 선

19 세부 정보 파악하기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2%	5%	83%	5%
--------------	----	----	----	-----	----

해설 4문단에 따르면 시간-동작 연구를 통해 가장 효율적인 작업 동선을 모색했던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은 20세기 초부터 생산 활동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는 중요한 원리로 자리 잡았음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두뇌에 의한 노동과 근육에 의한 노동이 분리되어 인간의 육체노동이 기계화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시간-동작 연구가 인간의 노동이 두뇌노동과 근육노동으로 분리되는 데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2문단을 통해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색적 삶의 영역을 생계를 위한

활동적 삶의 영역보다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 ② 3문단에 따르면 16, 17세기 과학 혁명으로 인해 활동적 삶과 사색적 삶은 대등한 위상을 갖게 되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③ 3문단에서 청교도 윤리는 생산 활동과 부의 축적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을 심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는 언급을 확인할 수 있다. ⑤ 4문단을 보면 20세기 초 공학, 경영학 등의 실용 학문은 기술을 과학에 활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과학을 기술 개발에 활용하기 위해 출현했음을 밝히고 있다.

20 세부 정보 추론하기

정답 ③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1%	8%	84%	3%	1%
--------------	----	----	-----	----	----

해설 | 5문단을 살펴보면 ㉠의 '비판의 목소리'는 활동적 삶이 지나치게 강조된 데 대한 반작용으로, '의미 없는 부지런함'이 만연해진 세태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은 성찰에 의한 사색적 삶의 중요성을 역설하기 위한 목소리로 파악할 수 있다. 이는 곧 사색적 삶이 자극에 예민한 삶이 아니라 여유로운 삶과 관계가 깊다는 점에서 ③이 가장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 ① 기계 기술의 가치와 산업 현장의 긍정적 평가는 '활동적 삶'을 강조하는 것이므로 거리가 멀다. ②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이는 '활동적 삶'을 중시하는 진술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나태가 사람을 녹슬게 만들어 사람을 쇠퇴하게 만든다는 진술은 '활동적 삶'을 중시하는 내용이므로 거리가 멀다. ⑤ 인간을 기계로 인식하며 인간의 모든 행동과 사고를 외적인 자극과 영향에 의해 비롯되었다는 내용이므로 거리가 멀다.

21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 ③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5%	2%	79%	8%	4%
--------------	----	----	-----	----	----

해설 | <보기>에서는 근대 사회가 '규율 사회'였음에 비해 '성과 사회'라 불리는 20세기 후반 이후의 후근대 사회를 '피로 사회'로 규정하는 견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성과 사회'는 성공을 향한 내적 유혹에 따라 인간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사회이지만, '규율 사회'에서 적용되었던 '더욱 생산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자본주의 시스템의 근본적인 요구는 '성과 사회'에서도 관철되어 그 결과 피로는 현대인의 만성 질환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더욱 생산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규율 사회'에서는 외적 강제에 의한 타자 착취를 통해 관철되었다면, '성과 사회'에서는 내적 유혹에 의한 자기 착취를 통해 관철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요구를 관철하는 방식만 달라졌을 뿐이지 자본주의 시스템의 근본 요구가 달라진 것은 아니므로 ③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 ① '규율 사회'는 외적 강제에 따라 인간이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사회라는 점에서, 기계의 속도에 기초하여 확립된 노동 규율은 타자 착취를 위한 외적 강제에 해당한다. ② 타인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동시에 자신의 능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스스로를 끝없이 몰아세울 수밖에 없는 내면화된 현대인의 강박증은 결국 피로라는 만성 질환을 알게 한다는 점에서 자기 착취의 한 단면으로 볼 수 있다. ④ 기술 발달이 삶을 여유롭고 의미 있게 만든다는 견해는 현대 사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으로 볼 수 있지만, 현대 사회가 피로 사회라는 견해는 현대 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다. ⑤ 더욱 다양해진 욕구와 성취 욕망의 충족을 위해 스스로를 소진하고 있는 현대인의 자기 착취는 타인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동시에 자신의 능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내적 유혹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22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하기

정답 ⑤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5%	1%	1%	2%	88%
--------------	----	----	----	----	-----

해설 | ㉠의 '포섭(包攝)'은 '상대편을 자기편으로 감싸 끌어들이는'의 의미이며, '남을 너그럽게 감싸 주거나 받아들임'의 의미를 지닌 어휘는 '포용(包容)'이므로 그 사전적 의미가 다르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오답풀이 | ① '추구(追求)'의 사전적 의미는 '목적물 이를 때까지 뒤쫓아 구함'이므로 적절하다. ② '검약(儉約)'의 사전적 의미는 '돈이나 물건, 자원 따위를 낭비하지 않고 아껴 씀'이므로 적절하다. ③ '응용(應用)'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이론이나 이미 얻은 지식을 구체적인 개개의 사례나 다른 분야의 일에 적용하여 이용함'이므로 적절하다. ④ '모색(摸索)'의 사전적 의미는 '일이나 사건 따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실마리를 더듬어 찾음'이므로 적절하다.

[23-26] 독서~예술

지문 분석

『회화주의 사진의 특징과 의의』

지문 해제 회화주의 사진의 배경을 제시하고, 회화주의 사진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스타이컨의 <빅토르 위고와 생각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로댕>의 창작 과정 및 기법과 예술적 의의에 대해 설명한 글이다. 글쓴이는 스타이컨의 <빅토르 위고와 생각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로댕>에 담긴 작가의 관점과 사진이 담고 있는 메시지 등 작품이 전하는 예술적 의미를 분석적으로 서술하면서 사진이 회화가 같은 방식으로 창작되고 표현될 수 있는 예술임을 보여 주고자 한 그의 노력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주제 회화주의 사진의 특징과 예술적 위상을 위한 스타이컨의 노력

어휘 풀이

- 회화 : 여러 가지 선이나 색채로 평면상에 형상을 그려 내는 조형 미술
- 피사체 : 사진을 찍는 대상이 되는 물체
- 질감 : 재질(材質)의 차이에서 받는 느낌
- 감광액 : 빛에 감응하여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물질을 녹인 액체

23 세부 정보 이해하기

정답 ①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83%	5%	3%	1%	6%
--------------	-----	----	----	----	----

해설 | 3문단의 '스타이컨은 사진이나 조각이 작가의 주관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으며 문학 작품처럼 해석의 대상도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로댕 또한 이에 동감하여 가까이 사진 작품의 모델이 되어 주기도 하였다.'를 통해 스타이컨과 마찬가지로 로댕 역시 사진 작품, 조각 작품, 문학 작품 모두 해석의 대상이 된다고 여겼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것은 ①이다.

오답풀이 | ② <빅토르 위고와 생각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로댕>는 스타이컨의 작품으로, 근경에서는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과 서로 마주 보며 비슷한 자세로 앉아 있고, 원경에서는 <빅토르 위고>가 이들을 내려다보는 모습으로 배치되어 있다고 했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 <빅토르 위고>가 로댕과 <생각하는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으로 설정된 이유는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1문단에서 회화주의 사진의 특징은 사진을 연출된 형태로 찍거나 제작함으로써 자기의 주관을 표현하는 것이며, 특히 빛의 처리, 원판의 합성 등의 기법으로 회화적 표현을 모방하여 예술성 있는 사진을 추구하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회화주의 사진을 대표하는 것이 스타이컨의 <빅토르 위고와 생각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로댕>이다. 대상을 그대로 보여 주거나 현실 재현의 수단으로 인식한 것은 사진의 예술적 위상이 정립되지 않은 19세기 초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3문단에서 로댕은 사물의 외형만을 재현하려는 당시 예술계의 경향에서 벗어나 생명력의 표현성을 강조하는 조각을 하고 있었으며, 스타이컨은 이를 높이 평가하고 깊이 공감하였다는 언급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로댕과 스타이컨은 조각의 역할이 사물의 형상을 충실히 재현하는 것으로 한정했다고 볼 수 없다. ⑤ 2문단의 내용을 통해 볼 때, 스타이컨이 명암 효과를 밝은 원경과 어두운 근경의 합성으로 구현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질감 변화를 유도했던 것은 피사체의 대립적인 구도가 아니라 감광액을 사용하여 실현시켰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24 추론의 타당성 판단하기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5%	7%	12%	69%	4%
--------------	----	----	-----	-----	----

해설 | 2문단에서 스타이컨은 로댕을 대리석상 <빅토르 위고> 앞에 두고 찍은 사진과, 청동상 <생각하는 사람>을 찍은 사진을 합성하여 하나의 사진 작품으로 만들었다고 하였다. 이렇게 제작된 사진의 구도에서 어떻게 나타난 근경에는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과 서로 마주 보며 비슷한 자세로 앉아 있고, 반면 환하게 보이는 원경에는 <빅토르 위고>가 이들을 내려다보는 모습으로 배치되어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단순히 근경과 원경을 합성한 것이 아니라, 두 사진의 피사체들이 작가가 의도한 바에 따라 하나의 프레임 속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당시로서는 고난도의 합성 사진 기법을 동원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근경의 사진이 인물과 청동상을 함께 찍은 것이 아니며, 원경의 대상인 <빅토르 위고>만 따로 찍은 것도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또한 대비 효과를 표현함에 있어서 밝은 원경과 어두운 근경을 합성하였다고 하면 말이 되지만, 원경과 근경을 따로 찍어 합성한 것이 대비 효과를 위한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한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오답풀이 | ① 2문단에서 스타이컨은 로댕을 대리석상 <빅토르 위고> 앞에 두고 찍은 사진과, 청동상 <생각하는 사람>을 찍은 사진을 합성하여 하나의 사진 작품으로 만들었다고 하였다. ② 4문단에서 원경에서 희고 밝게 빛나는 <빅토르 위고>는 근경에 있는 로댕과 <생각하는 사람>의 어두운 모습에 대비되어 창조의 영감을 발산

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③ 4문단에서 대문호 <빅토르 위고>가 내려다보고 있는 가운데 로맹은 <생각하는 사람>과 마주하여 자신도 <생각하는 사람>이 된 양, 같은 자세로 목상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도는 로맹의 작품이 창작의 고뇌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⑤ 3문단에서 피사체들의 질감이 뚜렷이 살지 않게 처리함으로써 모든 피사체들이 사람인 듯한 느낌을 주고자 했다고 언급하였다.

25 글의 내용 재구성하기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1%	9%	85%	1%
--------------	----	----	----	-----	----

해설 | 3문단의 '스타이컨은 사진이나 조각이 작가의 주관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으며 문학 작품처럼 해석의 대상도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내용과, 4문단에서 스타이컨의 작품이 로맹의 작품도 문학 작품과 마찬가지로 창작의 고뇌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언급을 통해 스타이컨이 로맹의 조각 예술이 문학에 종속되는 것으로 표현했다는 ④의 감상은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오답풀이 | ① 3문단의 '스테이컨은 사진이나 조각이 작가의 주관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으며 문학 작품처럼 해석의 대상도 될 수 있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5문단에서 스타이컨은 명암 대비가 뚜렷이 드러나도록 촬영하고, 원판을 합성하여 구도를 만들고, 특수한 감광액으로 질감에 변화를 주는 등의 방식으로 사진이 회화와 같은 방식으로 창작되고 표현될 수 있는 예술임을 보여 주고자 했다는 데서 그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③ 4문단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가 내려다보고 있는 가운데 로맹은 <생각하는 사람>과 마주하여 자신도 <생각하는 사람>이 된 양, 같은 자세로 목상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와 '<빅토르 위고>는 근경에 있는 로맹과 <생각하는 사람>의 어두운 모습에 대비되어 창조의 영감을 발산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를 통해 당시 상황에서 스타이컨이 대문호 빅토르 위고를 창작의 영감을 주는 존재로 표현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⑤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기술적 도구이자 현실 재현의 수단으로 인식되었던 사진이 빛의 처리, 원판의 합성 등의 기법으로 회화적 표현을 모방함으로써 예술성을 갖추게 되었다는 점과 스타이컨의 작품인 <빅토르 위고와 생각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로맹이 회화주의 사진을 대표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는 언급을 통해 적절한 진술임을 알 수 있다.

26 단어의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정답 ①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93%	2%	0%	1%	1%
--------------	-----	----	----	----	----

해설 | ㉠의 '살다'는 '본래 가지고 있던 색깔이나 특징 따위가 그대로 있거나 뚜렷이 나타나다.'의 의미로, ㉠의 '이 소설가는 개성이 살아 있는 문체로 유명하다.'의 '살다'와 문맥적 의미가 가장 가깝다.

오답풀이 | ㉡ '아궁이에 불씨가 살아 있으니 장작을 더 넣어라.'의 '살다'는 '불 따위가 타거나 비치고 있는 상태에 있다.'의 의미이다. ㉢ '어제까지도 살아 있던 손목 시계가 그만 멈춰 버렸다.'의 '살다'는 '움직이던 물체가 멈추지 않고 제 기능을 하다.'의 의미이다. ㉣ '흰긴수염고래는 지구에 살고 있는 동물 중 가장 크다.'의 '살다'는 '어느 곳에 거주하거나 거주하다.'의 의미이다. ㉤ '부부가 행복하게 살려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의 '살다'는 '어떤 사람과 결혼하여 함께 생활하다.'의 의미이다.

[27-30] 독서-인문

지문 분석

「과학철학의 설명 이론」

지문 해제 과학철학에서 제시하고 있는 설명 이론 중 험펠과 셸먼의 이론을 중심으로 그 의의와 한계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글이다. 험펠의 설명 이론은 설명은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논증이어야 한다고 하며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험펠의 설명 이론은 피설명항이 보편 법칙의 개별 사례로서 마땅히 일어날 만한 일이었음을 보여 주기 위한 설명의 요건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우리의 일상적 직관과 충돌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한편 셸먼은 설명이 논증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인과 개념에 주목했다. 그러나 셸먼의 설명 이론은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철학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현대 철학자들은 현대 과학의 성과를 반영하는 철학적 탐구를 통해 새로운 설명 이론을 제시하기 위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

주제 험펠과 셸먼의 설명 이론의 특징과 한계

어휘 풀이

- 논증 : 옳고 그름을 이유를 들어 밝힘. 또는 그 근거나 이유
- 전제 : 어떠한 사물이나 현상을 이루기 위하여 먼저 내세우는 것
- 맥락 : 사물 따위가 서로 이어져 있는 관계나 연관
- 도출 : 판단이나 결론 따위를 이끌어 냄
- 직관 : 감각, 경험, 연상, 판단, 추리 따위의 사유 작용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상을 직접적으로 파악하는 작용
- 배제 :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물리쳐 제외함

27 세부 내용 파악하기 정답 ⑤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3%	0%	1%	1%	93%
--------------	----	----	----	----	-----

해설 | 4문단에서 셸먼의 인과적 설명 이론의 장점이 '피설명항을 결과로 보고 이를 일으키는 원인을 밝히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동시에 그의 인과적 설명 이론이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철학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음을 언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 철학자들은 현대 과학의 성과를 반영하는 철학적 탐구를 통해 새로운 설명 이론을 제시하기 위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제시된 글을 통해 셸먼의 설명 이론이 현대 과학의 성과를 받아들이는 결과를 다루고 있는 부분은 찾을 수 없으므로 ⑤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 ① 2문단의 '험펠의 설명 이론은 피설명항이 보편 법칙의 개별 사례로서 마땅히 일어날 만한 일이었음을 보여 주기 위한 설명의 요건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언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3문단의 '험펠의 설명 이론은 설명에 대한 우리의 일상적 직관, 즉 경험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추상적 문제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상식적 판단과 충돌하기도 하는 문제가 있다.'는 언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2문단에서 험펠의 설명 이론의 특징을 설명하는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험펠의 설명 이론에서 설명은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논증이 여야 하며, 기본적으로 논증은 전제로부터 결론이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형식을 띠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④ 4문단에 따르면 험펠과 달리 셸먼은 피설명항을 결과로 보고 이를 일으키는 원인을 밝히는 것이 설명이라고 보았다는 것과, 그의 인과적 설명 이론은 험펠의 이론보다 우리의 일상적 직관에 더 부합한다는 장점이 있다는 언급을 확인할 수 있다.

28 세부 내용 파악하기 정답 ①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59%	6%	14%	13%	6%
--------------	-----	----	-----	-----	----

해설 | 2문단에서 험펠의 체계적인 설명 이론의 특징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 '설명'에 관한 험펠의 세 번째 조건에 따르면 피설명항은 설명항으로부터 '건전한 논증'을 통해 도출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때, 건전한 논증은 '논증의 전제가 모두 참'이라는 조건과 '논증의 전제가 모두 참이라면 결론도 반드시 참'이라는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논증임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험펠의 세 번째 조건만 충족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설명'인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어떤 것이 건전한 논증이라고 해도 다른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떤 것이 건전한 논증이면 그것이 반드시 설명이다.'라는 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 ② 3문단의 '일상적 직관에 따르면 설명으로 인정되지만, 험펠에 따르면 설명이 아니라고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③ 2문단을 통해 알 수 있다. 즉 험펠의 설명 이론은 피설명항은 설명항으로부터 '건전한 논증'을 통해 도출되어야 하며, 건전한 논증은 '논증의 전제가 모두 참'이라는 조건과 '논증의 전제가 모두 참이라면 결론도 반드시 참'이라는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논증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어떤 것이 설명이라면 설명항에 포함되는 명제들은 반드시 참이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④ 2문단의 '험펠의 설명 이론은 피설명항이 보편 법칙의 개별 사례로서 마땅히 일어날 만한 일이었음을 보여 주기 위한 설명의 요건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2문단에서 설명은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논증이어야 하며, 논증은 전제로부터 결론이 논리적으로 도출되는 형식을 띠고 하였다. 따라서 설명을 하는 설명항은 전제에 해당하며 설명되어야 하는 부분인 피설명항은 결론에 해당한다고 언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할 때, 어떤 것이 설명이라면 피설명항은 반드시 설명항에서 논리적으로 도출된다고 할 수 있다.

29 세부 내용 추론하기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1%	2%	92%	0%
--------------	----	----	----	-----	----

해설 | ㉠의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철학적 문제는 ㉠ 이후의 내용을 통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즉 '결과를 일으키는 원인은 무수히 많고 연쇄적으로 서로 얽혀 있기 때문에 설명 이론에 인과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소크라테스의 예를 들어 제시한 부분에서는 정확한 인과 관계의 설정이 어렵기 때문에 결과를 일으킨 원인을

골라내고 연결하는 철학적 분석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은 '결과를 야기한 정확한 원인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문제'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오답풀이 | ① 4문단의 '어떤 설명 이론이라도 인과 개념을 도입하는 순간 원인과 결과 사이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다는 철학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를 통해 설명 개념과 인과 개념 모두 불명료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설명 개념과 인과 개념 중 어느 것이 더 불명료한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4문단에서 원인과 결과가 시공간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대한 철학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⑤ 4문단에서 설명은 피설명항을 결과로 보고 이를 일으키는 원인을 밝히는 것이 설명이라는 설명의 인과적 설명 이론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러나 피설명항에 원인을 제시하는 명제가 들어갈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30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5%	17%	11%	62%	3%

해설 | 2문단에서 험멜은 설명이 논증의 형식을 띠어야 하므로 설명을 하는 부분인 설명항이 전제에, 설명되어야 하는 부분인 피설명항이 결론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보기>에서 [물음]에 근거할 때, 제시된 [명제] 중 피설명항에 놓여야 할 것은 'ㄷ'의 '평면거울 A에 대한 광선 B의 반사각은 30°이다.'이다. 그리고 2문단에서 설명항에는 보편 법칙 또는 보편 법칙의 역할을 하는 명제가 하나 이상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는데, 제시된 [명제] 중 보편 법칙에 해당하는 것은 'ㄹ'의 '광선을 반사하는 평면에 대한 광선의 반사각은 입사각과 같다.'이다. 또한 2문단에서 보편 법칙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맥락을 나타내는 선행 조건이 설명항에 하나 이상 있어야 한다는 언급을 고려할 때, 제시된 [명제] 중 이에 해당하는 것은 'ㄴ'의 '평면거울 A에 대한 광선 B의 입사각은 30°이다.'와 'ㄱ'의 'A는 광선을 잘 반사하는 평면거울이다.'이다. 따라서 (가)에는 'ㄹ', (나)에는 'ㄱ, ㄴ', (다)에는 'ㄷ'이 들어가야 한다. 정답은 ④이다.

[31-34] 문학·고전 소설

지문 분석

작자 미상 「창선감의록」

작품 감상 충효 사상의 고취와 권선징악을 주제로 하고 있는 조선 후기의 가정 소설로, 이 작품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효이며, 부차적으로 형제간의 우애와 국가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작품은 약한 처와 착한 첩 사이의 갈등을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한 집안의 가장인 사대부의 삶과 가문의 운명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사대부와 부녀자에 의해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조선 후기 소설사 전개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작품은 다른 고전 소설과는 달리 등장인물들이 50여 명이나 되며, 인물의 유형은 고전 소설이 다 그렇듯이 선인과 악인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몇몇 인물들은 전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개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런 개성적인 인물들을 표현하여 다른 작품들과는 차별이 되고 있다. 제시된 부분은 엄송의 비호를 받는 조문화를 중심으로 하여, 진 소저가 상황을 판단하는 지혜와 기지를 발휘하여 위기를 벗어나는 내용이다.

주제 가문의 화목과 국가의 안정

어휘 풀이

- 무고 : 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꾸미어 해당 기관에 고소하거나 고발하는 일
- 박절하다 : 인정이 없고 쌀쌀하다.
- 방도 : 어떤 일을 하거나 문제를 풀어 가기 위한 방법과 도리
- 성안 : 안건을 만들. 또는 그 안건
- 사주 : 남을 부추겨 좋지 않은 일을 시킴
- 조섭 : 건강이 회복되도록 몸을 보살피고 병을 다스림

31 작품의 내용 파악하기	정답 ①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76%	15%	4%	1%	2%

해설 | 진 소저는 아버지인 진 공을 살리기 위해 추호도 망설이는 기색이 없이 조 문화 아들과의 혼인을 허락하게 되고, 이 소식을 들은 조 문화는 엄송을 사주하여 진 공의 옥사를 천자에게 아뢰어 진 공의 사형을 감하여 운남으로 귀양 보내게 했다. 후에 집으로 돌아온 진 공은 오 부인과 함께 길을 떠나게 되고, 진 소저는 집에 남아 부모님이 멀리 도망갈 시간을 번 후에 자신 또한 시비 등과 함께 도망하려는 의도를 보인다. 그러므로 진 소저가 부모님과 이별한 뒤 집에 머문 것은 혼인 여부를 결정하

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진 소저는 오 낭중이 오 부인을 찾아가 조 문화의 말을 전하는 과정에서 이미 혼인을 허락했다. 따라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이다.

오답풀이 | ② 부모와 이별한 진 소저가 마음을 진정시킨 후 혼인을 하고 싶다는 사정을 밝혔음에도 조 문화의 아들은 다급하게 혼인을 서두르게 되는데 이에 대해 조 문화로부터 참으라는 충고를 받는다. ③ "또한 저 아이는 이미 주머니 속에 든 물건이나 다름이 없게 되었다. 서두르지 않는다고 달아날 곳이 있겠느냐?"라는 조 문화의 말 속에는 혼인이 무조건 성사될 것이라는 확신이 담겨 있다. ④ '다시 10여 일이 지난 뒤 진 소저는 공의 행차가 이미 멀리까지 갔으리라 짐작하고 유모 및 시녀 운섬 등과 함께 야밤에 간단하게 행장을 꾸렸다. 그리고 모두 남장을 한 뒤 나귀 한 필을 끌고 회남을 향해 떠나갔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⑤ 진 소저가 유모 및 시녀 운섬과 집을 떠난 후 빈집에 찾아온 조 문화의 가인이 진 소저의 행방을 묻자 마을 사람은 쌀쌀한 태도로 진 소저의 행방을 모른다고 대답했다.

32 대화의 특징 파악하기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7%	3%	81%	4%

해설 | [A]에서 조 문화는 "내가 진실로 한번 입을 연다면 죽이 목숨은 구할 수 있을 것이니라."와 "만일 형수가 살아서 옥문을 나서게 하고 싶다면 시험 삼아 나를 위해 형수의 딸에게 내가 한 말을 전해 주어 보거라." 등 가정할 수 있는 상황을 들어 혼사를 원하는 자신의 의중을 청자인 오 낭중에게 전하고 있다. [B]에서 오 부인은 "옛 사람이 이르기를, '황금을 걸어 놓고 도박을 벌이면 그 지혜가 더욱 어두워진다.'고 했지. 지금 내 마음은 황금을 건 것에 비할 바가 아니로구나."라는 비교할 만한 상황을 들어 자신의 의중을 청자인 진 소저에게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적절한 것은 ④이다.

오답풀이 | ① [A]에서 조 문화는 진 공의 생사를 좌우할 수 있는 인물이고, 오 낭중은 진 공의 인척일 뿐이므로 동등한 관계로 볼 수 없다. [B]에서 오 부인은 딸인 진 소저의 현명한 처신을 바라고 있을 뿐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는 태도는 나타나지 않는다. ② [A]에서 조 문화는 지난 일을 들어 진 공에 대한 원한을 드러내는 것이지, 청자인 오 낭중에 대한 원한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B]에서 오 부인은 청자인 딸에 대해 원망을 표출하고 있지 않다. ③ [A]에서 조 문화는 오 낭중에게 선택 가능한 여러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진형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진 소저가 자기 아들과 결혼해야 한다는 하나의 방안만 제시하고 있다. [B]에서 오 부인은 딸의 선택 가능성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딸에게 선택을 맡기고 있다. ⑤ [A]의 조 문화나 [B]의 오 부인은 이상적 가치를 내세우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33 작품 감상의 적절성 판단하기	정답 ①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83%	4%	4%	3%	3%

해설 | '오 낭중은 본시 권세를 두려워하여 예에 하고 대답만 할 줄 아는 위인이었다.'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오 낭중은 권세를 두려워하여 권력자인 조 문화의 지시에 순응하고 그의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인물로 나타난다. 따라서 오 낭중을 올바른 사리 판별을 하여 위기 상황을 극복하게 하는 인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은 ①이다.

오답풀이 | ② 조 문화가 자신의 청혼을 거절한 진 공을 무고하여 옥에 가둔 후 나중에 귀양을 보내는 상황을 통해 권력을 지닌 신하가 정치를 좌우하는 현실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③ 진 소저는 조 문화가 속아 넘어갈 수 있도록 현명한 이유를 대면서 시간을 벌고 있는데, 이로써 부모님을 멀리 이동시키고 유모 및 시녀 운섬과 함께 야밤에 행장을 꾸려 회남으로 떠나고 있다. 이를 통해 진 소저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엿볼 수 있다. ④ 권력을 찬 조 문화의 청혼을 거절한 것이 진 공 가문에 위기로 닥치는 상황을 통해 정치적 문제와 가문의 문제가 연결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유모 및 시비인 운섬 등의 주변 인물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진 소저를 돕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감상이다.

34 문맥적 의미 파악의 적절성 평가하기	정답 ②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4%	88%	3%	1%	2%

해설 | ㉠에서 진 소저는 오 부인의 걱정에 앞서 부친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인데 자식으로서 욕됨과 그렇지 않음을 논할 때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찬밥 더운밥 가릴 수 없는 상황'임을 말하는 것으로, 어려운 형편에 이것저것 따질 수가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오답풀이 | ① ㉡은 어이없는 말을 듣고 노하는 상황이다. '나중에 보자는 사람 무섭지 않다.'는 당장에 화풀이를 하지 못하고 두고 보자는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다는 의미로, ㉠의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다. ③ ㉢은 목숨이 위태로운 아버지를 위해서 혼인을 허락한 진 소저의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만사가 욕심대로라면 하늘에다 집도 짓겠다.'는 세상 일이 다 뜻대로 되지는 않는다는 의미로, ㉢의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다. ④ ㉣은 진 소저가 부모의 은혜를 갚으려 한다고 거짓말을 하

는 상황이다. '산이 높아야 옥이 난다.'는 훌륭한 인물에게서 훌륭한 자손이 난다는 의미로, ㉠과는 관련이 없다. ㉡은 진 소저 일행이 모두 떠난 후 집이 텅 빈 상황이다.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는 함부로 덤비다가 더 큰 손해를 보게 된다는 의미로, 적절한 표현으로 볼 수 없다.

[35-39] 문학~장르 복합

지문 분석

(가) 신석정 「꽃덤불」

작품 감상 이 시는 대립적인 이미지를 가진 상징적 시어의 대조를 통해 온전한 조국 광복을 바라는 염원을 표현하고 있다. 즉 '어둠'과 '광명'이라는 대립적 이미지를 주축으로 하여 온전한 조국의 광복을 바라는 염원을 표현하고 있는데, '어둠'은 '밤'과 '달'로, '광명'은 '태양'과 '꽃덤불'로 이미지화하고 있다. 특히 '과거에 대한 회상-현재 상황에 대한 우려-미래에 대한 소망'의 사상 전개 과정에서 시인은 분단의 상황과 이념 갈등으로 인한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한 인식을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거니'로 표현하였고, 민족의 진정한 화합이 이루어지는 온전한 민족 국가를 이를 것을 소망하고 있다.

주제 광복의 기쁨과 새로운 민족 국가 수립의 염원

시어 풀이

- 꽃덤불 : 꽃이 어수선하게 엉클어져 있는 수풀
- 태양을 등진 곳 : 어두운 곳, 은밀한 곳으로 절망적 상황, 암담한 현실을 의미한다.
- 달빛이 흡사 ~ 쥐어뜯지 않았느냐? : 반복법과 연쇄법을 통해 조국의 독립을 절실하게 염원하는 우리 민족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 비오듯 쏟아지는 밤 : 일제 식민지
- 영영 잃어버린 벗 : 애국 투사들 중에 죽은 자
- 멀리 떠나버린 벗 : 외국으로 방랑, 유랑의 길을 떠난 자
- 몸을 팔아버린 벗 : 변절한 자
- 맘을 팔아버린 벗 : 전향한 자

(나) 전봉건 「사랑」

작품 감상 한 그루의 과목을 기르기 위해 온갖 정성을 기울이는 모습을 통해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노래한 작품으로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를 평이한 시어를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전형적인 수미상관의 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유사한 구절을 반복하여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는 이러한 형태적 특징 속에서 화자는 '사랑'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구체적인 일상의 현상을 활용하여 나열하고 있다. 이 시에서 '사랑'은 '받는 사랑'이 아닌 '주는 사랑'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시에서 전하는 '사랑'의 의미는 이성간의 사랑을 넘어 부모와 자식, 친구, 스승과 제자 등 수많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수용될 수 있음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주제 진정한 사랑의 의미

시어 풀이

- 사랑한다는 것은 : 시 전체의 주어가 되며, 화두를 제시하는 구절이다.
- 열매가 맺지 않은 과목 : 올바르게 자라지 못한 나무
- 흙 속의 해충 :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 원인
- 깊이 파헤쳐~하는 일이다. : 심어질 새 모목을 튼튼하게 자라게 해 줄 흙을 깊이 파고 깨끗하게 하는 일이다.
- 모진 비바람 : 시련과 고통
- 새 과목이 솟을 때까지 : 새순이 돋는 모습을 '빛이 바닥에서 샘물처럼 솟아 오르는 모양'에 빗대어 생동감 있게 표현하였다.

(다) 한옥구 「보리」

작품 감상 보리를 의인화하여 친근한 대상으로 받아들이며 성실함과 끈질김에 대한 교훈적 요소를 강조한 작품이다. 이 글에서 글쓰이는 보리를 겨울의 고난을 견디며 끈질기게 살아가는 생명력의 표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보리는 매서운 바람과 얼음같이 차가운 눈, 그리고 그 속에 덮인 어둠과 같은 시련과 고난을 견디면서, 역센 생명의 힘으로 결실의 희망과 기다림으로 살아 마침내는 환희의 봄날을 맞이한다. 뿐만 아니라, 결실하여 고개를 숙이는 겸손함과 사명의 완수를 기도한다. 글쓰이는 보리의 일생을 통해 성실과 끈질김으로 고난을 견디어 내면 환희와 보람이 반드시 따른다는 생의 교훈을 암시하고 있다.

주제 보리의 강인한 생명력 예찬

어휘 풀이

- 응결 : 한데 엉기어 뭉침
- 셋말갈다 : 매우 산뜻하게 맑다.
- 노고지리 : '종다리'의 옛말

35 작품의 공통점 파악하기

정답 ⑤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3%	2%	4%	86%
--------------	----	----	----	----	-----

해설 (가)에서는 화자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상황과 대상을 '태양을 등진 곳', '달', '밤'과 같은 시어들을 통해 어둠과 차가움의 이미지로 제시하고 있고, (나)에서는 '뿌리를 썩힌 흙 속의 해충', '모진 비바람이 삼킨 어둠'으로 고난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고, (다)에서는 '어둠과 차디찬 눈 밑', '춥고 어두운 겨울' 등의 표현으로 시련과 고난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세 작품 모두 공통적으로 시련과 고난의 의미를 드러내며 화자의 기대가 실현되기 이전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⑤이다.

오답풀이 ① (가)의 '태양'과 '태양을 등진 곳'에서 공간의 대조를 통한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드러나고 있을 뿐, (나)와 (다)는 해당하지 않는다. ② (다)에서 푸른 이미지의 색채어를 통해 새롭게 나타난 것들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을 뿐, (가)와 (나)는 해당하지 않는다. ③ 두 개의 양립할 수 없는 표현을 문장에 사용하여 표현상의 모순을 만들어내는 역설적 표현은 세 작품 모두 나타나지 않는다. ④ 세 작품 모두 자연물을 소재로 하고 있지만, 서로 대립하던 것들이 타협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36 말하는 의미 태도 파악하기

정답 ③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3%	2%	91%	1%	1%
--------------	----	----	-----	----	----

해설 ㉠의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거니'는 일제가 물러가고 광복이 되었으나 여전히 혼란스러운 당시의 시대상을 표현한 것으로, '아직도'에는 부정적 상황이 온전히 극복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오답풀이 ① '항상 태양을 등진 곳에서만 비롯하였다.'에서 '태양이 등진 곳'은 일제 강점기의 암담한 현실을 의미하는데, '항상'은 시련의 순간마다 시련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지속되고 있었음을 강조한 말이다. ② '그러는 동안에 드디어 서른여섯 해가 지나갔다.'는 조국의 광복을 의미하는데, '드디어'는 기다리던 광복이 찾아왔음을 강조한 말로 간절한 기다림을 나타낸다. ④ '아무리 모진 비바람이 삼킨 어둠이여도'에서 '아무리'는 적대적인 것들로 인해 당황하는 태도를 부각하는 것이 아니라, 적대적인 것들에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⑤ '이끼 푸른 바다의 물결로써 온 누리를 뒤덮는다.'에서 '이끼'는 예상과는 다른 결과를 실망스럽게 여기는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겨울을 이겨낸 보리의 생명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담겨 있다.

37 작품 감상의 적절성 파악하기

정답 ②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4%	90%	2%	1%	1%
--------------	----	-----	----	----	----

해설 (가)에서 '몸을 팔아버린 벗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뜻을 꺾은 사람'을 뜻하며, '맘을 팔아버린 벗은 '일제에 동조하고 협력한 사람'을 뜻한다. 따라서 이들의 삶에 대해 사랑하는 대상을 되찾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은 ②이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 '헐어진 성터'는 '빼앗긴 조국'이며, '이야기'는 '광복을 위한 논의'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헐어진 성터'를 해매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③ (나)에서 '흙 속의 해충'은 과목을 해치는 존재이므로 이를 제거하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을 위협하는 것들을 없애고자 하는 노력을 의미한다. ④ (나)에서 '밤'은 고통의 시간이며 부정적 상황이므로 '밤'을 새워 어둠을 지키는 것은 깊은 어둠의 시간 동안 혹 과목이 상하지 않도록 옆에서 보살피며 주는 것이다. 이는 위협적인 상황으로부터 사랑하는 대상을 지키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⑤ (가)의 '어느 꽃덤불'에 안기는 것은 새로운 민족 국가의 수립을, (나)의 '새 과목'이 솟는 것은 고난을 이겨낸 결과를 의미한다. 이는 모두 화자가 바라는 긍정적 상황이므로, 노력을 통해 얻으려 하는 사랑의 결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38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하기

정답 ①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92%	3%	1%	1%	0%
--------------	-----	----	----	----	----

해설 ㉠의 '사랑한다는 것은'은 시의 제목인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형식의 (나)에서 전체의 주어가 되며, 화두를 제시하는 구절이며, 사상 전개 단계의 기능을 한다. 또한 '사랑한다는 것은'이 마지막 연과 대응되어 '진정한 사랑의 의미'라는 주제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것은 ①이다.

오답풀이 | ② ⑥가 글의 첫머리에 제시되긴 했지만, 이어질 내용이 자연 친화적 이념의 역사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⑥는 행위이므로 사물에 비유되어 있지 않으며 경외감도 드러내고 있지 않다. 또한 ⑥의 경우, 다른 대상에 비교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비장감을 자아내는 것도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⑥와 ⑤ 모두 인간 소외의 양상을 압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③과 ⑥ 모두 존재의 생성에서 소멸에 이르는 과정과는 관련이 없다.

39 작품 감상의 적절성 평가하기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3%	1%	1%	91%	0%
--------------	----	----	----	-----	----

해설 | '봄의 춤'은 온 누리에 보리의 푸른 생명력이 넘치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만개한 생명력을 형상화한 것이다. 이는 성숙해질수록 겸손함을 잃지 않는 자세와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④는 적절하지 않은 감상이다.

오답풀이 | ① '차가운 땅속'에서 추위를 견디는 보리의 모습을 통해 인내심과 연결하여 감상하는 것은 적절하다. ② 보리가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는 것은 보리가 성장하는 모습으로 강인한 의지 및 진취적 자세와 연결하여 감상하는 것은 적절하다. ③ '생명의 보금자리'에 깊이 뿌리박고 자라는 보리는 역경을 견디는 끈질긴 생명력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한 감상이다. ⑤ 노고지리에게 '깊고 아늑한 품속'을 내어 주며 사랑의 보금자리를 틀게끔 하는 보리의 모습을 통해 포용과 배려로 주위와 조화를 이루려는 자세를 엿볼 수 있다.

[40~42] 문학~현대 소설

지문 분석

오정희 「옛 우물」

작품 감상 40대 중반의 중년 여성을 서술자로 하여 자신의 삶에 대해 깊은 성찰의 자세를 보여 주고 있는 작품으로, 서술자인 '나'가 생일날 아침 막넛동생이 탄생하던 날을 떠올리는 장면으로부터 작품은 시작한다. 어느 지방 도시의 평범한 가정주부인 '나'는 사랑하던 사람의 죽음, 연당집이 헐리는 것, 간질을 앓는 사람과의 만남 등을 통해 삶과 죽음, 생성과 소멸 등에 생각한다. 이를 계기로 어린 시절 자신이 목격했던 탄생과 죽음의 공간인 '옛 우물'을 떠올리고, 그 과정에서 '옛 우물'로 상징되는 여성의 자궁(모성)을 통해 영원히 순환되는 생명력과 여성성, 삶의 감추어진 의미 등을 깨닫는다.

주제 삶과 죽음, 인간의 정체성 등에 대한 성찰

어휘 풀이

- 상기 : 지난 일을 돌이켜 생각하여 냄
- 범상하다 : 중요하게 여길 만하지 아니하고 예사롭다.
- 시렁 : 물건을 얹어 놓기 위하여 방이나 마루 벽에 두 개의 긴 나무를 가로질러 선반처럼 만든 것
- 웅숭깊다 : 사물이 되바라지지 아니하고 깊숙하다.
- 잔상 : 외부 자극이 사라진 뒤에도 감각 경험이 지속되어 나타나는 상
- 부박하다 : 천박하고 경솔하다.

40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정답 ②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3%	91%	1%	2%	1%
--------------	----	-----	----	----	----

해설 | 이 작품은 '나'가 막넛동생이 태어나던 때의 일을 떠올리며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 나가고 있으므로 1인칭 주인공 시점에 의해 서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술자인 '나'는 자신의 삶에 대해 담담한 어조로 고백하면서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적절한 것은 ②이다.

오답풀이 | ① 이 작품은 1인칭 서술자의 서술로 이루어졌는데, 서술자인 '나'가 과거의 일을 떠올리며 자신의 주관적 생각을 내적 독백으로 전개하고 있으므로 객관적 진술을 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나'의 행적이 다소 드러나고 있으므로 인물의 행적에 대한 요약적 진술로 볼 수는 있지만, 이 글에서 특별한 갈등은 일어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중략' 이후에서 의문과 추측의 진술이 일부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자신의 삶이 가질 수 있었던 가정적 가능성을 진술한 것으로 다른 인물에 대한 정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진술을 통해 다른 인물에 대한 반감을 제시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막넛동생이 태어나던 상황에 대한 감각적인 묘사가 제시되었지만, 이것이 혼란스러운 시대적 분위기를 입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Plus Tip

♣ 선생님 말씀 ♣

≡ 〈소설의 시점과 거리〉

1. 시점의 갈래

서술자의 위치	서술자의 태도	시점의 갈래
작품 속 → 1인칭	서술자	1인칭 서술자 시점
	관찰자	1인칭 관찰자 시점
작품 속 → 3인칭	서술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관찰자	(3인칭) 작가 관찰자 시점

2. 거리 : 서술자와 작중 인물, 서술자와 독자 사이의 심리적 친밀도

1인칭 서술자 시점	서술자-(가까움)-작중 인물 서술자-(가까움)-독자
1인칭 관찰자 시점	서술자-(거리감)-작중 인물 서술자-(가까움)-독자
3인칭 관찰자 시점	서술자-(거리감)-작중 인물 서술자-(거리감)-독자
3인칭 전지적 시점	서술자-(가까움)-작중 인물 서술자-(거리감)-독자

41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 ①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86%	2%	1%	1%	8%
--------------	-----	----	----	----	----

해설 | 아들의 말에 의하면 '도도'는 4백 년 전에 사라진, 나는 기능을 잃어 멸종된 새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서술자는 나는 기능을 잃어버려 멸종된 '도도'를 인간의 모습과 연관 짓는 과정에서 자신 또한 가능성이 도태된 존재라 여기고 있다. 이는 '누구나 젊은 한 시절 자신을 전설 속의, 멸종된 종으로 여기지 않겠는가.'라고 언급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삶이 내게 도태시킨 가능성에 대해 별반 아쉬움도 없이 잠깐 생각해 본' 자신의 삶과 연관 지어 서술한 부분을 통해 서술자는 '나는 기능을 상실한 '도도'가 가능성이 도태된 자신과 유사하다고 여기고 있다. 따라서 '도도'는 주인공이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하는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정답은 ①이다.

오답풀이 | ② '도도'는 아들이 자신이 사용하는 물건에 붙인 이름일 뿐으로, '도도'를 아들의 불행한 미래를 암시하는 대상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주인공은 아들에게 '도도'에 대한 설명을 듣기 전까지 '도도'에 대해 알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글을 통해 주인공이 과학을 깊이 탐구했던 이력을 알 수는 없으므로 적절한 설명으로 볼 수 없다. ④ 주인공이 '갈라파고스' 섬의 희귀종을 연상한 것은 티브이 뉴스의 영향에 의한 것이며, '도도' 또한 아들의 설명을 듣고 연상에 개입시킨 대상일 뿐이다. 특히 이야기의 흐름을 살펴볼 때, 이 작품은 현대인의 단절된 인간관계를 말한다기보다는 주인공이 자신의 삶의 과정에서 깨달은 순환되는 생명력 또는 정체성의 탐색 및 삶의 감추어진 의미 등에 대해 성찰하는 모습이 중점적으로 부각된다고 볼 수 있다. ⑤ 나는 기능을 잃어버려 멸종된 '도도'에 대해 그 의미를 부여하여 관습과 제도에 희생된 존재로 형상화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도도'는 관습과 제도에 억압된 존재이지 관습과 제도 자체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더욱 적절하지 않다.

42 작품 감상의 적절성 판단하기 정답 ①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71%	2%	4%	11%	9%
--------------	-----	----	----	-----	----

해설 | 주인공이 주기적으로 학교나 재활 센터 등에 오가거나 가끔 남편과 밤 외출 등을 하는 행위는 현실 너머의 일탈적인 행동이 아닌 정상적인 일상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주인공이 이러한 행위를 통해 일상 세계에서 안정된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경계 상황에 놓여 있다는 ①은 적절한 감상이 아니다.

오답풀이 | ② '한 사람의 생애에 있어서 사십오 년이란 무엇일까. 부자도 가난뱅이도 될 수 있고 대통령도 마술사도 될 수 있는 시간일뿐더러 이미 죽어서 물과 불과 먼지와 바람으로 흩어져 산하에 분분히 내리기도 충분한 시간이다.'에 죽음을 대하는 주인공의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즉 주인공은 죽음의 세계와 삶의 세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순환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③ 막넛동생이 태어나던 때 할머니의 정성스런 행동을 떠올리고 있는 것을 통해 주인공

은 출생이라는 생의 첫 과정에 주목하여 삶의 의미와 가치를 생각하며 자신의 정체성 탐색을 시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주인공이 자신의 정체성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아프리카나 광야 등 낯선 곳을 떠돌리는 것은 새로운 정체성을 일상과는 다른 곳에서 찾으려는 욕구를 볼 수 있다. ⑤ 제시된 글의 끝부분에서 주인공이 자신의 손으로 질서 지워지는 일들에 자부심을 가지면서도 종종 무질서 속으로 피신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이는 주인공이 질서와 무질서 사이를 오가며 정체성을 탐색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43~45] 문학~고전 시가

지문 분석

정훈 「탄궁가(嘆窮歌)」

작품 감상 작자 자신의 빈고(貧苦)한 생활상을 소재로 안빈낙도를 읊은 작품이다. 주제는 소박하지만 표현 방법은 직선적이고 개성이 있으며 작자가 유교 사상의 지배 하에서 그 사상을 어떻게 수용하고 의식하였는가를 보여 주고 있다. 가난한 선비의 생활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 작품의 구조를 살펴보면, 서사에서 자신과 빈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본사에서는 빈곤의 극복 노력(현실적), 빈곤의 상태와 극복 노력(관념적)이 반복되다가 결사에서 체념에 이르는 모습을 보인다.

주제 가난으로 인한 근심과 체념

시구 풀이

- 하늘이 만드심을 일정 고루 하려면 : 하늘이 만드시길 일정하게 고루 하려면
• 집 안에 들어가 씨앗을 마련하니 / 올벼 씨 한 말은 반 넘게 쥐 먹었고 : 가난한 생활을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죽 옷물 상전 먹고 건더기 건저 종을 주니 / 눈 위에 바늘 찢고 코로는 휘파람 분다 : 죽을 쓰어 국물은 상전이 먹고 좋은 잔국을 종을 주었는데 / (종놈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콧방귀만 킁다. : 가난한 살림이라 면목 없어 상전은 오히려 죽 쑤 물을 먹고, 종에게 건더기를 주었는데, 종들은 눈살을 찌푸리며 콧방귀를 킁고 있다. → 가난하여 종들에게 무시당하고 있음.
• 시절이 풍년인들~어이 가릴꼬 : 굶주리고 헐벗은 화자의 가족들의 처지가 드러남
• 빈천도 내 분수니 서러워해 무엇하리 : 가난과 천함을 자신의 분수로 여김

43 표현상의 특징 파악하기 정답 ⑤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1% 2% 2% 2% 91%

해설 [가]에서 화자는 봄이 되어 농사를 짓기 위해 이웃에게 농기구를 빌렸음에도 불구하고 농사지를 올벼 씨를 쥐가 반 이상 먹어 버렸고, 기장, 피, 조, 팥은 겨우 서너 되 남아 있어 출고 주린 식구가 먹고 살기 어려운 현실의 고통을 탄식하고 있다. [나]에서는 가난을 의인화하여 술과 음식을 갖추어 '가난귀신'을 불러 '좋은 날 좋은 때에 사방으로' 보내고 싶어 하지만 '가난귀신'은 화자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상기시키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는 ⑤가 가장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가]에는 한탄이 담긴 어조로 인해 화자의 슬픔이 드러나고 있고, [나]에는 가난귀신의 말에 설득적 어조가 엿보이긴 하지만 이는 화자의 의지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가]에는 구체적인 소재인 '쟁기, 호미, 올벼, 기장, 피, 조, 팥' 등이 열거되어 있고, [나]에는 추상적인 소재인 '가난귀신'이 나타나지만 열거되지는 않았다. ③ [가]에는 궁핍하고 어려운 현재 상황에 대한 화자의 탄식이, [나]에는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은 화자의 소망과 궁핍한 현재 상황에 대한 수용이 나타나고 있다. ④ [가]에는 농사지를 씨앗도 없고 남은 곡식도 없다는 구체적인 문제가 드러나고 있고, [나]에는 술과 음식을 갖추어 가난귀신을 떠나게 하고자 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지만 이를 실제적인 문제 해결 과정이라 할 수 없다.

44 시구의 의미 파악하기 정답 ②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4% 90% 2% 1% 2%

해설 ①은 부역과 세금을 감당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것으로,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나 그조차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정도로 매우 가난한 화자의 절박한 심정을 드러낸 표현이다. 따라서 이를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모면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은 ②이다.

오답풀이 ① ①은 하인들에게 열심히 일해 달라는 부탁으로, 현실의 궁핍함과 어려움을 벗어나고자 하는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③ ③은 겨울이 덥다 하더라

도 몸을 가릴 수 있는 옷조차 없는 궁핍한 상황을 의미하는데, 굶주리고 헐벗은 화자와 화자 가족들의 처지가 드러난다. ④ ④은 쓸 일이 없어 방치한 술과 시루가 녹아 슬었다는 것으로, 당장 먹고 살 양식도 없는 처지이기 때문에 떡과 같은 음식을 해 먹을 형편이 아님을 보여 준다. ⑤ ⑤은 제사를 지내기 위해 찾아 온 친척들을 대접할 것이 없는 상황에 대한 화자의 탄식으로 앞날에 대한 화자의 걱정이 드러난다.

45 작품 감상의 적절성 평가하기 정답 ③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1% 2% 92% 1% 1%

해설 이 작품은 곤궁한 생활을 벗어날 수 없음을 탄식하면서 끝내 그것을 수용하는 자세를 노래한 가사이다. 화자의 가난한 생활상이 일상적 소재를 바탕으로 사실적으로 그려져 전달의 효과를 높이고 있는데, 가난귀신과의 대화를 제시한 부분에서는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시상 전개 과정을 살펴볼 때, [A]에서는 하늘이 만든 자신의 가난한 삶에 대한 화자의 탄식을 '이다지도 괴로운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B]에서는 가난귀신과 대화를 나눈 화자가 '서러워해 무엇하리'라고 하며 가난한 삶에 대해 체념적 수용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감상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이다.

오답풀이 ① [B]의 '하늘 만든 이내 가난'에는 자신의 가난을 하늘이 만들어 준 운명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화자의 운명론적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해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신념이 강화된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나기도 싫지 않은지 너무도 잘 나는 잡초 '싸리피 바랭이'는 화자의 비참한 상황을 더욱 강조하는 것으로, 이를 화자의 낙관적 세계관이 변화되어 나타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부러워하나 어찌하리'에는 화자의 열등감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감당할 방법이 없어 괴로운 화자의 처지가 드러나 있다. '살마 한들 어이하리'에는 화자의 우울함이 아니라, 가난과 천함을 자신의 분수로 여기는 안분지족의 태도와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데 따른 체념의 정서가 드러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이 얼굴 지너 있어'는 화자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라 자신의 가난한 처지를 가리킨다. 그리고 '빈천도 내 분수니'는 자신감이 약화된 처지가 아니라 가난에 대한 체념과 수용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고득점을 기원합니다.

등급컷

Table with 8 columns: 등급 (1-8), 원점수 (97-20), 나의 점수 [] 점, [] 등급

오답률 Best 5

Table with 5 columns: 순위 (1-5), 번호 (28-42), 오답률(%) (41-29)

정답과 해설					본문 147-162페이지
1 ①	2 ③	3 ③	4 ②	5 ④	
6 ③	7 ③	8 ①	9 ⑤	10 ③	
11 ①	12 ②	13 ④	14 ③	15 ①	
16 ⑤	17 ④	18 ①	19 ②	20 ①	
21 ①	22 ⑤	23 ④	24 ⑤	25 ①	
26 ④	27 ⑤	28 ③	29 ③	30 ②	
31 ②	32 ③	33 ①	34 ③	35 ④	
36 ②	37 ④	38 ④	39 ⑤	40 ③	
41 ④	42 ①	43 ①	44 ②	45 ③	

[1-5] 화법

1 말하기 불안의 해소 방안 파악하기 정답 ①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96%	1%	0%	0%	0%
--------------	-----	----	----	----	----

해설 | (가)는 학생 2가 내일 있을 발표에 대한 걱정 때문에 학생 1로부터 조언을 듣고 있는 상황이다. 즉 학생 2는 발표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발표해 본 경험이 없는 것에 대해 학생 1에게 고민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가)의 상황에서 ㉠의 해소 방안으로는 학생 2가 청중 앞에서 발표해 본 경험이 부족하여 부담감을 느끼고 있으므로 미리 친구들 앞에서 연습을 하며 자신감을 얻는다는 ㉠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풀이 | 학생 1의 두 번째 발화에서 발표 주제가 흥미롭다고 반응한 것으로 보아 ㉠은 ‘발표할 주제가 흥미를 끌지 못할 것’에 관한 내용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제를 교체하는 것은 ㉠에 대한 적절한 해소 방안이 아니다. ㉡ 학생 2는 첫 번째 발화에서 “자료 준비는 충분한 것 같은데 발표를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야.”라고 하였으므로 발표 내용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준비하는 것은 해소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다. ㉢ 학생 2는 두 번째 발화에서 “사실 나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발표해 본 경험이 별로 없잖아.”라고 하여 발표 경험의 부족만 언급했을 뿐 이전에 학생 2가 발표에서 실패했던 경험이 있는지는 알 수 없다. ㉣ 학생 2가 느끼는 발표에 대한 불안은 청중의 높은 지적 수준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로 부터 주목받았을 때 느끼게 되는 자신감 결여, 즉 내부적인 요인에 기인하고 있다.

2 발표 계획의 반영 여부 파악하기 정답 ③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1%	1%	92%	0%	4%
--------------	----	----	-----	----	----

해설 | 학생 2는 “여러분은 솔방울을 한번쯤 본 적이 있을 테니 솔방울이 어떻게 생겼는지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친구들의 경험을 환기하는 방식으로 시작하고 있다(㉠). 그리고 솔방울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사진 자료를 제시하였으며, 습기에 반응하는 솔방울의 움직임 보여 주기 위해 영상 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바닥에 떨어진 솔방울을 잘 살펴보면 날씨에 따라 오므라들기도 하고 벌어지기도 하는데 그 이유를 아시나요? (청중의 반응을 살핀 후)”와 “이 솔방울을 건조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를 통해 친구들이 발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발표를 진행하면서 질문을 던지고 반응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마무리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솔방울이 습도에 따라 모양이 변하는 이유와 이 원리를 생활에 이용한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라고 하면서 친구들이 발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내용을 요약하며 마무리하였다(㉣). 그런데 학생 2는 솔방울의 특성을 이용한 운동복 사례를 소개하며 솔방울의 특성을 응용하려는 연구가 진행 중임을 밝히고 있지만, 이와 관련하여 솔방울이 경제적으로 유용하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통계 자료를 제시하지는 않았으므로 ㉡은 발표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이다.

3 발표 내용 추론하기 정답 ③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2%	91%	2%	2%
--------------	----	----	-----	----	----

해설 | (나)에서 솔방울의 실편을 이루는 조직 중 바깥쪽 조직은 안쪽 조직보다 습기에 더 빨리 반응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벌어진 솔방울에 물을 부으면 실편의 바깥쪽 조직은 안쪽 조직보다 물기를 더 빨리 흡수해서 그만큼 빨리 팽창하게 되고, 이로 인해 실편들이 모두 안쪽으로 굽어져서 솔방울이 오므라들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솔방울이 벌어진 정도로 날씨를 예측한다고 했을 때 솔방울이 활짝 벌어지면 습도가 낮고 건조한 상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비가 올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한 ㉢이 가장 적절한 추론임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 ‘실편 한 개는 대개 소나무 씨앗 한 개씩을 감싸고 있다’는 것과 ‘솔방울 하나는 보통 70~100개 정도의 실편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솔방울 하나에는 소나무 씨앗 70~100개 정도가 들어 있다고 추론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솔방울을 건조시키면 실편의 바깥쪽 조직이 안쪽보다 더 먼저 수축해서 솔방울 다시 벌어지게 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 실편의 바깥쪽 조직이 안쪽 조직보다 습기에 더 빨리 반응한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 솔방울의 특성을 응용하여 만든 운동복은 외부의 습기를 차단하는 기능이 아닌 땀을 외부로 배출하는 기능에 더 초점을 맞추어 제작되었다는 내용을 통해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4 화법의 성격과 특성 파악하기 정답 ②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94%	0%	0%	0%
--------------	----	-----	----	----	----

해설 | ㉠은 선생님이 진희가 언급한 내용에 공감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선생님은 진희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동의하는 이유를 덧붙이고 있다. 따라서 상대방과 공유한 정보를 근거로 태도 변화를 요청하고 있다고 한 ㉡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 ㉢에서 진희는 “혹시 시간 좀 있으세요?”라고 하면서 선생님과 상담을 하고자 하는 의도를 바로 드러내지 않고 선생님의 상황이 어떤지를 먼저 여쭙고 있다. 이는 상대방이 가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 선생님이 “어떻게 상담하면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지 잘 몰라요.”라는 진희의 말을 듣고 ㉢과 같이 묻는 것은 진희의 발화에 대해 질문 의도를 정확히 파악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에서 ‘고개를 끄덕이며’는 동작을 나타내는 비언어적 표현이며, “그렇군요.”는 언어적 표현이므로 적절하다. ㉤ ㉢에서 진희는 “아, 정말 그럴겠네요.”라고 말하며 선생님의 의견에 동의의 뜻을 나타내고 있으며, “또 다른 방법은 없나요?”라고 질문하여 상담 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5 단계별 발화의 적절성 파악하기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1%	0%	0%	96%	0%
--------------	----	----	----	-----	----

해설 | ㉡는 고민이 있지만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선뜻 고민을 털어놓지 못하는 문제 상황이다. 진희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문제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이지 <보기>에서 제시한 4단계의 내용과 관련이 없다. 4단계에서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은 상담 동아리를 통해 고민을 해소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으며, 진로를 결정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등의 사례를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또래 친구에게 고민거리를 털어놓고 위로받는 모습을 보았는지 질문하는 것은 <보기>의 1단계에서 언급한 ‘청자의 관심을 끌 질문’으로 볼 수 있다. ㉡ ‘여러분은 ~ 이야기하지 못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라고 하여 자신의 고민을 주변 어른들에게 터놓지 못하는 친구들의 경험을 상기시키면서 <보기>의 2단계에 제시된 것처럼 문제 상황과 청자를 연관시키고 있다. ㉢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고민을 털어놓지 못하는 문제 상황에 대해 고민을 털어놓을 상담 동아리가 있다고 언급하는 것은 <보기>의 3단계인 ‘해결 방안의 제시’에 해당하므로 적절하다. ㉤ 고민이 있는 학생들이 게시판을 통해 또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므로 <보기>의 5단계에 제시된 ‘청자가 해결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방법을 안내’하는 것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6-10] 작문

6 글쓰기 전략 파악하기

정답 ③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3%	6%	84%	4%	1%
--------------	----	----	-----	----	----

해설 | (가)에는 「향토 음식 요리 교실」을 다녀온 경험과 감상, 깨닫게 된 점(반성) 등 글쓴이의 생각이나 느낌이 나타나 있다. 반면에 (나)는 '요즘 청소년들은 이런 향토 음식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며 이에 관심을 가질 생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여 문제 상황을 제시하였고, 이어 '그래서 나는 친구들과 주말에 마을에서 열리는 「향토 음식 요리 교실」에 다니고 있다.'라고 언급함으로써 문제 상황에 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글쓰기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임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 (나)는 '향토 음식은 전통 음식보다 좁은 개념으로 각 지역의 특산물을 재료로 하여 만들어진 지방 고유의 음식을 말한다.'라고 하여 향토 음식에 대한 개념을 정의함으로써 논의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으나, (가)에서는 개념을 정의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② (가)와 (나) 모두 자신의 체험이 지닌 한계에 대해 비판함으로써 주제를 강조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④ (가)와 (나) 모두 자신의 의견은 드러나 있으나, 자신의 의견과 타인의 의견을 대비함으로써 자기주장의 타당성을 부각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나)는 향토 음식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도를 분석한 설문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자신의 논지를 강화하고 있으나, (가)에서는 설문 자료를 활용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7 조건에 맞는 표현의 적절성 파악하기

정답 ③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1%	3%	93%	1%	0%
--------------	----	----	-----	----	----

해설 | <조건>에서는 세 가지 조건이 제시되고 있는데, (1) 전통의 계승과 관련하여 향토 음식의 가치를 제시할 것, (2) 속담을 활용할 것, (3) 향토 음식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것 등이 그 내용이다. ③의 경우, 먼저 '향토 음식은 우리 전통을 이어 갈 소중한 유산 중 하나'라고 하여 전통의 계승과 관련하여 향토 음식의 가치를 제시하였으며, '티끌 모아 태산이 되듯'이라고 하여 속담을 적절히 활용하였다. 또한 '향토 음식에 대한 청소년의 작은 관심들이 모인다면 향토 음식은 우리의 자랑으로 자랄 것이다.'라고 함으로써 향토 음식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였다.

오답풀이 | '전통의 계승'과 관련하여 향토 음식의 가치를 제시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향토 음식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였으나 속담을 활용하지 않았다. ② '뚝배기보다 장맛'이라는 속담을 활용하였으며, 향토 음식의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향토 음식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우물가에서 송눈 찾기'라는 속담을 활용하였지만, '전통의 계승'과 관련하여 향토 음식의 가치를 제시하지 않았고, '향토 음식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을 유도하지도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격'이라는 속담을 활용하였으나, '향토 음식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지 않았으며, '전통의 계승'과 관련하여 '향토 음식의 가치'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8 고쳐 쓰기의 적절성 파악하기

정답 ①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95%	1%	1%	1%	0%
--------------	-----	----	----	----	----

해설 | ㉠의 앞 문장은 향토 음식에 대한 통념에 대한 내용으로 향토 음식의 정확한 개념에 해당하는 ㉡과 내용상 대조되어 접속어 '그러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의 뒤 문장은 향토 음식의 가치 의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의 부연에 해당한다. 따라서 ㉠ ㉡은 내용의 연결을 고려할 때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 ㉠의 '그리고'는 일반적으로 내용을 병렬적으로 연결할 때 쓰는 접속 부사이다. 그런데 ㉡의 뒤 문장은 ㉠의 앞문장과 서로 상반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은 화제를 앞의 내용과 관련시키면서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거나 앞의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을 이끌 때 쓰는 접속 부사인 '그런데'로 고쳐 쓰는 것이 글의 흐름상 적절하다. ③ ㉢은 문단의 중심 내용인 '향토 음식 요리 교실에서 느끼고 배운 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으로 통일성을 깨뜨리는 문장이다. 따라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 ㉣의 '활기찬'은 '힘이 넘치고 생기가 가득한'의 의미이므로 '음식의 맛이 깨끗하고 시원한'의 의미를 지니는 '담백한'과 어울리지 않는다. 따라서 '꾸밈이나 거짓이 없고 수수한'의 의미를 지니는 '소박한'으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⑤ ㉤의 '참여'는 '어떤 일에 끼어들어 관계함'의 의미를 지니므로 주어진 '향토 음식에 관한 관심'과 호응하지 않는다. 따라서 '도움이 되도록 이바지함'의 의미를 지니는 '기여'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9 내용 전개 방식 파악하기

정답 ⑤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1%	0%	1%	1%	95%
--------------	----	----	----	----	-----

해설 | '학생의 글'에서 학생은 자신이 공간 디자이너의 꿈을 갖게 된 계기는 '피아노 계단' 이야기를 접하고부터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또한 주목받지 못했던 공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 사례로 어느 도시의 지하철역에 설치된 피아노 계단을 소개하면서 자신에게 깊은 인상을 준 디자인 작품을 예로 들어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이 활용한 내용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이다.

오답풀이 | 공간 디자이너는 건축, 토목, 조경, 기술 공학을 함께 고려하여,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공간을 창조하는 직업이라고 설명하고 있을 뿐, 다른 직업과의 차이점을 대조하여 제시하지 않았다. ② 공간 디자이너가 하는 일의 어려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며,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③ 공간 디자이너가 공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간 디자이너가 필요한 이유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를 열거하여 제시한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피아노 계단'을 언급하는 부분에서 공간 디자이너가 창조한 공간의 아름다움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를 강조하기 위해 공간 디자인 작품의 미적 구성 원리를 분석하여 제시한 것은 아니다.

10 고쳐 쓰기 계획의 적절성 평가하기

정답 ③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0%	94%	1%	1%
--------------	----	----	-----	----	----

해설 | '학생의 글'에서 학생은 '실제로 주변에는 그런 공간들이 적지 않음을 알게 되어 그중 몇몇 곳을 찾아가 보기도 했다.'라고 하며 자신의 주변에 있는 공간 디자인이 구현된 장소를 방문한 경험을 언급했지만 구체적으로 그 위치를 밝히고 있지는 않다. 이에 대해 '원고 수정 요청 사항'에서는 이러한 공간 디자인 작품이 위치한 곳이 어디인지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하였으므로 자신이 직접 찾아가 공간 디자인 작품의 위치 정보를 밝히는 것이 적절하다. 그런데 ③은 주변에서 공간 디자인이 필요한 공간의 위치 정보를 소개하자는 계획이므로 '원고 수정 요청 사항'을 고려하여 세운 고쳐 쓰기 계획으로는 부적절함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 ① 공간 디자이너의 역할과 나의 꿈을 연결하는 글의 내용에 어울리는 제목을 제시하는 것은 '글의 내용에 어울리는 제목을 선정할 것'을 고려한 고쳐 쓰기 계획이다. ② 피아노 계단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은 시각 자료에 해당하므로 이를 첨부하는 것은 '원고 수정 요청 사항'을 고려한 고쳐 쓰기 계획으로 적절하다. ④ '학생의 글' 마지막 부분에서 공간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관련 영역의 책을 읽고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적절한 고쳐 쓰기 계획이다. ⑤ 진학 계획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얻었던 인터넷 사이트를 안내하는 것은 교지를 읽을 친구들과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고쳐 쓰기 계획이다.

[11-15] 문법

11 음운 변동 이해하기

정답 ①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93%	3%	1%	1%	0%
--------------	-----	----	----	----	----

해설 | <보기>에서 '식물'은 '식'의 끝 자음 'ㄱ'이 그 뒤에 오는 '물'의 'ㄹ'의 영향을 받아 'ㅇ'으로 변하여 [싱물]로 발음되므로 이는 자음 동화 현상에 해당된다. '입'은 [임]과 '뜯'은 [똥]도 자음 동화 현상에 해당되는데, '입'은 'ㅍ'이 'ㄴ' 앞에서 'ㄹ'으로, '뜯'은 'ㄷ'이 'ㄴ' 앞에서 'ㄴ'으로 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보기>에 제시된 자음 분류표를 살펴볼 때, 이는 파열음이 비음 앞에서 비음으로 변동된 것으로, 자음의 조음 방식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기>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는 ①이 알맞다.

12 단어의 형성 방식 이해하기

정답 ②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1%	88%	1%	0%	7%
--------------	----	-----	----	----	----

해설 | <보기>에서는 구(句) 형태인 '오고 가다'와 한 단어인 '뛰어가다', '오가다'를 비교 설명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오고 가다'와 '뛰어가다'는 두 어간이 연결 어미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같다. 즉 '오고 가다'는 '오다'의 어간 '오'에 연결 어미 '고'가 결합하여 '가다'와 이어진 것이고, '뛰어가다'는 '뛰다'의 어간 '뛰'에 연결 어미 '어'가 결합하여 '가다'와 이어진 것이다. ②의 '돌아서다'도 마찬가지로 '돌다'의 어간 '돌'에 연결 어미 '-아'가 붙어 '서다'와 연결되어 형성된 합성어이다.

|오답풀이| ① ‘꿈꾸다’는 체언 ‘꿈’과 용언 ‘꾸다’가 결합하여 형성된 합성어이다. ③ ‘뒤섞다’는 ‘몹시, 마구, 온통’의 뜻을 지니는 접두사 ‘뒤-’와 용언 ‘섞다’가 결합하여 형성된 파생어이다. ④ ‘빛나다’는 체언 ‘빛’과 용언 ‘나다’가 결합하여 형성된 합성어이다. ⑤ ‘오르내리다’는 용언의 어간 ‘오르-’와 또 다른 용언의 어간 ‘내리-’가 연결 어미 없이 직접 결합하여 합성어가 된 경우로, <보기>의 ‘오가다’와 같은 경우이다.

13 관형적의 특징 이해하기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1%	1%	1%	93%	1%
--------------	----	----	----	-----	----

|해설| <보기>는 ‘하나의 문장이 관형절로 다른 문장에 안길 때 원래 있었던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형절을 안은 겹문장을 원래의 문장으로 나누어 봐야 한다. ④의 문장을 둘로 나누어 원래 문장을 만들어 보면 ‘정수가 은혜와 결혼하였다.’와 ‘나는 사실을 몰랐다.’이다. 이 경우 앞 문장(안긴문장)의 주어인 ‘정수가’는 뒤 문장(안은문장)에서 중복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주어를 생략할 수 없으므로 ④는 ①에 해당하는 사례가 아니다.

|오답풀이| ① 안긴문장과 안은문장을 ‘동생이 숙제를 한다.’와 ‘형이 동생을 불렀다.’로 나눌 수 있으며, 안긴문장이 관형절로 안은문장에 포함되는 과정에서 중복된 주어 ‘동생’이 생략되었다. ② ‘형이 대학생이 되었다.’와 ‘동생은 형과 여행을 했다.’로 나눌 수 있으며, 이때 중복된 주어 ‘형’이 생략되었다. ③ ‘경희가 버스에 탔다.’와 ‘영수가 경희에게 말을 걸었다.’로 나눌 수 있으며, 중복된 주어 ‘경희’가 생략되었다. ⑤ ‘화가가 이 그림을 그렸다.’와 ‘그는 화가의 전시회에 갔다.’로 나눌 수 있는데, 이때 중복된 주어 ‘화가’가 생략되었다.

14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하기 정답 ③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0%	92%	2%	1%
--------------	----	----	-----	----	----

|해설| ‘크다 ㉠’은 ‘동식물이 몸의 길이가 자라다.’의 의미이며, ‘작다 ㉡’은 ‘일의 규모, 범위, 정도, 중요성 따위가 비교 대상이나 보통 수준에 미치지 못하다.’의 의미이므로 이 둘은 반의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 ‘크다 ㉠’의 용례에서 ‘크다’를 ‘작다’로 바꾼 ‘키가 몰라보게 작는다.’가 생략되지 않는 점이나, ‘작다’에 대한 반의어 표시가 ‘작다 → 크다 ㉠’로 한정적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점을 통해서도 이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오답풀이| ① ‘크다 ㉠’과 ‘크다 ㉡’에 국어사전 약호인 ㉠과 ㉡을 붙여 각각 ‘크다 ㉠ ㉠’과 ‘크다 ㉡ ㉡’으로 표기한 것을 통해 전자는 형용사이고 후자는 동사라는 품사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② ‘크다 ㉠ ㉠’과 ‘작다 ㉡’은 반의 관계를 형성한다. 따라서 ‘크다 ㉠ ㉠’의 용례에서 ‘크다’를 ‘작다’로 바꾼 ‘눈이 작다.’, ‘글씨를 작게 적는다.’는 ‘작다 ㉡’의 용례가 될 수 있다. ④ ‘작다 ㉡’의 뜻풀이인 ‘정하여진 크기에 모자라서 맞지 아니하다.’를 고려할 때, ‘키가 자라서 바지가 작다.’는 ‘작다 ㉡’의 용례로서 적절하다. ⑤ ‘작다 ㉡’의 뜻풀이가 ‘일의 규모, 범위, 정도, 중요성 따위가 비교 대상이나 보통 수준에 미치지 못하다.’를 고려할 때, ‘작은 실수를 하다.’는 적절한 용례로 볼 수 있다.

15 문장 수정의 적절성 평가하기 정답 ①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81%	5%	4%	4%	3%
--------------	-----	----	----	----	----

|해설| ㉠의 경우, ‘수정한 문장’을 보면 ‘잘못된 문장’에 부사어 ‘물’이 추가된 것을 알 수 있다. ‘물’은 서술어 ‘날었다’를 수식하는 부사어이므로 목적어인 ‘발을’을 수식하는 관형어가 있어야 한다고 진술한 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② ㉡의 경우, 서술어 ‘개선된다’를 ‘개선된다는 것이다’로 수정하여 ‘내가 주장하는 바는’과 호응하게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의 경우, ‘불편과 피해를 입었다’를 ‘불편을 겪고 피해를 입었다’로 수정하였다. 이는 ‘불편’에 호응하는 서술어가 없기 때문에 ‘불편’과 호응하는 서술어 ‘겪고’를 추가하여 문장을 수정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④ ㉣의 경우, ‘운동을 동참합시다’를 ‘운동에 동참합시다’로 수정하였다. 이는 서술어 ‘동참합시다’에 호응하는 부사어의 조사를 ‘에’로 올바르게 고친 것이므로 적절하다. ⑤ ㉤의 경우, ‘여간’은 ‘그 상태가 보통으로 보아 넘길 만한 것임.’을 뜻하는 부사로,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말과 호응해야 한다. 따라서 ‘여간 기쁜 일이다’를 ‘여간 기쁜 일이 아니다’로 수정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16-20] 독서~인문

지문 분석

「맹자의 의(義) 사상」

지문 해제 맹자의 ‘의’ 사상이 형성된 배경과 내용에 대해 설명한 글이다. 맹자는 ‘의’를 사회 일반의 행위 규범으로 정립하였고, 개인은 ‘의’를 실천하여 사회 질서 수립과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인간이라면 누구나 도덕 행위를 할 수 있는 마음이 선천적으로 갖춰져 있다는 ‘도덕 내재주의’를 강조하였다.

주제 맹자의 ‘의’ 사상의 형성 배경과 내용

어휘 풀이

- 자임 : 어떤 일에 대하여 자기가 적임이라고 자부함
- 격상 : 자격이나 등급, 지위 따위의 격이 높아짐, 또는 그것을 높임
- 유비 : 맞대어 비교함
- 야기 : 일이나 사건 따위를 끌어 일으킴
- 역설 : 자기의 뜻을 힘주어 말함, 또는 그런 말
- 내재 : 어떤 사물이나 범위의 안에 들어 있음, 또는 그런 존재
- 부각 : 어떤 사물을 특징지어 두드러지게 함

16 내용 전개 방식 파악하기 정답 ⑤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0%	0%	2%	1%	95%
--------------	----	----	----	----	-----

|해설| 이 글은 1문단에서 맹자의 ‘의’ 사상이 형성된 사회적 배경을 소개하고, 2~6 문단에서 맹자가 주장한 ‘의’가 어떠한 의미와 성격을 지녔는지, 맹자가 강조한 ‘의’의 실현이 무엇인지 언급하면서 전반적으로 ‘의’의 형성 배경과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⑤가 가장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이 글의 핵심 화제는 맹자의 ‘의’ 사상이지만, 맹자의 ‘의’ 사상에 대한 사회적 통념을 제시하지 않았고 그에 대해 비판하고 있지도 않다. ② 맹자의 ‘의’ 사상을 분석하고 있지만, 그 한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③ 맹자의 ‘의’ 사상과 차이를 지닌 공자의 ‘의’ 사상에 대해 언급하였지만 상반된 관점에 대한 내용은 없다. ④ 전반적으로 맹자의 ‘의’ 사상의 의미를 소개하고 있지만, 맹자의 ‘의’ 사상이 가지는 현대적 의의를 재조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7 세부 정보의 파악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1%	1%	0%	95%	0%
--------------	----	----	----	-----	----

|해설| 3문단의 내용을 통해 ④는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맹자는 공자와 마찬가지로 ‘인’의 확산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도, ‘의’의 의미를 확장하여 ‘의’를 ‘인’과 대등한 지위로 격상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의’를 가족 성원 간에도 지켜야 할 규범으로 규정하고, 유비적 확장을 통해 사회 일반의 행위 규범으로 정립하였다. 따라서 맹자는 ‘의’보다 ‘인’의 확산이 더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6문단을 통해 알 수 있다. 맹자는 특히 생활에서 마주하는 사소한 일에서도 ‘의’를 실천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② 6문단의 ‘그는 목숨과 ‘의’를 함께 얻을 수 없다면 ‘목숨을 버리고 의를 취한다.’라고 주장하여 ‘의’를 목숨을 버리더라도 실천해야 할 가치로 부각하였다.’라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③ 3문단에서 맹자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인’이고, 형을 공경하는 것은 ‘의’라고 하여 ‘의’를 가족 성원 간에도 지켜야 할 규범이라고 규정하였다고 하였다. ⑤ 3문단에서 맹자는 ‘의’의 의미를 확장하여 ‘의’를 ‘인’과 대등한 지위로 격상하였으며, ‘의’를 사회 일반의 행위 규범으로 정립하였음을 알 수 있다.

18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 ①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92%	2%	0%	2%	1%
--------------	-----	----	----	----	----

|해설| 맹자가 주장한 ㉠의 ‘도덕 내재주의’란 인간이라면 누구나 도덕 행위를 할 수 있는 선한 마음과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선천적으로 내면에 갖춰져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는 세상의 올바른 이치가 모두 나의 마음속에 갖추어져 있다고 보는 ①과 가장 부합한다.

|오답풀이| ② 바른 도리를 행하려면 분별이 있어야 하고, 분별에는 직분이 중요하고, 직분에는 사회에서 통용되는 예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므로 도덕의 내재성을 강조한 ㉠과는 거리가 멀다. ③ 인간이 지켜야 할 도덕은 성인이 만든 것이고 인간 성품으로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므로 도덕이 선천적으로 갖추어져 있다는 ㉠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군자나 소인이나 모두 ‘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

는 것이므로 도덕이 선천적으로 갖추어져 있다고 보는 ㉠과는 거리가 멀다. ⑤ 저 사람을 어른으로 대우하고자 하는 마음이 원래부터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도덕 행위를 할 수 있는 마음이 선천적으로 갖추어져 있다고 보는 ㉠과는 거리가 멀다.

19 관점의 차이 이해하기 정답 ②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1%	92%	2%	2%	1%
--------------	----	-----	----	----	----

해설 | 4문단에 언급된 내용을 통해 볼 때, 맹자는 '의'가 이익의 추구와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사적인 욕망으로부터 비롯된 이익의 추구는 개인적으로는 '의'의 실천을 가로막고, 사회적으로는 혼란을 야기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맹자는 사회 안정을 위해 사적인 욕망과 결부된 이익의 추구는 '의'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결국 맹자는 '의'와 이익을 명확히 구분되는 것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보기>의 목적은 '의'를 개인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똑같이 서로 사랑하면 '의'가 실현되어 개인과 사회의 혼란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맹자가 '의'와 이익을 밀접하게 관련 있다고 보았고, '목적'이 '의'와 이익을 명확히 구분되는 것으로 보았다는 ②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 ① 맹자의 '의'는 '인'의 실천에 필요한 합리적 기준으로서의 '정당성'이라는 공자의 사상을 강조한 것인 데 비해, <보기>에서 목적의 '의'는 개인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 것이므로 그 의미가 서로 다르다. ③ 맹자는 사적인 욕망으로부터 비롯된 이익의 추구는 개인적으로는 '의'의 실천을 가로 막고, 사회적으로는 혼란을 야기한다고 보았으며, <보기>에서 목적은 자기 자신과 자기 집단만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개인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충족하는 '의'를 통해 개인과 사회의 혼란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이해이다. ④ 맹자는 인간이 자기의 행동이 옳지 못함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의롭지 못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막아 주는 동기로 작용한다고 보았으며, <보기>에서 목적은 '의'의 실천이 만물을 주재하는 하늘의 뜻이라고 하였다는 점에서 적절하다. ⑤ 맹자는 '의'를 개인과 사회의 조화를 위한 필수적인 행위 규범으로 설정하였으며, <보기>에서 목적은 '의'를 개인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았으므로 적절한 이해이다.

20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 정답 ①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79%	5%	5%	2%	6%
--------------	-----	----	----	----	----

해설 | ㉠의 '경도'는 '온 마음을 기울여 사모하거나 열중하게 되다.'의 의미를 지닌 말이다. 그런데 ㉠의 '잘못 보거나 잘못 생각함.'은 '오인'의 의미이므로 '경도'의 사전적 의미를 잘못 파악하였다.

[21~24] 독서~예술

지문 분석

「추사 김정희의 묵란화」

지문 해제 사군자의 하나인 난초를 먹으로 그린 '묵란화'를 중심으로 추사 김정희의 삶과 작품 세계에 대해 설명한 글이다. 묵란화는 사군자의 하나인 난초에 관념을 투영하여 형상화한 그림으로, 김정희가 25세 때 그린 '석란'은 부드럽고 우아한 화풍을 담고 있으며, 전형적인 양식을 빌어 당시 문인들이 지녔던 공통적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69세 때 그린 '부작란도'는 거친 갈필을 사용해 뒤틀리고 꺾인 난초의 모습으로 형상화함으로써 쓸쓸하고 황량한 자신의 처지와 심정을 잘 드러내고 있다.

주제 묵란화에 나타난 추사의 삶과 작품 세계

어휘 풀이

- 투영 : 어떤 일을 다른 일에 반영하여 나타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1 중심 화제 파악하기 정답 ①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96%	1%	0%	0%	1%
--------------	-----	----	----	----	----

해설 | 이 글은 김정희의 작품 '석란'과 '부작란도'를 사례로 제시하여 김정희의 젊은 시절과 오랜 유배 생활을 거쳐 생을 마감하기까지의 모습 등을 언급하면서 그가 추구한 작품 세계와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①이 가장 적절한 설명임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 ② 이 글에서 후대 작가의 작품은 언급되지 않았다. ③ 묵란화에 대한 일반적 관점을 바탕으로 김정희의 작품과 삶을 소개하고 있을 뿐이지, 어느 특정한

입장을 바탕으로 한 작가와 작품에 대한 역사적 논란은 언급되지 않았다. ④ '석란'과 '부작란도'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언급되지 않았다. ⑤ '석란'과 '부작란도'를 통해 대조적인 면을 엿볼 수는 있지만, 이를 통해 예술의 대중화 과정을 분석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22 세부 내용 파악하기 정답 ⑤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1%	0%	1%	94%
--------------	----	----	----	----	-----

해설 | 1문단의 '난초를 칠 때는 글씨의 획을 그을 때와 같은 붓놀림을 구사했다.'라는 언급을 통해 묵란화를 그림 때 서예의 필법이 사용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또한 3문단에서 말년에 김정희의 서체와 화풍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말년에 서예의 필법을 쓰지 않고 그리는 묵란화를 창안했다는 언급은 찾을 수 없으므로 ⑤는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다.

오답풀이 | ① 1문단에서 묵란화에 대해 '어느 사군자화와 마찬가지로 군자가 마땅히 지녀야 할 품성을 담고 있다.'라고 한 언급을 통해 알 수 있다. ② 1문단의 '묵란화는 사군자의 하나인 난초에 관념을 투영하여 형상화한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3문단의 '김정희의 예술 세계는 49세부터 장기간의 유배 생활을 거치면서 큰 변화를 보인다.'라는 언급을 통해 알 수 있다. ④ 1문단의 '묵란화는 중국 북송 시대에 그려지기 시작하여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문인들에게 널리 퍼졌다.'라는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3 핵심 정보 이해하기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1%	0%	0%	92%	4%
--------------	----	----	----	-----	----

해설 | ㉠의 '부작란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4문단을 통해 알 수 있다. '부는 바람에 속절없이 꺾여 있는 잎'은 '세파에 시달려 쓸쓸하고 황량해진 그의 처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잎과 평행하여 바람이 맞으며 한 송이 꽃을 피운' 꽃대는 쓸쓸하고 황량해진 처지에 맞서 그의 강한 의지를 느끼게 한다는 언급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꺾인 잎'에서 지식을 추구했던 과거의 삶과 단절하겠다는 의지를 읽어내기는 어려우므로 ㉠에 대한 ④의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 ① 2~3문단을 통해 김정희가 25세에 그린 '석란'에는 평탄했던 젊은 시절 그가 지녔던 이상이 표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2문단의 '잎들 사이로 핀 꽃에서는 고상한 품위'라는 언급을 통해 김정희의 이상이 표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③ 4문단의 '뒤틀리듯 구부러져' 있는 잎은 '세파에 시달려 쓸쓸하고 황량해진 그의 처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⑤ 1문단에서 묵란화는 문인들의 인문적 교양과 감성을 드러내는 수단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2~3문단에서 '석란'에는 평탄했던 젊은 시절 작가가 지녔던 이상이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4문단에서 '부작란도'에는 '문인 공통의 이상'을 넘어 '자신만의 감정'까지 충실히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석란'과 '부작란도'에 그려진 난초는 작가의 인문적 교양과 감성이 나타난 소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4 자료 활용을 통해 글의 내용 평가하기 정답 ⑤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1%	4%	2%	2%	88%
--------------	----	----	----	----	-----

해설 | 4문단의 내용을 살펴볼 때, 김정희는 '부작란도'에서 문인 공통의 이상을 표출하는 관습적인 표현을 넘어 자신만의 감정을 충실히 드러낸 세계를 창출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보기>에서 예술 작품은 그것이 속한 문화 속에서 형성된 것이고, 문화적 축적 속에서 새롭게 의미를 찾아 형식화하는 것이라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김정희가 '부작란도'에서 자신만의 감정을 드러내는 세계를 창출한 것은 축적된 문화로부터 멀어지려 한 것이 아니라, 문화적 축적 속에서 새롭게 의미를 찾아 형식화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⑤와 같은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 ① 2문단을 통해 알 수 있다. '석란'은 당시 청나라에서도 유행하던 전형적인 양식을 따른 묵란화이므로 당시 문인화의 전통을 수용했을 것이라는 이해는 적절하다. ② 3문단에서 추사체로 알려진 자유분방한 서체는 유배 생활을 거치면서 나타난 변화라고 하였다. 4문단에서 이러한 변화의 양상은 '부작란도'에 잘 나타나 있으며 이는 관습적인 표현을 넘어선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추사체를 창안한 것은 전통의 답습에 머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③ 4~5문단을 통해 김정희가 '자신의 경험에서 느낀 세계'와 '묵란화의 표현 방법'을 일치시켜 '참모습'을 표현해 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보기>에서 내용과 형식이 꼭 맞게 이루어진 예술 작품이 감동을 준다는 언급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부작란도'에서 참모습을 얻었다고 한 것은 그에 걸맞은 형식을 만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④ 1문단에서 '시, 서예, 그림은 문인들에게 나눌 수 없는 하나'라는 언급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당시 문인들이 시, 서예, 그림 등 각각의 표현 양식을 이해하고 익히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25-27] 독서~사회

지문 분석

「지방 자치 단체의 정책 결정 방식」

지문 해제 지방 자치 단체의 정책 결정 방식을 지역 주민의 의사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설명한 글이다. 지방 자치 단체의 정책 결정 과정 중 행정 담당자 주도로 이루어지는 정책 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민간화'와 '경영화'에 대한 소개와 그 한계를 언급하였다. 그리고 '민간화'와 '경영화'가 갖는 한계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민 투표, 주민 소환, 주민 발안 등의 직접 민주주의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책 결정에 대한 주민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지역 문제에 대한 관심 고조, 공동체 의식 고양, 정책에 대한 지지와 행정에 대한 신뢰 향상,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등의 효과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주제 지방 자치 단체의 정책 결정 방식 개선의 필요성과 그 방향

25 내용 전개 방식 파악하기

정답 ①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86%	1%	3%	0%	7%
--------------	-----	----	----	----	----

해설 이 글에서는 지방 자치 단체의 정책 결정 과정을 설명하고 있지만, 중앙 정부 단체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방 자치 단체의 정책 결정 과정을 중앙 정부와 대비하고 있다고 진술한 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② 3문단을 통해 알 수 있다. '민간화'와 '경영화'의 한계를 해소하고 지방 자치 단체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 단체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주민 참여 제도의 활성화가 요구된다고 하였다. ③ 3문단에서 지방 자치 단체가 채택하고 있는 간담회, 설명회 등의 주민 참여 제도는 주민들의 의사를 간접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방식이라는 언급을 확인할 수 있다. ④ 4문단에서 직접 민주주의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정책 결정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각 개인들은 지역 문제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공동체 의식이 고양되는 효과도 기대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⑤ 2문단에서 행정 담당자 주도로 이루어지는 정책 결정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 자치 단체가 '민간화'와 '경영화'의 방식을 도입하는 등 자체의 개선 노력을 기울여 왔음을 설명하고 있다.

26 핵심 정보 파악하기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1%	0%	1%	95%	0%
--------------	----	----	----	-----	----

해설 ①의 '민간화'는 지방 자치 단체가 담당하는 특정 업무의 운영권을 민간 기업에 위탁하는 것으로, 지방 자치 단체가 외부에 정책 결정권을 위임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④의 '경영화'는 지방 자치 단체가 자체적으로 민간 기업의 운영 방식을 도입하는 것으로, 지방 자치 단체가 외부에 정책 결정권을 위임하는 방식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적절치 않은 것은 ④이다.

오답풀이 ① 2문단에서 ①은 민간 기업의 특성상 공익의 추구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우선한다고 하였다. ② 2문단에서 ①의 경우 주민 감시나 주민자치위원회 등을 통한 외부의 적극적인 견제가 없으면 행정 담당자들이 기존의 관행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언급을 확인할 수 있다. ③ ①과 ④ 모두 행정 담당자 주도의 정책 결정을 보완하기 위해 시장 경제의 원리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라는 점에서 적절하다. ⑤ ①과 ④는 행정 담당자 주도로 이루어지는 정책 결정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지역 주민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므로 적절하다.

27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 ⑤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1%	0%	1%	2%	93%
--------------	----	----	----	----	-----

해설 [A]에서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활성화하면 정책 결정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정책에 대한 지지와 행정에 대한 신뢰가 높아짐으로써 주민들이 정책 집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경향이 커지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보기>에서는 주민 투표를 통해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지만, 투표 결과를 수용하지 않는 주민들이 다른 정책에 대해서도 협조를 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했다. 따라서 주민의 직접 참여에 의한 정책 결정인 경우에도 주민들이 비협조적인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A]와 관련하여 <보기>를 가장 잘 이해한 것은 ⑤이다.

오답풀이 ① <보기>에서 주민 투표 결과 찬성이 많았지만 반대하는 주민들이 투표 결과에 불복하여 주민 간에 반목이 심해졌으므로,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이 고양된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보기>에서 상당수의 주민들이 다른 정책에 대해서도

협조를 하지 않고 주민 투표를 거부하는 일이 생겼다는 점에서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없다. ③ <보기>의 경우, 주민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해당 정책의 결정이 지연되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다른 정책에 대해서도 협조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정책 결정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다. ④ <보기>에서 다른 정책에 대해서 주민 투표를 거부하는 일이 생긴 것은 지방 자치 단체의 정책에 대해 주민들의 지지가 낮아진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28-30] 독서~과학

지문 분석

「인간의 후각」

지문 해제 후각의 기능과 냄새를 맡는 과정 후각과 기억의 관계에 대해 설명한 글이다. 냄새는 취기재가 후각 수용기를 자극하기 때문에 탐지할 수 있는 것으로, 냄새의 존재 유무와 취기재의 정체 인식은 취기재의 농도에 따라 달라진다. 인간이 구별할 수 있는 냄새의 가짓수는 인간이 인식하는 취기재의 가짓수보다 많은데, 이는 인간의 후각이 기억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 준다.

주제 인간 후각의 냄새 탐지 및 인식 메커니즘

어휘 풀이

- 탐지 : 드러나지 않은 사실이나 물건 따위를 더듬어 찾아 알아냄
- 메탄올 : 탄소 수가 한 개인 알코올. 목재를 건류할 때 생긴다.
- 농도 : 용액 따위의 진함과 묽음의 정도
- 명명 : 사람, 사물, 사건 등의 대상에 이름을 지어 붙임

28 세부 내용 파악하기

정답 ③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1%	1%	91%	0%	4%
--------------	----	----	-----	----	----

해설 3문단의 "메탄올보다 박하 냄새를 더 쉽게 알아챌 수 있는 까닭은 메탄올의 탐지 역치가 박하향에 비해 약 3,500배 가량 높기 때문이다."라는 언급을 통해 박하향의 탐지 역치가 메탄올의 그것보다 높다는 ③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1문단의 "우리가 어떤 냄새가 난다고 탐지할 수 있는 것은 취기재 분자가 코의 내벽에 있는 후각 수용기를 자극하기 때문이다."라는 언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1문단의 "후각은 우리 몸에 해로운 물질을 탐지하는 문지기 역할을 하는 중요한 감각이다."라는 언급을 통해 알 수 있다. ④ 2문단에서 '개[犬]가 10억 개에 이르는 후각 수용기를 갖고 있는 것에 비해 인간의 후각 수용기는 1천만 개에 불과'하다고 언급하였다. ⑤ 2문단의 "인간도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취기재의 분자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후각 수용기를 갖고 있다."라는 언급을 통해 알 수 있다.

29 추론의 적절성 파악하기

정답 ③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1%	1%	89%	6%	0%
--------------	----	----	-----	----	----

해설 마지막 문단에서 특정한 냄새의 정체를 파악하기 어려운 이유는 냄새를 느끼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냄새에 대응되는 명명 체계를 갖고 있지 않고 냄새와 그것에 해당하는 이름을 연결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할 때, 취기재의 이름을 알아맞히는 능력의 향상은 냄새에 대응하는 명명 체계가 좀 더 잘 갖추어졌거나 특정한 냄새와 그것에 해당하는 이름을 연결하는 능력이 좋아진 것과 관련이 있으며, 취기재를 인식하는 능력이 향상된다고 해서 취기재의 탐지 역치가 낮아지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오답풀이 ① 마지막 문단에서 어떤 냄새를 맡았을 때 그 냄새와 관련된 과거의 경험이나 감정이 떠오르는 일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언급하였다. ② 5문단에서 실험 참여자에게 실험에 쓰일 모든 취기재의 이름을 미리 알려 준 다음, 임의로 선택한 취기재의 냄새를 맡게 하고 그 종류를 맞게 하는 실험을 소개하고 있다. 이 실험에서 실험 참여자의 틀린 답을 그때마다 정정해 주자 취기재의 이름을 알아맞히는 능력이 거의 두 배로 향상되었다. 따라서 특정한 냄새와 그 명칭을 정확히 연결하는 능력은 학습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④ 5문단에서 인간이 구별할 수 있는 냄새의 가짓수는 10만 개 넘지만 그 취기재가 무엇인지 다 인식해 내지 못한다고 언급하였다. ⑤ 4문단에서 같은 취기재를 사이에서는 농도가 평균 11% 정도 차이가 나야 냄새의 세기 차이를 구별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취기재를 사이에서 농도 차이가 평균 11% 미만이라면 냄새의 세기를 구별하기 어렵다고 추론할 수 있다.

30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기

정답 ②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5%	82%	4%	3%	3%
--------------	----	-----	----	----	----

해설 3문단에서 냄새를 탐지할 수 있는 최저 농도를 탐지 역치라 한다고 하였으며, 4문단에서 취기재의 정체를 인식하려면 취기재의 농도가 탐지 역치보다 3배가량은 높아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①의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취기재의 농도가 탐지 역치보다 높되, 그보다 3배 이상 높아서는 안 된다. ②는 취기재의 농도가 15로 탐지 역치인 10보다 높으나 탐지 역치의 3배가량인 30보다 낮으므로 ①의 경우에 해당한다.

오답풀이 ①, ④ 취기재의 농도가 탐지 역치보다 낮은 경우로 냄새의 존재 유무를 탐지할 수 없는 상태이다. ③, ⑤ 취기재의 농도가 탐지 역치의 3배 이상 높은 경우로 냄새의 존재 유무와 취기재의 정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다.

[31-33] 문학~현대시

지문 분석

(가)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작품 감상 이 시는 '기다림-좌절-기다림'의 순환 구조로 되어 있다. 이것은 계절의 엄연한 순환 질서와 맞물려 있다. 화자가 유보시킨다고 해서 운행이 멈춰지는 것은 아니다. 이 외계의 질서 앞에 화자는 순응한다. 그러기에 그가 취할 태도는 오로지 기다림일 뿐이다. 모란을 기다리는 일은 곧 봄을 기다리는 일이며, 그것만이 유일한 삶의 보람이다. 모란이 피는 봄을 마주 대하는 동안은 보람을 누리는 때이며, 모란이 지는 순간에 보람은 상실되는 것이다. 화자는 모란이 피어 있는 잠깐의 시간을 위해 삼백 예순 날을 기다리는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자세를 보여 주고 있는데, 이러한 화자의 태도는 '찬란한 슬픔의 봄'이라는 역설적 표현에 집약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주제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림, 미(美)의 추구

시구 풀이

- 모란이 피기까지는~기다리고 있을 테요 : 모란이 활짝 핀 봄은 시인이 그리워하고 갈망하는 모란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있는 시·공간이다. 그러나 '아직'이라는 부사어를 통해 그의 기다림의 자세가 길고 오래며 숙명적인 성격의 것임을 암시한다.
- 봄을 여윈 설음 : 모란이 떨어져 버린 슬픔, 삶의 보람이 무너지는 순간의 비애
-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 아름다움에 모든 의미와 가치를 주는 유미주의적 태도가 드러남
- 찬란한 슬픔의 봄 : 모란이 피는 것에 자신의 모든 삶의 의미를 두고 있는 화자에게, 봄은 자신의 소망이 성취되는 '찬란한' 순간임과 동시에 순식간에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슬픔'의 순간이기도 하다는 뜻이다.

(나) 김중길 「고고(孤高)」

작품 감상 이 시에서 노래하고 있는 고고함이란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까지는 기다려야 겨우 확인할까 말까한 것일 수 있다. 즉 고고함이라는 정신 세계는 세속화를 거부하는 것인 동시에 삶의 긴장감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쉽게 변질될 수 있을 만큼 아슬아슬한 것으로 긴장감을 늦추어서는 얻을 수 없는 세계의 것이다. 이것은 시인이 추구하는 고고한 정신 세계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 고고한 삶의 자세 지향 / 현실에 물들지 않는 고고한 정신 자세에 대한 열망

시구 풀이

- 그 높이 : 높은 정신적 경지나 세계(고고(孤高)를 상징)
- 열은 화장 : 산봉우리에 눈이 살짝 쌓인 모습, 뒤의 '산을 뒤덮는 적설'과 대비
- 윈 : '윈'은 왼쪽을 이르거나 '맨'의 방언, '온'의 잘못 → 시적 허용
- 차가운 수목 : 겨울 산의 모습
- 윈 산을 뒤덮는 적설 : 본질을 가리는 감성적 이미지 ↔ '가볍게 눈을 쓴(살짝 쌓인 눈)'과 대조적 이미지

31 작품의 공통점 파악하기

정답 ②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91%	3%	1%	1%
--------------	----	-----	----	----	----

해설 수미상관 구조란 시의 첫 연을 다시 한 번 끝 연에서 반복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시의 구조 자체를 안정적으로 구성해 주는 효과가 있으며, 중요한 첫 연의 분위기와 의미를 강조해 주는 효과가 있다. (가)는 1~2행과 11~12행이, (나)는 1연과 6연이 수미상관 구조를 이루고 있다. 수미상관의 구조는 첫 연과 끝 연이 거의

똑같이 반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가)와 같이 일부 행이 같은 내용과 비슷한 문장 구조로 반복되거나 (나)와 같이 첫 연이 마지막 연에서 변형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적절한 것은 ②이다.

오답풀이 ① (가)와 (나) 모두 공간의 이동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가)의 11~12행에서 어순의 도치가 나타나지만, 이것이 상황의 긴박감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나)에서는 어순이 도치된 부분이 드러나지 않는다. ④ (나)의 경우, '수목'이라는 시어가 흑백의 대비를 연상시킨다고 볼 수 있지만, (가)는 흑백의 색채 이미지를 떠올리기 어렵다. ⑤ (가)와 (나) 모두 가상의 상황을 나타낸다고 보기 어려우며, 자기 반성의 태도도 나타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32 감상의 적절성 평가하기

정답 ③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3%	74%	18%	0%
--------------	----	----	-----	-----	----

해설 (나)에서 화자는 가볍게 눈이 내린 북한산의 모습을 보고 고고한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있다. '얽은 화장을 하듯', '가볍게 눈을 쓰고', '차가운 수목으로 젖어 있는'은 모두 북한산의 고고한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나)에서 대상의 높이만이 고고한 아름다움을 결정하는 유일한 조건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③과 같은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가)에서는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주체인 '나'를 직접 노출하여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② (가)에서 대상인 '모란'은 짧은 시간 동안만 피어 있으면서 찬란하고 아름다운 것이기에 기다림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금방 사라지고 마는 허무하고 유한한 존재라는 점에서 적절하다. ④ (나)에서 대상의 고고한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순간은 2연과 3연에, 그렇지 않은 순간은 4연에 드러나며 대비를 이루고 있다. ⑤ (가)는 봄, (나)는 겨울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통해 대상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

33 구절의 의미 파악하기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88%	2%	4%	2%	2%
--------------	-----	----	----	----	----

해설 (가)에서 ㉠의 '나의 봄'은 모란이 활짝 핀 봄으로, 시적 화자가 그리워하고 갈망하는 모란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있는 시·공간이다. 여기서 '설음'은 모란이 떨어져 버린 슬픔이자 삶의 보람이 무너지는 순간의 비애를 의미하는데, 이는 '나의 봄'을 경험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인이 아니라, '나의 봄'이 끝났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이라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오답풀이 ② (가)에서 '봄=모란'으로,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는 '나의 봄'이 화자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가)의 화자는 모란이 피는 것에 자신의 모든 삶의 의미를 두고 있다. 화자에게 있어 봄은 자신의 소망이 성취되는 '찬란한' 순간임과 동시에 순식간에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슬픔'의 순간이기도 하다. '찬란한 슬픔'은 역설적인 표현으로 '찬란한'은 모란이 피었을 때의 기쁨을, '슬픔'은 모란이 지고 닳았 때의 설움을 뜻한다. 따라서 '찬란한 슬픔'은 화자의 감정을 강렬하고 인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④ (나)에서 '어느 겨울날 이른 아침'은 화자가 북한산의 고고한 높이를 경험할 수 있는 특정한 시간대를 의미하므로 적절하다. ⑤ (나)에서 '가볍게 눈을 쓰는'은 북한산이 고고한 높이를 회복하기 위한 조건에 해당한다.

[34-37] 문학~현대 소설

지문 분석

김원일 「도요새에 관한 명상」

작품 감상 이 작품은 도요새에 대해 서로 다른 관심과 반응을 보이는 네 명의 가족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모두 4부로 이루어져 있으며 네 명의 가족 이야기를 제각각의 시점으로 서술하고 있다. 작가는 환경오염으로 동진강 하구에 도요새가 날아오지 않는 상황을 바탕으로 오로지 돈과 물질에만 눈이 먼 삶을 비판하며 인간다운 삶의 회복을 부르짖고 있다. 지문으로 제시된 부분은 제2부 대학에서 제정당한 병국이 낙향하여 실의에 빠져 지내던 중 환경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동진강 주변의 환경 파괴 원인을 밝히려려고 노력하는 부분이다.

주제 민족적 비극의 역사적 상황과 공해 문제의 도출 / 타락한 삶에 대한 비판과 순수한 인간성 회복

어휘 풀이

- 자유자재 : 거침없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 도정(道程) : 어떤 장소나 상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 극기(克己) : 자기의 감정이나 욕심
- 함량(含量) : 물질이 어떤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분량

34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정답 ③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0%	93%	1%	0%
--------------	----	----	-----	----	----

해설 | 제시된 부분에서 서술자인 '나'는 동진강 유역에서 도요새가 사라지는 것과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동진강의 환경오염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인간의 이기심에 의해 자연의 환경을 파괴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이 잘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적절한 것은 ③이다.

오답풀이 | ① 제시된 글의 서술자인 '나'는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현실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지닌 인물이므로 어리숙한 인물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제시된 글에서 진술이 해학적인 부분도 드러나지 않는다. ② 제시된 글의 서술자는 '나'이므로 주변 인물이 서술자가 되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제시된 글의 서술자인 '나'는 사건의 주인공이며, 체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관찰자 입장이라고 볼 수 없다. ⑤ 제시된 글의 서술자는 '나'이므로 서술자가 작중 인물이 아니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35 인물의 심리 파악하기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1%	0%	1%	94%	1%
--------------	----	----	----	-----	----

해설 | ㉔에서 '나'가 여름 내내 도요새에 관한 꿈을 꾸고 재질거품을 환청으로 들어 왔다는 것은 도요새에 관한 생각을 끊임없이 반복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인물이 대상(도요새)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부인했다는 ④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 ① 새가 '수백 마리로 떼를 이루어 의식의 공간을 무한대로 휘저었다.'는 것은 '나'의 머릿속이 새들에 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음을 의미한다. ② '나'는 대상(도요새)을 찾아 헤매었으나 대상(도요새)은 이미 시베리아 등으로 북상한 뒤여서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대상(도요새)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으므로 적절한 이해이다. ③ '나'의 의식은 '전혀 자유스럽지 못한' '굳게 닫힌 문'의 상태이다. 이러한 '나'의 의식이 도요새로 인해 점차 각성되는 과정을 의미하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⑤ '나'가 '이미 자기 최면'에 걸렸다는 것은 인물의 의지가 확고해진 상태를 의미한다.

36 작품의 내용 파악하기

정답 ②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93%	0%	1%	1%
--------------	----	-----	----	----	----

해설 | [A]에서는 도요새의 말, 즉 우화적 장치를 이용하여 인간 세계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우화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적절한 것은 ②이다.

오답풀이 | ① 도요새들 간의 논쟁적 상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도요새의 이동에 따른 공간 변화는 나타나지만 도요새 무리의 갈등은 드러나지 않으며 갈등 해소 과정도 없다. ④ 도요새의 비행 경로에 관한 관찰 결과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설령 '한대의 추운 지방'에서 '지구의 반을 가로지르는 여행길'을 비행 경로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인간 문명의 발전 과정을 비유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⑤ 도요새의 말을 통해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내용 이므로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고 있는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7 감상의 적절성 평가하기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1%	2%	2%	92%	1%
--------------	----	----	----	-----	----

해설 | 제시된 글의 '도요새'는 비록 작지만 '나'에게 교훈과 깨달음을 주는 존재이고, <보기>의 '매화'는 어리고 성기어서 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꽃을 피우는 모습에서 화자에게 경이로움을 느끼게 하는 존재이다. 따라서 적절한 것은 ④이다.

오답풀이 | ① 제시된 글에서 '도요새'가 인물에게 자신감을 주는지는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적절하지 않다. 또한 <보기>에서 화자는 '매화'를 보며 감탄하고 있는 것일 뿐 자존감을 잃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도요새'는 '나'의 의지와 욕망을 대리 표현한 소재라고 볼 여지가 있지만, '매화'는 화자가 극복해야 할 존재는 아니라는 점에서 거리가 멀다. ③ 제시된 글에서 '도요새'는 실제로 등장하지 않으며 '나'가 자신의 의식을 강화하고 표현하기 위해 동원한 자연물에 가깝기 때문에 인물에 종속된 존재로 볼 수 없다. '매화'는 화자가 두고 보아 온 존재이므로 화자와 독립되어 있다고 할 수는 있다. ⑤ '도요새'는 현실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인물의 태도를 표상하므로 적절한 감상이 아니다. '매화'는 화자가 추구하는 이념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38-42] 문학~고전 소설

지문 분석

작자 미상 「유충렬전」

작품 감상 '유충렬전'은 충렬의 영웅적인 일생을 그린 작품으로, 영웅의 일생이라는 유형적 구조를 가장 충실히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영웅 소설이다. 또 이 작품의 유형 구조는 신소설에까지 계승되어 '혈의 누'에 연결되고 있다. 그리고 당대 독자들로부터 인기가 높았는데, 충신과 역신의 갈등을 통해 현실적 논리인 악의 승리가 이상적 논리인 선의 승리로 극복되어 윤리적 당위인 충(忠)이 승리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당쟁으로 실세했거나 몰락한 계층의 재기, 복수 의식을 보여주기도 한다. 한편 병자호란의 실상과 함께 청나라에 대한 적개심을 담고 있다.

주제 유충렬의 고난과 영웅적 행적

어휘 풀이

- 압박(逼迫) : 형세가 절박함, 바짝 죄어서 몹시 괴롭게 굶
- 환난(患難) : 근심과 재난을 통틀어 이르는 말
- 공업(功業) : 큰 공로가 있는 사업

38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0%	1%	93%	1%
--------------	----	----	----	-----	----

해설 | '태후가 강 승상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야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으리오.' 등에 서술자의 개입이 나타나 있으며, 충렬의 억울한 심정, 충렬에 대한 천자와 태후의 고마움, 부인을 만난 연왕의 기쁨을 그들의 발화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잘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것은 ④이다.

오답풀이 | ① 작품 전체의 시간적 배경은 중국 명나라 시대이지만, 제시된 글에서는 구체적인 시간적 배경이 묘사되어 있지 않다. ②, ③ 제시된 글에서는 꿈과 현실이 교차되기도 않았고, 초월적 공간도 제시되지 않았다.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는 사건들로 구성되어 있을 뿐이다. ⑤ 전쟁의 경과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을 뿐 전쟁 장면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지 않다.

39 세부 내용 파악하기

정답 ⑤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1%	2%	0%	2%	92%
--------------	----	----	----	----	-----

해설 | '천자도 이 말을 들으시고 후회가 막급하나 할 말 없어 우두커니 앉아 있더라.'에서 천자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천자가 '과인을 보지 말고'라고 한 것은 우선 위태로운 나라를 구하라는 의미에서 한 말이다. 따라서 천자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⑤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 ① 천자가 매우 놀라고 또 기뻐서 말하는 모습과 '그대는 ~ 살리는가?'에서 유충렬에 대해 천자가 놀라움을 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유충렬이 부친 유심의 죽음을 원통히 여기며 통곡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어지는 내용에서 유심은 살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유충렬은 부친이 죽은 것으로 잘못 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슬피 통곡하며 머리를 땅에 두드리는 유충렬의 슬픔에 모든 군사들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통해 군사들이 유충렬의 심정에 공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천자의 기상이 뚜렷하고 한 시대의 성군이 될 듯하여'를 통해 유충렬이 태자의 모습에 감화되어 천자를 원망했던 자신을 반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0 대화의 특징 파악하기

정답 ③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6%	2%	75%	5%	10%
--------------	----	----	-----	----	-----

해설 | [B]에서 '태자'는 충렬에게 주나라 성왕의 고사를 인용하여 말하고 있다. 태자가 고사를 인용한 의도는 천자를 비판하는 충렬의 견해를 옹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충렬의 마음을 돌려 천자를 돕도록 설득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정답은 ③임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 ① 자신을 유충렬이라 밝히고 부친인 유심을 귀양 보낸 천자에 대해 원망을 드러내고 있다. ② '해와 달이 빛을 잃은 듯'하다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자신의 심경을 드러내고 있다. ④ 천하를 반분하고 죽은 뒤에도 풀을 맺어 깊겠다고 말하고 있다. ⑤ 온 힘으로 충성을 다하여 천자를 도울 것을 요청함으로써 충신으로서의 역할과 본분에 충실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41 작품 감상의 적절성 평가하기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4% 7% 3% 82% 1%

해설 | 총렬은 남적을 소멸하고 오는 길에 회수에 와 모친을 기리는 제사를 지내다가 뜻밖으로 모친을 만나 돌아오게 된다. 이는 국가 위기의 해소가 가족 위기의 해소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오답풀이 | ① '사방을 떠돌아다니면서 빌어먹으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부친 유심의 유배가 총렬이 겪은 첫 번째 시련의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② 어려서 홀로된 자신을 길러 준 장인 강희주가 정한담과 최일귀로 인해 귀양을 간 사건이 유총렬이 두 번째 시련을 겪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42 문맥적 의미 이해하기

정답 ①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97% 1% 0% 0% 0%

해설 | ㉠의 '이기다'는 문맥상 '반가움'과 관련이 있으므로, '감정이나 욕망, 흥취 따위를 억누른다.'의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의 '분을 이기지'에서 '분'은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을 의미하므로 '이기지'는 '감정을 억누르지'의 의미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 ㉢ '몸을 곧추거나 가누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 ㉤ '고통이나 고난을 참고 견디어 내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 '내기나 시합, 싸움 따위에서 재주나 힘을 겨루어 승부를 내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43~45] 문학~고전 시가

지문 분석

조위 「만분가(萬憤歌)」

작품 감상 조선 전기 당쟁의 회오리 속에서 희생된 문신(文臣)이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한 유배 가사의 효시 작품이라는 점에서 문학사적 가치가 매우 큰 작품이다. 또한 이 작품은 후대에 지어지는 유배 가사의 일종인 송강 정철의 (사미인곡)과 <속미인곡> 등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주제 유배당한 현실에 대한 원망과 연군의 정

시구 풀이

- 백옥경 : 임금이 있는 대궐
오색은 깊은 곳 : 신선이 사는 고을
형강은 고향이라 : 형강은 중국에 있는 강이지만, 여기서는 유배지를 의미함
백구와 벗이 되어 : 대유법(백구-자연) -> 자연친화, 물아일체의 생활
어루는 듯 과는 듯 : 아양을 부리는 듯
백옥 같은 이 내 마음 임 위하여 지키더니 : 직유법 (백옥 - 마음) -> 임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 일편단심(一片丹心)
약수(弱手) : 신선이 살았다는 중국 서쪽의 전설 속의 강

43 표현상의 특징 파악하기

정답 ①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95% 1% 1% 0% 2%

해설 | 화자는 '두견의 낮이 되어', '저문 하늘 구름 되어' 등의 자연물을 시어로 활용함으로써 임에 대한 그리움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이다.

오답풀이 | ② 반어적 표현이나 대상을 의도적으로 우스꽝스럽게 묘사하는 희화화 기법은 나타나지 않았다. ③ 의성어나 의태어와 같은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④ 전체적으로 임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으로, 특정 대상이나 상황을 빗대어 비유는 풍자적 표현은 나타나지 않았다. ⑤ 구체적인 묘사라고 할 수 있

는 부분을 찾을 수 없으며, 경물(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경치)의 변화를 보여 주는 구체적 묘사 부분도 나타나지 않는다.

44 시구의 의미 파악하기

정답 ②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1% 92% 2% 1% 1%

해설 | 화자는 '구름이 되어 시적 대상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소망하고 있다. 따라서 '구름'은 대상에게 다가가고 싶어 하는 화자의 소망이 투영된 소재이므로 ②와 같이 화자와 대상 사이를 가로막는 방해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 ① '구만 리'는 화자와 임 사이의 심리적 거리를 의미한다. ③ '바람'은 구름을 자미궁까지 날려 주므로 화자와 대상의 만남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④ 화자가 자신을 '초객의 후신인가'라고 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초객'은 화자가 동질감을 느끼는 존재이다. ⑤ '함께 놀자'에서 알 수 있듯이 '백구'는 화자의 벗이 되고 있으며 화자가 교감을 나누는 존재로 볼 수 있다.

45 작품 감상의 적절성 평가하기

정답 ③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1% 2% 92% 1% 0%

해설 | ㉢에서 [C]의 '백옥 같은 이 내 마음'은 임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을 의미하므로 이를 임금에 대한 순수한 마음으로 감상하는 것은 적절하다. 그러나 [나]는 '옥과 같은 임의 얼굴이 반이나 넘게 닳으셨구나'라는 의미이다. 여기서 '옥'은 임의 고운 얼굴을 비유하고 있지만, 임금에 대한 자신의 마음이 옥처럼 순수하다는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다.

오답풀이 | ㉠ [A]에서는 죽어서 '두견'이 되고, [마]에서는 '낙월'이 되어 임에 대한 자신의 소망을 이루고자 한다. ㉡ [B]의 '흉중에 쌓인 말씀 쓸켜서 사뢰리라'와 [다]의 '마음에 먹은 말씀 슬카장 삶자 하니'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자는 자신의 심정을 마음껏 임금께 말씀드리고 싶어 한다. ㉣ [D]의 '일모 수죽'과 [가]의 '모침', '밤중'은 사공간적 배경을 나타내고, [D]의 '생박할사'와 [가]의 '찬 공기'는 임금과의 이별 후 화자가 느끼는 외롭고 쓸쓸한 정서를 '차다'라는 촉감에 의해 표현하고 있다. ㉤ [E]의 '임 계신 데 바라보니'와 [라]의 '창을 열고 바라보니'를 통해 먼 곳에 있는 화자의 연군의 정과 그리움이 화자의 모습을 통해 연군의 정을 확인할 수 있다.



고득점을 기원합니다.

I 등급컷

Table with columns: 등급 (1-8), 원점수 (100, 96, 93, 86, 75, 57, 30, 21), 나의 점수 [] 점, [] 등급

I 오답률 Best 5

Table with columns: 순위 (1-5), 번호 (26, 25, 21, 19, 18), 오답률(%) (2, 6, 79, 81, 5)

정답과 해설					본문 163~179페이지
1 ②	2 ④	3 ④	4 ④	5 ⑤	
6 ④	7 ②	8 ⑤	9 ⑤	10 ③	
11 ①	12 ⑤	13 ③	14 ③	15 ④	
16 ②	17 ④	18 ⑤	19 ⑤	20 ②	
21 ④	22 ④	23 ⑤	24 ③	25 ③	
26 ⑤	27 ②	28 ②	29 ①	30 ②	
31 ④	32 ③	33 ⑤	34 ④	35 ①	
36 ③	37 ③	38 ④	39 ⑤	40 ①	
41 ④	42 ①	43 ③	44 ⑤	45 ①	

[1-5] 화법

1 말하기 계획 파악하기

정답 ②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4%	91%	2%	3%	0%
--------------	----	-----	----	----	----

해설 정선의 산수화 중 '관동팔경'의 주요 작품들이 시각 자료(화면)로 제시되었으며, 이들은 정선의 산수화가 지닌 특징을 드러내는 예로 쓰이고 있다. <총석정>은 수직준법과 생략의 기법, <삼일포>는 평원법을 써서 산수화의 '환'을 실현했고, <낙산사>는 친자연적 존재인 점경 인물을 등장시켜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드러냈음을 보여 주는 등 청중이 발표 대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 작품을 시각 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것은 ②이다.

오답풀이 ① 시각 자료로 작가의 작품들이 열거되었으나, 참고 서적은 제시·열거되지 않았다. '환'에 관한 산수화 연구가의 견해가 제시되어 있으나 이를 참고 서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 마지막에 제시되는 시각 자료는 점경 인물이 등장하는 작품 <낙산사>이며, 전체 발표 내용을 요약하는 시각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 ④ 발표자가 첫 번째로 제시한 시각 자료는 <총석정>이며, 발표 순서를 안내하는 시각 자료는 활용되지 않았다. ⑤ 시각 자료로 작가의 작품들이 활용되었으나, 정선의 작품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을 다룬 시각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

2 발표 내용 파악하기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1%	1%	1%	96%	0%
--------------	----	----	----	-----	----

해설 발표자는 정선이 <삼일포>에서 '수평으로 사방을 둘러보며 원근을 표현하는 평원법을 사용하'였고, <총석정>에서 수직준법을 사용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따라서 <삼일포>에서 정선이 수직준법을 사용하였다고 메모한 내용 ④의 ㉠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발표자는 '실제 산수가 가질 수 없는 완전한 아름다움'을 '환'이라고 하며, '정선의 산수화에서도 이러한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고 발표하였으므로, 정선의 산수화에 '환'이 실현되었다는 메모 내용 ①은 적절하다. ② 발표자는 정선의 산수화에서는 점경 인물이 자주 등장하며, 점경 인물은 '자연과 교감하는 친자연적 존재'로 표현된다고 발표하였으므로, 정선이 친자연적 존재인 점경 인물을 산수화에 등장시켰다는 메모 내용 ②는 적절하다. ③ 발표자는 정선이 <총석정>에서 '돌기둥 위에 있었던 소나무를 생략함으로써 다른 자연물보다 돌기둥을 더욱 부각했'다고 발표하였으므로, <총석정>에서 일부의 자연물을 생략해서 돌기둥을 더욱 부각하였다는 메모 내용 ③은 적절하다. ⑤ 발표자는 <낙산사>와 관련하여 '이 점처럼 보이는 것들은 일출의 장관을 즐기는 선비들로 이 그림 속의 점경 인물입니다.'라고 발표하였으므로, <낙산사>에서 일출의 장관을 즐기는 인물을 점경 인물로 형상화했다는 메모 내용 ⑤는 적절하다.

3 입론의 내용 및 전략 평가하기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1%	1%	1%	92%	4%
--------------	----	----	----	-----	----

해설 '반대 1'은 입론에서 기존의 심사 방식이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으며 기존의 심사 방식을 유지하고 새로운 추천 방식으로 바꾸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대 1'은 기존 심사 방식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평가 기준의 타당성이 높다는 점, 계획 제출 기회가 공평하다는 점, 준비 과정을 통해 축제가 내실화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이다.

오답풀이 ① '찬성 1'의 입론에서 용어의 개념 정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② '찬성 1'은 입론에서 해당 동아리를 선정하는 방식이 심사 방식에서 추천 방식으로 바뀔 때 발생하는 기대 효과를 중심으로 주장하였으며, 기존의 심사 방식이 유지될 때 발생하는 기대 효과는 주장하지 않았다. ③ '반대 1'은 입론에서 기존 방식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논제와 관련된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하지 않았다. ⑤ '반대 1'은 입론에서 새로운 방식의 도입을 반대하여 기존 방식의 긍정적 측면을 열거하였으나,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 때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4 말하기 전략 추론하기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1%	4%	1%	93%	1%
--------------	----	----	----	-----	----

해설 [A]는 찬성 측 입론에 대한 반대 측의 반대 신문이며, 찬성 측 주장대로 추천 방식을 도입했을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점(더 잘 계획하고 준비한 동아리의 탈락 가능성, 동아리 홍보관 운영의 부실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B]는 반대 측 입론에 대한 찬성 측의 반대 신문이며, 작년 설문 조사 결과 자료를 근거로 기존의 심사 방식을 유지하지는 반대 측 발언 내용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B]에서 찬성 측은 '평가하는 기준이 타당하다고 하셨는데와 같이 상대측이 앞서 언급한 내용의 일부를 확인하였고, 평가 기준의 일부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많았다는 설문 조사 결과를 근거로 평가 기준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이다.

오답풀이 ① [A]에서 반대 측은 찬성 측의 주장에 따랐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제기하였으나, 찬성 측이 제시한 사례 대신 다른 적합한 사례를 제시하라고 요구하지는 않았다. ② [A]에서 반대 측은 '추천 방식이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한다고 말씀하셨는데'와 같이 상대측이 앞서 진술한 내용의 일부를 확인하였고, 추천으로 방식을 바꾸었을 경우 생길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기존 방식(심사 방식)을 고수할 경우 생길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B]에서 찬성 측은 상대측이 말한 내용이 잘못되었음을 보여 주기 위한 근거를 들었으나, 상대측이 사용한 근거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근거의 출처를 요구하지는 않았다. ⑤ [A]와 [B]에서 양측은 상대측의 주장 내용에 의문을 제기하였으나, 상대방이 인용한 전문가의 설명이 적합한지의 여부를 따지거나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는 않았다. 또한 반대신문 [A], [B] 이전의 논의에서 양측은 전문가의 설명을 인용하지 않았다.

5 토론 내용 분석하기

정답 ⑤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2%	1%	2%	93%
--------------	----	----	----	----	-----

해설 반대 측은 추천 방식을 반대하고 기존의 심사 방식을 옹호하는 토론자이다. ㉠ 추천 방식을 도입하면 모든 동아리에게 선정 기회가 균등하게 부여되므로 ㉠ 추천 방식이 ㉡ 심사 방식보다 더 공평하다는 주장은 반대 측의 주장이 아니라 찬성 측의 주장이다. 따라서 내용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⑤이다.

오답풀이 ① 찬성 측은 '찬성 1'의 입론에서, 심사 방식은 그 과정에서 평가자의 주관에 개입될 수 있어 평가의 신뢰성이 낮고, 추천 방식은 평가자의 주관에 개입될 수 없다고 하며, ㉠ 추천 방식이 더 적합한 방식임을 주장하고 있다. ② 찬성 측은 '찬성 1'의 입론에서, 심사 방식은 심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노력이 불필요하게 드는데, 이를 추천 방식으로 바꾸면 시간과 노력을 불필요하게 들이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하여 ㉠ 추천 방식이 적합함을 주장하고 있다. ③ 반대 측은 '반대 2'의 반대 신문에서 추천 방식을 시행하면 '동아리 홍보관 운영을 더 잘 계획하고 준비한 동아리가 탈락할 수도 있'음을 들어 ㉡ 심사 방식을 옹호하고 있다. ④ 반대 측은 '반대 1'의 입론에서 '계획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 축제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고민하게 되므로 축제가 내실화될 수 있'음을 주장하며 ㉡ 심사 방식을 지지하고 있다.

6-10] 작문

6 내용 조직 전략의 적절성 파악하기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2%	4%	91%	2%
--------------	----	----	----	-----	----

해설 이 문항은 [A]를 쓰는 과정에서 '학생'이 떠올린 생각이 [A]에 어떤 순서로 반영되었는지를 묻고 있다. [A]에서 '학생'은 우리가 인터넷, 신문, 잡지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해 광고를 접하고 있음을 밝혔다. 광고를 접할 수 있는 매체인 인터넷, 신문, 잡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광고 매체에 대한 예상 독자의 경험을 떠올리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으므로, ㉠가 반영된 것이다. 다음으로 '학생'은 다양한 매체에서 여러 유형의 광고가 나타나는 이유가 매체 발달에 따라 매체별 광고 기법이 다양해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는 다양한 매체에서 여러 유형의 광고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 공명해 할 예상 독자를 위한 언급으로, ㉡가 반영된 것이다. 그 다음으로 '학생'은 매체 이용자들이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여러 유형의 광고를 불필요한 정보로 판단해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매체 이용자들이 광고에 대해 보이는 부정적 반응을 언급한 것으로, ㉢가 반영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학생'은 매체 이용자들의 광고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기 위해 새로운 광고 기법이 등장했음을 밝혔다. 이는 매체 이용자들의 광고에 대한 부정적 경향에 대응해 새로운 광고가 등장했음을 언급한 것으로, ㉣가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보기>의 ㉠~㉣가 [A]의 내용에 반영된 순서는 ④의 ㉠-㉢-㉣-㉡이다.

7 자료 수집, 활용에 적절성 평가하기

정답 ②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3%	90%	2%	4%	1%
--------------	----	-----	----	----	----

해설 제시된 자료는 기사형 광고이고, [B]에서는 기사형 광고는 광고가 아니라 기사처럼 보이기 위해 제목에서 특정 제품명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했다. 제시된 자료의 제목 '좋은 물이 장수의 비결'에는 특정 제품명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것은 광고를 기사처럼 보이기 위한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독자들에게 광고처럼 보이기 위한 기법의 예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②이다.

오답풀이 ① [B]에서 기사형 광고는 전문가의 인터뷰나 연구 자료를 인용하여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꾸며 독자의 관심을 끈다고 했다. '물과 장수의 관계'를 연구한 논문을 인용한 것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꾸며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B]에서 기사형 광고는, 독자들이 이 광고를 기사로 오인할 수 있으므로 '특집', '기획' 등의 표지를 사용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다고 했다. 제시된 자료에서 '특집'이나 '기획' 등의 표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으로 볼 수 있다. ④ [B]에서 기사형 광고에서는 가격, 출시일 등의 제품 광고를 삽입하여 독자의 소비심리를 자극한다고 했다. '△△샘물'이 11월 2일에 출시되고, 500ml의 제품 가격이 1,000원이라고 밝힌 것은 독자의 소비 심리를 자극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⑤ [B]에서 기사형 광고에는 기사가 작성한 글로 착각하지 않도록 '글 ○○○ 기자'와 같은 표현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고 했다. 제시된 자료에 이와 같은 정보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독자가 이 광고를 기사가 작성한 글로 착각하지 않게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8 전달을 위한 표현의 적절성 평가하기

정답 ⑤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3%	2%	2%	1%	92%
--------------	----	----	----	----	-----

해설 이 문항은 제시된 조건에 맞게 쓴 글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에서 제시된 조건은 '새로운 광고 기법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새로운 '광고 기법에 대한 매체 이용자들의 비판적 인식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것이다. '초고'에서 '학생'이 새로운 광고 기법으로 소개하는 '검색 광고'와 '기사형 광고'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이 광고가 소비자에게 마치 유용한 정보인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것이다. ⑤의 '광고를 유용한 ~ 착각을 유도한다.'는 이러한 새로운 광고 기법의 문제점을 언급한 것이다. 또 '매체 이용자들은 ~ 필요가 있다.'에는 매체 이용자에게 새로운 광고 기법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오답풀이 ① 매체 이용자들에게 광고를 불필요한 정보로 판단하게 하여 회피하게 만드는 것은 새로운 광고 기법이 등장하기 전에 쓰였던 광고 기법의 문제점이다. 또 매체 이용자가 아니라 기업이 광고를 점검할 때 가져야 할 바람직한 자세를 언급하고 있다. ② 새로운 광고 기법 중 검색 광고는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기존의 인터넷 광고와 달리 특정 대상에게만 노출된다. 따라서 언급된 문제점은 새로운 광고 기법의 문제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기존 광고에 대해 매체 이용자들의 거부감이 낮아 부작용이 적다고 했는데 이것은 새로운 광고 기법의 문제점에 대한 언급으로 볼 수 없다. 또 새로운 광고 기법이 아니라 기존 광고 기법에 대한 매체 이용자의 비판적 인식을 촉구하고 있다. ④ 새로운 광고 기법 중 검색 광고의 문제점을 언급하고는 있지만, 매체 이용자가 아니라 정부 차원의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9 내용 생성의 적절성 이해하기

정답 ⑤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3%	1%	2%	4%	90%
--------------	----	----	----	----	-----

해설 이 문항은 대상에 대한 관찰을 바탕으로 '학생'이 연상한 내용을 추측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 '학생'은 '이 푸른 잔디'를 보며 바삭 마른 갈색의 잔디가 추운 겨울을 견디며 다시 '푸른 잔디'로 살아나는 과정을 떠올려 보았다. 따라서 현재 '학생'이 관찰한 것은 '바삭 마른 갈색 잔디'가 아니라 '푸른 잔디'이다. 따라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⑤이다.

오답풀이 ① '학생'은 잔디밭 위로 난 길을 관찰하며 그 길이 만들어지기까지 그곳의 잔디가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밟혔을 것이라는 생각했다. '학생'은 바로 그 때문에 잔디를 불쌍하게 보았다. ② '학생'은 사람들에게 밟혀 잔디가 사라진 그 길 위에 다시 잔디가 싹을 틔운 것을 보며 잔디의 끈질긴 생명력을 느꼈다. ③ '학생'은 잔디밭의 잔디가 함께 모여 서로를 의지하며 혹독한 시련을 견뎌왔다는 생각에 잔디에 대해 대견함을 느꼈다. ④ '학생'은 잔디밭의 길을 보며 사람들의 발에 밟혀 지금은 사라진 잔디가 한때 꿈이 흔들렸던 자신의 처지와 비슷하다고 생각했다. '학생'은 바로 그것 때문에 사라진 잔디에 대해 안쓰러움을 느꼈다.

10 고쳐 쓰기의 적절성 파악하기

정답 ③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1%	1%	96%	1%	1%
--------------	----	----	-----	----	----

해설 문맥상 ㉠과 뒤에 이어진 말은 모두 '잔디 싹'의 긍정적인 미래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지금처럼 ㉠에는 두 가지 이상의 사실을 대등하게 벌여 놓는 연결 어미인 '-고'를 써야 한다. '-지만'은 어떤 사실이나 내용을 시인하면서 그에 반대되는 내용을 말하거나 조건을 붙여 말할 때 쓰는 연결 어미로, ㉠의 연결 어미를 '-지만'으로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오답풀이 ① 동사 '겪다'는 '어려거나 경험될 만한 일을 당하여 치르다'의 의미로, 서술어로 쓰일 때는 목적어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따라서 ㉠에서 부사격 조사 '에'는 목적격 조사 '를'로 고쳐야 한다. ② '눈에 보이다'의 의미를 지닌 어휘는 '뜨이다'로, '뜨이다'의 준말이 '띄다'이다. 따라서 ㉡은 '띄었다'로 고쳐야 한다. ④ ㉢의 앞뒤 문장은 모두 잔디의 긍정적 측면을 나열하고 있다. 따라서 ㉢은 앞과 뒤의 내용이 상반될 때 쓰이는 접속 부사 '그러나'가 아니라 '그 위에 더 또는 거기에도 더'라는 의미를 지닌 부사 '또한'으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⑤ 동사 '이루다'는 '뜻한 대로 되게 하다'라는 의미로, 반드시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에는 문맥상 목적어 '꿈'을 첨가해야 한다.

[11-15] 문법

11 중심적 의미와 주변적 의미 파악하기

정답 ①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94%	1%	1%	3%	1%
--------------	-----	----	----	----	----

해설 <보기>에서는 본래 공간과 관련된 중심적 의미를 지니고 있던 '가깝다'가 추상화되어 주변적 의미도 지니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①의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에서 '낮다'는 '아래에서 위까지의 높이가 기준이 되는 대상이나 보통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라는 의미로 쓰여 공간과 관련된 중심적 의미를 나타내지만, '환경에 대한 관심이 낮다.'에서 '낮다'는 '품위, 능력, 품질 따위가 바라는 기준보다 못하거나 보통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라는 의미로 쓰여 중심적 의미가 추상화된 주변적 의미를 나타낸다. 따라서 예로 적절한 것은 ①이다.

오답풀이 ② '크다'의 중심적 의미는 '사람이나 사물의 외형적 길이, 넓이, 높이, 부피 따위가 보통 정도를 넘다.'이다. '그는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에서 '크다'는 '가능성 따위가 많다.'라는 주변적 의미로 쓰였으며, '힘든 만큼 기쁨이 큰 법이다.'에서 '크다' 역시 '일의 규모, 범위, 정도, 힘 따위가 대단하거나 강하다.'라는 주변적 의미로 쓰였다. ③ '넓다'의 중심적 의미는 '면이나 바닥 따위의 면적이 크다.'이다. '두 팔을 최대한 넓게 벌렸다.'와 '도로 폭이 넓어서 좋다.'에서 '넓다'는 모두 '너비가 크다.'라는 중심적 의미로 쓰였다. ④ '좁다'의 중심적 의미는 '면이나 바닥 따위의 면적이 작다.'이다. '내 좁은 소견을 말씀드렸다.'와 '마음이 좁아서는 곤란하다.'에서 '좁다'는 모두 '마음 쓰는 것이 너그럽지 못하다.'라는 주변적 의미로 쓰였다. ⑤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다.'에서 '작다'는 '일의 규모, 범위, 정도, 중요성 따위가 비교 대상이나 보통 수준에 미치지 못하다.'라는 주변적 의미로 쓰였으며, '우리 학교는 운동장이 작다.'에서 '작다'는 '길이, 넓이, 부피 따위가 비교 대상이나 보통보다 덜하다.'라는 중심적 의미로 쓰였다.

12 음운 변동, 적용 이해하기

정답 ⑤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9%	9%	2%	7%	73%
--------------	----	----	----	----	-----

해설 (가)에서는 음절의 종성에 마찰음, 파찰음이 오거나 파열음 중 거센소리나 된소리가 올 경우 모두 파열음의 예사소리로 교체된다는 '음절 끝소리 규칙'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나)에서는 음절의 종성에 자음군이 올 경우 한 자음이 탈락한다는 '자음군 단순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윙고'의 '윙-'은 음절의 종성에 자음군 'ㄹ'이 온 경우이므로 (나)의 '자음군 단순화'가 적용되어 'ㄹ'이 탈락된 [윙고]가 된다. 그리고 [윙고]에서 첫 음절의 종성은 거센소리 'ㅍ'이 온 경우이므로 (가)의 '음절 끝소리 규칙'이 적용되어 'ㅍ'이 'ㅂ'으로 교체된 [윙고]가 된다. 또한 음절의 종성과는 관련이 없으나 [윙고]는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된소리되기'에 의해 'ㄱ'이 'ㄲ'으로 교체된 [윙고]가 된다. 그러므로 '윙고'는 음절의 종성과 관련해서 (가)와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모두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⑤이다.

오답풀이 ① '꽃힌'은 'ㄷ'이 'ㅎ'과 만나 거센소리인 'ㄸ'이 되는 '거센소리되기'(축약)가 일어나 [꼬친]이 된 것으로, (가)와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모두 나타나지 않는다. ② '몯이'는 연음으로 인해 [목씨]가 된 후,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뀌는 '된소리되기'(교체)에 의해 [목씨]가 된 것으로, (가)와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모두 나타나지 않는다. ③ '바웃'은 음절의 종성에 마찰음인 'ㅅ'이 온 경우에 해당한다. (가)에서 설명한 '음절 끝소리 규칙'(교체)에 의해 마찰음 'ㅅ'이 파열음 'ㄷ'으로 교체되어 [비운]이 된 것으로, (가)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은 나타나지만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얇고'는 'ㄱ'이 'ㅎ'과 만나 거센소리인 'ㄲ'이 되는 '거센소리되기'(축약)가 일어나 [안코]가 된 것으로, (가)와 (나)에 해당하는 음운 변동이 모두 나타나지 않는다.

13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 비교하기

정답 ③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5%	3%	29%	7%	56%
--------------	----	----	-----	----	-----

해설 동사는 목적어 필요 여부에 따라 타동사와 자동사로 구분된다. 우선 중세 국어의 '큰 막수물(막수+을) 여러(열+어)'와 '번개 구름(구름+을) 흐터(흩+어)', 현대 국어의 '큰 마음을 열어'와 '번개가 구름을 흩어'에서 '열다'와 '흩다'의 목적어가 모두 드러나 있으므로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에서 두 동사는 모두 타동사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중세 국어의 '自然히 막수미(막수+이) 여러(열+어)'와 '散心은 흐튼(흩+어)은' 막수미라(막수+이)에서 '열다'와 '흩다'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기에 자동사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대 국어의 경우 '열다'와 '흩다'는 ㉠과 ㉡의 첫 번째 문장에서처럼 목적어가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쓰이지만, '자연히 마음이 열리어(열+리+어)'와 '산심은 흩어진(흩+어지+어)' 마음이다.'에서처럼 목적어가 없을 경우에는 피동 표현이 결합돼 쓰이는 모습을 통해 자동사로는 쓰이지 않고 타동사로만 쓰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③이다.

[14-15] 동사나 형용사에 결합하는 접미사

지문 분석

지문 해설 이 글은 동사나 형용사에 결합하는 접미사의 다양한 문법적 특징과 결합 제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 새로운 어간을 형성하거나 동사나 형용사의 어근에 붙어 품사를 바꾸는 것,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 사동의 의미를 더하거나 타동사에 붙어 피동의 의미를 더하는 것과 같은 접미사의 문법적 특징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 밝히고 있다. 또한 하나의 접미사가 모든 동사나 형용사에 자유롭게 결합하지 못하고, 어근과 접미사 사이에는 다른 형태소가 끼어 들 수 없다는 접미사의 결합 제약에 대해서도 함께 다루고 있다.

주제 동사나 형용사에 결합하는 접미사의 특징

14 단어 형성의 원리 파악하기

정답 ③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13%	8%	72%	4%	3%
--------------	-----	----	-----	----	----

해설 제시문에서는 명사 '먹이'나 '넓이'는 각각 동사와 형용사의 어근에 접미사 '-이'가 붙어 형성된 단어로, '먹이'와 '넓이'의 '먹-'과 '넓-'은 서술어로 기능하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에서 '높이'는 동사의 어근 '높-'에 접미사 '-이'가 붙어 형성된 단어로 해당하므로 서술어로 기능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해한 내

용으로 적절한 것은 ③이다.

오답풀이 ① '늑이다'의 어간 '늑이-'는 '늑다'의 어간 '늑-'과 구별된다는 제시문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에서 '비워'의 어간 '비우-'는 '시간이 빈다'에서 '빈다'의 어간 '비-'와 구별됨을 알 수 있다. ② ㉢에서 '높이'는 형용사 '높다'의 어근 '높-'에 접미사 '-이'가 붙어 형성된 단어이지만, '높이'의 품사는 명사가 아닌 부사이다. ④ 하나의 접미사가 모든 동사나 형용사에 자유롭게 결합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에서 '끓였다'의 어근인 '끓-'에 붙은 접미사 '-이-' 역시 모든 동사에 자유롭게 결합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살다'(*살이다), '읽다'(*읽이다) 등과 같이 접미사 '-이-'가 결합하지 못하는 동사도 있다. ⑤ ㉤에서 '오시기'는 '오+시+기'로 분석된다. 어근과 접미사 사이에는 다른 형태소가 끼어 들 수 없다는 제시문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기'는 접미사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어간 '오-'와 명사형 어미 '-기' 사이에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가 끼어 든 것에 해당한다. 명사형 어미가 붙은 경우 해당 단어의 품사는 바뀌지 않으므로, '오시기'의 품사는 명사가 아닌 동사이다.

15 피동사와 사동사 파악하기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5%	3%	6%	77%	8%
--------------	----	----	----	-----	----

해설 접미사가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 사동의 의미(주어가 동작을 다른 대상에게 하도록 시키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를 더한 예(㉠)와 접미사가 타동사에 붙어 피동(주어가 다른 대상에 의해 동작을 당하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의 의미를 더한 예(㉡)를 찾아야 한다. ㉢의 ㉠은 '보이지 않게 몸을 감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 '숨다'에 접미사 '-기-'가 붙어 사동의 의미가 더해진 예에 해당하고, ㉣은 '눈꺼풀을 내려 눈동자를 덮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 '감다'에 접미사 '-기-'가 붙어 피동의 의미가 더해진 예에 해당한다. 따라서 적절한 것은 ④이다.

오답풀이 ① ㉡은 '기쁨, 슬픔 따위의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거나 아픔을 참지 못하여 눈물을 흘린다. 또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소리를 내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 '울다'에 접미사 '-리-'가 붙어 사동의 의미가 더해졌고, ㉢은 '물체가 일정한 축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면서 움직인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 '돌다'에 접미사 '-리-'가 붙어 사동의 의미가 더해졌다. ② ㉠은 '걱정이나 근심, 긴장 따위를 잊거나 풀어 없애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 '놓다'에 접미사 '-이-'가 붙어 피동의 의미가 더해졌고, ㉣은 '다 쓰지 않거나 정해진 수준에 이르지 않아 나머지가 있게 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 '남다'에 접미사 '-기-'가 붙어 사동의 의미가 더해졌다. ③ ㉠은 '물체의 전체 면이나 부분에 대하여 힘이나 무게를 가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 '누르다'에 접미사 '-리-'가 붙어 피동의 의미가 더해졌고, ㉣은 '물체를 잡아당기어 가르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 '찢다'에 접미사 '-기-'가 붙어 피동의 의미가 더해졌다. ⑤ ㉢은 '공중에 떠서 어떤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움직인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 '날다'에 접미사 '-리-'가 붙어 사동의 의미가 더해졌고, ㉣은 '어떤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담당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 '맡다'에 접미사 '-기-'가 붙어 사동의 의미가 더해졌다.

[16-20] 독서~인문

지문 분석

「지식의 구분」

지문 해제 이 글은 지식의 구분에 대한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의 주장과 이와는 상반된 입장인 '콰인'의 주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지식을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한 것과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에 의존하는 것으로 구분하면서 '분석 명제'와 '종합 명제'를 서로 다른 종류로 구분하였다. 반면, 콰인은 이러한 구분을 부정하고 경험과 직접 충돌하여 참과 거짓이 쉽게 바뀌는 '주변부 지식'과 경험과 직접 충돌하지 않으면서 주변부 지식의 토대가 되는 '중심부 지식'을 상정하여 지식에 대해 설명하는 '중체주의'를 주장하였다.

주제 지식의 구분에 대한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 콰인의 주장

16 세부 내용 추론하기

정답 ②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9%	72%	9%	6%	3%
--------------	----	-----	----	----	----

해설 1문단에 의하면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가설로부터 도출된 예측을 경험을 통해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함으로써 가설을 시험한다고 하였으므로, '경험을 통하지 않고 가설을 시험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변할 것이다. 콰인은 2문단에서 가설을 포함한 전체 지식이 경험을 통한 시험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으

므로, ②와 같은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변할 것이다.

|오답풀이| ① 1문단에서 논리실증주의자는 예측이 맞을 경우에, 포퍼는 예측이 틀리지 않는 한, 그 예측을 도출한 가설이 하나씩 새로운 지식으로 추가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과학적 지식은 개별적으로 누적되는가?’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할 것이다. 반면, 과인은 4문단에서 지식의 변화가 더 이상 개별적 지식이 단순히 누적되는 과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①와 같은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변할 것이다. ③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은 경험과 무관하게 참으로 판별되는 분석 명제라고 보았다. 따라서 ‘경험과 무관하게 참이 되는 지식은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할 것이다. 반면, 과인은 3문단에서 분석 명제가 지니는 순환성을 바탕으로 경험과 무관하게 참이 되는 지식인 분석 명제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고 있고, 4문단에서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이 경험과 무관한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으므로, ③와 같은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변할 것이다. ④ 1문단에서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예측을 경험을 통해 판단하여 가설을 시험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므로, ‘예측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할 것이다. 반면, 과인은 2문단에서 가설만으로는 예측을 이끌어낼 수 없고 기존의 지식들,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합쳐야 예측이 도출된다고 주장하였으므로 ④와 같은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변할 것이다. ⑤ 3문단에서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수학적 지식은 분석 명제로, 과학적 지식은 종합 명제로 구분하면서 서로 다른 종류로 판단하였으므로, ‘수학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은 종류가 다른 것인가?’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할 것이다. 반면, 4문단에서 과인은 분석 명제와 종합 명제로 지식을 엄격히 구분하는 대신,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적 지식과 같은 중심부 지식과 경험에 의해 시험되는 과학적 지식과 같은 주변부 지식을 상정하고 그 경계를 명확히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이 둘을 다른 종류라고 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⑤와 같은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변할 것이다.

17 핵심 정보 파악하기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15%	5%	7%	67%	5%
--------------	-----	----	----	-----	----

|해설| 3문단에서 과인은 ‘총각은 총각이다’와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라는 명제를 통해서 분석 명제와 종합 명제를 구분하는 것을 부정한다. 두 번째 명제를 분석 명제라고 할 수 있는 까닭은 ‘총각’과 ‘미혼의 성인 남성’이 동의적 표현이기 때문이다. 동의적 표현은 둘을 서로 대체하더라도 명제의 참 또는 거짓이 바뀌지 않는 것인데 이것만으로는 두 표현의 의미가 같다는 것을 보장하지 못하므로 ‘동의적 표현은 언제나 반드시 대체 가능해야 한다’는 필연성 개념에 의존하게 된다. 이러한 필연성 개념은 다시 ‘경험과 무관하게 참으로 판별되는 명제’라는 분석 명제 개념에 의존하게 되면서 순환론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것은 ④이다.

|오답풀이| ① 1문단에서 의하면 포퍼는 예측이 맞을 경우보다는 예측이 틀리지 않는 한, 그 예측을 도출한 가설이 지식으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② 3문단에서 논리실증주의자는 경험과 무관하게 참으로 판별되는 명제를 분석 명제로 본다 하고 하였으므로, 총각을 한 명 한 명 조사하여 미혼임을 확인하는 경험적 방법은 분석 명제임을 판별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다. ③ 4문단에서 과인은 경험과 직접 충돌할 수 있는 주변부 지식(관찰과 실험에 의존하는 지식)과 경험과 직접 충돌하지 않는 중심부 지식(관찰과 실험에 의존하지 않는 지식)의 경계를 명확히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이 둘을 다른 종류라고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⑤ 3문단에서 동어 반복 명제는 ‘총각은 총각이다’와 같이 경험과 무관하게 참으로 판별되는 분석 명제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대체 가능하며, 대체했을 때 참, 거짓이 바뀌는 명제는 동어 반복 명제와 관련이 없는 것이다.

18 반응의 적절성 평가하기 정답 ⑤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4%	5%	14%	14%	62%
--------------	----	----	-----	-----	-----

|해설| 5문단에서 총체주의는 특정 가설이 실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기되는 반박을 피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가설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총체주의의 입장에서는 ⑥가 거짓으로 밝혀지더라도 실용적 필요에 따라 전체 지식인 ③의 수정을 통해 가설인 ①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평가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⑤이다.

|오답풀이| ① 2문단에서 예측은 가설, 기존의 지식들,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합쳐야만 논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지더라도 정확히 무엇 때문에 예측에 실패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하였으므로, 예측인 ⑥가 거짓으로 밝혀지더라도 그것이 가설인 ①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② 4문단에서 지식을 수정하는 경우 대부분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지만 실용적 필요에 의해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예측인 ⑥가 거짓으로 밝혀져서 ③의 수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수정 부분은 실용적 필요에 따라 주변부가 될 수도 있고 중심부가 될 수도 있다. ③ 2문단에서 예측은 가설, 기존의 지식들,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합쳐 논리적으로 도출된다고 하였으므로, 가설인 ①과 전체 지식인 ③로부

터 예측인 ⑥가 도출된다고 볼 수 있다. ④ 4문단에서 주변부 지식이 경험과 충돌하여 거짓으로 밝혀지면 전체 지식의 수정을 고민하게 된다고 하였으므로, 예측인 ⑥가 거짓으로 밝혀지면 이는 전체 지식인 ③의 주변부, 즉 주변부 지식이 경험과 충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9 내용의 비판적 이해하기 정답 ⑤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15%	9%	9%	9%	58%
--------------	-----	----	----	----	-----

|해설| 5문단에서 총체주의는 논리학의 법칙처럼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지식은 분석 명제로 분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총체주의는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 간의 경계가 불분명하다고 하고 있지만, 중심부 지식 중에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논리학 법칙과 같이, 경험과 충돌하여 참과 거짓이 쉽게 바뀌는 주변부 지식과는 종류가 다른 지식이 존재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따라서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이다.

|오답풀이| ① 2문단에서 총체주의는 가설만으로는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없다고 보았으며, 예측과 경험의 충돌로 인해 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지더라도 가설이 반드시 틀린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은 총체주의의 입장과 동일하므로 적절하지 않은 비판이다. ② 4문단에서 총체주의는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 지식이 중심부 지식의 한가운데에 있어 경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렇다고 경험과 무관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므로, 이 진술은 총체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③ 4문단에서 총체주의는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이 모두 수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수정 대상을 주변부 지식으로 한정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 ④ 4문단에서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면 전체 지식의 변화가 크지 않지만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면 관련된 다른 지식이 많기 때문에 전체 지식도 크게 변화한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진술은 총체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다.

20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정답 ②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86%	9%	1%	1%
--------------	----	-----	----	----	----

|해설| ‘도달하다’는 ‘목적한 곳이나 수준에 다다르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바꿔 쓰기에 가장 적절한 표현은 ‘어떤 수준이나 한계에 미치다’의 의미를 지닌 ‘다다르다’이다. 따라서 적절한 것은 ②이다.

|오답풀이| ① ‘잇따르다’는 ‘사건이나 행동이 이어 발생하다’의 의미이므로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③ ‘봉착하다’는 ‘어떤 상태에 부딪치다’의 의미이므로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④ ‘회귀하다’는 ‘한 바퀴 돌아 제자리로 돌아가다’의 의미이므로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⑤ ‘기인하다’는 ‘어떤 것에 원인을 두다’의 의미이므로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21-26] 문학~전쟁 소설

지문 분석

(가) 「전쟁 소설의 성격」

작품 감상 이 글은 실재했던 전쟁을 배경으로 한 작품들이 전쟁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고 있는지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박씨전’에서는 실제의 전쟁 결과와는 다르게 박씨 부인이 오랑캐군을 무찌른다는 허구적인 설정을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전쟁으로 인해 땅에 떨어진 민족적 자존심을 고양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장과 전장’에서 작가는 전쟁으로 인한 상처와 전쟁의 폭력성을 다루며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 또한 내비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글쓴이는 제시된 두 작품을 통해 전쟁 소설이 실재했던 전쟁을 새롭게 인식하려 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주제 전쟁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시도했던 ‘박씨전’과 ‘시장과 전장’

(나) 작가미상 「박씨전」

작품 감상 이 작품은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하여 허구적 인물인 박씨 부인이 청나라의 군대를 물리치는 영웅적 활약을 그리고 있다. 박씨 부인은 전쟁을 피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피화당이라는 공간을 침입한 청나라의 군대를 영웅적 활약을 통해 무찌른다. 이를 통해 전쟁에서의 처참한 패배와 굴욕적인 화친으로 인해 손상된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전쟁의 허구화를 통해 극복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주제 오랑캐군을 무찌르는 박씨 부인의 영웅적 활약

(다) 박경리 「시장과 전장」

작품 감상 이 작품은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하여 전쟁이 우리 민족에게 미친 상흔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다. 제시된 장면에서는 중공군과 인민군이 서울에서 후퇴하면서 남긴 곡식을 서로 퍼 담으려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전쟁의 참상으로 인해 생존하는 것조차 힘든 우리 민족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또한 곡식을 담다가 총에 맞아 죽는 윤씨의 모습을 통해 전쟁으로 인한 비극과 전쟁의 폭력성을 고발하고 있다.

주제 전쟁의 비극과 폭력성, 그로 인한 우리 민족의 수난

21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하기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2%	3%	93%	1%
--------------	----	----	----	-----	----

해설 | 윤씨는 중공군과 인민군이 남기고 간 쌀을 얻으려 하다가 총에 맞아 죽는다. 지영은 죽은 윤씨를 업고 벼랑을 기어올라 집으로 돌아온다. 따라서 윤씨와 지영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대립 구도를 형성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오답풀이 | ① ‘박씨전’은 실재했던 전쟁인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병자호란 때 조선은 청나라에게 굴욕적으로 항복했지만 소설 ‘박씨전’에서는 박씨와 박씨의 명을 받은 계화의 활약을 통해 청나라 군대를 무릎 꿇게 한다. 이는 실재했던 전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욕망에 따라 허구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여성 인물인 박씨와 박씨의 명을 받은 계화가 가해 세력으로 등장한 용골대 등의 무리와 대립적인 구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시장과 전장’은 실재했던 전쟁인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전쟁으로 인한 우리 민족의 상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으므로 전쟁의 상흔을 직시하려는 의지에 따라 허구화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⑤ ‘박씨전’에 등장하는 ‘용골대’는 실존 인물로 병자호란 당시 청나라의 군사를 이끌던 장군이었고, ‘시장과 전장’에 등장하는 ‘중공군’ 역시 실제로 한국전쟁 당시 참전한 중공군을 말하는 것이므로 ‘용골대’와 ‘중공군’은 모두 실재했던 전쟁을 환기하고 있다.

22 작품의 종합적 이해하기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2%	2%	90%	4%
--------------	----	----	----	-----	----

해설 | ‘박씨전’에서 박씨가 청나라 군사들을 용서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조선 백성들의 희생에 대한 추모 의식과는 관련이 없다. 이는 박씨를 너그럽고 관대한 인물로 설정하는 대신 청나라 군사들은 박씨의 자비를 입어 목숨을 구하는 초라한 존재로 설정하여 민족적 자존심을 높히려는 의도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보기>의 ‘임장군전’에서 용골대가 승전비를 세우는 것은 자신의 전공을 자랑하려는 의도에서 한 행동이므로 조선 백성들의 희생에 대한 추모 의식이 반영되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오답풀이 | ① 계화와 박씨는 용골대를 꾸짖으며 굴복시키는 인물로 등장한다. 여기에는 실재했던 전쟁에서 비참하게 패배했던 치욕을 허구적 인물을 통해 심리적으로 보상받으려는 의도가 내재해 있다. 그러므로 계화와 박씨는 백성들의 소망이 반영된 인물이라 할 수 있다. ② <보기>에서 서술자는 “그 망극함을 어찌 측량하리오.”와 같이 말하고 있는데, 이는 서술자가 자신의 슬픔을 토로하는 것이다. 이에는 패전한 나라의 백성이 느끼는 연대감이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박씨전’에서 용골대는 박씨 부인을 무찌르기 위해 수많은 사람을 죽게 만드는 인물로, ‘임장군전’에서 용골대는 조선을 침략하여 승리한 후 거만한 모습을 보이는 인물로 그려진다. 이처럼 용골대를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린 것은 병자호란 당시 우리 민족이 겪었던 패전의 고통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박씨전’과 ‘임장군전’ 두 작품에서 모두 왕대비는 청나라에 볼모로 가지 않는다. 그런데 ‘박씨전’의 경우 ‘임장군전’과 달리 박씨의 영웅적 활약에 의해 왕대비가 청나라에 볼모로 갈 위험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그려진다. 이는 패전의 상실감을 위로받으려 했던 백성들의 욕망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3 감상의 적절성 평가하기

정답 ⑤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5%	7%	2%	2%	84%
--------------	----	----	----	----	-----

해설 | 용골대는 “이미 화친을 받았으니 대공을 세웠거늘, 부질없이 조그만 계집을 시험하다가 공연히 장졸만 다 죽였으니, 어찌 분한치 않으리오.”라 말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수하 장졸들의 죽음을 박씨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탓이라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⑤이다.

오답풀이 | ① 장안 삼십 리에 불길이 가득하고, 조선의 젊고 아름다운 여인들이 끌려가는 장면은 전쟁으로 인한 조선 백성들의 비극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② 조선의 도원수로 등장하는 인물인 김자점은 용골대의 명령에 복종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관군의 무능함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③ 박씨와 박씨의 명을 받은 계화의 활약을 통해 소설의 독자들은 패전으로 인한 고통을 위로받았다고 할 수 있다. ④ 은혜를 입은 나라를 침범하는 모습으로 오랑캐군을 설정하여 오랑캐군이 은혜를 모르는 불의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4 구절의 의미 파악하기

정답 ③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3%	7%	79%	3%	8%
--------------	----	----	-----	----	----

해설 | ‘끓주린 이리떼’는 전쟁으로 인한 굶주림에 지쳐 곡식을 보고 달려드는 우리 민족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곡식을 향해 달려드는 사람들의 모습을 ‘끓주린 이리떼’라 표현하고 있는 장면에서는 아직 윤씨가 총에 맞기 전이므로 이웃의 죽음조차 외면하는 냉혹한 존재로 변해 버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오답풀이 | ① 윤씨는 식량을 얻으려다가 총에 맞아 죽는다. 이는 실제 전쟁이 벌어지는 전장과 그렇지 않은 후방이 구분되지 않는 상황임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갈가마귀떼처럼 몰려들어 가마니를 열고, 악을 쓰며 곡식을 퍼 담는 사람들의 모습은 전쟁으로 인해 인간의 기본적 존엄성조차 상실한 모습으로 볼 수 있다. ④ 윤씨는 곡식을 퍼 담다가 총에 맞아 죽게 되는데, 윤씨는 죽으면서까지 쌀자루를 켜고 있다. 윤씨의 피에 젖은 쌀자루는 전쟁의 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인물의 희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⑤ 지영은 총에 맞아 죽은 윤씨를 업고 벼랑을 기어올라 집에 돌아온다.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상태로 벼랑을 기어오르는 것은 전쟁 속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인물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5 작품의 내용 파악하기

정답 ③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4%	4%	77%	6%	9%
--------------	----	----	-----	----	----

해설 | 김씨 부인은 “큰일 나요! 큰일 나, 지금 가면 안 돼요! 애기를 어찌려고 그러는 거요.”라 말하면서 윤씨를 찾아 강변으로 달려가는 지영을 만류하고 있다. 하지만 지영은 언덕길을 미끄러지는 듯 달려가 강변에 도착하여 죽은 윤씨를 업고 집으로 돌아온다. 따라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이다.

오답풀이 | ① 용골대는 처음에 화살로 공격을 했으나 여의치 않게 되자 화약 염초를 이용하여 화공을 쓰게 된다. ② 박씨가 오랑캐군을 공격한 것은 왕대비를 구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용골대가 “내 아우가 불행하여 네 손에 죽었지만, 네 나라의 화친 언약을 받았으니”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박씨가 오랑캐군과 조선의 화친 언약을 몰랐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윤씨가 김씨 덕 아주머니와 함께 식량을 얻기 위해 사람들을 따라 도착한 곳은 인도교가 아니라 한강 모래밭이다. ⑤ 윤씨는 “피란 안 갔다고 야단맞지 않을까요?”라 말하고 있으므로 윤씨는 피란을 간 것이 아니라 가지 않은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6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정답 ⑤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4%	1%	2%	1%	92%
--------------	----	----	----	----	-----

해설 | ‘중략’ 이전에 한강 모래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어 식량을 자루에도 담아내는 장면, 윤씨가 사람들을 따라 곡식을 퍼 담다가 총에 맞는 장면, 그리고 ‘중략’ 이후에 윤씨를 찾아 지영이 강변으로 달려가 죽은 윤씨를 업고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에서 인물의 행위가 현재형 시제를 통해 연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를 통해 인물이 처한 상황의 긴박감이 잘 드러난다. 따라서 적절한 것은 ⑤이다.

오답풀이 | ① 화상의 형식이 아니며, 인물 간의 갈등 역시 제시되고 있지 않다. ② 한국전쟁이라는 사건을 역사적 배경으로 설정하고 있긴 하지만 시간적 배경이 자세히 묘사되고 있지 않으며, 성격 변화를 보여주는 인물 역시 제시되지 않는다. ③ 인물의 경험이 관념적으로 서술되고 있지 않고 있다. 또한 윤씨의 죽음이라는 사건의 원인은 알 수 있지만 이를 분석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④ 윤씨와 김씨 덕 부인간의 대화가 제시되고 있긴 하지만 여기에는 현재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나타날 뿐 과거로 돌아가려는 인물의 심리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27-32] 문학~현대시

지문 분석

(가) 김수영 「구름의 파수꾼」

작품 감상 (가)는 시를 통해 진정한 자유를 추구했지만 생활과 시 사이에서 갈등했던 김수영 시인의 진솔한 자기 성찰이 담겨 있는 작품이다. 화자는 생활에 몰두하려는 자신을 '반역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여긴다. 화자는 이러한 '반역된 생활'에 몰두하는 자신을 반성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는 모르지만 '반역의 정신'을 향해 살아갈 것을 추구하고 있다. 그리하여 생활을 위해 시에서 멀어졌던 화자는 다시 자유를 노래하는 시인이 되기 위한 자신을 '구름의 파수병'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주제 진정한 시를 쓰기 위한 진지한 자기 성찰

(나) 이강백 「느낌, 극락같은」

작품 감상 (나)는 불상 제작에서 형태와 내용을 둘러싼 인물들 간의 갈등을 통해 예술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있는 작품이다. 부처의 모습(형식)을 중요시하는 동연과, 부처의 마음(내용)을 중요시하는 서연 사이의 갈등을 중심으로 함묘진과 그의 딸인 함이정, 함이정의 아들인 조송인의 3대의 인물이 동연, 서연과 얽혀 있는 관계가 맞물리면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이를 통해 형식과 내용, 이 두 요소가 상호 균형을 이루어야 비로소 예술적 완성에 이르게 된다는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

주제 예술의 본질적 가치 추구

27 작품의 내용 파악하기

정답 ②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3%	92%	2%	2%	2%
--------------	----	-----	----	----	----

해설 | (가)의 화자는 3연에서 '만약에 또 어느 나의 친구가 와서 나의 꿈을 깨워 주고 / 나의 그릇됨을 꾸짖어 주어도 좋다'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화자가 '나의 친구'의 방문을 받았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나의 친구'의 방문으로 자신의 삶이 '그릇됨'을 자각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오답풀이 | ① (가)의 화자는 1연에서 '만약에 나라는 사람을 유심히 들여다본다고 하자 / 그러면 나는 내가 시와는 반역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2연에서 '먼 산정에서 있는 마음으로 나의 자식과 나의 아내와 / 그 주위에 놓인 잡스러운 물건들을 본다'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화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식'과 '아내', 그리고 '주위'의 '물건들'까지 살펴 보면서 자기의 생활을 성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가)의 화자는 4연에서 '고생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상에서는 / 철 늦은 거미같이 존재 없이 살기도 어려운 일'이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화자는 '고생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상'에서 '존재 없이' 살기가 어렵다고 느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가)의 화자는 6연에서 '시를 배반하고 사는 마음이며 / 자기의 나체를 더듬어 보고 살펴볼 수 없는 시인처럼 비참한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화자는 자기 자신을 '자기의 나체를 더듬어 보고 살펴볼 수 없는' 비참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⑤ (가)의 화자는 1연에서 '그러면 나는 내가 시와는 반역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8연에서 '시를 반역한 죄로 / 이 메마른 산정에서 오랫동안 꿈도 없이 바라보아야 할 구름 / 그리고 그 구름의 파수병인 나'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화자는 자신이 '시와는 반역된 생활'을 하고 있으며, 그것을 '죄'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구름의 파수병'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8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하기

정답 ②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86%	3%	4%	5%
--------------	----	-----	----	----	----

해설 | 3연의 '나는 이미 정해진 물체만을 보기로 결심하고'에서 '이미 정해진 물체'는 2연의 '잡스러운 물건들'로 볼 수 있다. <보기>에서 ㉠은 시선을 고정하려는 태도로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2연의 '잡스러운 물건들'은 화자의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대상이므로 '나는 이미 정해진 물체만을 보기로 결심하고'에서는 생활에 시선을 고정하려는 화자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따라서 '나는 이미 정해진 물체만을 보기로 결심하고'가 ㉠과 ㉡의 갈등을 해소한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오답풀이 | ① <보기>에 따르면 「구름의 파수병」에는 시와 생활 사이에서 갈등하는 화자의 진솔한 자기 성찰이 드러난다고 하였다. 1연의 '시와는 반역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화자가 '나라는 사람을 유심히 들여다본' 결과에 해당한다. 따라서 '시와는 반역된 생활을 하고 있다'에는 화자의 진솔한 성찰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보기>에 따르면 화자는 '생활에 몰두하려는 자아(㉢)'를 극복하고자 하면서 '시를 새

롭게 지향하려는 자아(㉣)'를 등장시킨다고 하였으며, ㉠에서 벗어나 ㉡으로 변모하고자 하는 화자는 '날아간 제비'를 떠올리다가 '반역의 정신'을 추구하는 데 이른다 하였다. 7연의 '어디로이든 가야 할 반역의 정신'은, 화자가 '반역의 정신'을 추구하는데 다다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화자가 자신을 '어디로이든 가야 할' 존재로 여기는 것은 ㉠에서 ㉡으로 나아가려는 의지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④ <보기>에 따르면 ㉠에서 벗어나 ㉡으로 변모하고자 하는 화자는 '반역의 정신'을 추구하는 데 이른다 하였다. 따라서 화자가 '메마른 산정'에서 '반역의 정신'을 지향하는 것은 화자가 ㉡으로서 추구하고자 하는 바라 할 수 있다. ⑤ <보기>에 따르면 ㉠에서 ㉡으로 변모하고자 하는 화자는 '반역의 정신'을 추구하는데 이른다 하였다. 화자가 ㉠에서 ㉡으로 변모하면서 '메마른 산정'에서 '구름'을 '꿈도 없이 바라보아야 할'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구름의 파수병'은 시와 생활 사이에서 갈등하던 화자가 두 자아의 갈등 속에서 시를 새롭게 지향하려는 의식이 반영된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29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하기

정답 ①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85%	9%	1%	2%	2%
--------------	-----	----	----	----	----

해설 | [A]에서 화자는 '방 두 칸', '마루 한 칸', '말썽한 부엌', '애처로운 처'를 나열하면서 '남과 같이 살아간다는 것'을 '썩스러워'워하고 있다. 따라서 [A]는 대상을 나열함으로써 화자의 정서가 촉발된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오답풀이 | ② [B]에서 함이정은 개울물을 바라보면서 '얼굴', '얼굴 뒤엔 구름', '구름 뒤엔 하늘'과 같이 물 위에 비쳐 보이는 대상들을 순차적으로 나열하고 있으며, 물을 마시며 맑고 시원함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B]가 의미가 확장되는 대상들의 연쇄를 통해 함이정의 혼란스러운 내면을 보여 주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A]의 대상들은 '남과 같이 살아가기 위한 평범한 삶의 조건들을 의미하는데, 화자는 이러한 조건들을 갖추고 살아가는 것을 썩스러워하고 있다. 따라서 [A]의 대상들이 화자의 만족을 드러낸다고 할 수 없다. [B]의 대상들은 개울물 위에 비쳐 보이는 것들일 뿐 함이정의 불만을 드러낸다고 할 수 없다. ④ [A]에 제시된 대상들은 화자의 생활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화자는 이러한 대상들을 거느리고 '외양만이라도 남과 같이 살아간다는 것'을 썩스러워하고 있으므로 [A]에서 화자와 대상들 간의 연속성이 드러난다고 볼 수 없다. [B]에서 함이정은 물 위에 비친 자신의 얼굴과 서연의 얼굴을 '우리 얼굴'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B]에서 인물 간의 단절감이 암시된다고 볼 수 없다. ⑤ [A]와 [B]에서는 대상의 속성을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다.

30 갈래별 특징 파악하기

정답 ②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4%	81%	4%	9%	2%
--------------	----	-----	----	----	----

해설 | ⑥에서 '상복'을 입고 있던 함이정과 조송인이 '밝은 색 옷'을 입으면서 함이정과 조송인이 서연의 장례식을 치르던 장면에서 서연과 동연이 서로의 예술관을 두고 의견을 달리는 장면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것은 ②이다.

오답풀이 | ① ③에서 한 가운데 있던 천막이 무대 위 천막으로 올라가게 되면 분리되어 있던 공간이 통합되게 된다. 그러므로 무대 장치의 이동으로 극중 공간을 좌우로 분리시킨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③에서는 조명을 통해 개울물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이후 장면에서 개울물은 이 세상과 저세상을 분리하는 상징적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③은 조명 변화를 통해 개울물에 주목하게 하고 있을 뿐 등장인물들의 갈등 해소를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없다. ④ ④의 뒤에서는 함묘진이 피아노 옆을 지나 개울물을 건너가는 행동이 나타나므로 ④는 등장인물이 무대 안에서 피아노로 음향 효과를 낸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⑤에서는 인물의 다급한 행동이 나타나 있으므로 ⑤가 소품을 이용해서 극적 긴장감을 완화시킨다고 할 수 없다.

31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하기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5%	5%	3%	84%	3%
--------------	----	----	----	-----	----

해설 | (나)에서 '돌부처'를 만들며 가는 '길'은 '부처의 모습'이 아닌 '부처의 마음'을 담아내고자 한 서연의 예술관을 상징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이 공간은 '하늘'과 대비되는 공간이 아니며, 조송인이 작품을 하고 있는 장면은 서연과 함이정이 개울물 양쪽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장면과 연결되므로 이 '길'은 서연의 예술관이 조송인에게 전수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④이다.

오답풀이 | ① (가)의 6연의 '거리에 나와서 집을 보고 집에 앉아서 거리를 그리던 어리석음도 이제는 모두 사라졌나 보다'에서 화자는 '생활'을 상징하는 '집'과 '시'를 상징하는 '거리' 사이에서 방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집'과 '거리'는 '생활'과 '시' 사이에서 갈등하며 삶의 방향을 정하지 못했던 화자에게 대비적으로 인식되었

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② (가)의 2연의 '먼 산정'에 서 있는 마음으로 나의 자식과 나의 아내와 / 그 주위에 놓인 잡스러운 물건들을 본다'에서 화자는 '먼 산정'으로 상징되는 가상의 공간에서 자신의 생활을 들여다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먼 산정'은 화자의 생활공간과 대비 되는 공간으로서 화자가 자신의 현실을 응시하게 위해 상정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③ (나)의 '작업장'에서는 불상 제작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서연과 동연의 대립이 나타나 있다. 따라서 '작업장'은 불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동연과 서연의 예술관이 부딪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⑤ (나)에서 개울물의 '이쪽'은 이 세상을, 개울물의 '저쪽'은 저세상을 상징한다. 그런데 '극락문이 열렸다! 극락문이 열렸어!'라고 외치며 서연의 뒤를 따르는 함요진의 행동을 고려할 때, 서연이 향한 개울물 '저쪽'은 단순히 저세상을 의미하는 공간을 넘어서서 예술의 본질을 추구하던 서연이 도달하게 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32 대화의 특징 파악하기 정답 ③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2%	93%	2%	1%
--------------	----	----	-----	----	----

해설 | "할아버지 목청은 왜 저렇게 커요?"라는 조송인의 대사는 이후에 등장하는 함요진, 동연, 서연 사이의 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할아버지 목청은 왜 저렇게 커요?"라는 대사에서 조송인이 등장인물의 행동을 평하면서 다른 인물들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③이다.

오답풀이 | ① "그런데 어느 날, 스승인 아버님이 ~ 두 제자들이 자릴 비우고 없었어."라는 대사 이후에 극중 사건은 현재에서 서연과 동연이 갈등하던 과거로 전환되고 있다. ② "동연아 서연아! 어디 있느냐?"라는 대사에 등장하는 동연과 서연은 '어머니의 처녀 시절'에 등장하는 함요진의 두 제자이다. ④ "서연은 쓸데없는 주장으로 저를 괴롭힙니다."라는 대사를 통해 동연과 서연이 서로 갈등하고 있음을 추리할 수 있다. 따라서 동연은 '어머니의 처녀 시절' 이야기 속 갈등의 한 축임을 알 수 있다. ⑤ "둘로도 부처님을 ~ 안 될 건 없지."라는 대사를 통해 서연은 어떠한 재료로도 부처의 모습이 아닌 부처의 마음을 추구하던 자신의 예술관을 구현해 낼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서연은 예술에서는 형식이 아닌 내용이 중요하다는 작품의 주제 의식을 전달하는 인물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33-36] 독서~과학

지문 분석

「반추 동물의 탄수화물 분해」

지문 해제 | 이 글은 반추 동물이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글이다. 탄수화물은 섬유소와 비섬유소로 구분되는데 인간과 반추동물 모두 섬유소를 분해하는 효소를 합성하지 못하는 공통점이 있다. 위가 넷으로 이루어진 반추 동물은 섬유소를 섭취하면, 반추위 미생물인 피브로박터 속시노젠(F)의 효소 복합체에 의해 셀룰로스가 포도당으로 분해된다. 이 포도당은 다시 F의 에너지 원으로 이용되는데, 이 과정의 대사산물로 아세트산과 숙신산이 발생한다. 이때 대사산물인 아세트산은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 생성과 체지방 합성에 이용되고 그리고 숙신산은 포도당을 합성하는 주요 재료인 프로피온산을 합성하는 미생물의 에너지원으로 된다. 비섬유소인 녹말은 반추위에서 스트렙토코쿠스 보비스(S)에 의해 포도당으로 분해되고 이 포도당은 S에게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이용된다. S는 산성도에 따라 중성일 때에는 아세트산과 에탄올을, 산성일 때에는 젖산을 대사산물로 배출한다. 젖산은 반추 동물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거나 다른 미생물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된다. 한편 비섬유소의 과도한 섭취로 인해 S가 과도하게 성장하면 젖산 배출이 많아지고 반추위의 산성도가 높아진다. 그러면 락토바실러스 루미니스(L)와 같은 젖산 생성 미생물들의 생장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반추위 내의 산성도가 높아지면 F, S의 생장이 멈추고 L과 같은 젖산 생성 미생물들이 급증하여 반추위의 pH가 5.0 이하가 되는 급성 반추위 산성증이 발병한다.

주제 '반추 동물의 탄수화물 분해'

33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하기 정답 ⑤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5%	7%	4%	8%	76%
--------------	----	----	----	----	-----

해설 | 2문단에 따르면, 피브로박터 속시노젠(F)은 자신이 가진 효소 복합체를 이용하여 다른 물질과 얽혀 있는 셀룰로스를 노출시킨 후 이를 포도당으로 분해한다. 그리고 분해된 포도당은 F 내에서 대사 과정을 거쳐 에너지원으로 이용된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것은 ⑤이다.

오답풀이 | ① 1문단에 따르면, 사람은 섬유소를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효소를 합성하지 못해 소장에서 이용하지 못한다. ② 1문단에 따르면, 반추 동물도 섬유소를 분해하는 효소를 합성하지 못한다. 하지만 2문단에 따르면, 반추 동물은 반추위 미생물인 피브로박터 속시노젠(F)이 가진 효소 복합체를 통해 다른 물질과 복잡하게 얽혀 있는 셀룰로스의 구조를 끊고 셀룰로스를 포도당으로 분해한다. ③ 2문단에 따르면, 반추 동물의 반추위에는 산소가 없으며, 반추위 미생물들은 이러한 환경에서 성장한다. ④ 4문단에 따르면, 급성 반추위 산성증은 반추 동물이 짧은 시간에 과도한 양의 비섬유소를 섭취했을 때 유발된다.

34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하기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8%	14%	12%	58%	9%
--------------	----	-----	-----	-----	----

해설 | 3문단에 따르면, ⑥는 수소 이온 농도 지수가 중성일 때에는 아세트산과 에탄올 등의 대사산물을 배출하고, 산성도가 높아지면 젖산을 대사산물로 배출한다. 그러나 5문단에 따르면, ③는 젖산 생성 미생물로서 산성도에 따라 젖산의 배출 양에만 영향을 줄 뿐 다양한 종류의 대사산물을 배출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④이다.

오답풀이 | ① 4문단에 따르면, ②는 자신의 세포 외부의 pH가 5.8 이하가 되면 성장을 멈추게 되며, ⑥는 세포 외부의 pH가 5.5 이하가 되면 성장을 멈추게 된다. 그런데 급성 반추위 산성증은 반추위의 pH가 5.0 이하가 될 때 나타나는 것이므로 이러한 환경에서는 ②, ⑥ 모두 성장하지 못할 것이다. ② 2문단에 따르면, ③가 가진 효소 복합체는 포도당을 분해하며, ③는 포도당을 생존 유지와 성장에 사용한다. 그리고 이러한 대사 과정에서 아세트산과 숙신산을 배출하는데, 특히 아세트산은 체지방을 합성하는 데 쓰인다. 또 ⑥ 역시 산성도가 중성일 때 체지방을 합성하는 데 쓰이는 아세트산을 대사산물로 배출할 것이다. ③ 3문단에 따르면, 산성도가 높아지면 pH가 6.0이하로 떨어지므로, 산성에 견디는 정도가 강한 ③는 자신의 에너지를 세포 내부의 pH를 유지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성장을 지속하는 데 사용할 것이다. ⑤ 4문단에 따르면, 녹말과 같은 비섬유소의 섭취가 짧은 시간 안에 급증하면 ⑥의 생장이 촉진되어 젖산 배출이 증가하고 반추위의 산성도가 높아진다. 이처럼 반추위의 산성도가 높아지면 ②는 세포 내 항상성 유지를 위해 에너지를 소모하여 생장이 감소하고, ③는 왕성하게 성장할 것이다.

35 내용들 간의 의미 관계 파악하기 정답 ①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39%	10%	6%	33%	11%
--------------	-----	-----	----	-----	-----

해설 | 2문단에 따르면, 섬유소는 반추위 미생물 피브로박터 속시노젠(F)에 의해 포도당으로 분해된다. 따라서 섬유소는 반추위 미생물에 의해 포도당으로 합성되지는 않는다. 또 비섬유소도 스트렙토코쿠스 보비스(S)에 의해 포도당으로 분해된다. 따라서 ②에는 '반추위 미생물에 의해 합성된 포도당이 되고'라는 표현이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③, ④, ⑤). 하지만 섬유소가 F에 의해 분해되어 생긴 포도당은 F의 에너지원이 되고, 비섬유소가 S에 의해 분해되어 생긴 포도당은 S의 에너지원이 되므로 ②에는 '반추위 미생물의 에너지원이 되고'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또 2문단에 따르면, F는 아세트산과 숙신산을 대사산물로 배출하는데 이때 아세트산은 반추동물의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이용된다. 그리고 3문단에 따르면, S는 산성도에 따라 아세트산과 에탄올, 젖산을 대사산물로 배출하며, 이 중 아세트산과 젖산은 반추 동물의 세포에 직접 흡수되어 반추 동물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적절한 것은 ①이다.

오답풀이 | ② F의 대사 과정을 통해 생성된 포도당은 F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며, S의 대사 과정을 통해 생성된 포도당은 S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뿐 반추 동물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36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하기 정답 ③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6%	5%	79%	5%	5%
--------------	----	----	-----	----	----

해설 | 2문단에 따르면, 숙신산은 섬유소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피브로박터 속시노젠(F)이 배출하는 대사산물이다. 산성도에 따라 배출되는 대사산물의 양이 달라지는 것은 비섬유소를 분해하는 과정이므로 숙신산의 배출은 반추위의 산성도와는 관련이 없다. 또 3문단에 따르면, 젖산은 비섬유소인 녹말의 양이 충분하고 산성도가 높을 때 대사산물로 배출되는 것이므로 중성일 때보다 산성일 때 더 많이 배출된다. 따라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③이다.

오답풀이 | ① 1문단에 따르면, 숙신산은 프로피온산을 대사산물로 생성하는 미생물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며, 프로피온산은 반추 동물이 간에서 포도당을 합성하는 주요 재료로 이용된다. 따라서 숙신산이 많이 배출될수록 프로피온산의 양이 증가하므로 포도당의 양도 증가한다. ② 3문단에 따르면, 젖산은 반추 동물의 세포로 직접 흡수되어 반추 동물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이용된다. ④ 2문단에 따르면, 숙신산은 반추위 미생물인 피브로박터 속시노젠(F)이 분해한 포도당을 이용하여 생

존을 유지하고 생장하는 과정에서 대사산물로 배출된다. 또 3문단에 따르면, 젖산은 반추위 미생물 스트렙토코스 보비스(S)가 pH 6.0 이하에서 대사산물로 배출된다. 그리고 4문단에 따르면, 젖산은 반추위 미생물 락토바실러스 루미니스 (L)가 산성의 환경에서 생장하는 과정에서 배출된다. ⑤ 2문단에 따르면, 숙신산은 프로피온산을 대사산물로 생성하는 다른 미생물의 에너지원으로 빠르게 소진된다. 또 3문단에 따르면, 젖산은 아세트산 또는 프로피온산을 대사산물로 배출하는 다른 미생물의 에너지원으로 이용된다.

[37-42] 독서~사회

지문 분석

「보험」

지문 해제 이 글은 공정한 보험의 경제학적 원리와 보험의 목적이 실현되기 위한 법적 의무를 설명하고 있다. 보험은 장래의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비할 수 있는 조건부 상품이다. 보험이 공정하기 위해서는 위험 공동체의 구성원이 납부하는 보험료와 그가 지급받을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이 일치해야 하며 구성원 전체의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총액이 일치해야 한다. 그런데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지 의무라는 법적 제도가 있다. 고지 의무를 통해 보험사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험 본연의 목적이 달성되게 하는 것이다.

주제 공정한 보험의 경제학적 원리와 보험의 목적 실현을 위한 법적 의무

37 중심 화제 파악하기

정답 ③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5%	7%	82%	4%	2%
--------------	----	----	-----	----	----

해설 글의 중심 화제를 찾기 위해서는 문단의 중심 내용을 바탕으로 글의 논지를 파악해야 한다. 이 글의 1문단에서는 보험의 개념과 특징을 소개한 후, 2문단에서는 공정한 보험의 경제학적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이어서 3문단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 법적 수단으로서 고지 의무를 소개한 후 4, 5, 6문단에서 고지 의무의 구체적 내용과 함께 보험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한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글은 공정한 보험의 경제학적 원리와 보험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기여하는 법적 의무를 살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것은 ③이다.

오답풀이 ① 보험사가 보험 계약에서 준수해야 할 법률 규정의 실효성을 다룬 글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보험사의 상품 판매 전략에 대해 설명하는 글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보험금 지급을 두고 벌어지는 분쟁의 원인을 다룬 글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보험 상품 거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법률 조항의 문제점을 다룬 글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38 세부 내용 추론하기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5%	5%	8%	73%	8%
--------------	----	----	----	-----	----

해설 4문단에서는 고지 의무의 '중요한 사항'은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의 청약에 대한 승낙을 결정하는 근거가 된다고 서술하였다. 그러므로 보험사는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알린 '중요한 사항'을 근거로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것은 ④이다.

오답풀이 ① 4문단에서 보험 계약은 보험 가입자의 청약과 보험사의 승낙으로 성립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를 바탕으로 보험사가 청약의 하고 보험 가입자가 승낙을 해야 보험이 해지된다고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2문단에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보험료 총액과 보험금 총액이 일치해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1문단에서 보험은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는 제도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므로 보험금은 사고가 발생해야 지급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⑤ 5문단에서 상법에서 보험사에게 계약 해지권을 준다고 하였다. 하지만 계약 해지권은 보험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한 것이지, 보험사의 잘못을 중시하기 때문에 부여하는 권한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39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 ⑤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13%	19%	17%	22%	30%
--------------	-----	-----	-----	-----	-----

해설 [가]에서 공정한 보험에서는 보험료율과 사고 발생 확률이 같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보험료율은 보험료/보험금이다. 그런데 <보기>에서 공동체 B에서의

사고 발생 확률은 공동체 A에서의 사고 발생 확률보다 두 배가 높다. 따라서 공정한 보험이 항상 적용된다면 B에서의 보험료는 A에서의 보험료의 두 배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만약 A와 B에서의 보험료가 같다면 A에서의 보험금은 B보다 두 배 많아야 한다. 그런데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사고 발생 확률과 보험금을 곱한 값이다. 결국 B에서 사고 발생 확률은 A의 두 배이지만 보험금은 A가 B보다 두 배 많으므로 A와 B에서의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서로 같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⑤이다.

오답풀이 ① A에서 보험료를 두 배로 높이면 공정한 보험에 따라 보험금도 두 배로 높아져야 한다. 하지만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은 사고 발생 확률에 보험금을 곱한 값이다. 따라서 A에서 보험료를 두 배로 높이면 보험금에 대한 기댓값도 변한다고 할 수 있다. ② B에서 보험금을 두 배로 높이면 공정한 보험에 따라 보험료도 두 배로 높아져야 한다. 따라서 보험료도 변한다고 할 수 있다. ③ [가]에서는 공정한 보험이 되려면 보험료율과 사고 발생 확률이 같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B에서의 사고 발생 확률은 A에서의 사고 발생 확률의 두 배이다. 따라서 A와 B에서 적용되는 보험료율은 같다고 할 수 없다. ④ [가]에서는 공정한 보험이 되려면 보험료율과 사고 발생 확률이 같아야 한다고 하였다. 보험료율은 보험료/보험금이다. 따라서 A와 B에서의 보험금이 같다면 B에서의 보험료는 A에서의 보험료보다 두 배 많아야 한다.

40 세부 정보, 핵심 정보 파악하기

정답 ①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69%	6%	8%	6%	11%
--------------	-----	----	----	----	-----

해설 5문단에서 일반적으로 법에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보험사가 계약 해지권만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고지 의무를 위반한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에 손해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이다.

오답풀이 ② 4문단에서 고지 의무의 '중요한 사항'은 차등적인 보험료를 책정하는 근거가 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③ 3문단에서 보험 가입자들이 자신의 진실한 정보를 주지 않는 한,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가 가진 위험의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고지 의무는 보험 가입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④ 3, 4문단을 통해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고지 의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4문단에서 고지 의무는 자신의 위험 정도에 상응하는 보험료보다 더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문제로 보험에 가입할 동기를 상실하게 되는 것을 방지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41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9%	6%	18%	62%	6%
--------------	----	----	-----	-----	----

해설 <보기>에서 보험사 A는 보험금을 지급받은 B가 고지 의무를 위반하고 계약을 했다는 것을 알고, 해지권 행사 기간 내에 보험금 반환을 청구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5문단에서는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 중 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이 보험 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을 때, 보험사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B가 고지하지 않은 중요한 사항이 보험 사고와 인과 관계가 없다면 A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B에게서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것은 ④이다.

오답풀이 ① 5문단에서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하면 보험사는 그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를 하면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보험사가 중대한 과실로 인해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해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어도 보험사의 해지권은 배제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A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A의 해지권은 배제되므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고, 해지에 따라 보험금을 반환받을 수도 없다고 할 수 있다. ② 5문단에서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하면 보험사는 그것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를 하면 지급된 보험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A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5문단에서 보험사가 중대한 과실로 인해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해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 가입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어도 보험사의 해지권은 배제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A가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면 A의 해지권은 배제되므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고, 해지에 따라 보험금을 반환받을 수도 없다고 할 수 있다. ⑤ 5문단에서 계약 체결 전 보험 가입자가 중요한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B가 고지 의무 위반 사실을 보험 사고가 발생한 후 A에게 알렸다고 하더라도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2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정답 ①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60%	5%	2%	23%	10%
--------------	-----	----	----	-----	-----

해설 ㉞는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어떠한 일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함, 또는 그런 준비.'의 의미이다. 그런데 ①에서의 대비는 '두 가지의 차이를 밝히기 위하여 서로 맞대어 비교함, 또는 그런 비교.'를 의미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오답풀이 ② ㉞와 선지 모두, '어떤 대상의 내용이나 본질을 확실하게 이해하여 알.'을 의미하므로 적절하다. ③ ㉞와 선지 모두, '물건값, 봉급, 요금 따위를 올림.'을 의미하므로 적절하다. ④ ㉞와 선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물리쳐 제외함.'을 의미하므로 적절하다. ⑤ ㉞와 선지 모두, '잘못이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씌움.'을 의미하므로 적절하다.

[43~45] 문학~고전시가

지문 분석

홍순학 「연행가」

작품 감상 조선 말기 홍순학이 1866년(고종 3년) 3월에 왕비 책봉을 주청하기 위한 사신 일행의 서장관으로 연경(북경)에 다녀온 후에 지은 장편 기행가사이다. 작가는 4월 9일부터 8월 23일까지 총 133일 동안 견문한 내용을 시간과 여정에 따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작가가 견문한 것들을 사실적이면서 생생하게 그려 내고 있어서 당대의 청나라 문물과 문화적 현실을 잘 알 수 있다. 지문의 내용은 사신 일행이 청나라 황궁의 공식적인 행사에 참여하여 황제의 상을 하사받고 잔치를 마친 후 날짜를 정해 조선으로 귀국할 때의 감회를 노래한 것이다.

주제 사신의 일행으로 청나라를 다녀온 견문과 감상

43 표현상 특징 파악하기

정답 ③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3%	3%	75%	7%	12%
--------------	----	----	-----	----	-----

해설 이 글에서 연행을 하는 화자는 청나라에서 자명종, 자명약 같은 낯선 풍물을 접하고, 청나라 사람들과 말이 통하지 않아 필담을 나누고, 황궁의 공식적인 행사에 참여한 체험에 대한 다양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회한 날짜를 정해 귀국할 때의 시원하고 상쾌한 심정을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③이다.

오답풀이 ① 자연의 경이로운 풍광에 대한 감상을 장황하게 서술한 내용은 찾을 수 없다. ② '당연(唐硯)에 먹을 갈아~시전지(詩箋紙)를 빼어 들고'를 학문과 관련한 사물을 나열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이것은 필담을 위한 과정을 제시한 것이지 화자의 입신양명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 것은 아니다. ④ 청나라 황궁의 공식적 행사에 참여한 것은 맞지만 이 글에서 행사에 참여한 다양한 사람들의 외양과 감정을 묘사한 내용은 찾을 수 없다. ⑤ '곡식 추수가 한창이요'를 구체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볼 수 있으나, '승문문 내달아서 통주로 향해 가니'로 볼 때 화자는 귀국하는 도중이지 여정이 마무리 된 것은 아니다.

44 구절의 의미 파악하기

정답 ⑤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3%	5%	3%	3%	86%
--------------	----	----	----	----	-----

해설 ㉞은 '올 적에 심은 곡식 추수가 한창이요'라는 가을의 계절감을 드러내는 표현을 통해 '올 적(청나라로 출발할 때)'에서 시간이 한참 경과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⑤이다.

오답풀이 ① '절로 울어 소리하며'에서 청각적 이미지가 사용되었으나, 이것은 대상이 지닌 슬픔을 표현한 것과는 관련이 없다. ② '이편저편'이라는 지시적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상대와의 친밀감을 드러내는 상황이 아니라 처음 만난 사람들이 고급 목재로 된 의자에 마주 앉은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다음 행의 '처음 인사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③ ㉞은 귀국 준비를 위해 바쁘게 짐을 싸고 있는 것이지 여유로운 분위기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분분하고'는 음성 상징어가 아니라 형용사로, 떠들썩하고 뒤숭숭한 상황을 나타낸다. ④ ㉞의 앞 구절과 뒷 구절을 대구적 표현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새로운 계책을 마련한 기쁨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45 감상의 적절성 평가하기

정답 ①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84%	4%	4%	6%	2%
--------------	-----	----	----	----	----

해설 [A]의 '간담을 상응하여'는 상대방에게 마음을 터놓는 상황으로 경계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며, [B]의 '뜰에 내려 북향하여'는 청나라 황제에게 사례하는 모습으로 상대방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이다.

오답풀이 ② [A]의 '거기 사람 처음 인사 차 한 그릇 갖다 준다'와 [B]의 '황상이 상을 주사 예부상서 거행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A]에서는 '필담'을 통해 서로 간에 간곡한 정을 전달하고 있으며, [B]의 '구고두'는 청나라 시대에 황제에게 머리를 조아려 절하는 공식적 예법으로, 황상(황제)이 조선 사신 일행에게 상을 주고 잔치를 베풀어 주는 은혜에 의례적인 감사를 표하는 것이다. ④ [A]의 '글귀 절로 오락가락'은 필담을 통해 비로소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B]의 '비위가 뒤집혀서'는 푸짐한 잔치상을 받았으나 막상 먹을 것이 없는 곤란한 상황을 드러낸 것이다. ⑤ [A]의 '귀머거리 병어린 듯'은 언어가 같지 않아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B]의 '매밀떡에 밀다식에 곁밥'은 음식을 나열하여 잔치상에 여러 가지 음식을 차려 놓은 상황을 알려 주고 있다.

재치동기출 既出

고득점을 기원합니다.

등급컷

등급	1	2	3	4	5	6	7	8
원점수	92	85	78	69	57	39	25	18
나의 점수	[] 점			[] 등급				

오답률 Best 5

순위	1	2	3	4	5
번호	39	13	35	19	42
오답률(%)	78.9	77.6	72.3	59.1	56.8

정답과 해설					본문 180~195페이지
1 ④	2 ②	3 ①	4 ④	5 ③	
6 ⑤	7 ④	8 ③	9 ④	10 ③	
11 ③	12 ③	13 ④	14 ②	15 ②	
16 ⑤	17 ②	18 ④	19 ②	20 ③	
21 ③	22 ⑤	23 ①	24 ⑤	25 ⑤	
26 ①	27 ①	28 ③	29 ⑤	30 ②	
31 ④	32 ②	33 ⑤	34 ③	35 ②	
36 ④	37 ①	38 ⑤	39 ③	40 ①	
41 ④	42 ①	43 ⑤	44 ④	45 ③	

[1-5] 화법

1 말하기 방식 파악하기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1%	2%	88%	4%
--------------	----	----	----	-----	----

해설 | [D]에서 해설사는 남한산성이 시대별 축성술을 보여 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진행자는 해설사의 이 말을 듣고 자신이 예전에 남한산성에 갔을 때의 경험을 떠올렸다. 즉 성벽을 쌓은 돌의 종류와 쌓은 방식이 조금씩 달랐던 것을 떠올리며, 그것이 해설사가 말한 시대별 축성술과 관련이 있는지 질문을 통해 확인하려 하였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것은 ④이다.

오답풀이 | ① [A]에서 진행자는 '남한산성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알아보기 위해 대답을 하겠다고 대답의 취지를 밝혔다. 그러나 대담에서 소개될 내용의 순서를 안내하지는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B]에서 진행자는 남한산성에 대한 자신의 배경지식이 맞는지에 대해 해설사에게 물었다. 또 해설사는 용어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C]에서 해설사는 『택리지』의 내용을 인용하였다. 해설사가 이를 인용한 것은 진행자의 말을 수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행자의 말에 동의하며 그 내용을 부연하기 위한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E]에서 진행자는 해설사의 말을 요약하지 않고 청취자에게 대담의 중요 내용과 관련된 체험을 권유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2 말하기 목적 추론하기 정답 ②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90%	0%	1%	3%
--------------	----	-----	----	----	----

해설 | 학생 1과 학생 2는 대담의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답사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려고 하였다. 대담의 핵심 내용은 남한산성이 시대별 축성술을 잘 보여 주는 표본이라는 것이므로, 답사 홍보 포스터의 제목에는 이 내용이 언급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학생 2는 포스터 제목에 의인법을 활용했다고 했다. '남한산성이 들려주는 시대별 축성술 이야기'이라는 제목은 대담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남한산성이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표현은 의인법에 해당한다. 그리고 답사의 목적에는 대담의 핵심 내용을 확인해보자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하므로, 답사 목적을 '남한산성을 답사하며 시대별 축성술의 특징을 살펴보기'로 정한 것은 적절하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오답풀이 | ① 대담에서 '남한산성의 축성술'을 다루고 있으므로, 답사 포스터의 제목에는 핵심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목에 의인법을 사용하지는 않았고, 답사 목적도 대담의 핵심 내용과 관련이 없다. ③ 대담에서는 남한산성에 얽힌 향전의 역사를 다루지 않았다. 따라서 제목과 목적에 핵심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없다. ④ 대담에서는 우리 건축 문화에 대해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남한산성이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까지의 과정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제목과 목적에 핵심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없다. ⑤ 대담의 핵심 내용은 신라 시대의 축성술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시대별 축성술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제목과 목적에 핵심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없다.

3 발표의 전략 평가하기 정답 ①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83%	1%	1%	5%	8%
--------------	-----	----	----	----	----

해설 | [A]에서 발표자는 희토류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 설명한 후, 청중에게 "이제 희토류에 대해 이해되었나요?"라고 질문을 한다. 그리고 청중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다음으로 희토류의 활용 사례를 설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A]에서 발표자는 자신의 설명에 대한 청중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질문을 한 뒤 청중의 반응을 살피는 전략을 활용하였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것은 ①이다.

오답풀이 | ② [A]에서 발표자는 발표 대상인 희토류의 유용성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 희토류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하고 있지는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A]에서 발표자는 설명을 할 때 전문가의 설명을 직접 인용하지는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A]에서 발표자는 발표 중간에 영상을 보여 주며 희토류의 활용 사례를 설명하였다. 이처럼 발표자는 발표를 시작할 때 청중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시각 자료를 활용한 것이 아니라,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발표 중간에 시각 자료를 활용하였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A]에서 발표자는 희토류가 활용되는 두 가지 사례를 제시했지만, 사례를 설명한 후 이를 요약하지는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4 발표 내용 파악하기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1%	1%	2%	92%	2%
--------------	----	----	----	-----	----

해설 | ① 발표자는 발표의 마지막에 자신이 발표한 중심 내용을 제시하며 발표의 목적이 희토류에 대한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 희토류를 '산업의 비타민'이라고 비유하면서 희토류가 여러 산업 분야에서 주요 소재로 활용되고 있음을 밝혔다. ㉡ 발표자는 청중에게 생활 속에서 희토류가 실제로 얼마나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찾아보기를 권유하였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오답풀이 | ㉢ 발표자가 희토류로 인해 앞으로 우리 삶이 어떻게 긍정적으로 변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는 내용은 없다.

5 반응의 적절성 평가하기 정답 ③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1%	1%	90%	2%	3%
--------------	----	----	-----	----	----

해설 | 학생 3은 발표를 들은 후 발표자에게 2010년 이전의 희토류 생산량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지 않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발표자는 표를 제시하며 1986년부터 2010년까지 25년 동안 희토류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학생 3의 추가 설명 요청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은 ③이다.

오답풀이 | ① 발표자는 이트륨이 TV 스크린에 발광 재료로 쓰이는데, 발광 효율이 높다고만 밝혔다. 그런데 에너지 절약 효과의 정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학생 1의 추가 설명 요청은 적절하다. ② 발표자는 네오디뮴이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전기 자동차의 모터용 자석에 쓰인다고만 밝혔다. 따라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전기 자동차의 모터용 자석 외에 네오디뮴의 활용 사례에 대한 학생 2의 추가 설명 요청은 적절하다. ④ 발표자는 최근 여러 국가에서 희토류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따라서 구체적인 생산 기술에 대한 학생 4의 추가 설명 요청은 적절하다. ⑤ 발표자는 2050년 전 세계 희토류 수요량이 약 80만 톤에 이를 것이라는 한 전문가의 의견만 제시하였다. 따라서 그 외에 미래의 희토류 수요량을 예측한 연구 자료에 대한 추가 요청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6-10] 작문

6 내용 생성의 적절성 파악하기 정답 ⑤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0%	0%	0%	95%
--------------	----	----	----	----	-----

해설 | ㉠은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앱 개발 사례 제시'로 초고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초고의 3문단에서 한국관광공사의 여행 정보를 활용한 앱과 지방 자치 단체의 주차장 정보를 활용한 앱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 앱 개발의 구체적 사례가 아니라 공공 데이터 활용에 따른 장점들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오답풀이| ① 1문단에 ‘앱을 개발하려는 사람들은 아이디어가 넘친다.’라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② 1문단에 앱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앱 개발 시 필요한 정보를 모으고 갱신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아이디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③ 2문단 앞부분에 ‘공공 데이터는 공공 기관에서 생성,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 중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것’이라고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④ 2문단 마지막 부분에, 현재 정부가 개설한 공공 데이터 포털 사이트에서는 800여 개 공공 기관에서 생성한 15,000여 건의 공공 데이터가 제공되고 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7 내용 생성의 적절성 이해하기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1%	3%	2%	92%	0%
--------------	----	----	----	-----	----

|해설| 공공 데이터가 앱 개발에 필요한 실생활 관련 정보를 담고 있으며 앱 개발 비용의 부담을 줄여 준다는 내용은 [가]에 제시된 ‘공공 데이터 활용의 장점을 요약적으로 진술’과 부합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또 공공 데이터 이용이 활성화되면 실생활에 편의를 제공하는 다양한 앱이 개발될 것이라는 내용은 [가]에 제시된 공공 데이터가 앱 개발에 미칠 영향을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것은 ④이다.

|오답풀이| ① 공공 데이터의 개념이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공공 데이터 활용의 장점이 요약적으로 진술되어 있지는 않다. 또 공공 데이터가 앱 개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언급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학생의 초고에는 공공 데이터가, 앱 개발 아이디어가 부족하여 앱을 개발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내용이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공공 데이터가 앱 개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으나 공공 데이터 활용의 장점을 요약적으로 진술한 부분을 찾을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공공 데이터 활용의 장점이 요약적으로 진술되어 있기는 하지만 공공 데이터가 앱 개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언급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8 고쳐 쓰기 방안의 적절성 평가하기 정답 ③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1%	0%	90%	7%	0%
--------------	----	----	-----	----	----

|해설| ㉠ ‘늘리다’는 문맥상 ‘수나 분량, 시간 따위가 본디보다 많아지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공공 데이터의 양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라는 문장에서 ‘늘리고’는 문맥상 적절하게 사용된 단어이다. ‘늘이다’는 ‘본디보다 더 길게 하다.’ 혹은 ‘(주로 ‘선’과 관련된 말을 목적으로 하여) 선 따위를 연장하여 계속 굵다.’의 의미를 지닌 말이므로 ㉠을 ‘늘이고’로 고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오답풀이| ① 문맥상 ㉠에는 주차장을 못 찾아 헤매는 행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어가 제시되어야 한다. ‘헤매다’가 ‘갈 바를 몰라 이르러서 돌아다니다.’의 의미로 사용될 때에는 ‘~에서 ~을 헤매다.’와 같이 활용되므로 ㉠은 ‘앞말이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처소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인 ‘에서’를 활용하여 ‘도심에서’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헤매다’가 ‘~에 ~을 헤매다’와 같이 사용되는 경우는 ‘어떤 환경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허덕이다.’의 의미를 지니는 경우이므로 ㉠의 ‘도심에’는 조사의 사용이 잘못된 것이다. ② ㉠의 앞부분에는 앱을 개발하려는 사람들이 앱 개발 시 필요한 정보의 수집과 갱신 문제로 인해 아이디어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또 ㉠의 뒷부분에는 이제는 아이디어를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은 역접의 의미를 갖는 ‘그러나’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④ ㉠의 주어는 ‘공공 기관이’이므로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관계를 고려하여 피동 표현인 ‘시행된’을 ‘시행한’으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⑤ ‘들이다’는 ‘어떤 일에 돈, 시간, 노력, 물자 따위가 쓰인다.’의 의미를 지닌 ‘들다’의 사동사이다. ‘들이다’가 사용될 경우 주어로는 행위의 주체가 제시되어야 하지만 ㉠의 앞에 ‘비용이’라는 주어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들지’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9 내용 생성의 적절성 이해하기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1%	0%	0%	97%	0%
--------------	----	----	----	-----	----

|해설| 학생의 초고에서는 ‘가을’과 관련하여 다양한 빛깔의 나뭇잎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어 나무가 아름답다고 언급하였을 뿐, 아름다움을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내용과 관련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오답풀이| ① 길을 걷는 동안 버스가 빠른 속도로 자신을 스쳐 가자 어제까지 자신도 버스를 타고 오가느라 느긋함을 느끼지 못했다는 생각을 떠올렸다는 내용을 1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1문단을 통해 학생이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며 걸어서 등교하지 않았다면 그 소리를 듣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③ 2문단에서 학생은 나뭇잎을 보며 나뭇잎들의 빛깔이 다른 것을 확인

하고 이러한 다양한 빛깔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에서 아름다움을 느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⑤ 3문단에서 학생이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며 나와 생각이 다른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불편했던 일, 내 의견에 반대하는 친구들에게 반감을 가졌던 일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10 내용 생성(조직)의 적절성 파악하기 정답 ③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1%	0%	95%	1%	0%
--------------	----	----	-----	----	----

|해설| 초고의 점검 내용에 따르면, 초고 마지막 부분의 완결성이 떨어지므로 둘째 문단의 내용으로부터 개인과 사회의 바람직한 관계를 도출하고 앞으로 가져야 할 내 삶의 자세에 대한 내용으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의 초고 둘째 문단에는, 학생이 나뭇잎들의 다양한 빛깔이 조화를 이루 모습에서 아름다움을 느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점검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삶의 빛깔로 이루어진 세상을 위해 서로 다른 삶의 빛깔을 인정하며 살아야겠다는 내용으로 글을 마무리하는 것은 적절하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오답풀이| ① 2문단에서는 나뭇잎들의 다양한 빛깔이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움에 대해 언급하고 있을 뿐 하나의 빛깔이 지닌 아름다움에 대해 언급한 부분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2문단에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와 나의 고유한 빛깔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각자의 빛깔이라는 내용과 나뭇잎들의 다양한 빛깔을 연결 지어 볼 수 있지만, 2문단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과 관련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2문단에는 다양한 빛깔들의 조화를 통해 느끼는 아름다움에 대한 내용만 언급되어 있을 뿐, 사람들과의 관계에 소홀했던 학생의 태도와 관련지을 수 있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1-15] 문법

11 음운 변동 이해, 적용하기 정답 ③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6%	3%	70%	17%	1%
--------------	----	----	-----	-----	----

|해설| 두 종류의 음운 변동 현상이 일어나는 사례들을 유형별로 제시한 후, 각각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의 ‘숯도’는 /숯도/ → /숯도/ → [숯도], ‘웃고름’은 /웃고름/ → /웃고름/ → [웃고름]으로 발음되어 평파열음화와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의 ‘뉘는’은 /뉘는/ → /뉘는/ → [뉘는]으로, ‘부엌문’은 /부엌문/ → /부엌문/ → [부엌문]으로 발음되어 평파열음화와 비음화가 일어난다. 따라서 ㉠과 ㉡에 대해 ‘음절 끝에서 발음되는 자음이 7개로 제한되는 현상’, 즉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난다고 설명한 ③은 적절하다. 또한 ③에서 제시하고 있는 ‘깁다’ 역시 /깁다/ → /깁다/ → [깁따]로 발음되어 평파열음화가 일어나는 경우로 적절한 예이다.

|오답풀이| ① ㉠의 ‘울지[울치]’, ‘좁히다[조피다]’는 각각 ‘ㅎ+ㅈ → ㅈ’, ‘ㅃ+ㅎ → ㅍ’의 음운 축약 현상이 일어나지만, ㉠의 ‘끓어[끓너]’, ‘쌓이다[싸이다]’에서는 ‘ㅎ’이 탈락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앞서 살폈듯이, ㉡에서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또한, ㉡의 ‘읽지[익찌]’, ‘훑겨내[훑겨너]’에서는 자음군 단순화와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그렇지만, ㉠에서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겉모양’은 /겉모양/ → /겉모양/ → [겉모양]으로 발음되어 ㉠과 마찬가지로 평파열음화와 비음화가 일어난다. 그러나 비음화는 조음 위치가 같아지는 현상이 아니라 조음 방법이 같아지는 현상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얹고’는 /얹고/ → /얹고/ → [얹꼬]로 발음되어 받침 자음의 일부가 탈락하는 자음군 단순화와 된소리되기가 일어난다. ㉡에서 역시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지만 ㉡에서는 겹받침이 쓰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2 형태소의 개념 및 특성 파악하기 정답 ③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7%	1%	85%	2%	2%
--------------	----	----	-----	----	----

|해설| 제시된 사례를 통해 형태소의 유형과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우선 밑줄 친 ‘은/는’, ‘들-/들-’, ‘-았-/~었-’은 모두 반드시 다른 말과 결합하여 쓰여야 하는 의존 형태소들이다. 또한 이들은 각각 받침의 유무 및 결합하는 어간과 어미의 차이에 따라, 즉 음운 환경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하는 이형태의 관계가 있는 형태소들이다. 먼저, ‘은/는’은 결합하는 말에 받침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형태가 바뀐다. 또한, ‘들다’의 어간 ‘들-’은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어라’와 결합할 때 ‘들-’로 형태가 바뀐다. 마지막으로, 과거 시제의 선어말 어미 ‘-았-/~었-’은 어간 끝음절의 모음에 따라 형태가 바뀌어 실현된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것은 ③이다.

오답풀이 ① 반드시 다른 말과 결합하여 쓰인다는 진술은 타당하지만, 해당 형태소들은 모두 의존 형태소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단어의 자격을 가질 수 없다. 그러나 '은/는'과 같은 조사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단어의 자격을 부여한다. ② '은/는'은 의존 형태소이지만 예외적으로 단어의 자격을 가진다. 그러나 나머지는 단어의 자격을 가질 수 없다. 또한, '은/는', '-았-/었-'은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 형식 형태소(문법 형태소)이지만, 동사 어간 '들-/들-'은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실질 형태소(어휘 형태소)이다. ④ 음운 환경에 따라 형태가 바뀐다는 진술은 타당하지만, '들-/들-'은 실질 형태소(어휘 형태소)이다. ⑤ 반드시 다른 말과 결합하여 쓰인다는 진술은 타당하지만, '들-/들-'은 실질 형태소(어휘 형태소)이다.

13 시제 표현 파악하기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4%	3%	5%	82%	3%
--------------	----	----	----	-----	----

해설 보조 용언 구성 '-고 있-'이 진행상(㉠)의 의미를 지닐 때, 완료상(㉡)의 의미를 지닐 때, 두 의미로 모두 해석 가능한 때(㉢)에 대한 설명을 기반으로 해당되는 사례들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문맥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안경을 벗고 있다.'라는 문장에 대해 진행상과 완료상의 의미로 모두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④에서는 '안경을 잃어버린 뒤의 상황'이라는 일정한 문맥이 부여되어 해당 문장은 '안경을 벗고 지낸다.' 정도의 완료상의 의미만 나타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④이다.

오답풀이 ① '양치질을 하는 중이었어요.'로 교체하여도 원래의 의미가 유지되는 것을 볼 때 진행상(㉠)의 예로 적절하다. ② '오해하는 중이다.'로 교체하면 부자연스러운 문장이 되고, 오해를 하고 있는 상태의 지속이라는 의미가 나타나기 때문에 완료상(㉡)의 예로 적절하다. ③ '아는 중이다.'로 교체하면 부자연스러운 문장이 되고, 생인임을 아는 상태의 지속이라는 의미가 나타나기 때문에 완료상(㉡)의 예로 적절하다. ⑤ 해당 문맥에서 '넥타이를 매고 있네.'는 '신입 사원이 넥타이를 매는 동작을 진행한다는 의미', '신입 사원이 현재 넥타이를 매고 있는 상태로 있다는 의미'로 모두 해석 가능하기 때문에 진행상과 완료상의 의미로 모두 해석 가능한 때(㉢)의 예로 적절하다.

14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하기 정답 ②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1%	71%	5%	21%	0%
--------------	----	-----	----	-----	----

해설 부사와 조사로 쓰일 수 있는 '같이'와, '같이'와 '하다'가 결합한 '같이하다'에 대한 국어사전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조사로 쓰이는 '같이'는 '얼음장같이 차갑다'처럼 '앞말의 전형적인 어떤 특징처럼(㉠)'의 의미를 지니기도 하고, '새벽같이 떠나다'처럼 '앞말이 나타내는 그때를 강조'하는 의미(㉡)를 지니기도 하는데, ②의 '매일같이 지하철을 타다'에 쓰인 '같이'는 후자의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②이다.

오답풀이 ① '같이'는 부사로 쓰이는 경우이고, '같이'는 부사격 조사로 쓰이는 경우이다. 이는 '㉠', '㉡'라는 국어사전의 품사 정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③ '같이하다'의 뜻풀이에 '같이'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볼 때, '같이하다'는 '같이'와 '하다'의 복합어로 볼 수 있다. ④ 문형 정보가 '【(…과) …을】'로 제시되어 있음을 볼 때, '같이하다'는 '~과'의 형태로 쓰이는 부사어가 반드시 필요할 때에는 세 자리 서술어, 그렇지 않을 때에는 두 자리 서술어로 쓰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나는 그와 의견을 같이한다.'는 전자의 용례이며, '그들은 견해를 같이했다.'는 후자의 용례이다. 이때, 후자의 경우에는 '그들은'처럼 여럿임을 뜻하는 말이 주어로 온다. ⑤ '같이하다'는 '함께하다'의 정보를 제시하는 점을 볼 때, '평생을 같이한'과 '평생을 함께한'은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다.

15 정확한 문장 표현의 적절성 평가하기 정답 ②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3%	90%	2%	1%	1%
--------------	----	-----	----	----	----

해설 다양한 유형의 비문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②에서는 문법적으로 잘못된 요소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정확한 문장이다.

오답풀이 ① '그는 이론을 발전해'라는 부분에서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되지 않는 문장이다. '그는'가 칭찬한 사회 이론을 더욱 발전시켜 사회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정도로 수정해야 한다. ③ '생산 기술의 발달'과 '큰 변화를 겪었다'가 상응하지 않는 문장이다. '유럽은 18세기 후반부터 약 100년 동안 생산 기술이 발달하였고, 그에 따라 사회 조직의 큰 변화를 겪었다.' 정도로 수정해야 한다. ④ '요점은'과 '알아야 한다'를 확인해 보면,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되지 않는 문장이다. '이 책의 저자가 독자에게 말하려는 요점은 모름지기 사람은 남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점이다.' 정도로 수정해야 한다. ⑤ '이름의 혼동'과 '줄거리를 잘 기억하지 못했다'가 상응하지 않는 문장이다. '그의 작품들은 엇비슷해서 학생들이 작품 이름을 혼동하거나 각 작품의 이야기 줄거리를 잘 기억하지 못했다.' 정도로 수정해야 한다.

[16-18] 독서~과학

지문 분석

「지레의 원리에 담긴 돌림힘」

지문 해제 이 글은 지레의 원리에 담긴 돌림힘을 다루고 있다. 돌림힘이란 물체의 회전 상태에 변화를 일으키는 힘의 효과이다. 물체에 작용하는 돌림힘의 크기는 회전축에서 물체까지의 거리와 가해 준 힘의 크기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한편 동일한 물체에 작용하는 두 돌림힘의 합을 알짜 돌림힘이라고 하는데, 알짜 돌림힘은 돌림힘의 방향과 크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물체의 회전 속도 변화는 알짜 돌림힘이 물체에 일을 해 주었을 때에만 일어나는데, 알짜 돌림힘이 한 일은 알짜 돌림힘의 크기와 회전 각도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알짜 돌림힘이 물체를 돌리려는 방향과 물체의 회전 방향이 일치하면 알짜 돌림힘이 양(+)의 일을 하고 그 방향이 서로 반대이면 음(-)의 일을 하는데, 알짜 돌림힘이 양의 일을 하면 물체의 회전 운동 에너지는 증가하고, 음의 일을 하면 물체의 회전 운동 에너지는 감소한다. 이때 형태가 일정한 물체의 회전 운동 에너지는 회전 속도의 제곱에 정비례한다.

주제 알짜 돌림힘의 작용에 따른 물체의 회전 속도 및 회전 운동 에너지의 변화

16 세부 정보 및 핵심 정보 파악하기 정답 ⑤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1%	2%	2%	3%	88%
--------------	----	----	----	----	-----

해설 6문단에서 형태가 일정한 물체의 회전 운동 에너지는 회전 속도의 제곱에 정비례한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형태가 일정한 물체의 회전 속도가 2배가 되면 회전 운동 에너지는 4배가 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일치하지 않은 것은 ⑤이다.

오답풀이 ① 2문단에서 물체의 회전 상태에 변화를 일으키는 힘의 효과를 돌림힘이라고 하면서 물체에 회전 운동을 일으키거나 물체의 회전 속도를 변화시키려면 물체에 힘을 가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3문단에서 두 돌림힘의 방향이 같으면 알짜 돌림힘의 크기는 두 돌림힘의 크기의 합이 되고 그 방향은 두 돌림힘의 방향과 같으며, 두 돌림힘의 방향이 서로 반대이면 알짜 돌림힘의 크기는 두 돌림힘의 크기의 차가 되고 그 방향은 더 큰 돌림힘의 방향과 같다고 언급하고 있다. 한편 지레의 힘점에 힘을 주지만 물체가 지레의 회전을 방해하는 힘을 작용점에 주어 지레가 움직이지 않는 상황처럼, 두 돌림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면 알짜 돌림힘은 0이 되고 이때를 돌림힘의 평형이라고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물체에 가해진 알짜 돌림힘이 0이 아니면 물체의 회전 상태가 변화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6문단에서 알짜 돌림힘이 물체를 돌리려는 방향과 물체의 회전 방향이 일치하면 알짜 돌림힘이 양(+)의 일을 하고 그 방향이 서로 반대이면 음(-)의 일을 하며, 형태가 일정한 물체에 음(-)의 일을 하면 회전 속도가 감소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회전 속도가 감소하고 있는, 형태가 일정한 물체에는 돌림힘이 작용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3문단에서 지레의 힘점에 힘을 주지만 물체가 지레의 회전을 방해하는 힘을 작용점에 주어 지레가 움직이지 않는 상황처럼, 두 돌림힘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면 알짜 돌림힘은 0이 되고 이때를 돌림힘의 평형이라고 한다고 언급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17 세부 내용 추론하기 정답 ②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7%	73%	3%	7%	8%
--------------	----	-----	----	----	----

해설 2문단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돌림힘의 크기는 회전축에서 물체에 속한 점 X까지의 거리와 가해 준 힘의 크기의 곱으로 표현될 수 있다고 언급했으므로 갑의 돌림힘은 $300N \cdot m (= 300N \times 1m)$ 이며, 을의 돌림힘은 $400N \cdot m (= 200N \times 2m)$ 이다. 따라서 알짜 돌림힘은 갑의 반대쪽에서 작용하는 $100N \cdot m$ 로 나타낼 수 있다. 이때 알짜 돌림힘이 한 일은 알짜 돌림힘의 크기와 회전 각도의 곱이므로 $50\pi J (= 100N \cdot m \times 0.5\pi)$ 이며, [가]에서 알짜 돌림힘이 한 일은 갑의 반대쪽으로 90° 를 회전시키는 것이므로 알짜 돌림힘은 문이 갑의 반대쪽에서 갑의 있는 쪽으로 회전하도록 작용하는 양(+)의 일을 했다고 할 수 있다. 6문단에서 어떤 물체에 알짜 돌림힘이 양(+)의 일을 하면 그 만큼 물체의 회전 운동 에너지는 증가한다고 하였으므로 [가]에서 문이 90° 회전하는 동안 문의 회전 운동 에너지는 점점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오답풀이 ① 문에 작용하는 알짜 돌림힘은 $100N \cdot m$ 로 일정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문에는 갑의 반대쪽에서 갑이 있는 쪽으로 $100N \cdot m$ 의 알짜 돌림힘이 가해지고 있으므로 돌림힘의 평형이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알짜 돌림힘은 갑의 반대쪽에서 갑이 있는 쪽으로 작용하므로 알짜 돌림힘과 갑의 돌림힘은 방향이 다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갑의 돌림힘은 $300N \cdot m$ 이며, 을의 돌림힘은 $400N \cdot m$ 이므로 갑의 돌림힘의 크기는 을의 돌림힘의 크기보다 작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18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6%	6%	5%	70%	10%
--------------	----	----	----	-----	-----

해설 | <보기>의 OA는 OB의 절반에 해당하며, A, B에는 각각 OA, OB와 직각 방향으로 표면과 평행하게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하여 원판을 각각 시계 방향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밀어 준다고 하였으므로 두 돌림힘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작용하며, 그 힘은 2배의 차이를 보이게 된다. 왜냐하면 2문단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물체에 작용하는 돌림힘의 크기는 회전축에서 X까지의 거리와 가해 준 힘의 크기의 곱으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한편 <보기>의 원판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으므로 A에 가해 주는 힘만을 제거한 상태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밀어 주는 알짜 돌림힘만 존재한다. 이때 원판이 두 바퀴 회전한다면, 4문단에 언급된 바와 같이 알짜 돌림힘이 한 일은 알짜 돌림힘의 크기와 회전 각도의 곱에 해당하므로, 원판이 두 바퀴 전하는 동안 알짜 돌림힘이 한 일은 한 바퀴 회전하는 동안 알짜 돌림힘이 한 일의 4배가 아니라 2배가 되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④이다.

오답풀이 | ① <보기>의 A와 B에 작용하는 돌림힘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작용하는 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밀어 주는 돌림힘이 시계 방향으로 밀어 주는 돌림힘의 2배에 해당한다. 따라서 두 힘을 계속 가해 주는 상태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밀어 주는 알짜 돌림힘이 양(+)의 일을 하는데, 6문단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형태가 일정한 물체에 알짜 돌림힘이 양의 일을 하면 회전 속도가 증가한다. 따라서 <보기>와 같이 두 힘을 계속 가해 주는 상태에서는 원판의 회전 속도가 증가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4문단에서 회전 속도의 변화는 물체에 알짜 돌림힘이 일을 해주었을 때에만 일어난다고 언급하고 있다. <보기>의 A, B에 가해 주는 힘을 모두 제거하면 알짜 돌림힘은 0이 되어 어떤 돌림힘도 작용하지 않았으므로 원판은 일정한 회전 속도를 유지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보기>의 상황에서 A에 가해 주는 힘을 제거하면 B에 가해지는 시계 반대 방향의 알짜 돌림힘만 일을 하게 되는데, 이때의 알짜 돌림힘은 물체를 돌리려는 방향과 물체의 회전 방향이 일치하므로 양(+)의 일을 하면서 원판의 회전 속도를 증가시킨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보기>의 상황에서 B에 가해 주는 힘을 제거하면 시계 방향으로 밀어 주는 알짜 돌림힘만 작용한다. 이때 알짜 돌림힘은 음(-)의 일을 하고, 음의 일을 하면 원판의 회전 속도 에너지가 감소한다. 그런데 알짜 돌림힘이 한 일은 알짜 돌림힘의 크기와 회전 각도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알짜 돌림힘이 계속 작용하게 되면 시계 방향으로 작용하는 돌림힘에 의해 돌림힘의 평형 상태에 이르는 순간에 도달하여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던 원판의 회전 운동 에너지가 0이 되었다가 원판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것이다. 따라서 B에 가해 주는 힘을 제거하면 원판의 회전 운동 에너지는 점차 감소하여 0이 되었다가 다시 증가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19-21] 독서~기술

지문 분석

「애벌랜치 광다이오드」

지문 해제 이 글은 광통신에서 사용하는 '애벌랜치 광다이오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빛을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광통신은 케이블의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빛의 세기가 감소하기 때문에 약한 광신호를 측정 가능한 크기의 전기 신호로 변환해 주어야 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반도체 소자가 애벌랜치 광다이오드이다. 애벌랜치 광다이오드는 크게 흡수층, 애벌랜치 영역, 전극으로 구성된다. 흡수층은 충분한 에너지를 가진 광자가 입사되면 전자(-)와 양공(+) 쌍이 생성되는 곳이다. 흡수층에 입사되는 광자 수 대비 생성되는 전자-양공 쌍의 개수를 '양자 효율'이라 하는데, 양자 효율은 소자의 특성과 입사광의 파장에 따라 결정된다. 흡수층에서 형성되는 전자와 양공은 각각 양의 전극과 음의 전극으로 이동하는데 이 과정에서 전자는 애벌랜치 영역을 지나게 된다. 이 영역에서 전자가 강한 전기장에 의해 급속히 가속되어 충분한 속도를 얻게 되면 애벌랜치 영역의 반도체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들과 충돌하여 새로운 전자-양공 쌍을 만들게 되는데 이를 '충돌 이온화'라 부른다. 충돌 이온화는 새롭게 생성된 전자와 기존의 전자가 전극에 도달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애벌랜치 영역으로 유입된 전자당 전극으로 방출되는 전자의 수를 '증배 계수'라고 하는데 증배 계수는 애벌랜치 영역의 전기장의 크기가 클수록, 작동 온도가 낮을수록 커진다. 한편 애벌랜치 광다이오드는 흡수층과 애벌랜치 영역을 구성하는 반도체 물질에 따라 검출이 가능한 빛의 파장 대역이 다르다.

주제 애벌랜치 광다이오드의 작동 과정

19 세부 정보 및 핵심 정보 파악하기

정답 ②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87%	5%	2%	1%
--------------	----	-----	----	----	----

해설 | 2문단에 따르면 흡수층에 충분한 에너지를 가진 광자가 입사되면 전자-양공 쌍이 생성될 수 있다. 따라서 애벌랜치 광다이오드의 흡수층에서 전자-양공 쌍이 발생하려면 광자가 입사되어야 하므로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②이다.

오답풀이 | ① 1문단에 따르면 애벌랜치 광다이오드는 약한 광신호를 측정 가능한 크기의 전기 신호로 변환해 주는 장치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3문단에 따르면 입사된 광자가 전극에 도달할 때 전자의 수가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애벌랜치 광다이오드의 작동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애벌랜치 광다이오드가 작동하려면 전극에 걸린 역방향 전압에 의해 형성되는 강한 전기장이 필요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4문단에 따르면 저마늄을 사용하여 만든 애벌랜치 광다이오드는 800~1,600nm 파장 대역의 빛을 검출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3문단에 따르면 흡수층에서 생성된 양공은 음의 전극으로 이동한다. 애벌랜치 영역을 통과하여 양의 전극으로 이동하는 것은 전자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20 세부 내용 추론하기

정답 ③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4%	7%	65%	6%	15%
--------------	----	----	-----	----	-----

해설 | 2문단에 따르면 흡수층에 입사되는 광자 수 대비 생성되는 전자-양공 쌍의 개수인 '양자 효율'은 소자의 특성과 입사광의 파장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③이다.

오답풀이 | ① ①에서 전자는 역방향 전압의 작용으로 인해 형성되는 강한 전기장에 의해 급속히 가속되어 큰 속도를 갖게 된다. ② 충돌 이온화는 전기장에 의해 충분히 가속되어 큰 속도를 갖게 된 전자가 애벌랜치 영역의 반도체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들과 충돌하면서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강한 전기장은 충돌 이온화가 일어나는데 필수적이다. ④ 애벌랜치 영역에서 충돌 이온화가 반복되면서 전자의 수가 늘어남으로써 애벌랜치 증배가 이루어진다. 이때 전류의 크기는 단위 시간당 흐르는 전자의 수에 비례한다. 따라서 충돌 이온화가 많이 일어날수록 전극에서 측정되는 전류가 증가한다. ⑤ 충돌 이온화는 큰 속도를 갖게 된 전자가 애벌랜치 영역의 반도체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들과 충돌하면서 새로운 전자-양공 쌍을 만든다. 이때 새롭게 생성된 전자와 기존의 전자가 같은 원리로 충돌 이온화를 반복적으로 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애벌랜치 영역으로 들어오는 전자의 수가 늘어나면 충돌 이온화의 발생 횟수가 증가한다.

21 결론 추론하기

정답 ③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3%	7%	81%	4%	3%
--------------	----	----	-----	----	----

해설 | 3문단에 따르면 애벌랜치 영역으로 유입된 전자당 전극으로 방출되는 전자의 수를 '증배 계수'라고 한다. 그런데 증배 계수는 애벌랜치 영역의 전기장의 크기가 클수록, 작동 온도가 낮을수록 커진다. 따라서 예비 실험에서의 애벌랜치 광다이오드의 작동 온도 0°C를 본 실험에서 20°C로 높이면 증배 계수가 감소해 단위 시간당 전극으로 방출되는 전자의 수가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결과를 예측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③이다.

오답풀이 | ① 전기장은 역방향 전압이 클수록 커지고, 증배 계수는 전기장의 크기가 클수록 커진다. 따라서 예비 실험에서의 전압 110V를 본 실험에서 100V로 낮추면 증배 계수는 예비 실험에서의 40보다 작아진다. ② 본 실험에서 역방향 전압을 120V로 높이면 예비 실험에서보다 증배 계수가 늘어나 전극으로 방출되는 전자의 수가 증가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광신호의 세기가 커지므로 예비 실험에서보다 더 약한 빛을 검출하는 데 유리하다. ④ 광통신 케이블의 길이가 증가하면 빛의 세기가 감소해 수신되는 광신호는 매우 약해진다. 따라서 예비 실험에서의 광통신 케이블 1m를 본 실험에서 100m로 늘리면 측정되는 광신호, 즉 전류는 예비 실험에서의 100nA보다 작아진다. ⑤ 예비 실험을 수행할 때 제공된 제품 설명서에 따르면 750~1,000nm 파장 대역에서는 파장이 커짐에 따라 양자 효율이 작아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예비 실험에서의 800nm 파장의 빛을 본 실험에서 900nm 파장의 빛으로 바꾸면 양자 효율이 작아져 본 실험에서는 예비 실험에서의 전류 100nA보다 작아진다.

[22-26] 독서·인문

지문 분석

「귀납에 내재된 논리적 한계」

지문 해제 이 글은 귀납 자체의 논리적 한계와 그에 대한 해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귀납은 지식 확장적 특성으로 인해 근대 과학 발전의 방법적 토대가 되었지만, 한편으로 귀납 자체의 논리적 한계를 지적하는 문제들에 부딪히기도 하였다. 그중 하나가 귀납의 정당화는 순환 논리에 빠져 버린다는 귀납의 '정당화' 문제이다. 이에 대해 라이헨바흐는 자연이 일양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귀납을 사용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하고 있다. 귀납이 현실적으로 옳은 추론 방법임을 밝히기 위해 자연의 일양성이 선험적 지식임을 증명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주제 귀납에 내재된 논리적 한계와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

22 내용 전개 방식 파악하기

정답 ⑤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3%	1%	4%	4%	86%
--------------	----	----	----	----	-----

해설 2문단에서 귀납의 정당화 문제에 대해 소개한 뒤, 3문단에서 이 문제를 현실적 차원에서 해소하려는 시도인 라이헨바흐의 논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4문단에서 미결정성의 문제에 대해 소개한 뒤, 5문단에서 개연성이라는 귀납의 특징을 강조하는 방안을 통해 귀납이 여전히 과학의 방법으로서 그 지위를 지킬 만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로 보아 이 글은 귀납에 내재된 논리적 한계와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 검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오답풀이 ① 귀납이 정당한 추론이 되려면 미래의 세계가 과거에 우리가 경험해 온 세계와 동일하다는 자연의 일양성, 곧 한결같음이 가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흄의 견해가 언급되고 있지만, 흄의 평가를 병렬적으로 소개하고 있지는 않다. ② 귀납의 개념을 설명하며 연역에 대해 언급한 바 있지만, 귀납이 지닌 장단점을 연역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③ 귀납의 위상이 격상(格上)되어 온 과정을 고찰하고 있지는 않다. 귀납 자체의 논리적 한계에 대해 소개하며, 그에 대한 해소 방안을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④ 귀납의 다양한 유형에 대해 소개하고 있지도 않고, 각각의 특징에 대해 상호 비교하고 있지도 않다.

23 세부 정보 및 핵심 정보 파악하기

정답 ①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87%	2%	2%	5%	1%
--------------	-----	----	----	----	----

해설 귀납은 기존의 정보나 관찰 증거 등을 근거로 새로운 사실을 추가하는 지식 확장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귀납은 다른 지식을 전제로 하는데 그 지식은 다시 귀납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하는 경험적 지식이어서 결국 귀납의 정당화는 순환 논리에 빠져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관찰 증거를 확보하더라도 귀납의 정당화에서 나타나는 순환 논리 문제는 해소되기 어렵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오답풀이 ② 확률 논리로 설명되는 개연성은 직관에도 잘 들어맞지만, 직관에 들어맞는 확률 논리라고 하더라도 귀납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한다. 귀납이 여전히 과학의 방법으로서 그 지위를 지킬 만하다는 사실을 보여 줄 뿐이다. ③ 대부분의 현대 철학자들이 확률을 도입하여 개연성이라는 귀납의 특징을 강조하는 것은 귀납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에 해당한다. 이로 보아 관찰 증거가 가설을 지지하는 정도를 확률로 표현할 수 있다는 입장은 귀납을 옹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④ '귀납이 정당한 추론이다.'라는 주장은 '자연은 일양적이다.'라는 다른 지식을 전제로 하는데 그 지식은 다시 귀납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하는 경험적 지식이므로 귀납의 정당화는 순환 논리에 빠져 버린다고 하였다. 즉 흄은 귀납의 정당화가 귀납에 의한 정당화를 필요로 하는 지식에 근거해야 가능하다고 보았다. ⑤ 귀납은 기존의 정보나 관찰 증거 등을 근거로 새로운 사실을 추가하는 지식 확장적 특성을 지닌다. 이로 보아 귀납의 지식 확장적 특성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근거로 아직 알지 못하는 사실을 추론하는 데에서 비롯됨을 알 수 있다.

24 내용의 비판적 이해하기

정답 ⑤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4%	5%	6%	6%	77%
--------------	----	----	----	----	-----

해설 라이헨바흐는 자연이 일양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전제하며, 자연이 일양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귀납을 사용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하고 있다. 귀납이 현실적으로 옳은 추론 방법임을 밝히기 위해 자연의 일양성이 선험적 지식임을 증명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오답풀이 ① 라이헨바흐는 어떤 방법도 체계적으로 미래 예측에 계속해서 성공할 수 없다는 논리적 판단을 통해 귀납이 최소한 다른 방법보다 나쁘지 않은 추론이라고 확인한다. 그러나 이는 귀납이 지닌 논리적 허점을 현실적 차원에서 해소해 보려는 것이지, 그것을 완전히 극복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다. ② 라이헨바흐는 귀납의 정당화 문제로부터 과학의 방법인 귀납을 옹호하기 위해 현실적 구체책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귀납을 과학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지지하려는 목적에서 시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자연이 일양적일 경우, 라이헨바흐는 지금까지의 우리의 경험에 따라 귀납이 점성술이나 예언 등의 다른 방법보다 성공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자연이 일양적이지 않다면, 어떤 방법도 체계적으로 미래 예측에 계속해서 성공할 수 없다는 논리적 판단을 통해 귀납은 최소한 다른 방법보다 나쁘지 않은 추론이라고 확인한다. 이로 볼 때, 귀납과 다른 방법을 비교하기 위해 경험적 판단과 논리적 판단을 모두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④ 라이헨바흐는 자연이 일양적인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귀납을 사용하는 것이 옳은 선택이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그의 논증은 귀납과 견주어 미래 예측에 더 성공적인 방법이 없다는 판단을 근거로 귀납의 가치를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5 다른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 ⑤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3%	2%	2%	5%	84%
--------------	----	----	----	----	-----

해설 B는 귀납의 미결정성의 문제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천체의 표면 온도가 100℃이기 1년 전에 60℃였다는 정보를 추가로 언더라도 (L)을 (G)보다 더 나은 예측으로 채택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무리 많은 관찰 증거를 추가하더라도 하나의 예측이 다른 예측보다 더 낫다고 결정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오답풀이 ① A와 B는 모두 예측의 방법으로 귀납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귀납은 기존의 정보나 관찰 증거 등을 근거로 새로운 사실을 추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A와 B는 둘 다 과학자들이 예측한 (G)과 (L)이 모두 기존의 관찰 근거에 따른 것이라고 볼 것이다. ② A는 귀납의 미결정성의 문제에 대해 확률 논리에 따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예측이 다른 예측보다 더 낫고 확률적 근거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A는 확률을 근거로 (G)과 (L) 중 하나가 더 나은 예측임을 결정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③ A는 귀납의 미결정성의 문제에 대해 확률 논리에 따라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개연성이 확률 논리로 설명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A가 그 천체의 표면 온도가 100℃이기 1년 전에 90℃였다는 정보를 추가로 얻으면 (G)이 옳을 개연성이 더 높아진다고 볼 것이다. ④ B는 귀납의 미결정성의 문제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관찰 증거만으로는 여러 가설 중에 어느 하나를 더 나은 것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그러므로 B는 (G)에 대해서 가능한 예측이라고 할지언정 (L)보다 더 나은 예측이라고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다.

26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정답 ①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88%	0%	1%	8%	1%
--------------	-----	----	----	----	----

해설 ㉔에 사용된 '빠지다'는 '곤란한 처지에 놓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혼란에 빠진 적군은 지휘 계통이 무너졌다.'에 사용된 '빠지다' 역시 이러한 의미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오답풀이 ② '정신이나 기운이 줄거나 없어지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③ '물이나 구멍이 따위 속으로 떨어져 잠겨거나 잠겨 들어가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④ '차레를 거르거나 일정하게 들어 있어야 할 곳에 들어 있지 아니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⑤ '남이나 다른 것에 비해 뒤떨어지거나 모자라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27-30] 독서·사회

지문 분석

「부관의 법률적 효력」

지문 해제 이 글은 수강료 지불과 관련된 계약을 두고 법인 프토타고라스(P)와 에우아틀로스(E)의 분쟁을 예로 들어 계약서에 부가되는 '부관', 즉 '기한'과 '조건'의 법률적 효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계약에서 일정한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에 제한을 덧붙이는 것을 '부관'이라 하는데, 부관에는 '기한'과 '조건'이 있다. '기한'은 효과의 발생이나 소멸이 장래에 확실히 발생할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으로, 일정한 기한이 충족되면 법률적 효력을 갖는다. '조건'은 장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으로, 특정 조건이 실현되었을 때 법률적 효력을 갖는다. 법률에서는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같은 사안으로 소송에서 다룰 수 없는데 이를 '기판력'이라고 한다. 그런데 확정 판결 후 새로운 사정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면 이전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 달라고 하는 소송에서 패소한 판결이 확정된 후 시일이 흘러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집을 비워 달라는 소송을 다시 할 수 있다. 계약상의 기한이 지남으로써 임차인의 권리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주제 계약에서 덧붙이는 '기한'과 '조건'이 갖는 법률적 효력

27 세부 정보 및 핵심 정보 파악하기

정답 ①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65%	8%	9%	11%	4%
--------------	-----	----	----	-----	----

해설 | 2문단에 따르면 '기한'은 장래에 확실히 발생할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이고, '조건'은 장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이다.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다고 할 때 승소는 장래에 일어날 수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사실에 해당하므로 이때의 승소는 수강료 지급 의무에 대한 '조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오답풀이 | ② '기한'은 장래에 확실히 발생할 사실에, '조건'은 장래에 일어날 수도 있는 사실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기한'과 '조건'은 모두 계약상의 효과를 장래의 사실에 의존하도록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③ '조건'에서 조건이 실현되었을 때 효과를 발생시키면 '정지 조건', 소멸시키면 '해제 조건'이 된다. 따라서 계약에서 '해제 조건'을 덧붙이면 그 조건이 실현되었을 때 계약상 유지되고 있는 효과를 소멸시킬 수 있다. ④ 3문단에 따르면 판결에 대하여 상소가 그 기간 안에 제기되지 않으면 사안이 종결되면 기판력이 인정된다. ⑤ 법률에서 확정 판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같은 사안으로 소송에서 다룰 수 없는 것을 '기판력'이라고 한다. 이를 고려할 때 기판력은 같은 사안에 대해 서로 모순되는 확정 판결이 존재하도록 할 수는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28 세부 내용 추론하기

정답 ③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8%	8%	68%	8%	5%
--------------	----	----	-----	----	----

해설 | P가 소송을 제기한 목적은 '수강료를 받아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P는 첫 번째 소송에서 '수강료를 내라는 내용'을 청구할 것이다. 만일 첫 번째 소송에서 진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소송에서는 첫 번째 소송에서 E가 승소하였으므로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다'는 계약에서 '정지 조건', 즉 계약 조건이 실현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수강료를 내라는 내용'을 청구할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오답풀이 | ① 계약이 유효하다면 첫 번째 소송에서 P가 '수강료를 내라는 내용'을 청구할 수 없다.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다'는 계약상의 조건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P는 첫 번째 소송에서 계약이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할 것이다. 반면 계약이 유효하지 않다면 첫 번째 소송에서 E가 '수강료를 내지 않겠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 수강은 이미 종료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E는 첫 번째 소송에서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② 첫 번째 판결에서는 E가 승소하는 상황으로 판결문에 'E가 수강료를 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 실릴 이유가 없다. ④ 두 번째 소송에서는 E가 첫 번째 소송에서 승소를 한 상황으로 '승소하면 그때 수강료를 내겠다'는 계약상의 조건이 달성된 것이므로 P가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⑤ P가 승소하는 두 번째 소송의 판결은 첫 번째 판결에서 E가 승소하는 상황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이다. 즉 첫 번째 판결이 유효하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두 번째 판결에서 P가 승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두 판결 가운데 하나가 무효라면 P가 승소할 수 없게 된다.

29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 ⑤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5%	9%	5%	12%	66%
--------------	----	----	----	-----	-----

해설 | 3문단에 따르면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해 매매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패소한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이 인정되어 이후에 계약서를 발견하더라도 그 사안에 대하여는 다시 소송하지 못한다. (나)의 경우도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판결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인정되는 상황이므로 확정 판결 이후에 계약서를 발견하더라도 이 사안에 대하여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오답풀이 | ① (가)의 경우에 갑은 금전을 빌려 주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해 패소가 확정되었으므로 더 이상 같은 사안으로 다룰 수 없다. ② (가)의 경우 계약서를 발견하더라도 계약서는 판결 이전에 작성된 것이어서 그 발견이 새로운 사정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전 확정 판결은 기판력을 갖게 된다. 따라서 (가)의 경우 금전을 갚아 달라는 갑의 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나)의 경우 갑이 한 날을 2015년 11월 30일로 그 '기한'을 인정한 확정 판결이므로 그 기간까지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을은 그 기간이 되기 전에는 갑에게 금전을 갚지 않아도 된다. ④ (나)의 경우 2015년 11월 30일을 갚기로 한 날로 그 '기한'을 인정한 확정 판결이다. 따라서 기판력이 미치지 못하는 2015년 11월 30일이 지나면 갑이 을을 상대로 금전을 갚아 달라는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다.

30 어휘 선택의 적절성 판단하기

정답 ②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5%	51%	7%	19%	15%
--------------	----	-----	----	-----	-----

해설 | '부가하다'는 '주된 것에 덧붙이다.'는 의미이므로 ⑥와 바꾸어 쓸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오답풀이 | ① '수취하다'는 '거두어 모이다.', '받아서 가지다'는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는 '어떠한 것을 받아들이다.'는 의미의 '수용하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③ '지시하다'는 '가리켜 보게 하다.'는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는 '어떤 대상을 가리켜 이르다.'는 의미의 '지칭하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④ '형성되다'는 '어떤 형상이 이루어지다.'는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는 '어떤 일이나 사물이 생겨나게 되다.'는 의미의 '발생되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⑤ '경유하다'는 '어떤 곳을 거쳐 지나다.'는 의미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⑥는 '어떤 단계나 시기, 장소를 거치다.'는 의미의 '경과하다'와 바꾸어 쓸 수 있다.

[31-33] 문학·현대소설

지문 분석

윤홍길 「아홉 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작품 감상 1970년대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속에서 적지 않은 소시민들은 경제 성장의 흐름 속에서 소외된 삶을 살았다.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들은 개인의 삶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는데, 이 작품의 '권 씨'는 이러한 사회 상황이 낳은 피해자의 모습을 보여 준다. '권 씨'는 선량한 소시민으로 나름의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갔으나, 결국 생활고로 강도질을 하게 되고 아홉 켤레의 구두만을 남겨 놓은 채 사라진다. 이 작품에서 서술자인 '나'는 불합리한 사회 구조 속에서 패배한 권 씨를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주제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소외된 이에 대한 연민

31 작품의 내용 파악하기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94%	1%	1%	1%	0%
--------------	-----	----	----	----	----

해설 | 해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권 씨'의 부인이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진통하는 상황에 대하여, 서술자 '나'의 아내는 "아무래도 꼭 무슨 일이 터질 것만 같애요"라며 불안감과 우려를 드러낸다. 이를 계기로 '나'는 문간방의 '권 씨'를 불러내어 임신부에 대해 적절히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오답풀이 | ① 문간방에 쌀이나 연탄을 몰래 갖다 주고 난 후 아내가 '생병'을 앓은 이유는, 무책임하고도 무능하여 못마땅한 사내(권 씨)까지 돕게 된 상황이 괴심해서이다. ② '권 씨'는 '여전히' '계속해서' 일 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엇그제까지' 권씨가 여간내가 아니라 아내가 속삭이기는 하였으나, '권 씨'가 '권 씨네'의 경제적 상황을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 '권 씨' 부인의 진통은 '나'가 '아내'에게 알려준 것이 아니라, '아내'가 '나'에게 귀뜸해 준 것이다. ⑤ '권 씨'가 '나'

의 염려에 대해 '위로해 주는 투'로 변명한 것을 '위로'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 장면 이후의 장면이 제시되지 않아 '아내'의 원망이 누그러졌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32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정답 ②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1%	94%	1%	0%
--------------	----	----	-----	----	----

| 해설 | ㉠에서는 예정일도 파악하지 못하는 등 출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권 씨 부인'의 상황이 아내의 발화를 통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 오답풀이 | ㉠ ㉠에서는 '나'가 꿈의 내용이 사실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꿈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에서 서술자는 '권 씨' 부부가 사태를 최악의 선까지 몰고 가고 있는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권 씨' 부부의 내면 심리나 의도가 묘사되어 있지는 않다. ㉣ ㉣과 ㉤에서 제시되어 있는 것은 서술자 '나'의 심리적 갈등이다. '권 씨' 부부와의 외적 갈등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 ㉥에는 출산 예정일도 모를 정도로 출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부정적 상황이 제시되어 있고, ㉦에는 최악의 선까지 몰려가는 부정적 상황이 제시되어 있다. 부정적 상황에 대한 '아내'와 '나'의 불안과 염려가 드러나 있으므로, ㉣과 ㉤에 인물들에 대한 긍정적 시선이 드러나 있다고 한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33 감상의 적절성 평가하기 정답 ⑤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11%	18%	12%	51%	5%
--------------	-----	-----	-----	-----	----

| 해설 | '나'가 '권 씨네'에 대해 염려하며 '우리를 위해서'라고 말한 것은, 집주인과 세입자의 관계로 같은 집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만의 일이라도 일이 잘못될 경우(출산 과정에서의 불상사)'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고 때문이다. '나'가 '권 씨네'를 염려하는 모습은 이웃의 불행을 외면하지 않는 일면 공동체의 유대감의 표현이기도 하다. '우리를 위해서'를 공동체의 유대감 회복으로 이해한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 오답풀이 | ① '권 씨네'를 의식하는 행위가 공동체적 유대감의 표현이고, '권 씨네'의 상황에 대한 거리두기가 개인주의의 표현이라면, 이 둘 사이에서 고민하는 '나'의 모습은 공동체적 유대감과 개인주의 사이에서 고민하는 소시민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이 소설에서는 일정한 직업 없이 막일을 하는 '권 씨'를 통해 주 변부로 밀려난 도시 빈민을 형상화하고 있다. ③ '권 씨네'를 염려하면서도 '권 씨네'를 돕고 나서 괴씸해하는 '아내'에게는,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공동체 의식과 남의 상황에 거리를 두려는 개인주의 사이에 놓인 소시민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다. ④ 가난한 가정 형편 탓에 별다른 대책이나 준비도 없이 해산을 맞이하려는 '권 씨' 부인의 모습에서 궁핍한 소외 계층의 처지를 확인할 수 있다.

[34-36] 문학~극

지문 분석

채만식 「제향날」

작품 감상 이 작품은 할머니 '최 씨'가 외손자 영수에게 남편과 자식의 이야기를 전해 주는 구조로 되어 있다. 동학 혁명에 가담했다가 처형당한 김성배와 독립운동을 하다가 행방불명된 김영수의 이야기는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투쟁했던 가족의 수난사이지만, 이것은 우리 민족 전체의 수난으로 확대되고, 프로메테우스가 인간들에게 불을 건네준 이야기로 비유된다. 투쟁의 결과 김성배와 김영수는 불행을 겪었고, 불을 전해 준 프로메테우스는 영원한 고통의 형벌을 받았다. 하지만 작가가 주목한 것은 투쟁의 비극적 결말이 아니다. 프로메테우스 이야기는 상인의 앞날을 암시하는 기능을 하는데, 이는 더 좋은 삶을 위한 우리 민족의 노력은 지속될 것임을 시사한다.

주제 부정적 세력에 대한 투쟁과 부조리한 시대를 개선하려는 부단한 저항 의지

34 작품의 내용 파악하기 정답 ③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85%	3%	4%	4%	2%
--------------	-----	----	----	----	----

| 해설 | ㉠은 "네 할아버지도 그날 그러니까 그제 바로 구월 구일날 오늘이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최 씨는 과거의 사건을 손자에게 들려주고 있다. ㉡은 "그리고 그날 외할아버지는"이라고 묻는 손자의 질문에 대한 최 씨의 답변이다. 따라서 ㉠과 ㉡은 모두 외할아버지에게 일어났던 과거의 사건을 외할머니가 손자에게 들려주는 내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 오답풀이 | ① 지문에서 동학당원의 가족과 병졸들의 대립은 확인할 수 있지만 최 씨와 영호의 대립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② ㉠과 ㉡에는 동학당원과 그들을 처형하려는 관원들의 행동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④ ㉠에 대해 전경으로 돌아오는 부분에서 영호는 "그럼 할머니는 그때 어디 있었수"라고 묻고 있으며, ㉢에서 최 씨는 외할아버지에 대해 묻는 영호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따라서 영호가 최 씨의 대답을 듣고 있지 않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울타리 구멍으로 내어다 보기만 했지", "웬 일인가 하고 눈을 다시 떠보니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최 씨는 ㉠과 ㉡ 상황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35 서사 구조에 대한 이해하기 정답 ②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6%	3%	1%	8%	79%
--------------	----	----	----	----	-----

| 해설 | ⑥는 과거 처형장의 장면에서 극중 현재인 제향날로 장면을 교차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극중 상황에서 최 씨와 자신의 시어머니인 김성배의 모친은 한 공간에 함께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 오답풀이 | ① '암전'은 무대를 어둡게 한 상태에서 무대 장치나 장면을 바꾸는 일을 가리킨다. 따라서 막을 여닫지 않은 상태에서 장면을 전환할 수 있다. ③ ㉢를 기점으로 과거와 현재 상황이 교차하고 있다. 따라서 무대 상황 및 등장인물의 변화를 줄 시간이 필요하다. ④ ⑥ 직전은 처형 전의 장면에 해당하며 ㉢ 직후는 처형 후의 장면에 해당한다. 따라서 두 장면은 시간의 순차성을 가지고 연결된다. ⑤ ⑥ 직전은 처형장으로 가기 전의 공간에 해당하고 ㉢ 직후는 처형장에서의 장면에 해당한다. 따라서 두 장면은 동일 공간이 아니지만 처형과 관련되어 있다.

36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하기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1%	4%	4%	86%
--------------	----	----	----	----	-----

| 해설 | 「자작 안내」에서 밝혔듯이 작가는 동학과 3·1운동에 관련된 최 씨 가족의 수난을 통해 우리 민족의 역사적 아픔을 조명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보기〉와 지문을 통해 처형장에 가지 못한 채 울타리 구멍으로 남편의 처형 장면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최 씨의 모습을 신중히 대응이라고 비판하려는 작가의 입장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독자가 시대적 아픔을 공감할 수 있도록 작중 상황을 전개하였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 오답풀이 | ① 작가는 역사적 사건의 현재적 의미를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과거 상황을 모르는 손자로 하여금 질문을 하게 하고 그 상황을 겪었던 최 씨가 대답하는 구조로 작품을 전개하였다. ② 작가는 최 씨로 하여금 어린 손자에게 외증조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을 들려주게 함으로써 그들의 제삿날이 지닌 상징적 의미를 독자들이 연상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③ 작가는 최 씨 가족이 겪은 사건을 정기간 재판과 위력적인 관부의 모습과 연관 지어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독자에게 극의 소재를 개인적 차원인 아닌 역사적 차원으로 인식시키고 노력하였다. ⑤ 작가는 강자의 횡포와 관련된 동학농민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일제 시대를 살고 있는 1937년의 독자가 읽게 함으로써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인식하게 하려는 창작 의도를 담아내고 있다.

[37-39] 문학~고전소설

지문 분석

작자 미상 「토끼전」

작품 감상 이 작품은 동물을 의인화하여 인간 세상의 일을 해학과 풍자를 통해 드러낸 작품이다. 수궁에 가면 호의호식하며 높은 벼슬을 할 수 있다는 자라의 거짓말에 속아 목숨을 잃을 지경에 처한 토끼가 기지를 발휘하여 무사히 육지로 돌아오는 사건을 통해 권력층의 무도함에 대처하는 서민의 발랄한 재치를 보여 주고 있다. 인용된 지문의 앞부분에서는 용왕의 명을 받아 육지로 나온 자라가 호랑이에게 잡혀 죽을 뻔 한 위기 상황이 나타나 있으며, 중략 이후의 내용에서는 간을 두고 왔다는 토끼의 말에 속아 넘어간 용왕의 토끼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와 이를 바탕으로 자라에게 복수하려는 토끼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주제 허욕에 대한 경계와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의 중요성

37 인물의 심리 파악하기 정답 ①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79%	4%	5%	3%	6%
--------------	-----	----	----	----	----

| 해설 | 육지에 나온 자라가 호랑이를 만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자라는 백호를 죽여 달라며 하늘에 빌다가 "일사면 도무사라. 무이불식이라. 먹지 않는 것 없이 몽

땅 먹는다 하니 내 한번 고기 값이나 하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모진 마음을 굳게 먹고’ 오히려 큰소리치며 호랑이를 위협한다. 이를 통해 볼 때, ‘고기 값이나’ 하겠다는 것은 자신이 설혹 죽더라도 무기력하게 그냥 당하는 것이 아니라 호랑이에게 한번 대항해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오답풀이 | ② 자라에게 느닷없이 앞턱을 물린 호랑이는 일단 주춤한 상태이며, 그 상황에서 움츠렸던 목을 길게 뻗 자라의 모습은 갑툭음을 잘 갖추어 입고 총을 빼든 것처럼 느껴져 호랑이는 겁을 먹고 있다. ‘자라 호랑이 질려 하는 김새를 알고’를 통해 자라를 두려워하는 호랑이의 심리 상태를 알 수 있다. ③ 자라가 ‘도로랑 귀신’ 운운하며 겁을 주자, 호랑이는 깜짝 놀라 물똥을 싸고 도망간다. 겨우 자라에게서 도망친 후, 호랑이가 바위틈에서 장담하는 “내 재주 아니련들 도로랑 귀신 피할손가? 하마터면 죽을 뻔하였구나.”라는 말은 허세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패배를 설욕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④ 토끼가 “김새를 보아 떠나라고 하였거니”라는 말을 떠올리는 것은 범치가 총을 추는 토끼를 보다가 “벋속에 간이 출랑출랑하는구나.”라고 말했다기 때문에 시간을 지체하다가 자칫 낭패에 빠질 수 있음을 생각한 것이다. ⑤ 별주부 자라는 잔치에서 범치의 말을 듣고 토끼를 질책하며 대왕을 속이려 한다고 꾸짖는다. 이에 토끼가 분한 마음을 품고 왕배탕 얘기를 용왕에게 하여 결국 자라 대신 자라의 부인이 죽게 된 상황이다. 자라는 경솔한 말로 인해 음해를 당한 것에 대해 부인에게 얘기하며 토끼에게 용서를 빌자고 말하는데, 이는 자신이 죽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살아날 길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38 구절의 표현 및 의미 파악하기 정답 ⑤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6%	2%	2%	85%
--------------	----	----	----	----	-----

해설 | ㉠은 별주부 자라가 부인의 죽음을 막기 위해 토끼를 위한 잔치를 베풀고 용서를 비는 상황을 서술한 부분이다. ‘치우고’, ‘배설하여’, ‘앉히고’, ‘애걸하는’ 등 부부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것이지, 서술자의 주관적 의견이 드러나는 편집자적 논평이 사용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오답풀이 | ① ‘못 보겠네’의 반복, ‘나의 충성 부족던가’와 ‘나의 정성 부족던가’의 대구를 통해 용왕의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고 객사하게 될 자신의 팔자에 대한 한탄하고 있다. ② ‘큰 물체나 물방울 따위가 아래로 떨어지는 모양.’의 의미를 지닌 ‘뚝’, ‘약간 넓은 일정한 범위를 자꾸 도는 모양.’의 의미인 ‘빙빙’, ‘크고 단단한 물체가 맞부딪치는 모양.’의 의미를 지닌 ‘쩍쩍’ 등의 의태어를 사용하여 추녀 끝에서 떨어지는 자라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 ③ 패왕이 달아나는 모습, 조조가 도망하는 모습, 북풍을 타고 구름이 빠르게 가는 모습, 편전살(화살)이 날아가는 모습, 조총의 탄환이 나는 모습 등 다양한 비유를 통해 호랑이의 도망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④ ‘토끼를 다 잡으면 사냥개를 삶아 먹고 높이 뜬 새 없어도 좋은 활이 숨는다’는 고사를 인용하여 공이 있는 자라를 죽이려는 의견에 일리가 있다고 표현하면서도, 자라의 공적을 내세워 암자라로 대응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

39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하기 정답 ③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7%	81%	4%	4%
--------------	----	----	-----	----	----

해설 | 용왕이 베푼 잔치에서 토끼가 총을 추는데, 용궁의 대장인 범치가 토끼의 옆에서 “토끼 벋속에 간이 출랑출랑하는구나.”라고 말하자 별주부가 그 말을 거들면서 “내 듣기에도 출랑출랑하는 것이 분명한 간인 듯 하거든 네 저러한 피로 우리 대왕을 속이려 하느냐”라며 꾸짖는다. 이는 토끼에게 불리한 내용인 배에 간이 들어있다는 것을 화제로 삼아 상대를 공박하려는 것으로, 토끼를 회유하거나 토끼와의 대결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토끼의 말이 거짓임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오답풀이 | ① “내 근본을 자세히 아는가”, “이곳 나오고 목이 이리 된 근본을 알려나” 등 호랑이에게 자신의 근본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시킨 후, 호랑이가 모르는 자신의 근본에 대해 거짓으로 꾸며대면서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② “별나리, 별나리, 그 저 나리도 무섭다 하되 별나리 더 무섭다”는 호랑이의 말은 자라 별자를 알아듣지 못한 무식의 소치로, 별나리를 무서워하는 호랑이의 반응을 보며 자라는 큰소리를 치며 호랑이를 위협하고 있다. ④ 범치와 자라가 토끼의 배에 간이 들어있다는 말을 하자 토끼는 놀라면서도 한편 자신을 해치려는 자라에게 분노하여 원기회복을 위해 왕배탕을 먼저 먹은 후 자신의 간을 쓰면 효과가 좋으리라고 용왕에게 말하면서 자신의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고 있다. ⑤ 별주부 부부가 자신들의 잘못을 빌며 목숨을 구해 달라고 빌자, 토끼는 자신을 용궁으로 유인한 과거의 잘못을 따지며 우위를 강화하고 있다.

[40-42] 문학~고전시가

지문 분석

(가) 정철 「어와 동량재물」

작품 감상 조정의 신하들이 당쟁만을 일삼으며 나라의 인재들을 모함하고 내치던 세태를 풍자한 시조이다. ‘동량재’는 나라의 유능한 인재들 가리키고, ‘못목수’는 당쟁을 일삼는 무능한 정치가, ‘기운 집’은 위태로운 나라를 비유한 것이다.

주제 조정의 혼란 속에서 인재들이 잃어가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

(나) 이원익 「고공담주인가」

작품 감상 조선 중기 임진왜란을 겪은 뒤 명신 이원익이 지은 가사로 알려져 있다. 허전이 지은 ‘고공가’에 화답한 가사로 ‘고공담가(雇工答歌)’라고도 한다. 허전의 ‘고공가’에서와 마찬가지로, 나라의 관리들을 대가집의 머슴들에 비유하여 주인의 무너진 살림을 일으킬 생각은 하지 않고 자신의 소임도 다하지 않는 머슴들의 잘못된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

주제 나태하고도 이기적인 관리들의 행태에 대한 비판

40 표현상 특징 파악하기 정답 ①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3%	1%	4%	2%	87%
--------------	----	----	----	----	-----

해설 | (나)의 ‘집일을 곳치거든 종들을 휘오시고 / 종들을 휘오거든 상벌을 밝히시고 / 상벌을 밝히거든 어른 종을 미드소서’에서 연쇄의 표현 기법이 쓰였고, (나)의 3-4행에서는 ‘뉘러서 곳치’가 반복되어 표현되고 있다. 이와 달리 (가)에는 연쇄와 반복의 표현 기법이 쓰이지 않았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오답풀이 | ② (가)와 (나) 모두 설의적 표현 기법을 사용하여(3-4행, ‘뉘러서 곳치’이며, ‘뉘러서 곳치’와 ‘살고’) 안타까움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③ (가)에서는 ‘동량재(나라의 인재)’, ‘기운 집(어려운 지경에 놓인 나라)’ 등 직유가 아닌 은유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나)에서는 ‘옥 굵튼 얼굴’과 같은 직유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④ (가)에는 색채어가 쓰이지 않았다. ⑤ (가)와 (나)에 모두 현실 상황에 대한 탄식이 표현되어 있다.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한 시상의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41 구절의 의미 파악하기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3%	56%	1%	37%	1%
--------------	----	-----	----	-----	----

해설 | (나)에서 화자는 ‘마누라(임금)’가 새끼를 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충언을 받아들여 서둘러 실천하기를 바라고 있다. ‘새끼 소기’를 화자가 청자에게 당부하는 시급하고 중요한 행위로 본 내용은 적절하지 않은 이해이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오답풀이 | ① ㉠에 이어지는 구절 ‘제 소임 다 바리고 몸 쓰릴 뿐이로다(제 소임 다 버리고 몸 사림/꺼림 뿐이로다)’로 볼 때, ‘바깥 마음’이 직분을 망각하여 화자의 비판을 받고 있는 존재로 이해한 내용은 적절하다. ② ‘불한당 구멍 도적’이 멀지 않은 곳에 다니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이들을 ‘가까운 곳에 있으며 화자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는 세력’으로 이해한 내용은 적절하다. ③ 화자는 임금이 하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을 설득하고 있으므로 ‘늑주인’을 설득의 대상으로 이해한 내용은 적절하다. ⑤ 화자는 주인이 ‘상벌’을 밝게 하기를 설득하고 있으므로, ‘상벌’을 화자가 공정하고 엄중하게 시행되기를 바라는 일로 이해한 내용은 적절하다.

42 감상의 적절성 평가하기 정답 ①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3%	3%	83%	7%
--------------	----	----	----	-----	----

해설 | (가)에서는 ‘동량재’에 대한 잘못된 대우를 한탄하고 있고, (나)에서는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른 종’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가)의 ‘동량재’와 (나)의 ‘어른 종’이 국가의 바람직한 경영을 위해 필요한 존재라고 감상한 내용은 적절하므로 정답은 ①이다.

오답풀이 | ② (나)에서는 ‘기운 집’을 바로세우기 위해 실천해야 할 일을 하인들(신하들)과 주인(임금)에게 간곡히 호소하고 있다. 위험에 놓여 있지만 힘을 합쳐 일으켜 세워야 할 나라를 ‘되돌릴 길 없이 기울어 패망한 국가’라고 감상한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③ (가)의 ‘의논’은 바른 방향을 잡지 못하고 불필요하게 전개되는 당쟁을 꼬집는 말이므로, 국가 대사를 위한 대책인 (나)의 ‘논의’와는 성격이 다르다. ④ (가)의 ‘못목수’는 조정의 일에 관심은 많으나 당쟁을 일삼는 이들을 가리키고, (나)

의 '험 업은 종'은 조정의 일에 무심하고 직무를 소홀히 하는 이들을 가리킨다. ⑤ (가)의 여러 목수들은 '고자 자'를 들고 입씨름만 하고 있을 뿐 집을 바로 세울 실행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나)의 '문허진 담'은 위험에 빠진 국가를 가리킨다. '고자 자'와 '문허진 담'이 외세의 침입에 협조한 것이라는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

[43~45] 문학~현대시

지문 분석

(가) 박남수 「아침 이미지 1」

작품 감상 어둠이 물러나고 아침이 오면서 밝은 세상이 드러나는 과정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화자는 어둠이 지나고 날이 밝아오는 일상의 섭리를, 모체(母體)인 어둠이 사물을 잉태하고 있다는 독특한 발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어둠으로부터 태어난 만물들은 '노동의 시간'을 즐기며 생동감 있게 묘사되고 여기에 '금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이 더해지면서 의욕적이고 활기찬 아침의 이미지가 절정에 이르게 된다. 바로 이전까지만 해도 어둠 속에서 무거운 어깨를 느끼며 존재하던 물상들이 빛나는 태양 아래서 생명력을 드러내며 움직이는 모습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는 느낌을 준다. 시인은 다양한 동사를 활용한 역동적인 이미지로 아침이 밝아온다는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일을 개별과도 같은 사건처럼 독특하고 신선하게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주제 밝고 생동감 넘치는 아침 이미지

(나) 김기택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함」

작품 감상 늘 시끄럽고 요란한 소리를 뿜어내는 텔레비전 앞에서 저녁 시간을 보내던 화자가 텔레비전을 끄고 풀벌레 소리를 듣게 된 경험을 통해, 잊고 사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브라운관이 뿜어낸 현란한 빛'에서 벗어나 풀벌레들의 '울음소리'를 접하게 된 화자는 풀벌레들의 울음소리가 '너무 단단한 벽에 놀라 되돌아갔을 것'이라 추측하며 자신이 잊고 살았던 자연의 평온함을 비로소 인식하게 된다. 텔레비전의 빛과 소리로 대표되는 인공적인 삶의 환경들과 어둠, 별빛, 풀벌레 소리로 대표되는 자연의 삶을 대조함으로써 화자는 차분히 자신의 내면을 돌아볼 시간도 없이 그저 인공적인 삶 속에서 원초적인 쾌락에 몸을 내맡겨 버린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시인은 가까이 왔다가 되돌아가는 풀벌레들의 존재를 알리며 현대인들에게도 내면을 채울 수 있는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여보라고 권유하고 있는 것이다.

주제 풀벌레 소리로 인한 삶에 대한 성찰

43 작품 간의 공통점 및 차이점 파악하기 정답 ⑤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1%	4%	5%	84%
--------------	----	----	----	----	-----

| 해설 | (가)의 '어둠'은 모체로 형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생산력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나)의 '어둠'은 풀벌레들을 품고 있는 포용력 있는 배경임과 동시에 화자에게 풀벌레 소리를 느끼게 해주는 배경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때 (가)의 '어둠'은 '굴복한다'라는 표현을 통해 밝음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나)의 '어둠'은 풀벌레 소리와 화자를 모두 포용하고 있는 기능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밝음에 순응하는 모습을 부각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 오답풀이 | ① (가)에서는 '어둠'이 사라지면서 많은 물상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을 어둠이 물상들을 품고 있다가 '둘러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② (나)의 화자는 텔레비전을 끄면서 비로소 어둠을 접하게 되고, 그 어둠 속에서 비로소 풀벌레 소리를 듣게 된다. 그러므로 '어둠'은 풀벌레 소리를 도드라지게 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③ (가)에는 어둠이 사라지면서 날이 밝아오는 변화의 과정이 드러나지만, (나)에는 텔레비전을 끄고 어둠 속에 머무는 상태의 지속이 드러나고 있다. ④ (가)에는 '어둠'이 물러나면서 여러 물상들이 모습을 드러내는 변화가 드러나고 있고, (나)에는 '어둠'이 들어오면서 텔레비전 소리로 가득하던 방 안이 벌레 소리들로 환해지는 변화가 드러나고 있다.

44 구절의 의미 파악하기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3%	7%	6%	78%	4%
--------------	----	----	----	-----	----

| 해설 | (가)에는 어둠이 사라지면서 만물들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 그려지고 있는데, 여러 만물들은 '노동의 시간'을 즐기는 생동감 있는 모습으로 형상화

되고 있다. '태양의 즐거운 울림'은 점점 밝아오는 태양의 역동적인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이는 생동감 있게 살아나는 만물들의 이미지와 어울려 아침의 이미지를 더욱 밝고 경쾌하게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 오답풀이 | ① '무거운 어깨를 털고'는 지상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사물들의 몸부림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물상의 움직임을 부각하는 표현이다. ② '노동의 시간을 즐기고'는 긍정적이고 신선한 이미지를 통해 생기 넘치는 삶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한 것일 뿐 노동의 고단함을 잊기 위한 것은 아니다. ③ '즐거운 지상의 잔치'는 온갖 물상들이 움직이면서 만들어내는 아침의 모습을 낙천적인 분위기로 표현한 것이다. ⑤ '세상은 개벽을 한다'는 물상들의 움직임을 '혼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이감을 지니고 새로운 세계가 창조되는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45 화자의 정서 및 태도 이해하기 정답 ③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3%	87%	4%	2%
--------------	----	----	-----	----	----

| 해설 | 텔레비전을 끄고 비로소 풀벌레 소리를 듣게 된 화자는 그 인식을 확대하여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까지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화자가 '들리지 않는 소리'의 주체가 자신 때문에 소통할 수 없게 되었다고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단지 화자는 그동안 그 소리들이 벽에 부딪쳐 돌아갔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자신과 소통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내며 자신의 삶에 대해 반성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 오답풀이 | ① 화자는 텔레비전을 끈 후에 비로소 풀벌레 소리가 방 안 가득 들어오고 있음을 지각하고 있다. 이어서 화자는 브라운관이 뿜어낸 현란한 빛으로 인해 자신의 눈과 귀가 두꺼워졌기 때문에 풀벌레 소리들은 이런 벽에 부딪쳐 돌아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② 풀벌레 소리를 통해 환함을 느끼게 된 화자는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도 있다'는 인식으로까지 생각을 확대하고 있다. ④ 화자는 '브라운관이 뿜어낸 현란한 빛'으로 인해 벽을 만들었고 그 벽으로 인해 풀벌레 소리를 간과했음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다. ⑤ 화자는 별빛과 풀벌레 소리를 포용하고 있는 밤공기를 허파로 들이신다는 표현을 통해 풀벌레 소리를 내면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고득점을 기원합니다.

I 등급컷

등급	1	2	3	4	5	6	7	8
원점수	93	88	81	72	61	49	36	24
나의 점수	[] 점			[] 등급				

I 오답률 Best 5

순위	1	2	3	4	5
번호	30	33	41	20	27
오답률(%)	49	49	44	35	35

정답과 해설					본문 196~212페이지
1 ①	2 ②	3 ⑤	4 ③	5 ④	
6 ①	7 ②	8 ③	9 ⑤	10 ④	
11 ③	12 ④	13 ⑤	14 ⑤	15 ②	
16 ③	17 ①	18 ③	19 ②	20 ③	
21 ②	22 ③	23 ④	24 ②	25 ②	
26 ③	27 ⑤	28 ④	29 ①	30 ④	
31 ④	32 ⑤	33 ④	34 ②	35 ③	
36 ⑤	37 ②	38 ①	39 ⑤	40 ⑤	
41 ④	42 ⑤	43 ①	44 ④	45 ⑤	

[1-5] 화법

1 의사소통 방식 이해하기

정답 ①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87%	3%	3%	4%	0%
--------------	-----	----	----	----	----

해설 | 인터뷰 대화에서 학생은 질문을 통해 박사에게 지폐 속에 담긴 우리 문화 유산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그림에 대해서도 보충 설명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질문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이 질문을 통해 박사의 설명에 대한 자신의 이해가 맞는지 확인하고 있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학생은 미리 적어 온 질문지를 바탕으로 박사에게 궁금한 점을 묻고 있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충 설명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므로 정답은 ①이다.

오답풀이 | ② “그렇군요. 작품 안에 이항 선생이 게실 것만 같아요.”, “왜 있네요. 작아서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렇군요. 이번에는 뒷면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시겠어요?”라는 학생의 말을 통해 학생이 박사의 답변에 긍정적으로 반응함으로써 공감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박사는 “천 원권에는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 알고 있나요?”, “이 그림을 누가 그렸는지 아나요?”라고 하면서 학생의 배경 지식을 점검해 가며 화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④ 박사는 “국어 시간에 ‘용비어천가’를 배운 적이 있을 텐데요.”라고 말하면서 정보 전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학생의 학습 경험을 환기하고 있다. 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라는 학생의 요청에 따라 박사는 만 원권의 뒷면에 그려진 천문도에 대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2 인터뷰 진행 양상의 이해 및 적용하기

정답 ②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1%	90%	5%	1%	1%
--------------	----	-----	----	----	----

해설 | 인터뷰 대화에서 박사는 천 원권의 앞면과 뒷면의 그림을 소개하고, 이어서 만 원권의 앞면과 뒷면의 그림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천 원권에 그려진 그림은 조선 후기 겸재 정선의 그림이며, 만 원권에 그려진 그림은 조선 초에 제작된 천문도이므로 “박사님의 설명 순서대로 지폐의 그림에 담긴 문화유산들을 시대순으로 서술하면 되겠네.”라고 말한 ‘태성’의 발언은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오답풀이 | ① ‘서연’의 바로 앞에서 ‘민지’는 ‘표제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질문의 형태로 제시하기로 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서연’이 ‘우리의 지폐’를 ‘박물관’에 비유하면서, ‘우리의 지폐가 박물관이라는 사실을 아시나요?’와 같이 질문의 형태로 제시한 표제는 적절하다. ③ 바로 앞에서 ‘민지’는 친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어려운 내용은 정보를 추가하여 설명하기로 했음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천상열차분야지도’라는 생소한 명칭에 대해 그 의미를 추가하여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다. ④ 천 원권에 그려진 ‘계상정거도’를 확대하여 제시하는 것은 전달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시각적 자료의 활용에 해당한다. ⑤ 인터뷰 대화에서 박사의 마지막 말인 ‘학생들이 지폐 속에 담긴 우리 문화유산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는 말을 인용하는 것은 전문가의 당부에 해당하므로 적절하다.

3 자료 선별 과정 파악하기

정답 ⑤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1%	1%	0%	93%
--------------	----	----	----	----	-----

해설 | (가)에서 학생들은 우리 지역 전통 시장인 ‘아름시장’의 특징을 소개하기 위한 자료들을 선별하고 있다. 즉, 학생 1은 우리 지역 전통 시장인 ‘아름시장’의 특징을 소개하기 위해 조사한 자료를 선별해 보자고 제안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학생 2는 ‘아름시장’의 특징을 잘 소개한 신문 기사와 ‘아름시장’의 장점을 부각하기에 효과적인 연구 보고서를 활용할 것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학생 3은 기사의 내용 중 ‘전국의 전통 시장 분포에 대한 내용’은 ‘아름시장’의 특징을 소개하려는 발표의 주제와 상관이 없으므로 빼자고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가)에서 드러나는 자료의 선별 과정은 학생들은 자료가 화제인 ‘아름시장’의 특징을 제시하는 데 필요한지 판단하여 자료 활용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⑤가 가장 적절하다.

오답풀이 | ① 학생 3의 발언을 고려할 때 발표 주제와 관계없는 내용의 삭제를 요청하는 부분은 찾을 수 있지만, 자료의 내용들이 중복되는지의 여부를 비교하는 부분은 찾을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활용할 자료의 선별과 관련하여 발표 장소의 문제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모호하게 언급한 ‘한 연구 보고서’에 있는 설문 결과는 자료의 출처가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신문 기사의 일부와 연구 보고서의 설문 결과를 자료로 활용하기로 결정했는데, 청중의 이해 수준을 고려하여 자료 활용 여부를 선별하는 과정은 드러나지 않는다.

4 말하기 기능 이해하기

정답 ③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1%	1%	95%	1%	1%
--------------	----	----	-----	----	----

해설 | ㉔의 “아름시장은 또 다른 흥미로운 특징을 갖고 있는데, 궁금하지 않으세요?”는 앞에서 언급한 내용 이외에 아름시장은 또 다른 흥미로운 특징이 있다는 점을 전제하면서 청중의 호기심과 관심을 자극하기 위한 질문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중의 이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제시되는 질문으로 볼 수 없다. 정답은 ③이다.

오답풀이 | ① ㉔은 아름시장에 대한 발표를 준비하면서 전통 시장이 불편할 것이라는 자신의 생각이 편견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이는 자신의 경험에 대한 발표를 듣는 청중들도 생각이 변화될 수 있음을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② ㉔은 아름시장이 전통 시장의 불편함을 해소한 우수 사례라는 내용이 실린 ○○신문의 기사를 제시하였다. 이는 소비자들이 아름시장에 대해서는 불편하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견해의 구체적인 근거 자료에 해당한다. ④ ㉔은 야금야금에 대한 청중의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해 야금야금에서 예술가들이 만든 제품을 보았던 발표자의 경험을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⑤ ㉔에서는 ‘뜬금만 하지 말고 직접 가서 눈으로 보라는 의미의 한자 성어인 ‘백문이 불여일견’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청중에게 아름시장을 방문해 볼 것을 권유하고 있다.

5 반응의 적절성 평가하기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1%	0%	0%	92%	4%
--------------	----	----	----	-----	----

해설 | (나)의 발표를 들은 후 청중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④이다. 청자 1의 경우, 아름시장의 장보기 도우미 도입과 야금야금 운영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청자 3은 아름시장의 장보기 도우미 도입에는 공감하지 않으나, 야금야금에 예술가를 참여시켜 시장을 활성화하려 했다는 것에는 공감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청자 1과 청자 3은 아름시장의 장보기 도우미 도입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야금야금의 운영 방식에는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 ① 청자 1은 장보기 도우미를 도입한 것이 소비자의 관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이러한 시도가 대형 매장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을 들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② 청자 2는 연구 보고서의 내용과 신문 기사를 활용한 발표 방식이 아름시장의 특징을 전달하기에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아름시장의 변화가 전통 시장에 대한 인식 변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자신 역시 전통 시장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③ 청자 3은 장보기 도우미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야금야금에 예술가들을 참여시켜 아름시장을 활성화하려 했다는 내용에는 공감하지 않는다. 따라서 아름시장과 관련된 내용 중 일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일부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청자 2는 아름시장의 장보기 도우미가 전통 시장에 대한 인식 변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청자 3은 아름시장의 새로운 시도 중

장보기 도우미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청자 2와 청자 3의 반응을 통해 장보기 도우미를 예로 들어 아름시장이 경쟁력을 강화했다고 한 것은 청중들의 공감을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10] 작문

6 작문의 특성 파악하기

정답 ①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85%	3%	1%	6%	3%
--------------	-----	----	----	----	----

해설 | (가)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 표시'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독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글을 쓰게 된 동기를 제시하고 있으며, (나)는 (가)를 바탕으로 작성한 학생의 초고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 표시'의 종류와 분류 기준, 이에 대한 학생의 의견을 밝힌 글이다. 따라서 (가)와 (나)를 통해 알 수 있는 작문의 특성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의 '글쓰기 전부터 지니고 있었던 배경 지식은 배제한다.'이다.

오답풀이 | ② 독자에게 친환경 농산물 인증 표시의 종류와 분류 기준에 대해 알려 주면서 이를 바르게 알고 소비하도록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작문이 의미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독자와 소통하려는 활동임을 알 수 있다. ③ (가)와 (나)의 화제인 '친환경 농산물 인증 표시 제도의 이해'는 개인적 성격(건강)과 사회적 성격(환경 보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적절하다. ④ (나)에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 표시에 해당하는 그림을 제시한 것은 내용 전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매체 자료의 활용임을 알 수 있다. ⑤ (가)에서 제기한 '사람들이 친환경 농산물 인증 표시 제도에 대해 잘 모른다.'라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나)에서는 자료를 조사하여 관련 정보를 알리는 글을 쓴 것이므로, 작문이 일상생활에서 파악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활동임을 알 수 있다.

7 작문 계획의 적절성 평가하기

정답 ②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76%	9%	7%	3%
--------------	----	-----	----	----	----

해설 | 친환경 농산물 소비가 느는 것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설문 조사 결과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 표시의 종류와 분류 기준을 설명하려는 이 글의 목적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글의 통일성을 해치고 있다. 이에 따라 [A]에서는 '소비자들이 친환경 농산물 인증 표시의 종류와 분류 기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하여 인증 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제시하여 문제점을 거론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이다.

오답풀이 | ① '친환경 농산물 인증 표시 제도의 도입은 환경 보전과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에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 표시 제도의 등장 배경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친환경 농산물 인증 표시의 종류와 분류 기준을 글의 첫 문단에서 설명하지 않았다. 이에 관한 내용이 [A]의 두 번째 문단에서 '유기물 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저농약 농산물'로 분류하여 각각의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반면, 인증 표시 제도 운영의 의의에 관한 내용은 [A]에 드러나 있지 않다. ④ 친환경 농산물 인증 심사 통과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⑤ 마무리 부분에서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 표시의 종류와 분류 기준에 대해 바르게 알고 소비해야 함을 언급했을 뿐, 친환경 농산물 인증 표시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해결 방안 마련의 필요성은 언급하지 않았다.

8 고쳐 쓰기 방안의 적절성 평가하기

정답 ③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1%	2%	91%	1%	3%
--------------	----	----	-----	----	----

해설 | ㉠의 앞 문장은 유기농 인증 표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을 포함한 문장은 무농약 인증 표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그 다음의 문장은 저농약 인증 표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을 포함한 문장이 다음 문장과 '마지막으로'로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 앞 문장과 ㉡을 포함한 문장은 병렬적으로 이어진 문장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의 '그러나'는 '그러나'가 아니라 '그리고' 혹은 '또한'으로 고쳐 쓰는 것이 적절하므로 정답은 ③이다.

오답풀이 | ① ㉠의 '부착할'은 주어인 '인증 표시'와 호응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착될'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② ㉠의 '나뉘어진다'는 피동 접미사 '-이'에 피동을 나타내는 '-어지다'가 붙은 형태로 피동 표현이 중복되었으므로 '나뉘다'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④ ㉠의 '기준에'의 경우, '-에'는 처소나 시간, 방향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조사이다. 따라서 '기준'이 '1/2'의 관형어가 되어야 하므로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나타내는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된 '기준의'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⑤ ㉠의 '실감하는'은 '실제로 체험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의 의미이므로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다. 따라서 '실제로 체험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의 의미를 지니는 '실천하는'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9 작문 계획 반영 여부 파악하기

정답 ⑤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1%	0%	3%	0%	93%
--------------	----	----	----	----	-----

해설 | 네 가지 조건, 즉 '오리 토끼 그림을 반영할 것', '학문 탐구에서 선입견의 위험성을 언급할 것', '대상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갖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할 것', '비유를 활용할 것' 등을 가장 적절하게 반영한 것은 ⑤이다. ⑤는 첫째 문장에서 '오리 토끼' 그림에 대해 언급하면서, '선입견'을 '자기의 생각을 자신이 만든 동굴 속에 가두는 것'에 비유하여 그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둘째 문장에서는 학문 탐구와 관련하여 다양한 탐구 관점을 지니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오답풀이 | ① '오리 토끼' 그림과 '대상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갖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② '학문 탐구에서 선입견의 위험성'을 언급하지 않았으며, '비유'를 활용하지 않았다. ③ '대상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갖는 것의 중요성'이 드러나지 않는다. ④ '학문 탐구에서 선입견의 위험성'과 관련된 내용이 드러나지 않으며, '비유'를 활용하지 않았다.

10 작문 과제의 반영 여부 확인하기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0%	0%	0%	97%	0%
--------------	----	----	----	-----	----

해설 | '학생 2의 작문 과제를 수행한 '학생 2'의 글에는 전공 체험 교실이 자신에게 매우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다는 내용이 드러나고 있지만, 체험과 관련하여 대학 측에 바라는 점은 언급되지 않았다. 따라서 ㉠~㉣ 중 학생 2의 글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의 '체험과 관련하여 대학 측에 바라는 점'이므로 정답은 ④이다.

오답풀이 | ① '얼마 전 학교에 계시던 '□□대학교 전공 체험 교실'에 대한 안내문을 보고 전공 선택에 도움을 얻고자 참가 신청을 하였다.'라고 하여 체험 활동에 참가하게 된 동기를 밝히고 있다. ② 오전의 체험 내용을 언급하고 점심 식사를 마친 후의 체험 내용을 언급하였으므로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이 과정에서 글을 잘 쓰려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⑤ '기회가 된다면 전공 체험 교실에 꼭 참여해 볼 것을 권한다.'라고 언급하면서 체험을 권유하는 내용으로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11-15] 문법

11 음운 변동 현상 이해하기

정답 ③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7%	4%	64%	0%	2%
--------------	-----	----	-----	----	----

해설 | '모음 변동의 사례'로 제시된 ㉠~㉣ 중 두 개의 단모음이 합쳐져 이중 모음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과 ㉢이다. ㉠의 '살피+어 → [살피]'에서는 단모음 'ㅣ'와 단모음 'ㅣ'가 합쳐져 이중 모음 'ㅚ'가 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의 '배우+어 → [배워]'에서는 단모음 'ㅜ'와 단모음 'ㅣ'가 합쳐져 이중 모음 'ㅟ'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오답풀이 | ㉠ '가+어 → [기여]' : 연결 어미 '-어'의 단모음 'ㅣ'가 '기다'의 여간 '기-'의 영향을 받아 'ㅚ'로 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ㅚ'는 반모음 'ㅣ'와 단모음 'ㅣ'가 합쳐진 이중 모음이다. ㉡ '나서+어 → [나서]' : '나서다'의 여간 '나서-'의 'ㅣ'가 연결 어미 '-어'의 'ㅣ'와 결합하는 과정에서 단모음 'ㅣ' 하나가 탈락하는 경우이다.

12 시제 표현 파악하기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1%	4%	1%	92%	0%
--------------	----	----	----	-----	----

해설 | (가), (나), (다)의 문장에 사용된 선어말 어미 '-았-/었-'이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④이다. ④의 경우, 소풍날 날씨가 관촬 있는지를 묻는 물음에 대해 "아주 나뻤어."라고 대답하고 있다. 이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결과 상태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나 상태가 과거의 것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의 경우 '-았-/었-'을 보조 용언 구성('-아/어 있-'이나 '-고 있-')으로 교체하여도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보기>의 설명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오답풀이 | ① '보았어'의 '-았-'은 하루 종일 텔레비전 본 '어제'의 사건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의 예로 적절하다. ② '갔어'의 '-았-'은 '아까' 할머니 생신 선물을 사러 간 과거의 사건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의 예로 적절하다. ③ '잠겼어'의 '-었-'은 '아직도' 목이 잠겼다는 내용을 고려할 때,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결과 상태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의 예로 적절하다. ⑤ 문맥을 고려할 때, B의 '오늘도 잠은 다 잤어.'는 '오늘도 잠을 자기는 어렵했다.'는 의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잤어'의 '-았-'은 미래의 일을 확정적인 사실로 받아들임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의 예로 적절하다.

13 문장 성분 및 문장 구조 이해하기

정답 ⑤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3%	12%	10%	4%	69%
--------------	----	-----	-----	----	-----

해설 ㉠과 ㉡의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⑤이다. 먼저 ㉠의 '친구들은 내가 노래 부르기를 원한다.'라는 문장은 '내가 노래(를) 부르기를' 안은 문장 구조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의 '우리는 이 지역 토양이 벼농사에 적합함을 몰랐다.'라는 문장은 '이 지역 토양이 벼농사에 적합함'을 안은 문장 구조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의 안긴문장 속에는 '노래'라는 목적어가 목적격 조사 '를'이 생략된 형태로 들어 있지만, ㉡의 안긴문장 속에는 목적어가 없고 '벼농사에'라는 부사어가 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에는 부사어가 없지만, ㉡에는 부사어 '벼농사에'가 있다. ②, ③ ㉠과 ㉡ 모두 명사절이 안겨 있다. 즉 ㉠에는 '내가 노래 부르기'라는 명사절이, ㉡에는 '이 지역 토양이 벼농사에 적합함'이라는 명사절이 안겨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의 안긴문장 속에는 관형어가 없다. 그러나 ㉡의 안긴문장 속에는 '이'가 '지역'을 수식하는 관형어로 쓰이고 있으며, '이 지역'이라는 구는 '토양'을 수식하는 관형어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4 어휘의 사전적 의미 파악하기

정답 ⑤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3%	2%	1%	1%	90%
--------------	----	----	----	----	-----

해설 <보기>에서 '덜하다'는 '어떤 기준이나 정도가 약하다.'라는 의미인 형용사이므로 반의어인 '어떤 기준보다 정도가 심하다.'라는 의미인 '더하다'도 형용사여야 한다. <보기>에 제시된 '더하다'의 의미를 볼 때, '더하다[Ⅱ]'는 동사이지만 '더하다[Ⅰ]'은 형용사이다. 따라서 ⑤의 경우 ㉠에 들어갈 말은 '더하다[Ⅱ]'가 아니라 '더하다[Ⅰ]'이므로 적절한 설명으로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 <보기>에서 풀이한 '덜하다'의 의미를 고려할 때, '더하다[Ⅰ]'은 '덜하다'와 반의 관계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덜하다'가 형용사이므로 '더하다[Ⅰ]' 역시 형용사가 되어야 하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② 용례로 제시된 '둘에 셋을 더하면 다섯이다.'라는 문장으로 볼 때, ㉡에 들어갈 말은 '【...에 ...을】'이다. ③ '【...에/에게 ...을】'로 볼 때, ㉢에는 '그의 표정은 영화에 재미를 더했다.'를 넣을 수 있다. ㉣의 뒤에 제시된 예문인 '그의 표정은 우리에게 행복감을 더해 주었다.'를 통해서도 이를 파악할 수 있다. ④ ㉠에는 '더하다'가 '어떤 정도나 상태가 더 크거나 심하게 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용례가 들어가야 한다. '그들의 횡포가 점점 더한다.'에 쓰인 '더하다'가 그러한 의미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설명이다.

15 잘못된 문장의 수정의 예 이해하기

정답 ②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10%	75%	6%	4%	2%
--------------	-----	-----	----	----	----

해설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서술어의 자릿수'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서술어가 요구하는 문장 성분이 빠져 문법적으로 잘못된 문장을 올바른 문장으로 수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②는 '서술어의 자릿수'에 대한 설명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문장의 주술 호응이 잘못된 문장을 수정한 예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다시 말해, '문제는 우리가 예의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를 '문제는 우리가 예의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로 수정한 것은, 서술어가 요구하는 문장 성분이 빠져 있기 때문이 아니라 '문제는'이라는 주어와 '많다'라는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기 때문에 서술어 부분을 '많다는 사실이다'의 형태로 수정한 경우이다.

오답풀이 ① 서술어 '요청하다'는 【...에/에게】에 해당하는 부사어와 【...을/를】에 해당하는 목적어를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그들은 양식이 다 떨어지자 식량 공급을 요청했다.'에는 부사어가 없기 때문에, '정부에'라는 부사어를 보충하여 문법적으로 정확한 문장으로 수정한다. ③ 서술어 '소개하다'는 【...에/에게】에 해당하는 부사어와 【...을/를】에 해당하는 목적어를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나는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 내 친구를 소개하였다.'에는 부사어가 없기 때문에 '누나에게'라는 부사어를 보충하여 문법적으로 정확한 문장으로 수정하였다. ④ 서술어 '삼다'는 【...을/를】에 해당하는 목적어와 【...(으)로】에 해당하는 부사어를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 '우리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지금보다 강해질 것이다.'에는 【...을/를】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그 일'을 보충하였으므로 적절한 수정의 예이다. ⑤ 서술어 '어둡다'가 '어떤 분야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다.'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에】에 해당하는 부사어를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 '형은 이곳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두울 수밖에 없다.'에는 【...에】에 해당하는 부사어가 없기 때문에 '동네 지리'를 보충하여 잘못된 문장을 수정한 예로 적절하다.

[16-19] 독서~과학

지문 분석

「단백질의 합성과 분해 과정」

지문 해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단백질 합성과 분해에 대해 설명한 글로 필수아미노산과 제한아미노산의 개념에 대해 언급한 글이다. 단백질 합성은 아미노산을 연결하여 사슬을 만드는 과정으로, 여러 아미노산이 체내 단백질 합성에 이용된다. 단백질 분해는 단백질을 이루고 있는 아미노산의 결합을 끊어내는 것인데, 이를 통해 오래되거나 손상된 단백질이 축적되는 것을 막고, 우리 몸에 부족한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다.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 중 체내에서 합성할 수 없어 스스로 충족할 수 없는 것을 필수아미노산이라 하는데, 식품마다 포함된 필수아미노산의 양은 다르며, 필수아미노산이 균형을 이룰수록 필수아미노산의 이용 효율이 높다. 단백질을 합성할 때, 특정 아미노산이 부족하여 합성할 수 있는 단백질의 양이 제한될 수 있는데, 이를 제한아미노산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동물성 단백질은 필수아미노산을 균형 있게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필수 아미노산의 이용 효율이 높은 반면, 식물성 단백질은 제한아미노산을 가지며 필수아미노산의 이용 효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주제 우리 몸의 단백질 합성과 분해 과정

어휘 풀이

- 단백질 : 아미노산이 펩타이드 결합을 하여 생긴 여러 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고분자 화합물. 세포를 구성하고 생체 내 물질대사의 촉매 작용을 하여 생명 현상을 유지하는 물질로서, 사람의 3대 영양소 가운데 하나이다.
- 아미노산 : 한 분자 안에 염기성 아미노기와 산성의 카복시기를 가진 유기 화합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산·알칼리와 염을 만드는 양성 물질로, 천연으로 단백질의 가수 분해로 얻을 수 있다.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은 아미노기와 카복시기가 같은 탄소 원자에 결합한 알파 아미노산이다. 글리신·아스파라긴·글루탐산·리신 따위가 있다.
- DNA : 유전자의 본체. 데옥시리보스를 함유하는 핵산으로 바이러스의 일부 및 모든 생물의 세포 속에 있으며, 진핵생물에서는 주로 핵 속에 있다.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의 4종의 염기를 지니고 있으며, 그 배열 순서에 유전 정보가 들어 있어 그 정보에 해당하는 단백질을 만든다.
- 포도당 : 단당류의 하나. 흰 결정으로, 단맛이 있고 물에 잘 녹으며 환원성이 있다. 생물계에 널리 분포하며, 생물 조직 속에서 에너지원으로 소비된다.

16 세부 내용 파악하기

정답 ③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1%	1%	90%	2%	4%
--------------	----	----	-----	----	----

해설 2문단의 '아미노산이 분해될 때는 아미노기가 아미노산으로부터 분리되어 암모니아로 바뀐 다음, 요소(尿素)로 합성되어 체외로 배출된다.'는 내용을 통해 요소로 합성되는 것은 아미노기를 제외한 부분이 아니라 아미노기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오답풀이 ① 1문단의 '체내 단백질 분해를 통해 오래되거나 손상된 단백질이 축적되는 것을 막고'를 통해 알 수 있다. ② 2문단의 '프로테아솜은 유비퀴틴이라는 물질이 일정한 이상 결합되어 있는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한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④ 1문단의 '단백질 합성에서 아미노산들은 DNA 염기 서열에 담긴 정보에 따라 정해진 순서대로 결합된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⑤ 3문단의 '다만 성인과 달리 성장기 어린이의 경우, 체내에서 합성할 수는 있으나 그 양이 너무 적어서 음식물로 보충해야 하는 아미노산도 필수아미노산에 포함된다.'를 통해 알 수 있다.

17 세부 내용 추론하기

정답 ①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72%	2%	6%	10%	8%
--------------	-----	----	----	-----	----

해설 5문단의 "제한아미노산은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각각의 필수아미노산의 양에 비해 공급된 어떤 식품에 포함된 해당 아미노산의 양의 비율이 가장 낮은 필수아미노산을 말한다."를 통해 필수아미노산을 제외한 다른 아미노산도 제한아미노산이 될 수 있겠다고 이해한 ①은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② 3문단의 '체내 단백질 분해를 통해 생성되는 필수아미노산도 다시 단백질 합성에 이용되기도 하지만'을 통해 필수아미노산이 단백질 분해를 통해 얻어질 수 있으며, 단백질 합성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3문단의 체내 단백질 분해를 통해 생성되는 필수아미노산도 다시 단백질 합성에 이용되기도 하지만, 부족한 양이 외부로부터 공급되어야 한다는 내용과 필수아미노산은 반드시 음식물을 통해 섭취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④ 4문단

의 “일반적으로 육류, 계란 등 동물성 단백질은 필수아미노산을 균형 있게 함유하고 있어 필수아미노산의 이용 효율이 높은 반면, 쌀이나 콩류 등에 포함된 식물성 단백질은 제한아미노산을 가지며 필수아미노산의 이용 효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⑤ 2문단에서 분해된 단백질은 포도당을 생성하거나 지방산으로 합성되기도 하고, 체외로 배출되기도 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3문단에서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아미노산 중 체내에서 합성할 수 없는 것도 있음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체내 단백질 합성과 분해의 반복 과정에서 외부로부터 필수아미노산의 공급이 줄어들면 체내 단백질 총량은 감소할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18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 ③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2%	88%	3%	3%
--------------	----	----	-----	----	----

해설 | <보기>의 실험에서, 가상의 단백질 Q를 1몰 합성하는 데 필수아미노산 'A : B : C'가 '2몰 : 3몰 : 1몰' 필요하다고 가정했다. 따라서 단백질 Q를 2몰 합성하기 위해서는 A, B, C가 각각 4몰, 6몰, 2몰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의 경우, A, B, C의 공급량이 각각의 필요량과 일치하기 때문에 단백질 Q를 2몰 합성할 수 있지만, (나)와 (다)는 B의 공급량이 3몰이기 때문에 단백질 Q를 2몰 합성하는 데 필요한 B의 양인 6몰보다 부족하다. 따라서 (나)와 (다) 모두 단백질 Q를 1몰만 합성할 수 있으므로, (나)에서는 (다)에 비해 합성된 단백질의 양이 많겠다고 진술한 ③이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 ① (가)에서는 모든 필수아미노산이 단백질 합성에 사용되었으므로 단백질 합성을 제한하는 필수아미노산이 없다는 진술은 적절한 이해이다. ② (가)에서는 단백질 합성에 이용된 필수아미노산의 총량이 A, B, C 각각 4몰, 6몰, 2몰로 총 12몰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는 단백질 합성에 이용되는 필수아미노산의 총량이 A, B, C 각각 2몰, 3몰, 1몰로 총 6몰이다. 따라서 (가)에서는 (다)에 비해 단백질 합성에 이용된 필수아미노산의 총량이 많음을 알 수 있다. ④ (나)와 (다) 모두 B가 부족하여 단백질 Q를 1몰밖에 만들지 못한다. 따라서 (나)와 (다) 모두에서 B가 제한아미노산이 된다고 할 수 있다. ⑤ (나)는 단백질 합성에 이용되지 않고 남은 필수아미노산의 총량이 A가 4몰, C가 2몰로 총 6몰이지만, (다)는 A가 2몰, C가 2몰로 총 4몰이 된다. 따라서 (나)에서는 (다)에 비해 단백질 합성에 이용되지 않고 남은 필수아미노산의 총량이 많음을 알 수 있다.

19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정답 ②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1%	95%	0%	1%	0%
--------------	----	-----	----	----	----

해설 | ㉠의 '높다'는 '값이나 비율 따위가 보통보다 위에 있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의 '(~ 의존도가) 높다'이다.

오답풀이 | ①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벌어진 사이가 크다.'의 의미이다. ③ '아래에서 위까지의 길이가 길다.'의 의미이다. ④ '어떤 의견이 다른 의견보다 많고 우세하다.'의 의미이다. ⑤ '이름이나 명성 따위가 널리 알려진 상태에 있다.'의 의미이다.

[20~22] 독서~기술

지문 분석

「디지털 영상」

지문 해제 디지털 영상의 구성 요소 및 영상의 확대와 축소 방법에 대해 소개한 글이다. 모니터에 입력 영상을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나타낼 때는 일대일 대응이 되지 않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화소와 일대일 대응하는 가상 영상을 만들고, 가상 영상의 화소값을 채워 모니터에 표시한다. 확대 영상을 만드는 방법에는 '확대 복사 방법', '선형 보간법'이 있으며, 축소하는 방법에는 '선택 복사 방법', '영역 축소 방법'이 있다.

주제 디지털 영상의 확대와 축소 방법

어휘 풀이

- 격자 : 바둑판처럼 가로세로를 일정한 간격으로 직각이 되게 짠 구조나 물건. 또는 그런 형식
- 화소 : 텔레비전이나 사진 전송에서, 화면을 전기적으로 분해한 최소의 단위 면적. 영상 전체의 화소 총수는 화질을 비교하는 데 유용하다.
- 해상도 : 텔레비전 화면이나 컴퓨터의 디스플레이 따위의 표시의 선명도
- 왜곡 : 사실과 다르게 해석하거나 그릇되게 함

20 세부 내용 파악하기

정답 ③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1%	1%	85%	6%	4%
--------------	----	----	-----	----	----

해설 | 1문단에서 화소의 밝기를 화소값, 화소수를 해상도라는 언급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할 때, 화소의 밝기와 화소의 개수는 각각 다른 개념이므로 가상 영상의 화소수는 입력 영상의 화소의 밝기와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3문단에서는 가상 영상을 채우는 화소의 수가 많아지는 경우는 입력 영상을 확대할 때임을 밝히고 있는데, 입력 영상 화소들의 밝기 정도와 가상 영상 화소의 수 사이에는 아무 관련이 없으므로 ③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 ① 1문단의 "디지털 영상은 2차원 평면에 격자 모양으로 화소를 배열하고 각 화소의 밝기인 화소값을 데이터로 저장한 것이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② 1문단의 "해상도란 디지털 영상을 구성하는 화소수를 말하며 '가로×세로'의 화소수로 나타낸다."를 통해 알 수 있다. ④ 1문단의 "화소값은 0에서 225 사이의 값으로 나타내는데 0일 때 검은색으로 가장 어둡고 225일 때 흰색으로 가장 밝다."는 언급과 화소들 사이의 밝기 차이를 명암 대비라고 한다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⑤ 2문단의 "모니터에 입력 영상을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나타낼 때는 일대일 대응이 되지 않는다. 화소와 일대일 대응하는 '가상 영상'을 만들고 입력 영상의 화소값을 이용하여 가상 영상의 화소값을 모두 채운 다음 가상 영상을 모니터에 표시한다."는 언급을 통해 알 수 있다.

21 핵심 개념 적용하기

정답 ②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3%	80%	5%	6%	3%
--------------	----	-----	----	----	----

해설 | ㉠의 '확대 복사 방법'은 입력 영상의 화소 A의 값을 $A_0 \sim A_3$ 의 4개 화소에 그대로 복사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A값과 C값이 차이가 있더라도 A_0 값과 A_3 값은 모두 화소 A의 값을 가지므로 두 화소값의 차이는 없다는 점에서 ②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 ① ㉠은 입력 영상의 화소 A의 값을 $A_0 \sim A_3$ 의 4개 화소에 그대로 복사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A_0 \sim A_3$ 은 모두 화소 A의 값을 가지고, $B_0 \sim B_3$ 은 모두 화소 B의 값을 가진다. 따라서 A값과 B값이 같다면 A_0 과 B_0 값은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③, ④ ㉡를 적용한다면 $A \sim D$ 는 각각 A_0, B_0, C_0, D_0 위치에만 복사하고, 나머지 화소들은 인접한 화소들을 이용하여 화소값을 채운다. <그림>의 설명과 관련하여 A_2 는 A_0 과 C_0 의 평균값으로 채운다고 언급했으므로, A값과 C값의 차이가 없을 때 A_0 값과 A_2 값은 차이가 없다. A₁과 A_0 과 B_0 의 평균값으로 채운다고 언급했으므로, A값과 B값의 차이가 2보다 클 때 A_0 값과 A_1 값은 차이가 나게 된다. ⑤ ㉢을 적용할 때, A₃의 화소값은 인접한 A~D의 평균값으로 구할 수 있는데, A~D 네 값이 모두 같다면 A₃값은 인접한 화소의 화소값과 차이가 없게 된다.

22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정답 ③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3%	87%	3%	3%
--------------	----	----	-----	----	----

해설 | 5문단에서 '영역 축소 방법'은 연산량이 많아져 처리 시간이 늘어나고, 화소값을 평균값으로 채우기 때문에 명암 대비가 강한 영상의 경우 명암 대비가 약해지는 단점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에서 '영역 축소 방법'을 이용하면 검은색의 정상각형과 흰색의 바탕이 맞닿는 명암 대비가 강한 부분은 명암 대비가 약해지게 된다는 점에서 ③은 적절한 설명으로 볼 수 없다.

오답풀이 | ① 3문단에서 '확대 복사 방법'을 이용하면 윤곽선 부분의 격자 모양이 두드러져 보이는 '모자이크 효과'가 발생한다고 했다. ② 4문단에서 '선형 보간법'은 화소값을 구하기 위해 평균값을 계산해야 하므로 처리 시간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다고 했다. ④ 5문단에서 '선택 복사 방법'은 입력 영상의 화소 중 표시되지 않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영상이 왜곡되어 보인다고 언급하였다. ⑤ ㉡에서는 200×200개의 화소, 즉 40,000개, ㉢에서는 50×50개의 화소, 즉 2,500개의 화소를 가진 가상 영상이 만들어진다.

[23-26] 독서~사회

지문 분석

「공공 서비스의 민간 위탁」

지문 해제 공공 서비스의 개념과 특성을 언급한 후, 공공 서비스의 다양화 추세에 따른 민간 위탁 방식에 대해 설명한 글이다. 공공 서비스는 사회적 요구의 증가로 인해 다양화와 양적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부는 공공 서비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민간 위탁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민간 위탁은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 서비스의 대상이나 범위에 대한 결정권과 서비스 관리의 책임은 정부가 갖되, 서비스 생산은 민간 업체에 맡기는 것으로 그 방식에는 '경쟁 입찰 방식', '면허 발급 방식', '보조금 지급 방식' 등이 있다. 민간 위탁은 수익성을 중심으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수익성을 저해할 요소가 있으므로 정부는 민간 위탁 제도를 도입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주제 공공 서비스의 개념과 민간 위탁 제도 도입

어휘 풀이

- 배제 :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물리쳐 제외함
- 경합 : 서로 맞서 겨룸
- 위탁 : 법률 행위나 사무의 처리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 부탁하는 일
- 입찰 : 상품의 매매나 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여러 희망자들에게 각자의 낙찰 희망 가격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는 일
- 탄력적 : 상황에 따라 알맞게 대처하는, 또는 그런 것

23 세부 정보의 이해와 확인하기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3%	2%	3%	88%	1%
--------------	----	----	----	-----	----

해설 4문단에 '공공 서비스의 수익'과 관련하여, 공공 서비스의 생산을 맡은 민간 위탁 업체가 수익을 내지 못할 경우 공공 서비스의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는 언급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 서비스의 수익 산정 방식'은 이 글에 언급된 내용이 아니므로 정답은 ④이다.

오답풀이 ① 1문단에서 '공공 서비스의 제공 목적'은 공공의 이익이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1문단의 "정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책을 기획, 수행하여 유형 또는 무형의 생산물인 공공 서비스를 공급한다."를 통해 '공공 서비스 공급의 주체'를 확인할 수 있다. ③ 2문단에서 복지와 같은 개인 단위 공공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공공 서비스의 다양화와 양적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 서비스 범위의 확대 배경'이 사회적 요구의 증가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 ⑤ 3문단에서 '공공 서비스의 민간 위탁 방식'으로 '경쟁 입찰 방식', '면허 발급 방식', '보조금 지급 방식' 등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24 서술 방식 파악하기

정답 ②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1%	93%	1%	2%	0%
--------------	----	-----	----	----	----

해설 [A]에서는 공공 서비스의 특성으로 배제성과 경합성이 있음을 언급한 후, 배제성과 경합성이 모두 없는 경우로 국방이나 치안이 있으며, 배제성은 없지만 경합성이 나타나는 경우로 공공 도서관이 있음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그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A]의 서술 방식으로는 '대상의 특성을 사례와 더불어 설명하고 있다.'는 ②가 가장 적절함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공공 서비스의 특성'이 변화되는 과정은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공공 서비스의 가치와 효용'에 대한 비유적 설명 방식은 사용되지 않았다. ④ '공공 서비스'의 문제점은 언급되지 않았으며, 그 문제점의 다양한 원인 또한 분석되지 않았다. ⑤ '공공 서비스'에 대한 인식 변화는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25 특정 정보의 구체적 이유 추론하기

정답 ②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6%	84%	2%	3%	3%
--------------	----	-----	----	----	----

해설 4문단에서 민간 위탁 업체는 수익성을 중심으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민간 위탁 업체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언급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민간 위탁 제도에 의한 공공 서비스 제공의 성과는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평가와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오히려 민간 위탁 제도가 공익을 저해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는 공공 서비스의 수익성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 요인에 해당하므로 ①의 이유로는 ②가 가장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2문단에서 공공 서비스가 사회 기반 시설 공급을 중심으로 제공된 것은 민간 위탁 제도가 활성화되기 이전이라는 언급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 기반 시설의 공급을 민간 업체에 주로 맡긴다는 추론은 적절하지 않다. ③ 3문단에서 '면허 발급 방식'이 주된 민간 위탁 방식인지의 여부는 언급되지 않았으며, '면허 발급 방식'으로 인해 정부의 관리 비용과 공공 서비스의 생산 비용이 증가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적절한 추론이 아니다. ④ 민간 위탁 방식 세 가지 중 보조금을 지급하는 위탁 방식은 '보조금 지급 방식'이다. 그러나 모든 민간 위탁 방식에 정부의 보조금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3문단에서 공공 서비스의 민간 위탁 방식으로 세 가지를 언급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민간 위탁 방식이 단일화되어 있다는 언급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적절한 추론으로 볼 수 없다.

26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정답 ③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5%	3%	76%	11%	2%
--------------	----	----	-----	-----	----

해설 ③의 '경감되다'는 '부담이나 고통 따위가 줄어서 가볍게 되다.'라는 의미로, '부담'이나 '고통' 등 부정적인 의미에 해당하는 말과 의미상 호응 관계를 이루고 있는 어휘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③의 문장에서 '경감될'의 주어에 해당하는 것은 '손익', 즉 '손해와 이익'이다. 이때 '이익'은 '부담', '고통'과 같이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는 어휘가 아니므로 문맥상 '경감되다'와 의미상 호응을 이루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열람 : '책이나 문서 따위를 죽 훑어보거나 조사하면서 봄'의 의미이므로 적절하다. ② 총당 : '모자라는 것을 채워 메움'의 의미이므로 적절하다. ④ 개선 : '잘못된 것이나 부족한 것, 나쁜 것 따위를 고쳐 더 좋게 만들'의 의미이므로 적절하다. ⑤ 저해하다 : '막아서 못하도록 해치다'의 의미이므로 적절하다.

[27-30] 독서~예술

지문 분석

「칸트의 취미 판단 이론」

지문 해제 대상의 미·추를 판정하는 미감적 판단력의 행위인 칸트의 취미 판단 이론에 대해 설명한 글이다. 취미 판단이란 미와 추를 판정하는 미감적 판단력의 행위로 '규정적 판단'과 다르며 주관적 보편성을 지닌다. 취미 판단은 규정적 판단과 달리 'S는 P이다.'라는 명제의 술어 P가 오로지 판단 주체의 쾌 또는 불쾌라는 주관적 감정에 의거하고, 오로지 하나의 개별 대상에 대해서만 이루어진다. 칸트는 취미 판단 이론의 분석을 통해 미적 감수성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 인간의 총체적 자기 이해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주제 미적 감수성과 관련된 칸트의 취미 판단 이론

어휘 풀이

- 위상 : 어떤 사물이 다른 사물과의 관계 속에서 가지는 위치나 상태
- 명제 : 어떤 문제에 대한 하나의 논리적 판단 내용과 주장을 언어 또는 기호로 표시한 것. 참과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 환원 : 본디의 상태로 다시 돌아감, 또는 그렇게 되게 함
- 보편적 : 두루 널리 미치는, 또는 그런 것
- 의거 : 어떤 사실이나 원리 따위에 근거함
- 관조 :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거나 비추어 봄
- 단초 : 일이나 사건을 풀어 나갈 수 있는 첫머리

27 세부 정보 파악하기

정답 ⑤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3%	5%	6%	5%	79%
--------------	----	----	----	----	-----

해설 미적 감수성과 관련된 칸트의 취미 판단 이론을 설명한 후, 4문단에서 취미 판단의 속성을 분석함으로써 칸트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인간의 총체적인 자기 이해라고 언급하였다. 칸트에 따르면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충실한 답변, 즉 자기 이해를 위해서는 미적 감수성에 대해서도 그 고유한 원리를 설명해야 한다. 따라서 칸트는 미적 감수성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 인간의 총체적 자기 이해에 기여한다고 보았다는 ⑤가 가장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2문단에서 취미 판단이란 대상의 미·추를 판정하는 미감적 판단력의 행위라고 언급한 후, 규정적 판단과 취미 판단의 차이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② 4문단에서 객관적 타당성은 이성의 미덕인 동시에 한계가 되기도 한다고 언급하면서, 그 이유로 '세계'는 개념으로는 낱날이 밝힐 수 없는 무한한

것이기 때문임을 밝히고 있다. 이는 이성에 의한 지식이 개념의 한계로 인해 객관적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 아니라 '세계'가 개념으로 자세히 밝힐 수 없는 무한한 것이기 때문에 한계에 봉착한다고 볼 수 있다. ③ 3문단에서 취미 판단은 규정적 판단의 객관적 보편성과 구별되는 주관적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4문단에서 미적 감수성은 대상을 개념적으로 규정할 수 없지만 역으로 개념으로부터의 자유를 통해 세계라는 무한의 영역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주관적 보편성과 관련이 있는 미적 감수성은 세계에 대한 객관적 지식을 창출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1문단의 "근대 초기의 합리론에 맞서 칸트는 미적 감수성을 '미감적 판단력'이라 부르면서, 이 또한 어떤 원리에 의거하며 결코 이성에 못지않은 위상과 가치를 지닌다는 주장을 펼친다."를 통해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8 핵심 정보 파악하기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11%	5%	74%	5%
--------------	----	-----	----	-----	----

해설 | [A]에서 '취미 판단'에는 대상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실용적 유익성, 교훈적 내용 등 일체의 다른 맥락이 끼여들지 않아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④의 '이 영화의 주제는 권선징악이어서 아름답다.'는 '이 영화의 주제는 권선징악이다.'라는 대상에 대한 지식이 개입된 명제이므로 취미 판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풀이 | ① '이 장미는 아름답다.'는 하나의 개별 대상인 장미에 대해 미·추를 판단하고 있으므로 취미 판단에 해당한다. ② '유용하다'는 실용적 유익성이 개입된 술어이므로 취미 판단 명제의 술어가 될 수 없다. ③ [A]에서 복수의 대상을 한 부류로 묶어 말하는 것은 이미 개념적 일반화가 되기 때문에 취미 판단이 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모든 예술'은 하나의 개별 대상이 아니므로 취미 판단 명제의 주어가 될 수 없다. ⑤ [A]에서 취미 판단에는 대상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실용적 유익성, 교훈적 내용 등 일체의 다른 맥락이 끼여들지 않아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이 소설은 액자식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액자식 구조'가 판단 주체의 쾌 또는 불쾌라는 주관적 감정이 아니라 대상에 대한 지식과 관련된 내용이므로 취미 판단에 해당하지 않는다.

29 세부 내용 추론하기 정답 ①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73%	6%	8%	4%	7%
--------------	-----	----	----	----	----

해설 | 2문단에서 '규정적 판단'이란 이성인 개념을 통해 지식이나 도덕 준칙을 구성한다고 언급하고 있으며, 4문단에서 미적 감수성은 대상을 개념적으로 규정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1문단에서 미적 감수성을 미감적 판단력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2문단에서 '취미 판단'이란 대상의 미·추를 판정하는 미감적 판단력의 행위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 개념적 규정은 취미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규정적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점에서 ①과 같은 추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 ② 3문단에서 취미 판단의 주제들은 미감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때 공동감은 취미 판단의 미적 규범 역할을 한다는 언급을 통해 적절한 추론임을 알 수 있다. ③ 3문단에서 공동감으로 인해 취미 판단은 주관적 보편성을 지니는 것으로 설명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예술 작품에 대한 사람들의 취미 판단이 일치하는 것은 우연으로 볼 수 없음을 추론할 수 있다. ④ 3문단의 "어떤 주체가 내리는 취미 판단은 그가 속한 공동체의 공동감을 예시한다."는 언급을 통해 예술 작품에 대한 나의 취미 판단은 내가 속한 미감적 공동체의 미적 감수성을 보여 준다는 추론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⑤ 2문단에서 취미 판단은 오로지 대상의 형식적 국면을 관조하여 그것이 일으키는 감정에 따라 미·추를 판정하는 것 이외에 어떤 다른 목적도 배제하는 순수한 태도임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순수한 미감적 태도를 취하지 못하면 취미 판단이 가능하지 않다고 추론할 수 있다.

30 어휘 선택의 적절성 판단하기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1%	19%	1%	74%	2%
--------------	----	-----	----	-----	----

해설 | ㉔의 '지니다'는 '타당으로 갖추고 있다.'의 의미로 쓰인 말이다. 그런데 ㉔의 '소지하다'는 '가지고 있다.'라는 뜻을 지닌 말로 물리적인 대상에만 적용되는 어휘이다. 따라서 '소지하다'는 '주관적 보편성'이라는 추상적인 대상에 사용된 ㉔의 '지니다'와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 ① 간주하다 : 상태, 모양, 성질 따위가 그와 같다고 보거나 그렇다고 여기다. ② 피력하다 : 생각하는 것을 털어놓고 말하다. ③ 개입하다 :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일에 끼여들다. ⑤ 확산되다 : 흩어져 널리 퍼지게 되다.

[31-34] 문학~갈래 복합

지문 분석

(가) 정철 「관동별곡」

작품 감상 이 작품은 조선 선조 때 송강 정철이 그의 나이 45세 되는 정월에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3월에 관동 팔경을 두루 유람하고서 그 도정과 산수, 풍경과 고사, 풍속 등을 읊은 가사이다. 「관동별곡」은 조선 시대 가사 문학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으며, 속중 때 김만중은 우리나라 참된 문장은 송강의 「관동별곡」, 「사미인곡」, 「속미인곡」 세 편이라고 칭송하기도 하였다. 제시된 부분에서는 진할대에서 바라본 금강산 봉우리의 다양한 모습, 죽서루에서 느끼는 연군의 정, 망양정에서 바라보는 파도 등을 노래하였다.

주제 관동 지방의 절경과 풍류

시구 풀이

- 상상두(上上頭) : 꼭대기
- 천 년 노룡(老龍)이~삼일우(三日雨)를 디런다 : '천 년 노룡'은 굽이쳐 감도는 화룡소의 물을 형용한 것으로, 작자 자신을 비유한 말이다.
- 음에(陰崖)에 이온 풀 : 고통받는 백성
- 도경(圖經) : 산수의 지세를 그리고 설명한 책
- 이적선(李適仙) : '이백'을 가리킴. '적선'은 '하늘에서 귀양 온 신선'이라는 뜻
- 여기도곤 : 여기보다

(나) 최익현 「유한라산기」

작품 감상 이 작품은 조선 말기 최익현이 제주도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풀려나던 해 봄에 한라산을 유람하고 그 탐승의 견문과 산행의 권유를 기록한 기행문이다. 한라산을 등반하게 된 이유, 등반 과정, 백록담과 한라산의 풍경, 정상에서의 감회, 제주도의 지리적 특징, 글을 쓰게 된 동기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는데, 사실적인 묘사와 주관적인 감정의 표출이 절묘하게 이루어진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주제 한라산의 수려한 풍경과 진면목

어휘 풀이

- 괴이하다 : 정상적이지 않고 별나며 괴상하다.
- 진면목 : 본디부터 지니고 있는 그대로의 상태
- 삼태기 : 흙이나 쓰레기, 거름 따위를 담아 나르는 데 쓰는 기구
- 천부 : 하늘이 줌. 또는 태어날 때부터 지님
- 천태만상 : 천 가지 모습과 만 가지 형상이라는 뜻으로, 세상 사물이 한결같지 아니하고 각각 모습·모양이 다름을 이르는 말

31 구절의 의미 파악하기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1%	2%	4%	89%	2%
--------------	----	----	----	-----	----

해설 | ㉔의 '마하연', '묘길상', '안문재'는 모두 지명으로, 화자가 거쳐 온 여정에 해당한다. ㉔은 '마하연의 암자와 석벽에 새긴 미륵상인 묘길상을 보고 안문재를 넘어가'라는 의미인데, 화자는 자신이 거쳐 온 곳을 간단히 나열한 후 서술어 '너머 디여'로 최소화하여 간결하고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오답풀이 | ① ㉔은 '노국이 좁은 것도 우리는 모르는데'라는 의미로, 화자가 공자의 높은 덕과 경지를 떠올리며 예찬하는 구절이다. 이는 공자의 '호연지기(浩然之氣)'와 관련되기도 하는데, 공자가 동산에 올라 보고 노나라를 작게 여기고 태산에 올라 천하를 작게 여겼다는 내용으로 화자는 공자의 활달한 정신적 경지를 흠모하며 그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다. ② ㉔은 '아, 공자의 저 높은 정신적 경지를 어찌하면 알 수 있을까?'라는 의미로, 화자는 공자의 정신적 경지를 예찬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 ③ ㉔은 '저 용은 바람과 구름을 언제 얻어 흡족한 비를 내리려느냐?'라는 의미로, 백성에 대해 올바른 정치를 하겠다는 화자의 애민 정신이 나타난 부분이다. ⑤ ㉔은 '남여를 타고 천천히 걸어서 산영루에 오르니'라는 의미로, '남여'는 '가마'를 '완보'는 '느린 걸음'을 말한다. 따라서 가마를 타고 천천히 산영루에 오르는 화자의 여유로운 모습을 묘사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32 작품 내용 파악하기 정답 ⑤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1%	1%	2%	4%	90%
--------------	----	----	----	----	-----

해설 | (나)에서 시구를 낭송한 것은 글씨가 최고봉을 보고 느낀 감회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백록담 가로 내려오는 내용과 하인들이 식사를 준비해 놓았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있지만, 등정 과정에서 일행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지 여부는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⑤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1문단의 ‘검은 안개가 몰려오더니’와 ‘섬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통해 등정을 계속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② 2문단의 ‘주위가 1리 남짓하고 수면이 담담한데 반은 물이고 반은 얼음이었다.’에서 객관적인 사실을 알려 주고, ‘은연히 신선이 사는 듯하였다.’와 ‘참으로 천부의 성곽이었다.’에서 글쓴이 자신의 소감을 추가하고 있다. ③ 3문단의 ‘그러나 따라오는 자는 겨우 세 명뿐이었다.’를 통해 일행 중 낙오한 이들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④ 마지막 문단의 ‘주자의 시구를 읊으며 백록담 가로 되돌아오니’에서 알 수 있듯이 등정 과정에 비해 백록담으로 내려오는 과정은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다.

33 표현상 특징 파악하기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4%	31%	3%	54%	6%
--------------	----	-----	----	-----	----

[해설] [B]에서는 ‘굽어보고’, ‘돌아보고’, ‘가리키고’, ‘끌어당기고’ 등으로 최고봉을 의인화하여 표현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보기>에서는 ‘노흔 고래’, ‘은산을 거거 내어 육합의 느리는 듯’, ‘오월 장천의 백설’ 등을 통하여 ‘망양정’에서 바라본 동해의 파도와 물결을 생동감 있게 비유적으로 표현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④이다.

[오답풀이] ① [A]와 <보기>에서는 시간의 흐름이 드러나지 않는다. ② [A]에서는 강을 은하수에 빗대고 있으므로 자연물을 천문 현상에 비유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보기>는 파도의 모습을 ‘고래’, ‘은산’, ‘백설’ 등에 비유하고 있으므로 천문 현상을 자연물에 비유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B]와 <보기> 모두 자연물의 모습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인간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자연의 냉혹함과는 관련이 없다. ⑤ <보기>에서 자연을 통해 자신을 반성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34 작품 감상의 적절성 판단하기 정답 ②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7%	77%	2%	5%	6%
--------------	----	-----	----	----	----

[해설] (가)의 ‘이적선이 이제 이서 교터 의논하게 되면 / 여산이 여기도곤 낫단 말 못허려니’에서 화자가 이적선의 글을 통해 여산을 와유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실제로 화자가 바라본 것은 불정대의 십이폭포라는 점에서 상상하던 ‘여산’의 모습과 실제로 바라본 ‘여산’의 모습을 비교했다는 ②의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가)의 화자가 화룡소를 직접 보고 감상한 것은 원유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작품을 보고 다른 이들이 화룡소에 대해 감상한다면 이는 와유에 해당하므로 적절하다. ③ (나)의 글쓴이는 실제로 ‘백록담’을 보며 감상하고 있으므로 원유를 통해 ‘백록담’에서 실감한 주변의 형세를 묘사하고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다. ④ (나)의 글쓴이는 직접 백록담에 올라가 ‘성현인 맹자의 호연기’를 상상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감상이다. ⑤ (나)의 글쓴이가 소동파의 시를 통해 감상했던 적벽은 와유에 해당하고, 글쓴이 자신이 직접 올라가 한라산의 모습을 묘사한 것은 원유에 해당하므로 적절하다.

[35-37] 문학~고전 소설

지문 분석

작자 미상 「숙향전」

작품 감상 영웅의 일생 구조에 따라 여성의 수난을 그리면서도 애정 성취의 욕구와 같은 남녀 사이의 사랑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숙향의 삶을 위주로 사건이 전개되고 애정의 문제와 여성 수난의 상황이 마련되어 있어 여성 독자층의 기호에 부합하는데, 일부에서는 숙향의 삶을 당대 사회가 만들어 낸 대다수 하층민들의 고난에 찬 삶에 대응되는 것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또한, 여성 수난의 상황을 연속적으로 표현하고 그 해결책은 관념적이거나 초월적인 도교 사상에서 구하고 있으므로 고전 소설의 한계성을 엿볼 수 있다. 작중 상황에서 유교적, 현실적 논리를 뛰어넘어 숙향과 이선이 혼인한 것은 천상에서 정해 준 논리를 따른 결과이고, 이들의 혼사 장애 역할을 한 이선의 부친은 현실적 논리로 두 사람의 가연(佳緣)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이 작품의 가치는 인위적, 현실적 장애 요인을 극복하고 자유로운 남녀 애정을 성취시켜 준 데서 찾을 수 있다.

주제 온갖 어려움을 극복한 사랑의 성취 / 인간의 천성적 애정 실현

어휘 풀이

- 객회(客懷) : 객지에서 느끼게 되는 울적하고 쓸쓸한 느낌
- 득죄(得罪) : 남에게 큰 잘못을 저질러 죄를 얻음
- 유리(流離) : 일정한 집과 직업이 없이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님
- 연치(年齒) : 사람이나 동·식물 따위가 세상에 나서 살아온 햇수
- 비참(悲愴) : 마음이 몹시 상하고 슬픔

35 등장인물의 성격 파악하기

정답 ③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3%	4%	80%	8%	2%
--------------	----	----	-----	----	----

[해설] “선이 비록 상서의 아들이나 내가 양자로 들었으며 ~ 황후가 아뢰어 황제께서 아시게 하리라.”에서 알 수 있듯이 ‘숙부인’은 ‘이 상서’가 자신을 업신여겨 숙향을 처형하려 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이 상서’에게 먼저 이야기하여 만약 듣지 않을 경우에는 황후에게 아뢰어 황제가 알도록 한다고 했다. 또한 ‘숙향’과 ‘이선’의 혼사는 이미 치러진 상태라는 점에서 ‘숙부인’이 숙향과 이선의 혼사가 이루어지도록 이 상서로 하여금 황후에게 아뢰게 하고 있다.’는 ③은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이 땅은 명사계(冥司界)요, 저는 후토 부인입니다. ~ 보셨나이까?”와 “저는 한낱 조그마한 신령이요, ~ 일시에 고생을 겪었으니”를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후토 부인’은 ‘숙향’에게 경액을 마시게 하여 전생에서의 ‘숙향’의 정체를 깨닫게 해 주고 있다. ② ‘이선’은 집에 들어가 울며 ‘숙향’이 죽었으면 자신도 함께 죽으리라 했다. ④, ⑤ ‘김집이 부인의 말을 옮겨 ~ 이 상서에게 회보하나라’를 통해 알 수 있다.

36 구체적 장면 및 표현 양상 이해하기

정답 ⑤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6%	4%	7%	2%	79%
--------------	----	----	----	----	-----

[해설] ⑥의 ‘연약한 몸이 큰칼 쓰고 여러 사람에게 붙들려 가니’는 인물의 외양 묘사라 볼 수 있지만, ‘반은 죽은 사람이라’는 ‘숙향’의 심리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서술자의 생각을 반영한 표현이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오답풀이] ① ⑥의 ‘산은 첩첩하고 물은 중중한데’에서 공간적 배경이, ‘잠자려는 새들’에서 시간적 배경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오갈 데 없는 ‘숙향’의 힘든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② ㉠에서 ‘숙향’이 파랑새를 따라 궁궐의 ‘큰 문’으로 들어가 이후 ‘후토 부인’이 있는 명사계가 펼쳐지는데, 여기서 ‘큰 문’은 현실과 초현실의 경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③ ㉡에서는 경액을 먹고 난 후의 ‘숙향’의 생각을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④ ㉢은 ‘원통’의 발언인데, ‘숙부인’에게 고하는 발화를 통하여 이전 사건의 차초지증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37 감상의 적절성 평가하기

정답 ②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87%	5%	2%	2%
--------------	----	-----	----	----	----

[해설] [B]에서 ‘후토 부인’은 자신을 ‘한낱 조그마한 신령’으로, ‘숙향’을 ‘월궁의 으뜸 선녀’로 칭한 후, 비록 ‘숙향’이 천상에서 지은 죄로 인간 세상에 내려와 일시적인 고생을 겪고 있을지라도 본래의 신분에는 변함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②의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A]의 ‘첩은 득죄하여 인간 세상에 내려와 고초가 심하거늘’에서 알 수 있다. ③ [B]에서 ‘숙향’은 월궁의 으뜸 선녀라는 높은 신분이었지만, 죄를 지어 인간 세상에서 고초를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C]의 ‘인간 세상에 귀양 왔사오니’에서 천상계에서는 지상계, 즉 인간 세상이 귀양지임을 알 수 있다. ⑤ [C]의 ‘기한이 차면 봉래로 돌아갈 것이요’를 통해 알 수 있다.

[38-42] 문학~현대 소설

지문 분석

현진건 「무명탑」

작품 감상 불국사 석가탑의 건립과 관련하여 전해 내려오는 백제의 석공 아사달과 그의 아내 아사녀의 애달픈 사랑을 바탕으로 고뇌를 극복하고 승고한 예술혼으로 탑을 완성해 가는 과정을 담은 작품이다. 지문으로 제시된 장면은 자신의 딸과 혼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금지의 뜻을 거절하고자 하는 유종의 내면 의식과 아내인 아사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통해 담겨 새겨 내는 작업을 하는 아사달의 내면 의식을 담고 있다.

주제 고뇌와 번민을 극복하고 이루어 낸 예술적 성취

어휘 풀이

- 난신적자 : 나라를 어지럽히는 불충한 무리
- 발설 : 입 밖으로 말을 냄
- 환영 : 눈앞에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 샅샅 : 날이 샅 무렵
- 원불(願佛) : 자기가 일생 동안 섬기는 부처

38 작품의 특징 이해하기

정답 ①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87%	2%	2%	4%	3%
--------------	-----	----	----	----	----

해설 이 글의 전반부에는 '유중'의 내면 의식이 주로 드러나는데, 딸인 '주만'의 혼사 문제를 두고 괴로워하는 것과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이가 없는 것에 대한 내적 갈등 위주로 서술되어 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아사달'과 '주만'의 환영으로 인해 탑을 쉽사리 완성하지 못하는 '아사달'의 내적 갈등이 서술되어 있다. 따라서 이 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임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② 인물들 간의 대화 장면은 나타나지 않으며, 특정 인물의 생각과 행동을 희화화하고 있지 않다. ③ 지문에서 인물의 발언은 '유중'의 "한 나이나 젊었더면"과 '아사달'의 "이 돌에 나를 새겨 주세요. 네, 아사달님. 네, 마지막 청을 들어주세요."인데 이를 통해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신분 낮은 인물의 발언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이 글의 전반부에서 '유중'은 당학파가 득세하는 세대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몰신주의에 빠진 세대를 비판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유중'이 자신의 주의 주장에 공명하는 사윗감을 찾으려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중'을 탈속적 세계를 지향하는 인물로 보기도 어렵다. ⑤ 이 글의 전반부에서 '유중'은 당학파가 득세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주의 주장에 공명하는 사윗감을 찾으려 하고, 후반부에서 '아사달'은 번뇌를 극복하며 탑을 완성해 가고 있다. 따라서 권력과 사랑을 동시에 쟁취하여 신분 상승을 도모하는 개인의 욕망이 구체적인 일화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9 구절의 의미 파악하기

정답 ⑤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3%	1%	7%	3%	83%
--------------	----	----	----	----	-----

해설 ㉔의 '다른 데 정혼'은 '유중'이 자신과 대립하는 세력인 '금지'로 하여금 다시는 혼인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는 '유중'이 자기의 주의 주장에 공명하는 사윗감을 구하기 위한 의도이므로 ㉔을 자신과 대립하는 세력과의 연대를 위한 방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⑤이다.

오답풀이 ① ㉔은 '당학'을 의미한다. '유중'은 '그네들의 학문', 즉 '당학'이 난신 적자를 만들어 내기에 알맞은 것이라고 깎아내리고 있다. 이를 통해 그가 '당학'에 대해 신라를 문약하게 하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㉔의 '무 밀동'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홀지고 외로운 처지를 비유하는 말이다. '유중'은 자기와 뜻을 같이하는 이가 조정에서 사라지고 혼자만 외로이 남은 처지에 놓인 자신을 '무 밀동'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③ ㉔의 '이 늙은 향도(香徒)'는 화랑도를 숭상해 온 '유중'을 가리키는 말로, 현재의 주류적 기풍인 당학을 거부하는 '유중'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④ ㉔의 '그럴 만한 인물'은 '유중' 자신의 사윗감이자 자신과 뜻을 같이할 수 있는 인물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신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원하는 대상임을 알 수 있다.

40 작품 분석의 적절성 평가하기

정답 ⑤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3%	2%	4%	5%	83%
--------------	----	----	----	----	-----

해설 [A]는 마치 어젯밤의 '아사달'의 환영처럼 '주만'의 모습이 '아사달'에게 선명하게 나타난 부분이며, [B]는 '아사달'에게 비친 '아사달'의 모습이 환영으로 나타난 부분이다. 따라서 [A]의 '주만'의 모습과 [B]의 '아사달'의 모습은 모두 '아사달'이 그들의 환영을 보는 방식으로 제시되어 있다고 진술한 ⑤가 가장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A]에는 '주만'이 '아사달'에게 자신을 돌에 새겨 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② [B]에는 '아사달'과 '아사달'의 이별 상황만 드러나고 있을 뿐, 이별의 원인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 [B]에는 이별을 슬퍼하는 '아사달'의 모습만 드러날 뿐, 훗날의 만남에 대한 기약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A]와 [B]에는 '아사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주만'과 '아사달'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그들을 잊고자 하는 '아사달'의 의지라고 할 만한 요소는 드러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41 작품 감상의 적절성 판단하기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2%	5%	86%	2%
--------------	----	----	----	-----	----

해설 '아사달'과 '주만'의 환영이 하나로 어우러져 '부처님의 모양'으로 변하는 장면은 '아사달'이 고뇌와 번민을 극복하며 종교적 세계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는 장면이다. 이와 관련하여 <보기>에서는 이 작품에 대해 사랑과 예술혼이 하나로 융합되어 신앙의 궁극이라는 새로운 경지에 이르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신앙의 세계로 나아갈 수 없어 절망하는 인물의 내면이 나타난다고 감상한 ④는 적절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유중'이 당학을 숭상하는 '금지'를 비판하고 신라에 근본을 둔 화랑도 사윗감을 구하는 것은 민족주의적 태도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아사달'이 사랑하는 '아사달'의 환영을 돌에 담아내려는 장면은 사랑과 예술혼의 융합으로 볼 수 있다. ③ '유중'은 '금지'와 같은 당학파를 '나라를 쪼먹게 하는 집단'으로 여기고 있다. 이를 통해 이들을 비판하는 것은 외세를 추종하는 현실을 비판하려는 작가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⑤ '아사달'이 '아사달'과 '주만'의 환영을 떠올리며 갈등하는 장면에서 새로운 예술적 경지에 이르기 위한 고뇌가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2 자료를 바탕으로 한 작품 이해하기

정답 ⑤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4%	9%	7%	30%	47%
--------------	----	----	----	-----	-----

해설 '새로운 돌부처'는 하나로 녹아들어 버린 '아사달'과 '주만'의 두 얼굴이 거룩한 부처님의 모양으로 변하고, 이에 '아사달'이 눈을 번쩍 뜨고 돌에 원불(圓佛)을 새긴 것이다. 이는 '새로운 돌부처' 형상에 석공의 얼굴이 아니라 여인의 얼굴이 새겨졌다고 이해할 수 있다. <보기>의 [자료 1]과 [자료 2]에도 돌부처 형상에 석공의 얼굴이 새겨지는 양상은 드러나지 않으므로 ⑤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설화인 [자료 1]과 이 작품의 내용에 비슷한 요소가 있으면서도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설화를 차용하여 소설로 변용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자료 2]에서 '그'는 제 환상에 떠오른 사랑하는 아내의 모양이 거룩한 부처님의 모양으로 변하는 경험을 하고 조각을 완성하게 된다. 이 작품에서도 '아사달'이 '아사달'의 죽음을 계기로 그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돌에 담아 새겨 낸다는 점에서 [자료 2]처럼 '아내'의 죽음을 종교적 상징으로 승화하고 있는 관점을 이어간 작품이라 할 수 있다. ③ 이 작품과 달리 [자료 1]과 [자료 2]에는 '유중'과 '주만'이 등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작품은 [자료 1]과 [자료 2]의 이야기에 '유중'과 '주만' 등의 서사를 추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자료 1]의 '연못'은 '아사달'이 석공의 모습을 보기 위해 찾았던 곳이며, [자료 2]의 '못'은 그(석공)가 아내의 뒤를 따라 빠져 죽은 곳이고, 이 작품의 '못'은 '아사달'이 죽은 곳이다. 따라서 이 글과 [자료 2]의 '못'은 [자료 1]의 '연못'이 부부간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환기하는 공간으로 변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43-45] 문학~고전 시가

지문 분석

박인로 「상사곡(相思曲)」

작품 감상 전편에 걸쳐 임과 이별한 화자가 임을 사모하는 심정을 노래한 박인로의 작품이다. 화자는 임과의 이별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리움, 임에 대한 기다림, 임에 대한 변함없는 일념을 형상화하고 있다. 여기서 사랑하는 임은 임금이며, 화자는 신하라 할 수 있어 이 작품은 충신연주지사라 할 수 있다. 기사(起詞)에서는 임과 이별한 화자의 처지를 읊고 있고, 승사(承詞)에서는 이별의 안타까움과 임에 대한 그리움을 그리고 있다. 그리고 전사(轉詞)에서는 임과의 재회를 바라는 심정을 나타내고 있으며, 결사(結詞)에서는 안빈낙도, 안분지족과 임에 대한 변함없는 일념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임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

시구 풀이

- 양대(陽臺) : 남녀 간에 정을 나누는 방
- 청조(靑鳥), 백안(白鴈) :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를 일컫음
- 사택망처(徙宅忘妻) : '이사하면서 아내를 잊고 간다'는 말로 가장 중요한 일을 잊는 일을 말함
- 사광(師曠) : 아주 총명한 인물
- 청심원 소합환 : 명약
- 고향(膏肓) : 오래되어 고치기 어려운 병
- 비익조 : 눈도 날개도 한쪽에만 달려 있어 암컷과 수컷이 좌우 한 몸이 되어 야 비로소 날 수 있는 전설상의 새
- 연리지 : 뿌리가 다른 나뭇가지가 서로 엉켜 마치 한 나무처럼 자라는 것

43 작품의 특징 파악하기

정답 ①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84%	5%	2%	5%	1%
--------------	-----	----	----	----	----

해설 화자는 '천지간에 어느 일이 남들에게 서러운가'라고 스스로 묻고, '아마도 서러운 건 임 그리워 서럽도다'라고 스스로 대답을 하는 자문자답의 방식으로 임에 대한 그리움을 부각하고 있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것은 ①이다.

|오답풀이| ② 현실의 부정적 현상이나 모순 따위를 빗대어 비판적으로 표현하는 풍자의 기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또한 떠나간 임에 대한 서운함도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③ 말을 재미있게 표현하는 언어유희는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이별의 현실을 수용하는 태도가 담담한 것이 아니라 이별로 인한 아픔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사람이나 사물의 모양이나 움직임을 흉내 내는 의태어를 나열하여 외로움을 시각적 이미지로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⑤ 참뜻과는 반대되는 말을 하여 문장의 의미를 강화하는 반어적 표현은 나타나지 않으며, 임에 대한 자신의 애정이 식어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오히려 임에 대한 애정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44 구절의 의미 파악하기 정답 ④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4%	2%	3%	87%	2%
--------------	----	----	----	-----	----

|해설| ㉠의 ‘처음 인연 맺을 적에 이리되자 맺었던가’는 화자가 임과의 이별을 예견하지 못했음을 드러내는 시구이다. 여기서 ‘처음’은 인연을 맺었던 때를 가리키며, ‘이리되자’는 임과 이별한 현재의 상황을 나타낸다. 이는 임과의 예정된 이별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처음에 예견하지 못했던 임과의 이별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④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은 경치가 좋은 시절에 임을 볼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서러운 심정을 표현한 것이다. ② ㉡은 임을 그리워하면서도 보지 못하는 ‘하루’가 ‘삼 년’과 같이 길게 느껴진다는 의미인데, 시어의 대비를 통해 임을 기다리는 간절한 정서를 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은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시구인데, 임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한 고통을 나타내고 있다. ⑤ ㉤에서 ‘은하’는 임과 화자 사이를 가로막는 존재로 제시되어 있는데, ‘은하’를 통해 임과 만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화자의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45 고사를 통한 작품 이해하기 정답 ⑤

선지별 선택비율/정답률	2%	6%	3%	2%	84%
--------------	----	----	----	----	-----

|해설| 화자는 짝을 지어아만 날 수 있다는 ‘비익조’처럼 서로 떨어지지 않는 부부가 되어 가난하게 살망정 이승에서 사는 동안에는 이별하지 않기를 원했음을 말하고 있다. 이는 화자의 바람을 표출한 것일 뿐, 화자와 임이 재회할 운명임을 말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⑤와 같이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청조’는 소식을 전해 주는 새인데, 화자는 자신에게 이러한 존재가 없음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화자가 ‘청조’를 활용한 것은 화자와 임 사이에 소식이 끊겼음을 말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② ‘사택망치’는 매우 중요한 일을 놓쳐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화자는 ‘사택망치’한 이가 차라리 부러울 정도로 임을 잊기 어려워하고 있음을 말하고자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③ 화자는 기억력이 뛰어난 ‘사광’일지라도 임에 대한 자신의 기억력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이해이다. ④ 임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해 깊은 병이 들었지만, ‘편작’일지라도 화자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은 임에 대한 그리움이 매우 깊음을 말하는 것이다.

재치동기출 既出

고득점을 기원합니다.

|등급컷

등급	1	2	3	4	5	6	7	8
원점수	91	86	78	70	60	47	33	22
나의 점수	[] 점				[] 등급			

|오답률 Best 5

순위	1	2	3	4	5
번호	42	33	11	13	29
오답률(%)	53	46	36	31	27



Memo





Memo

